

# 朝鮮時代 文集(鵝洲申氏編 下)

아주신씨 종친회(鵝洲申氏 宗親會)

아주신씨 시조바로세우기 협의회







구봉선생문집(九峯先生文集) 김수인(金守訥)	447
근시재선생문집(近始齋先生文集) 김해(金垓)	454
낙재선생문집(樂齋先生文集) 서사원(徐思遠)	459
노암선생문집(魯庵先生文集) 김종일(金宗一)	467
눌은선생문집(訥隱先生文集) 이광정(李光庭)	480
대암선생집(大菴先生集) 박성(朴惺)	507
동계문집(東溪文集) 조형도(趙亨道)	513
둔헌선생집(遯軒先生集) 이홍유(李弘有)	526
망우선생문집(忘憂先生文集) 곽재우(郭再祐)	531
매산선생문집(梅山先生文集) 정중기(鄭重器)	539
매창선생문집(梅窓先生文集) 정사신(鄭士信)	552
명고선생문집(鳴臯先生文集) 정간(鄭幹)	557
백암선생문집(栢巖先生文集) 김륵(金玊)	574
서계선생문집(西溪先生文集) 이득윤(李得胤)	583
서담선생문집(西潭先生文集) 홍위(洪瑋)	590
성재선생문집(惺齋先生文集) 금난수(琴蘭秀)	602
소산선생문집(小山先生文集) 이광정(李光靖)	608
소암선생문집(所菴先生文集) 이병원(李秉遠)	617
송소선생문집(松巢先生文集) 권우(權宇)	629
송정선생문집(松亭先生文集) 하수일(河受一)	634
오한선생문집(鰲漢先生文集) 손기양(孫起陽)	642
유헌선생문집(遊軒先生文集) 장석룡(張錫龍)	652
이계선생문집(伊溪先生文集) 남몽뢰(南夢賚)	661
인재선생문집(訥齋先生文集) 최현(崔暉)	681
임여재선생문집(臨汝齋先生文集) 유규(柳規)	695
자암집(紫巖集) 이민환(李民賓)	709
장암선생집(丈巖先生集) 정호(鄭濤)	722
제암집(濟庵集) 김종섭(金宗燮)	733

척암선생문집(拓菴先生文集) 김도화(金道和)	-----747
청대선생문집(淸臺先生文集) 권상일(權相一)	-----767
하음선생문집(河陰先生文集) 신증(申楫)	-----779
학고선생문집(鶴臯先生文集) 김이만(金履萬)	-----788
학사선생집(鶴沙先生集) 김응조(金應祖)	-----794
학서선생문집(鶴棲先生文集) 유태좌(柳台佐)	-----808
학송집(鶴松集) 전유형(全有亨)	-----819
후계집(後溪集) 이이순(李頤淳)	-----831
후산선생문집(后山先生文集) 이종수(李宗洙)	-----840

## 감호선생문집(鑑湖先生文集)

### 형태서지

권수제	감호선생문집(鑑湖先生文集)
판심제	감호선생문집(鑑湖先生文集)
간종	목판본(木版本)
간행년	1860년 간행
권책	3권 2책
행자	10행 20자
규격	20.8×17.8(cm)
어미	上下二葉花紋魚尾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도서번호	古 3428-496
총간집수	한국문집총간 속 7

### 형태서지

성명	여대로(呂大老)
생년	1552년(명종 7)
몰년	1619년(광해군 11)
자	성우(聖遇)
호	감호(鑑湖)
본관	성산(星山)
특기사항	장현광(張顯光), 정경세(鄭經世) 등과 교유

행력

왕력		서기	간지	연호		연령	기사
명종	7	1552	임자	嘉靖	31	1	3 월 17 일, 金山 耆洞里에서 태어나다.
명종	14	1559	기미	嘉靖	38	8	모친상을 당하다.
선조	10	1577	정축	萬曆	5	26	부친상을 당하다.
선조	15	1582	임오	萬曆	10	31	진사시에 합격하다.
선조	16	1583	계미	萬曆	11	32	별시 문과에 합격하다.
선조	24	1591	신묘	萬曆	19	40	6 월, 成均館 博士가 되다.
선조	25	1592	임진	萬曆	20	41	5 월, 義兵을 일으켜 權應聖을 부장으로 삼고 居昌에서 郭越, 文緯와 합류하다. ○ 6 월, 招諭使 金誠一이 狀聞하여 형조 좌랑, 知禮 縣監이 되다. ○ 8 월, 松庵 金沔과 협력하여 왜적을 무찌르다.
선조	27	1594	갑오	萬曆	22	43	義城 縣令으로서 明軍을 위한 道內 糧料官이 되다.
선조	30	1597	정유	萬曆	25	46	忘憂堂 郭再祐와 火旺山城에 들어가 의병 모집을 상의하다.
선조	33	1600	경자	萬曆	28	49	예조 좌랑, 병조 좌랑이 되다.
선조	34	1601	신축	萬曆	29	50	3 월, 張顯光, 徐思遠과 琴湖에서 뱃놀이하며 주자의 <漁艇詩>를 차운하고 서문을 짓다. ○ 겨울, 충청도 도사가 되다.
선조	36	1603	계묘	萬曆	31	52	高山 察訪이 되다.
선조	37	1604	갑진	萬曆	32	53	大丘 判官이 되다.
선조	38	1605	을사	萬曆	33	54	종묘서 영, 성균관 직강, 예조 정랑, 사헌부 지평이 되다.
선조	40	1607	정미	萬曆	35	56	陝川 郡守가 되다. ○ 鄭仁弘, 李爾瞻의 사람됨을 미워하다가 파직되다.

광해군	6	1614	갑인	萬曆	42	63	金山 縣令이 되다.
광해군	7	1615	을묘	萬曆	43	64	봄, 兎山으로 유배되는 吳長을 전송하다.
광해군	11	1619	기미	萬曆	47	68	6 월 26 일, 즐하다. ○ 金泉 禦侮谷에 장사 지내다.
숙종	36	1710	경인	康熙	49	—	증손 呂文徵이 문집을 초간하다.
철종	11	1860	경신	咸豐	10	—	9 대손 呂纘祖가 문집을 중간하다.

### 편찬및간행

저자의 저술은 병화로 대부분 소실되고 남아 있는 것이 거의 없었는데, 저자의 손자 대에 이르러 묘도 문자를 정리하면서 유고에 대한 정리도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姜鶴年(1585~1647)이 지은 묘지에 저자의 사위 姜滌이 1646 년에 저자의 遺集을 가지고 와서 손자 呂澈, 呂滂과 함께 묘명을 청하였다고 하였으니, 이때 어느 정도 유고에 대한 정리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간행되지는 못하였다.

여경의 아들 呂文徵이 선대 때 정리된 것을 바탕으로 閔興道(1655~1710)의 서문과 洪萬朝(1645~1725)의 발문을 받아 1710 년에 목판으로 간행하였다.《초간본》 그러나 이 본은 유포하기 전에 화재로 유실되어 전하지 않는다.

그 후 후손 呂思汲이 족질 呂學祖가 지은 家狀을 鄭象履(1774~1848)에게 보이면서 行狀을 받고 이에 부록을 첨부하여 重刊을 시작하려 하였으나 바로 간행하지는 못하였고, 9 세손 呂纘祖, 呂學祖 등이 증보 재편하여 1860 년에 목판으로 간행하였다.《중간본》 이 본은 규장각(古 3428-496), 국립중앙도서관(한 46-가 1585),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D1-A2448),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성균관대학교 존경각(D3B-1211) 등에 소장되어 있다.

본서의 저본은 증손 呂文徵이 1710 년에 목판으로 초간한 후, 9 세손 呂纘祖 등이 증보 재편하여 1860 년에 목판으로 간행한 중간본으로 규장각장본이다.

序(閔興道 撰), 重刊序(柳致明 撰), 跋(洪萬朝 撰), 識(呂文徵 撰) 등에 의함

### 구성과내용

본집은 3 권 2 책이다. 권수에 閔興道가 1710 년에 지은 서, 柳致明이 1860 년에 지은 중간서, 總目이 있다.

권 1 은 詩(176 題), 賦(4), 箋(2)이다. 시는 시체별로 수록되어 있는데, 古詩(10), 排律五言(3), 五言律詩(47), 七言律詩(72), 五言絶句(6), 七言絶句(38)이다. 고시는 이별의 슬픔을 읊은 <遠別離>, 친구들과 琴湖에서 뱃놀이하며 지은 <琴湖船遊與諸友分韻得載字>, 金瞻·權應聖에 대한 만시 등이다. 오언 배율은 金浹을 전송하는 시, 黃俊元和 李淳에 대한 만시이다. 오언 율시는 李舜齡·金德章·柳成龍·卞汝雍의 시를 차운한 시, 漁牧亭·四美亭 등에 대한 시를 차운한 시, 琴愷의 내방을 사례한 시, 환향하는 申之梯, 輸城으

로 부임하는 李三省, 일본으로 사신 가는 黃愼, 兎山으로 귀양 가는 吳長을 전송한 시, 韓景祉·權景虎·李大約·申夢得·鄭鎰 등에 대한 만시 등이다. 칠언 율시의 <次金兵使博淵亭十四景韻>은 金太虛의 정자에 대해 읊은 것으로 平蕪淺綠·菊庭梧葉·古城晴雪 등 주변의 경치를 사계절에 따라 읊은 것이다. 이외에 覺華寺에서 유성룡의 시를 차운한 것, 咸昌에서 唐將 呂應鍾의 시를 차운한 것, 會寧으로 귀양 가는 金宇顥, 晉陽으로 돌아가는 鄭潛, 북병영으로 부임하는 李守一을 전송하는 시, 金宇顥·宋遠器·郭宗慶·裴興立·成允德 등에 대한 만시 등이다. 오언 절구는 鄭經世와 이별하는 시, 南原 府使 慶暹에게 보내는 시 등이다. 칠언 절구는 黑雲洞·矗石樓 등을 유람한 시, 申翬·李瑀·朴而章의 시를 차운한 시, 李汝樑·權應時에 대한 만시 등이다. 賦의 <從橫>은 舍從連橫說에 대해 논한 것으로 秦을 섬기고 배척하는 차이는 있다 해도 王道를 말하지 않은 죄는 같다고 한 것이다. <遙祭五國城>은 宋의 徽宗과 欽宗이 잡혀가 있던 오국성에 대한 내용이다. 箋은 <誕日箋>과 <吉禮箋>이다.

권 2 는 祭文(2), 序(2), 呈文(3), 誌銘(4), 書(21), 論(1), 策(2)이다. 제문은 李宗澤, 權景虎에 대한 것이다. <琴湖同舟詩序>는 徐思遠, 張顯光 등과 琴湖에서 뱃놀이하며 지은 것이고, <金山鄉案重修序>는 임진왜란 때 불타 버린 鄉案을 중수하며 지은 것이다. 呈文은 裴仁範의 처 金氏의 정렬과 아들 呂興立의 孝를 표창해 주기를 청하는 것, 鄭維翰의 처 李氏의 정렬을 표창해 주기를 청하는 것 등이다. 誌銘은 장모인 柳景深의 妻 裴氏의 묘지, 尹大鳴의 묘갈, 蛇梁 僉使 李弘明의 碑誌 등이다. 편지는 鄭述, 金長生, 李好閔, 趙靖 등과의 편지로 일상적인 안부를 전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뒷부분에 실려 있는 자식들에게 준 편지는 학문에 힘쓸 것을 권하는 것이다. 책문은 太極圖에 대해 논한 것, 병사와 군량에 대해 논한 것이다.

권 3 은 부록이다. 鄭經世·張顯光·李好閔·李俊·柳衫 등이 지은 輓詞(70), 鄭維城·呂德老가 지은 祭文(2), 鄭象履가 지은 行狀, 姜鶴年이 1646 년에 지은 墓誌, 柳命天이 1693 년에 지은 墓碣銘,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킨 일을 기록한 <倡義實略>, 현손 呂以鳴이 지은 <金陵誌>, 盧啓元이 지은 松溪書院의 上樑文, 金夢華가 지은 鏡陽書院의 상량문, 李師靖이 지은 奉安文, 姜世晁이 지은 常享祝文, 趙虎然이 지은 敬陽書院을 중수할 때의 상량문 등이다.

권말에 洪萬朝가 1709 년에 지은 발과 증손 呂文徵이 1710 년에 지은 지가 실려 있다.

## 여대로(呂大老)

### 정의

조선시대 대구판관, 사헌부지평, 합천군수 등을 역임한 문신·의병장.

### 개설

본관은 성주(星州). 자는 위수(渭叟)·성우(聖遇), 호는 감호(鑑湖). 여희망(呂希望)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여종호(呂從漢)이고, 아버지는 정자 여응구(呂應龜)이다. 어머니는 신일(辛駟)의 딸이다. 조식(曹植)의 문인이다.

### 생애 및 활동사항

1582년 진사시에 합격하고 이듬해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 성균관박사가 되었다. 임진왜란 때 권응성(權應星)과 함께 김산에서 의병을 일으켜 권응성을 가장(假將)으로 삼고, 의병장 김면(金沔)과 협력하여

지례·김산의 적을 거창 부근에서 격파하여 공을 세웠다.

적을 격파하고 군량을 관장한 공으로 형조좌랑·지례현감·대구판관·사헌부지평·합천군수 등을 지냈다. 이조참의에 추증되고, 경양사(鏡陽祠)에 봉향되었다.

卷之一 / 五言律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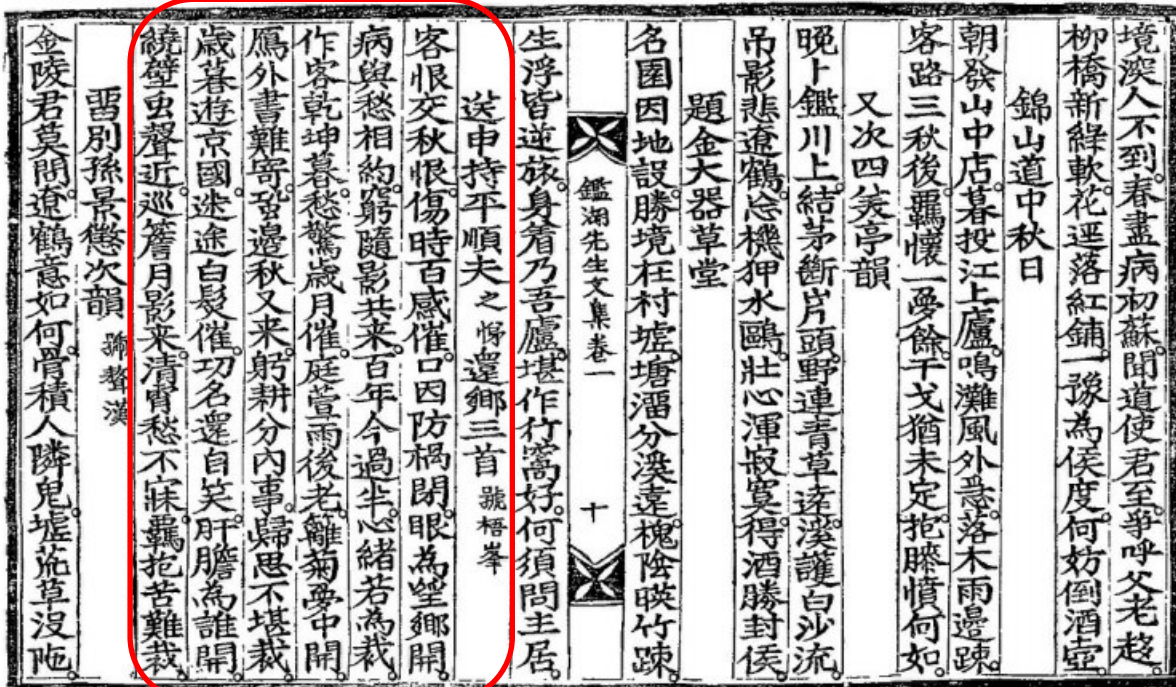
송신지평순부(送申持平順夫) 之悌 환향(還鄉) 三首○號梧峯

14世 지제(之悌) 父 : 몽득(夢得) 祖父 : 응규 (應奎) 귀파(龜派)오봉공파(梧峰公派)

客恨交秋恨。傷時百感催。口因防禍閉。眼爲望鄉開。病與愁相約。窮隨影共來。百年今過半。心緒若爲裁。

作客乾坤暮。愁驚歲月催。庭萱雨後老。籬菊夢中開。鴈外書難寄。蛩邊秋又來。躬耕分內事。歸思不堪裁。

歲暮遊京國。迷途白髮催。功名還自笑。肝膽爲誰開。繞壁虫聲近。巡簷月影來。清宵愁不寐。羈抱苦難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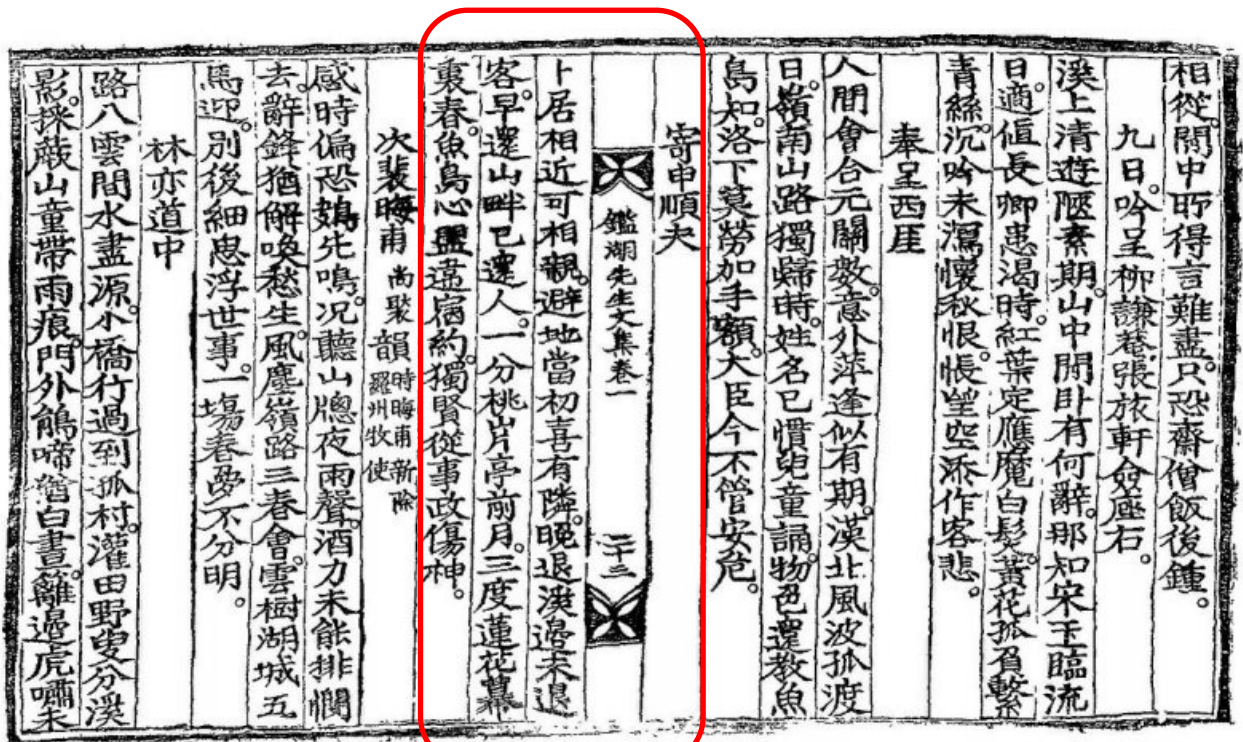
卷之一 / 七言律詩

기신순부 寄申順夫

14世 지제(之梯) 父 : 몽득(夢得) 祖父 : 응규 (應奎)

귀파(龜派)오봉공파(梧峰公派)

卜居相近可相親。避地當初喜有隣。晚退溪邊未退客。早還山畔已還人。一分桃岸亭前月。三度蓮花幕裏春。魚鳥心盟違宿約。獨賢從事政傷神。



鑑湖集 卷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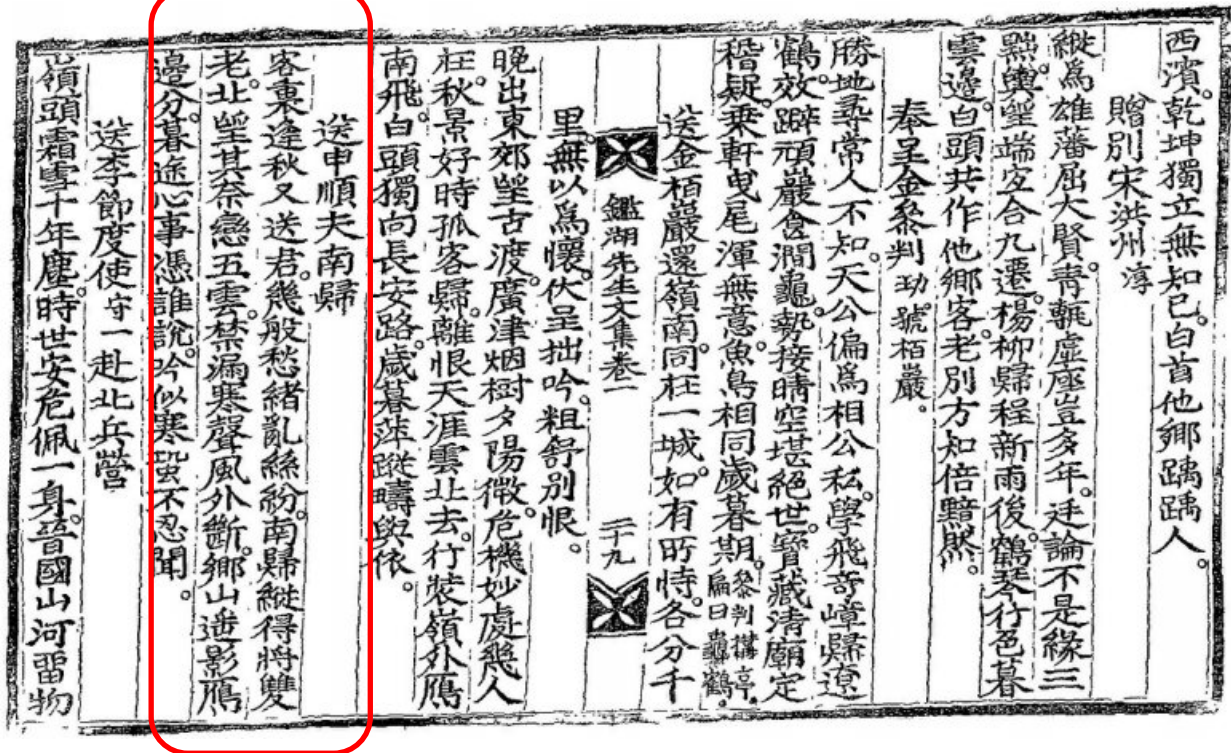
송신순부남귀 送申順夫南歸

14세 지제(之梯) 父 : 몽득(夢得) 祖父 : 응규 (應奎)

귀파(龜派)오봉공파(梧峰公派)

客裏逢秋又送君。幾般愁緒亂絲紛。南歸縱得將雙老。北望其奈戀五雲。禁漏寒聲風外斷。鄉山遙影鴈邊分。暮途心事憑誰說。吟似寒蛩不忍聞。

鑑湖集 卷一



## 강고선생문집(江臯先生文集)

## 형태서지

권수제	강고선생문집 원집(江臯先生文集 原集)
판심제	강고선생문집(江臯先生文集)
간종	목판본(木版本)
간행년	1852 년 간행
권책	19 권 10 책
행자	10 행 18 자
규격	21.3×18.6(cm)
어미	上下二葉花紋魚尾
소장처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소장도서번호	811.98/유심춘/강-판
총간집수	한국문집총간 속 106

## 저자

성명	유심춘(柳尋春)
생년	1762 년(영조 38)
몰년	1834 년(순조 34)
자	상원(象遠), 상수(象叟)
호	강고(江臯)
본관	풍산(豊山)
특기사항	정종로(鄭宗魯)의 문인. 강세백(姜世白), 이경유(李敬儒), 정필규(鄭必奎) 등과 교류

## 행력

왕력		서기	간지	연호		연령	기사
영조	38	1762	임오	乾隆	27	1	8월 24일, 尙州 愚川里에서 태어나다.
영조	47	1771	신묘	乾隆	36	10	舊堂 趙沐洙와 可隱 趙學洙에게 나아가 수업하다.
영조	52	1776	병신	乾隆	41	15	12월, 생부상을 당하다. ○ 백부의 양자가 되다.
정조	2	1778	무술	乾隆	43	17	「心經」, 「近思錄」을 읽다.
정조	3	1779	기해	乾隆	44	18	가을, 鄉解에 장원하다.
정조	4	1780	경자	乾隆	45	19	固城李氏 李宜秀의 딸과 혼인하다.
정조	5	1781	신축	乾隆	46	20	봄, 修巖 柳軫의 묘를 살피고, 柳成龍을 향사한 南溪書院에 가다.
정조	6	1782	임인	乾隆	47	21	9월, 조부상을 당하다.
정조	9	1785	을사	乾隆	50	24	가을, 鄉解에 합격하다.
정조	10	1786	병오	乾隆	51	25	봄, 生員 覆試에 합격하다. ○ 속리산을 유람하다. ○ 4월, 安東 壽洞의 유성룡 묘를 참배하다.
정조	12	1788	무신	乾隆	53	27	겨울, 鄭宗魯의 문하에서 遊學하다. ○ 蘆厓 柳道源이 내방하다.
정조	14	1790	경술	乾隆	55	29	6월, 부인상을 당하다.
정조	15	1791	신해	乾隆	56	30	11월, 모친상을 당하다.
정조	18	1794	갑인	乾隆	59	33	12월, 商山金氏 金鼎曄의 딸과 혼인하다.
정조	19	1795	을묘	乾隆	60	34	5월, 남쪽으로 유람하여 慶山 任所에 있는 族叔 臨汝齋 柳塗를 뵈다. ○ 玉山書院의 晦齋 李彥迪 사우를 참배하다. ○ 11월, 李益運, 林濟遠의 천거로 副司勇이 되다.
정조	20	1796	병진	嘉慶	1	35	2월, 거주서, 孝陵 參奉이 되다. ○ 3월,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다. ○ 7월, 선공감 감역이 되었으나 나아가

							지 않다. ○ 10 월, 灑掃齋로 가서 조목수와 조학수를 배알하다.
정조	21	1797	정사	嘉慶	2	36	1 월, 長水 縣監이 되다. ○ 3 월, 아들을 곡하다.
정조	22	1798	무오	嘉慶	3	37	1 월, 通訓大夫에 오르고 元子宮 講學廳 僚屬이 되다. ○ 4 월, 鎭川 縣監, 靑陽 縣監이 되다. ○ 5 월, 강학청에서 「論語」, 「孟子」, 〈西銘〉을 進講하다. ○ 12 월, 아들 柳厚祚와 柳孝祚가 태어나다.
정조	24	1800	경신	嘉慶	5	39	1 월, 右翊贊이 되다. ○ 3 월, 李志淳, 柳台佐와 함께 白馬江, 炭峴, 阜蘭寺, 落花巖 등의 명승지를 유람하다. ○ 5 월, 사어가 되다. ○ 9 월, 사과, 寧陵 守이 되다.
순조	1	1801	신유	嘉慶	6	40	3 월, 丹城 丹溪를 유람하고 德山書院에 가서 南冥 曹植을 참배하다. 진주에 가서 축석루에 오르고 碧寒亭과 涵碧樓에 들르다. 선조 유진의 萬古仁淸碑를 奉審하다. ○ 5 월, 屏山書院 尊德祠를 참배하다.
순조	2	1802	임술	嘉慶	7	41	7 월, 貞陵 守이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 10 월, 南漢 暉, 趙承洙, 李垞 등과 靑蓮菴에 모여 「심경」을 강론하다.
순조	3	1803	계해	嘉慶	8	42	3 월, 道南書院의 講會에 참석하다. ○ 10 월, 남한호, 趙述舜 등과 靑龍寺에서 「근사록」을 通讀하다.
순조	4	1804	갑자	嘉慶	9	43	3 월, 廬江書院 尊道祠를 참배하고 陶淵에 들르다. ○ 鳳停寺, 中臺寺, 廣興寺를 유람하고 西美洞에 가서 弄丸齋 遺址를 봉심한 뒤 遠志精舍에서 族親과 회동하다.
순조	5	1805	을축	嘉慶	10	44	柳千之의 文藁와 先世의 遺蹟을 수습하다.
순조	6	1806	병인	嘉慶	11	45	2 월, 손자 柳鎭翼과 鼎谷菴에서 朱書를 강론하다. ○ 金熙周와 함께 靑巖亭 石泉精舍를 방문하고 三溪書院을 참배한 후 돌아오는 길에 龜鶴亭, 金玊의 舊居를 돌아보다.
순조	7	1807	정묘	嘉慶	12	46	8 월, 嶺南樓에 오르고 月淵亭, 七灘亭을 유람하다.
순조	9	1809	기사	嘉慶	14	48	2 월, 愚山 講會에 나아가다. ○ 8 월, 南溪書院 釋菜禮에 참여하다. ○ 10 월, 南山書院을 참배하다.
순조	11	1811	신미	嘉慶	16	50	8 월, 忠勳府 都事가 되다.
순조	12	1812	임신	嘉慶	17	51	1 월, 高城 郡守가 되다. ○ 4 월, 아들 유후조와 유효조의 冠禮를 치르다. 좌익찬이 되다. ○ 8 월, 居室에 ‘二勤窩’



							라고 편역하다. ○ 12 월, 아들 柳敎祚가 태어나다.
순조	13	1813	계유	嘉慶	18	52	息山 李萬敷의 문집을 교정하다.
순조	15	1815	을해	嘉慶	20	54	3 월, 義城 縣令이 되다.
순조	16	1816	병자	嘉慶	21	55	6 월, 정종로를 곡하다. ○ 7 월, 벼슬을 그만두고 귀향하다.
순조	18	1818	무인	嘉慶	23	57	姜世白, 李敬儒 등과 洛巖書院에 모여 시를 짓다.
순조	19	1819	기묘	嘉慶	24	58	1 월, 생모상을 당하다. ○ 3 월, 전설사 별제가 되다.
순조	22	1822	임오	道光	2	61	봄, 渭川書窩에 머물며 「啓蒙疑義」를 강하다.
순조	23	1823	계미	道光	3	62	1 월, 陶山書院에 가서 正朝禮에 참여하다.
순조	28	1828	무자	道光	8	67	7 월, 洛巖, 觀水樓를 유람하고 도남서원에서 강회를 열어 「大學」을 통독하다.
순조	29	1829	기축	道光	9	68	봄, 李德弘의 「艮齋集」續集을 교정하다. ○ 北長寺에 모여 정종로의 문집을 編次하다. ○ 8 월, 先墓를 돌아보고, 오는 길에 白蓮菴에 들러 「심경」을 강하다. ○ 10 월, 三江書院을 참배하다. ○ 11 월, 衛從司 左長史가 되었으나 연로하여 나아가지 않다.
순조	30	1830	경인	道光	10	69	4 월, 玉洞書院에서 「大學或問」을 강하다. ○ 10 월, 통정대부에 오르고 敦寧府 都正이 되다.
순조	31	1831	신묘	道光	11	70	1 월, 德溪 吳健의 年譜를 편차하다. ○ 여름, 金烏山을 유람하다. ○ 가을, 臨汝齋 柳逢의 문집을 교정하다.
순조	32	1832	임진	道光	12	71	3 월, 鳳停寺의 「樊巖集」刊所를 방문하다. ○ 4 월, 新湖에 우거하다. ○ 유성룡의 문집 重刊本을 교정하다.
순조	33	1833	계사	道光	13	72	12 월, 부인상을 당하다.
순조	34	1834	갑오	道光	14	73	3 월 5 일, 이근와에서 즐하다. ○ 10 월, 醴泉郡 桐梅에 장사 지내다.
철종	3	1852	임자	咸豐	2	—	손자 柳疇睦이 道南書院에서 목판으로 原集을 간행하다.

## 편찬및간행

저자는 柳成龍의 7대손으로 學行으로 천거되어 三朝에 걸쳐 시강원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성리학에 조예가 깊었으며 士林의 遺稿를 정리하는 일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저자의 사후 손자 柳疇睦(1813~1872)이 1840년 家藏되어 오던 遺稿를 수습하고 동시에 각처에 흩어져 있던 유문을 모아서 수십 卷을 얻고, 이것을 저자의 문인들과 수차례 攷證 校讎하여 10篇으로 정리하였다. 이후 1848년 사림의 협조를 받아 尙州 道南書院에서 문집을 판각하였으나, 바로 인출하지 않고 다시 수정을 거쳐 1852년에 補刊을 완료하였다. 《原集》이 본은 현재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811.98/유심춘/강-판), 규장각(古 3428-520) 등에 年譜와 합본하여 11책본으로 소장되어 있다. 이 밖에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D1-A1637), 성균관대학교 존경각(D3B-2671) 등에는 19권 10책의 원집으로만 되어 있는 본이 있다.

한편, 목판으로 간행된 2권 1책의 「江臯先生年譜」가 전하는데, 권 1에는 年譜, 권 2에는 附錄文字가 수록되어 있다. 간행 시기는 연보 말미를 살펴보면 高宗 2년인 1865년 저자가 이조 판서에 추증된 것을 기록한 기사의 시작 부분에 “今上二年乙丑”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아 고종 연간에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年譜》이 본은 현재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811.98/유심춘/강-판), 규장각(古 3428-520) 등에 원집과 합본하여 소장되어 있다.

본서의 저본은 저자의 손자 柳疇睦이 1852년 목판으로 간행한 원집과 고종 연간에 목판으로 간행된 연보로서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장본이다. 본 영인저본 중 원집 권 10의 제 34 판은 제 24 판으로 잘못 結冊되어 있고, 권 10의 제 34 판은 落張이므로 동일본인 규장각장본으로 대체 보충하였다.

王考江臯先生文集告成文(柳疇睦 撰, 溪堂集 卷 11), 年譜 등에 의함

## 구성과내용

본집은 原集 19권 10책과 年譜 2권 1책으로 되어 있다.

원집은 권수에 目錄이 수록되어 있다.

권 1은 詩(138題)이다. 시체와 관계없이 저작 연대순으로 편차되어 있으며 저자의 自註가 간혹 달려 있다. 金憲敬, 趙述舜, 姜鳳欽, 柳象春, 李敬儒, 姜世白, 姜長欽, 姜世揆, 李升培, 黃礪老, 鄭象晉, 鄭必奎 등과 어울려 지은 시가 많고, 杜甫, 李滉, 柳成龍, 柳軫, 鄭宗魯 등의 시에 차운한 것이 있다. 만시는 金翰東, 李鎭東, 姜碩龜, 趙錫晦, 이경유, 강세백, 康胤祖, 南漢皜, 姜世闇 등에 대한 것이다. 1813년 北長寺에 모여 「息山集」을 교정하며 지은 시와 강세규, 이승배, 정필규 등과 북장사에서 「立齋集」을 교정하며 지은 시가 눈에 띈다.

권 2는 疏(6)이다. <應旨疏>는 1796년 孝陵 參奉이 되어 올린 글로 「中庸」의 九經을 천하를 다스리는 대경대법이라고 진달하는 한편 당시의 폐해를 還政, 良役, 田政, 籍政, 販鹽, 奴婢의 문제로 나누고 구제책까지 제시하였다. <上農書>는 1798년 農書를 구하는 正祖의 명에 응하여 지은 것이다. <擬上東宮輔翼篇疏>는 3朝에 걸쳐 講學廳의 僚屬을 역임한 저자가 東宮에게 지침이 되는 문구를 經書에서 뽑아 나열하고 자신의 해설과 함께 의견을 붙인 <東宮輔翼篇>을 올리기 위해 지은 상소이다.

권 3~7은 書(262)이다. 정종로, 李承延, 李憲儒, 姜碩龜, 權思浩, 洪錫胤, 柳相祚, 李載延, 金熙周, 曠 柳台佐, 朴光錫, 정필규, 柳軾 등에게 보낸 편지로 양이 방대하여 폭넓은 교유관계를 보여 준다. 내용은 주

로 안부를 묻고 전하는 것이 많고 이 외에 禮制, 性理學 등 학문적 문제, 문집의 편집 교정에 대한 문제, 관직 생활의 애로사항, 서원의 대소사에 대한 의견 등 다양하다. 內兄 趙學洙와 李存秀 등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糴政과 太還 등의 병폐로 인한 백성의 고통을 걱정하였고, 족질 유태좌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長水 縣監으로 부임 당시 가장 큰 문제인 簽丁의 피해를 토로하며 의견을 구하고 柳世鳴의 「寓軒集」을 교정하는 문제를 상의하였다. 또 여러 동료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鄭經世의 年譜를 간행하기 위해 주고 받은 의견들이 보이는데, 특히 정상리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조목을 나누어 편차와 교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카와 아들, 손자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任地에서 집안일과 자식의 몸가짐을 걱정하는 마음이 드러나 있다.

권 8~9는 雜著(8)이다. <朱書節疑>는 「朱子書節要」에서 중요하거나 의문이 가는 부분을 뽑아서 해석하고 본인의 생각을 정리한 내용이다. <靑武講義>는 1798년 靑武書院에서 族兄인 柳長春과 經史의 疑難處에 대하여 나누는 학문적 토론을 節記의 형식으로 기술하였다. 이 외에 장수 현감으로 있을 때 講學者들에게 지침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은 <諭長水鄉校都訓長文>과 <諭長水各塾訓長文>, 儉約을 덕의 근본이라고 여기고 의복의 규칙을 정한 <儉說>, 金秀直의 字를 지어 주고 쓴 <金元方字說>과 <自銘錄>, <自警說>이 있다.

권 10은 序(22), 記(4), 跋(8)이다. 서에는 金基報의 「蒼筠遺稿」, 文緯의 「茅溪集」, 李混의 「蒙菴遺集」, 李蒔의 「善迂堂逸藁」, 정종로의 「입재집」, 林眞愆의 「林谷集」 등 문집에 붙인 서문과 桃村 李秀亨, 雪壑齋 鄭矩의 實記에 대한 서문, 咸陽吳氏, 星州李氏, 晉陽河氏의 族譜에 붙인 서문 등이 있다. 기에는 盧尙樞의 부탁으로 지은 忠孝閣과 永懷堂에 대한 기문 등이 있다. 발은 河演의 「敬齋集」, 李德弘의 「良齋集」, 續集, 李孟專의 「耕隱集」, 李軫의 「松塢集」, 鄭榮邦의 「石門集」, 孫起陽의 「聲漢集」, 河潛의 「台溪集」과 德溪 吳健의 年譜에 붙인 것이다.

권 11은 발(13), 傳(3), 箴(1), 銘(2), 上樑文(8)이다. 발에는 石之珩의 「壽峴集」 重刊을 앞두고 지은 것과 李汝積의 「炊沙集」, 金彦健·金覺 父子의 「芸亭石川世藁」, 姜鳳文의 「玉溪遺藁」에 붙이는 書後, 宋楠과 효자 李得源의 行蹟 후서 등이 있다. 전은 효녀 李良淑의 女, 津村의 효부 吳氏, 최씨 집안의 효부 俞氏에 대한 것이다. 잠은 자신을 경계한 <元日箴>이다. 명은 자녀들을 독려한 <誠勤銘書示兒輩>, 張漢信을 위해 지은 <養拙堂銘>이다. 상량문은 龍湖書院, 文山書院, 古巖書院을 重修, 重建할 때 지은 것과 弄清臺와 葛川亭, 竹月軒에 대한 것이다.

권 12는 奉安文·告由文·常享祝文(43)이다. 退谷書院, 고암서원, 梧山書院, 伊陽書院, 德南書院, 西岡書院, 廬陽書院, 龜川書院, 芙蓉江祠, 景山祠, 梅谷祠 등의 봉안문과 이에 따르는 상향축문이 있고, 芝岡祠, 洛岳祠, 龍湖祠의 陞院을 고유하는 축문 등이 있다.

권 13은 祭文(36), 誄辭(1)이다. 제문은 의성 현령으로 부임 당시 城隍壇에 올린 제문과 屯德山에 올린 기우제문, 趙時經, 정종로, 李宗岳, 趙錫喆, 趙沐洙, 姜明欽, 李輝玉, 조학수, 李宜秀, 趙南洙 등에 대한 것이고, 뇌사는 宋秉善에 대한 것이다.

권 14는 碑銘(5), 墓碣銘(15)이다. 비명에는 金質幹의 神道碑銘, 呂克誨와 崔誠의 墓碑銘, 李琰이 노닐던 臨淵臺의 遺墟碑銘 등이 있고, 묘갈명은 金義貞, 鄭熙普, 曹光益, 權濩, 金崇德, 金磧 등에 대한 것이다.

권 15는 묘갈명(13)이다. 李球, 宋光啓, 李忠祿, 權克重, 金廷堅, 都應俞, 權相龍, 康用正, 宋燧, 洪宅夏, 蔡荊龜, 金東弼, 張錫義에 대한 것이다.

권 16의 앞부분은 墓誌銘(6)으로 정종로, 金夢華, 趙錫魯, 申之孝, 李熙一, 李庭植에 대한 것이다.

권 16의 뒷부분~19는 行狀(32)이다. 柳世鳴, 金瑛, 鄭翰, 鄭師仲, 宋光廷, 李級, 李蒔, 조목수, 李植國, 徐思選, 姜硯龜, 鄭玉良, 韓克昌, 조학수 등에 대한 것이다.



연보는 별도의 서발문이나 목록이 없다.

권 1은 年譜이다. 1762년 출생부터 1866년 저자가 영의정에 추증된 사실까지 기록되어 있다.

권 2는 附錄이다. 손자 柳疇睦이 지은 家狀, 문인 趙述周가 지은 遺事, 金載恒이 지은 聞見錄, 유상조, 정상진, 박광석 등이 지은 제문 12편이 실려 있고, 1847년 도암서원에 향사되면서 鄭鴻慶이 지은 봉안문과 상향문, 李龜星, 정홍경, 朴光輔 등이 지은 輓詞 13수, 1839년에 安潤耆가 지은 〈請贈爵諡疏〉, 李同淳이 1849년 저자의 〈동궁보익편〉을 철종에게 올리며 지은 상소가 실려 있다.

## 유심춘(柳尋春)

### 정의

조선후기 세자익위사익찬, 돈녕부도정 등을 역임한 문신.

### 개설

본관은 풍산(豊山). 자는 상원(象遠), 호는 강고(江臯). 유성룡(柳成龍)의 후손으로, 아버지는 유광수(柳光洙)이다. 큰아버지 유발(柳潑)에게 입양되었다.

### 생애 및 활동사항

1786년(정조 10) 사마시에 합격하여 생원이 되고, 학행으로 천거되어 세자익위사익찬(世子翊衛司翊贊)을 거쳐 익위(翊衛)가 되었다. 1800년(정조 24) 경연을 열어야 된다고 상소하였다.

1830년(순조 30) 왕의 하교로 3대가 과거에 급제한 것을 치하하고 돈녕부(敦寧府)의 도정에 임명하였고, 1854년(철종 4) 아들 유후조(柳厚祚)가 급제하였으므로 다시 통정대부에 올랐다. 평소에 『주자대전(朱子大全)』을 탐독하여 성리학에 조예가 깊었으며 시문에도 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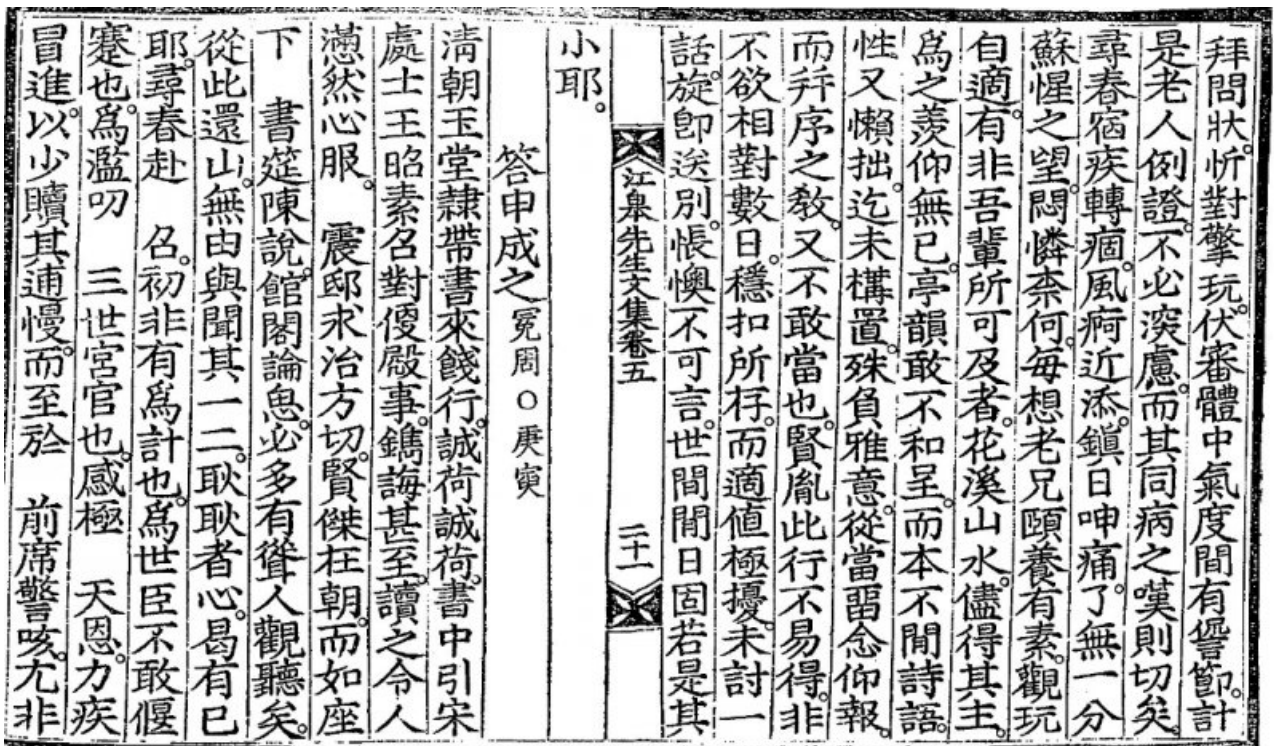
卷之五 / 書

답신성지 면주○경인 答申成之 冕周○庚寅

20世 면주(冕周) 父 : 흥교(弘教) 祖父 : 황(煌) 음파(邑派) 만오공파(晩悟公派)

清朝玉堂隸帶書來錢行。誠荷誠荷。書中引宋處士王昭素召對便殿事。鑄誨甚至。讀之令人慙然心服。震邸求治方切。賢傑在朝。而如座下書筵陳說。館閣論思。必多有聳人觀聽矣。從此還山。無由與聞其一二。耿耿者心。曷有已耶。尋春赴召。初非有爲計也。爲世臣不敢偃蹇也。爲濫叨三世宮官也。感極天恩。力疾冒進。以少贖其逋慢。而至於前席警咳。尤非

● 本分所可議到。滿腔之丹。豈或無之。而睿問之外。未敢一言拖引。固自知甚明故耳。平生所講於心而措諸事爲者。只拙訥是守而已。則依本分做得面前。是亦在我爲報答之一道。他人何以諒此心。而座下豈不是深悉者耶。不得泥守良趾之爻。無以少副親知期望之意。而故山猿鶴。亦將誚怨之不已。所謂吉凶悔吝。生於動者。其以是否。然而昭素愛民寡慾之言。非因宋太祖治世養心之問乎。苟非精義入神者。能隨事中理。終得大吉。而不見小吝。固未易言。所以 ● 古來幾人由於此而敗於此。可不懼哉。惟其分外恩寵。與天無極。未死前此心惶隕。當復如何。而長暇玉音。尤增感激。將以明日扶曳登塗。冰漸未解。餘寒尚峭。老病者之無事歇泊。豈可易耶。遂此飛去如孤鴻。悠悠萬事都不著耳邊奈何。來隸促歸。艸草不宣。



江皋集 卷五

本分所可議到滿腔之丹。豈或無之。而 睿問之外。未敢一言拖引。固自知甚明故耳。平生所講於心而措諸事為者。只拙訥是守而已。則依本分做得面前。是亦在我為報答之一道。他人何以諒此心。而座下豈不是深悉者耶。不得泥守良趾之爰。無以少副親知期望之意。而故山猿鶴。亦將誚怨之不已。所謂吉凶悔吝。生於動者。其以是。然而昭素愛民。寡慾之言。非因宋太祖治世養心之問乎。苟非精義入神者。能隨事中理。終得大吉。而不見小吝。固未易言。所以古來幾人。由於此而敗於此。可不懼哉。惟其分外。恩寵與天無極。未死前此心惶隕。當復如何。而長暇 玉音。尤增感激。將以明日扶曳登塗。冰漸未解。餘寒尚峭。老病者之無事歇泊。豈可易耶。遂此飛去如孤鴻。悠悠萬事都不著耳。邊奈何來。隸促歸。壯草不宣。

答邑誌所 壬辰

江皋先生文集卷五 三二

續拜惠狀。審僉旅候動止。一向衛重。仰慰區區。第以邑誌事。日有勘校之勞。恨未得躬進會。未而與同之也。尋春日間。又添世證風眩。僵臥呻

卷之十六 / 墓誌銘

아주신공묘지명 병서 鵝州申公墓誌銘 并序

14世 지효(之孝) 父 : 몽득(夢得) 祖父 : 응규(應奎)

귀파(龜派)응암공파(鷹巖公派)

梧峯申先生有賢伯氏。曰諱之孝字達夫。鵝州人。曾祖贈判決事翰。祖恭陵參奉贈工曹參判應奎。考贈左承旨夢得。妣贈淑夫人月城朴氏。士人敏樹女。公以嘉靖辛酉生。幼英爽不羣。甫成童。與梧峯就惟一齋金公彥璣學。金公器之。未弱冠遊鄉校。為儕流敬憚。富於文詞。累舉輒巍選。承旨公嘗曰立吾門者必此兒。壬辰五月倭寇至。時梧峯任宣城。公奉承旨公在家。避巖穴間。卒為倭所躡。刃公左肩。血淋漓幾殊。公神識不爽。念梧峯誓死嬰城。乃嚙葛濡血書紬衫。以寄訣語。槩謂藏身不密。不孝甚焉。親側尚有諸弟。君則盡忠死國可也。然死當明白死。足掌書宣城二字以識之。遂歿。距生年三十二。公平居好讀書。日誦四子經傳。手抄性理要語。以資講習。其倉卒臨絕。幾字血書。詳緩激烈。有牖下將死者之所不能及。豈非其素所講明見得者有以致之歟。宜其為梧峯之兄也。配咸昌金氏。習讀疆女。墓本縣億谷板反山負震原。與金氏同穴。有二子。長命羲。次命夔。命羲有三子。孟堪，仲堪，季堪。命夔有一子考亨。銘曰。

賢明時運。敬亭許之。正直天性。懶齋敘之。血字數行。勸爾蓋臣。烈烈其心。不死猶存。誰能闡幽。特書于史。我最其蹟。以詔千禩。



之難。伯淮之共。方喪盡禮。布衣爲忠。壁上大書。曾氏明訓。琢磨道義。蹈履倫常。不試何傷。處家亦政。配德匹美。婦人之賢。有順無違。式于中表。百年延劔。十里龍湫。既固且安。以庇後嗣。

鵝州申公墓誌銘并序

梧峯申先生有賢伯氏曰諱之孝字達夫鵝州人曾祖 贈判浚事翰祖 恭陵參奉 贈工曹參判應奎考 贈左承旨夢得妣 贈淑夫人月城朴氏士人敏樹女公以 嘉靖辛酉生幼英爽不羣甫成童與梧峯就惟一齋金公彥

江皋先生文集卷十六

十三

璣學金公器之未弱冠遊鄉校爲儕流敬憚富於文詞累舉輒巍選承旨公嘗曰立吾門者必此兒壬辰五月倭寇至時梧峯任宣城公奉承旨公在家避巖穴間卒爲倭所躡刃公左肩血淋漓幾殊公神識不爽念梧峯誓死嬰城乃嚙葛濡血書紬衫以寄設語槩謂藏身不密不孝甚焉親側尚有諸弟君則盡忠死國可也然死當明白死足掌書宣城二字以識之遂歿距生年三十二公平居好讀書日誦四子經傳手抄性理要語以資講習其倉卒臨絕幾字血書詳

江皋集 卷十六

緩激烈有牖下將死者之所不能及豈非其素所講明見得者有以致之歟宜其爲梧峯之兄也配咸昌金氏習讀疆女墓本縣億谷板反山負震原與金氏同穴有二子長命義次命夔命義有三子孟堪仲堪季堪命夔有一子耆亨銘曰

賢明時運敬亭許之正直天性懶齋敘之血字數行勛爾蓋臣烈烈其心不死猶存誰能闡幽特書于史我最其蹟以詔千禩

成均生員三疎齋李公墓誌銘并序

江皋先生文集卷十六

十四

不佞嘗從前輩長者聞三疎齋李公之風而欽慕之顧恨未得其行治之詳日公之曾孫天永以狀授不佞請爲之序而銘諸墓不佞以非其人辭不獲按公諱熙一字德卿碧珍人上祖諱念言以將軍翊麗祖定三韓自是簪組奕世爲東國著姓至諱堅榦以詩聞號稱山花先生五世祖諱鄧林文科府使有清白名高祖諱彥英文科承旨號浣石亭曾祖諱斗鎮 崇禎處士祖諱海亮考諱柱世文科郡守號五一居士妣楊州趙氏承仕郎聖錫女承旨有道曾孫以

四八三

## 경정선생집(敬亭先生集)

### 형태서지

권수제	경정선생집(敬亭先生集)
판심제	敬亭集
간종	목판본(木版本)
간행년	原集 1664年頃刊, 續集 正祖末頃刊.
권책	目錄, 原集 14권, 續集 4권 합 10책
행자	10행 19자
규격	19.9×15(cm)
어미	上下二葉花紋魚尾
소장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도서번호	도서번호 : 4-5744, 필름번호 : M35-1741
총간집수	한국문집총간 76

### 저자

성명	이민성(李民成)
생년	1570년(선조 3)
몰년	1629년(인조 7)
자	관보(寬甫)
호	경정(敬亭)
본관	영천(永川)
특기사항	김성일(金誠一), 정구(鄭述), 장현광(張顯光)의 문인

행력

왕력		서기	간지	연호		연령	기사
선조	3	1570	경오	隆慶	4	1	11 월 8 일, 義城縣 蘇侍郎里에서 태어나다.
선조	19	1586	병술	萬曆	14	17	襄陽權氏와 혼인하다.
선조	21	1588	무자	萬曆	16	19	봄, 鶴峯 金誠一의 문하에 나아가다.
선조	22	1589	기축	萬曆	17	20	9 월, 모친상을 당하다.
선조	25	1592	임진	萬曆	20	23	봄, 부친을 모시고 江陵 任所로 가다.
선조	27	1594	갑오	萬曆	22	25	9 월 부인 權氏의 상을 당하다.
선조	28	1595	을미	萬曆	23	26	2 월, 南以仁의 女 宜寧南氏와 혼인하다. ◦ 〈鳳凰來儀賦〉를 짓다.
선조	30	1597	정유	萬曆	25	28	4 월, 庭試에 합격하다. 승문원 권지부정자가 되어 춘추관 기사관을 겸하다.
선조	32	1599	기해	萬曆	27	30	부친을 모시고 忠州 任所에 다녀오다.
선조	33	1600	경자	萬曆	28	31	12 월, 正字가 되다.
선조	34	1601	신축	萬曆	29	32	1 월, 著作이 되고, 奉常寺 直長, 博士를 역임하다.
선조	35	1602	임인	萬曆	30	33	윤 2 월, 승정원 주서가 되다. ◦ 4 월, 시강원 설서를 거쳐 사서가 되다. ◦ 10 월, 전적 겸 감찰이 되고, 王世子冊封奏請使 書狀官으로 北京에 가다.
선조	36	1603	계묘	萬曆	31	34	1 월, 孤竹城에 도착하다. ◦ 5 월, 돌아오다. ◦ 6 월, 예조 좌랑, 병조 좌랑이 되다. ◦ 겨울, 張顯光을 따라 冰溪書院으로 가서「周易」을 강하다.
선조	37	1604	갑진	萬曆	32	35	2 월, 전적이 되다. ◦ 12 월, 병조 정랑이 되다.
선조	38	1605	을사	萬曆	33	36	3 월, 濟州 點馬御史로 나가다.
선조	39	1606	병오	萬曆	34	37	여름, 동생 紫巖公 李民寔과 함께 관직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오다.
선조	41	1608	무신	萬曆	36	39	2 월, 선조가 승하하고, 곧 持卞이 되다. ◦ 6 월, 시강원 문학이 되다. ◦ 겨울, 賜暇讀書하다.
광해 군	1	1609	기유	萬曆	37	40	봄, 弘文錄에 들다. ◦ 7 월, 부친상을 당하다.
광해 군	4	1612	임자	萬曆	40	43	봄, 冷泉亭을 짓다.
광해 군	5	1613	계축	萬曆	41	44	5 월, 예조 정랑이 되다. ◦ 6 월, 교리가 되다. 23 일, 上劄하여 鄭造, 尹詒 등이 母后를 廢하려 모의한 죄를 논하다. ◦ 9 월, 李德馨을 論救하다가 파직되다.
광해	6	1614	갑인	萬曆	42	45	7 월, 부수찬이 되다. ◦ 9 월, 關西 京試官이 되다. ◦

경정선생집(敬亭先生集) 이민성(李民成)

군							10 월, 교리가 되었다가 일로 파직되다. ○ 崔暎과 修淨寺에 노닐다.
광해군	7	1615	을묘	萬曆	43	46	1 월, 司果가 되다. ○ 8 월, 李元翼을 伸救하다가 때마침 일어난 金尙憲이 지은 賀箋 문제로 삭탈관작되다. 이후 두문불출하며 性理學에 전념하다.
광해군	12	1620	경신	泰昌	1	51	1 월, 鄭逵를 곡하다. ○ 동생 李民寅을 만나러 關西에 다녀오다.
광해군	13	1621	신유	天啓	1	52	4 월, 張顯光을 따라 冰溪書院에서 經義를 講論하다.
인조	1	1623	계해	天啓	3	54	3 월, 仁祖 反正이 일어난 뒤 奏聞使 書狀官이 되어 宗簿寺 正의 벼슬로 중국에 가다.
인조	2	1624	갑자	天啓	4	55	4 월, 돌아와 司成 兼 執義가 되다. ○ 5 월, 관직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와 燕槎唱酬集을 편집하다.
인조	3	1625	을축	天啓	5	56	5 월, 동부승지가 되다. <象賢書院記>를 짓다.
인조	4	1626	병인	天啓	6	57	2 월, 우승지가 되다. <論金浦葬山制殺法獻議啓>, <白虹貫日啓辭>와 <請寢拜園啓辭>를 올린다.
인조	5	1627	정묘	天啓	7	58	봄, 胡亂이 일어나자 嶺南召號使 張顯光의 추천으로 慶尙左道 義兵大將이 되다. ○ 3 월, 江都 행재소로 가서 扈駕하여 還朝하다. ○ 4 월, 고향으로 돌아오다. ○ 11 월, 좌승지, 우승지가 되다.
인조	6	1628	무진	崇禎	1	59	1 월, 좌승지가 되다. ○ 4 월, 명을 받고 江陵에 가서 集慶殿 影幀을 봉심하고 論啓하다. ○ 6 월, 좌승지가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인조	7	1629	기사	崇禎	2	60	4 월, 형조 참의가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 7 월, 冰溪에 가서 張顯光의 講會에 참석하다. ○ 8 월 15 일, 병으로 冰月堂에서 졸하다. ○ 11 월 3 일, 義城縣 서쪽 霞峴에 장사 지내다.
현종	5	1664	갑진	康熙	3	-	이즈음 아들 李廷機가 문집을 간행하다.(鄭斗卿의 序)
현종	13	1672	임자	康熙	11	-	士林이 藏待書院에 位版을 봉안하다.
-	-	1928	무진	-	-	-	義城 冷泉亭에서 續集, 年譜, 附錄 등을 모두 합쳐서 문집을 重刊하다.



## 편찬및간행

저자의 시문은 생전에 편집해 둔 燕槎唱酬集 등이 家藏되어 있었으나 많은 작품이 散佚되었고, 남은 것들을 동생 李民寅이 수습하여 수천 首를 繕寫해서 定稿本을 만들고 판각하려 하였다. (行狀, 申悅道 撰) 실제 그는 1630 년에 張顯光에게 擴銘을 부탁하여 받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그가 1649 년에 세상을 떠남으로써 간행을 보지는 못하였다.

그 후 李民寅의 아들이자 저자의 양자인 李廷機가 1659 년 順天 府使로 나가게 되면서 문집을 간행하려고 趙綱에게 序文을 받았으나 이루지 못하고, 다시 1664 년 瑞興 府使로 나가게 되면서 재차 鄭斗卿에게 序文을 받아 간행하려 하였다. 실제 이때 문집이 간행되었는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지만 현재 13 권으로 남아 있는 原集이 이때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李廷機가 권 13 의 끝에 붙인 補遺 <玉堂處置筭>의 識에 “編次한 뒤에 수습하였기에 문집의 맨 끝에 기록한다.”고 하였으니, 13 권으로 편찬한 자가 李廷機임을 알 수 있다. 또 국립중앙도서관장본(한 46-가 1083)의 13 권 4 책 목판본의 印記에 宋詩烈(1607~1689)의 印이 찍혀 있으니, 늦어도 1689 년 이전에는 간행된 것인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1664 년경에 곧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李廷機는 李民寅이 만들어 놓았던 定稿本을 그대로 살리고 다시 詩 2 권을 別集과 續集으로 첨가하여 권 10 과 11 로 편차하였다. 권 12 와 13 의 賦와 文도 새로 편차한 것이다. 현재 규장각(奎 5348)과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는 본이 이때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원집 초간본》 그런데 1739 년에 玄孫 李命天이 지은 家狀에는 “文集 12 권이 세상에 통행하고 朝天錄 5 권이 家藏되어 있다.” 하였고, 1794 년에 丁範祖(1723~1801)가 지은 行狀에도 “敬亭集 12 권이 세상에 통행하고 있다.” 하였다. 그리고 1796 년에 완성된「鏤板考」에도 敬亭集 12 권의 판목이 義城 藏待書院에 소장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12 권과 13 권이라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현재 남아 있는 원집은 모두 목판본 13 권뿐이다. 위의 두 본과 장서각장본(4-5744),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장본(D1-A837), 연세대 중앙도서관장본 등이 다 그렇다. 또한 李獻慶(1719~1791)의「良翁集」에 나오는 <敬亭先生遺集跋>에는 구체적인 간행 경위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고, 다만 그의 詩에 대하여 극찬하고 詞·賦·序·記 등도 훌륭하다고 평하였다. 현존본에는 1~11 권이 詩이고, 12 권이 賦·辭·表, 13 권이 記·序·論·議啓 등이다. 따라서 李獻慶이 본 것도 이 13 권본이었다는 얘기가 된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지어 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본서의 원집 저본은 장서각장본인데, 규장각장본과 비교하였을 때 字體가 다르고 補刻한 흔적이 역력하다. 따라서 이는 補刻後刷本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속집이나 연보의 字體와도 달라 보각의 시기를 정확히 잡을 수 없다. 다만 장서각장본에는 규장각장본과는 달리 原集의 目錄이 붙어 있고, 거기에 年譜와 附錄을 권 14 로 편차해 놓았다. 이로 미루어 보면 혹 年譜와 續集이 간행된 시기를 즈음하여 補刻이 이루어지고, 이 목록도 집어넣어 인쇄한 것이 아닐까 짐작된다.

이 年譜와 續集의 간행은 저자의 玄孫 李命天에 의해 시도되고 그의 손자 李祥發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李命天은 1739 년에 家藏 文字와 日記를 모아 家狀을 만들었고, 李祥發은 丁範祖에게 行狀을, 蔡濟恭에게 墓誌銘을 부탁하여 받았다. 丁範祖와 蔡濟恭이 이를 지어준 것은 그 말미의 관직명으로 미루어 볼 때 1794 년경이었던 것으로 보이니, 실제 간행은 1794 년 이후에 된 것을 알 수 있다. 나아가 1796 년에 완성된「鏤板考」에 속집에 관한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1796 년 이후 正祖 末年 즈음에 간행된 것으로 짐작된다. 이때는 이미 李命天이 죽은 뒤이므로 李祥發의 주도로 年譜 2 권, 續集 4 권의 목판본이 정조 말년 즈음에 간행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위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이즈음에 원집도 보각, 후쇄되어 속집, 연보와 함께 결책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장서각, 연세대 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는 본이다.《연보와 속집 초간》



그 후 1928년에 義城 冷泉亭에서 原集 13 권과 續集 4 권, 年譜 1 권, 附錄 1 권을 합하여 19 권 9 책으로 重刊하였는데, 그 간행 경위는 자세하지 않다.《중간본》 현재 국립중앙도서관(한 46-가 1047)에 소장되어 있다.

본서의 저본은 위에서 설명한 장서각장본(4-5744)이고, 이를 촬영한 同館所藏 마이크로필름(M35-1741)을 썼다. 다만 원집, 속집, 연보의 순으로 結冊되어 있는 것을 目錄에 따라 원집, 연보, 속집의 순으로 바로잡았고, 연보를 원집 권 14로 편차하였다.

序(趙綱·鄭斗卿 撰), 行狀(申悅道·丁範祖 撰), 家狀(李命天 撰) 등에 의함

## 구성과내용

본집은 目錄, 原集 14 권, 續集 4 권 합 10 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目錄은 原集의 것이고, 續集 目錄은 속집 권두에 따로 실려 있다.

原集은 원집 13 권과 補遺, 年譜로 되어 있다.

권 1~11은 詩이다. 1592년에 江陵 任所로 부친을 모시고 갔을 때 지은 〈陪登北城〉을 시작으로 대체적으로 저작 연대순으로 편차하였다. 권 1~4는 1592년의 작품부터 1623년 인조반정으로 다시 관직에 나오기 전까지의 작품이다. 여기에는 〈謁夷齊廟〉 등 1602년 王世子冊封奏請使 書狀官으로 중국에 다녀오면서 지은 시들이 다수 들어 있고, 〈浮海〉 등 1605년 濟州의 點馬御史로 다녀오면서 지은 시들도 있다. 1617년에 지은 〈打麥詞〉는 崔岾로부터 “文力이 雅健하니 今人の 口氣가 아니다.”는 극찬을 받기도 한 작품이다. 권 5에는 명 나라 大復 何景明의 七言律에 和韻한 시 150여 수가 실려 있는데, 저작 연대순 편차 원칙으로 볼 때 1623년 전후 고향에 있으면서 독서에 전념할 때 지어진 것 같다.

권 6~8은 燕榭唱酬集 上·中·下로, 인조반정 후 奏聞使 書狀官으로 중국에 다녀오는 동안 지은 시들을 모은 것인데, 함께 갔던 副使 白沙 尹暄과 나눈 시가 다수이다. 저자는 중국인들로부터 ‘李謫仙先生’이라 불리울 정도로 시에 있어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1624년 이후 관직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와 있을 때 편집한 것이다. 권 9는 1624년 4월 중국에서 돌아온 이후 1629년 졸할 때까지의 작품이다. 권 10은 詩의 別集으로 月課와 文臣庭試때 지은 작품 등이 실려 있고, 권 11은 詩의 續集으로 연대가 불분명한 시들을 따로 모아 실은 것으로 보인다. 이 두 권은 아들 李廷機가 原集을 간행하면서 새로 편차한 것으로 보인다.

권 12는 賦 11 편, 辭 2 편, 表 6 편이다. 賦 가운데는 〈鳳凰來儀〉가 유명한데, 1595년 26세에 지은 작품이다. 辭는 〈和歸去來辭〉와 月課로 지은 〈弔混沌死辭〉가 있다. 表에는 月課로 지은 〈擬宋監南嶽廟.....〉 등과 〈領議政李恒福四度不允批答〉, 〈鳶魚亭上樑文〉, 〈四六精粹序〉 등과 雜儷文이 실려 있다. 上樑文이나 序는 권 13의 雜著나 序에 함께 실어도 될 듯한데 굳이 여기에 실은 것은 권 12까지를 韻文 성격의 글을 모은 것으로 구분하려 한 것 같다.

권 13은 記, 序, 論, 祭文, 銘, 讚, 議啓, 題跋, 雜著를 모아 놓았다. 記에는 1609년에 宣慰使를 대신하여 玄蘇에게 지어준 〈酌庵記〉, 1604년 關西伯 金蓋國을 위하여 지어준 〈望日軒記〉 등이 있다. 序는 送序 3편으로 권 12에 실린 序와 구분되어 있다. 論은 〈東海無潮汐論〉, 〈孟子不尊周論〉, 〈階伯論〉 등이다. 〈東海無潮汐論〉은 1609년 弘文錄에 든 뒤 課題로 지은 것으로, 東海에 潮汐이 없다 하는 것은 見聞이 편벽한 소치임을 논하였다. 議啓는 〈政院白虹貫日啓辭〉 등 1625년에 올린 계사 3편과 1628년에 集慶殿을 봉심하고 온 뒤 올린 계사가 실려 있다. 雜著 가운데는 1623년 인조반정 뒤 중국에 올린 〈辨誣呈文〉과 太極의 動靜 등을 논한 策問이 주목된다.

또한 여느 문집과는 달리 疏劄가 실려 있지 않은데, 이는 자신의 자취를 남기지 않으려 한 저자의 의도 때문이었다. 이에 아들 李廷機가 政院日記에서 수습하여 권 13의 끝에 補遺로 계축년 6월 23일의 玉堂處置劄을 넣었던 것이다.

권 14는 年譜와 附錄이다. 원래 2권으로 되어 있던 것을 본 총간에서는 목록에 따라 원집 14권으로 합하여 편찬한 것이다. 附錄에 行狀, 壙銘, 墓誌銘, 家狀, 기타 祭文과 挽詞, 藏待書院 奉安文 등이 들어 있다.

續集은 4권으로, 朝天錄 上·中·下 3권과 奏本, 啓辭와 拾遺를 모은 1권이 그 내용이다. 朝天錄은 인조반정 이후 奏聞使 書狀官으로 중국에 다녀올 때의 기록으로, 1623년 4월부터 1624년 4월까지의 旅程과 활동 사항을 적었다. 1624년 5월 이후 고향으로 돌아와 있는 동안 편집한 것이다. 奏本과 啓辭 모두 이 시기에 올린 公文이다. 拾遺로는 教, 啓, 記, 題跋 한 두 편씩이 실려 있다.

## 이민성(李民成)

### 정의

조선시대 병조정랑, 동부승지, 좌승지 등을 역임한 문신.

### 개설

경상북도 의성 출신. 본관은 영천(永川). 자는 관보(寬甫), 호는 경정(敬亭). 아버지는 관찰사 이광준(李光俊)이며, 어머니는 평산 신씨(平山申氏)로 인의(引儀) 신권(申權)의 딸이다.

### 정의

1597년(선조 30) 정시문과에 갑과로 급제하고, 승문원정자에 임명되었다. 1601년 승정원주서를 거쳐 이듬해 시강원설서에 제수되고 사서로 승진되었으며, 서장관(書狀官)으로 차출되어 명나라에 다녀왔다. 1603년 예조좌랑을 거쳐 병조좌랑에 전임되고, 이어서 병조정랑으로 승진되었다.

1605년 이조정랑에 천거되었으나 정인홍(鄭仁弘) 일당의 반대로 제주점마어사(濟州點馬御史)가 되었다. 그 뒤 얼마간 일을 보다가 시사(時事)의 동향이 심상치 않아 벼슬을 사직하고 고향에 돌아갔다. 1608년 사헌부지평에 제수되었으며, 문학(文學)으로 옮겨 [사가독서\(賜暇讀書\)](#)<sup>주 01)</sup>하였다. 이듬해 옥당(玉堂)에 선출되었으나 아버지의 상을 당하여 여묘(廬墓) 3년을 마치고 홍문관수찬에 다시 임명되었으며, 이어서 교리·세자시강원 겸 문학 등을 역임하였다.

1617년(광해군 9) 정조(鄭造)·윤인(尹訥) 등이 폐모론을 발의하자 윤리와 기강에 죄를 얻음이 심하다는 내용의 차자(劄子)를 올렸다가 이이첨(李爾瞻) 등의 모함을 받아 삭직되었다. 고향에 내려가서 글씨와 그림으로 소일하다가 1623년 인조반정 때 사헌부장령에 복직하였다. 주청사(奏請使)의 서장관으로 명나라에 다녀와 그 공로로 성균관사성으로 통정대부(通政大夫)의 [가자\(加資\)](#)<sup>주 02)</sup>를 받았다. 이어서 동부승지를 거쳐 좌승지로 승진되었다.

1627년(인조 5)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영남호소사(嶺南號召使) 장현광(張顯光)의 추천으로 경상좌도의병대

장이 되어 전주에 있던 왕세자를 보호하였다. 1629년 형조참의에 제수되었으나 병으로 사직하였고, 그 해에 별세하였다.

이민성은 직언을 잘하기로 이름 높았으며, 의리가 강해 광해군의 난정 때 간당(奸黨)들에게 모함을 받은 이덕형(李德馨)·이원익(李元翼)·영창대군(永昌大君)을 구출하려고 힘썼다. 시문과 글씨에 뛰어났으며, 명나라에 갔을 때 그 곳의 학사·대부들과 수창(酬唱)한 시는 사람들에게 애송되어 중국 사람들이 그를 이적선(李謫仙)<sup>주 03)</sup>이라 불렀다고 한다.

현재 1,000여 수의 시가 전해지며, 저서로는 『경정집(敬亭集)』, 『조천록(朝天錄)』 등이 있다.

卷之二 / 詩

주차신순부령공화시퇴자운 走次申順夫令公和示頽字韻

14世 지제(之悌) 父 : 몽득(夢得) 祖父 : 응규 (應奎)귀파(龜派)오봉공파(梧峰公派)

流光荏苒屬將頽。袞袞天機自往來。白露暗凋蘭迸悴。賓鴻巧遞燕初迴。蕭條可忍埋書卷。骯髒猶堪臥草萊。病裏更聞佳節近。百年能復幾登臺。

洞庭之東江水埒。蒼梧雲盡九疑縣。登臨題詠憐  
 光祿物色分留與。謫仙氣蓋乾坤老杜筆。青吞吳  
 蜀簡齋篇。但於此境雄開眼。莫向詩神苦乞聯。  
 買罪還同坐廟埒。逃名不是隱於縣。倘來軒冕非  
 吾事。交逐緣塵愧覺仙。孺術難封龜手藥。全身聊  
 學馬蹄篇。技挑欲報瓊珠句。敢望韜瑠舉秀聯。  
 護田溝水接滕埒。翠靄浮天樹勢縣。松竹閉餘無  
 俗客。煙霞深處有幽仙。廢書只領忘言意。削稿惟  
 存止酒篇。萬懶千癡閑度日。教兒時抄盛唐聯。  
 至寶元箴坎水埒。冲和真氣本微縣。分明眼舌能  
 為賊。又斂精神即是仙。鍊得九還忝魏訣。功存一  
 慨驗愁篇。煩君須揮筠管話。勿視尋常七字聯。  
前見曲江兄。神色不揚。未必不由於色味兩  
 壓。故未偶及之。留念如河。無之則洗事而成  
 美。尤妙。

走次申順夫令公和示頽字韻

流光荏苒屬將頽。袞袞天機自往來。白露暗凋蘭  
 迸悴。賓鴻巧遞燕初迴。蕭條可忍埋書卷。骯髒猶  
 堪臥草萊。病裏更聞佳節近。百年能復幾登臺。

秋霖初霽。再用前韻

平旦遙帶夕陽頽。無限溪山滿眼來。窓竹韻清殘

二二二



卷之三 / 詩

고열행. 차신순부운. 기미하 苦熱行. 次申順夫韻. 己未夏

14世 지제(之悌) 父 : 몽득(夢得) 祖父 : 응규 (應奎)귀파(龜派)오봉공파(梧峰公派)

炎官方朝祝融墟。火傘高擁赤虬鞭。河山盡變粥鼎沸。草木如供窰竈燃。老子茅軒矮且陋。高枕正妨當晝眠。曝顯爛額無處避。課隸伐枚人兩肩。東邊圃柳尚可花。補遮西簷赫曦穿。畫省宮冰玉井寒。回首日邊心茫然。安得仙人凌虛術。俯視萬頃琉璃田。身狃寒門挹沆瀣。手弄素月當中天。不溺不焚遊八極。獨與至人同長年。

數曲若溪清且閑。透堂依柳自成灣。圍其每每傷眠。魚岸。枕石偏宜印月滿。鼓吹晚添籬落下。靴紋睛。動屢簷簷間。遊暮去經年住。却被溪神不放還。

聞一士人毀舍弟。以此謝之。

吾家本是起孤寒。清顯殊非分所安。勢乏板援連。減里。友無生死在朝端。亡金第可依他償。受唾要。當待自乾。已信下流多謗議。非闕行路古今難。

短褐龍鍾不救寒。十年風雨走長安。群狙喜怒無。加數。首鼠狐疑有兩端。可惜髮遺千點雪。寧辭杯。底十分乾。勸君勿謂行危險。平地難於蜀道難。

敬亭集卷之三 二十八

苦熱行. 次申順夫韻. 己未夏

炎官方朝祝融墟。火傘高擁赤虬鞭。河山盡變粥。鼎沸。草木如供窰竈燃。老子茅軒矮且陋。高枕正。妨當晝眠。曝顯爛額無處避。課隸伐枚人兩肩。東。邊圃柳尚可花。補遮西簷赫曦穿。畫省宮冰玉井。寒。回首日邊心茫然。安得仙人凌虛術。俯視萬頃。琉璃田。身狃寒門挹沆瀣。手弄素月當中天。不溺。不焚遊八極。獨與至人同長年。

後苦熱行. 次前韻. 秋旱熱愈

朱明當序不可度。金官願但羲和鞭。不意金官改。

卷之三 / 詩

신오봉수난자운. 주차청교. 申梧峯酬難字韻. 走次請教

14世 지제(之悌) 父 : 몽득(夢得) 祖父 : 응규 (應奎)귀파(龜派)오봉공파(梧峰公派)

十年磨劍正銜寒。滌涕徒慙策治安。未暇江湖憂范老。可能風雨過蘇端。兵戈苦恨關山阻。筋力深嗟骨髓乾。從古見疑非一事。韓生何獨說爲難。

得舍弟手札。驚痛賦之。

沒著消息。斷生死已經年。未赴鷓鴣原。急欲寫着。雁足傳。形容應改。舊心畫認如前。縱我殘魂在。何由到爾邊。

申梧峯酬難字韻。走次請教。

十年磨劍正銜寒。滌涕徒慙策治安。未暇江湖憂范老。可能風雨過蘇端。兵戈苦恨關山阻。筋力深嗟骨髓乾。從古見疑非一事。韓生何獨說爲難。

柳絮次劉賓客韻

亂逐拋花滿四隣。悠揚無力弄晴春。飄香漫撲吳姬酒。飛雪偏驚汴水人。偶度漁磯縈釣線。更迷吟社點綸巾。生憎陌上顛狂態。又看遊絲過別津。

家有快騎。性悍難制。惜其才姑育之。

吾雖育汝不堪騎。銜檠虞多鶴厲時。可怕折肱焦學士。焉知非禍塞翁兒。物違厥性誠難制。衛匪其良豈中規。待汝少馴調步驟。春明門外試金羈。

哭尹監察仁啓吾鄉尚書之孫

肌膚可念殿中君。最是難忘相國恩。誰知白首門生在。曾哭人間父祖孫。

敬亭先生集卷之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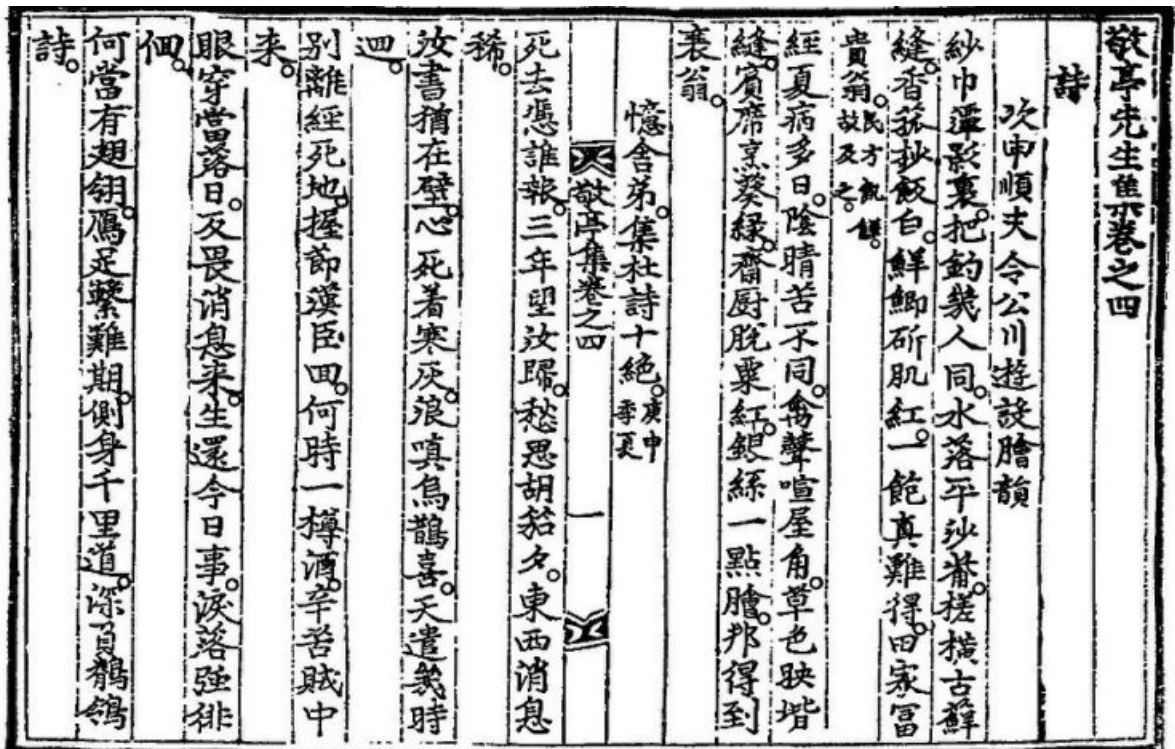
卷之四 / 詩

차신순부령공천유설회운 次申順夫令公川遊設膾韻

14世 지제(之悌) 父 : 몽득(夢得) 祖父 : 응규 (應奎)귀파(龜派)오봉공파(梧峰公派)

紗巾潭影裏。把釣幾人同。水落平沙觜。槎橫古蘚縫。香菰抄飯白。鮮鯽斫肌紅。一飽真難得。田家富貴翁。民方飢饉。故及之。

經夏病多日。陰晴苦不同。禽聲喧屋角。草色映階縫。賓席烹葵綠。齋廚脫粟紅。銀絲一點膾。那得到衰翁。



敬亭集 卷四

卷之十三 / 序

송신순부선생부통제종사서 送申順夫先生赴統制從事序

14世 지제(之悌) 父 : 몽득(夢得) 祖父 : 응규 (應奎)귀파(龜派)오봉공파(梧峰公派)

士之仕也。自抱關以上。無非事者。患己才之不足。以盡其職。不患官之不足。以盡其才也。由今之官。可以盡才者。無間於內外大小。徒充位而尸祿。則自議政以下。未見其難爲。苟竭才以盡職。則雖部參奉之屬。亦未見其易爲也。今之統營從事。謂之冗官。而顧其選則以才望。頃者晉山蘇子。實自翰苑出赴矣。詢其職。則曰無所事。安坐而食。聽樂娛憂。時預將佐會。抗侯舉解。以較射藝而已。卽丐暇主帥以歸。主帥之樂自便者。亦利其去。故歸偃于家。及瓜而遞。後繼者踵相襲焉。余竊怪之。若尔不必置。雖置之土木者爲之。臺侍不足煩。才望不足需也。國家設形便之地。以制鯨鯢之衝。割三路之根柢。屬之戈船。於是乎擇戎帥威重有略者以統之。水軍將領。咸受其節度。其建置宏大。策應繁密。咨議贊畫之事。拱稽校會之政。皆委諸其佐。於以剗斷調劑。以佐戎務。不可謂無所事。而不可爲冗官也決矣。友人申順夫氏解憲職。適覲于鄉。銓曹單擬。遂得例下。可謂擇之極矣。使今之內外官。皆由是擇。則安有遺材而廢職之虞哉。然而順夫氏之行也。大臣有慰以近家鄉爲便於寧觀者。舉非失舉。而其不爲官擇也。的矣。抑吾聞從事於斯者。雖多名流。而去文就武。恒與介胄者游。弛縱則招慢。剗核則害至。是以才不售而職不舉。子之爲器也。直而不倨。剛而不虐。寬而有執。其必率職而顯庸矣。不苟爲安坐而食矣。眞能盡才而塞職矣。吾知其果不爲冗官。而爲後繼者法。必自君始。





家及瓜而適。後繼者踵相襲焉。余竊恠之。若尔不  
 必置。雖置之土木者為之。壹待不足煩。才望不足  
 需也。國家設形便之地。以制鯨鯢之衝。割三路之  
 根柢。屬之戈船。於是乎擇戎帥。威重有略者以統  
 之。水軍將領。咸受其節度。其違置宏大。策應繁密。  
 咨議。贊畫之事。拱稽校會之政。皆委諸其佐。於以  
 剴斷調劑。以佐戎務。不可謂無所事。而不可為冗  
 官也。夾矣。友人申順夫氏解憲職。適覲于鄉。銓曹  
 單報。遂得例下。可謂擇之極矣。使今之内外官。皆  
 由是擇。則安有遺材而廢職之虞哉。然而順夫氏

敬亭集卷之十三

十五

之行也。大臣有慰以近家鄉為便於寧觀者。舉非  
 失舉。而其不為官擇也。的矣。抑吾聞從事於斯者。  
 雖多名派。而去文就武。恒與介冑者游。弛縱則招  
 慢。剋核則害至。是以才不售而職不舉。子之為器  
 也。直而不倨。剛而不虐。寬而有執。其必率職而顯  
 庸矣。不苟為安坐而食矣。真能盡才而塞職矣。吾  
 知其果不為冗官。而為後繼者法。必自君始。

送金正字景微省謁西京序

詩三百十一篇。其言有善有惡。未必皆正。而夫子  
 斷以思無邪之一言。何也。夫詩以言志。其善者足

之十三 / 祭文

제신승지순부령공문 祭申承旨順夫令公文

14世 지제(之悌) 父 : 몽득(夢得) 祖父 : 응규 (應奎)귀파(龜派)오봉공파(梧峰公派)

維天啓五年歲次乙丑正月庚戌朔初八日丁巳。永川李某。遣姪子阿憫。謹以酒果之奠。奉告于鄉紳通政大夫丞政院同副承旨兼經筵參贊官梧峯申丈之靈曰。嗚呼。公之歿也。邈然萬里。魂不與夢相接也。其窆也。不獲助執紼而臨穴以哭也。初菴載屆。而几筵非其所。又不獲躬奠一觴以抒余情也。嗚呼哀哉。確乎難拔之操。毅然難犯之色。恢乎有容之量。今不可復見矣。至如秉簡而著直節之名。理劇而騰循良之聲。余雖不言。世固有知者矣。出納惟允之才。將試之於新政。而公則不起矣。嗚呼惜哉。龜洞茅齋。鶴麓苔軒。棋酒觴詠之樂。俛仰陳迹矣。嗚呼傷哉。尚饗。



年譜卷之二 / 附錄

행장[신열도] 行狀[申悅道]

13世 열도(悅道) 父 : 흠(僉) 祖父 : 원록(元祿) 음파(邑派) 난재공파(聃齋公派)

公諱民成。字寬甫。自號敬亭。姓李氏。系出永陽。高麗典工判書永堅。其顯祖也。曾祖諱世憲。成均進士。贈左承旨。祖諱汝諧。贈吏曹參判。考諱光俊登文科官至觀察使贈禮曹參判世以文學行誼聞。妣貞夫人平山申氏。壯節公崇謙之後。引儀權之女。以隆慶庚午十一月八日生公。自幼穎悟絕倫。八歲。已曉文義。甫成童。聲譽藉蔚。壬辰。從觀察公于江陵任所。倭寇猝至。公相機發慮。多所措畫。一境賴之。丁酉。登廷試第四名。分隸承文。陞著作。辛丑。除承政院注書。壬寅。除侍講院說書。尋移司書。以書狀赴京。清謹自持。及還。行囊蕭然。癸卯。除兵曹佐郎。是冬。復設文臣月課。公文思川涌。製輒居魁。一時名士。無敢敵者。乙巳。擬銓郎選。當路者素忌公。因差濟州點馬使。蓋藉極選之命而內實擠之也。知舊多來唁。公笑曰。此行。濯足南溟水中。振衣漢挈山上。亦一快事。死生有命。豈獨嶺海之外能死人哉。無幾微見於顏面。耽羅海路險遠。自前奉使者。候風發船。動經累朔。公辭朝四十餘日而復命。人皆神之。至是朝著已有不靖之漸。公無意進取。與弟參判公民奐賃舟南還。親朋贈詩有全家沂月峽。去國失龍泉之句。戊申。除持平。強起趨召。公以時望。久蟄鄉第。及還朝。物議翕然。凡有論啓。就公裁正。時朝廷有鞫獄。誣引狼藉。被陷之人。多前忌公者。而公持論平正。多所救解。聞者咸服其雅量。未幾。參弘文錄。仍選湖堂。爲一時推重如此。己酉。丁觀察公憂。喪葬祭奠。一於禮無憾。癸丑。除禮曹正郎。遷弘文館校理。賊臣爾瞻因巫蠱獄謀廢母后。鄭造，尹訥等首發各處之啓。公挺身陳劄曰。討逆之義。不可不嚴。而處變之道。亦不可不盡。二者有一毫未盡。則王法有所不行。而人道亦幾乎熄矣。以殿下無間之孝。遭千古所無之變。豈不以古聖人至極之道。爲法於今日乎。頃者造，訥等指斥慈殿。至日顯有當絕之惡。又曰。爲今臣子者。不可以國母待之。又引遜邾遷后之語。而結之以臣等之所見如此。此豈人臣所可道之語哉。其得罪於倫紀甚矣。辭語截直。無所忌諱。中外爲之竦然。李惺等又以黨逆構誣漢陰李相國。欲發論劾之。公不從。因此見罷。乙卯。復除修撰。完平李相國坐密劄切諫。按律之啓將發。公於公坐中正色折之。群凶以此尤嫉公。遂摘箋文中魯國成風等語。彈劾削職。公卽日還鄉。惟以看書吟詩爲事。泊然無意於世。癸亥反正初。收用昏朝擯斥人。公以宗簿寺正還朝。仍差奏請使書狀官。是時冠蓋由海路。蛟窟龍戶。險阻萬狀。公嘯詠篷底。神氣自若。既到京師。讒說罔極。至有查問指揮。公與上副使投呈辨誣。縷縷數百言。辨對甚晰。仍留歲餘。得竣事而還。蓋於是行。呈卞非一再。而多公手畢也。在途。除成均館司成。既復命。陞資通政。又有田民賞賜之典。乙丑。除刑曹參議。病不赴。冬。除承政院同副承旨。丙寅春。陞左承旨。時有金浦因山之役。工役垂畢。而有術家岐論。上命公往審。公以術不可信之意。反復回啓。上意乃定。國家自反正後。與建虜絕。且未遑邊備。公患之。因虹貫之異陳啓。以



爲將有外寇之應。請備不虞。其深憂遠慮。若執左契。而人皆以爲迂。至翌年亂作。始服其先見之明。丁卯春。賊逼江都。公聞變卽發。自分朝馳詣行在所。扈駕還都。冬。又拜承旨。戊辰夏。遞歸。公在喉院數年。深得惟允之體。己巳春。除刑曹參議不赴。公累經海行。積勞成疾。八月十五日。遽啓手足。春秋未周甲一歲。以是歲十一月三日。祔葬于縣西霞峴觀察公墓下西坐之原。公風儀峻整。器度凝重。望之儼然。人皆畏敬。聰明絕人。一覽輒記。六經蘊<sup>P</sup>奧。百家汗漫。靡不精思力究。極其歸趣。發爲文章。宏博典雅。倣先秦兩漢之軌範。蓋公德足以鎮物。才足以經世。文足以華國。廊廟館閣。無處不當。而中值昏亂。不樂仕進。纔遇聖明。大限遽促。使公平日所蘊。不能展布其萬一。茲豈非世道之不幸。而後人之所共嗟惜也耶。當群凶秉國。彝倫斃絕之日。大臣元老。相繼竄逐。雖素號剛勁者。莫不惴惴慄慄。縮首屏氣。而公能凜然特立。隨事駁正。知有義理。而不知有禍福。雖緣衆怒螭集。旋被削逐。而一脈綱常。賴公不墜。<sup>P</sup>眞可謂砥柱中流矣。公於文無不能。而尤長於詞律。嘗題打麥詞。或傳示崔簡易。簡易驚問曰。文力雅健。非今人口氣。古人集中。亦未多見。或以公對。簡易曰。不料此老文章至此。歎玩不已。公之再赴燕京也。水陸往還累萬餘里。所過沿途奇勝異躅。恣意搜探。間與學士大夫迭相唱酬。格力蒼健。華人愛而敬之。至稱李謫仙。公之名蓋已聞於天下矣。一生製述甚夥。而多散佚。參判公收拾亂稿。得數千首。將繕寫付剞劂。以壽其傳。不朽之業。其在斯歟。公凡再娶。前夫人<sup>P</sup>襄陽權氏文淵女。後夫人宜寧南氏。察訪以仁女。俱無嗣。以參判第三子廷機爲後。廷機登文科。今爲金泉道察訪。不佞出入門屏。猥蒙知遇。提撕誨諭。情義之篤。迥出尋常。今茲胤友察訪以其家狀。要一言證正。不佞無狀。烏足以形容德媿之盛。而義不可以固辭。遂爲之敘次如右。以寓平昔慕悅之忱云爾。

崇禎紀元後丁酉七月日。門下生通訓大夫宗簿寺正申悅道謹撰。

年譜卷之二 / 附錄

제문[신증] 祭文[申楫]

22世 증(楨) 父 : 정열(鼎說) 祖父 : 유집 (維鏞) 귀파(龜派) 응암공파(鷹巖公派)

嗚呼哀哉。天之生公。夫豈偶然。蓋有所期。既才且賢。云胡不弔。而奪之速。我想此理。無不往復。生寄死歸。百年一瞥。春秋天地。南面巨室。左肘生柳。公豈蹙蹙。我心之憂。人亡國瘁。非夫誰慟。有關時運。恭惟我公。廣譽令聞。重如丘山。器而 P 瑚璉。華衣潔佩。好修博譽。入掌絲綸。出善辭令。如其大用。何有從政。位不稱望。亦公之命。君子易退。於公何病。去歲三春。公在銀臺。余叨末班。劍履乍陪。日望風裁。論議傾朝。時承清問。情在拔茅。顧瞻斯世。知孰如公。追思曩日。我懷焉窮。痛切鴿原。葬返狐丘。微公之恤。吾何以謀。義迫脫驂。風邁鬻馬。大德無報。厚意難謝。聞公臥牀。喟余踵門。有問無見。有情無言。善家餘慶。謂天必應。不慶而殃。天何未定。人間萬事。寧寐無吡。一去都忘。其樂如何。茫茫泉路。有嘒文星。錦繡 P 千篇。只留典刑。我來送公。清酒一罍。餘風賸馥。何可再也。眷彼霞丘。松柏青青。將爲棟梁。莫是公靈。

제문[문하생신열도] 祭文[門下生申悅道]

13世 달도(達道) 父 : 흘(屹) 祖父 : 원록 (元祿) 읍파(邑派)만오공파(晩悟公派)

嗚呼哀哉。喬嶽精英。圭璧光彩。公之生也。有自來。珠玉咳唾。錦繡心肝。公之才也。拔乎萃。妙臘題名於雁塔。清規輝映於鸞班。翱翔乎玉堂湖堂之中。華聞大播。出入乎銀臺烏臺之上。譽望彌隆。然所性無慕乎浮榮。而至樂惟在於閒適。難進易退。立朝之日無多。左圖右書。靜中之趣 P 自得。上規姚姒。下逮伊洛。無不咀嚼而窮探。近自班馬。旁及左莊。亦皆貫穿而靡遺。續遺響於先秦兩漢。雖古作者。無以加。紹正音於清廟生民。諸老先生皆不及。不惟大鳴於東土。抑亦有聲於中華。實爲天地間有數之文。堪作千百世不朽之業。時人望其大用。識者恨其已遲。豈意木稼呈妖。遽值龍蛇在歲。士林切安仰之痛。邦國起殄瘁之悲。顧小子無似。荷盛眷實深。函丈從容。庶幾執經而卒業。幽堂寂寞。於何考德而稽疑。已乎已乎。痛矣痛矣。金山鬱鬱。水溪洋洋。 P 想儀刑之在茲。冀英靈之昭格。

제문[빙계유생신적도등] 祭文[氷溪儒生申適道等]

13世 적도(適道) 父 : 흘(屹) 祖父 : 원록 (元祿) 읍파(邑派)호계공파(虎溪公派)

嗚呼惟靈。風度爽雅。德宇淵廓。清修寡侶。簡重 P 多質。早擢巍科。晚不輟學。力既中積。詞乃外發。龍戲巨壑。鳳翥廣漠。文優典衡。位不滿德。趨榮斲方。世多乾沒。公立脊梁



。確不回屈。養性丘園。以樂餘日。處己真率。裁事密勿。況我書院。公所致力。規劃宿弊。策拔惰習。鄉賴變善。士倚問業。天胡降酷。奪吾何速。行路尚淚。矧在誘掖。山瓢一酌。衆惊莫違。

有隣。昔人所樂。公其逝矣。我將安適。我有壹鬱。孰開茅塞。冰溪良晤。永不可續。萬死餘喘。貼身。牀席。歛不憑棺。葬不臨穴。恨負幽明。長號一聲。代手而奠。豈盡余情。靈其不昧。庶鑑微誠。

又

申楫

嗚呼哀哉。天之生公。夫豈偶然。蓋有所期。既才且賢。云胡不弔。而奪之速。我想此理。無不往復。生寄死歸。百年一瞥。春秋天地。南面巨室。左肘生柳。公豈屢屢。我心之憂。人亡國瘁。非夫誰慟。有關時運。恭惟我公。廣譽令聞。重如丘山。器而

敬亭集附錄

三

瑚璉。華衣潔佩。好修博譽。入掌絲綸。出善辭令。如其大用。何有從政。位不稱望。亦公之命。君子易退。於公何病。去歲三春。公在銀臺。余叨末班。劔履乍陪。日望風裁。論議傾朝。時承清問。情在拔茅。顧瞻斯世。知孰如公。追思曩日。我懷焉窮。痛切鴛原。葬返孤丘。微公之恤。吾何以謀。義追脫駮。風邁驚馬。大德無報。厚意難謝。聞公臥牀。喟余踵門。有問無見。有情無言。善家餘慶。謂天必應。不慶而殃。天何未定。人間萬事。寧寐無叱。一去都忘。其樂如何。茫茫泉路。有嘒文星。錦繡

千篇。只留典刑。我來送公。清酒一罍。餘風騰馥。何可再也。瞻彼霞丘。松柏青青。將為棟梁。莫是公靈。

又

門下生申悅道

嗚呼哀哉。喬嶽精英。圭璧光彩。公之生也。有自来。珠玉咳唾。錦繡心肝。公之才也。拔乎萃。妙臘題名於鴈塔。清規輝映於鷲班。翱翔乎玉堂湖堂之中。華聞大播。出入乎銀臺烏臺之上。譽望彌隆。然所性無慕乎浮榮。而至樂惟在於閒適。難進易退。立朝之日無多。左圖右書。靜中之趣

敬亭集附錄

三

自得。上規姚姒。下逮伊洛。無不咀嚼。而窮探近。自班馬。苟及左莊。亦皆貫穿。而靡遺。續遺響於先秦兩漢。雖古作者。無以加。結正音於清廟生民。諸老先生。皆不及。不惟大鳴於東土。抑亦有聲於中華。實為天地間有數之文。堪作千百世不朽之業。時人望其大用。識者恨其已遲。豈意木稼呈妖。遽值龍蛇在歲。士林切安仰之痛。邦國起珍瘁之悲。顧小子無似。荷盛眷實深。函丈從容。庶幾執經而卒業。幽堂寂寞。於何考德而稽疑。已乎已乎。痛矣痛矣。金山鬱鬱。冰溪洋洋。



想儀刑之在茲。冀英靈之昭格。

又

鄉校儒生金景等

嗚呼。公之生世止六十歲。種學績文。領袖儒門。守已不阿。砥柱奔波。專對上國。君命靡辱。棲遲某丘。江湖亦憂。瞻聆咸聳。冀其復用。民之無祿。天奪胡速。危哉吾鄉。如喪耳目。有憤誰啓。有惑誰解。窀穸告期。已矣莫追。敢奠一卮。聊哭吾私。

又

冰溪儒生申道道等

嗚呼。惟靈風度爽雅。德宇淵廓。清修寡侶。簡重

敬亭集附錄

三

多質。早擢巍科。晚不輟學。力既中積。詞乃外發。龍戲巨壑。鳳翥廣漠。文優典衡。位不滿德。趨榮斷方。世多乾沒。公立脊梁。確不回屈。養性丘園。以樂餘日。處已真率。裁事密勿。况我書院。公所致力。規刻宿弊。策拔惰習。鄉賴變善。士倚問業。天胡降酷。奪吾何速。行路尚淚。矧在誘掖。山歌一醉。衆悰莫違。

又

南溪儒生李立可等

嗚呼。維先生冰月之資。黼黻之文。範俗之行。立朝之節。非淺陋之所可窺測而形容也。天之於

만사[찰방신적도] 輓詞[察訪申適道]

13世 적도(適道) 父 : 흘(屹) 祖父 : 원록 (元祿) 읍파(邑派)호계공파(虎溪公派)

吾生何幸忝同鄉。每挹高風動八荒。直與李韓名并駕。遊於寒旅道彌光。人間政倚儒林匠。  
天<sup>P</sup>上那知帝意傷。仙馭飄然留不得。題詩此日淚滂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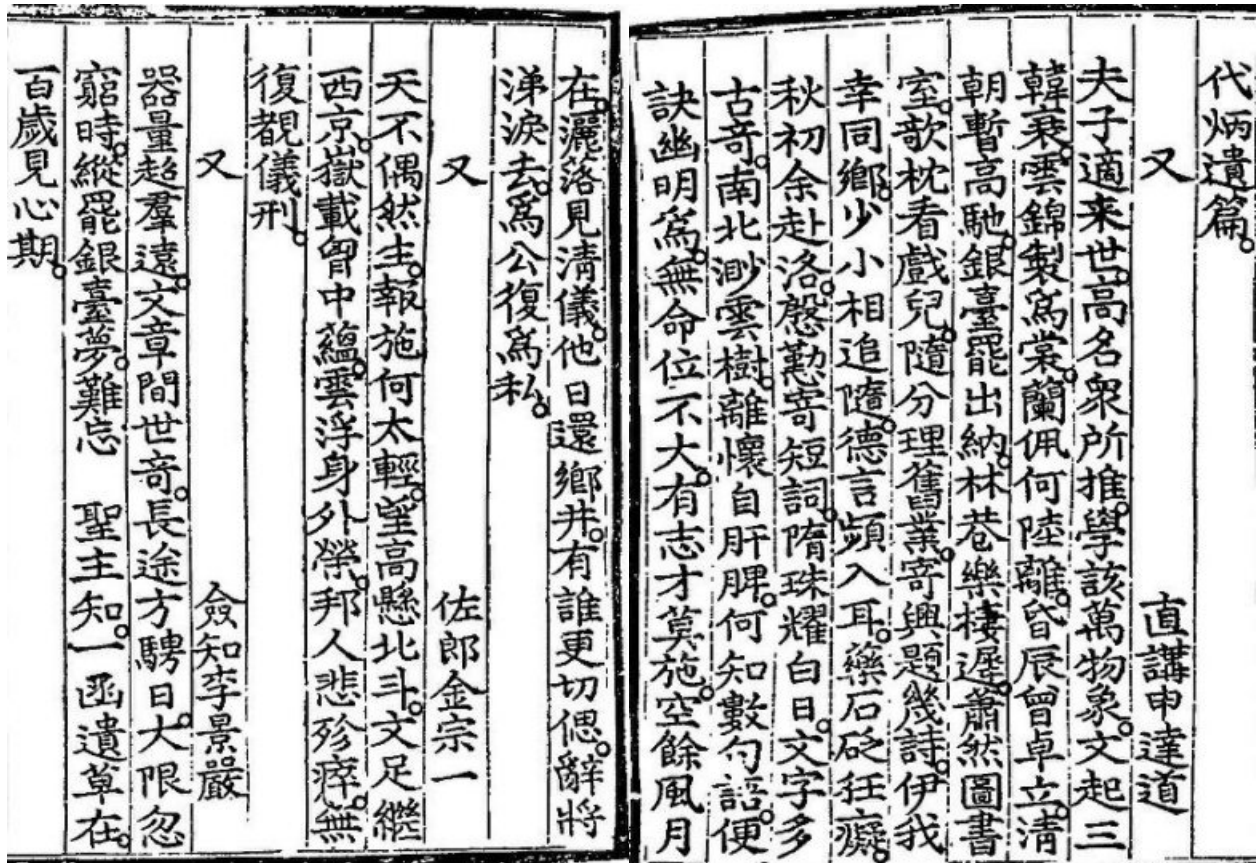
<p>敬亭集附錄 四三</p>	<p>溪路阻凍雲深空傳燾裏詩千首留作東方大雅音。</p>	<p>又 同知李必榮</p>	<p>餘事文章濟世才。黃扉將擬面三槐。經綸未副蒼生望。霜雪俄驚玉樹摧。賴有錦囊神物護。佇看蘭植善根培。風流儒雅今難見。和淚題詩遠寄哀。</p>	<p>又 察訪申適道</p>	<p>吾生何幸忝同鄉。每挹高風動八荒。直與李韓名并駕。遊於寒旅道彌光。人間政倚儒林匠。天上那知帝意傷。仙馭飄然留不得。題詩此日淚滂滂。</p>	<p>又 青松府使李久澄</p>	<p>文章節行動朝紳。晚際明時眷遇新。盤谷歸休辭爵祿。玉樓催記上星辰。茂陵求養書千卷。晦老傳經子一人。想得絞衾同直日。聲容夢裏恍相親。</p>	<p>又 察訪金是樞</p>	<p>憶昔分攜日。如今半十年。寸心元不問。一面會無緣。遽爾悲聞笛。眞成歎絕絃。斯文猶有託。百</p>
-----------------	------------------------------	----------------	-------------------------------------------------------------------------	----------------	-------------------------------------------------------------------------	------------------	-------------------------------------------------------------------------	----------------	----------------------------------------------------



만사[직강신달도] 輓詞[直講申達道]

13世 달도(達道) 父 : 흠(伋) 祖父 : 원록(元祿) 음파(邑派) 만오공파(晩悟公派)

夫子適來世。高名衆所推。學該萬物象。文起三韓衰。雲錦製爲裳。蘭佩何陸離。昏辰曾卓立。清朝暫高馳。銀臺罷出納。林巷樂棲遲。蕭然圖書室。欵枕看戲兒。隨分理舊業。寄興題幾詩。伊我幸同鄉。少小相追隨。德言頻入耳。藥石砭狂癡。秋初余赴洛。慙慙寄短詞。隋珠耀白日。文字多古奇。南北渺雲樹。離懷自肝脾。何知數句語。便訣幽明爲。無命位不大。有志才莫施。空餘風月 在。灑落見清儀。他日還鄉井。有誰更切悃。辭將涕淚去。爲公復爲私。





만사[좌랑신열도] 輓詞[佐郎申悅道]

13世 달도(達道) 父 : 흘(屹) 祖父 : 원록 (元祿) 읍파(邑派)만오공파(晩悟公派)

一夜文星殞海陲。此生無復聽箴規。蘭摧蕙折香猶在。虎逝龍亡事可知。鶴洞煙霞誰主管。  
水溪風月摠含悲。他年忍過西霞路。哭送丹旌涕自垂。

만사[정랑신즙] 輓詞[正郎申楫]

22世 즙(楫) 父 : 정열(鼎說) 祖父 : 유집 (維鑠) 귀파(龜派) 응암공파(鷹巖公派)

東國無雙士。西清第一流。高名登白虎。大姓降青牛。器遠能容物。中剛更積柔。家風敦孝友。儒術去華浮。抱負元來重。經綸職所憂。許身期稷契。措世擬商周。豈意重蒲席。初傳玉几旒。人希三道泰。誰構兩宮仇。政亂綱常廢。權移趙孟偷。公時扶大義。憤筆護長秋。直道歸三黜。閒情付七休。風塵宦海遠。松桂故山幽。十載仍丹悃。餘生欲白頭。幸逢王者作。方展學而優。舊德緇衣敝。新恩墜履收。嚴程荷擔重。危命等毛輜。一札龍墀奏。千年燕翼謀。功光應在此。勲業竟歸疇。腐鼠方爭嚇。祥鸞恐寡儔。楓宸猶注意。樞密幾司喉。大任天將降。賢才鬼必讎。蛇年嗟易感。駒隙悵難留。邦殄關時運。人亡乏遠猶。異時蒙一許。同氣得相求。朽木從繩直。癡蠅託驥遊。德音心已會。明訓骨堪鏤。往事思如昨。遺芳挹莫由。公私俱涕淚。魂魄尙知不。

만사[진사신홍망] 輓詞[進士申弘望]

22世 증(楨) 父 : 정열(鼎說) 祖父 : 유집 (維鏞) 귀파(龜派) 응암공파(鷹巖公派)

玉壺秋水炯無塵。流俗頽波獨自珍。華國清文追雅頌。匡君直筆炳彝倫。儒林方切依歸望。邦運還逢殄瘁辰。叫向蒼穹何奪速。聖朝難得棟梁臣。

契措世擬商周。豈意重蒲席。初傳玉几旒。人希	術去華浮。抱負元來重。經綸職所憂。評身期稷	青牛器遠能容物。中剛更積柔。家風敦孝友。儒	東國無雙士。西清第一流。高名登白虎。大姓降	又	自垂。	溪風月摠含悲。他年忍過西霞路。哭送丹旌涕	香猶在。虎逝龍亡事可知。鶴洞煙霞誰主管。冰	一夜文星殞海陸。此生無復聽箴規。蘭摧蕙折	又	百歲見心期。	窮時。縱罷銀臺夢。難忘 聖主知。一函遺草在	器量超羣遠。文章間世奇。長途方騁日。大限忽	又	復覩儀刑。	西京嶽戴曾中蘊。雲浮身外榮。邦人悲殄瘁。無	天不偶然生。報施何太輕。望高懸北斗。文足繼	又	涕淚去。爲公復爲私。	在灑落見清儀。他日還鄉井。有誰更切悃。辭將
-----------------------	-----------------------	-----------------------	-----------------------	---	-----	----------------------	-----------------------	----------------------	---	--------	-----------------------	-----------------------	---	-------	-----------------------	-----------------------	---	------------	-----------------------

四三八

玉壺秋水炯無塵。流俗頽波獨自珍。華國清文	追雅頌。匡君直筆炳彝倫。儒林方切依歸望。邦	又	君丹悃。是平生。謂言抱負終施設。天奪如何夢	兩楹。	音心已會。明訓骨堪鏖。往事思如昨。遺芳挹莫	由公私俱涕淚。魂魄倘知不。	又	申甫生周嶽降精。箇箇符彩振家聲。吹噓勳業	青冥上。黼黻文章白日明。憂國一心猶進退。愛	又	禮龍捧奏。十年燕翼謀。功光應在此。勳業竟歸	疇。腐鼠方爭嚇。祥鸞恐竄儔。楓宸猶注意。樞密	幾司喉。大任天將降。賢才鬼必讎。蛇年嗟易感	駒隙悵難留。邦殄關時運。人亡之遠猶。異時蒙	一許。同氣得相求。朽木從繩直。癡蠅託驥遊。德	又	三道泰。誰構 兩宮仇。政亂綱常廢。權移趙孟	偷。公時扶大義。憤筆護長秋。直道歸三黜。閒情	付七休。風塵宦海遠。松桂故山幽。十載仍丹悃。	餘生欲白頭。幸逢王者作。方展學而優。舊德緇	衣敝。新恩墜履收。嚴程荷擔重。危命等毛輜。一
----------------------	-----------------------	---	-----------------------	-----	-----------------------	---------------	---	----------------------	-----------------------	---	-----------------------	------------------------	-----------------------	-----------------------	------------------------	---	-----------------------	------------------------	------------------------	-----------------------	------------------------

敬亭集 卷十四



運還逢殄瘁辰。叫向蒼穹何奪速。聖朝難得棟梁臣。

藏待書院奉安文

郡守金啓光

懿德之好。無間哲愚。寔出彝彙。神明之享。報侑是圖。實由誠敬。至行敦薄。高風激偷。在古罕並。柯則匪遠。枌榆接區。粵有先正。山嶽我鎮。星斗我盱。我思則求。有儼書屋。略備規模。依如壇杏。俎豆斯設。聲氣相孚。公議已定。道惟往躅。誦其典謨。若接咳聲。顯允梧峯。天賦特殊。孝家餘慶。塤唱箎和。規步端趨。惕若三省。戒色之年。目不

敬亭集附錄

四六

視妹淫邪自逆。大鳴王庭。初關晉途。專城即請。遭亂忘身。周窮恤孤。義烈炳炳。身府避駮。合浦還珠。冰清桂勁。時運一變。憂樂江湖。惟安義命。終慕蓂我老篤。烏哺曾閔之行。推而友愛。一視髮膚。祥覽之性。卓彼敬亭。玉衡冰壺。風儀峻整。學窮天人才。駕王蘇大名。早騁獨立。昏辰正論。是扶羣小。縮頸藝苑。高馳無與。齊驅望屬。文柄退之。祭饗季札。觀周夷夏。播詠素性。不在世路。崎嶇曲難和郢。一室蕭然。左右圖書。跡謝李孟。樂行憂違。闔與道俱。不容何病。知命之陶。獨

## 고산선생문집(孤山先生文集)

## 형태서지

권수제	고산선생문집(孤山先生文集)
판심제	孤山集
간종	목판본(木版本)
간행년	1775 年刊
권책	原集 8 권, 附錄 2 권 합 5 책
행자	10 행 20 자
규격	20.9×16.4(cm)
어미	上雜魚尾
소장처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도서번호	晩松 D1-A1675
총간집수	한국문집총간 126

## 저자

성명	이유장(李惟樟)
생년	1625 년(인조 3)
몰년	1701 년(숙종 27)
자	하경(夏卿)
호	고산(孤山), 마애(磨崖), 나암(懶庵), 우원(芋園), 우포(芋圃), 사익당(四益堂)
본관	예안(禮安)
특기사항	이휘일(李徽逸), 이현일(李玄逸), 정시한(丁時翰) 등과 교류



## 행력

왕력		서기	간지	연호		연령	기사
인조	3	1625	을축	天啓	5	1	5 월 16 일, 安東府 豊山縣에서 태어나다.
효종	5	1654	갑오	順治	11	30	7 월, 부친상을 당하다.
효종	8	1657	정유	順治	14	33	存齋 李徽逸이 來訪하여 「心經」, 「近思錄」 등을 강론하고 酬唱하다.
현종	1	1660	경자	順治	17	36	봄, 司馬試에 합격하다. ○ 모친의 병환으로 이후 10년 가까이 侍病하다.
현종	8	1667	정미	康熙	6	43	大兜率村에 寓居하다. 이 당시 <間居八詠>을 짓다.
현종	10	1669	기유	康熙	8	45	3 월, 모친상을 당하다. ○ 이후 두문불출하며 講學에만 전념하다. 그동안 朱子와 退溪의 禮說을 分類, 手編하여 「二先生禮說」을 만들고, 우리나라 역사책들을 刪節하고 요약한 뒤 자기의 의견을 곁들여 「東史節要」를 만들다.
숙종	15	1689	기사	康熙	28	65	여름, 大臣이 行高學優 踐履篤實로 천거하다. 6 품계에 올라 瓦礫 別提에 제수되다. 또 가을에는 工曹 佐郎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나아가지 않다. ○ 이해 丁時翰이 來訪하다. 丹陽 龜潭에 亭子를 세워서 두 사람이 만나는 장소로 삼다.
숙종	17	1691	신미	康熙	30	67	가을, 安陰 縣監에 제수되었으나 年限이 지났다는 이유로 사양하다. ○ 겨울, 翊衛司 翊贊에 제수되었으나 조정에 나아가 入直한 지 7 일 만에 下鄉하다. ○ 하향길에 楊州에 들러 先祖墓를 돌아보다. 道峯書院을 배알하고, 原州로 가서 丁時翰을 방문하다.
숙종	20	1694	갑술	康熙	33	70	3 월, 이조 판서 李玄逸이 下鄉을 고하면서 嶺南의 老成한 宿德으로 천거하다. ○ 惕若齋 金九容을 위해 遺稿를 편찬하고 跋을 짓다. ○ 4 월, 李玄逸이 함경도 洪原縣으로 유배되다.
숙종	21	1695	을해	康熙	34	71	丁時翰이 지은 「辨誣錄」의 後語를 짓다.
숙종	26	1700	경진	康熙	39	76	10 월, 유배에서 풀려나 李玄逸과 黃山寺에서 만나 酬唱하고 수일 동안 禮說을 논하고 돌아오다.
숙종	27	1701	신사	康熙	40	77	4 월, 進善 丁時翰에게 告訣의 편지를 보낸다. ○ 5 월 14 일, 졸하다. ○ 9 월 19 일, 豊山縣 북쪽 懸空山 龍甘洞에 장사 지내다.
영조	5	1729	기유	雍正	7	-	一鄉 人士들이 安東에 洛濱精舍를 세워 향사하다. ○ 趙德鄰이 墓碣銘을 짓다.
영조	51	1775	을미	乾隆	40	-	증손 李弘辰 등이 문집을 간행하다.(丁範祖의 序)

## 편찬및간행

저자는 평소 著述을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중년에 講學에만 전념한 시절, 몇 가지의 저술을 남겼던 것으로 보인다. 內弟 金如萬이 지은 行狀에 의하면, 이 시절 朱子 및 退溪의 論禮說을 分類, 手編한 「二先生禮說」과 우리나라의 여러 역사서를 刪節하고 요약한 뒤 자신의 견해를 곁들인 「東史節要」 등을 만들기도 하였다. 그러나 간행되어 현존하지는 않는다. 이 외의 저자의 시문은 증손 李象辰, 李弘辰, 족손 李敏政 등의 손을 거쳐 간행되었다.

1775년(영조 51)에 李象靖이 지은 序文과 丁範祖가 지은 序文을 통해 보면, 처음 증손 李象辰이 遺文을 校正하였으나 일을 마치지 못하고 불행히 졸하여 일이 중단된 바 있었으며, 일찍이 一鄉의 人士들이 洛濱에 社를 세워 봉안하였는데 얼마 안 되어 조정의 禁令으로 인해 폐지되니 증손 李弘辰, 족손 李敏政 등이 그 奉祀 비용을 전환하여 遺集을 간행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여기서 말한 洛濱의 社는 곧 安東에 세운 洛濱精舍(書院)를 가리키니, 李象靖의 外祖父 李裁가 쓴 〈洛濱精舍奉安孤山李公文〉(密菴集 韻餘 冊 1)에 의하면 기유년(1729, 영조 5)에 봉안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 기유년에는 또한 趙德鄰이 저자의 손자 李載基의 부탁으로 墓碣銘을 지은 해이기도 한데, 李載基는 이에 앞서 저자의 동생 李惟枋이 짓다가 완성하지 못한 行狀을 金如萬에게 부탁하여 완성해서 조덕린에게 보여 주고 묘갈명을 부탁하였다. 이는 곧 저자의 洛濱精舍(書院) 봉안을 전후로 하여 손자 李載基가 문집 간행을 도모하였음을 알려주는 일단이다.

그러나 저자의 遺文을 校正한 것은 이재기의 아들 李象辰에 와서 이루어졌으니, 李象辰은 李載基가 家藏 草稿를 바탕으로 수집한 遺文을 편차, 교정하는 데 힘썼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불행히 졸하게 되어 문집 간행은 그의 동생 李弘辰과 저자의 족손 李敏政의 손으로 넘어갔다. 그 간행의 계기는 1775년경에 이유는 불분명하지만 위의 奉祀가 중단되면서 문집 간행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또 간행의 財源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따라서 문집의 간행 장소도 洛濱精舍를 중심으로 볼 수 있을 듯한데, 사실을 확인할 기록은 없다. 李弘辰과 李敏政 등은 李象辰이 校正하다 만 遺集을 마저 정리하고, 또한 丁範祖에게 墓誌銘과 序文, 李象靖에게 序文을 받아 1775년 原集 8권, 附錄 2권 합 5책의 목판으로 간행하였다.《초간본》 현재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晚松 D1-A1675)에 소장되어 있고, 규장각(奎 12270)에는 筆寫本이 전한다.

이후 重刊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서의 저본은 1775년 초간된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장본이다. 영인 저본 중 卷5의 第10板 이후 板次가 '十九, 十七, 十八, 十九, 二十'으로 되어 있어 '十一'부터 '十六'이 없고 '十七'부터 '十九'까지 뒤섞여 있다. 卷頭의 目錄과 비교해 볼 때 누락되거나 착간되지는 않았고, 다만 판각상의 실수로 보인다.

序(李象靖·丁範祖 撰), 墓碣銘(趙德鄰 撰), 墓誌銘(丁範祖 撰) 등에 의함

## 구성과내용

본집은 原集 8권, 附錄 2권 합 5책으로 되어 있다.

맨 앞에 李象靖과 丁範祖가 1775년에 쓴 序文이 있고, 그 뒤가 總目錄이다.

권 1~3은 詩이다. 370여 題가 저작 연대순으로 편차되어 있다. 대체로 당시 嶺南의 여러 인사들과 次韻한 詩, 이들에 대한 挽詩가 주를 이룬다. 특히 丁時翰(君翊), 李玄逸(翼升), 李東標(君則) 등과 나눈 시가 많다. 또 1667년 大兜率村에 우거할 때 지은 <閒居八詠>, 1681년경 지은 <次武夷雜詠>, 1689년경 지은 <新安八景次韻>, 1698년경 지은 <野塘八景> 등 연작시가 여러 편이다. 맨 뒤에 1701년 졸하기 전 丁時翰에게 보낸 告訣의 시가 실려 있다.

권 4~5 앞부분은 書이다. 56편이 인물별로 편차되어 있다. 스승 柳稷에게 답한 편지가 맨 앞에 있는데, 「心經」과 「近思錄」의 講學을 청한 이유에 대해 설명한 편지이다. 그 뒤에 丁時翰, 李時善, 金泰基, 金如萬, 李玄逸 등에게 보내고 답한 편지 2~5 편씩과 白震興, 柳宜河 등 知舊 門人들에게 보내고 답한 편지, 宗人 李命弘, 손자 李載基 등에게 보낸 편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 안부 편지이고 一鄉의 문제나 禮制에 대한 문답도 실려 있다.

권 5 뒷부분~권 6은 雜著(4), 序(2), 記(4), 跋(9), 祭文(23), 銘(2), 行狀(5)이다. 雜著는 先世의 遺事를 비롯하여 處士 金栢下를 위해 지어준 <金氏奉先錄>, 豐山의 烈士 權興利를 褒贈하고 그 부인 烈女 吳召史를 褒賞하도록 府伯에게 건의한 呈狀, 金侃과 金倪에게 지어준 字說이고, 序는 禮安李氏 族譜에 지어준 序 등이다. 記는 李東標를 위해 지어준 <向陽齋記>, 자신의 草堂에 지은 <磨崖草堂記>, 1683년 瘡疹을 앓을 때 친구들이 보내 준 약을 기록해 간직한 <藥記> 등이다. 跋은 고려말의 楊若齋 金九容을 위해 遺稿를 편찬하고 지은 跋文, 외가에 보관중인 明 나라 朱之蕃의 眞蹟에 대한 書後, 西厓의 조카 李煥의 문집 「湖憂遺稿」에 쓴 跋文 등이다. 祭文은 氷山書院, 虎溪書院, 五峯書院, 藏待書院 등의 祝文과 金邦烈, 權堦, 李彬 등에 대한 祭文이다. 行狀은 金八元, 權杠, 柳稷, 부친 李廷發 등에 대한 것이다.

권 7~8은 墓誌銘(20), 墓碣銘(12)이다. 墓誌銘은 李文潑, 柳元定, 金慶祖 등에 대한 것을 앞쪽에, 外祖母 두 분, 고조 李薰, 증조 李純仁, 先妣 順天金氏, 伯氏 李惟樞, 仲氏 李惟樞, 亡室 全州柳氏 등 가족 친척에 대한 것을 뒤쪽에 실었다. 墓碣銘은 權柱, 權益昌, 金時佐 등에 대한 것이다.

附錄 2 권에서 권 1은 金如萬이 지은 行狀, 이에 附記된 丁時翰이 지은 後識와 門人 李成全이 지은 後題, 그리고 李成全이 지은 家狀補遺, 易箕記事, 趙德鄰이 지은 墓碣銘, 丁範祖가 지은 墓誌銘이다. 권 2는 丁時翰 등이 지은 祭文, 李玄逸 등이 지은 挽詩, 李裁가 지은 洛濱書院奉安文, 趙德鄰이 지은 常享祝文, 李仁復이 지은 洛濱書院上樑文이다.

## 이유장(李惟樟)

1694년 3월 6일 이조 판서 이현일(李玄逸)이 아뢰기를 "영남(嶺南)에 전(前) 익찬(翊贊) 이유장(李惟樟)이란 사람은 사물(事物)을 널리 들어 견식이 많아서 한 시대의 노성(老成)한 숙덕(宿德)이 되었으며, 또 문동도(文東道)란 사람은 일찍이 자의(諮議)에 의망(擬望)되기도 하여 남보다 뛰어난 재주와 학식으로 명성이 있으며, 한성 안에서는 참봉 이택(李澤)이란 사람이 또한 평소부터 선비의 명망을 짊어지고 있으니 지금 만약 발탁하여 임용하여 경석(經席)과 서연(書筵)에 드나들게 한다면 반드시 도움됨이 많을 것입니다."하였다.

1901년 8월 6일 종 2품 장봉환(張鳳煥)이 상소하기를 "숙종조(肅宗朝)의 유신(儒臣) 증 이조 판서(贈 吏曹 判書) 이유장(李惟樟)은 순결하고 바른 품성이다 평소에 스스로 애써 수양했는데 대체로 문순공(文純公) 이황(李滉)의 연원을 사숙하면서 성리학(性理學)에 깊이 파고든 결과 도(道)가 온전해지고 덕(德)이 수립되었습니다. 그의 친분관계를 말하면

진선(進善) 정시한(丁時翰)이나 충간공(忠簡公) 이동표(李東標) 같은 사람이었는데 도의(道義)로 서로 연마하며 지냈습니다.

당시 문충공(文忠公) 김수항(金壽恒)과 문순공(文純公) 박세채(朴世采)가 모두 말하기를 '실천이 독실하니 한 세상의 모범이다.'라고 하면서 입을 모아 조정에 추천한 결과 곧 별제(別提)와 좌랑(佐郎)으로 특별히 제수되었으나 모두 부임하지 않았으며, 얼마 후 안음(安陰)의 수령으로 임명하였으나 또 부임하지 않았습니다. 익찬(翼贊)의 벼슬에 제수됨에 이르러서는 '한 번도 사은(謝恩 肅拜)하지 않는 것은 숨어있는 선비로 자처한 것이기는 하나 도리상 온당치 못하다.'라고 하고는 비로소 대궐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입직(入直)한 지 7일 만에 백구가(白鷗歌)를 짓고는 그만 훌쩍 산으로 들어갔습니다."하였다.

1902년 2월 2일 의정부 의정(議政府 議政) 윤용선(尹容善)이 아뢰기를 "증 이조 판서 이유장(李惟樟)은 학문이 해박하고 건문이 넓어 한 시대 사람들의 추앙을 받았습니다. 이유장에게는 시호(諡號)를 의논하는 모임이 열리기를 기다려 모두 시호를 내리는 은전을 시행하소서."하였다.



卷之五 / 書

답신숙범 국모 答申叔範 國模

17世 숙범(叔範) 父 : 한로(漢老) 祖父 : 흥망(弘望) 귀파(龜派) 오봉공파(梧峰公派)

惠然來訪於宿春之地。感幸之至。又此垂賜存問。眷意有加。不佞何以得此。銘佩在心。無以爲喻。因審啓<sup>P</sup>居體履佳勝。惟樟七十之年。只隔數月。精神氣力。如虞淵之日。看看消盡。其得俯仰於此世。幾何時耶。所教文字。實非淺劣所敢承當。而特因俯索之勤。略效鄙忱。安敢以是有望於發揮盛德哉。聊備覆瓿之資耳。

孤山集五 二十三

而出入奔走之際。觸冒風寒。虧損榮衛。因成沉痾之患。亦不可謂必無也。若能以養病自處。超然遠引。脫去外累。又於攝理之中。擇其切於身心者。日夕不懈。則其所得之榮貴。奚啻百倍於自外至者哉。惟樟少而失學。老且無成。無復有望於向上之事。而區區之願。猶在於與人爲善。頃承枉顧之惠。出此警說。惟高明恕之否。

答申叔範國模

惠然來訪於宿春之地。感幸之至。又此垂賜存問。眷意有加。不佞何以得此。銘佩在心。無以爲喻。因審啓居體履佳勝。惟樟七十之年。只隔數月。精神氣力。如虞淵之日。看看消盡。其得俯仰於此世。幾何時耶。所教文字。實非淺劣所敢承當。而特因俯索之勤。略效鄙忱。安敢以是有望於發揮盛德哉。聊備覆瓿之資耳。

與柳欽若

昨承仲氏委訪。迨極感仰。邇來僉履動止。何似。老人昨從箕山。五羨兩老會于廣寺數日。瞻望高居。不甚難越。而少有拘管。竟失邂逅。不勝悵恨。拙菴記實。略起稿。欲待高眼。與之彙括。然後脫草。而相會未易。

卷之六 / 銘

악선당명 樂善堂銘

昔孤松先生鵝州申公。作燕遊之堂于居第之側。扁之以樂善。因有小絕四詩。以詠歌其志。及先生之孫國模氏。幹之改構其第。因堂之舊制而稍輪奐之。爲歌哭聚國族之所。而其號仍舊焉。嗚呼。人之所可樂者。亦多矣。孰有如爲善者乎。自可欲而推之。以至於仰不愧俯不怍。則其爲樂何如哉。先生既以是善爲之樂。則未嘗不欲推其所有。與斯人同之也。及世不我以柄鑿不合。則卷而懷之。甘自托於東平王馬少游之爲。故其發於聲詩者幽閒冲澹。優游自得。與曾點詠歸之興。司馬獨樂之意。千古一轍。豈世之欣欣於名利。汲汲於富貴。以浮榮外物爲樂者。所可與議哉。先生以是裕諸己而垂之後。國模氏又繼其志。而述其事。雖易其堂而新之。猶揭以舊扁。爲盤盂几杖之警。則其遵奉先志。遙追前烈之美可見矣。惟樟嘗獲幸於先生之門。服其高義有素。而景詒謨之及於後昆也。於是再拜而爲之銘。銘曰。

我有我善。匪自外得。修之於身。百行具足。體之於心。萬理斯備。善既在我。其樂自至。千駟萬鍾。莫我能易。簞瓢陋巷。隨遇自適。年豐國泰。宿願所繫。白雲青嶂。心豈忘世。用舍行藏。時適然矣。懿歟先生。惟義之視。凡厥後昆。顧諟華扁。式穀似之。居之無倦。

之中。悲意兩端。而默自料理。則哀生者重。而哀死者輕。是則吾之私意未盡。雖在父子之間。尚有物我之分者矣。汝其知也耶。其不知也耶。大聲長號。永訣終天。

銘

樂善堂銘

昔孤松先生鵝州申公。作燕遊之堂于居第之側。扁之以樂善。因有小絕四詩。以詠歌其志。及先生之孫國模氏。幹之改構其第。因堂之舊制而稍輪奐之。爲歌哭聚國族之所。而其號仍舊焉。嗚呼。人之所可樂者。亦多矣。孰有如爲善者乎。自可欲而推之。以至於仰不愧俯不怍。則其爲樂何如哉。先生既以是善爲之樂。則未嘗不欲推其所有。與斯人同之也。及世不我以柄鑿不合。則卷而懷之。甘自托於東平王馬少游之爲。故其發於聲詩者幽閒冲澹。優游自得。與曾點詠歸之興。司馬獨樂之意。千古一轍。豈世之欣欣於名利。汲汲於富貴。以浮榮外物爲樂者。所可與議哉。先生以是裕諸己而垂之後。國模氏又繼其志。而述其事。雖易其堂而新之。猶揭以舊扁。爲盤盂几杖之警。則其遵奉先志。遙追前烈之美可見矣。惟樟嘗獲幸於先生之門。服其高義有素。而景詒謨之及於後昆也。於是再拜而爲之銘。銘曰。

我有我善。匪自外得。修之於身。百行具足。體之於心。萬理斯備。善既在我。其樂自至。千駟萬鍾。莫我能易。簞瓢陋巷。隨遇自適。年豐國泰。宿願所繫。白雲青嶂。心豈忘世。用舍行藏。時適然矣。懿歟先生。惟義之視。凡厥後昆。顧諟華扁。式穀似之。居之無倦。

孤山集六

二十六

一一一



獲幸於先生之門。服其高義有素。而景詒謨之及於後昆也。於是再拜而為之銘。銘曰。

我有我善。匪自外得。修之於身。百行具足。體之於心。萬理斯備。善既在我。其樂自至。千駟萬鍾。莫我能易。簞瓢陋巷。隨遇自適。年豐國泰。宿願所繫。白雲青嶂。心豈忌世。用舍行藏。時適然矣。懿歟先生。惟義之規。允取後昆。顧誕華扁。式毅似之。居之無倦。

琴銘

琴者禁也。所以禁吾心之非。日夕在御。手撫黃金之徽。查滓消融。若水泮雪釋。天理藹然。如春嘘物。齒古

孤山集六

二十七

人權輿之意。置在於是。此語如不信。請質之於軒轅氏。

行狀

芝山先生金公行狀

先生諱八元。字舜舉。初字秀卿。姓金氏。系出江陵。新羅宗姓。溟源君諱周元。其鼻祖也。代有名公。為世望族。八代祖令。同正諱仁。輟始家于安東。子孫仍居焉。曾祖諱孝安。成均生貢。祖諱光路。齊陵參奉。考諱績。宣教郎。三陟訓導。妣永春李氏。諱自芸之女。以嘉靖甲申二月十五日。生。生未七日而母夫人捐背。鞠

## 구봉선생문집(九峯先生文集)

## 형태서지

수제	구봉선생문집(九峯先生文集)
판심제	구봉선생문집(九峯先生文集)
간종	활자본(木活字)
간행년	1866 년 간행
권책	3 권 2 책
행자	10 행 20 자
규격	22.9×18.0(cm)
어미	上下花紋魚尾
소장처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도서번호	811.98/김수인/구-목
총간집수	한국문집총간 속 13

## 저자

성명	김수인(金守訥)
생년	1563 년(명종 18)
몰년	1626 년(인조 4)
자	군신(君愼)
호	구봉(九峯)
본관	광주(廣州)
특기사항	정구(鄭逵)의 문인. 이안진(李安眞), 엄성(嚴愷), 이순형(李純馨) 등과 교유



행력

왕력		서기	간지	연호		연령	기사
명종	18	1563	계해	嘉靖	42	1	10 월 4 일, 密陽府 九明洞에서 태어나다.
선조	4	1571	신미	隆慶	5	9	부친상을 당하다.
선조	21	1588	무자	萬曆	16	26	咸安 郡守로 있던 寒岡 鄭逵에게 배우다. ○ 이때 부터 武屹과 檜淵을 오가며 정구에게 배우다.
선조	25	1592	임진	萬曆	20	30	4 월, 從祖叔父 金太虛를 따라 火旺山城에서 의병 활동을 하다가, 모친을 모시고 伽倻山으로 피란하다.
선조	36	1603	계묘	萬曆	31	41	司馬試에 합격하다. ○ 성균관에 유학하다.
광해 군	5	1613	계축	萬曆	41	51	永昌大君의 獄事가 일어나자 劄書를 청하는 상소를 올렸으나, 비답이 내리지 않자 낙향하여 九明山에 은거하다.
광해 군	7	1615	을묘	萬曆	43	53	〈九明山記〉를 짓다.
광해 군	12	1620	경신	泰昌	1	58	모친상을 당하다.
인조	1	1623	계해	天啓	3	61	인조반정이 일어나자 다시 성균관에 들어가다. ○ 諸生들이 掌議로 천거하다.
인조	4	1626	병인	天啓	6	64	5 월 11 일, 成均館 齋任으로 있던 중 泮邸에서 즐하다. ○ 9 월, 密陽府 瑞莊洞에 장사 지내다.
고종	3	1866	병인	同治	5	—	7 세손 金志立이 활자로 문집을 印行하다.

편찬및간행

저자는 평소 저술을 좋아하지 않았고, 죽은 뒤에 남에게 輓詞, 誄文을 받거나 遺稿를 裒輯하지 말라는 유언에 따라 저자의 유고는 부집되지 못하였고, 또한 1629 년의 화재로 소실되어 詩文, 雜錄 약간 편이 家藏되어 왔다.

저자의 스승인 鄭逵의 후손 鄭奎錫이 1830 년에 지은 서문이 있는 점으로 보아, 이 즈음에 저자의 문집을 간행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후 8 대손 金寅奎가 유고 1 책을 가지고 1850 년에 柳進翼에게 발문을 청하였고, 金命奎가 저자의 遺文과 古事를 가지고 洪直弼(1776~1852)에게 행장을 청하였고, 金命奎 · 金炯奎 형제가 저자의 事行과 詩文, 論說 등을 부집하여 1854 년에 趙斗淳(1796~1870)에게 서문을 받는 등 간행 준비를 하였으나 간행되지 못하다가, 7 세손 金志立이 實記의 예에 따라 諸家의 서문과 행장, 묘갈 등을 붙여 3 권 2 책의 목활자로 1866 년에 문집을 인행하였다.《초간본》 이 본은 현재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811.98/김수인/구-목),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D1-A1442), 성균관대학교 존경각(D3B-2321) 등에 소장되어 있다.

본서는 7 세손 김지립이 1866 년 활자로 인행한 초간본으로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장본이다. 본 영인 저본은 序의 제 13 판은 판차가 '十'으로 오기되어 있다.

序(鄭奎錫·趙斗淳·李正觀 撰), 跋(柳進翼 撰), 後識(金志立 撰), 行狀(洪直弼 撰) 등에 의함

## 구성과내용

본집은 3 권 2 책으로 되어 있다. 권수에는 1830 년에 지은 鄭奎錫의 서문, 1854 년에 지은 趙斗淳, 李正觀의 서문과 目錄이 있다.

권 1 에는 詩 10 제, 疏 1 편, 書 5 편, 雜著 2 편이 실려 있다. <疏不見省遂南歸作二絕>은 성균관에 있으면서 영창대군을 살려 주기를 청하는 <全恩疏>를 올렸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明倫堂에서 이미 윤리를 밝히지 못하니 고향에 돌아가 여생을 마치겠다.”고 비분강개하여 낙향하면서 지은 시이다. <全恩疏>는 1613 년 영창대군의 옥사가 일어났을 때 광해군에게 형제간의 정의를 생각하여 영창대군을 살려 주기를 청하는 내용인데, 본집에는 家藏되어 있던 상소의 副本이 화재로 소실되어 대부분의 내용이 결락되어 있으며, 말미에 아들 金之欽의 後識가 첨부되어 있다. 書는 鄭逖, 鄭經世, 李潤雨, 金奉祖 등에게 보낸 편지이다. 잡저의 <讀書謾錄>은 학문은 自得을 근본으로 한다는 등의 책을 읽으며 느낀 점을 기록한 것이며, <論語筭錄>에는 「논어」에 대한 저자의 식견을 엿볼 수 있는 장편의 학문적인 내용이 피력되어 있다.

권 2 에는 잡저 5 편, 序 2 편, 記 1 편, 跋 2 편, 箴 1 편이 실려 있다. 잡저의 <亂中雜錄>은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보고 들은 내용을 기록한 것이며, <泮中回諭文>은 영창대군의 옥사 등 인륜이 무너지는 망극한 일에 대해 성균관의 여러 유생들에게 상소를 올리는 데 참여할 것을 권유한 글이다. <九明山記>는 낙향하여 구명산에 은거할 때인 1615 년에 지은 것으로, 자신이 이곳에 은거하는 것은 위로는 先祖의 뜻을 받들고 아래로는 明哲保身하기 위한 것임을 말하고 있다.

권 3 은 부록이다. 柳長源이 지은 行錄, 柳致明과 洪直弼이 지은 行狀 2 편, 李彙寧이 지은 墓碣銘, 宋穉圭가 지은 墓誌銘, 「寒岡先生門人錄」과 「密陽邑誌」의 저자 관련 기록, 裴大維와 安珮이 지은 輓詞, 館儒 李安眞 등이 지은 祭文, 李鼎秉이 지은 <德陽祠上樑文>, 柳致明이 지은 奉安文, 鄭經世·李潤雨·申悅道·申之梯·申適道·裴大維·安璫·趙靖·鄭四勿·鄭三戒·孫起陽·李榮立·金應祖·全以性 등 14 명이 지은 知舊들 간의 往復書가 실려 있다.

권미에는 1850 년에 지은 柳進翼의 발문과 1866 년에 지은 7 세손 金志立의 後識가 있다.

## 김수인(金守訥)

### 정의

조선시대 『구봉문집』을 저술한 학자.

### 개설

본관은 광주(廣州). 자는 군신(君愼), 호는 구봉(九峯). 아버지는 참봉(參奉) 김태을(金太乙)이며, 어머니는 의성김씨로 참봉 김휘(金輝)의 딸이다.

### 생애 및 활동사항

정구(鄭逵)의 문인으로,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 때에는 작은아버지 김태허(金太虛)가 울산군수로 화왕산(火旺山)을 지키고 있을 때 옆에서 계책을 세워 많은 전공을 세우게 했다.

1603년 사마시에 합격, 태학(太學)에 있을 때 장의(掌議)의 신분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광해군을 간하기 위하여 「전은소(全恩疏)」를 올리고, 석고대죄한 지 7일 만에 낙향하였다. 인조반정 뒤에 다시 태학으로 돌아왔다.

평생에 『논어』와 『대학』을 읽어 성(誠)과 경(敬)으로써 일신의 수양지침을 삼았고, 성리학은 정구의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을 지지하였다. 정경세(鄭經世)·이윤우(李潤雨) 등과 교유하였다. 울산 덕양사(德陽祠)에 봉향되었으며, 저서로는 『구봉문집(九峯文集)』 4권 2책이 있다.

卷之三 / 附錄

지구왕복서(知舊往復書)[梧峰申之悌]

14世 지제(之悌) 父 : 몽득(夢得) 祖父 : 응규 (應奎)

귀파(龜派)오봉공파(梧峰公派)

江村會話。已是不俗。聯枕連夜。興復如何。第恨聚散有期。私故又牽。去留相殊。行有先後。當日十步九回之懷。兄其想得也。卽者冬令。兄履不須問也。從近叙懷。以續前日未盡之遊是計。而浮世事不如意者十居八九。安知其必然與否也。餘惟冀篤學以道自愛。伏惟。

又	九峯先生文集卷三 二十	懶齋申悅道
<p>前書未復。辱問旋施。感既多矣。愧亦隨之。因審雅履。漸入佳境。磨玉已至極地。爲之奉賀。莫之勝悅。况烏兔奔輪。講期漸迫。釋褐卽錦。乃可指日。而一轉清波。致身要路。則先建令名。無時可稱。故預以首題。何莫非弟兄間相愛之發乎。幸勿怪訝焉。念中弟來此。夢寐不到地。事之決重。尚爾未易。反以爲苦耳。旬間當發去爲計。歸路可得奉叙耶。惟冀兄履益珍。伏惟。</p>	又	梧峰申之悌
<p>江村會話。已是不俗。聯枕連夜。興復如何。第恨聚散有期。私故又牽。去留相殊。行有先後。當日十步九回之懷。兄其想得也。卽者冬令。兄履不須問也。從近叙懷。以續前日未盡之遊是計。而浮世事不如意者十居八九。安知其必然與否也。餘惟冀篤學以道自愛。伏惟。</p>	學以道自愛。伏惟。	



지구왕복서(知舊往復書)[懶齋申悅道]

13世 열도(悅道) 父 : 흘(屹) 祖父 : 원록(元祿) 읍파(邑派)난재공파(亂齋公派)

前書未復。辱問旋施。感既多矣。愧亦隨之。因審雅履漸入佳境。磨玉已至極地。爲之奉賀。莫之勝悅。况烏兔奔輪。講期漸迫。釋褐卽錦。乃可指日。而一轉清波。致身要路。則先建令名。無時可稱。故預以首題。何莫非弟兄間相愛之發乎。幸勿怪訝焉。念中弟來此。夢寐不到地。事之決重。尙爾未易。反以爲苦耳。旬間當發去爲計。歸路可得奉叙耶。惟冀兄履益珍伏惟。

<p>客中邂逅。燈前披對。甚非易事。而遠程驅馳。氣德不能作穩話。思之悵然。卽惟雅履益珍。生衢泥遠。到。偃卧呻吟。西望長安。歸路杳然。恐難自致。令人髮白餘。祝珍重伏惟。</p>	<p>又</p>	<p>石潭李潤雨</p>	<p>謹奉嵩書之間。仍審潦餘殘暑。雅履清福。仰慰。生等奉侍先生來。此今廿日。浴便六度。先生浴後。猶未見效。而泄瀉累作。元氣甚敗。須可慮也。只此伏惟。</p>	<p>又</p>	<p>懶齋申悅道</p>	<p>九峯先生文集卷三 二十</p>	<p>前書未復。辱問旋施。感既多矣。愧亦隨之。因審雅履漸入佳境。磨玉已至極地。爲之奉賀。莫之勝悅。况烏兔奔輪。講期漸迫。釋褐卽錦。乃可指日。而一轉清波。致身要路。則先建令名。無時可稱。故預以首題。何莫非弟兄間相愛之發乎。幸勿怪訝焉。念中弟來此。夢寐不到地。事之決重。尙爾未易。反以爲苦耳。旬間當發去爲計。歸路可得奉叙耶。惟冀兄履益珍伏惟。</p>	<p>又</p>	<p>梧峰申之愷</p>	<p>江村會話。已是不俗。聯枕連夜。興復如何。第恨乘</p>
-----------------------------------------------------------------------------------------	----------	--------------	--------------------------------------------------------------------------------	----------	--------------	--------------------	-------------------------------------------------------------------------------------------------------------------------------------------------------------------------------	----------	--------------	--------------------------------

지구왕복서(知舊往復書)[虎溪申適道]

13世 적도(適道) 父 : 흘(屹)      祖父 : 원록(元祿)      읍파(邑派)호계공파(虎溪公派)

洛城分手後。須得萬安否。路左忠州。未得並轡。迨令悵缺。弟撼頓長路。僅僅返棲。而寂寞窮廬。誰與論懷。此時思兄。更覺一倍。兄之垂翅。天將使之益光大其工。而有待於他日耶。如弟伴食旅榻。虛送居諸。而南來不久。更圖西笑。人苦自不知者。儘不誣矣。適因孝伯之行。聊修一札伏惟。

散有期私故又乖。去留相殊。行有先後。當日十步九回之懷。兄其想得也。卽者冬令。兄履不須問也。從近叙懷。以續前日未盡之遊。是詎而浮世事不如意者。十居八九。安知其必然與否也。餘惟冀篤學以道自愛。伏惟。

又

虎溪申適道

洛城分手後。須得萬安否。路左忠州。未得並轡。迨令悵缺。弟撼頓長路。僅僅返棲。而寂寞窮廬。誰與論懷。此時思兄。更覺一倍。兄之垂翅。天將使之益光大其工。而有待於他日耶。如弟伴食旅榻。虛送

九峯先生文集卷三 二十一

居諸。而南來不久。更圖西笑。人苦自不知者。儘不誣矣。適因孝伯之行。聊修一札伏惟。

又

蔡知裴大維

嶺路勞分。難任一倍。緬惟兄候萬安耶。弟念中僅保餘狀耳。兄之下去。得無涉於過高耶。泮中諸彥。亦以爲訝。望須旋駕。從觀公議而歸如何。末路進退相依。惟弟兄二人。不意吾兄拂衣南還。兄何負我。何負我。苦企苦企伏惟。

又

樂園安璫

隔年阻拜。懸溯日新。伏惟歲晚。動靜萬安。仰慰。弟

九峯集 卷三

## 근시재선생문집(近始齋先生文集)

### 형태서지

권수제	근시재선생문집(近始齋先生文集)
판심제	근시재선생집(近始齋先生集)
간종	목판본(木版本)
간행년	1783 년경 간행
권책	4 권 2 책
행자	10 행 19 자
규격	20.2×17.0(cm)
어미	上下二葉花紋魚尾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도서번호	奎 5568
총간집수	한국문집총간 속 9

### 저자

성명	김해(金垓)
생년	1555 년(명종 10)
몰년	1593 년(선조 26)
자	달원(達遠)
호	근시재(近始齋), 낙교(洛郊), 서강(西岡), 낙서(洛西)
본관	광주(光州)
특기사항	남치리(南致利), 권호문(權好文), 권우(權宇) 등과 교류

행력

왕력		서기	간지	연호		연령	기사
명종	10	1555	을묘	嘉靖	34	1	2월 27일, 태어나다. ○ 7일 만에 모친상을 당하다. 이후 伯父 後彫堂 金富弼에게 양육되다.
선조	8	1575	을해	萬曆	3	21	漢城試에 합격하다.
선조	10	1577	정축	萬曆	5	23	10월, 백부의 상을 당하여 心喪 3년으로 치르다.
선조	13	1580	경진	萬曆	8	26	8월, 장자 金光繼가 태어나다.
선조	15	1582	임오	萬曆	10	28	李德弘과 「周易」을 講하다. ○ 부친상을 당하다.
선조	18	1585	을유	萬曆	13	31	차남 金光實이 태어나다.
선조	20	1587	정해	萬曆	15	33	삼남 金光輔가 태어나다. ○ 겨울, 行義로 천거되어 光陵 參奉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선조	21	1588	무자	萬曆	16	34	2월, 社稷署 參奉이 되다. ○ 司馬試에 합격하다. ○ 屏山書院에서 鶴峯 金誠一, 西厓 柳成龍과 李滉의 文集을 修整하다.
선조	22	1589	기축	萬曆	17	35	2월, 別試 鄉解에 합격하다. ○ 여름, 延恩殿 參奉이 되다. 文科에 급제하다. ○ 承文院 正字가 되다. ○ 翰林에 선발되어 藝文館 檢閱이 되다. ○ 겨울, 동료가 史草를 태운 일로 인해 파직되다. ○ 己丑獄死로 削秩되다. 이후 두문불출하고 학문에 주력하다.
선조	24	1591	신묘	萬曆	19	37	季男 金光岳이 태어나다.
선조	25	1592	임진	萬曆	20	38	왜란이 일어나 어가가 파천했다는 소식을 듣고 鄉兵을 규합해 倡義하고 의병대장으로 추대되다. ○ 8월, 招諭使 金誠一에게 편지를 보내 충의를 맹세하다. ○ 겨울, 醴泉 松丘村에 진을 치고 다수의 적을 참획하는 전과를 올린다.
선조	26	1593	계사	萬曆	21	39	5월, 부인 眞城李氏의 상을 당하다. ○ 6월 19일, 慶州 逆旅에서 병으로 졸하다. ○ 11월, 禮安 知禮村에 장사 지내다.
선조	28	1595	을미	萬曆	23	—	순국한 일로 弘文館 修撰에 증직되다.

편찬및간행

저자는 퇴계 이황의 문인인 金富弼, 金富儀 형제의 조카이자 아들로, 직접 이황에게 師事받지는 못했지만 그 학맥을 계승하여 私淑하였으며,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활동하였다. 저자는 의병 활동을 하면서 「鄉兵日記」 2卷, 「西征錄」, 「行軍須知」 등의 작품을 남겼지만 兵禍로 일실되어 전하지 않는다.



저자의 유문은, 증손 金錫胤이 家藏되어 오던 초고를 바탕으로 수집 편차하여 不分卷 1冊의 형태로 李篋에게 跋을 받고 1708년에 趙德鄰에게 서문을 받았다. 그러나 간행이 된 것은 70여년 뒤인 1783년경으로, 후손인 金鏊과 金瑩 등이 주축이 되어 金錫胤이 정리한 유고를 4권 2책으로 재편하고 다시 丁範祖에게 跋을 받아 목판으로 간행하였다.《초간본》 현재 규장각(奎 5568), 국립중앙도서관(한 46-가 303, 古 3648-文 10-338),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장서각(D3B-1761) 등에 소장되어 있다.

본서의 저본은 1783년경 목할자로 인행된 초간본으로 규장각장본이다. 본 影印底本 중 卷1의 제5板은 상태가 불량하여 동일본인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장본(811.97/김해/근-판)으로 대체하였으며, 卷1의 제19판과 제20판은 錯簡되어 있어 바로잡았다.

序(趙德鄰 撰), 跋(丁範祖·李篋 撰), 行狀(李象靖 撰), 墓誌銘(李玄逸 撰) 등에 의함

## 구성과내용

본집은 4권 2책으로 되어 있다. 권두에 趙德鄰이 1708년에 지은 序, 丁範祖가 1783년에 지은 跋, 지은 연도가 기록되지 않은 李篋의 跋이 있고, 그 뒤에 목록이 있다.

권 1은 辭, 詩이다. 辭는 <和秋風辭>를 비롯한 3편이 모두 和韻한 것이다. 詩는 五言古詩(16), 七言古詩(1), 五言律(7), 七言律(8), 五言絶句(24), 七言絶句(51) 순으로 모두 107題의 시가 詩體別로 모아져 있다. 陶山書院에 머물면서 주변의 天淵臺, 濯纓潭, 風穴臺, 滿月菴 등을 소재로 읊은 시들이 있으며, 金誠一이 사신으로 日本에 다녀온 것을 듣고 읊은 시, 임증시에 읊은 絶命詩도 있다. 함께 시를 수창한 사람은 任屹, 趙穆, 金圻, 郭趨 등이다.

권 2~3 앞부분은 書(37)이다. 권 2의 편지는 喪禮, 祭禮 등 禮에 관해 南致利 등과 주고받은 편지를 문목 형식으로 편집해 놓은 것이다. 이 중 첫 번째 편지는 저자가 伯父의 喪을 당해 不杖褻服을 입고 心喪 3년을 치르기로 정한 뒤, 題主하는 데 '養父'로 해야 할지 '伯父'로 해야 할지의 문제에 관해 논의한 내용이 실려 있는데, 양육해 준 백부에 대한 저자의 정의를 엿볼 수 있다. 권 3의 편지는 金誠一에게 보낸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인물별로 수록되어 있으며, 趙穆, 金富倫, 金圻, 郭嶠, 權宇, 裴龍吉 등이 그 대상이다. 특히 趙穆과의 편지에서 「退溪集」 수찬에 관한 논의가 오간 것과 임진왜란 당시 義兵將이던 저자가 招諭使인 鶴峯 金誠一에게 보낸 답장이 눈에 띈다.

권 3의 뒷부분은 雜著로, 說(1), 辨(1), 題後(1), 祭文(2), 表(1), 箋(1), 啓(1), 遺事(2), 墓誌(2)로 구성되어 있다. <理氣說>에서 저자는 李滉의 '理發氣隨', '氣發理乘'에 동조하고 있으나 뒷부분이 일실되었다. <深衣辨>은 深衣의 제도에 대해서 명백하고 합당한 朱子の 說에도 불구하고 諸說들이 난무하는 데 대해 비판하면서 '衣'와 '裳'의 제도를 나누어 변론한 것이다. 祭文은 權宇와 종숙부에 대한 것이다. 그 밖에 宋나라 韓世忠이 御筆로 '忠莊'이라 쓴 깃발을 하사받은 데 대한 <擬宋韓世忠謝賜旋忠莊表>, 사찰을 철거할 것을 청하는 <擬太學生等請撤去諸道寺刹箋>이 있다. 遺事는 부친 김부의와 백부 김부필에 대한 것이고, 묘지는 백부 및 琴梓의 부인 端人 光州金氏에 대한 것이다.

권 4는 부록이다. 1779년 李象靖이 지은 行狀, 蔡濟恭이 지은 묘갈명, 李玄逸이 1686년경에 지은 묘지명, 저자의 長子 金光繼가 지은 家狀, 金圻가 지은 傳, 저자가 起兵하면서부터 陣中에서 즐하기까지의 간단한 始末을 적은 金垓의 <龍蛇記事>, 趙穆 외 7인이 지은 祭文, 趙穆과 申之梯가 지은 輓詞가 수록되어 있다.

## 김해(金垓)

### 정의

조선시대 승문원정자, 예문관검열 등을 역임한 문신·의병장.

### 개설

본관은 광산(光山). 자는 달원(達遠), 호는 근시재(近始齋)·시재(始齋). 김효로(金孝盧)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관찰사 김연(金緣)이고, 아버지는 김부의(金富儀)이며, 어머니는 권습(權習)의 딸이다.

### 생애 및 활동사항

예학(禮學)에 조예가 깊었고 조신(朝臣)의 천거로 1587(선조 20)년 광릉참봉(光陵參奉)에 제수되었으나 사양하여 나가지 않았다. 이듬해 사직서참봉(社稷署參奉)으로 사마시에 합격하였고, 1589년 연은전참봉(延恩殿參奉)으로 증광 문과에 을과로 급제, 승문원정자를 지내고, 한림(翰林)에 선발되어 예문관검열에 제수되었다.

그해 10월 정여립(鄭汝立)의 모반사건이 일어나고, 11월 사국(史局)에서 사초(史草)를 태운 사건에 연루되어 면직되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향리 예안(禮安)에서 의병을 일으켜, 영남의병대장으로 추대되어 안동·군위 등지에서 분전하였다.

이듬해 3월 좌도병마사 권응수(權應銖)와 합세하여 상주 당교(唐橋)의 적을 쳐서 큰 전과를 거두고, 4월 서울에서 부산으로 철수하는 적을 차단, 공격하여 대승하였으며, 5월에는 양산을 거쳐 경주에서 이광휘(李光輝)와 합세하여 싸우다가 진중에서 병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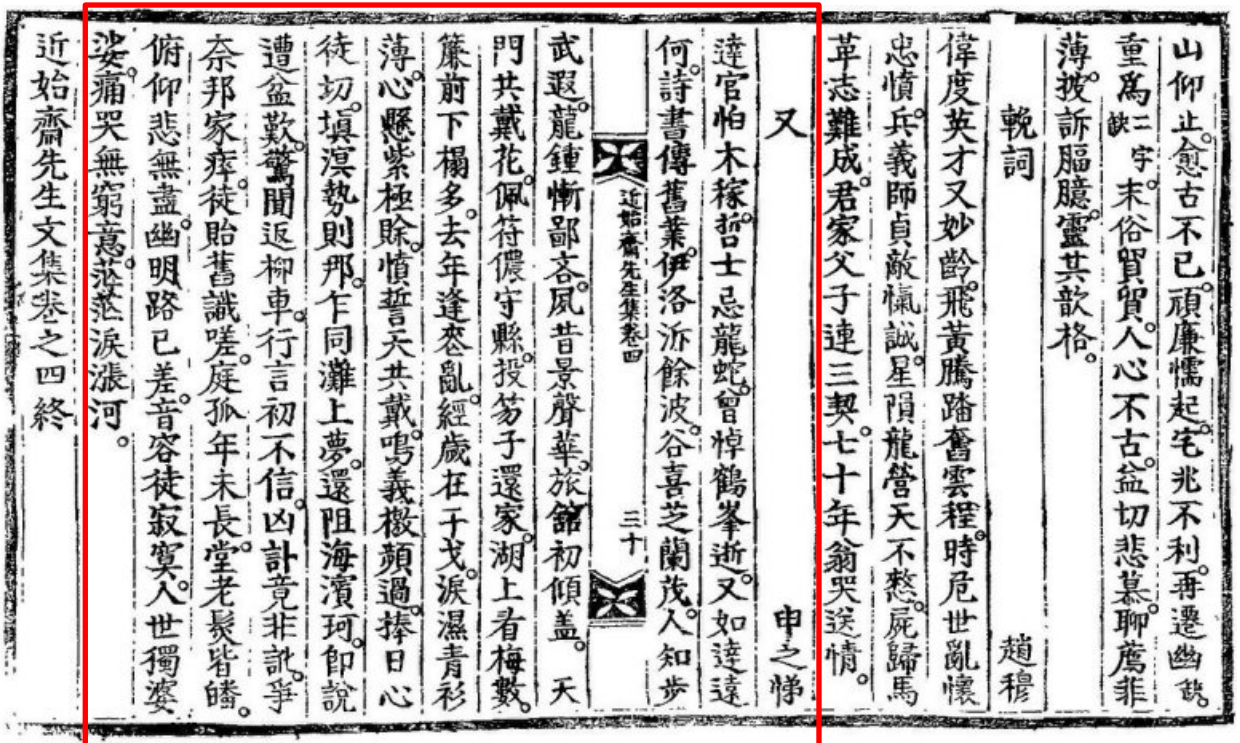
1595년 홍문관수찬이 증직되고, 1893년 이조판서가 추증되었다. 저서로는 『근시재집(近始齋集)』이 있다.

卷之四 / 附錄

輓詞[申之悌]

14世 지제(之悌) 父 : 몽득(夢得) 祖父 : 응규 (應奎) 귀파(龜派)오봉공파(梧峰公派)

達官怕木稼。哲士忌龍蛇。曾悼鶴峯逝。又如達遠何。詩書傳舊業。伊洛泝餘波。谷喜芝蘭茂。人知步武遐。龍鍾慚鄙吝。夙昔景聲華。旅館初傾蓋。天門共戴花。佩符儂守縣。投笏子還家。湖上看梅數。簾前下榻多。去年逢喪亂。經歲在干戈。淚濕青衫薄。心懸紫極賒。憤誓天共戴。鳴義檄頻過。捧日心徒切。填溟勢則那。乍同灘上夢。還阻海濱珂。卽說遭盆歎。驚聞返柳車。行言初不信。凶訃竟非訛。爭奈邦家瘁。徒貽舊識嗟。庭孤年未長。堂老髮皆皤。俯仰悲無盡。幽明路已差。音容徒寂寞。人世獨婆娑。痛哭無窮意。茫茫淚漲河。



## 낙재선생문집(樂齋先生文集)

### 형태서지

권수제	낙재선생문집(樂齋先生文集)
판심제	낙재선생문집(樂齋先生文集)
간종	목판본(木版本)
간행년	1843년 간행
권책	원집(原集) 7권, 연보(年譜) 3권, 부록(附錄) 합 4책
행자	10행 20자
규격	21.0×16.4(cm)
어미	上二葉花紋魚尾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도서번호	奎 4696
총간집수	한국문집총간 속 7

### 저자

성명	서사원(徐思遠)
생년	1550년(명종 5)
몰년	1615년(광해군 7)
자	행보(行甫)
호	낙재(樂齋), 미락재(彌樂齋), 만오당(晩悟堂), 고시자(顧諫子)
본관	달성(達城)
특기사항	정구(鄭逵)의 문인. 장현광(張顯光), 손처눌(孫處訥) 등과 교유

### 행력



낙재선생문집(樂齋先生文集) 서사원(徐思遠)

왕력		서기	간지	연호		연령	기사
명종	5	1550	경술	嘉靖	29	1	6월 4일, 星州 八莒縣에서 태어나다.
명종	11	1556	병진	嘉靖	35	7	백부 徐澗의 양자가 되다.
명종	19	1564	갑자	嘉靖	43	15	8월, 생모상을 당하다.
명종	21	1566	병인	嘉靖	45	17	松潭 蔡應麟의 문하에 나아가다. ○ 溪東 全慶昌을 뵈다.
선조	4	1571	신미	隆慶	5	22	竹山朴氏 朴培의 딸과 혼인하다.
선조	6	1573	계유	萬曆	1	24	林下 鄭師哲을 뵈다.
선조	7	1574	갑술	萬曆	2	25	아들 徐恒이 태어나다.
선조	8	1575	을해	萬曆	3	26	향시에 합격하다. ○ 8월, 부친상을 당하다.
선조	10	1577	정축	萬曆	5	28	寒岡 鄭逵의 문하에 나아가다.
선조	12	1579	기묘	萬曆	7	30	'顧諛子'로 自號하다.
선조	13	1580	경진	萬曆	8	31	7월, 모친상을 당하다.
선조	17	1584	갑신	萬曆	12	35	예조의 추천으로 童蒙教官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선조	18	1585	을유	萬曆	13	36	4월, 東岡 金宇顙을 뵈다. ○ 孫處訥과 朱書를 강독하다.
선조	19	1586	병술	萬曆	14	37	여름, 慶州에 가서 應製試를 보다.
선조	20	1587	정해	萬曆	15	38	선공감 감역이 되다.
선조	23	1590	경인	萬曆	18	41	陶山에 가서 李滉의 사당을 배알하다.
선조	24	1591	신묘	萬曆	19	42	畫巖을 유람하다.
선조	25	1592	임진	萬曆	20	43	7월, 招諭使 金誠一의 義兵召募官이 되다. ○ 8월, 背淵에 진을 치고 왜장 平方希를 물리치다.
선조	26	1593	계사	萬曆	21	44	3월, 생부상을 당하다.
선조	27	1594	갑오	萬曆	22	45	4월, 安奇道 察訪이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선조	28	1595	을미	萬曆	23	46	8월, 淸安 縣監이 되다.
선조	29	1596	병신	萬曆	24	47	7월, 李夢鶴의 반란 소식을 듣고 忠淸 兵使 李時言이 주둔한 木川으로 가 토벌하다.
선조	30	1597	정유	萬曆	25	48	1월, 湖西伯 柳根의 募粟差使員이 되다. ○ 5월, 沙溪 金長生을 만나다.
선조	31	1598	무술	萬曆	26	49	鰲山 築城糧餉差使員이 되다.
선조	32	1599	기해	萬曆	27	50	'彌樂齋'로 자호하고 나중에 '彌'字는 버리다.
선조	33	1600	경자	萬曆	28	51	9월, 開寧 縣監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 장현광과 止巖 松亭에서 소요하고 미락재에서 묵다.

선조	34	1601	신축	萬曆	29	52	1 월, 玉果 縣監이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 2 월, 伊川의 仙査에 강당을 짓다.
선조	36	1603	계묘	萬曆	31	54	9 월, 晦齋 李彦迪의 사당을 배알하고, 慶州 근처를 유람하고 <東遊日錄>을 짓다. ○ 11 월, 東岡 金宇顙을 곡하다.
선조	37	1604	갑진	萬曆	32	55	1 월, 燕岐 縣監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 8 월, 「武夷志」를 보다.
선조	38	1605	을사	萬曆	33	56	3 월, 호조 정랑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선조	39	1606	병오	萬曆	34	57	3 월, 선유들의 격언을 모아 <學校模範>을 짓다. ○ 10 월, 鄭逵를 모시고 金宏弼의 산소에 제사하다.
선조	40	1607	정미	萬曆	35	58	4 월, 형조 좌랑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광해 군	1	1609	기유	萬曆	37	60	翊衛司 司禦가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광해 군	2	1610	경술	萬曆	38	61	6 월, <九圖>를 짓다. ○ 7 월, <誠敬錄>을 교정하다.
광해 군	3	1611	신해	萬曆	39	62	1 월, 易學校正廳 郎廳이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 3 월, 제생들과 「家禮」를 강론하다. ○ 9 월, 星山 向陽亭에서 정구를 모시고 유숙하다.
광해 군	6	1614	갑인	萬曆	42	65	봄, 화재를 당한 정구를 위로하다.
광해 군	7	1615	을묘	萬曆	43	66	4 월 9 일, 졸하다. ○ 9 월, 河濱縣 巴山에 장사지내다.
인조	17	1639	기묘	崇禎	12	—	10 월, 大丘 伊江書院에 위판을 봉안하다.
현종	14	1673	계축	康熙	12	—	淸安의 龜巖書院에 위판을 봉안하다.
헌종	9	1843	계묘	道光	23	—	후손 徐宅烈이 목판으로 문집을 중간하다.

## 편찬및간행

연보에 의하면 저자의 시문은 저자가 즐한 이듬해인 1616년에 문인과 사우들이 저자가 평소에 강학했던 仙査齋에 모여 유고를 부집하고 서찰을 두루 구하여 약간 권으로 편차했다고 하였고, 본 책에 수록되어 있는 서문이 둘 다 重刊序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저자의 문인과 사우들이 저자가 즐한 후 바로 문집을 간행한 것으로 보이나, 이 본은 현재 남아 있지는 않고 연보와 서문을 통해 초간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초간본》

이후 후손 徐宅烈(1784~1857)이 각처에 산재되어 있는 저자의 시문을 수집하고, 孫處訥이 지은 저자의 行錄과 朴宗祐가 지은 <伊江書院廟宇上樑文> 등을 증보 재편하여 1843년에 목판으로 문집을 간행하였다.《중간본》 이 본은 규장각(奎 4696),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장서각(D3B-1139), 성균관대학교 존경각(D3B-2673) 등에 소장되어 있다.

그 후 1861년에 徐宅烈의 아들 徐秉坤(1813~1864)이 족손 徐贊奎와 다시 간행하려는 목적으로 趙秉惠의 題後와 宋來熙의 서문을 받았으나 현재 문집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간행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본서의 저본은 후손 徐宅烈이 증보 재판하여 1843년에 목판으로 간행한 중간본으로 규장각장본이다. 본영인 저본은 序의 제 11 판과 제 12 판의 판차가 각각 '十二'와 '十一'로 오기되어 있으며, 권 5는 판차 '五'가 누락되어 있다.

年譜, 重刊序(朴光錫·徐麟淳 撰), 題後(趙秉惠 撰, 肅齋集 卷 20), 序(宋來熙 撰, 錦谷集 卷 10) 등에 의함

## 구성과내용

본집은 原集 7 권, 年譜 3 권, 附錄 합 4 책이다. 권수에 朴光錫과 徐麟淳이 1843년에 지은 중간서와 目錄이 있다.

권 1은 詩(133)이다. 시는 五言詩 28 제, 七言詩 105 제가 시체별로 편차되고, 각각 연대순으로 실려 있는데, 차운시와 경물을 읊은 시가 많다. <庚戌六月生朝題>는 회갑이 되는 1610년 생일에 60 평생을 돌아보며 지은 것이다. <辛丑暮春.....>은 張顯光, 都聖俞 등과 배를 타고 琴湖를 유람하며 주자의 <漁艇詩>의 운을 내어 지은 것이다. <過牙琴巖>은 鄭師哲과 아들 鄭光天이 거처하는 곳을 지나며 父子의 덕을 노래한 것이다.

권 2는 詩(80), 長篇(4), 挽詞(18), 賦(4)이다. 시는 七言四韻이고 장편은 七言이며, 차운시가 많은 편이다. <題金毅甫洗心亭>은 金僩의 세심정에 대해 지은 것으로 '洗心'의 의미를 읊은 것이다. 만사는 金宇顥, 李輞, 安憲, 朴忠後, 鄭鍾 등에 대한 것이다. <惟德動天>은 1575년 향시에서 장원한 賦로 덕을 닦을 것에 대한 내용이다.

권 3~4는 書(74)이다. 정구에게 올린 편지, 체찰사나 방백에게 보낸 편지 등이 많다. <代右道方伯金鶴峯答湖南體府>는 임진왜란 때 김성일을 대신하여 호남체찰사에게 올린 편지로 영호남이 합심하여 왜적을 막을 것과 호남의 군량을 영남으로 보내 줄 것을 요청한 내용이다.

권 5는 墓碣(4), 碑文(1), 祭文(9), 祝文(13)이다. 묘갈은 증조 徐弼, 부친 徐澗, 생부 徐洽, 朴忠後의 갈문과 鄭經世의 去思碑銘이다. 제문은 金宇顥, 朴愷, 李心海에 대한 것이다. 축문은 부친과 모친을 遷葬하고 고한 것, 達城에 聖廟를 이건설 때 后土에 고한 것 등이다.

권 6~7은 雜著(15)이다. <工夫筭錄>은 공부하면서 기록한 것으로 仁圖, 求仁圖 등의 도상이 붙어 있다. <學校模範>은 講學條件으로 만든 것으로 立志, 檢身, 讀書 등 16 항목인데 師弟朋友 간에 권면하는 내용이다. <招集鄉兵文>은 임진왜란 때 향병을 모집하는 글이다. <承差乞粟文>은 정유재란 때 군량을 모집하는 글이다. <東槎日錄>은 1603년 9월 10일부터 28일까지 李彥迪을 배향한 慶州 玉山書院과 인근의 臨臯書院을 유람한 東遊 기록을 적은 것이다. <守清安時薦人題目>은 청안 현감으로 재직할 때 추천한 사람들의 명단으로 만호 秦億堅의 妻 李氏, 유학 張克忠 등의 이름과 행실이 실려 있다.

연보는 3 권으로 되어 있는데, 권 1은 연보이고, 권 2~3은 연보의 부록이다. 蔡夢硯·孫處訥이 지은 행록, 李敏求가 지은 墓碣銘, 朴宗祐가 지은 伊江書院을 세울 때의 상량문, 都愼修가 지은 이강서원에 봉안하는 글과 李道長이 지은 춘추로 상향하는 글, 金得臣이 지은 龜巖書院에 봉안하는 글, 鄭述·張顯光·李時發 등이 지은 제문(21), 趙靖·都聖俞·申弘立 등이 지은 挽詞(17) 등이다.

부록은 尺牘으로 鄭述, 金宇顥, 李好閔, 鄭經世, 韓浚謙 등에게 보낸 편지이다.

## 서사원(徐思遠)

### 정의

조선시대 『악재집』을 저술한 학자.

### 개설

본관은 달성(達城). 자는 행보(行甫), 호는 미락재(彌樂齋)·악재(樂齋). 이천 출신. 서필(徐弼)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서응기(徐應期)이고, 아버지는 전교 서흠(徐洽)이며, 큰아버지 서형(徐炯)에게 입양되었다. 정구(鄭逵)의 문인이다.

### 생애 및 활동사항

주자학 및 이황(李滉)의 문집을 깊이 연구하고 중년 이후는 후진을 가르쳤다. 선조 때 학행으로 감역·찰방을 지내고, 1595년(선조 28) 청안현감(淸安縣監)에 부임하여 학문의 진흥과 후진양성에 힘썼다. 그 뒤 1597년 옥과현감(玉果縣監)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고 이듬해 사임하였다.

1602년에도 연기현감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이후 형조·호조 정랑, 역학교정 등에 임명되었으나 벼슬에 뜻이 없어 모두 응하지 않았다. 대구의 이강서원(伊江書院), 청안(淸安)의 구계서원(龜溪書院)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악재집(樂齋集)』이 있다.



卷之一 / 詩

차신 홍도 매자운(次申 弘道 梅字韻)

13世 홍도(弘道) 父 : 엄(儼)      祖父 : 원복 (元福)      읍파(邑派)정은공파(靜隱公派)

廿載幽懷一笑開。小園驚動早春梅。天心又得良宵月。乘興還忘屢舉杯。

樂齋集 卷一

色驛路應驚野鳥啼。

臘前賞梅韻

歷盡冰霜幾凍溪。忽逢微笑小橋西。沉吟盡日忘歸去。不覺參橫與鳥啼。

次申弘道梅字韻

廿載幽懷一笑開。小園驚動早春梅。天心又得良宵月。乘興還忘屢舉杯。

敬次退溪先生畫巖韻

道德吾東集大成。須知功力在窮經。慙慙題跋留詩意。醉夢昏昏儘有醒。

樂齋先生文集一

二十三

敬次退溪先生檢論書院韻

遲迤夕苑未朝聞。夏見山堂會以文科。日至今河決海閒愁依舊劇於雲。時院字三間纔成。會試居接故未向及之。

夜燈吟退溪先生詩

臘月正當三十日。悠悠終歲問何爲。剪燈遙夜塊然坐。諷詠新編退老詩。

答寄金巡相守伯

歲暮窮山老居士。天寒棠府病文園。無緣一室開清晤。悵望江東一片雲。

次鄭汝明韻

卷之三 / 書

여신오봉순부 지제(與申梧峰順夫 之悌)

14世 지제(之悌) 父 : 몽득(夢得) 祖父 : 응규 (應奎)

귀파(龜派)오봉공파(梧峰公派)

帥幕非所以處賢者之久。而淹滯獨賢。想不無瘴鄉<sup>ㅍ</sup>之歎也。前日騶從過達城之境。而及聞車音而未拜眉宇。以振衰朽。雖獲尺牘相通。詎當一度英眇。以披宿霧之爲快乎。迨極悵然也。目今秋清以後。伏惟幕况益勝。運籌多閒。亦不輟書冊灌溉之功矣。每仰天賦聰明英特之超出等夷。猥不敢不以仕優之學。惓惓於吾尊兄左右也。鄙人衰甚病甚。雖靜居昏昏憤憤。畢竟無所聞而死耳。奈何奈何。

還弊窩。方起懦強衰之功。每加於一退之後矣。茲又蒙專發長鬚。辱以手帖之教。汲汲以求未遍之卷。爲言。古人所謂學如不及。非老兄之篤功歟。令人振勵警惰者。亦爲之不小矣。欽歎欽歎。後朔則前期預聚。或三四日。俾無匆匆缺欠之爲恨。如何如何。畫蠟荷分其享先之餘。尤感至意。一封桃仁。亦合對證之救。並爲感極。八字亦受聖俞兄處。呂氏鄉約冊。今便何不遞付耶。因及之爲望。爲望。

與申梧峰順夫<sup>之悌</sup>

帥幕非所以處賢者之久。而淹滯獨賢。想不無瘴鄉之歎也。前日騶從過達城之境。而及聞車音而未拜眉宇。以振衰朽。雖獲尺牘相通。詎當一度英眇。以披宿霧之爲快乎。迨極悵然也。目今秋清以後。伏惟幕况益勝。運籌多閒。亦不輟書冊灌溉之功矣。每仰天賦聰明英特之超出等夷。猥不敢不以仕優之學。惓惓於吾尊兄左右也。鄙人衰甚病甚。雖靜居昏昏憤憤。畢竟無所聞而死耳。奈何奈何。

與李太虛<sup>心海</sup>

昨雖晤對。衰朽怯於暮寒。匆匆判袂。依悵良深。然賴駿足得以及返。於未昏黑之前。實荷愛念。毛冠甚合。

樂齋先生文集三 三十三

樂齋集 卷三



卷之三 / [挽]

만[신지제] 挽[申之梯]

14世 지제(之梯) 父 : 몽득(夢得) 祖父 : 응규 (應奎)

귀파(龜派)오봉공파(梧峰公派)

徵君拔俗三千丈。落落高標古士稀。投棘青鸞聊暫屈。出雲黃鵠本冥飛。驚聞玉樹埋重壤。悵想靈芝冠衆菲。灑向挽牋無限淚。少微從此失光輝。

申之梯

登圃葉。蒼鳥煮山岑。消日閒中詠。操心座右銘。和風拂楊柳。明月照窓屏。講禮如穿的。論文似建瓴。茅茨營泗水。杖屨送餘齡。義理綜微密。皇王索絕。陘水邊晴日。永門外小車停。太守誠知拙。平生不願醒。勸農傾息蓋。問字載香醴。椒雨添金酸。水漿瀉玉瓶。夕陽經水岸。微雨倚風櫺。觀海漸消滴。撞鐘愧寸逢。浮生歸寂寞。抵死守虛靈。書帙悲哀動。銘旌涕淚零。今宵看碧落。歎息少微冥。	自首林泉下。琴書畢此生。淒涼孺子榻。寂寞少微星。蕙徑餘殘馥。梅窓只舊青。梧桐一片月。如見昔儀刑。	天挺真儒惠我東。端嚴氣象總由中。操存既篤追前緒。提警尤勤啓後蒙。鏿彩埋光名自大。安貧樂道德彌隆。標摧無賴神明力。桐月淒涼鎖殯宮。	徵君拔俗三千丈。落落高標古士稀。投棘青鸞聊暫屈。出雲黃鵠本冥飛。驚聞玉樹埋重壤。悵想靈芝冠衆菲。灑向挽牋無限淚。少微從此失光輝。
------------------------------------------------------------------------------------------------------------------------------------------------------------------------------------	--------------------------------------------------	------------------------------------------------------------------	------------------------------------------------------------------

樂齋集 年譜 卷三

申之梯

## 노암선생문집(魯庵先生文集)

### 형태서지

권수제	노암집(魯庵集)
판심제	노암문집(魯庵文集)
간종	목판본(木版本)
간행년	1850 년 간행
권책	4 권 2 책
행자	10 행 20 자
규격	21.3×17.9(cm)
어미	上下二葉花紋魚尾
소장처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소장도서번호	811.98/김종일/노-판
총간집수	한국문집총간 속 27

### 저자

성명	김종일(金宗一)
생년	1597 년(선조 30)
몰년	1675 년(숙종 1)
자	관지(貫之)
호	노암(魯庵)
본관	경주(慶州)
특기사항	신지제(申之梯), 정경세(鄭經世), 이명준(李命俊)의 문인

### 행력



왕력		서기	간지	연호		연령	기사
선조	30	1597	정유	萬曆	25	1	12월 27일, 慶州 安康縣 沙里洞에서 태어나다.
선조	38	1605	을사	萬曆	33	9	부친상을 당하다.
선조	41	1608	무신	萬曆	36	12	梧峯 申之梯에게 수학하다.
광해 군	5	1613	계축	萬曆	41	17	驪州李氏 李宜澍의 딸과 혼인하다. ○ 가을, 향시에 합격하다.
광해 군	10	1618	무오	萬曆	46	22	愚伏 鄭經世를 찾아보다.
광해 군	13	1621	신유	天啓	1	25	潛窩 李命俊을 찾아보다.
인조	3	1625	을축	天啓	5	29	8월, 別試에 장원으로 합격하다. 선무랑 성균관 전적이 되다. ○ 10월, 공조 좌랑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인조	4	1626	병인	天啓	6	30	6월, 호조 좌랑에 제수되었으나 사직하고 귀향하다.
인조	5	1627	정묘	天啓	7	31	2월,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서울로 가던 중 尙州에 이르러 순찰사 金時讓의 종사관이 되다. ○ 5월, 예조 좌랑이 되다. ○ 7월, 仁同으로 旅軒 張顯光을 찾아보다. ○ 10월, 良才道 察訪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인조	6	1628	무진	崇禎	1	32	1월, 형조 좌랑이 되다. ○ 7월, 사간원 정언이 되다. ○ 8월, 상소하여 引避하고 귀향하다. 이조 좌랑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인조	7	1629	기사	崇禎	2	33	4월, 예조 좌랑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 9월, 예조 정랑, 병조 좌랑이 되다.
인조	8	1630	경오	崇禎	3	34	2월, 특명으로 淸州 判官이 되어 舊弊 12건을 혁파하다. ○ 10월, 병사 李楡의 무고를 받고 사직하다.
인조	9	1631	신미	崇禎	4	35	1월, 예조 정랑이 되다. ○ 3월, 지평이 되다.
인조	10	1632	임신	崇禎	5	36	1월, 모친상을 당하다.
인조	12	1634	갑술	崇禎	7	38	5월, 지평이 되다. ○ 9월, 金郊道 察訪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인조	13	1635	을해	崇禎	8	39	5월, 사간원 정언이 되다. ○ 6월, 상경하여 사은하고 鄭蘊, 趙翼과 함께 “濟州에 유배중인 仁城君의 세 아들 李佺, 李億, 李健을 석방하라”는 명을 거두라는 양사의 의견에 대해 피험하여 謝啓하다. ○ 8월, 尹絳, 鄭斗卿 등 벗들과 同庚契案을 만들다. ○ 10월, 시강원 문학이 되다.
인조	14	1636	병자	崇禎	9	40	2월, 평안 도사가 되다. ○ 10월, 휴가를 받고 집에 있던 중 12월 22일 청나라가 침략한 소식을 듣고 종군하여

							군량을 調發하는 임무를 행하다.
인조	15	1637	정축	崇禎	10	41	2 월, 성균관 직강, 병조 정랑이 되다. ○3 월, 지평이 되다. 강화도를 잘 지키지 못한 金自點을 죄줄 것을 상소하자 옥당이 出仕시킬 것을 청하므로 呈病하고 귀향하다. ○7 월, 시강원 사서가 되다. 立巖으로 장현광을 찾아보다. ○10 월, 볼모가 된 昭顯世子를 모시고 상사 崔鳴吉, 부사 金南重, 서장관 李時樸와 함께 瀋陽으로 들어간다.
인조	17	1639	기묘	崇禎	12	43	4 월, 鄭雷卿과 함께 譯官 鄭命壽 등의 비리를 들추다가 도리어 이들의 모함을 받아 국내로 拿處되어 돌아오고 정뇌경은 사사되다. ○5 월, 盈德 배소에 도착하다.
인조	22	1644	갑신	順治	1	48	1 월, 赦免되어 돌아오다.
인조	25	1647	정해	順治	4	51	6 월, 홍문관 교리, 順天 府使가 되다.
인조	27	1649	기축	順治	6	53	1 월, 부인 이씨의 상을 당하다. ○ 의정부 검상, 사인이 되다.
효종	1	1650	경인	順治	7	54	2 월, 尙州 牧使가 되다.
효종	2	1651	신묘	順治	8	55	7 월, 三陟 府使가 되다. ○9 월, 豐壤趙氏 趙璋의 딸과 혼인하다.
효종	4	1653	계사	順治	10	57	아들 金世卞이 태어나다.
효종	5	1654	갑오	順治	11	58	7 월, 예빈시 정이 되다. ○10 월, 星州 牧使가 되다.
효종	8	1657	정유	順治	14	61	9 월, 蔚山 府使가 되다.
현종	1	1660	경자	順治	17	64	봄, 慈懿大妃의 孝宗 喪服에 대한 邦禮가 정해지지 않으므로 許穆과 함께 <儀禮辨說>을 지어 3 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해 반대파의 공격을 받고 平海로 귀양가다.
현종	2	1661	신축	順治	18	65	7 월, 용서받고 돌아오다.
현종	5	1664	갑진	康熙	3	68	10 월, 錦山 郡守가 되다.
현종	8	1667	정미	康熙	6	71	榮川으로 移居하다.
숙종	1	1675	을묘	康熙	14	79	5 월, 慶州 舊居에서 즐하다. ○ 윤 5 월, 이조, 도승지에 증직되다. ○12 월, 경주 錢邑에 장사 지내다.
철종	1	1850	경술	道光	30	-	6 대손 金熙永이 목판으로 문집을 간행하다.

### 편찬및간행

저자의 유문은 발문에서 말했듯이 후손들이 嶺·湖南을 넘나들며 여러 차례 거처를 옮기고 집에 화재까지 나는 통에 남은 시문이 거의 없었다.

저자의 6 대손 金熙永이 여러 문집과 「政院日記」 등에서 약간의 유문을 수습하고 부록문자를 첨부하여 1850 년에 木板으로 간행하였다. 《초간본》 이 본은 현재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811.98/김종일/노-판), 규장각(奎 15173),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D1-A1019), 장서각(D3B- 1014) 등에 소장되어 있다. 그리고 문

집 맨 뒤에 “저자 겸 발행자 金周燮, 昭和 11 년 인쇄·발행”의 版權紙가 있는 4 권 2 책의 국립중앙도서관장본(한 46-가 1142)이 있는데, 이는 인쇄된 판의 마모 정도로 볼 때 초간본의 후쇄본으로 보인다.

본집과는 별도로 石版으로 간행된 「魯庵續集」이 있는데, 이는 「魯庵集」에 실리지 않고 누락된 輓詩, 書, 祭文, 疏 등을 여러 사람의 문집에서 뽑아 싣고, 「政院日記」·「實錄」 등에서 抄錄하여 엮은 「魯庵先生續集」과 附集인 「洛南公實記」로 되어 있다. 洛南은 저자의 아들 金世倅으로, 小識와 跋의 내용으로 볼 때 9 대손 金憲洙·金憲稷 등이 從叔인 金玟燮·金周燮 등의 도움을 받아 1950 년 이후 10 대손 金亨鎭에게 謄寫하게 한 것이다.

본서의 저본은 저자의 6 대손 金희영이 1850 년에 4 권 2 책의 목판으로 간행한 초간본으로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장본이다.

序(鄭鴻慶 撰), 跋(柳致明·姜時永 撰), 後識(李鍾祥·金熙永 撰) 등에 의함

## 구성과내용

본집은 4 권 2 책으로, 권수에 1848 년 鄭鴻慶이 쓴 서문과 目錄, 年譜가 있다.

권 1 은 詩(25)이다. 대부분 輓詩로 張顯光, 申之悌, 李命俊, 鄭雷卿, 郭再祐, 申悅道, 李民晟, 李宜活, 權應生, 張慶遇, 鄭瑩, 崔東亮, 權炆, 李皞, 李景漢, 趙亨道 등에 대한 것이다. <奉呈李東岳紅桃韻>은 1614 년 18 세 때, 경주 부윤이었던 이안눌이 저자의 명성을 듣고 兄江에서 함께 노닐 것을 청하였는데, 벼슬이 없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사양하면서 지어 올린 것이다.

권 2 는 疏(6), 啓(5), 書(2), 祭文(4), 碣銘, 墓誌銘, 行狀이다. <論江都失守疏>는 1637 년 병자호란 때 尹昉, 金自點, 呂爾徵, 金慶徵 등이 종묘사직을 지키지 못한 것을 논죄하여 올린 것이다. <邦禮辨說疏>는 1660 년에 효종이 승하하자 자의대비가 입을 상복에 대해 1 년복으로 할 것인지 3 년복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는데, 「儀禮」를 인용하여 3 년복을 입어야 한다는 견해를 진술하였다. 이 일로 인해 平海로 귀양까지 갔는데 1666 년 봄에 道儒들이 이 문제에 대해 상소하는 일이 일어나자 다시 이 상소를 올린 것이다. <請還仁城君三子啓>는 1635 년 濟州에 유배 중인 仁城君의 세 아들을 석방하라는 하교에 대해 이를 거두어줄 것을 아뢴 兩詞의 의견에 반대하며 引避하여 謝啓한 것이다. 書는 申悅道와 그의 아들 申堪에게 써준 것이다. 祭文은 이준명, 신지제, 신열도, 이의활에 대한 것이다. 碣銘은 효자 孫錫後에 대한 것이고, 墓誌銘은 부인인 淑人 驪州李氏에 대한 것이며, 行狀은 內從兄 李尙一에 대한 것이다.

권 3 은 策, 雜著이다. 雜著의 <瀋陽日乘>은 1637 년 7 월 19 일부터 1639 년 4 월 15 일까지 시강원 사서가 되어 淸에 볼모로 가는 소현세자를 따라 심양에 들어가 일어났던 일들과 본국으로 송환되어 胤德으로 유배가기까지의 일들을 기록한 것이다. <野城問答>은 1639 년 가을, 유배지 영덕에 있으면서 寧海 府使 趙廷虎와 나눈 문답이다.

권 4 는 附錄이다. 李衡祥이 지은 行狀, 李萬運이 지은 묘갈명, 李漢膺이 지은 묘지명, 李塚가 지은 家狀 後敘, 金建準이 지은 家狀後跋, 權尙矩·李塚·任勉·李垞 등이 지은 만사, 黃克俊·李明徵·申徽錫 등이 지은 제문이 실려 있다.

권미에는 柳致明이 지은 跋, 李鍾祥이 지은 後識, 金熙永이 1849 년에 지은 후지, 姜時永이 1850 년에 지은 발이 있다.

## 김종일(金宗一)

### 정의

조선후기 교리, 울산부사 등을 역임한 문신.

### 개설

본관은 경주(慶州). 자는 관지(貫之), 호는 노암(魯庵). 김광재(金光載)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김응허(金應虛)이며, 아버지는 김경룡(金慶龍)이다. 신지제(申之梯)·정경세(鄭經世)·이명준(李名俊)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 생애 및 활동사항

1624 년(인조 2) 생원시·진사시에 모두 합격하고, 이듬해 별시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1628 년 정언(正言)이 되고, 1630 년 지평(持平)을 거쳐 진주목사가 되었다. 1635 년 다시 정언이 되었으며, 1636 년 병자 호란이 일어나자 순찰사의 종사관(從事官)으로 일하였다.

전쟁이 끝나자 가장 먼저 패전의 책임을 들어 김류(金鑾)·윤방(尹昉) 등을 탄핵하였으며, 이듬해 직강(直講)·지평을 지냈다. 그 해 소현세자(昭顯世子)가 심양(瀋陽)에 볼모로 잡혀갈 때 사서로서 수행하였다.

당시, 조선인으로서 청나라에 잡혀간 뒤 벼슬에 올라 조선에 대해 갖은 횡포를 부리던 정명수(鄭命壽)·김돌이(金突伊) 등을 청나라로 하여금 제거하게 하는 계획을 정뇌경(鄭雷卿)과 함께 세웠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송환되어 영덕으로 유배되었다.

1643 년에 풀려나 1651 년(효종 2) 수찬(修撰)이 되고, 교리(校理)를 거쳐 1657 년 울산부사를 지냈다. 1660 년 자의대비(慈懿大妃)의 효종 상복에 대해 허목(許穆)과 함께 3 년설을 주장하여 평해에 유배되었다 가 이듬해 풀려났다. 저서로 『노암문집(魯庵文集)』이 있다.



卷之一 慶州金宗一字貫之甫著 / 詩

만오봉신선생(輓梧峰申先生) 甲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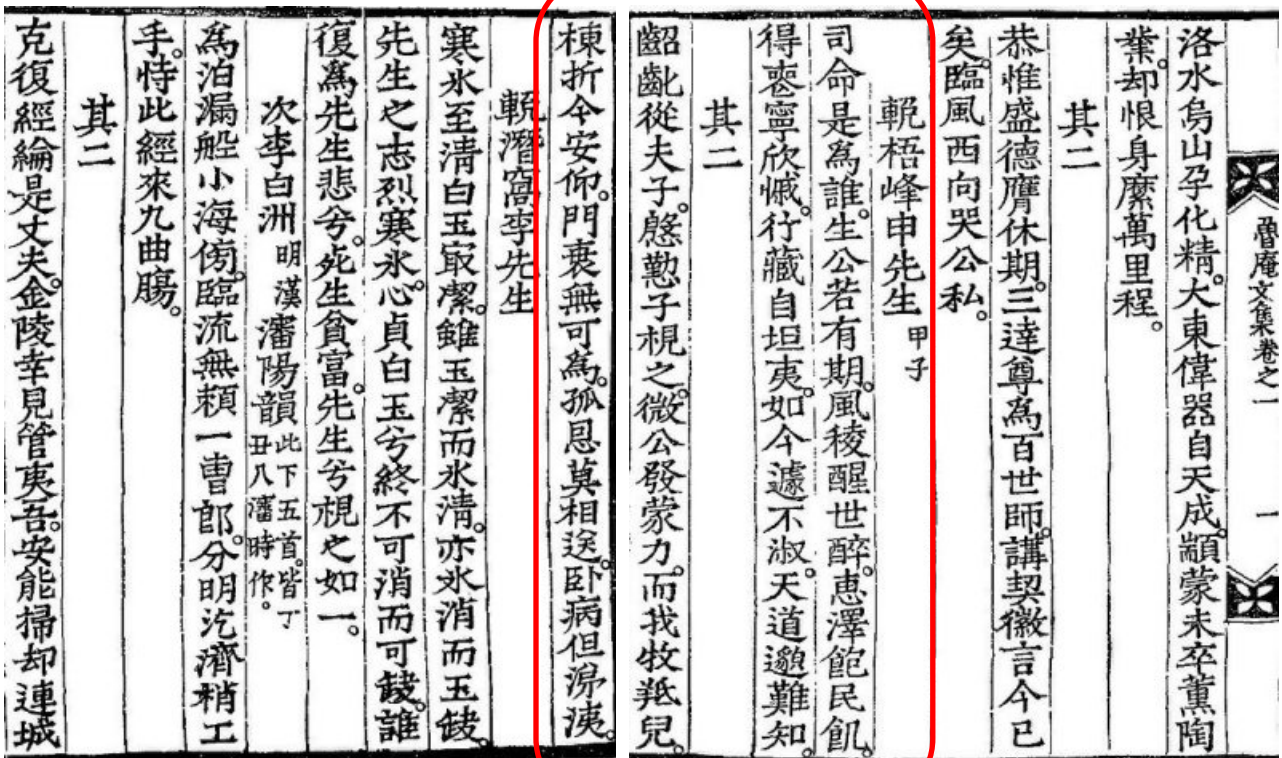
14世 지제(之悌) 父 : 몽득(夢得) 祖父 : 응규 (應奎)

귀파(龜派)오봉공파(梧峰公派)

司命是爲誰。生公若有期。風稜醒世醉。惠澤飽民飢。得喪寧欣憾。行藏自坦夷。如今遽不淑。天道邈難知。

其二

齟齬從夫子。愍歎子視之。微公發蒙力。而我牧羝兒。棟折今安仰。門衰無可爲。孤恩莫相送。卧病但涕洟。



魯庵文集卷之一

洛水烏山孕化精。大東偉器自天成。顛蒙未卒薰陶業。却恨身縻萬里程。

其二

恭惟盛德膺休期。三達尊爲百世師。講契微言今已矣。臨風西向哭公私。

輓梧峰申先生 甲子

司命是爲誰。生公若有期。風稜醒世醉。惠澤飽民飢。得喪寧欣憾。行藏自坦夷。如今遽不淑。天道邈難知。

其二

齟齬從夫子。愍歎子視之。微公發蒙力。而我牧羝兒。棟折今安仰。門衰無可爲。孤恩莫相送。卧病但涕洟。

輓潛齋李先生

寒水至清白。玉取潔。雖玉潔而水清。亦水消而玉皎。先生之志烈。寒冰心。貞白玉兮。終不可消。而可皎。誰復爲先生悲兮。死生貧富。先生兮。視之如一。

次李白洲 明漢 潘陽韻 此下五首皆丁丑八潘時作。

爲泊漏船小海傍。臨流無賴一曹郎。分明沆濟稍工手。恃此經來九曲腸。

其二

克復經綸是丈夫。金陵幸見管夷吾。安能掃却連城。

만신나재(輓申懶齋) 悅道○己亥

13世 열도(悅道) 父 : 흘(屹) 祖父 : 원록 (元祿) 음파(邑派)난재공파(畵齋公派)

○ 親故皆零落。嗟公又至斯。聯芳輝棣萼。毓慶蔚蘭芝。處困心猶泰。居貞志不衰。反真何所恨。而我涕空垂。

灣河孤月使人留。共拭青眸立暮洲。憐我龍鍾還負累。想君虎節獨懷憂。風塵有淚多時感。山海無心入夜酬。嗟晚明廷路。幾年謾抱捍邊籌。	輓郭忘憂堂 <small>并佑</small> 芑山自古多君子。君子人生君子鄉。吾聞洛東江左右。人人皆吊善人凶。	次趙南溪 <small>廷虎○在盈德時有時事問答因和此詩。</small> 憂還成病坐如癡。勤問時時未有期。竟句只謀消客日。莫教人說愛吟詩。	輓申懶齋 悅道○己亥 親故皆零落。嗟公又至斯。聯芳輝棣萼。毓慶蔚蘭芝。處困心猶泰。居貞志不衰。反真何所恨。而我涕空垂。	輓李敬亭 <small>民康</small> 天不偶然生。報施何太輕。望高懸北斗。文足繼西京。淵瀟皆中蘊。雲浮身外榮。那人悲疹瘁。無復覩儀形。	輓李雪川 <small>宜活</small> 我欲問天公。斯人何遽終。奉先微世德。裕後述高風。自可調殷鼎。不宜佩漢銅。惜哉心未展。寧足較寤通。	又七絕 無善可承君子愛。有情偏與眾人殊。傷心玉貌歸何處。
----------------------------------------------------------------	-------------------------------------------------------------	---------------------------------------------------------------------------	----------------------------------------------------------------	----------------------------------------------------------------------------	----------------------------------------------------------------------------	---------------------------------

魯庵文集卷之一 四

卷之二 慶州金宗一字貫之甫著 / 書

답신나재(答申懶齋) 庚辰

13世 열도(悅道) 父 : 흘(屹) 祖父 : 원록 (元祿) 음파(邑派)난재공파(畵齋公派)

續奉情札。細審兄邊消息。悅接一場穩晤。寂寞之情。頓覺爽豁。不審便後起居復如何。初七之約。定不差池耶。料兄此行。仍過寒食於家山。則十日到此。似無從容留叙之日。七日早發。九日抵此。大幸也大望也。而安得果副斯願耶。宗一抱病如昨。時或披卷釋義。而茅塞已久。未得開曉。終作悠悠泛泛上過之。若與執事同席相質。則可豁謫中累意耳。

魯庵集 卷二

假托將順之名。等語斥之。人之不避色目之嫌。不為時議之所制者。幾何人哉。臣恐自今以後。愛君以德之言。無由至於殿下之前也。臣愚謬妄之見如此。若嫌舉劄狗。恐忤物議。舍忍勿言。則是貪位而欺心也。言之則前之言者。方被重劾。何至孤遠之微臣。而獨不危耶。然下愚之性。粹難移改。心有所懷。不敢不言。其違公議。犯邦憲之罪。萬死難贖。何敢偃然出仕乎。請亟命削黜。

書

答申懶齋 庚辰

魯庵文集卷之二

二十七

續奉情札。細審兄邊消息。悅接一場穩晤。寂寞之情。頓覺爽豁。不審便後起居復如何。初七之約。定不差池耶。料兄此行。仍過寒食於家山。則十日到此。似無從容留叙之日。七日早發。九日抵此。大幸也大望也。而安得果副斯願耶。宗一抱病如昨。時或披卷釋義。而茅塞已久。未得開曉。終作悠悠泛泛上過之。若與執事同席相質。則可豁謫中累意耳。

與申君 堪

奴還憑審酷熱。况味安穩。喜慰喜慰。尊丈聞君不安。至於起送此老。若非驚慮之極。豈如是耶。武伯問孝。



之二 慶州金宗一字貫之甫著 / 祭文

제오봉신선생문 祭梧峯申先生文

14世 지제(之梯) 父 : 몽득(夢得) 祖父 : 응규 (應奎)

귀파(龜派)오봉공파(梧峰公派)

嗚呼。公之懿德茂行。宏材碩量。而不得展布於世。竟至於斯者。不獨一家之痛。而至於斯文之不幸。則公私之痛。宜何時而可已也。嗟余小姪。賦命險釁。年甫髻齒。奄失所怙。顛蒙蠢愚。無異羝奴。往在戊申。負笈門下。公乃憫恤。視猶己子。慇懃教養。日夜提耳。雖學未知方。不能竟訓。至今從事末藝。粗識文字者。實惟公之賜也。纔經數歲。遽爾辭歸。厥後十五年間。往來亦稀。常以不能長侍杖履爲恨。豈意不吊于天。終抱無涯之痛耶。公之易簣。緣地隔遠。莫承啓手之命。公之永歸。梗以貞疾。不能臨穴而哭。公能視猶子。而侄不能視猶父耶。嗚呼哀哉。慟哭慟哭。祥事之期。在一旬後。而身縻職事。勢阻來哭。今將薄具。敢告微誠。嗚呼哀哉。

小子之蒙愛特異。先生之不以語人者。小子時得而聞。墻頭彈指之語。竹下仰天而泣。緬惟十載。如隔今晨。嗚呼。疾病而不能請禱。易簣而未啓手足。雖身遠而勢然。實顏厚而心忸。長天漠漠。痛哭何及。情溢辭蹙。不知所云。嗚呼哀哉。顏回生而糠不厭。黔婁死而歛不掩。非若人之流乎。嗚呼哀哉。

祭梧峯申先生文

嗚呼。公之懿德茂行。宏材碩量。而不得展布於世。竟至於斯者。不獨一家之痛。而至於斯文之不幸。則公私之痛。宜何時而可已也。嗟余小姪。賦命險釁。年甫髻齒。奄失所怙。顛蒙蠢愚。無異羝奴。往在戊申。負笈門下。公乃憫恤。視猶己子。慇懃教養。日夜提耳。雖學未知方。不能竟訓。至今從事末藝。粗識文字者。實惟公之賜也。纔經數歲。遽爾辭歸。厥後十五年間。往來亦稀。常以不能長侍杖履爲恨。豈意不吊于天。終抱無涯之痛耶。公之易簣。緣地隔遠。莫承啓手之命。公之永歸。梗以貞疾。不能臨穴而哭。公能視猶子。而侄不能視猶父耶。嗚呼哀哉。慟哭慟哭。祥事之期。在一旬後。而身縻職事。勢阻來哭。今將薄具。敢告微誠。嗚呼哀哉。

魯庵集 卷二



제신나재문(祭申懶齋文)

13世 열도(悅道) 父 : 흘(屹) 祖父 : 원록 (元祿) 음파(邑派)난재공파(畵齋公派)

嗚呼。溫溫其恭。濯濯其英。妙年濬發。展步天庭。伯仲俱揚。炳蔚名聲。謂豐其施。何嗇于時。暫侍臺憲。歷撫癯疲。行廢卽命。榮悴寧論。顧惟蠢愚。情誼相敦。豈伊婚媾。實仰清芬。每恨睽離。祇勞夢魂。孰云古今。一朝而乖。天末吞聲。拊心傷懷。謫裏聞訃。無路匍匐。歸田病伏。又違執紼。死生契濶。自此而絕。心之悲矣。曷維其窮。遙奠菲薄。庶歆微悰。

祭申懶齋文

嗚呼。溫溫其恭。濯濯其英。妙年濬發。展步天庭。伯仲俱揚。炳蔚名聲。謂豐其施。何嗇于時。暫侍臺憲。歷撫癯疲。行廢卽命。榮悴寧論。顧惟蠢愚。情誼相敦。豈伊婚媾。實仰清芬。每恨睽離。祇勞夢魂。孰云古今。一朝而乖。天末吞聲。拊心傷懷。謫裏聞訃。無路匍匐。歸田病伏。又違執紼。死生契濶。自此而絕。心之悲矣。曷維其窮。遙奠菲薄。庶歆微悰。

祭李雪川文

嗚呼。古語云。天道無親。常與善人。又云。積善之家。必  
 有餘慶。信斯言也。以善人而生于積善之家。則天之  
 與之。宜如何也。吉慶之不獨止其身。而又當及於其  
 後者。蓋可知矣。然則公之善而生于公之家。其位其  
 壽。公之宜所自有也。而乃至於斯也。黽勉郎署。棲遲  
 下邑。而春秋纔過半百。不可謂之位且壽也。所謂天  
 與之者。何道而報施之乖戾若是乎。天既好公。而顧  
 不能報公。以世之所好者。則抑將昌大人世之所謂  
 吉慶者。以留於公之子與孫乎。樂天安命。是公之志  
 耳。公何憾焉。福善裕後。固天之道。則公無憂矣。嗚呼。  
 恐墜祖訓。常念克家之難。早從賢師。熟聞治己之方。

魯庵文集卷之二 三十

二一三

之四 慶州金宗一字貫之甫著 / 附錄

제문[신휘석] 祭文[申徽錫]

15世 휘석(徽錫) 父 : 성(埜)

祖父 : 열도 (悅道)

읍파(邑派) 난재공파(聾齋公派)

鳴呼惟公。莊嚴氣像。渾厚風儀。竭孝將母。負笈從師。種學績文。早歲飛英。一蹴登龍。  
 黃甲高名。聯翩雲路。位望清迥。鶚立朝端。風紀由整。鸞栖枳棘。吏戢民悅。 三季蠻貊  
 。夷險一節。六載海曲。髭髮勝昔。之才之德。似公者小。謂豐其施。何嗇其報。進退行裝。  
 。惟義之當。顧余孤陋。忝入門牆。幸蒙不揮。多所啓發。萬語千言。皆我藥石。感銘心肺。  
 。何日敢諉。坐於地遠。雖未源源。期以百季。永承警欬。天不慙遺。德星遽晦。諄諄教誨。  
 。寂矣難再。凜凜儀形。已矣莫追。於何考德。萬古長辭。追惟往昔。涕泗漣沍。殮不憑棺。  
 。葬未臨穴。辜負實多。我懷曷極。敢將哀忱。祇薦洞酌。不昧者靈。庶賜歆格。

世莫我知。杙斲難合。才不展時。位不滿德。十載邱園。  
 一心戀闕。賈父傷時。范老憂國。顧惟生等。此洞相望。  
 公所眷戀。公所來往。倚以爲重。山斗是仰。云何不淑。  
 奄至於斯。南躔晦彩。東主纏悲。矜式何處。就正何地。  
 鄉井咨齋。親戚涕泗。從此已矣。慟惜曷已。丹旌今日。  
 路由此里。含哀致誠。敬奠一酌。不昧者存。庶幾歆格。

申徽錫

鳴呼惟公。莊嚴氣像。渾厚風儀。竭孝將母。負笈從師。  
 種學績文。早歲飛英。一蹴登龍。黃甲高名。聯翩雲路。  
 位望清迥。鶚立朝端。風紀由整。鸞栖枳棘。吏戢民悅。  
 三季蠻貊。夷險一節。六載海曲。髭髮勝昔。之才之德。  
 似公者小。謂豐其施。何嗇其報。進退行裝。惟義之當。  
 顧余孤陋。忝入門牆。幸蒙不揮。多所啓發。萬語千言。  
 皆我藥石。感銘心肺。何日敢諉。坐於地遠。雖未源源。  
 期以百季。永承警欬。天不慙遺。德星遽晦。諄諄教誨。  
 寂矣難再。凜凜儀形。已矣莫追。於何考德。萬古長辭。  
 追惟往昔。涕泗漣沍。殮不憑棺。葬未臨穴。辜負實多。  
 我懷曷極。敢將哀忱。祇薦洞酌。不昧者靈。庶賜歆格。

李 埰

魯庵集 卷四



송김사서부심양(送金司書赴瀋陽)[신고송(申孤松) 弘望]

5世 홍망(弘望) 父 : 지제(之悌) 祖父 : 몽득 (夢得) 귀파(龜派)오봉공파(梧峰公派)

龍樓寂寞斷環聲。臣子寧論萬里行。故國衣冠雙鬢白。平生忠信一身輕。關雲漠漠孤鴻叫。遼海茫茫片月明。爲問歸期何日是。朔風揮淚倍離情。

魯庵文集卷之四 三十八

殊俗非賈之則不可。有司之舉賈之。眞誠知人。而  
 聖智擇賢之明。吁亦無間然矣。然則賈之其可謂亨  
 困之大人。而能善處古君子之最難處者也。吾將側  
 耳以聽。賈之其勉乎哉。與賈之爲僚。有曰閔吏甫。亦  
 吾友也。其人器度如賈之。其人節操如賈之。周旋輔  
 導之際。必能儼美而相講。嗚呼。賈之亦不孤於殊邦  
 矣。爲報吏甫。其亦以是賀之。丁丑重陽。故人俞會甫  
 書。

送金司書赴瀋陽 申孤松 弘望

龍樓寂寞斷環聲。臣子寧論萬里行。故國衣冠雙鬢  
 白。平生忠信一身輕。關雲漠漠孤鴻叫。遼海茫茫片  
 月明。爲問歸期何日是。朔風揮淚倍離情。

夢見金司書覺後求懷 全人

夢裏分明見。欠伸卻未眞。遼河方雨雪。關塞尚風塵。  
 千里音書斷。三冬別恨新。何時一樽酒。相對古園春。

其二

鶴原心死日。豺窟膽消時。眠食今安未。音書遠寄遲。  
 越吟莊寫苦。漢節子卿持。一會憑遮榻。悽然覺後思。

贈金司書在瀋陽時 李白洲 湖

杖節胡爲北海傷。白頭辛苦笑蘓郎。明時剩有安邊

몽견김사서각후영회(夢見金司書覺後永懷)[신흥망 申弘望]

5世 흥망(弘望) 父 : 지제(之悌) 祖父 : 몽득 (夢得) 귀파(龜派)오봉공파(梧峰公派)

夢裏分明見。欠伸卻未眞。遼河方雨雪。關塞尙風塵。千里音書斷。三冬別恨新。何時一樽酒。相對古園春。

其二

鴿原心死日。豺窟膽消時。眠食今安未。音書遠寄遲。越吟莊鳥苦。漢節子卿持。一會憑蘧榻。悽然覺後思。

魯庵集 卷四

白平生忠信一身輕。關雲漠漠孤鴻叫。遼海茫茫片月明。爲問歸期何日是。朔風揮淚倍離情。

夢見金司書覺後永懷 全人

夢裏分明見。欠伸卻未眞。遼河方雨雪。關塞尙風塵。千里音書斷。三冬別恨新。何時一樽酒。相對古園春。

其二

鴿原心死日。豺窟膽消時。眠食今安未。音書遠寄遲。越吟莊鳥苦。漢節子卿持。一會憑蘧榻。悽然覺後思。

贈金司書 在瀋陽時 李白洲 明

杖節胡爲北海傷。白頭辛苦笑蘧郎。明時剩有安邊策。枉斷忠臣烈士腸。

其二

千古綱常已矣夫。到今無賴管夷吾。君看屈膝胡庭者。白日揚鏡入國都。

次蒼石韻 補慰金魯庵失火 申懶齋 悅

三載長沙賦鵬餘。元參失火赭垣如。倚伏冥冥難可恃。要須忍性學鄒書。

魯庵先生文集卷之四



차창석운(次蒼石韻) 漏本 위김로암실화(慰金魯庵失火) [申懶齋 悅道]

13世 열도(悅道) 父 : 흘(屹) 祖父 : 원록 (元祿) 음파(邑派)난재공파(晝齋公派)

三載長沙賦鵬餘。元參失火赭垣如。倚伏冥冥難可恃。要須忍性學鄒書。

魯庵集 卷四

白平生忠信一身輕。關雲漠漠孤鴻叫。遼海茫茫片月明。烏問歸期何日是。朔風揮淚倍離情。

夢見金司書覺後求懷 全人

夢裏分明見。欠伸卻未真。遼河方雨雪。關塞尚風塵。千里音書斷。三冬別恨新。何時一樽酒。相對古園春。

其二

鵲原心死日。豺窟膽消時。眠食今安未。音書遠寄遲。越吟莊寫苦。漢節子卿持。一會憑遽榻。悽然覺後思。

贈金司書在瀋陽時 李白洲 漢

杖節胡為北海傍。白頭辛苦笑蘓郎。明時剩有安邊

魯庵文集卷之四 三十九

策。枉斷忠臣烈士腸。

其二

千古綱常已矣夫。到今無賴管夷吾。君看屈膝胡庭者。白日揚鑿入國都。

次蒼石韻漏本慰金魯庵失火 申懶齋 悅道

三載長沙賦鵬餘。元參失火赭垣如。倚伏冥冥難可恃。要須忍性學鄒書。

魯庵先生文集卷之四

## 눌은선생문집(訥隱先生文集)

### 형태서지

권수제	눌은선생문집(訥隱先生文集)
판심제	訥隱先生文集
간종	목판본(木版本)
간행년	1808 年刊
권책	22 권 11 책
행자	11 행 22 자
규격	20.7×18.1(cm)
어미	上下二葉花紋魚尾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도서번호	奎 12497
총간집수	한국문집총간 187

### 저자

성명	이광정(李光庭)
생년	1674 년(현종 15)
몰년	1756 년(영조 32)
자	천상(天祥)
호	눌은(訥隱)
본관	원주(原州)
특기사항	이현일(李玄逸), 권두경(權斗經), 권두인(權斗寅)의 문인. 김성탁(金聖鐸), 권구(權渠) 등과 교류

행력

왕력		서기	간지	연호		연령	기사
현종	15	1674	갑인	康熙	13	1	6월 24일, 태어나다. 곧 伯父 李先龍의 후사가 되다.
숙종	25	1699	기묘	康熙	38	26	端宗 復位를 기념하는 增廣 進士試에 합격하다.
숙종	28	1702	임오	康熙	41	29	생모 李夫人의 喪을 당하다.
숙종	30	1704	갑신	康熙	43	31	葛庵 李玄逸을 곡하다.
숙종	31	1705	을유	康熙	44	32	모친 李夫人의 喪을 당하다.
숙종	39	1713	계사	康熙	52	40	생부 李後龍의 喪을 당하다.
숙종	40	1714	갑오	康熙	53	41	부친 李先龍의 喪을 당하다.
숙종	45	1719	기해	康熙	58	46	문과 초시에 합격하였으나 복시에서 낙방하다. ○ 荷塘 權斗寅을 곡하다.
숙종	46	1720	경자	康熙	59	47	九玉巖에 집을 짓고 記, 銘, 詩를 짓다.
경종	2	1722	임인	康熙	61	49	다시 초시에 합격하였으나 복시에서 낙방하다.
경종	4	1724	갑진	雍正	2	51	鬱陵島, 蔚珍 聖留窟 등을 유람하다.
영조	1	1725	을사	雍正	3	52	3월, 蒼雪齋 權斗經을 곡하다.
영조	2	1726	병오	雍正	4	53	1월 1일, 陶潛의 〈形影神〉 詩에 和韻하다. ○ 3월, 〈敬次晦翁先生和東坡韻〉을 짓다.
영조	6	1730	경술	雍正	8	57	朱子の 〈南嶽唱酬詩〉에 次韻하다. ○ 鹿門精舍가 완성되어 우거하다. ○ 密菴 李裁를 곡하다.
영조	8	1732	임자	雍正	10	59	경상 감사 趙顯命이 安東府의 都訓長으로 뽑다. 諸生을 모아 性理諸書를 講學하다.
영조	10	1734	갑인	雍正	12	61	경상 감사 金始燭이 孝廉으로 천거하다.
영조	11	1735	을묘	雍正	13	62	우거하던 鹿門精舍의 화재로 많은 詩文이 불에 타다. ○ 趙顯命이 入對하여 文學과 行誼가 영남 제일이라 칭송하고, 경상 감사에서 막 돌아온 金在魯도 영남 제일의 인물로 일컫다. 이에 厚陵 參奉에 제수되다. 부임하였다가 先生案에서 成守琛과 徐敬德이 제수의 명에 응하지 않았던 사실을 보고 詩를 지어 감회를 적고 병을 이유로 사직하여 돌아오다. ○ 鹿門精舍의 重修에 힘쓰다.
영조	12	1736	병진	乾隆	1	63	莊陵 參奉이 되어 부임하다. 寧越의 선비들에게 학문을 일깨우다. 〈越中懷古〉 詩를 짓다.
영조	14	1738	무오	乾隆	3	65	惠陵 奉事가 되다. 부임길에 丹陽 龜潭의 丁時翰 舊居를 바라보면서 詩를 짓고 이내 돌아오다. ○ 濟州에서 光陽으로 移配된 金聖鐸에게 편지하다.

눌은선생문집(訥隱先生文集) 이광정(李光庭)

영조	17	1741	신유	乾隆	6	68	李東標의 증직을 詩를 지어 축하하다. ○ 冶隱 吉再에게 내린 諡號를 改正하도록 청하는 상소를 짓다. ○ 갑오년 이후 새로 창설한 書院의 철폐 명령이 내린 데 반대하여 擬疏를 짓다.
영조	18	1742	임술	乾隆	7	69	선공감 감역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 가을, 權萬과 함께 榮川 일대를 유람하다. ○ 柳雲龍의 문집 「謙庵集」을 校正하고 序文을 짓다.
영조	19	1743	계해	乾隆	8	70	李德弘의 문집 「良齋集」을 校讎하고 序文을 짓다.
영조	20	1744	갑자	乾隆	9	71	李厚慶의 문집 「畏齋集」과 趙任道の 「澗松集」을 校勘하고 序文을 짓다.
영조	22	1746	병인	乾隆	11	73	權櫟을 모신 三溪書院의 居齋儒生 勸諭文과 居齋節目을 짓다.
영조	23	1747	정묘	乾隆	12	74	익위사 세마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 除夕에 孤山書堂에 우거하면서 〈元日箴〉을 짓다.
영조	24	1748	무진	乾隆	13	75	趙宗道の 「大笑軒逸稿」를 校正하고 序文을 짓다.
영조	25	1749	기사	乾隆	14	76	이즈음 漁隱의 溪舍를 짓고 우거하다.
영조	28	1752	임신	乾隆	17	79	權櫟의 문집 「冲齋集」 重編本の 序文을 짓다.
영조	29	1753	계유	乾隆	18	80	10 월, 이조 판서 趙榮國의 추천으로 6 품직 제수의 명이 내리다.
영조	30	1754	갑술	乾隆	19	81	봄, 익위사 익위가 되다. ○ 여름, 四殿에 尊號를 올린 기념으로 耨老에게 加資할 때 通政階를 받다. ○ 겨울, 용양위 부호군이 되다.
영조	31	1755	을해	乾隆	20	82	가을, 첨지중추부사가 되다.
영조	32	1756	병자	乾隆	21	83	봄, 尊號를 올린 일로 다시 嘉善階에 가자되고 동지중추부사가 되다. ○ 諸老와 太白山을 유람하다. ○ 4 월 1 일, 漁隱의 溪舍에서 즐하다. ○ 9 월, 奉化縣 大鳥山에 장사 지내다.
정조	3	1779	기해	乾隆	44	-	李象靖이 遺稿를 校勘하고 序文을 짓다.
순조	8	1808	무진	嘉慶	13	-	손자 李師勛 등이 문집을 목판으로 간행하다.(金翰東의 跋)

편찬및간행

저자는 葛庵 李玄逸과 密菴 李栽를 스승으로 한 南人의 대표적인 문장가로서 83 세라는 장수를 누리면서 많은 시문을 지었으나 62 세 되던 1735 년(영조 11)에 평소 거처하던 鹿門精舍의 화재로 많은 시문들이 불에 탔다. 본집 권 3 의 〈精舍爲回祿所焚歎〉 詩에, “상자 속 文章들이 煙氣 따라 사라졌다.”고 한 것에서 그 피해 상황을 엿볼 수 있다. 저자는 精舍의 重修에 힘쓰는 한편 타버린 시문의 草稿를 복원해



놓는 데도 힘을 기울였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62세 이전의 시문이 다수 본집에 실려 있는 것을 보아도 이를 짐작할 수 있다. 저자는 이와 아울러 여타의 시문들을 정리해 놓는 데도 힘을 썼을 것으로 보인다.

저자 사후에 嗣孫李宗勳과 門人들은 遺稿를 수집, 편차하여 간행 준비를 해 나갔고, 安東府 乃城縣의 父老들은 간행 자금을 모아 간행에 대비하였다. 본집의 啓明文化社 영인본에 실린 附錄에 보면, 門人이 지은 <校文集志感> 詩의 주석에 '鷺寺에서 權說書 및 여러 벗들과 訥隱集을 교정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鷺寺는 乃城縣 북쪽에 있는 鷺棲寺이고 權說書는 1767년에 졸한 權正忱이다. 곧 1756년의 저자 사후 權正忱 등의 門人이 遺稿를 편차, 교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편차, 교정된 遺稿는 다시 蔡濟恭과 李象靖의 校勘을 받은 뒤 총 21권 10책의 정고본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李象靖이 校勘을 마치고 遺券後序를 지어준 것이 1779년(정조 3)이었는데, 이때 간행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蔡濟恭이 지은 墓碣銘(樊巖集 卷 53)에, 遺稿를 校勘해 준 뒤 얼마 안 있어 李宗勳이 死亡하였다고 한 것으로 보아 李宗勳의 사망으로 간행이 중단된 것이 아니었을까 추측된다.

이후 1808년(순조 8)에 가서 손자 李師勳 등이 附錄 1권을 추가하여 총 22권 11책을 목판으로 간행하였다. 附錄은 李象靖이 지은 行狀과 李獻慶이 지은 墓誌銘이었고, 蔡濟恭이 지은 墓碣銘은 실리지 않았다. 권말에는 1808년 金翰東이 지은 後識가 실렸다. 간행은 安東의 乃城縣 부로들이 모은 자금을 가지고 그 부근에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거나 장소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한편 보통의 판목보다 촘촘한 11행 22자로 짜여진 것을 보면, 경제적인 여건이 넉넉지 못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초간본》이 본은 현재 규장각(奎 12497, 古 3428-513), 국립중앙도서관(한 46-가 536, 우촌古 3648-文 62-138),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D1-A1680),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金翰東이 지은 後識에서, 초간본에 실리지 못한 刪節된 遺稿와 原稿에서 누락되어 勘定도 거치지 못한 많은 遺稿를 續稿로 엮어 훗날 간행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실제 초간 이후 續稿의 간행을 포함한 追刻이나 重刊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1988년에 啓明文化社에서 原集 22권에 8대손 李星淵氏가 소장하고 있던 필사본 訥隱先生文集附錄(挽詩, 祭文, 行略, 門人錄, 言行錄, 墓碣銘 등) 2권 2책을 함께 엮어 영인하였다.

본서의 저본은 1808년 목판으로 간행된 초간본으로 규장각장본(奎 12497)이다.

遺券後序(李象靖 撰), 後識(金翰東 撰), 行狀, 墓碣銘, 墓誌銘 등에 의함

## 구성과내용

본집은 22권 11책으로 되어 있다. 맨 앞에 總目錄이 있고, 권별 목록은 없다.

권 1~3은 辭, 賦, 詩(169題), 聯句(6)이다. 李白의 <鳴皋歌>에 次韻한 <鹿門歌辭> 등 辭 2편, 楚王의 章華臺 築造를 말리려는 匠石이 楚王과 대화하는 형식으로 지은 <山木賦> 등 賦 4편이 있다. 詩는 169題가 대체로 저작 연대순으로 편차되어 있다. 30대와 40대 초반에 生親과 養父母의 服喪을 치르느라 이 시절의 詩는 별로 없고, 44세(1717) 이후의 시가 대부분이다. 44세 이전의 작품 가운데는 부친을 위해 復讐한 少女를 칭송한 <江上女子歌>, 善山의 孝烈女를 노래한 <薊娘謠> 등이 있다. 그 이후에는 1718년 경 歲暮에 거문고를 대신하여 詩로 방아소리를 지은 <碓樂>, 九玉巖, 鹿門精舍, 漁隱溪舍 등 우거한 곳을 읊은 시, 鬱陵島, 蔚珍과 淸涼山 등 安東 일대의 유람시, 文殊山 文會의 唱酬詩, 寧越의 莊陵 參奉 시절 지은 <越中懷古>, 楊州의 惠陵 奉事 부임길에 龜潭에서 짓고 되돌아온 시 등이 있다. 그리고 <南嶽唱酬詩> 등 朱子의 詩에 차운한 시가 여러 편이며, 陶潛, 李滉, 蘇軾 등의 시에 차운한 시도 있다. 또 權斗

寅, 權斗紀, 權斗經, 李栽, 權萬 등에 대한 挽詩가 있고, 다수의 送別詩도 있다. 聯句는 李仁溥, 柳春榮, 權萬, 權正宅, 李槩 등과 함께 지은 것이다.

권 4~5 는 疏(2), 書(39)이다. 疏는 1741 년(영조 17)에 冶隱 吉再에게 '忠節'의 諡號가 내린 것을 改正해 주고, 金澍에게 贈諡하기를 청한 상소, 같은 해에 갑오년 이후 창설된 書院의 첩폐 명령을 반대하여 지은 擬疏이다. 書는 李時善, 李廷揚, 權斗紘, 李仁溥, 金漢緯, 金光國, 金聖鐸, 權萬, 趙顯命, 金瑞一, 權正雄, 權正忱, 李象靖, 李光靖, 金樂行, 鄭壽延, 權正宅 등 知舊 門人과 아들들에게 보내고 답한 편지이다. 그중 李時善에게는 그가 지은 <王道表>에 대한 의문점 등을 물었고, 金光國에게는 과거에 낙방한 참담한 심정을 말하였다. 金聖鐸에게는 厚陵 參奉을 그만두고 돌아온 심정을 적어 보내기도 하고, 李玄逸을 伸救하다가 濟州 旌義縣으로 유배, 또 光陽으로 移配된 소식을 듣고 안부를 묻기도 하였다. 權萬에게는 三陟의 黃池로 들어가 古田制와 鄉約 등을 실행해 보고자 하는 계획을 의논하였고, 감사 趙顯命에게는 勸學節目의 문제점들을 지적하였고, 李象靖에게는 朱書와 六經 四書を 똑같이 중시하여 講學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권 6~8 은 雜著(13), 序(40), 記(19), 跋(5)이다. 雜著는 「書經」 梓材篇과 「詩經」 舞衣章을 고증한 글, <九玉巖居說>, 三溪書院의 居齋 勸諭文과 居齋節目, 六經의 내력 등을 問答한 글 등이다. 序는 送序와 贈序, 族譜序 등과 「紫巖遺集」(李民奩), 「謙庵遺集」(柳雲龍), 「良齋遺集」(李德弘), 「荷塘集」(權斗寅), 「畏齋遺券」(李厚慶), 「澗松集」(趙任道), 「荷華編」(李時善), 「大笑軒逸稿」(趙宗道), 「冲齋文集」(權穉), 「敬庵遺稿」(盧景任) 등 저자가 편찬에 관계하였던 남인 학자들의 수많은 문집 序文이다. 記는 琴鳳輝에게 지어준 <無猶齋記>, 權東著에게 지어준 <耕巖亭記>, 자신이 우거한 <鹿門山水小記>, 榮川 근방의 <龜臺夜遊記> 등이다. 跋은 「錦溪集」(黃俊良), 「桐溪先生年譜」 등에 적은 것이다.

권 9~10 은 識(10), 銘(4), 箴(4), 贊(1), 上樑文(7), 辭(10), 祝文(10), 祭文(17)이다. 識는 丹溪 河緯地の 遺券에 적은 書後 등이다. 銘은 자신의 淸溫齋 등에 적은 것이고, 箴은 <齊家十箴>, <元日箴> 등이다. 上樑文은 丹溪院祠, 鹿門精舍, 孤山書堂 등에 대한 것이다. 誄辭는 權斗紘, 朴天柱 등에 대한 것이고, 祝文은 松巢 權宇, 奉化 鄉賢祠, 仁山書院, 玉溪精舍, 勿溪書院 등에 대한 것이다. 祭文은 장인 琴德華, 權斗紘, 權斗寅, 權斗經, 權萬 등에 대한 것이다.

권 11~14 는 碑銘(10), 墓表(1), 墓碣銘(38), 墓誌銘(27)이다. 郭再祐를 위한 滄巖碑, 高麗의 孫洪亮 遺墟碑銘, 琴是養의 旌閭銘, 玉璫의 묘표, 金係行, 裴尙益, 辛時望, 李厚慶, 趙任道, 金念祖, 金兌一, 柳仲淹, 李棟完, 李秀亨 등의 묘갈명, 權斗紘, 李栽, 金玔, 權斗經, 趙宗道, 金邦杰, 申之梯 등의 묘지명이다.

권 15~19 는 行狀(35)이다. 鄭鐸, 李琬, 申弘望, 金光粹, 朴敬祉, 金中淸, 李仁溥, 金應祖, 權應銖, 金鸞祥, 李澐, 金玲, 金慶祖, 조부 李時菴 등에 대한 것이다.

권 20 은 遺事(6), 傳(7)이다. 遺事는 효자 朱景顏, 외조부 李惟馨 등에 대한 것이고, 傳은 詩에도 실린 烈婦 林薊娘, 洪宇定, 權用休, 太宗의 庶孫 牛山君과 그 아들들, 金樸, 孝烈 노비 勝眞과 勝妹, 효자 鄭道昌을 立傳한 것이다.

권 21 은 漫錄(2)이다. 亡羊錄은 21條의 우화와 풍자 섞인 글을 모아 놓은 것으로, 저자의 대표적인 글로 꼽힌다. 近, 實, 目を 천히 여기고 遠, 名, 耳를 귀히 여기는 풍조를 비판한 글, 科擧를 그물질에 비유한 글, 여우에 얽힌 일화, 관청의 계장을 훔쳐먹은 농부의 항변, 가난한 老婆가 女子, 卑微, 勤勞, 疾病, 飢寒을 自樂한다는 설명 속에서 당시의 처참한 상황을 서술한 글, 당시의 俗言과 古語 가운데 교훈이 될 만한 글 등이다. <折翼論>에서는 晉 나라 陶侃이 병권을 장악하여 불귀를 도모하다가 날개가 잘린 꿈을 꾸었던 것 때문에 그만두었다는 晉史의 기록은 誣謗일 뿐이니, 이와 같은 讒言을 경계해야 함을 말하였다.

권말에 1779년에 李象靖이 지은 遺券後序가 실려 있다.

권 22 는 附錄이다. 李象靖이 지은 行狀과 李獻慶이 지은 墓誌銘이다. 墓碣銘, 祭文, 挽詞, 기타 부록문자들은 실리지 않았다.

맨 뒤에 1808 년 金翰東이 간행 경위를 적은 識가 실려 있다.

## 이광정(李光庭)

### 정의

조선후기 『눌은집』을 저술한 학자.문장가.

### 개설

본관은 원주(原州). 자는 천상(天祥), 호는 눌은(訥隱). 문과도사 이시암(李時菴)의 손자로 아버지는 이후룡(李後龍)이며, 어머니는 공주 이씨(公州李氏)이다. 백부 이선룡(李先龍)의 양자로 갔다.

### 생애 및 활동사항

증조부 이택(李澤)이 광해군(光海君)의 폭정을 피해 안동부 내성현으로 내려오면서부터 살기 시작했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책 읽기를 좋아했는데, 정통 유학서 뿐만 아니라, 『장자(莊子)』, 『초사(楚辭)』, 『사기(史記)』, 『좌씨춘추(左氏春秋)』와 같은 책을 탐독하여 고문에 능하였으며 훌륭한 문장을 많이 지었다.

1699 년(숙종 25)에 진사가 되었으나, 생부모와 양부모 상(喪)을 연이어 당하자, 과거시험을 포기하고 태백산 자락 소천산(小川山)으로 들어가 젊은이를 가르치면서 문장가로서의 일생을 보냈다.

만년에 조현명(趙顯命)이 경상도 관찰사로 있을 때, 지방의 학문과 교화를 일으키고자 많은 선비를 뽑았는데, 이 때 이광정을 스승으로 모셔 안동부도훈장(安東府都訓長)으로 삼았다. 조정에서 효렴(孝廉)을 천거하라 하였을 때에도 문학과 행의(行誼)가 산남(山南)의 제일이라고 하여 천거되었다.

이후에 김재로(金在魯)가 영백(嶺伯)으로서 조정에 들어갔을 때에도 천거하여 후릉참봉(厚陵參奉)을 제수(除授)받았는데, 서경덕(徐敬德)과 성수침(成守琛)이 그 자리를 사양하였음을 알고 병을 핑계로 물러났다. 그 뒤에도 장릉참봉(莊陵參奉)을 제수 받았지만 끝내 사양하였다.

당시 재상이던 조영국(趙榮國)은 이광정이 문장과 학술에 중망이 있었음에도 여러 차례의 관직 제수를 사양하고 산림에 묻혀 후학을 교수한 점을 높이 평가하여, 6 품직 하사를 건의하여 왕의 허락을 얻었다. 이와 같이 이광정은 영남 문원(文苑)의 모범이며, 세교(世教)를 떨쳤던 인물로 알려졌다.

문집으로는 『눌은집』이 있다. 그 가운데 「노파의 다섯가지 즐거움」을 비롯한 21 편의 우언(寓言)이 담긴 『망양록(亡羊錄)』과 「강상여자가」, 「향량요」 등 주목할 만한 작품이 많다.

퇴계학풍이 지배적인 안동 지방에서 제자인 문장가 권만(權萬)과 도학자 이상정(李象靖) 간에 문학사상 논쟁이 벌어졌을 때, “문학과 도학 중 어느 것이 중하다 가법다 할 수 없다.”고 하여 문학의 자율적 가치를 옹호한 점은 특기할 만하다.

卷之三 / 詩

신진사국수 명구 만 申進士國叟 命耆 輓

17世 명구(命耆) 父 : 응집(應堦) 祖父 : 석범(錫範)

읍파(邑派) 관동파(館洞派)

先將軍眞丈夫。步兵三千蹂沙漠。酋皇凱迎萬弩伏。匹馬完旅報王國。君爲小子最見愛。八尺軒然奇骨格。不去邊塞覓封侯。却向燈前親六籍。少年緩步泮水宮。出入荊圍爲長伯。憶昨彤墀獻策罷。相携步出長安陌。長安少年盡奔走。不道江湖空落魄。君向德溪爲洞主。我亦擔簞歸太白。兩地迢迢但相思。癯骨枯容俱未識。聞君還卧故山雲。朋酒琴書悅親戚。無那天道在西北。任教瓌材委空谷。如今竟抱各天悲。永失樽前話夙昔。兒郎尙能傳遺業。咳唾猶爲人愛惜。祇今餘恨洩無處。何處青山封四尺。





卷之十四 / 墓誌銘

通政大夫行承政院同副承旨，知製教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贈嘉善大夫吏曹參判兼同知經筵義禁府春秋館成均館事，世子左副賓客梧峰申先生墓誌銘。并序

14世 지제(之梯) 父 : 몽득(夢得) 祖父 : 응규 (應奎) 귀파(龜派)오봉공파(梧峰公派)

上舍申君震龜。以高王父梧峰先生遺集授光庭。令校讎可傳。且曰。吾祖幽堂之銘。久未有屬。子既序遺文矣。盍因而銘諸。光庭固辭以非人而不得者。不敢終拒。迺次其世系履歷行治事始終而系以辭。謹按申氏系於鵝洲者。祖<sup>P</sup>高麗版圖判書允濡。其子祐有至行。父喪廬墓。致雙竹之異。是爲全羅道按廉使。按廉之孫曰丹陽郡守希信。於公爲七代祖。曾大父翰。贈掌隸院判決事。大父應奎。恭陵參奉。贈工曹參判。父夢得。贈承政院左承旨。母日月城朴氏。孝子贈參議敏樹之女。贈淑夫人。公以嘉靖壬戌七月辛丑生。八歲而喪母夫人。執喪如成人。能自力學。己丑。擢增廣甲科第三名。卽授司贍寺直長。辛卯。陞典籍。轉司憲府監察。秋。除禮安縣監。鶴峰金先生惜其出止之。公爲便養赴任。壬辰。島夷大搶。列郡烏竄。公獨提兵爲扞禦方略。朝廷嘉之。以公兼禮曹正郎，春秋館編修官。既瓜。體察使啓留之。丁酉。拜司諫院正言。旋授侍講院文<sup>P</sup>學。公以親庭去賊近。求從事巡營二年。庚子。除全羅都事。辛丑。拜禮曹佐郎。轉正郎。秋。除全州判官。壬寅。拜司憲府持平。旋遞爲體察從事。爲全羅道暗行御史。癸卯。按覈慶尙道軍務。甲辰。除文學，知製教。參宣武扈聖勳一等。乙巳。拜持平。以府筭語切當路。忤長官意。謝歸。丙午。除統制使從事。丁未春。除江界判官。以親病辭。夏。丁承旨公憂。廬墓哀毀三年。足不出山門。己酉服闋。光海嗣位。除工曹正郎。不赴。庚戌。除忠清道都事。數月棄歸。秋。除咸鏡北道評事。辛亥。除全羅都事。俱不赴。癸丑。除昌原府使。以捕獷賊勞。陞通政。癸亥。仁廟改玉。拜承政院同副承旨。以病辭。甲子正月八日。終于正寢。享年六十三。以某月日。葬義城<sup>P</sup>西栗谷已坐原。丙戌。以原從勳。贈嘉善大夫吏曹參判，兼同知經筵義禁府春秋館成均館事，世子左副賓客。公資性仁厚勤儉。寬而有容。篤於人倫。嚴於律己。爲政。必本於仁恕。幼失母夫人。哀念不已。過故寢房。必遶壁涕泣。事繼母吳氏。曲盡其心。有人所難能。而亦有人不及知者。至臨終。吳氏病革。公口不成語。喉中唯聞母病如何。既絕乃已。伯氏死於兵。語必流涕。教養遺孤。分己產業。區畫祭田。爲久遠謀。病甚。猶誨督兄孫曰。不忍先兄之後之無教也。兒時受業於惟一齋金公彥璣。學徒遞炳書室。公與二同伴拾薪。一人誤推樵者墜厓斃。推者當坐。公引同往爭死。州義之。並舍不坐。亂初。與金內翰垓約死王事。內翰<sup>P</sup>爲義將未幾沒。家無賴。公竭誠救濟。致兒孤官中。使夫人哺鞠以全。在禮七年。遇大饑。焦心殫力。軍興不乏而官事理。饑民四集仰哺。所賑活甚廣。公久無子。神夢公以爾積善。天錫嘉胤。初之縣。有賊死囚當刑羣慄。公哀之。教而舍之。縣自此無警。及遇亂。

七十餘人冒死救公以免。童子時讀書山齋。村女過意。公撻而遣之。立朝。絕不與貴近。相知有要公見用事者宰相。公謝不能。鄉友亦有言。公因戒之。其人不省。卒謫去。常曰。居官者以罷職爲意。不能不屈於人。故公在官。必行己志。全州時。法不饒貴勢。抑強與弱。威惠並流。理煩劑劇。無滯冤。公歸。民刻石追思。及赴昌原。沮當路請。鄭仁弘家不遠。公不往。仁弘知不附己。亦無以過之。有誣公濫用宮布。仁弘曰。吾聞其爲政。必不有此。公爲政。持大體。所至。以興學育才爲先。性好學。常以不及陶山時爲恨。在禮安。常往省院祠。與及門諸老。講究旨訣。商榷政務。無虛日。平居手不釋卷。衙罷。必張燈讀書。夫人曰。既釋褐。何復自苦。公笑曰。讀書非止立身爲。每日晨興。整飭冠襟。雖家人。亦不見公有惰容。不喜華靡。常衣木綿曰。爲便體也。從事時。資具破敝。亦不易。常戒子弟曰。我起草莽。而曹謹慎。勿言人不善。惡我勿校。內外親戚之貧無依者。隨力調濟。下及僕隸。飢寒疾病。無不致意曰。是亦人子而寄命於我者。與人處。和氣彤如。語人子弟以孝友。語諸生以讀書。隨人勉勸。人樂親附。西厓柳文忠公稱公爲第一人物。旅軒張先生亦以公爲賢者也。當時公誦。莫不以公輔期公。卒蹇滯栖遑。不得安於朝廷一日。若可恨。亦見公明於去就。子時孤雛。不爲時俗所喜故。嗚呼。其眞賢矣哉。公諱之悌。字順夫。初居梧桐山北。自號梧峯。晚居龜尾。又稱龜老。夫人咸安趙氏。漁溪旅之後。贈刑曹判書址之女也。生一男女。男弘望承文院判校。繼公有名。女適進士李學。判校有一男八女男漢老宣教郎。女士人柳重河。金時任。進士李朝衡。士人任世準。都爾高權然。朴文約。縣監朴望之爲其壻。又有側室子漢傑。漢白。女二。曾玄以下內外僅八百餘。積善之慶也與。系曰。李敬亭言。公有確乎難拔之操。毅然難犯之色。恢乎有容之量。今去公百餘年。以是三者。猶可以得公之彷彿。神於土者猶有靈更千百億。其呵禁不祥以無憂其體與魄。

銘曰。生于名門世爲宗嫡。孝友爲政。決于媚族。蘊德于身。以有賢子。以繼以繩。其求無墮。

通政大行承政院同副承旨知製教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贈嘉善大夫吏曹參判兼同知。經筵義禁府春秋館成均館事。世子左副賓客梧峯申先生墓誌銘。并序

上舍申君震龜以高王文梧峯先生遺集授光庭。令校讎可傳。且曰。吾祖幽堂之銘。久未有屬子。既序遺文。奚益因而銘諸。光庭固辭以非人而不得者。不敢終拒。迺次其世系履歷。行治事始終。而系以辭。謹按申氏系於鶴洲者。祖高麗版圖判書允瀾。其子祐有。至行文忠盧墓。致雙竹之異。是爲全羅道按廉使。按廉之孫曰丹陽郡守希信。於公爲七代祖。曾大父翰。贈掌隸院判決事。大父應奎。恭陵參奉。贈工曹參判。父夢得。贈承政院左承旨。母曰月城朴氏。孝子。贈參議敏樹之女。贈淑夫人。公以嘉靖壬戌七月辛丑生。八歲而喪母。夫人執喪如成人。能自力學。己丑擢增廣甲科第三名。卽授司贍寺直長。辛卯陞典籍。轉司憲府監察。秋除禮安縣監。鶴峰金先生惜其出止之。公爲便養。赴任。壬辰。島夷大搶。列郡爲竄。公獨提兵爲扞禦。方略朝廷嘉之。以公兼禮曹正郎。春秋館編修官。既瓜體察使。啓雷之。丁酉。拜司諫院正言。旋授侍講院文

訥隱先生文集卷十四 三四



學。公以親庭去賊近。求從事巡營三年。庚子。除全羅都事。辛丑。拜禮曹佐郎。轉正郎。秋。除全州判官。壬寅。拜司憲府持平。旋遞為體察從事。為全羅道暗行御史。癸卯。按叢慶尚道軍務。甲辰。除文學。知製。教。參宣武扈聖勳等。乙巳。拜持平。以府劄語切當路。忤長官意。謝歸。丙午。除統制使。從事。丁未。春。除江界判官。以親病辭。夏。承旨。夏。廬墓哀毀三年。足不出山門。己酉。服闋。尤海嗣位。除工曹正郎。不赴。庚戌。除忠清道都事。數月棄歸。秋。除咸鏡北道評事。辛亥。除全羅都事。俱不赴。癸丑。除昌原府使。以捕獲賊。勞。陞通政。癸亥。仁廟改。壬。拜承政院同副承旨。以病辭。甲子。正月八日。終于正寢。享年六十三。以某月日。葬義城。

訥隱先生文集卷之十四 三五

西栗谷已坐原丙戌。以原從勳。贈嘉善大夫。吏曹參判兼同知。經筵義禁府春秋館成均館事。世子左副賓客。公資性仁厚。勤儉寬而有容。為於人倫。嚴於律已。為政必本於仁恕。幼失母夫人。哀念不已。過故寢房。必遶壁涕泣。事繼母吳氏。曲盡其心。有人所難能。而亦有人不及知者。至臨終。吳氏病革。公不成語。喉中唯聞母病如何。既絕。乃已。伯氏死於兵。語必流涕。教養遺孤。分已產業。區畫祭田。為久遠謀。病甚。猶誨兒孫曰。不忍先兄之後之無教也。兒時受業於惟一齋金公彥。學徒。遞炳書室。公與二同伴拾薪。人誤推樵者墜崖。推者當坐。公引同往。爭死。州議之。並舍不坐。亂初。與金內翰。坡約死。事內翰。

為義將未幾。沒家無賴。公竭誠救濟。致兒孤官中。使夫人哺鞠以全。在禮七年。遇大饑。焦心殫力。軍興不乏。而官事理。議民四集。仰哺所賑。活甚廣。公久無子。神夢公以爾積善。天錫嘉胤。初之。縣有賊死囚。當刑。羣情哀之。教而舍之。縣自此無警。及遇亂。七十餘人冒死救公。以死。童子時讀書山齋。村女過意。公撻而遣之。立朝。絕不與貴近相知。有要公見用事者。宰相公謝不能。鄉友亦有言公因戒之。其人。不省。卒。謫去。常曰。居官者。以罷職為意。不能不屈於人。故公在官。必行已志。全州時。法不饒貴勢。抑強與弱。威惠並流。理煩劑劇。無滯寃。公歸。民刻石追思。及赴昌原。沮當路。請鄭仁弘家不遠。公不往。仁弘知不附已。亦無以過之。有誣公濫用官布。仁弘曰。吾聞其為政。必不有此。公為政。持大體。所至。以興學。育材。為先。性好學。常以不及陶山時。為恨。在禮安。常往首院祠。與及門諸老。講究旨訣。商榷政務。無虛日。平居。手不釋卷。衙罷。必張燈讀書。夫人曰。既釋褐。何復自苦。公笑曰。讀書非止立身。為每日晨興。整飭冠襟。雖家人。亦不見公有惰容。不喜豪華。常衣木綿。曰。為優體也。從事時。資具破敝。亦不易。常戒子弟曰。我起草。而曹謹慎。勿言人。不善。惡我。勿校。內外親戚之貧無依者。隨力調濟。下及僕隸。飢寒疾病。無不致意。是亦人子。而寄命於我者。與人處。和氣形如。語人子弟。以孝友。語諸生。以讀書。隨人勉勸。人樂親附。西厓柳文忠公稱公為第一。

訥隱先生文集卷之十四 三六

四〇一



人物。旅軒張先生亦以公為賢者也。當時公誦莫不以公  
輔期公空。蹇滯栖遑。不得安於朝廷一日。若可恨。亦見公  
明於去就。子時孤雛。不為時俗所喜。故嗚呼。其真賢矣哉。  
公諱之。字順夫。初居梧桐山北。自號梧峯。晚居龜尾。又  
稱龜老。夫人咸安趙氏。漁溪旅之後。贈刑曹判書。址之  
女也。生一男女。男弘望。承文院判校。繼公有名。女適進士  
李舉。判校有一男八女。漢老宣教郎。女士人柳重河。金  
時任進士。李朝衛士人任世準。都爾高權。休朴文約。縣監  
朴望之。為其婿。又有側室子漢傑。漢白女。曾玄以下。內  
外僅八百餘。積善之慶也與。

系曰。李敬亭言。公有確乎難拔之操。毅然難犯之色。恢乎

訥隱先生文集卷之十四 三十七

有容之量。今去公百餘年。以是三者。猶可以得公之彷彿。  
神於土者。猶有靈更千百億。其呵禁不祥。以無憂其體與  
魄。

望道翁金公墓誌銘并序

羅公諸王子。就封縣為籍。聞韶之金。出自敬順王。子孫最  
盛。多賢士大夫。我朝七峯諱希參。生開巖諱宇宏。東岡諱  
宇顯。連父子以文學致清顯。功施後人。沒而俎豆之。翁開  
巖之五世孫。曾祖諱璫。祖諱秋吉。以文學世其家。中司馬。  
不祿于朝。以觀察公貤息。贈左承旨。曹參判。觀察公  
諱聲久事。崇明二朝。歷敷三司。娶權忠定公極玄孫  
英寢郎震之女。以 崇陵壬寅正月二日生翁。翁諱汝鎔。



卷之十五 / 行狀

통훈대부승문원판교겸춘추館編修官孤松申公行狀

通訓大夫承文院判校兼春秋館編修官孤松申公行狀

15世 흥망(弘望) 父 : 지제(之悌) 祖父 : 몽득(夢得) 귀파(龜派)오봉공파(梧峰公派)

公諱弘望。字望久。申氏系出鵝洲。勝國時有諱允濡。事忠烈王有名。官至版圖判書。其子祐。全羅道按廉使。有至行。父喪居廬。有雙竹之異。今尙州丹密縣。有孝子碑尸祝之祠。入我朝。世有衣冠。高祖翰。贈判決事。曾祖應奎。恭陵參奉。贈工曹參判。祖夢得。贈左承旨。考諱之悌。號梧峰。有碩德重望。官至同副承旨。贈吏曹參判。妣貞夫人咸安趙氏。贈刑曹判書址之女也。始參判公無子。神夢公天以爾積善。畀而子以叶女望。生卽以望字若兒。公果以萬曆庚子五月七日生。幼豪縱不羈。十二歲。以參判公命。謁敬亭李公民宬。李公適入內。案有新粧書卷。未題目。公則取筆揮寫。李公還見訊其實。乃笑曰。常怪而翁晚得若。課督之甚嚴。今見若豪放。以此故也。稍長。厲志飭行。奉庭訓惟謹。博涉經史。尤喜昌黎文。日誦讀不輟。爲文詞。下筆滔滔不窮。大小鄉舉。莫與爲先。事父母。愛敬俱至。甲子。喪參判公。哀毀踰禮。三年酒漿不入口。奉母夫人。怡愉承志。滄澗無闕。丁卯。中進士。以不及先公時爲悲。對賀者。輒出涕。戊寅。以行薦除康陵參奉。不赴。公自得司馬。無進取意。以母夫人命。僱勉赴試。己卯。擢別科第四名。朝中見者咸嘖嘖曰。眞賢父子也。補太學官。李相公聖求惜之語人曰。此子當貯之金馬。豈可任散貧耶。卽薦翰院。當路止之曰。此人名望藉甚。自宜有公論。何如是汲汲援引乎。蓋陽浮慕之。實擠之也。公素慎痘。且不欲離親遠遊。家居凡六年。甲申四月。始除承政院注書。兼春秋館記事官。應對通敏。筆翰如流。仁廟器之。眷注日隆。而母夫人時年八十二歲矣。公陳疏乞省疾。許之。上以錦囊貯各種臘藥。且出青扇一令。歸遺母。異數也。乙酉二月。赴召至漢江。聞遞卽還。丙戌二月。陞典籍。卽遷兵曹佐郎。五月。拜司諫院正言。正色立朝。百僚聳歎。旋遞授禮曹佐郎。數月棄歸。丁亥秋。又還正言。公以母夫人年益高。無意遠宦。母夫人嘗從參判公通判全州。語公曰。全州有汝父遺蹟。汝若繼判是州。吾欲隨汝一往。時趙龍洲綱判銓曹。聞之卽調公全州。命下。儕友咸惜其出。謂不當去朝廷汲汲求外補。公歎曰。吾之僱勉久矣。吾親年薄日索。得一日養。爲人子一日之榮。又全州先君子所曾莅者。遺愛猶存。吾遵其跡而益勉之。無忝先人之烈。是猶爲行其志也。諸公咸嗟歎。爲詩若序以道其孝思。李時楷時爲全羅監司。見公神采。不覺灑然起敬曰。觀判官眉宇。使人鄙滯自澤。公衙罷。必入侍母夫人。怡愉婉順。衣食之須。凡可以便體適口者。靡不曲盡。其爲政。一躡先

跡。清於奉己。勤於撫字。全幅廣民悍。詞訟甚繁。而公盡心酬酢。剖決無滯。及歸。闔境追思之。爲刻公政績于參判公遺愛碑陰。傳者以爲美談。庚寅。母夫人以天年終。公已過始衰之年。而猶烝烝哀慕。喪祭一遵禮節。壬辰服闋。秋。拜司憲府持平。孝廟卽位之四年也。李時樸者。素居官不廉。居喪不謹。國言不已。李溫爲 P 持平。發論完席。將啓。爲同僚所沮。竄抹緊語。繼被院駁以去。及時樸拜都承旨。累疏自明。有誣引先賢語。士論齊憤。公時在告。將舉劾。同列畏時樸。固止之。且曰。君已錄弘文。朝議方擬君校理。此啓一出。進塗塞矣。公笑曰。窮通命也。吾不能效轅下駒。遂獨啓曰。臣伏見前都承旨李時樸辭疏中。有曰居官不廉。居喪不謹。昔賢先正亦多被誣云者。其言不但專指一賢。所謂以不廉被誣者何賢。以不謹被誣者何賢。而所謂誣賢者何人。士林間曾所未聞者。時樸獨聞於何處乎。青天白日。奴隸亦知其清明。尊賢尙德之心。人孰無之。而時樸至以不忍加之說。忍加於先賢者。是何心也。雖曰被誣云。而誣賢者實時樸也。時樸重被臺彈。 P 回視平生。宜有忸怩於顏者。而不知杜門省愆。迺敢侮辱先賢。妄自引喻。以爲辨明之證。言行不謹。得罪名教。請命削去仕版。上不允。於是院啓駁罷公。公卽還居九日。禁府人來。竄公碧潼。渾室號咽。公呵止之。怡然就寢。明日拜辭祠堂而行。至漢津。聞上因領相筭。令該司從容押去。至弘濟院。有付處之命。兩司請還收。上不許。正言鄭斗經疏論嶺南人見語犯先賢者。則必憤起而攻斥之。申弘望之言。非黨論云。兩司停啓。公付處平海。未幾。因理冤獄蒙赦。在平海凡二十六日。旣還。鄉里來慰。公嘆曰。臣罪大矣。天日下臨。雷霆荐降。減等而免絕塞之苦。蒙宥而脫瘴海之毒。鬼門餘生。歸對妻孥。恩罔極也。未絕之前。何 P 以報答。丙申冬。始除蔚山府使。蔚素號難治。公視事一月。政刑修舉。令出而民信。訪革海瘼。蜒戶蘇息。戊戌。以事罷。蔚產水晶。公在官。嘗治一纓。及還。解付重記。歸裝。只有松木硯匣。制甚樸。至今藏于家云。蔚山有清德碑。己亥春。除豐基郡守。前郡守三人。連死于官。人以豐爲不祥。公曰。妖言惑衆。吾不就官。無以解也。遂赴。簿書之暇。專以勸課人士爲務。秋。設監試于豐。豐爲同道。子弟當赴試。掌試皆公故人。公命赴京試。郡人有金潤章者家貧。父日拾松子。令夜讀書。艱苦甚。公憐之。召置衙中。供給衣食。勸課甚勤。其明年。金登第。卽補昌樂丞。盛具甘旨。進其父。父輒持詣獻公曰。兒之得遂。明府力也。敢獨饗乎。數年。投紱而歸。行橐 P 無一物隨。唯雅愛盆植紅梅。與俱還。詩酒自娛。有優遊卒歲之志。癸卯。除江原道都事。公不欲赴。有以楓岳宿債告公者。強趨肅。旣至。遞授成均館司藝。謝恩卽還。甲辰。除宗簿寺正。兼春秋館編修官。辛亥。除承文院判校。兼如故。俱不赴。癸丑正月二十二日。微疾終于家。享年七十四。訃聞。朝廷致賻如禮。某月某日。葬于義城縣下川黑石里已向原李夫人塋下。公器度寬偉。見識平實。居家以孝悌爲本

。接人以忠恕爲主。言論持正。未嘗曲隨。常行己志。自爲布衣時。名譽藉甚。雖未曾目及公者。輒信其耳聞。以爲篤行君子也。公卿間有欲自明者。亦藉公爲說。公雖爲親屈首舉業。而未嘗以得失爲心。律己清謹。旣釋褐。斂跡權<sup>P</sup>貴之門。許相積性行褊狹。家道乖戾。公疾其爲。不與來往。朝班相對。未嘗開心叙話。方壬辰嚴譴。知舊相屬唁慰。許公乘醉過。作色公曰。何率爾也。蓋恨其不相議。遽進彈章也。公不以介意。綺紈家慕聲請與婚者。俱不肯。居官清苦。家人嘗索醬鹽。公命責之奴。決訟得者例獻布。公曰。此一時守令所擅用者。何爲受之。歷典三邑。累決大訟。而終不問其布焉。平居。惰慢之氣。不設身體。雖倉卒。無疾言遽色。怒詈捶楚。不及於婢僕。奉祀接賓。單心單力。每值忌日。前期齋沐。悲戚滿容。朝夕展謁家廟。朔望必設奠。嘗避痘鷹洞齋舍。是參判公平日養病之所也。林亭谿谷。杖履所及。窓牖牆壁。手墨猶存。公徘徊摩挲。嗚咽淚落。考妣墳塋。距<sup>P</sup>家六十里。源源往省。不避寒暑。嘗病歲時未得展。呼筆述悲。情見于詩。教子弟。必以義方。諄諄開譬。凡於居家行己爲學事君之道。反復纖悉。日夜不倦。令內外子孫常習揖讓進退之節。一家子弟每進見。不敢有懈怠容。慈詳喜施與。親戚之貧無依者。絕甘分少。賙卹甚勤。人有死喪。隨力救之。如不及。見衰絰者。惻然動容。未嘗對食喫肉。與鄉人處。色和言溫。雖閭里寒微之人。待之咸得其心。聞人有寸長片善。必稱道以獎其志。人樂親附。所居龜尾村。巒麓周遭。洞壑深邃。前有池沼嘉樹挺列。依然輞川盤谷之勝。宅南有小麓橫迤。盤松一株蒼鬱可愛。仍自號孤松。每趁良辰令節。輒召隣里觴咏自適。居第之側有小堂。扁以樂善。<sup>P</sup>顧子孫曰。吾欲汝曹無爲不善也。容姿炯秀。襟韻灑脫。鶴沙金公贈序謂之百丈山頭一玉。千頃波面一月。眞箇玉皇香案吏者。眞傳神也。嘗遊旅軒張先生之門。旅軒稱之曰。申某眉間。常有春風和氣。觀其言貌舉止。可謂克世其家者也。世之知公者。無不以公輔期之。及其論時樛。爲異己者所擠。不復廁跡於清班以卒。人莫不爲公嗟惜。而非公之恨也。公娶永川李氏。參判民奩之女。觀察使光俊之孫。有淑德懿行。先公二年而卒。有一男八女。男漢老宣教郎。以文詞世其家。不幸早卒。女士人柳重河，金時任，進士李朝衡，士人任世準，都爾高，權然，朴文約，縣監朴望之爲其壻。側室子漢傑，漢伯。女二人。宣教四男。叔範，叔篋，叔筵，<sup>P</sup>叔簾。三女適李之煜，生貞柳聖時，李華重，柳重河。有繼子後康生貞。金時任一女適琴羲操。李朝衡四男。壽民，壽人生貞，壽均，壽春。五女適李鳳周，安龜石，生貞權暹，鄭泰禧，趙是明。任世準三男。宇樑，宇楹，宇柱。都爾高三男。萬春，萬夏，萬秋。權然一男又經。三女適金壽萬，李良佐，生貞趙汝益。朴文約四男。潭，瀟，澗，滌。四女適權斗運，李德祚，成世球，金元燁。朴望之三男。世元，世亨，世貞。漢傑五男。叔箴武科，叔箴，叔筵，叔簡，叔篋。女朴昌彬。漢伯三男。叔箴，叔篋，叔箴。女

柳後增武科。內外曾玄至八百餘人。公嘗言世俗爲親。丐人文字以張皇。召後世之譏議。我死。只記世系官次。以表墓道。無求於人可也。公之子孫不敢違。既依戒樹碣。公曾孫上舍震龜氏又懼公言之終不表見於世也。乃就公日記及家藏遺事。草成行錄一篇。及公遺集略干卷。使光庭有所撰次而爲之狀。顧光庭生也後。於公平生。實無一二見得者。而且樸駸無文。何敢懸揣妄論。以犯公遺戒而自托於傳信之地哉。第今距公棄世六十餘年之間。其遺風餘韻。士大夫猶志之不衰。論嶺中先輩之可爲後世師範者。公名必在其間。則至行懿蹟。沒而不出。不但爲公後孫之遺恨而已。上舍君之狀。事核而辭不盡。又若信而可徵者。既辭之不得。則迺就其中而稍彙括裁定。以慰慈孫尋逮之意而已。若以是求秉筆者之有所采擇焉。則誠有所不敢者。世之君子庶或垂恕於斯焉。謹狀。

訥隱集 卷十五

以蟬蛻泥滓。飄洒未俗。愈久而不朽者。唐人之云流芳百世者。亦可謂善相公矣。光庭生也後。不得接公之遺塵。而以從長者後聞公之遺風宿矣。迺者公之曾孫日觀氏。以其叔父震休氏之記行一篇屬光庭。有所叙述之。顧老且無識。有言不信。曷足以當傳信之托。辭之固而請益勤。則取其記而讀之。其叙事謹而核。詳而不盡。有可以徵信者。迺不揆僭末。就記中略如彙括。編次其始終如右。非敢以是而冀秉筆者之有所採擇。始以塞慈孫遠逮之至意云爾。

通訓大夫承文院判校兼春秋館編修官孤松申公行狀

訥隱先生文集卷之十五 十三

公諱弘望。字望久。申氏系出鵝洲。勝國時有諱允瀟。事忠烈王有名。官至版圖判書。其子祐。舍羅道按廉使。有至行。父恣居廬。有雙竹之異。今尚州丹密縣有孝子碑。尸祝之祠。我朝。世有衣冠。高祖翰。贈判決事。曾祖應奎。恭陵參奉。贈王曹參判。祖夢得。贈左承旨。考諱之悛。號梧峰。有碩德。重望。官至同副承旨。贈吏曹參判。妣貞夫人咸安趙氏。贈刑曹判書址之女也。始參判公無子。神夢公天以爾積善。昇而子以忭女望。生即以望字。若兒公果以萬曆庚子五月七日生。幼豪縱不羈。十二歲。以參判公命。謁敬亭李公民。咸李公適入內。案有新粧書卷。未題目。公則取筆揮寫。交人還見。訊其實。乃笑曰。常怪而翁



증통정대부호조참의회당선생신공행상

贈通政大夫戶曹參議梅堂先生申公行狀

11世 원록(元祿) 父 : 수(壽)      祖父 : 준정 (俊禎)      읍파(邑派)

申氏系鵝洲者。自高麗版曹判書允濡。全羅道按廉使祐。連父子有名於時。其世遂大顯。按廉公有至行。父喪廬墓。其拜展處。有竹雙生。人以爲孝感。今尙州丹密縣。有孝子 P 碑尸祝之祠。丹密至今號多孝子。按廉之後。世以至行著聞。詩所謂孝子不匱。永錫爾類者。其斯之謂歟。六世而至梅堂先生公諱元祿。字季綏。梅堂其號也。按廉之子曰光富。中顯大夫內簿令。其後有彥陽縣監士廉，成均生貞錫命，教授俊禎。是爲公高祖曾祖祖。父壽隱居教誨後進。爲士林望。母義興朴氏。主簿自儉之女。郡守惟昌孫也。公以正德丙子十二月癸亥生。幼聰穎耿介。孝友出於天性。先公蚤嬰奇疾。公十餘歲。爲覓藥上八公山。崎嶇數百里。從醫劑藥。日湯進。夜不交目。衣帶不解者蓋八年。而先公疾不瘳。公哭之皇皇焉。如有可救之道而終莫之救者。卜葬八智山。民多居其下。公至誠感其心。得入葬已。廬其側。三 P 年泣血。有少連之稱。二十五。取星山李氏正言耕隱先生孟專之曾孫女。以爲配。亦有至性。當饑。夫婦服勤供菽水惟謹。既累舉不中。歎曰。光陰晚晚而立揚無期。古人以親老而不爲祿仕爲不孝。某丐一縣學官。遂負米願者。雖受人嗤笑。不辭也。於是除長水縣學。以日餼之餘爲養。後除清道三嘉學。嘗書壁上曰。負重涉遠。不擇地而休。家貧親老。不擇祿而仕。蓋有仲氏之感焉。既而以親病辭。復書壁上曰。古人一日養。不以三公換。公之事親。以養志爲先。其進食。常具二品。擇其美味者以進。有餘請所欲與與之。爲少槽。將親褻衣。手瀚濯以付人。便旋之器自除漑。不使之人也。凡可以慰悅親心者。盡力致之。有得親一歡者。必厚 P 謝之。嘗雜植奇花異草。每於佳辰令節。供具燕樂。作壽親曲入闕。以道愛日之誠。又口占一絕。在遺稿。甲戌冬。母夫人病日臻。公日夜籲天。其坐卧床褥小不安。必重累之。藉以白絮柔毛及滑腴之物。已復不便坐卧。則自厚衣抱侍日益謹。母夫人曰。我不遑死。而勞苦汝爲。公怵然曰。是何言也。雖千萬歲。猶恐不足焉。至明年春。疾少間。姊視疾將還。公曰。親瘳小安。姊氏歸。又此令節。可以慰親意矣。設席于東皋。奉母夫人同兄姊。邀隣里老嫗以爲樂。時國恤。人有言。公曰。親日已索。恐不及見明年此日也。既而母夫人疾益彌。公嘗糞。知其已殆。仰天號咽。及大故。則所以哭之。如哭先公。不知百年之爲長。其附身附棺。若素辦者。無毫 P 髮恨。祔葬先公。躬執其役。伯氏止之曰。有役夫矣。公曰。固所自盡。非所勞也。既封廬焉。嘗作母夫人影幀。揭之几筵。朝夕悲號。日三省墓哀哭。不避雨雪。祭奠之供。躬自具。日糲食糜飲。不近菜醬。轉益柴毀。子弟泣諫。則曰。命稟於有生之初。脩短不以此也。丙子清明日。增修生貞公墓曰。平生積慮今少弛

也。三月被疾。猶不廢拜奠。既劇。悲不能與祭。至觀燈節。令取薔薇花供具。將自奠。扶起盥洗而疾已革。子弟請調攝于家。不可。夫人來。蹙然曰。婦人何爲至此。問後事。不答。但曰。我之事親。有未至者。而又不能終孝。欲哭而不能舉。嗚咽曰。以母氏影幘置我棺。我將奉侍泉下矣。促家人上食。未卒而終。嗚呼。孝子事親。不自知其足。雖<sup>P</sup>或過於禮。而不自以爲過。其心無窮也。公幼齡侍疾。弱冠遭喪。血氣未定之日。而所以卹卹遑遑。救生而終死者。足令頑子感動。而及其耆莫。血氣既衰之後。而凡其色養而孺慕者。終身而愈切。孟子曰。五十而慕者。予於大舜見之矣。若公至矣。不可以不終喪。比之不孝也。公有一兄。事之如溫公之伯康。嘗同赴漢城試。及歸而伯氏病。薄天民川。秋水方漲。人言有毒蟒害人。不可徒涉。公負而濟。卒無事。伯氏嘗避癘公山。遇疾殆。公竭誠馳救。瘡與歸。其女子嫁。自資具。不貽勞伯氏。姊壻橫罹在獄。爲奔走力懇。直其冤。其歿。經紀喪葬。嫁女取婦。俾不失時。外舅亡。庀棺槨以葬。凡親養送之需。及義所當爲者。必自擔當。忘其力之不給<sup>P</sup>而爲之也。君師之喪。爲心喪食素三年。丙午國恤時。慎齋周公之喪。皆然。凡其篤於人倫如此。初以母夫人命。遊太學。篤志研精。講究不怠。慎齋之守基川。首立白雲洞書院。教育人才。巾袍全集。公贄文求教。慎齋待之客禮。留數日。出論題試諸生。得公作異之。批其尾曰。我院有人。其心如玉。天將玉汝。申其祿矣。迺語東方道學之緒。而規以言行相顧之實。疊疊不倦。踰年而歸。慎齋贈一絕曰。爲學師源水。論交取兕觥。相規惟十字。庶悉百年情。其所惓惓者深矣。公歸語伯氏曰。吾東書院。發自竹溪。甚盛舉也。吾鄉盍倣此爲藏修地乎。乃得地長川上。倡建書院。時屈未就。戊辰。與同志告于邑宰。以竣其役。歷數載而成。立廟。享鄉<sup>P</sup>先正金慕齋先生。事聞賜額。長川公之興學育才。以羽翼斯文。乃其素所蓄也。至於業儒齋之創立。鄉約之立規。族契之修睦。無非所以敦倫正俗而成就後學也。若夫賑場之志。則又見公不以任微事煩而盡其撫哺之方。亦仁民濟物之本心也。公平居。刻意問學。凡經書洛建等語。沈潛淹貫。專心體驗。以見於日用行事之間。其事親從兄。立心制行。待人接物。教子訓人。一循乎常行之則。初無待於勉強修爲而自能暗合乎道。至於尋常筆札。亦皆端嚴有法。可見公性情之一端也。嗚呼。孝者百行之源。有若以孝悌爲爲仁之本。本立而道生。以公平日之所行者。詎不信然歟。世傳公之孝。無愧按廉公。昊天曰。明及爾出王。公之子孫。<sup>P</sup>宜其蕃昌也。公卒在萬曆丙子四月八日辛未。得年六十一。夫人父智源。秉節校尉。祖瑞通禮門通贊。夫人柔婉淑慎。承順無違。事姑三十五年。如公志焉。家貧。無憾容。施與於人。無難也。沒于萬曆癸巳。與公同穴。實八智山先公塋下巽坐之原。男二人。長佺司憲府監察。次佺贈左承旨。監察有五男一女。男尚道判官，泳道，志道，敏道，師道。女察訪李挺南。承旨有三男三女。男適道祥雲道察訪。達道

弘文館修撰。悅道司諫院正言。女士人金有燁，奉事任乃重，僉正朴宗敬。曾孫以下不可勝錄。癸卯。鄉人以公孝行聞于方伯以啓。命復戶。乙卯。命旋閭。贈通政大夫戶曹參議。肅廟乙丑。士林合享藏待院祠。公之志行。公伯氏參奉元福撰孝友錄。鶴峯金先生題一絕云。從遊三十載。不識有參乎。今見難兄狀。如公志行無。無以復加矣。今年。士林將刊公遺稿。以公之志行懿德不可以無狀。公之七世孫龍起以諸父兄之意。來告於光庭。光庭老無識。又去公百有餘歲。其平生蓋有不得而詳者。以昔從龍起大父上舍濂氏。知公至行遺範。尙猶在子孫矣。又所編孝友錄。言訥而事賅。大諫崔公峴爲墓誌。乃謂人不間於其言。崔公猶及公平生。以是稱之。則其言實後世之所傳信也。又奚以狀爲哉。既辭之不得。則乃就其錄。悉次其語。而附以葬墓子孫之錄。以塞慈孫遠逮之意。非敢以是爲足以備採擇也。後之君子其或垂恕於斯焉。

生事業必有表表可傳者而兵燹之餘文字散佚百不存一。公七世孫前騎省郎五應以公內外諸孫遺事記輿地所載哀輶爲一編屬光庭序次而爲之狀。光庭自惟賤陋老而無聞今距公數百載間雖有風聲之遐聽者固不敢懸想冥瑞以取秉筆者之深誅而顧平日高山景行之思又不能固拒於至誠之來也。乃就本錄略加竄定如此而不敢置一喙焉。世之君子亦或垂恕於此云。

贈通政大夫戶曹參議悔堂先生申公行狀

申氏系鵝洲者。自高麗版曹判書允瀉。金羅道按廉使祐連父子有名於時。其世遂大顯。按廉公有至行。父喪廬墓其拜展處有竹雙生。人以爲孝感。今尚州丹密縣有孝子

碑尸祝之祠。丹密至今號多孝子。按廉之後世以至行者聞。詩所謂孝子不匱永錫爾類者。其斯之謂歟。六世而至悔堂先生公諱元祿。字季綏。悔堂其號也。按廉之子曰光富。中顯大夫內簿令。其後有彥陽縣監士廉成均生負錫命教授俊楨。是爲公高祖曾祖。父壽隱居教誨後進爲士林望。母義興朴氏。主簿自倫之女。郡守惟昌孫也。公以正德丙子十二月癸亥生。幼聰穎耿介。孝友出於天性。先公蚤嬰奇疾。十餘歲爲覓藥上八公山。崎嶇數百里。從醫劑藥。日湯進。夜不交目。衣帶不解者蓋八年。而先公疾不瘳。公哭之皇皇焉。如有可救之道而終莫之救者。下美八智山。民多居其下。公至誠感其心。得入葬。已廬其側。三



## 퇴간처사신공행상(退澗處士申公行狀)

16世 염(濂) 父 : 하석(夏錫) 祖父 : 재 (在) 음파(邑派)만오공파(晩悟公派)

公諱濂。字學源。姓申氏。系出鵝洲。鵝洲之申。爲山南顯姓。勝國時有諱允濡。以敢諫名忠烈世。官至版圖判書。生諱祐。全羅道按廉使。世傳公至孝。廬墓哭而雙竹生。旋其里曰孝子。享之涑水院祠。在今尙州之丹密縣。按廉之後。徙于義城。世有篤行。至諱元祿。克趾厥美。號悔堂先生。享之藏待院祠。有子曰佺。贈左承旨。樂善好義。與張旅軒先生善。是生弘文館修撰贈都承旨達道。游學月川，旅軒之門。以經術顯。於公爲高祖曾祖。大父諱在。以行義薦仕。P 止奉仁縣監。皇考諱夏錫。不肯苟合於世。自號羅浮山人。娶恩津宋氏。左參贊麒壽之後。通德郎之瓚之女。宋夫人賢有行。以寧陵八年丁酉十月十七日生公。公生而有異質。不向日月便旋。不隨羣嬉戲。有犯不校。於羣兒中岐如也。長老奇之。七歲。知縣公病腫甚。公憂色滿容。常左右佐長者。視湯餌具。知縣公喜曰。有而忘病苦。及喪。悲痛執奠如成人。既葬。能任家廟薦獻。鄉里稱之。十餘歲。隨先公寓漢城西門外公外家。長老多顯者。閱人知成不。俱屬目公以爲巨器。一日廡焚。奔告長者。長者方對人碁。且試公。若無聞也。公跪徐曰。廡焚。推枰救之。坐客異之。公資性善悟解。未曾學。聽人讀書史。輒能傳誦。既學。不待再教。聞人 P 論古今事。能歷歷記。與人語。無失。先公亦知公才性。不課以督。及就外傳。傳地卑多易之。公日蚤起受業。俯伏敬恭如嚴師。數歲。文識驟長。前列皆望之。稍長。益勵志行業。以父母心爲心。事之。每事必先意順指。其在側。油油翼翼。言詬不及狗馬。定省惟謹。辛亥大饑。雖菜糲不堪口者。恐父母念之。若芻豢。得美味。必進之父母。不口也。一日強盜夜刼財。公侍先公寢。以身捍賊刃。使不得近先公。既扶出先公。求母夫人。母夫人已避出。公不知。奔入盜中。求母夫人。爲盜所亂刃。肩背血流而不省。悲號不已。及見母夫人而後。始知爲所傷。蓋十五歲時也。十六。讀中庸曰。始知趨向之方矣。沈思玩蹟。字句求義。先生長者與設疑問。稱其善 P 讀。爲時文。先達相推許之。顧於得失。不屑屑也。隣守有與先公善者。赴右道試院。時先公猶未廢舉。公當赴右道。隣守過公欲爲之地。公正色拒之。隣守爲之改容。而公猶嫌其形跡。不就。己未。占鄉解。不利南省。因肄業京師。京師才士爭慕與之。有權貴家子來往欵甚。欲邀與同業。公謝不往。其人慍。或問其故。公曰。此子才多文。與處有益於己。吾鄉士。出入貴家門庭。愧方寸中耳。丙寅。赴漢城試。時湖西有無賴子相閔。溷汙顏曾位版。公入圍聞之。歎曰。辱斯文。聲罪請討之不暇。顧可爲進取計耶。投袂而起。聞者聳服。洪尙書萬朝舉以爲士君子高致云。是歲。先公病脹。沉淹時月。其所劑藥。多唐胡稀貴物。公竭誠劑進而材適闕。巴 P 豆求不得。公憂之。忽見飛鳥鳴墮一封裹。視之乃巴豆。試用果效。人以爲異。公之



侍疾。不交睫解帶。凡湯劑滌灑衣楡浣濯之勞。不假之人。先公慮其憂悴生疾。欲其退休。數有言。公輒出少伏窓外。候氣息便不。旋復入。積四年不懈。公素氣厚。一日尋醫出仆地。爲傍人救之得瘡。然自是居常暈作。頭髮蚤白。己巳。先公竟不起。公絕而僅甦。水漿不入口者三日。猶自力飯斂諸節。及葬地稍遠。時適隆冬。霜雪滿衣。肢體凍。强席藁露處。自視坎窞。役夫爭致力。既窆。欲廬墓。以禮重反魂。遂反哭於家。然朔望必往省。繞墓悲號。風雨不廢。三年不脫經帶。非時省母夫人。足不及中門。雖女奴。不使近前。朝夕處者。未嘗見啓齒也。既服闋。以母<sup>P</sup>夫人命赴南省。公姑夫爲殿中者。以公有老親。欲過囑主試者。公不可。乙亥大侵。公爲救荒。債田得百數斛穀。未幾。斗米百錢。或勸公以其贏。稍立基業。公怫然曰。何忍使宗族顛死而爲後日計。分諸父昆弟之無食者。如同爨然。己卯春。赴南省。不待榜而歸。及榜至。悲不及先公時至。告祠泣涕沾衫。爲母夫人故。設聞喜筵。而亦不用俳優戲。母夫人年老。公不欲遠去側。杜門色養。左右承將。凡可以悅口便體者。必力致之。家貧歲儉。而脆美常溢度閣。其步履升降。自扶持常侍食於前。問其所欲進之。餽必請所與。或有客。必問所進幾何。母夫人所愛厚。雖婢使。加善遇之。遊必有方。反必以期。在側。常有嬰兒容。丁亥。母夫人病甚。公行<sup>P</sup>不正履。籲天乞代。方熱室如蒸。自扇枕。日夜扶持。母夫人曰。多視疾者。公怵然曰。人子之職。不宜人代之。躬調餌粥勸進。母夫人倦匙箸甚。猶爲公强。母夫人竟以天年終。公年逾五十。哭之如前喪。持律嚴苦。枕席有涕泣跡。既三年。猶切切而哀。不以事物經心。惟耽讀經書。時抄寫字書以自遣。徐御史宗燮，柳御史綬。以公篤行。相繼聞于朝。公聞之蹙然曰。虛聲誤人。無以舉顏於世。公一子承訓母違。戊戌居母喪。過哀疾甚。沉綿數歲而夭。公甚哀之。常稱獨老而猶以理遣。撫教二孫。見稱於人。戊申逆亂。列邑章甫爭舉義。縣之父老相曰。申公德器人望所屬。推爲義將。公曰。素不閑軍旅。年且薄八十。臣子之義。不可以老自解。爲之<sup>P</sup>措畫設施。聞于按使，號召使。尋以賊酋授首罷兵。公年高氣衰。祠廟參謁。俗節之薦。必身親行之。家人累以爲言而終不可。丙辰元朝。始依朱文公故事。傳重於長孫龍起。冬十二月。疾彌留。猶自力衣冠。不廢朔望參謁。枕席間。默誦語孟數篇。諸孫請勿勞心。曰欲驗精神昏明耳。疾既亟。猶談笑如平日。歲除日。考終于正寢。享年八十。前此里人夢。神告德人亡。未幾而公沒。鄉隣大小。南中之稍有識者皆曰。德人亡。吾其奈何。用明年丁巳之四月癸酉。永厝于縣南素野辛坐之原。公天資厚重和毅。言依忠信。行欲中矩。平居謙退。未嘗以學問自居。而喜讀書。老不釋卷。於諸經史。無不淹貫該洽。不肯爲崖岸斬絕之行。以驚異於俗。而<sup>P</sup>只就彝倫日用之間。求盡道理。平居。夙興夜寐。每朝。衣冠謁祠廟省親。退而端坐一室。終日對案。未嘗見倦疲惰緩之時。其操心不以幽暗而或肆。稠廣而加飭。動作有

度。服食有節。倉卒之際。無疾言遽色。其事親也。養志養體。一以至誠。送終居憂。率履無愆。先公嘗嗜不托。及喪。終身不入口。先夫人所嘗寓屬纊者。不忍復向其地。尤謹於祭祀之禮。常曰。誠之至不至。神之享不享。祁寒盛暑。必沐浴致齋。不觀書授業。專心於潔蠲祀具。婢僕之共爨烹者。必令濯衣理髮。鬻割之餘。不使棄污。或有疾不能與祭。亦自力衣冠而坐。以待卒事。終身之喪。號隕如始喪。事諸父諸母。委曲奉承。及歿。窆之需。經紀無憾。撫愛庶弟妹。如適體。有 **P** 可味。必與分。亡其臧獲。復與業之。及亡。愛養孤男女。如己出。季父蚤歿。一女畸孤。母夫人有庶姑姪女。公一收育。資嫁不失時。族人客沒他鄉。諸子稚弱。奔走斂治。身先諸族。至其踈且遠者。無微賤。皆拊恤顧視曰。自吾祖一人之分也。常恨宗族散處。不同憂樂。晚年。與遠近族人設義契。定吉凶慶弔之規。講敦睦焉。且於朔望。集門中幼少於先代墳庵。課講經書。將有作成之漸。未免中輟。而公之志則可見矣。其教子孫。雖愛之。必以義方。每暇招諸孫。歷舉古人善行。諄諄曉譬。以感發其心。或有過。不貸也。嚴於內外之別。雖小男女。不令同席共卓。門闈之內斬如也。御奴僕。尚寬大。不問細故。察其飢寒勞苦。加卹焉。而戒其欺詐作過。 **P** 嘗出行。遇一橐銀子棄道。奴行拾之。公責令去之。奴常言聞主公之言。心慙焉。不敢萌偷竊意也。平居。不喜論人長短。間好雅謔。不設畦畛。至義利界分。辭嚴義正。凜不可奪。聞人善。喜稱之如不及。其過也。平心誨喻。使之自改。而亦不令人知之。至橫逆外侮。直受無較。人無賢不肖。無不心服。凡有所爲。必曰公聞之。得無不可不。居鄉恭謹。無賢愚老少。必禮貌之。帶公任者雖下。衣冠出迎。過公門。雖忙遽下馬步。鄉校鄉社之會。皆謝病。嘗一爲藏待洞主。拔弊饒時。爲後日賴。中歲以後。見鄉議潰裂。士趨大乖。杜門却掃。凡鄉間大小議論。一切不與。居城邑咫尺。四方賓客之行過者日相踵。公不問尊卑親不。隨其有無而供接之。至孤 **P** 寒行乞者。尤加矜恤。戶屢常滿。有時不能容。朝旰不以時。而公怡然無倦色。嬉笑欸洽。誠意盈缶。近之者如飲醇酎。喜慕而不知返。嘗赴京。投龍仁縣。店主發惡言。且杖喝奴。時知縣者公故人同行。怒。要公往見推治。公言逞忿報怨。非君子也。舍去。後數歲復過。一氓迎拜曰。臣是前日店主。感公盛德。得改過。受賜多矣。嘗自京泝流還。積雨水盛。舟人不能使舟。漂下數里。同行皆失措。公自如。頃之舟泊岸。人問當死生關。無懼何也。公曰。死生命也。苟心神不定。縱有一條生路。亦不得。懼之何益。公窮居草澤。絕口時政得失。而憂時傷世之心。未嘗不切於中。少時留意經濟。知公者無不以遠大期公。然嘗沉晦。不欲求名於世。外族之任 **P** 銓曹者。有挽進意。公力不可。於勢利榮達。視之淡如。無所動於中。居困處約。未嘗枉己循人。雖親戚至尊顯。簡牘不及。有問。裁謝而已。嘗有一邑宰聞公名求見。公謝不往。累請不得則怒。以浮辭恐動。公愈不動。卒造門媿謝。一時

相慕公義者宰縣數訪公。禮意甚勤。及歸猶致問。公時往京中。過門不一訪。交友之素所親重者。及貴用。不與來往也。嘗慕李葛庵先生。雖未嘗執贄請業。而常源源質所疑晦。不喜與人徵逐。嘗與金適菴台重，李龜厓琬，權蒼雪斗經兄弟，李密庵栽爲友。傾心信嚮。其交契獨密也。密庵常語人曰。學源天資清和。操履甚確。色笑可親。令人鄙吝稍釋云。公平生不喜聲色。持戒甚嚴。倡妓望門而不敢近。於財利泊如也。非其義。一介不取人。或有餽。雖微物。度義受之。婦家素饒業。及析產。苦邀不往。有懿戚任萊府者。以琉璃酒器，畫磁一盤具遺公。公以華靡之用。非性所安還之。自少至老。於生產作業。了若不聞。嘗曰。吾無過人。但平生不作分外營。居城闈。絕跡公府。吏胥居籬下者。無一事干。奉身之具。隨遇而安。美惡甘苦。苟適於口體。無所擇。所資藉先業而已。晚年。家益旁落。曠然不以爲意曰。吾道固如是也。諸孫侍坐。言居貨謀生。輒不悅曰。吾所教誨子孫。只貨利二字而已。晚年。猶不廢書。尤好四子。沉潛往復。如誦己言。語諸孫曰。四子熟讀體行。一生用之不盡。又病近世學者規規邊幅之間。而其心不免於干名要譽之歸。令用力於入孝出悌。慎言顧行。以實踐爲務。又曰。學者須是輕富貴。可以有爲。平居高談義理。一朝摧頽。失故步者。只利達之念爲之累也。又曰。吾於論語。得己所不欲。勿施於人。有若無。實若虛。犯而不較等數語。一生學焉而未能也。常學司馬公平生所爲。未有不可對人言者以自勉。而每誦屋漏雖隱。寧使有媿二句。公之用工可知已。公常謂成人之道在冠。禮之大者。今世不行。子孫勝冠。必筮戒。據禮行事。又歎近世禮學乖異。疑文變節。未免率意杜撰。考据古禮。附以先儒諸說。未及成書而公沒。有草藁藏于家。公爲文。平易切實。黜去險怪。嘗曰。我少時失學。晚墮科臼。老而無成。不喜著述。間有所作。亦不用藁。子孫或收藏。輒命去之。鮮有傳者。然密庵嘗見其所撰先狀數篇。歎賞不已。韻致幽遠。常以清心寡欲爲家計。壁揭康節龍門道中作，蔡西山西山吟。家居無事。澆竹灌花。以園林自娛。晚年。不樂闐闐。欲就閒野。巖居澗飲。讀書頤神以終餘年。而家貧不能得。然出入遇佳山水。倘佯忘歸。每佳辰令節。携一大家孫。扶藜登陟。逍遙自適。蒼顏白髮儼然。人望之若仙。家五里。有小溪曰退澗。巖石幽絕。往來游賞。有藏修之志。故自號曰退澗老人。又曰沙谷晚隱。從其所居里名云。夫人豐山柳氏。將仕郎世鳳之女。祖參奉元慶。西厓先生之兄謙庵諱雲龍之孫。爲後於大司憲景深之曾孫岳。家法甚修。夫人生長典訓之內。端重齋莊。克嫗無違。先公十八年而卒。一子重模生貧。二女適士人李之烜，生貧李柱大。重模二男二女。男龍起，龍慶。女士人李稽妻。季夭。李之烜一男曰行遠。李柱大一男遂良。才而夭。內外曾孫凡若干人。公風儀峻整。氣局深厚。方顏巨肩。黯而幾。於稠衆駢處之中。常見其嶷然。靜坐如山嶽然。不知者望之。亦以爲巨人長德也。自弱冠。已負公輔之望。而卒抹搨。終老



於畎畝之間。是固時命之不幸。而世必有任其責者矣。然約而無憫。困而益亨。凡其所以修之身心而居家處鄉者。莫不各得其倫義之正。聞者悅。覲者醉。鄙夫以寬。薄夫以敦。夫子所謂斯其為政者。蓋如此。律之以古修齊之君子。果何如也。光庭少嘗從公於塲屋間。每有執鞭之願。而顧塵埃卒卒。不能從容鑪錘之間。以自恨責。今公已矣。光庭亦老病杜門。公之孫龍起，龍慶兄弟撰公之遺事。屬光庭為之狀。光庭非知德者。固無以形容其一二。而以平生慕用之深。不能終辭。謹依所錄。編次如右。秉筆之君子。垂恕而加采擇焉。幸甚。

配前修。範武後人。而惜其子姓零替。遺跡沉晦。公從子司  
藝。公聖。有意哀集遺文而未及。今其存者若干句語耳。  
光庭生也後。不得接公之遺塵。而聞見又且孤陋。其於遺  
行。殆耳聾焉。而常從去友後。得鄉中前輩所挽公者。風塵  
天地事堪悲。灑淚山河問是誰。當丙子秋。曾冠解。無崇禎  
後。復藏名。寂寥數句語。蓋慨然想公之遺風矣。日公曾孫  
思德。患南忠韶等。與一家文學之士。哀集前聞。為公行錄  
一通。要使光庭次序為狀。光庭所不敢當者。然亦恨世之  
好德者少。雖其人至。行殊卓者。無名位表著。無字孫顯威  
鮮能傳於後世。况公絕跡名途。守蔭丘園。甘心韜晦。而耻  
以自銜。世孰得以賞之哉。公諡曰貞曰康。而光庭有言  
不信。不足以微顯而闡幽也。姑為編錄其大槩。而附以所  
感概者。以塞慈孫辱逮之意云爾。

訥隱先生文集卷之十五 三十一

退澗處士申公行狀

公諱濂。字學源。姓申氏。系出鵝洲鵝洲之申。為山南顯姓。  
勝國時有諱允瀾。以敢諫名。忠烈世官。至版圖判書。生諱  
祐。全羅道按廉使。世傳公至孝。廬墓哭而雙符生。旌其里  
曰孝子。享之涑水院祠。在今尚州之丹密縣。按廉之後。從  
于義城。世有篤行。至諱元楳。克趾厥美。號梅堂先生。享之  
臧待院祠。有子曰伋。贈左承旨。樂善好義。與張依軒先  
生善。是生弘文館修撰。贈都承旨。達道游學。月川稼軒  
之門。以經術顯。於公為高祖曾祖。父諱在。以行義薦仕。



卷之三 / 詩

생원신공행기(生員申公行記)

16世 염(濂) 父 : 하석(夏錫) 祖父 : 재 (在) 음파(邑派)만오공파(晩悟公派)

上舍退澗申公。以厚德令望。重於嶺以南。雖隱淪。功不見於世。而教獨行於家也。有一子克肖其訓。世方以公之不做於時。謂天道在此子。不幸年四十二。纔成小名而卒。時退澗公在堂。世尤爲公悲。言福善之道無徵也。君之孤龍起，龍慶兄弟。方以文學世其家。不以光庭老滄無識。以退澗公之狀見屬。且曰。吾父志行。恐無以表見於世。願長者哀之。光庭辭之固。而其請益至。遂不敢辭。君家世已具退澗公事中。君諱重模。字士範。以明陵癸亥七月二十八日生。幼有美質。舉止異凡兒。五六歲。侍宿羅浮公。公索溺器。雖睡熟。必驚起。跪而進之。羅浮公以爲異。七歲。受十九史。初讀至燧人氏。問曰。地皇氏以火德王。天下固有火矣。此言始鑽燧何也。退澗公奇其警悟。自是不煩提誨。雖文義古奧未易解者。如迎刃然。過眼輒誦。發語驚人。稱神童焉。羅浮公之喪。哀哭無異成人。累月不食肉。人益奇之。嘗遊嬉。出先公所藏絢絃桑弧。先公呵之。自此雖瑣小物。必稟而用之。先公性嚴。其教之。不以一子而少假。君惟恐失父母之心。視膳之餘。講讀不怠。十二三。已通經史百家語。文絜日進。儕流自以不如也。鄭相滸時知縣。於先夫人爲中表兄弟。見君奇之曰。美秀才。非老丘壑者。因宴會要君。先公欲試君問大夫有請而往乎。君跪曰。公庭非童子所往來。先公喜曰。而能如此。吾無憂矣。丁亥。先公入京師。宋夫人疾卒。君晝夜扶視湯餌。不解衣者月餘日。先公歸。宋夫人泣曰。微而兒。吾幾不見而矣。宋夫人卒。君悲痛不自勝。暮年不御酒肉。不入私室。與家人言語。時先公已及不毀之年。猶孺子慕。君入視餐粥之節。出則經紀囊具。情與禮無缺也。姊兄李君之烜。葛庵先生之孫。與君相與深。戊子。病寓於君。君邀醫視藥。盡其心而疾不瘳。君哀之甚。棺衾窆窆之具。自力辦。且爲之總曰。禮同纓總。朋友總。吾於姊兄。總可矣。李君大人密庵翁嘆曰。是庶幾無於禮而其禮中者。泣謂其孫行遠曰。而舅氏之義。不可忘也。行遠幼孤。諸父多夭折。君懼其不祥。卽挈致家。教之撫愛。加己出。泣語之曰。使女有立。吾不負而翁而責塞矣。行遠稍長。道此語。時時流涕。君程文蚤詣。既累屈鄉舉。或有以關節勉君者。正色曰。凡士之決科。將以事君。未立身而先欺君乎。已而連占大小解兼兩試。乙未。選國子人賀。君笑曰。丈夫事業不在此。戊戌。先夫人疾彌留。君皇皇飲泣。寢食俱廢。夜輒齋沐。祈天請代者數月。當喪。絕而復甦。哀毀成疾。須人轉側。而猶不廢晨昏朝夕之禮。每過先夫人所寢處。嗚咽涕下。三年如一日。君素有手足痿痺之疾。及是而劇。遂成沉痾。終至於不可救。當病值寒食節。曰。吾病淹。不拜墓久。將扶病一展。未至疾。力不可前。乃嗚泣曰。欲未死訣吾母

。而今不可得。天乎天乎。甲辰二月二十一日。君卒。臨歿。神氣不變。先公在旁。亟令煖粥進之。奄奄就盡。忽開目視先公曰。兒今爲不孝子。願大人毋兒念。顧二孤曰。我死<sup>P</sup>者。而勿傷吾父意也。恬然而逝。遠近聞者爲出涕。縣令不知君者。爲廢衙曰。賢士亡矣。五月庚午。先公葬君于善山博谷枕甲之原。從先兆也。君神采精粹如明珠。炯然照人。志行端潔。勇於爲義。怯於爲利。好善疾惡。出於天性。苟善矣。雖疎賤。推許如不及。不善。雖隣里。亦不與之接。以此間有不悅君者。卒乃悔服無怨言。事先公四十年。安其寢處。樂其心志。非甚病。未嘗去側。先夫人疾。有庸醫誤下藥。及喪。終身不復對其人。生朝家設酒食。輒嗚咽曰。吾今知古人當倍悲痛之語。爲甚悲不忍下咽也。伯姊早寡。閱其貧甚。使之就食近地。措畫生事。雖痼病中。遇一佳味。必附便以饋。未附。亦不入口。家居。謹男女之別。雖姊妹。非居父母<sup>P</sup>之側。不與並坐。常戒子弟曰。禮。不同席不共食。男女之別嚴矣。著以爲訓。待婢僕。威而恕。嘗見一女奴偷。徐曰。使女爲此。吾之過也。不問其所偷。偷者感伏。戒其同輩曰。若曹慎毋欺賢主公也。家居。言不及貨財。無毫毛私貯。身沒。只有弊篋。藏古先墨蹟而已。嘗見子弟語及泉布。正色曰。王衍不過清談一流。而平生不言錢。若輩學聖賢書。不知謀利之爲可恥也。見女奴拾一銀環。進之小女。亟還之曰。非其義。一介不可取也。平居。不喜紛華。所服食。不過布衣草履。糲飯菜羹。家人或以紬衣梁肉奉者。輒曰。有老親。於心安乎。戒不復進也。性喜酒。晚年。不復及醉。居第傍。有孤松特立。君愛之。遇佳辰令節。必携一二冠童。從容觴咏。北有<sup>P</sup>巖石奇者名陶唐。常命酒遊賞。自號陶厓散人。酷好陶靖節歸去來辭，諸葛武侯出師表曰。天地間。不可無此等文字。時令兒輩諷誦一過。想象其人心事。不喜與流俗俯仰。又不肯從顯者交。所與往還。不過憔悴閭巷間人。然人之見君者。無不愛悅欣慕。洪舍人萬遇適貢南海上。歸路見君。深器之曰。吾來南。始得申某上舍公一子。不少矣。君平居簡默。無所猷爲。唯兢兢孝友詩禮之訓。慕古清節高行之士。常自砥礪激昂。其一言一行。必欲追法前人。家有藏書萬卷。優游其間。凡歷代史東國典故。貫穿無不通。至句語事跡之出於稗家小記者。歷歷如在目前。善談論文章。客至。抵掌語古今。剖析肯綮。能說到人不能說者。常以<sup>P</sup>爲秦漢以來。太史公，韓昌黎，柳柳州最大家。自少用力。必以數家爲準。自宋已下不數也。嘗遊密庵之門。聞君子爲己之方。密庵甚奇許之。且曰。申某真文章家手段。加以歲月之功。未易量也。君爲文。必精深簡奧。不作世俗語。先進之評。未嘗不以古文期之也。中歲喜讀朱子書。雖疾病羸悴。不堪其苦。而猶日披閱不倦。命龍起讀之曰。此斯學之指南也。而能熟讀精思。心與理會。進德修業之基。未必舍此而他求也。君清通豈弟。篤於親親。謹於喪祭。爲學。一以孝悌爲本。而恥以崖岸詭矯之行。取名於世。於世間利害得失。一無所入於其中。自少名譽藉

甚。無不期以大展。既疾病沉綿八九年。益無意進取。日聚村秀子弟。講習前言。往行以自娛。君娶鐵城李氏。襄憲公原之後。正郎後榮之女。觀察使李公溟翼之外孫。正郎公簡重。不苟訾譽於人。而於君必起敬。許以遠器也。君有二男二女。男卽龍起，龍慶。女長適士人李稽。有一男一女而寡。季未笄而夭。龍起時無子女。龍慶有一男一女幼。君不喜著述。間作。亦不用藁。只有詩文若干云。光庭僻居固陋。與君交臂而失之。未曾有文墨之雅。而從知友間。聞其推詡宿矣。而今平生之友俱閔然。思一時所嚮往。其志業可爲當世任。爲後世範者。率蹇滯不偶。或不得天年。運氣之不幸。有如此者。而世且無微顯闡幽之君子揄揚其德美而垂諸久遠者。如光庭何足道。於二君至誠之請。猶不能無動。敢依其家錄而稍彙括如此。幸秉筆之君子不以其無足取而加采擇焉。

上舍退澗申公。以厚德令望。重於嶺以南。雖隱淪。功不見於世。而教獨行於家也。有一子克肖其訓。世方以公之不倣於時。謂天道在此子。不幸年四十二。纔成小名而卒。時退澗公在堂。世尤爲公悲。言福善之道無徵也。君之孤龍起。龍慶兄弟。方以文學世其家。不以光庭老血無識。以退澗公之狀見屬。且曰。吾父志行。恐無以表見於世。願長者哀之。光庭辭之固。而其請益至。遂不敢辭。君家世已具退澗公事中。君諱重模。字士範。以明陵癸亥七月二十八日生。幼有美質。舉止異凡兒。五六歲侍宿羅浮公。公索溺器。雖睡。執必驚起。跪而進之。羅浮公以爲異。七歲。受十九史。初讀至燧人氏。問曰。地皇氏以火德王。天下固有火矣。此言始鑽燧何也。退澗公奇其警悟。自是不煩提誨。雖文義古奧。未易辭者。如迎刃然。過眼輒誦。發語驚人。稱神童焉。羅浮公之喪。哀哭無異成人。累月不食肉。人益奇之。嘗遊嬉出先公所藏絢絳桑弧。先公呵之。自此雖瑣小物。必稟而用之。先公性嚴。其教之。不以一子而少假。君惟恐失父母之心。視膳之餘。講讀不怠。十二三。已通經史百家語。文稅日進。儕流自以不如也。鄭相潛時知縣於先夫人。爲中表兄弟。見君奇之。曰。美秀才。非老丘壑者。因宴會。要君。先公欲試君。問大夫有請而往乎。君跪曰。公庭非妾子所往來。先公喜曰。而能如此。吾無憂矣。丁亥。先公入京師。宋夫人疾卒。君晝夜扶視湯餌。不解衣者月餘日。先公歸。

## 대암선생집(大菴先生集)

### 형태서지

권수제	대암선생문집(大菴先生文集)
판심제	대암집(大菴集)
간종	목판본(木版本)
간행년	1693 년 간행
권책	6 권 4 책
행자	10 행 20 자
규격	19.0×16.0(cm)
어미	上下二葉花紋魚尾
소장처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도서번호	811.98/박성/대-판
총간집수	한국문집총간 속 6

### 저자

성명	박성(朴惺)
생년	1549 년(명종 4)
몰년	1606 년(선조 39)
자	덕응(德凝)
호	대암(大菴)
본관	밀양(密陽)
특기사항	곽간(郭趯), 배신(裵紳)의 문인. 곽준(郭遵), 장현광(張顯光) 등과 교류



행력

왕력		서기	간지	연호		연령	기사
명종	4	1549	기유	嘉靖	28	1	7월 1일, 玄風 率禮村에서 태어나다.
명종	12	1557	정사	嘉靖	36	9	1월, 부친상을 당하다.
명종	14	1559	기미	嘉靖	38	11	竹齋 郭趕의 문하에서 배우다.
명종	20	1565	을축	嘉靖	44	17	驪州李氏 李光軫의 딸과 혼인하다.
명종	22	1567	정묘	隆慶	1	19	10월, 사마시에 합격하다.
선조	2	1569	기사	隆慶	3	21	洛川 裴紳의 문하에서 「大學」을 배우다.
선조	4	1571	신미	隆慶	5	23	金沔, 李起春과 從遊하다.
선조	5	1572	임신	隆慶	6	24	鄭述와 「心經」을 강론하다.
선조	10	1577	정축	萬曆	5	29	가을, 모친상을 당하다.
선조	15	1582	임오	萬曆	10	34	참봉에 세 차례 제수되었으나 모두 나아가지 않다.
선조	18	1585	을유	萬曆	13	37	「小學」, 「四書」를 교정하는 일로 부름을 받았으나 나아가지 않다. ○ 徐思遠이 내방하다.
선조	22	1589	기축	萬曆	17	41	王子師傅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선조	24	1591	신묘	萬曆	19	43	겨울, 司圃署 司圃, 공조 좌랑이 되다.
선조	25	1592	임진	萬曆	20	44	봄, 병으로 사직하고 고향에 돌아오다. ○ 4월, 尼山 縣監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 招諭使 金誠一의 종사관이 되다. ○ 6월, 의병을 모집한 공로로 공조 정랑이 되다. ○ 9월, 假都事가 되다.
선조	26	1593	계사	萬曆	21	45	봄, 安陰 縣監이 되다. ○ 4월, 김성일을 곡하다. ○ 가을, 영남 선비들을 대신하여 최영경의 伸冤을 청하다.
선조	27	1594	갑오	萬曆	22	46	봄, 안음 현감을 사직하고 돌아오다.
선조	29	1596	병신	萬曆	24	48	1월, 형조 정랑이 되다. ○ 겨울, 世子翊衛司 衛率이 되다.
선조	30	1597	정유	萬曆	25	49	體察使 李元翼의 참모가 되고, 周王山城大將이 되다. ○ 5월, <論時弊疏> 16條를 올리다. ○ 6월, 장현광과 「周易」을 강론하다.
선조	31	1598	무술	萬曆	26	50	江原道 襄陽에 寓居하다. ○ 忠勳府 經歷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선조	32	1599	기해	萬曆	27	51	봄, 世子翊衛司 衛率·翊衛가 되다.
선조	33	1600	경자	萬曆	28	52	봄, 翊贊이 되다.
선조	34	1601	신축	萬曆	29	53	1월, 林川 郡守가 되다.

선조	35	1602	임인	萬曆	30	54	봄, 형조 정랑이 되다. ○ 여름, 通禮院 相禮가 되다. ○ 「周易」을 교정하는 일로 부름을 받았으나 나아가지 않다. ○ 겨울, 永川 郡守가 되다.
선조	36	1603	계묘	萬曆	31	55	봄, 군자감 부정이 되다. ○ 가을, 靑松 府使가 되다.
선조	37	1604	갑진	萬曆	32	56	여름, 공조 정랑이 되다.
선조	38	1605	을사	萬曆	33	57	族人 朴士愷의 第3子を 양자로 삼고 이름을 ‘敏修’라고 하다. ○ 겨울, 益山 郡守가 되다. ○ 才行을 겸비하고 道學이 깊은 선비를 선발하라는 선조의 명으로 李基高, 張顯光, 徐思遠 등 7명 중에 첫째로 뽑히다.
선조	39	1606	병오	萬曆	34	58	10월 4일, 졸하다. ○ 玄風으로 返樞하다.
선조	40	1607	정미	萬曆	35	—	봄, 玄風 松林里 선영에 장사 지내다.
숙종	19	1693	계유	康熙	32	—	증손 朴世熙가 木板으로 문집을 初刊하다.
숙종	20	1694	갑술	康熙	33	—	松林의 松潭書院에 봉안되다.
—	—	1930	경오	—	—	—	達城에서 石印으로 문집이 重刊되다.

### 편찬및간행

저자의 시문은 졸한 뒤 70여 년이 지나 증손 朴世熙가 家藏草稿를 바탕으로 遺文을 수집 편차하고 1679년에 李潤雨의 손자인 李元禎에게 서문을 받는 등 간행을 준비하였다. 1693년에 박세희가 淸道 郡守 趙遠期의 협조를 받아 6권 4책의 목판으로 문집을 간행하였다.《초간본》이 본은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811.98/박성/대-판), 국립중앙도서관(古 3648-文 25- 182), 규장각(奎 6600) 등에 소장되어 있다.

그 후 1930년에 達城 墓菴齋에서 6권 2책의 石印으로 문집이 간행되었다.《중간본》이 본에는 重刊 때의 서문과 발문이 없어 간행 경위는 알 수가 없고, 다만 刊記가 있는 본이 있어서 간행지와 간행연도를 알 수 있을 뿐이다. 초간본과 비교하면 내용은 동일하며, 권 1에서 〈松生述懷〉 앞에 七言四韻의 제목을 붙여 주어 詩體를 분명히 한 점이 다르다. 이 본은 국립중앙도서관(古 3648-文 25-194),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D1-A1653) 등에 소장되어 있는데, 고려대본에는 간기가 있다.

1985년에는 저자의 門中에서 저자의 사위 李宜活의 후손 집에서 최근 발견된 「大菴朴先生師友錄」과 年譜의 번역본을 간행하였다.

본서의 저본은 1693년에 증손 朴世熙가 목판으로 간행한 초간본으로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장본이다.

序(李元禎 撰), 年譜(大菴朴先生師友錄) 등에 의함

### 구성과내용

본집은 6권 4책이다. 권수에는 1679년에 李元禎이 지은 서문과 目錄이 실려 있다.

권 1 에는 五言絶句 8 제, 五言四韻 35 제, 五言古詩 3 제, 七言絶句 78 제가 실려 있다. 金時習 · 申之悌 · 李垞 · 金大德 · 金誠一 · 盧守愼 · 李滉의 시에 차운한 시, 李弘宇 · 金宇顙 · 鄭琢 · 鄭崑壽를 애도한 挽詩, 張顯光 · 鄭述 · 崔永慶에게 준 贈詩, 영호남에서 왜적이 물러났다는 소식을 듣고 지은 倭亂과 관련된 시, 亡友 權宇 · 李晬然 등을 생각하며 지은 시, 朱子書와 「論語」를 읽고 지은 시, 檜 · 松 · 柏 · 梅 · 竹을 두고 읊은 시 등이 있다. 이 밖에 <洛江泛舟分韻>은 鄭述, 金沔, 李起春 등과 낙동강에서 뱃놀이하며 지은 시로 이들의 시도 첨부되어 있다.

권 2 에는 祭文 10 편, 雜著 1 편, 序 1 편, 通文 1 편이 실려 있다. 제문은 金宇顙, 郭趨, 金誠一, 鄭崑壽, 金垞, 金圻, 金弘微, 郭履常 · 郭履厚 형제, 柳雲龍, 裴暻의 것이다. 잡저는 1568 년경에 晉州에서 일어난 淫婦의 獄事와 관련된 것으로, “曹植이 음부를 미워하여 門生들로 하여금 음부를 성토하고 마을에서 쫓아내게 한 일이 의리에 어떡하냐?”고 李滉이 묻자, “德山에서 隱居하는 것만 알고 나머지 일은 모른다.”는 林芸의 대답에 이황이 칭찬한 내용이다. <送李汝懋序>는 鄭述의 문인 李厚慶이 병문안 왔다가 돌아갈 때 지어 준 것으로 安貧樂道를 권면하고 財物과 女色을 경계하는 내용이다. <召募密陽士民通文>은 金誠一의 從事官으로 있을 때, 밀양의 백성들에게 당시의 위급한 상황을 설명하고 임금과 부형을 위해 의병에 참여할 것을 권면하는 통문이다.

권 3 에는 書 65 편, 墓誌銘 8 편이 실려 있다. 서는 鄭述, 趙穆, 李厚慶, 曹好益, 鄭四震, 李元翼, 金光繼, 鄭仁弘, 黃汝一, 黃致誠 등에게 보낸 편지이다. 정구에게 올린 편지에는 金宇顙의 行狀을 청하는 내용, 조목에게 올린 편지에는 「退溪集」 간행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 조호익에게 보낸 편지에는 「朱子語類」를 빌려 주어 고맙다는 내용, 이원익에게 올린 편지에는 明軍의 군량미 마련과 玉山書院의 書冊과 李彦迪位板의 대피 문제에 대한 내용이 있다. 정인홍에게 보낸 편지는 1605 년에 지은 것으로 정인홍이 曹植의 문집을 간행하면서 발문에 李滉을 폄하하고 조식을 치켜세운 일로 영남 사림이 退溪派와 南冥派로 갈려 영남이 하나의 전쟁터가 된 책임을 추궁하는 내용이다. 묘지명은 李應仁 內外와 李宜潤의 묘지명, 부친 朴思訥과 모친 光山金氏의 墓誌, 외조부 金緣의 묘지명, 金富弼의 묘지, 郭趨의 묘지명, 金富儀의 墓碣이다.

권 4 에는 疏 3 편이 실려 있다. <論時弊疏>는 1597 년 倭亂 기간 중에 올린 時務 16 條로 그 당시 나라의 문제점과 그 대책을 아뢴 장편의 상소이다. 大義를 밝혀 和議를 중단할 것, 친히 정벌하여 왜적을 섬멸할 것, 백성의 고통을 구휼하여 인심을 얻을 것, 훌륭한 장수를 뽑아 軍務를 맡길 것, 諫言을 받아들이고 言路를 열 것, 節義를 포상하여 綱常을 扶植할 것, 信賞必罰을 분명히 하여 中外를 경계할 것,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 軍需를 넉넉히 할 것 등 16 조목으로 저자의 경륜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다. 이 밖에 郭昶을 대신하여 올린 白士霖을 처벌하기를 청하는 상소와 영남 유생을 대신하여 올린 崔永慶의 伸冤을 청하는 상소가 있다.

권 5~6 은 附錄이다. 張顯光이 1632 년에 지은 行狀과 鄭述 · 曹好益 · 李好閔 · 任屹 · 李宜活 등이 지은 輓詞 12 편, 張顯光 · 李厚慶 · 徐思遠 · 黃汝一 · 朴暉 등이 지은 祭文 35 편, 金世濂이 1641 년에 지은 墓碑銘이 실려 있다.

## 박성(朴愷)

### 정의

조선시대 『대암집』을 저술한 학자.의사(義士).

### 개설

본관은 밀양(密陽). 자는 덕응(德凝), 호는 대암(大菴). 박성림(朴成林)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감찰 박순(朴純)이고, 아버지는 생원 박사눌(朴思訥)이며, 어머니는 관찰사 김연(金緣)의 딸이다. 배신(裴紳)에게 수학하고, 정구(鄭逋)를 사사하였다.

### 생애 및 활동사항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초유사(招諭使) 김성일(金誠一)의 참모로 종사했고, 정유재란 때 조목(趙穆)과 상의해 의병을 일으켜서 체찰사(體察使) 이원익(李元翼)의 막하에 들어갔다. 그 뒤 주왕산성(周王山城)의 대장으로 활약하였다.

임진왜란이 끝난 뒤 세자사부(世子師傅)로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뒤에 사포서사포(司圃署司圃)가 되었다가 공조좌랑을 지내고, 안음현감(安陰縣監)이 되었다.

전쟁 때는 명나라 군사를 접응하고 장정(壯丁)을 동원해 군인에 충당하며 보급 물자를 수송하고 병기를 수리하는 등 공적이 많았다. 뒤에 박성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권력을 잡자 벼슬을 사퇴하고, 청송(靑松)의 주왕산 아래 은거하였다.

조정에서 공적을 가상하게 여겨 공조정랑·익위사위수(翊衛司衛率)과 임천(林川)·영천(永川)·익산(益山) 등의 군수·통례원상례(通禮院相禮)·청송부사 등에 임명했으나 모두 사양하고 부임하지 않았다.

격물치지(格物致知)와 성심정기(誠心正己)의 학문을 추구했으며, 과거시험에 뜻을 버리고 공맹(孔孟)의 글을 읽었다.

만년에는 더욱 『논어(論語)』를 좋아해 거처하는 집에 학안재(學顏齋)의 현판을 걸어놓고 동료(東寮)를 사물(四勿), 서료(西寮)를 박약(博約)이라 부르고 그 안에서 글을 읽었다. 글을 배우러 오는 이에게는 먼저 『소학(小學)』을 가르쳐서 사람이 되는 길을 깨닫게 하였다.

처음 정인홍(鄭仁弘)과 교류해 사이가 좋았으나 정인홍이 대사헌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일을 처결하는 것을 보고 못마땅해 하였다.

더군다나 정인홍이 『남명집(南冥集)』의 발문에서 이황(李滉)을 배척한 어구를 보고 “세상에 선정(先正)을 욕하는 군자를 본 일이 없다.”라 하고 절교하였다.

또한, 김성일의 참모가 되었을 때 적세가 사나워져서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 박성이 김성일에게 이곳을 지키지 못하면 경상 우도(慶尙右道)를 보전할 수 없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묻자, 김성일은 “봉강(封疆)의 책임을 맡은 신하는 봉강에서 죽을 뿐이다. 그대는 이곳을 버리고 도망가라.”라고 했으나 끝내 떠나지 않았다.



김성일이 역질에 걸렸을 때 다른 막료들은 모두 피했으나 박성은 끝내 옆에서 간호하는 등 의리를 지켰다. 교우는 최영경(崔永慶)·김우옹(金宇顛)·장현광(張顯光)·권호문(權好文) 등으로 서로 내왕하며 학문을 연마하였다. 저서로는 『대암집(大菴集)』이 있다.

卷之一 / 詩○五言四韻

차예안쉬신(次禮安倅申) 之倅 운(韻)

14世 지제(之倅) 父 : 몽득(夢得) 祖父 : 응규 (應奎) 귀파(龜派)오봉공파(梧峰公派)

弊屋青山擁。柴門碧澗迴。客從玄圃過。雲傍鶴岩來。種黍腸猶足。飡霞眼更恢。芳隣須我友。何日掛冠哉。



二一五

## 동계문집(東溪文集)

### 형태서지

권수제	동계문집(東溪文集)
판심제	동계집(東溪集)
간종	목판본(木版本)
간행년	미상(1845년 이후 간행)
권책	목록(目錄), 원집(原集) 5권 합 3책
행자	10행 20자
규격	19.6×16.2(cm)
어미	上黑魚尾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도서번호	古 3428-738
총간집수	한국문집총간 속 15

### 형태서지

성명	조형도(趙亨道)
생년	1567년(명종 22)
몰년	1637년(인조 15)
자	경달(景達), 대이(大而)
호	동계(東溪), 청계도사(淸溪道士)
본관	함안(咸安)
일명	원도(遠道)
특기사항	정구(鄭誥), 장현광(張顯光)의 문인. 오여벌(吳汝櫛), 박이장(朴而章) 등과 교류

행력

왕력		서기	간지	연호		연령	기사
명종	22	1567	정묘	隆慶	1	1	5월 20일, 安德縣 집에서 태어나다.
~	~	~	~	~	~	~	백부 趙堦의 후사가 되다.
선조	9	1576	병자	萬曆	4	10	겨울, 부친상을 당하다.
선조	14	1581	신사	萬曆	9	15	조부상을 당하다.
선조	16	1583	계미	萬曆	11	17	安德에서 閔樞에게 수학하다.
선조	20	1587	정해	萬曆	15	21	咸安에서 寒岡 鄭逵의 문하에 유학하다. ○ 이후 3차례 鄉試에 합격하다.
선조	25	1592	임진	萬曆	20	26	郭再祐 진영에 나아가 많은 공을 세워 특별히 訓練院 主簿가 되다.
선조	27	1594	갑오	萬曆	22	28	무과에 합격하다. ○ 겨울, 宣傳官 兼 備局郎이 되고 이어 通政大夫에 超資되다.
선조	28	1595	을미	萬曆	23	29	7월, 清河 縣監이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 겨울, 慶山 縣令이 되다.
선조	32	1599	기해	萬曆	27	33	겨울, 生父喪을 당하다.
선조	39	1606	병오	萬曆	34	40	가을, 固城 縣令이 되다.
선조	41	1608	무신	萬曆	36	42	가을, 昌原 召募將이 되다.
광해군	1	1609	기유	萬曆	37	43	겨울, 金明胤의 참소와 姜籤의 무고로 晉陽獄에 갇혔지만 이듬해 무죄임이 밝혀져 풀려나다.
광해군	2	1610	경술	萬曆	38	44	겨울, 生母喪을 당하다.
광해군	3	1611	신해	萬曆	39	45	가을, 모친상을 당하다.
광해군	9	1617	정사	萬曆	45	51	9월, 討捕將이 되어 탈옥수 李景祺 일당을 소탕하다.
광해군	14	1622	임술	天啓	2	56	겨울, 巡邊使 柳斐의 從事官이 되었다가 곧 慶德宮 衛將이 되다.
인조	1	1623	계해	天啓	3	57	4월, 특명으로 寶城 郡守가 되고, 海倉의 通米 2800 석을 특별히 건감받다.
인조	2	1624	갑자	天啓	4	58	李适의 난으로 인조가 公州로 파천하자 정예병을 이끌고 달려가다.
인조	3	1625	을축	天啓	5	59	여름, 扈衛別將이 되었으나 겨울에 사직하다.
인조	5	1627	정묘	天啓	7	61	4월, 부인상을 당하다. ○ 6월, 晉州 營將, 尙州 營將이 되었으나 곧바로 사직하다. ○ 7월, 槐山 郡守에 부임하였으나 겨울에 呈辭하여 사직하다.
인조	7	1629	기사	崇禎	2	63	慶州 營將이 되다.

인조	14	1636	병자	崇禎	9	70	12 월, 호란이 일어나자 관찰사 沈演의 忠原(忠州) 진영에 나아가다.
인조	15	1637	정축	崇禎	10	71	2 월 8 일, 崔鳴吉의 講和 소식을 듣고 憂憤에 등창이 나서 졸하다. ○ 8 월, 河陽縣 八公山 本寺洞에 장사 지내다.

## 조형도(趙亨道)

### 정의

조선시대 훈원원주부, 보성군수, 경주영장 등을 역임한 무신.

### 개설

본관은 함안(咸安)이다. 자는 대이(大而)-경달(景達)이다. 호는 동계(東溪)이다. 자칭 청계도사(淸溪道士)라 일컬었다. 생육신 조여(趙旅)의 5대손이다. 아버지는 동지중추부사 조지(趙址)이다. 큰아버지 조우(趙堦)에게 입양되었다. 부인은 부윤 오운(吳濤)의 딸이다.

### 생애 및 활동사항

1583년(선조 16) 첨지 민추(閔樞)에게 수학했다. 1587년정구(鄭逵)를 사사한 뒤 3년 간 향시에 연이어 장원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화왕산성(火旺山城)에서 많은 전공을 세워, 이러한 공으로 특별히 훈원원주부에 임명되었다.

임진왜란을 계기로 무과를 지원해 1594년 무과에 합격하였다. 선전관 겸 비국랑(宣傳官兼備局郎)에 임명되고 이어 통정대부가 되었다. 이듬해 청하현감에 제수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으며 다시 경산현령이 되었다. 1606년 고성현령에 임명되었다. 1608년 의병을 모집하는 임시직인 소모장(召募將)으로 창원에 차송되었다.

1609년(광해군 1) 본영중군 김명윤(金明胤)의 참소로 진주옥에 수감되어 서울로 압송되었다. 그러나 첨지중추부사 정광적(鄭光績) 등의 변호로 풀려났다. 1614년 광해군의 혼란한 정치를 싫어하여 관직을 버리고 낙향하였다.

1617년 순찰사 윤환(尹暄)이 수군 분담을 개청하는 일로 불러 중군에 들었다. 이 때 토포사를 겸행하여 영천감옥에서 탈옥한 죄수 이경기(李景祺) 일당을 붙잡는 데 공을 세웠다. 1622년 가선대부로 승진하였다. 이 해에 청나라가 침입하려 하자 순변사 유비(柳斐)의 종사관이 되었다가 곧 경덕궁의 호위장이 되었다.

이듬해 인조반정 때 군사를 모아 궐문을 지켰다. 이 공으로 보성군수가 되어 학문을 진작시켰다. 또한 미납되어 온 4,000여 석의 세미(稅米)에 대해 감사에게 진정해 2,800석을 감면받아 군민들의 칭송을 받았다.



1624년(인조 2) 이괄(李适)의 난으로 인조가 공주로 피난할 때 본도중군을 겸하고 정예병을 모아 왕의 수레를 호위했다. 1625년 토호들의 부정한 청탁을 거절해 탄핵을 받아 파직되었으나 곧 호위별장으로 차송되었다.

1627년 청나라의 침략 김새가 보이자 본도호소사(本道號召使) 장현광(張顯光)의 중군이 되었다가 별장이 되었다. 영장제가 설치되자 진주영장에 임명되었으나 신병으로 사직했다. 다시 상주영장에 제수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이어 괴산군수에 임명되어 소를 올려 사직하려 했으나 허락되지 않아 부임하였다. 1629년 경주영장이 되어 3년 간 재직했다.

정조 때 편찬된 『충렬록(忠烈錄)』에 기록되었다. 또한 순조 때 만들어진 『존주록(尊周錄)』에도 기록되었다. 청송의 덕봉사(德峯祠)에 배향되었다.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에 동계정(東溪亭)이 있다. 저서로 『동계집』 3책이 있다.

술회증순부(述懷贈順夫)

14世 지제(之悌) 父 : 몽득(夢得) 祖父 : 응규(應奎)

귀파(龜派)오봉공파(梧峰公派)

小縣清溪上。危樓倚亂峯。殘城驚暮角。孤枕數晨鐘。眼霧多神淚。頭霜減舊容。干戈無日定。何處寄孤蹤。

贈忘憂堂

散寶千金重。捐身一羽輕。手中揮尺劍。江上起長城。  
西奮忠君膽。南馳壯國聲。故都行返駕。小醜不難平。

宣城衙值主。悴梧峯申順夫。之悌 差公幹始還。

寂寞空衙春政長。主人何處任行忙。客頭夜過燈前白。官柳朝來雨裏黃。罇酒未能攀醉話。盤飧猶足點飢腸。眼寒城外平蕪路。五馬初還帶夕陽。

述懷贈順夫

東溪集卷一

三

小縣清溪上。危樓倚亂峯。殘城驚暮角。孤枕數晨鐘。眼霧多神淚。頭霜減舊容。干戈無日定。何處寄孤蹤。

次聲漢孫景徵起陽韻

無物春來不感情。况逢時節又清明。故山香火連年絕。梅雨那堪賞晚晴。

別吳景虛汝撥還龜城二首

千山萬樹裏。多謝此來尋。湖海三年別。風燈一夜心。黃金多結契。白雪少知音。明日相分袂。何時更對襟。今朝歸去松蹄路。絲水千迴山萬稊。明月不隨人共散。一天分照兩鄉愁。

東溪集 卷一

선성아(宣城衙)。치주쉬오봉신순부(值主倅梧峯申順夫) 之梯 차공간시환(差公幹始還)。

14世 지제(之梯) 父 : 몽득(夢得) 祖父 : 응규 (應奎) 귀파(龜派)오봉공파(梧峰公派)

寂寞空衙春政長。主人何處任行忙。客頭夜過燈前白。官柳朝來雨裏黃。罇酒未能攀醉話。盤飧猶足點飢腸。眼寒城外平蕪路。五馬初還帶夕陽。

<p>贈忘憂堂 散寶千金重。捐身一羽輕。手中揮尺劍。江上起長城。 西奮忠君膽。南馳壯國聲。故都行返駕。小醜不難平。</p>	<p>宣城衙值主倅梧峯申順夫之梯 差公幹始還。 寂寞空衙春政長。主人何處任行忙。客頭夜過燈前白。官柳朝來雨裏黃。罇酒未能攀醉話。盤飧猶足點飢腸。眼寒城外平蕪路。五馬初還帶夕陽。</p>	<p>東溪集卷一 三 述懷贈順夫 小縣清溪上。危樓倚亂峯。殘城驚暮角。孤枕數晨鐘。 眼霧多神淚。頭霜減舊容。干戈無日定。何處寄孤蹤。 次聲漢孫景微起陽韻 無物春來不感情。况逢時節又清明。故山香火連年絕。梅雨那堪賞晚晴。</p>	<p>別吳景虛 汝櫟還龜城二首 千山萬樹裏。多謝此來尋。湖海三年別。風燈一夜心。 黃金多結契。白雪少知音。明日相分袂。何時更對襟。 今朝歸去松蹄路。綠水千迴山萬稿。明月不隨人共散。一天分照兩鄉愁。</p>
-----------------------------------------------------------------------	--------------------------------------------------------------------------------------------------	---------------------------------------------------------------------------------------------------------------------------------------	--------------------------------------------------------------------------------------------------------------------

東溪集 卷一



도회산정신순부(到檜山呈申順夫) 三首

14世 지제(之梯) 父 : 몽득(夢得) 祖父 : 응규 (應奎) 귀파(龜派)오봉공파(梧峰公派)

匹馬炎程七月天。爲要來訪檜山賢。沒浦遠帆孤嶼外。過城微雨夕陽邊。庭空欲下花間鳥。軒敞惟宜月下眠。丹客更兼校尉至。不妨罇酒一床前。

眼青商嶺客。頭白檜原侯。過雨殘燈夜。歸愁老樹秋。微涼供大醉。餘興倚高樓。分散明朝路。悠悠是倦遊。

城上珠還閣。登臨擅一州。主人喜無恙。客子得重遊。海近潮聲夕。臺荒月影秋。罇前多少意。均是去留愁。

石亭與從弟李重共賦。	古樹亭邊人影散。老篁叢裏鳥聲稀。溪山風景年年是。城郭人民歲歲非。堪向靜中觀物化。莫教閒處與人違。相攜覓句兼呼酒。直待前橋帶月歸。	歎巖上紫竹半枯	巖上千竿幾歲華。我來今日見無多。秋芽欲坼遲逢雨。惟有風前舊翠斜。	到檜山呈申順夫三首	匹馬炎程七月天。爲要來訪檜山賢。沒浦遠帆孤嶼外。過城微雨夕陽邊。庭空欲下花間鳥。軒敞惟宜月下眠。丹客更兼校尉至。不妨罇酒一床前。	東溪集卷一	眼青商嶺客。頭白檜原侯。過雨殘燈夜。歸愁老樹秋。微涼供大醉。餘興倚高樓。分散明朝路。悠悠是倦遊。	城上珠還閣。登臨擅一州。主人喜無恙。客子得重遊。海近潮聲夕。臺荒月影秋。罇前多少意。均是去留愁。	次吳景虛韻	東海城邊人佩酒。西林亭上客吟詩。玉笙金管明秋月。猶是當年全盛時。	感李上舍養初明志攜酒來慰	昨日臺前餽籌錯。今朝衣上酒痕多。披看夏感諸君
------------	------------------------------------------------------------------	---------	----------------------------------	-----------	------------------------------------------------------------------	-------	--------------------------------------------------	--------------------------------------------------	-------	----------------------------------	--------------	------------------------



卷之二 / 詩

차신순부림별운(次申順夫臨別韻)

14世 지제(之梯) 父 : 몽득(夢得) 祖父 : 응규 (應奎)

귀파(龜派)오봉공파(梧峰公派)

逢場一飲至扶頭。欲發還爲此日留。莫怪相看成白首。世間憂患幾春秋。

東溪集卷三

二五

贈蔡英仲挺俊遊方臺

東頭高閣入中天。靈境今看得主賢。洲渚露晞冰始泮。林巒洗貌雪初妍。江山不有來佳客。風景何能擅勝權。君去莫煩傳世耳。桃源終古夏難緣。

鄉校明倫堂落宴與府伯共懽

清謹慈祥我夙聞。夏推誠意獎斯文。一朝輪奐覺堂堂。美千載藏修士子欣。霽色映添山雪媚。光風搖入酒盃薰。賢侯去後無窮思。畱與諸生萬口云。

次申順夫臨別韻

逢場一飲至扶頭。欲發還爲此日畱。莫怪相看成白

首。世間憂患幾春秋。

夏日偶詠

草堂霖雨漏重茅。暑氣熏蒸蔽樹梢。柳茁新枝魚可買。荷舒嫩葉飯宜包。青山綠水身多適。白首紅塵夢久拋。聞說關西猶警急。秋風無復劍抽鞘。

許侯遮歸未得往。餞詩以替謝。

君侯早譽筆如杠。千百騷壇坐受降。穿葉養拳入第一。贏絞秋手世無雙。三年單父琴中宓。十日牟陽醉裏龐。誰料卽成鴻鷺別。摻裾孤負倒離缸。

送許秀才徹之洛

역배신순부(歷拜申順夫)。新安수김이화(新安守金而和) 中淸 적래유서(適來留叙)。

14世 지제(之梯) 父 : 몽득(夢得) 祖父 : 응규 (應奎) 귀파(龜派)오봉공파(梧峰公派)

鵠嶺銜西日。龜村已仲春。晚籬嘶五馬。清榻坐三人。輝映看君鬢。衰遲有此身。通宵輸舊意。一一任天真。

東溪集 卷二

盆中枯菊

鵠免風霜虐。還嫌雨露空。寒潭歲已暮。憔悴客還同。

歷拜申順夫。新安守金而和。中淸。適來留叙。

鵠嶺銜西日。龜村已仲春。晚籬嘶五馬。清榻坐三人。

輝映看君鬢。衰遲有此身。通宵輸舊意。一一任天真。

立巖懷鄭洗馬 四震

朝辭安德縣。午憩竹長川。立石猶千丈。高人已九泉。

山林帶寂寞。行路起悲憐。今日西州客。經過隔幾年。

訪杞溪李高靈 應男

卸鞍籬下逕。開席戶前場。苦說經家患。驚憐滿鬢霜。

東溪集卷二

三十三

共看明隱月。暫把淺澆觴。耿耿通宵坐。不堪愁緒長。

月城鄉射堂。次板上李相公。時發韻。

韶光駘蕩總新愁。斗覺光陰客路流。壯固山河周疊

好。繁華風物寂冥收。新開樓觀烟花裏。舊築城臺隴

畝頭。頃使蠻夷恣蹴踏。至今吾輩抱溪羞。

登利見臺

東海曾聞有此臺。偶然今上又徘徊。當時利見驚前

代。曠世神功被後來。天際紅輪金闕湧。風頭白浪雪

山堆。荒墟草合垂朝露。懶舉行鞍趁晚迴。

訪姨弟孫汝唯魯



卷之三 / 詩

차신순부시운(次申順夫示韻)

14世 지제(之梯) 父 : 몽득(夢得) 祖父 : 응규(應奎)

귀파(龜派) 오봉공파(梧峰公派)

峽裏逢迎亦一奇。相看莫歎鬢毛衰。傷心榆塞氛猶惡。回首蓬萊夢亦疑。代食石田多犂墾。置檀河水自清漪。最憐赤子匪鱸鮓。何處將身樂土宜。

丈虹奔走未成分一半。白鷗應笑白頭翁。  
痛泣平生撼樹風。況今邱壟一望中。不堪夢寐驚成  
幻。無賴絞綃寫出工。吟勝何心詩似錦。把盃寧作氣  
如虹。往來臺下終身慕。爾我年俱五十翁。

遺懷

功名與我不相尋。歲月還如過鳥音。雨露餘生同草  
木。萍蓬浪跡到江潯。樽前欲白忠鄉髮。客裏偏丹戀  
闕心。悵望北辰光咫尺。倚樓空復向開襟。

次申順夫示韻

峽裏逢迎亦一奇。相看莫歎鬢毛衰。傷心榆塞氛猶

東溪集卷三

十三

惡。回首蓬萊夢亦疑。代食石田多犂墾。置檀河水自  
清漪。最憐赤子匪鱸鮓。何處將身樂土宜。

從弟敬而見訪

憶曾就養王親宅。君齒於吾少一年。膝下捧盤常恐  
後。園中收粟幾爭先。分離身世風驚鴈。邂逅形顏雪  
滿巔。魂夢老來歸亦懶。故鄉蹤跡漸茫然。

呈申順夫

青鳥散老猶藏峽。黃鶴聞翁不出門。自是才能違世  
用。元非情性厭塵喧。忽聞虜騎夷遼堞。又道王人過  
海門。時事祇今危累卵。可能吾輩保朝昏。

東溪集 卷三

정신순부(呈申順夫)

14세 지제(之梯) 父 : 몽득(夢得) 祖父 : 응규(應奎)

귀파(龜派)오봉공파(梧峰公派)

靑鳧散老猶藏峽。黃鵠閒翁不出門。自是才能違世用。元非情性厭塵喧。忽聞虜騎夷遼堞。又道王人過海門。時事祇今危累卵。可能吾輩保朝昏。

丈虹奔走未成分一半。白鷗應笑白頭翁。  
痛泣平生撼樹風。况今邱壘一望中。不堪夢寐驚成  
幻。無賴絞綃寫出工。吟勝何心詩似錦。把盃寧作氣  
如虹。往來臺下終身慕。爾我年俱五十翁。

遺懷

功名與我不相尋。歲月還如過鳥音。雨露餘生同草  
木。萍蓬浪跡到江潯。樽前欲白忠鄉髮。客裏偏丹戀  
闕心。悵望北辰光咫尺。倚樓空復向開襟。

次申順夫示韻

峽裏逢迎亦一奇。相看莫歎鬢毛衰。傷心榆塞氛猶  
惡。回首蓬萊夢亦疑。代食石田多犂埆。置檀河水自  
清漪。最憐赤子匪鱸鮪。何處將身樂土宜。

東溪集卷三

十三

從弟敬而見訪

憶曾就養王親宅。君齒於吾少一年。膝下捧盤常恐  
後。園中收粟幾爭先。分離身世風驚鴈。邂逅形顏雪  
滿巔。魂夢老來歸亦懶。故鄉蹤跡漸茫然。

呈申順夫

靑鳧散老猶藏峽。黃鵠閒翁不出門。自是才能違世  
用。元非情性厭塵喧。忽聞虜騎夷遼堞。又道王人過  
海門。時事祇今危累卵。可能吾輩保朝昏。

東溪集 卷三



증신흥망(贈申弘望)

15世 흥망(弘望) 父: 지제(之悌) 祖父: 몽득(夢得)

귀파(龜派)오봉공파(梧峰公派)

見爾冰壺質。今逢水石村。歲寒燈一壁。情倒酒盈樽。班頷雖候相。馮頭已雪痕。時危無限意。永夜共銷魂。

題和燕堂二首

三兄弟與共川東。夏喜羣居一閣中。寸草報輝情罔極。原禽急難意無窮。自從職分同溫飽。不向生涯念塞通。美事可聯宜樂義。永州能使起人躬。

我看新構半天東。高棟盤飛落日中。雲物政供樽酒勝。登臨况值歲華窮。天倫樂事身長占。人世名場夢不通。老子醉餘心忽瞿。省扁從此反諸躬。

贈戒菴禪

曉月蒼蒼雪滿山。白生禪室客眠寒。三千境界雙眸裏。十二樓臺一尺間。莫把虛空還謂有。且須眞實卻

東溪集卷三

十四

能安。幸今共對明窓畔。說溯仙源靜處看。

贈朴子龍

山中逢客至。地底見陽舒。歲去聞消息。年來畏簡書。眼青燈落處。頭白酒空餘。倘遣明朝路。柴扉夏摻裾。

贈申弘望

見爾冰壺質。今逢水石村。歲寒燈一壁。情倒酒盈樽。班頷雖候相。馮頭已雪痕。時危無限意。永夜共銷魂。

贈全君輔兼呈君勉

憶曾相對草堂秋。一壁燈前兩白頭。回首舊遊今歲暮。亂山水雲使人愁。

만신순부(輓申順夫)

14世 지제(之梯) 父 : 몽득(夢得) 祖父 : 응규 (應奎)

귀파(龜派)오봉공파(梧峰公派)

渾厚山川氣。淵源學問功。斗南名早振。拱北眷方隆。奪速天何故。歸休事已空。擊蒙恩未報。哀淚但霑膏。

東溪集 卷三

意。鬢過殘臘雪添明。百齡宇內身如寄。萬事寰中夢  
幾驚。今夕又從西海去。逢人何處把新觥。

輓李秀卿

交道連三世。襟期許一生。病憐河上臥。雞罷夢中聲。  
庭列諸筍玉。隣餘我弟兄。花場洞裏路。哭望隔幽明。

烏城院

落落長松下。樓臺隱映間。魚龍淡淺海。雲物古今山。  
梅竹編籬匝。柚榴掩戶環。從來名勝地。太守幾時間。

扈 駕公州賀適璉就臬

犬羊負 恩澤。豺虎跋衣冠。大計捐郊土。羣臣猶漢

東溪集卷三

二十七

官。天生今有將。露布即傳竿。從此乾旋日。更看社稷  
安。

輓申順夫

渾厚山川氣。淵源學問功。斗南名早振。拱北眷方隆。  
奪速天何故。歸休事已空。擊蒙恩未報。哀淚但霑膏。

還君

雪天行李好歸來。迎候妻兒喜眼開。遙憶故園經過  
處。政知蹤跡夢中迴。

正月聖聞遞音

忠歸未去畏行言。忽此辭官亦 聖恩。及我嶺鄉春

## 둔헌선생집(遯軒先生集)

### 형태서지

권수제	둔헌선생집(遯軒先生集)
판심제	둔헌선생문집(遯軒先生文集)
간종	활자본(活字本)
간행년	1890 년 간행
권책	4 권 2 책
행자	10 행 20 자
규격	21.8×15.7(cm)
어미	上下三葉花紋魚尾
소장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도서번호	K4-5921
총간집수	한국문집총간 속 23

### 저자

성명	이홍유(李弘有)
생년	1588 년(선조 21)
몰년	1671 년(현종 12)
자	우길(祐吉), 순길(順吉)
호	둔헌(遯軒), 산민(山民)
본관	경주(慶州)
특기사항	김집(金集)의 문인. 신지익(申之益), 홍석기(洪錫箕) 등과 교류

행력

왕력		서기	간지	연호		연령	기사
선조	21	1588	무자	萬曆	16	1	1월 4일, 淸州의 壽樂村에서 태어나다.
선조	33	1600	경자	萬曆	28	13	부친이 西溪 가에 玩易齋를 짓다.
선조	-	~	~	萬曆	-	~	愼獨齋 金集에게 나아가 수학하다.
선조	37	1604	갑진	萬曆	32	17	義城 縣令인 부친을 배알하고 이듬해까지 그곳에서 독서하다.
선조	38	1605	을사	萬曆	33	18	長髻鄭氏 鄭霽의 딸과 혼인하다.
선조	41	1608	무신	萬曆	36	21	부친이 玉華洞에 지은 歲寒亭에서 독서하다. ○ 장남 李萬憲이 태어나다.
광해군	6	1614	갑인	萬曆	42	27	3월, 華陽洞會에 참여하여 송시열에게 시를 받다. ○ 8월, 漢城試에 합격하다.
광해군	7	1615	을묘	萬曆	43	28	2월, 進士試에 합격하다.
광해군	13	1621	신유	天啓	1	34	2월, 壽樂에서 申之益과 함께 李爾瞻의 죄를 논척하는 상소를 기초하다.
인조	6	1628	무진	崇禎	1	41	次子 李萬濟가 태어나다. ○ 7월, <治溪八景>을 짓다.
인조	8	1630	경오	崇禎	3	43	5월, 부친상을 당하다.
인조	10	1632	임신	崇禎	5	45	9월, 李子升·韓卓爾·李德厚 등과 槐山の 落影山을 유람하다.
인조	11	1633	계유	崇禎	6	46	3월, 童蒙敎官이 되고 다시 參奉이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 6월, 삼남 李萬彪가 태어나다.
인조	14	1636	병자	崇禎	9	49	사남 李萬輝가 태어나다.
인조	16	1638	무인	崇禎	11	51	1월, 왜적이 다시 준동한다는 소문을 듣고 <閩倭奇卽題>를 짓다.
인조	22	1644	갑신	順治	1	57	3월, 省峴道 察訪이 되다. ○ 8월, 모친 沃溝張氏의 상을 당하다.
인조	24	1646	병술	順治	3	59	洪熙中의 발의로 申之益의 旌孝를 요청하는 통문을 짓다.
인조	26	1648	무자	順治	5	61	11월, 鄉人들의 천거로 都訓長이 되다. ○ 감사가 行衣 1습과 말 1필을 내리다.
효종	6	1655	을미	順治	12	68	鄉士大夫들이 山長으로 추대하자 사양하는 글을 올리다.
현종	2	1661	신축	順治	18	74	12월, 부인상을 당하다.
현종	9	1668	무신	康熙	7	81	嘉善大夫에 陞資되다.
현종	12	1671	신해	康熙	10	84	4월 12일, 졸하다.



영조	46	1770	경인	乾隆	35	-	掌樂院 正에 추증되다.
고종	27	1890	경인	光緒	16	-	8 대손 李匡榮이 활자로 문집을 인행하다.

## 편찬및간행

저자의 手草本은 집안에서 「山民拙吟」으로 전해졌는데, 저자가 졸한 뒤 자손들이 흩어져 저자의 文籍으로는 약간의 시문만이 남아 있었다. 본집이 年譜와 文 13 편을 제외하면 거의 詩로 구성된 기형적인 형식을 갖춘 것도 저자 사후 유고가 제대로 보존되지 못한 집안 사정에 연유한다.

본집의 序, 跋 및 말미에 붙은 “庚寅仲春紫陽開刊 校正監印匡榮”이란 간기를 보면, 저자의 8 대손 李匡榮이 族兄 李舜榮에게 간행을 의논한 뒤 초본을 淨寫 編次하고 校正과 監印에 이르기까지 주도적으로 관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본서의 간행 과정에 조력한 李斗榮과 李舜榮도 모두 같은 항렬의 집안 사람들이며, 紫陽齋는 청주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890 년 紫陽齋에서 4 권 2 책을 활자로 인행하였다. 《초간본》이 본은 현재 장서각(K4- 5921) 등에 소장되어 있다.

본서의 저본은 8 대손 李匡榮이 1890 년에 紫陽齋에서 활자로 인행한 초간본으로 장서각장본이다.

序(金洛鉉 撰), 跋(李匡榮 撰), 年譜 등에 의함

## 구성과내용

본집은 4 권 2 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卷首에 金洛鉉이 1890 년에 지은 序와 목록이 있다.

권 1 은 年譜, 文(9)이다. 연보는 저자와 부친 李得胤의 행력을 섞어서 서술하였다. <上巡營辭免都訓長書>는 1648 년에 都訓長을 사양하는 글로 5 차례에 걸쳐 올렸다. <祭養一堂文>은 친구 申之益에 대한 제문이고, <養一堂旌孝通文>은 申鉉과 신지익의 효성을 정표해달라고 지은 통문이다. <追遠堂記>는 부친이 선영에 追遠堂을 건립하자 저자와 맏아들 李萬憲이 공동으로 지은 기문이다.

권 2 는 文(3), 칠언절구(4 제), 칠언율시(50 제)이다. 부친 李得胤에 대한 行狀은 易學과 詩文에 뛰어났던 부친의 행력을 자세히 서술하였다. <辭山長書>는 1655 년 鄉士大夫들에 의해 山長에 추대되었을 때 이를 사임하는 내용이다. <申龍崖先生補修冊中語>는 신지익의 손자 龍崖 申應泰가 쓴 글로, 조부의 행적을 자세히 아는 저자에게 행장을 부탁해 받아두지 못했음을 한탄하며 술회한 글이다. <上監司書>는 1644 년 省峴道 察訪으로 부임한 지 5 개월 뒤에 覲親을 겸하여 선영에 제사하기를 관찰사에게 청한 上書이다. 詩는 문에 비해 다양하고 詩體別로 정리되어 있다. 그러나 여행지에서 읊은 것과 輓詩 및 차운시 등이 섞여 있고, 저작 연대도 뒤섞여 있어서 다소 산만하다. 칠언절구는 모두 1628 년경에 친구 신지익에게 써 준 것이다. <奉呈養一堂主人>과 <冶溪八詠>은 연작시로 두 사람의 돈독한 교의를 느낄 수 있고, 저자의 서정적 시세계를 잘 보여준다.

권 3~4 는 오언절구(23 제), 오언율시(36 제), 칠언절구(361 제)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교유한 인물 중에서 洪錫箕와 수창한 시가 가장 많아 교유가 깊었음을 알 수 있다는 것과 연작시가 많다는 것이다. <草堂四時詞>, <山居四時> 등 생활 주변의 풍광을 읊은 연작시는 물론, <題瀟湘八景畫屏又寫八詠>과 같은 題畫詩, <鳳凰臺八景>, <敬次樂愚堂主人九曲韻>, <遮川八景>, <晚對軒十六景> 등 여행지에서의 감회를 읊은 작품이 많다. 아울러 화양동, 박연폭포, 松都, 西京, 百濟古都, 仙遊洞 등 명승고적의 역사와 풍물을 읊은

시에서부터 <聞倭奇郎題>, <哀乞糧人> 등 변방의 급보와 일반 백성의 질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품이 실려 있다.

권말에 8 대손 李匡榮이 1890 년에 지은 跋과 “庚寅仲春紫陽開刊”이라는 刊記가 붙어 있다.

## 이홍유(李弘有)

### 형태서지

조선시대 『둔헌집』을 저술한 학자.

### 개설

본관은 경주(慶州). 호는 둔헌(遜軒). 이제현(李齊賢)의 후손으로, 아버지는 역학(易學)으로 이름이 높았던 괴산군수(槐山郡守) 이득윤(李得胤)이며, 어머니는 옥구장씨(沃溝張氏) 의서습독관(醫書習讀官) 장징(張徵)의 딸이다. 청주(淸州)가 세거지(世居地)이다. 김집(金集)의 문인이며, 송시열(宋時烈)과도 교유를 가졌다.

### 생애 및 활동사항

1615 년(광해 7) 성균(成均) 진사시에 2 등으로 합격하였으나 벼슬에 나아가지는 않았다. 1644 년(인조 22) 57 세 때 비로소 성현(省峴) 찰방(察訪)에 부임하였으나 모친상으로 곧 사직하였다.

대개 60 세 이후로는 향인(鄉人)들에 의해 도훈장(都訓長)·산장(山長)<sup>주 07)</sup>에 추천되어 후진 양성에 힘썼다. 이홍유의 조부 이잠(李潛) 이하 4 대가 모두 성균진사로서 산당의 임무를 맡았던 교육자의 가문이며, 특히 조부와 부친은 청주의 신흥서원(莘巷書院)에 제향되었다.

1770 년(영조 46)에 장악원(掌樂院) 정(正)에 증직(贈職)되었다. 『둔헌집(遜軒集)』 4 권 2 책이 있으며, 1890 년(고종 27)에 개간(開刊)되었다.

**양일당정효통문** 송정십구년병술. 발문. 홍희중. 즉공지소서야. **養一堂旌孝通文** 崇禎十九年丙戌。發文。洪熙中。卽公之所著也

**14세 지익(之益) 父 : 로(櫓)      祖父 : 천령(千齡)      귀파(龜派)      직장공파(直長公派)**

洞內居幼學申鋏。乃純孝之人也。早喪其父。塋祭居喪。盡其誠。奉養偏母。極其孝。母有宿疾。至於氣絕。號泣禱天。斷指出血。以爲藥餌。卽見復甦。厥疾向愈。食<sup>P</sup>飲。專未求得滋味。憫泣彷徨。忽有小鶻擊雉於籬下。得以供其母。此誠暗合於黃雀入幕之孝。至誠動天。驗明古今。此人無學問知識。而天賦之性。純實無假。年幾三十。未有室家。家業板蕩。窮困無賴。而奉親之誠。愈篤不衰。一時斷指。乃其餘事也。又有鋏之季父前參奉<sup>申之益</sup>。事親至孝。極其誠養。當其母病危急。燃炷掌中。達夜祈天。斷其手指。以爲藥餌。及其不救。哀毀過節。吐血成疾。時時頓絕。而不脫經帶。以盡禮制。凡在瞻聆。莫不敬歎。而

天道無知。使此人無後。神者誠之難測。而理者不可推也。及其晚年。取伯兄子 P 鐔爲後。鐔之爲人。素性峻雅。愛親之誠。行身之道。可以爲後於厥叔。而不墜其家行者也。粵在丙子之亂。與其父母。避兵山中。猝遇賊兵。白刃交下。而以身衛其父母。血泣號天。賊兵相顧叫噪而退去。於此可見其誠孝之感戎虜也。又當其所生母疾篤之際。斷其指而和之藥。至於事其養父母之誠。無間於所生父母。此實趾美於家庭。而聳動乎瞻聽者也。噫孰非人子。孰不奉親。奉親而能盡誠孝者。千百中一人。而今於申之門。能盡誠孝者。有三於一家。則是固前古之所罕聞。而隣里之所共嘆也。若能撰次三人之行。轉 P 報方伯。升於禮部。至有旌表之舉。則豈惟鄰里之彰善。實國家明教化之一端。誠願約所君子將此緣由報于城主。以樹風化。如何如何。

表兄洪公省吾氏撰子之行報于牧伯使之轉申于方岳計其日子之名宇想已微聞於聖聰矣褒崇之典倘及於重泉則以子謙讓之心雖不自居其於觀風教感人心實不淺淺矣子其知也耶不知也耶情不可極言不能盡一孟菲莫萬行哀淚嗚呼痛哉尚饗

養一堂旌孝通文 崇禎十九年丙戌 菴文 洪熙 中卯公之所著也

洞內居幼學申欽乃純孝之人也早喪其父塋祭居喪盡其誠奉養偏母極其孝母有宿疾至於氣絕號泣禱天斷指出血以爲藥餌即見復甦厥疾向愈食飲專末並得滋味惘泣彷徨忽有小鶻擊雉於籬下得以供其母此誠暗合於黃雀八幕之孝至誠動天驗明古今此人無學問知識而天賦之性純實無假年幾三十未有室家家業板蕩窮困無賴而奉親之誠愈篤不衰一時斷指乃其餘事也又有缺之季父前叅奉申之益事親至孝極其誠養當其母病危急燃炷掌中達夜祈天斷其手指以爲藥餌及其不救哀毀過節吐血成疾時時頓絕而不脫經帶以盡禮制危在瞻矜莫不敬歎而天道無知使此人無後神者誠之難測而理者不可推也及其晚年取伯兄子

遯軒集 卷一

## 망우선생문집(忘憂先生文集)

### 형태서지

권수제	망우선생문집(忘憂先生文集)
판심제	忘憂集
간종	목판본(木版本)
간행년	1629 年頃刊
권책	世系, 年譜, 傳, 原集 2 권, 龍蛇別錄 합 1 책
행자	12 행 24 자
규격	23.2×18.7(cm)
어미	上下二葉花紋魚尾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도서번호	奎 1364
총간집수	한국문집총간 58

### 저자

성명	곽재우(郭再祐)
생년	1552 년(명종 7)
몰년	1617 년(광해군 9)
자	계수(季綏)
호	망우(忘憂)
본관	현풍(玄風)
시호	충익(忠翼)
특기사항	조식(曹植)의 문인이자 외손서(外孫婿). 이덕형(李德馨)과 증유(從遊)



행력

왕력		서기	간지	연호		연령	기사
명종	7	1552	임자	嘉靖	31	1	8월 28일, 宜寧 世干里 외가에서 태어나다.
명종	9	1554	갑인	嘉靖	33	3	1월, 모친상을 당하다.
명종	20	1565	을축	嘉靖	44	14	「春秋」를 공부하다.
명종	22	1567	정묘	隆慶	1	16	尙州金氏와 혼인하다.
선조	2	1569	기사	隆慶	3	18	宜寧 世干里에 집을 짓고 살다. 학문하는 여가에 射御書數를 익히고 兵家書를 통독하다.
선조	7	1574	갑술	萬曆	2	23	義州 府使로 가는 부친을 따라가 2년간 머물다.
선조	11	1578	무인	萬曆	6	27	가을, 冬至使로 북경에 가는 부친을 따라가다.
선조	18	1585	을유	萬曆	13	34	〈唐太宗教射殿庭論〉으로 庭試에 합격하였으나 語意의 문제로 罷榜되다.
선조	19	1586	병술	萬曆	14	35	8월, 부친상을 당하다. 新堂洞에서 여묘살이하다.
선조	22	1589	기축	萬曆	17	38	복을 마치자 과거 공부를 그만두고 宜寧의 歧江 遯地에 정자를 짓고 일생을 보내려 하다.
선조	25	1592	임진	萬曆	20	41	4월, 왜적이 침입하자 義兵을 일으켜 ‘天降紅衣將軍’이라고 揭號하다. ○ 감사 金晬가 勤王을 핑계로 달아나자 斬해야 한다는 격문을 돌리고 行朝에 상소하다. ○ 상이 특별히 유시를 내려 褒獎하고, 幽谷察訪 兼 刑曹正郎에 제수하다. ○ 10월, 折衝將軍에 올라 助防將이 되다.
선조	26	1593	계사	萬曆	21	42	4월, 星州 牧使가 되다. ○ 5월, 중국 총병 劉綎이 성주의 八疇縣에 주둔하자 肄習領將으로 왕래하다. ○ 6월, 부인 김씨의 상을 당하다.
선조	27	1594	갑오	萬曆	22	43	성주 목사로서 조방장을 겸하다. 山城의 수축에 전념하다. ○ 忠勇將軍 金德齡이 협력을 원하여 호남에서 군사를 거느리고 宜寧으로 와서 모이다. ○ 12월, 晉州 牧使가 되다.
선조	28	1595	을미	萬曆	23	44	가을, 벼슬을 그만두고 돌아가다.
선조	29	1596	병신	萬曆	24	45	玄風 嘉泰里에서 지내다.
선조	30	1597	정유	萬曆	25	46	防禦使로서 玄風의 石門山城을 새로 쌓다. ○ 8월, 昌寧의 火旺山城으로 옮겨 지키다. 적장 清正이 왔다가 물러나다. ○ 8월, 繼母 許氏가 성 안에서 졸하자 성을 나가 玄風 嘉泰里 琵琶山麓에 장사 지내고, 강원도 蔚珍縣으로 避地하다. ○ 상이 특명으로 起復을 명하였으나 상소하고 응하지 않다.

망우선생문집(忘憂先生文集) 곽재우(郭再祐)

선조	32	1599	기해	萬曆	27	48	10 월, 경상 좌병사가 되다.
선조	33	1600	경자	萬曆	28	49	2 월, 島山城의 수축을 계청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상소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다. 이 일로 대간의 탄핵을 받아 靈巖郡에 付處되다.
선조	35	1602	임인	萬曆	30	51	석방되어 琵琶山으로 들어가 솔잎만 먹고 살다. ○ 靈山 滄巖에 가서 江亭을 짓고 ‘忘憂’라 편액하다.
선조	37	1604	갑진	萬曆	32	53	2 월, 察理使가 되어, 仁同의 天生山城을 수축하다. ○ 5 월, 善山 府使가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 병으로 察理使를 사직하다. ○ 11 월, 龍驤衛 上護軍이 되다.
선조	38	1605	을사	萬曆	33	54	2 월, 동지중추부사가 되다. ○ 3 월, 察理使로 召命을 받고 상경하다. 곧 한성부 우윤이 되다. 얼마 후 병으로 사직하고 滄巖 江亭으로 돌아오다.
선조	39	1606	병오	萬曆	34	55	5 월, 전라 병사가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선조	40	1607	정미	萬曆	35	56	1 월, 鄭述와 張顯光이 내방하다. ○ 5 월, 道流를 창도한다는 이유로 대간의 탄핵을 받다.
선조	41	1608	무신	萬曆	36	57	7 월, 경상 좌병사가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 9 월, 상소하여 臨海君의 죄를 바루도록 청하다.
광해군	1	1609	기유	萬曆	37	58	3 월, 경상 우수사가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광해군	2	1610	경술	萬曆	38	59	윤 3 월, 召命에 나아가지 않고 <中興三策疏>를 올린다. ○ 6 월, 召命을 받고 상경하다. ○ 7 월, 부총관이 되고, 이어 한성부 좌윤, 함경 감사가 되다. ○ 9 월, 江亭으로 내려가다. 선전관이 忠州, 伽倻山 海印寺까지 내려왔으나 병을 이유로 나아가지 않다. 해인사 百鍊菴에 몇 달 머물다.
광해군	4	1612	임자	萬曆	40	61	11 월, 鄭仁弘이 등용을 건의하다.
광해군	5	1613	계축	萬曆	41	62	4 월, 전라 병사가 되다. 이때 조정 신하들이 永昌大君을 죽이도록 청하자 죽음을 무릅쓰고 상소하여 그 부당성을 말하다. 이 일로 사직하게 되다.
광해군	8	1616	병진	萬曆	44	65	10 월, 掌隸院 判決事가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광해군	9	1617	정사	萬曆	45	66	4 월 10 일, 즐하다. 玄風 嘉泰里에 返殯하다. 광해군이 致祭하고 傳을 짓도록 명하다. ○ 8 월, 玄風 仇知山 新堂洞 선영에 장사 지내다. ○ 가을, 知製教 裴大維가 傳을 지어 史院으로 보내다.
광해군	10	1618	무오	萬曆	46	-	고을 사람들이 祠宇를 세워 ‘忠賢祠’라 하다.
인조	7	1629	기사	崇禎	2	-	從子 郭瀏, 郭灑 등이 문집을 초간하다.(郭瀏의 跋)
현종	15	1674	갑인	康熙	13	-	玄風 縣監 柳千之가 書院을 세우다. 3 년 후 ‘禮淵書院’으로 사액되다.

숙종	35	1709	기축	康熙	48	-	병조판서 겸 지의금부사에 추증되고, ‘忠翼’의 시호를 받다.
영조	27	1751	신미	乾隆	16	-	禮淵書院 앞에 神道碑를 세우다.(權愈 撰)
영조	47	1771	신묘	乾隆	36	-	후손 郭鎭南 등이 문집을 중간하다.(金思渾의 跋)

### 편찬및간행

저자의 시문을 처음 정리한 것은 사위 成以道였다. 그는 유문을 수집, 편차하여 2 권으로 만들었는데, 소략하고 착오가 많았다. 이것을 문제로 여겨 從子 郭瀏와 郭灑 등이 유문을 增補하고 권수에 傳을, 권말에 祭文과 挽詞를 붙여 1629 년에 2 권 1 책으로 편차를 마쳤다. 이는 중간본에 붙어 있는 郭瀏의 발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여기에 간행에 관한 언급은 없어 이때 실제 간행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현전하는 2 권 1 책의 판본이 이 정고본을 판각, 새출한 것으로 추측된다. 《초간본》 현재 규장각(奎 1364), 국립중앙도서관(한 44-가 146) 등에 소장되어 있다.

그 뒤 1636 년경 저자의 외손 辛時望이 연보를 새로 만들고 趙任道の 考訂을 받았으며, 1751 년에 신도비를 세웠는데 대제학 權愈가 신도비명을 썼다.

1771 년에는 후손 郭鎭南 등이 초간본에 누락된 저자의 시문을 후손의 家藏, 古家의 藏書 등에서 널리 찾아 補輯하고, 朝野史나 名臣錄, 여러 文集 등에서 저자의 행적을 뽑아 舊譜와 辛時望이 만든 年譜를 참작하여 새로 연보를 만들어서 권수에 두고, 조정의 褒崇 문자와 諸賢의 詞章을 권말에 편차하여 5 권 3 책으로 정리하였다. 이것은 저자와 가까웠던 金命元의 후손 金思渾이 宜寧 縣監으로 나오면서 그의 도움을 받아 진행된 일이고, 결국 중간본으로 간행될 수 있었다. 《중간본》 현재 규장각(古 3428-755), 장서각(4-5976), 성암고서박물관(4-632) 등에 소장되어 있다.

이 밖에 5 권 4 책의 중간본이 있는데, 이것은 중간본에 倡義錄 1 책이 합본된 것이다. 현재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본서의 저본은 1629 년경 간행된 초간본으로 규장각장본이다.

序(許穆 撰), 跋(郭瀏, 金思渾 撰) 등에 의함

### 구성과내용

본 문집은 世系, 年譜, 傳, 原集 2 권, 龍蛇別錄 합 1 책으로 되어 있다.

맨 앞에 세계와 연보가 실리고, 그 뒤에 왕명으로 裴大維가 지은 傳이 실려 있다.

권 1 은 임진년에 義兵을 일으킨 이후 1604 년 察理使 재임 시까지 지은 疏, 上書, 啓辭 등이 연대순으로 편차되어 있고, 비변사의 關文, 金德齡의 書, 有旨 등이 부기되어 있다. <倡義時自明疏>나 招諭使 金誠一에게 보낸 편지는 경상 감사 金晬가 勤王을 이유로 도망간 일과 관련하여 지은 글들이고, <答金將軍書>는 金德齡이 연합을 제의한 데 대한 것이다.

그 외에 起復을 사양하는 疏, 島山城의 수축을 청하는 啓草, 兵使 때 사직하는 소, 察理使로서 仁同의 天生山城 수축과 관련하여 올린 狀啓 등이 실렸다.

권 2 는 1605 년 이후 지은 疏, 論, 書, 詩이다. 1608 년(무신)과 1610 년(경술)에 내린 召命과 이를 사양하는 疏, 1613 년 永昌大君의 죽음과 관련하여 올린 소가 실려 있다. 또 <張浚論>은 남송 때 金人의 침략을 물리쳐 공을 세웠던 장준에 관해 논한 글이다. 그 외에 사위 成以道를 권면하는 편지와 滄巖의 江亭을 李道純에게 물려주면서 보낸 편지가 실려 있다. 詩는 <歸江亭>, <咏懷> 등 대부분 江亭 생활을 읊은 것으로, 오언과 칠언의 절구와 율시이다. 부록으로 李垞, 金永暉, 李德馨 등의 投贈詩 8 題, 書簡 2 篇, 賜祭文 1 篇, 申之悌, 郭永禧, 安瓊 등이 지은 祭文 7 篇, 河愷, 成以道, 裴弘祐 등이 지은 挽詞 12 篇, 建祠時呈書, 都事金鑑移關이 실려 있다.

龍蛇別錄은 저자의 왜란 때 의병 활동과 일화, 왜란의 추이 등을 간략히 기록한 것으로, 1592 년 4 월과 7 월, 1593 년 4 월과 6 월, 1594 년, 1597 년의 기록이다.

## 곽재우(郭再祐)

### 정의

조선시대 임진왜란 당시 진주성전투, 화왕산성전투에 참전한 의병장.

### 요약문

곽재우는 조선시대 임진왜란 당시 진주성전투, 화왕산성전투에 참전한 의병장이다. 1552년(명종 7)에 태어나 1617년(광해군 9)에 사망했다. 34세 때 과거에 합격했으나 지은 글이 왕의 뜻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자 평생 은거할 결심을 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관군이 대패하자 의병을 일으켜 뛰어난 통솔력과 전법으로 수많은 전과를 올렸다. 붉은 옷을 입고 의병을 지휘하며 스스로 홍의장군이라 했다. 조정에서 여러 차례 벼슬을 내렸으나 거듭 고사하여 은거의 결심을 버리지 않았다. 시문에도 능하여 저서로 『망우당집』을 남겼다.

### 개설

본관은 현풍(玄風). 자는 계수(季綏), 호는 망우당(忘憂堂). 경상남도 의령 출신.

곽위(郭瑋)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부사(府使) 곽지번(郭之藩), 아버지는 황해도관찰사 곽월(郭越), 어머니는 진주강씨(晉州姜氏)이다. 조식(曹植)의 외손서이며, 김우옹(金宇顥)과는 동서 사이이다.

### 생애 및 활동사항



1585년(선조 18) 34세의 나이로 별시(別試)의 정시(庭試) 2등으로 뽑혔다. 그러나 지은 글이 왕의 뜻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발표한 지 수일만에 전방(全榜)을 파해 무효가 되었다.

그 뒤, 과거에 나갈 뜻을 포기하고 남강(南江)과 낙동강의 합류 지점인 기강(岐江)<sup>주 01)</sup> 위 돈지(澗池)에 강사(江舍)를 짓고 평생을 은거할 결심이었다.

그러나 그 곳에 머문 지 3년 만인 1592년 4월 14일에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관군이 대패하자, 같은 달 22일에 의병을 일으켜 관군을 대신해 싸웠다. 그 공으로 같은 해 7월에 유곡찰방(幽谷察訪)에, 곧 이어 형조정랑에 제수되었다.

10월에는 절충장군(折衝將軍)에 승진해 조방장(助防將)을 겸했다. 이듬해 12월 성주목사에 임명되어 삼가(三嘉)의 악건산성(岳堅山城) 등 성지(城池) 수축에 열중하다가 1595년 진주목사로 전근되었으나 벼슬을 버리고 현풍 가태(嘉泰)로 돌아왔다.

1597년 명나라와 일본간에 진행되던 강화 회담이 결렬되고 일본의 재침이 뚜렷해지자, 조정의 부름을 받고 다시 벼슬에 나아가 경상좌도방어사로 현풍의 석문산성(石門山城)을 신축했다. 그러나 그 역(役)을 마치기도 전에 왜군이 침입해 8월 창녕의 화왕산성(火旺山城)으로 옮겨 성을 수비했다.

그 뒤 계모 허씨가 사망하자 성을 나와 장의를 마친 뒤, 벼슬을 버리고 울진으로 가서 상을 입었다. 1599년 다시 경상우도방어사에 임명되었으나 상중임을 구실로 나가지 않았다.

그해 9월 경상좌도병마절도사에 제수되었으나 10월에 이르러서야 부임하였고, 이듬해 봄에는 병을 이유로 벼슬을 버리고 귀향했다. 이 문제로 사헌부의 탄핵을 받고 영암(靈巖)으로 귀양갔다가 2년 만에 풀려났다.

그 뒤 현풍 비슬산(毘瑟山)에 들어가 곡식을 금하고 솔잎으로 끼니를 이어가다가, 영산현(靈山縣) 남쪽 창암진(滄巖津)에 강사를 짓고 망우정(忘憂亭)이라는 현판을 걸고 여생을 보낼 설계를 세웠다.

그러나 다시 조정의 부름을 받고 거절할 수 없어 1604년(선조 37) 찰리사(察理使)가 되어 인동(仁同)의 천생산성(天生山城)을 보수했다. 이어 선산부사로 임명되었으나 나가지 않고 찰리사라는 벼슬마저 사퇴했다.

곧, 안동부사에 임명되었으나 역시 나가지 않았고, 그해 10월 절충장군용양위부호군(折衝將軍龍驤衛副護軍)에 제수되고, 다음달 가선대부용양위상호군(嘉善大夫龍驤衛上護軍)로 승진했다.

그 뒤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한성부우윤을 역임하고, 1608년(광해군 즉위년)에 다시 경상좌도병마절도사-용양위부호군을 거쳐 이듬해 경상우도병마절도사-삼도수군통제사에 제수되었으나 나가지 않았다.

1610년 광해군의 간청으로 서울에 올라가 호분위(虎賁衛)의 부호군, 호분위의 대호군(大護軍) 겸 오위도총부의 부총관(副摠管)에 제수되었고, 이어 한성부좌윤에 임명되었으나 나가지 않았다. 이에 함경도관찰사로 바꾸어 발령했다.

1612년(광해군 4) 전라도병마절도사에 임명되었으나 병을 칭탁하고 나가지 않았으며, 이듬해 영창대군(永昌大君)을 신구(伸救)하는 소를 올리고 낙향했다. 1616년 창암강사에서 장례원판결사(掌隸院判決事)를 제수받았으나 역시 나가지 않고, 이듬해 죽었다.

의병 활동 초기에는 의령의 정암진(鼎巖津)<sup>주 02)</sup>과 세간리(世干里)에 지휘 본부를 설치하고 의령을 고수하는 한편, 이웃 고을인 현풍·창녕·영산·진주까지를 작전 지역으로 삼고 유사시에 대처했다.

스스로 '천강홍의장군(天降紅衣將軍)'이라 하여 적군과 아군의 장졸에게 위엄을 보이고, 단기(單騎)로 적진에 돌진하거나 의병(疑兵)<sup>주 03)</sup>을 구사해 위장 전술을 펴서 적을 직접 공격했다. 그리고 유인해 매복병으로 하여금 급습을 가한다든가, 유격전을 펴서 적을 섬멸하는 전법을 구사했다.

수십 인으로 출발한 의병은 2,000 인에 이르는 큰 병력을 휘하에 가질 수 있었으며, 그 병력을 바탕으로 많은 전공을 세웠다. 1592년 5월 하순경 함안군을 완전 점령하고 정암진 도하작전을 전개한 왜병을 맞아 대승을 거둠으로써, 경상우도를 보존해 농민들로 하여금 평상시와 다름없이 경작할 수 있게 했다. 왜군의 진로를 차단해 계획한 호남 진출을 저지할 수 있었다.

또한, 기강을 중심으로 군수 물자와 병력을 운반하는 적선을 기습해 적의 통로를 차단하는 데 크게 기여했으며, 현풍·창녕·영산에 주둔한 왜병을 공격해 물리쳤다. 그해 10월에 있었던 김시민(金時敏)의 1차 진주성 전투에는 휘하의 의병을 보내서 승리로 이끄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

정유재란 때는 밀양·영산·창녕·현풍 등 네 고을의 군사를 이끌고 화왕산성을 고수해 왜장 가토[加藤清正]의 접근을 막았다.

필체가 웅건, 활달했고 시문에도 능했다. 묘지는 현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신당리에 있다. 죽은 뒤에 사우(祠宇)에 '예연서원(禮淵書院)'이라는 사액이 내려졌고, 1709년(숙종 35) 병조판서 겸 지의금부사(兵曹判書兼知義禁府事)가 추증되었다.

저서로는 『망우당집』이 있다. 시호는 충익(忠翼)이다. 문화체육부가 제정한 1995년 12월의 '문화의 인물'로 선정되었다.

卷之二 / [附錄]

제문 [신지제] 祭文 [申之梯]

14世 지제(之梯) 父 : 몽득(夢得) 祖父 : 응규 (應奎) 귀파(龜派)오봉공파(梧峰公派)

惟靈。山岳孕秀。江河炳靈。宏材偉器。間世挺生。詩禮之庭。承訓獨立。函丈之門。薦賢三復。埋光鑿彩。博帶褒衣。國有誠臣。世亂方知。但茲寇至。肉食多鄙。倡義恢邦。自公伊始。大樹謙虛。馮異不誇。雲臺煙閣。衛霍何多。鷄鶻異態。牛驥同視。忠謀謂迂。直言歸異。任人榮辱。由己進退。初托頤養。寔欲韜晦。惟 洛之涯。有亭蕭然。揭扁忘憂。餐松學仙。煙花漁釣。從我所好。超世高尚。永矢弗告。聖主旁招。禮遇殊隆。時非不遇。公實難容。卿月昇掌。客星還山。華陽鶴斃。碩人之寬。顧瞻終始。誠不區區。其行其止。一大丈夫。曩日雷霆。合沓風雨。振蕩山海。砉礮宇宙。俄聞長逝。卽在是日。想像精英。有感冥漠。忠疏義檄。留在人間。讀之令人。豎髮摧肝。自蒙傾蓋。金石青燐。作宰南來。忝近門屏。清齋夜月。桂棹春波。酌以流霞。喫以瓊麻。屢接清塵。消我吝萌。警欵在耳。已限幽明。過候之日。是爲永訣。負恨平生。病未執紼。今斯辦香。聊薦菲薄。不昧猶存。庶幾來格。



## 매산선생문집(梅山先生文集)

## 형태서지

권수제	매산선생문집(梅山先生文集)
판심제	매산집(梅山集)
간종	목판본(木版本)
간행년	1790년 간행
권책	12권 6책
행자	10행 20자
규격	22.6×17.1(cm)
어미	上下二葉花紋魚尾
소장처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도서번호	만송D1-A1914
총간집수	한국문집총간 속 67

## 저자

성명	정중기(鄭重器)
생년	1685년(숙종 11)
몰년	1757년(영조 33)
자	도옹(道翁)
호	매산(梅山), 양소(良巢)
본관	영일(迎日)
특기사항	정규양(鄭葵陽)의 문인. 이광정(李光庭), 권만(權萬) 등과 교류



행력

왕력		서기	간지	연호		연령	기사
숙종	11	1685	을축	康熙	24	1	2월 22일, 永川郡 仙源里에서 태어나다.
숙종	21	1695	을해	康熙	34	11	여름, 鄭葵陽과 經傳을 논란하다. ○ 8월, 정규양에게 수학하다.
숙종	27	1701	신사	康熙	40	17	봄, 李玄逸을 방문하여 조부의 묘갈을 받다.
숙종	28	1702	임오	康熙	41	18	가을, 冠禮를 행하다.
숙종	29	1703	계미	康熙	42	19	봄, 정규양을 방문하다.
숙종	30	1704	갑신	康熙	43	20	義城金氏 金邦謙의 딸과 혼인하다.
숙종	34	1708	무자	康熙	47	24	가을, 權斗寅을 방문하여 鄭世雅의 行狀을 청하다. ○ 易東書院, 尙德祠, 愛日堂, 三溪書院 등을 유람하고 정규양을 방문하다.
숙종	35	1709	기축	康熙	48	25	봄, 橫溪의 高山書堂에서 독서하다. ○ 가을, 烏川書院을 방문하다.
숙종	36	1710	경인	康熙	49	26	가을, 경주를 유람하다.
숙종	37	1711	신묘	康熙	50	27	가을, 義契를 설립하다.
숙종	41	1715	을미	康熙	54	31	봄, 생원시 회시에 합격하다.
숙종	45	1719	기해	康熙	58	35	5월, 모친상을 당하다. ○ 12월, 장남 鄭一鑑이 태어나다.
숙종	46	1720	경자	康熙	59	36	11월, 부친상을 당하다.
경종	3	1723	계묘	雍正	1	39	부친의 유고를 편차하다.
경종	4	1724	갑진	雍正	2	40	3월, 季子 鄭一鑽이 태어나다.
영조	2	1726	병오	雍正	4	42	봄, 梅谷에 別墅를 짓다.
영조	3	1727	정미	雍正	5	43	2월, 增廣東堂試에 장원하다. ○ 3월, 회시에 장원하다. ○ 가을, 陶淵의 瓢隱祠를 방문하다.
영조	4	1728	무신	雍正	6	44	무신란이 일어나자 檄文을 짓고 의병을 일으키다. ○ 가을, 迎日의 先壇, 烏川書院을 방문하다. ○ 12월, 승문원 권지부정자가 되다.
영조	5	1729	기유	雍正	7	45	봄, 鶴城을 유람하고 鷗江의 二賢祠를 방문하다. ○ 가을, 가솔을 이끌고 선원리 옛집으로 돌아오다. ○ 부친의 行錄을 짓고 정규양에게 행장을 청하다.
영조	6	1730	경술	雍正	8	46	7월, 鄭萬陽을 곡하다.
영조	7	1731	신해	雍正	9	47	5월, 史官으로 어가를 따라 南壇에서 기우제를 지내다. ○ 江華 鎮海樓, 驪州 淸心樓를 방문하다. ○ 6월, 가주서로 입시하여 長陵 遷葬時의 복제를 논하다. ○ 8월, 부정자가 되다. ○ 11월, 정자가 되다.

매산선생문집(梅山先生文集) 정중기(鄭重器)

영조	8	1732	임자	雍正	10	48	1월, 저작이 되다. ○ 6월, 박사가 되다. ○ 7월, 정규양을 곡하다. ○ 11월, 봉상시 직장이 되다. ○ 12월, 박사가 되다.
영조	9	1733	계축	雍正	11	49	3월, 영남 유생들과 상소하여 朴文秀, 趙顯命을 논박하다. 전적이 되다. ○ 6월, 예조 좌랑이 되다. ○ 9월, 예조 정랑이 되다. ○ 10월, 全羅道 都事가 되다.
영조	10	1734	갑인	雍正	12	50	2월, 橫溪에 가서 정만양과 정규양 유집의 편차를 議定하다. ○ 6월, 영남 유생들과 상소하여 權慄을 논박하다. ○ 8월, 사직하다. 「南征錄」을 편찬하다.
영조	11	1735	을묘	雍正	13	51	가을, 「性理群書」, 「二程全書」를 읽다. ○ 鄭榦과 함께 「墳簾錄」을 편찬하다.
영조	14	1738	무오	乾隆	3	54	2월, 장남 정일감을 곡하다.
영조	16	1740	경신	乾隆	5	56	가을, 가솔을 이끌고 매곡의 별서로 가다.
영조	17	1741	신유	乾隆	6	57	7월, 병조 좌랑이 되다.
영조	18	1742	임술	乾隆	7	58	2월, 結城 縣監이 되다. ○ 7월, 사직하다.
영조	19	1743	계해	乾隆	8	59	3월, 高山社에서 「훈지록」을 교정하다. ○ 12월, 「烏川世稿」 3권을 편수하다.
영조	20	1744	갑자	乾隆	9	60	겨울, 「家禮或問」을 편찬하다.
영조	21	1745	을축	乾隆	10	61	여름, 정규양의 행장을 짓다.
영조	22	1746	병인	乾隆	11	62	봄, 「朱書節要集解」 8권 4책을 편찬하다.
영조	24	1748	무진	乾隆	13	64	2월, 梧麓書堂을 완성하다.
영조	26	1750	경오	乾隆	15	66	봄, 「改葬備要」를 改整하다. ○ 여름, 「禮記考誤」를 완성하다.
영조	27	1751	신미	乾隆	16	67	3월, 「疑禮通考」를 편찬하다. ○ 「潛窩崔公實紀」를 편찬하다. ○ 咸鏡道 都事가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영조	28	1752	임신	乾隆	17	68	1월, 「師門禮書」를 편찬하다. ○ 3월, 병조 좌랑이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 8월, 「家禮輯要」 6권 3책을 완성하다. ○ 11월, 정언이 되다. ○ 12월, 숙배하지 않아 拿囚되다.
영조	29	1753	계유	乾隆	18	69	1월, 지평이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 6월, 「圃隱集」 續集을 편찬하다.
영조	30	1754	갑술	乾隆	19	70	8월, 정언이 되다. ○ 9월, 이조 좌랑이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영조	31	1755	을해	乾隆	20	71	정언이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영조	32	1756	병자	乾隆	21	72	1월, 첨지중추부사가 되다. ○ 여름, 「魯岑遺稿」를 교정하다. ○ 윤 9월, 장례원 판결사, 형조 참의가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 李光庭을 곡하다. ○ 겨울, 「孫景節公實紀」를 교정하다.

영조	33	1757	정축	乾隆	22	73	7월 8일, 졸하다.
영조	34	1758	무인	乾隆	23	-	1월, 雲住山 新昉洞에 장사 지내다.
정조	14	1790	경술	乾隆	55	-	목판으로 문집이 초간되다.
철종	4	1853	계축	咸豐	3	-	「가례집요」가 간행되다.
고종	22	1885	을유	光緒	11	-	「주서절요집해」가 간행되다.
-	-	1966	병오	-	-	-	석판으로 문집이 중간되다.
-	-	1967	정미	-	-	-	별집이 간행되다.

## 편찬및간행

저자는 「家禮輯要」, 「朱書節要集解」 등을 비롯한 많은 저술을 남겼으며, 스승 鄭葵陽의 여러 저술을 교정 편찬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저자 사후 저자의 차남 鄭一鑽은 저자의 유고를 정리하여 1775년 李象靖에게 교감을 청하는 한편 행장의 찬술을 부탁하였다. 그리고 1796년 저자의 손자 鄭夏澗이 부친의 명에 따라 李家煥에게 서문을 요구하였으며, 1797년 저자의 曾孫 鄭麟休가 鄭宗魯에게 발문을 청하였다. 그런데 정종로의 발문에 따르면 정인휴가 인쇄된 문집과 부록을 보여주었다고 하였으므로, 문집의 간행은 이에 앞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연보에 따르면 문집은 1790년에 간행되었다고 하는데, 같은 해 저자의 부친 鄭碩達의 「涵溪集」도 함께 간행되었다. 정일찬이 우선 문집을 목판으로 간행한 뒤 이를 바탕으로 序跋과 附錄을 덧붙일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초간본》이 본은 현재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만송 D1-A1914), 국립중앙도서관(한 46-가 1075)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811.98/정중기/매-판) 등에 소장되어 있다.

그런데 1822년 경상도 관찰사로 부임한 金相休가 초간본에 李玄逸을 推尊하는 말이 있다는 이유로 판목을 훼손하고 문집을 소각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로 인해 문집 중간의 필요성이 누차 제기되었으나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결국 저자 사후 2백여 년이 흐른 1966년에 와서야 초간본의 권차를 재편하여 原集 8권 4책으로 엮고, 초간본에 누락된 詩文과 年譜, 附錄을 續集 4권 2책으로 엮어 石板으로 인행하였다. 《중간본》이 본은 현재 국립중앙도서관(古 3648-文 70-302), 성균관대학교 존경각(D3B-2010) 등에 소장되어 있다. 연보에 따르면 중간본을 간행한 이듬해 「長陵遷葬日記」와 「南征錄」을 2권 1책으로 엮어 別集으로 간행하였다 하나 현전 여부는 미상이다.

본서의 저본은 저자의 차남 鄭一鑽이 수집 편차하여 李象靖의 교감과 永川士林의 협조를 받아 1790년 저자의 부친 鄭碩達의 「涵溪集」과 함께 목판으로 간행한 후, 1797년 鄭宗魯의 발문을 追刻하여 印頒한 초간본으로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장본이다. 본 영인저본 중 권 7의 제 13 판은 상태가 불량하여 동일본인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장본으로 대체하였고, 권 8의 제 37 판과 제 38 판은 錯簡되어 있어 이를 바로 잡았다.

跋(鄭宗魯 撰), 序(李家煥 撰, 重刊本), 年譜(重刊本), 李彙載墓誌銘(重刊本 卷 12), 識(鄭華植 撰, 重刊本) 등에 의함

## 구성과내용

본집은 12권 6책으로 되어 있다.

권 1~2는 詩(235題)이다. 권 1에 1700년부터 1732년까지의 시 101제, 권 2에 1733년부터 1757년까지의 시 134제가 실려 있다. 영남 일대를 배경으로 승경을 읊거나 친지들과 수창한 시가 대부분이다. 이 중 <花山紀行>은 1708년 안동을 유람하고 지은 260구의 장편 오언고시이며, <永州七勝吟> 7수, <梧麓書堂雜詠> 18수, <山水亭雜詠> 12수 역시 영천 일대의 승경을 소재로 삼은 연작시이다. 記文이 詩序의 형식으로 실려 있다. 이 밖에 高山書堂, 烏川書院, 曲江書院, 橫溪書堂, 臨臯書院, 霞谷書堂 등지에서 지은 시를 통해 저자의 강학활동을 파악할 수 있다.

권 3은 疏(6)이다.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킨 저자의 5대조 鄭世雅와 그의 아들 鄭宜藩의 추증과 정려를 청하는 상소, 戊申亂 이후 영남 지역의 동향을 우려한 朴文秀와 趙顯命의 발언을 문제삼는 상소, 영남인을 모욕하는 내용의 상소를 올린 전 경상 감사 權櫟을 논박하는 상소, 李徽逸을 배향한 寧海 仁山書院의 毀撤이 부당함을 역설하는 상소가 실려 있다.

권 4~7은 書(162)이다. 권 4에 46편, 권 5에 32편, 권 6에 34편, 권 7에 50편이 실려 있으며, 대부분 만년작이다. 권 4는 鄭葵陽, 李德壽, 李光庭, 權相一, 趙顯命, 宋寅明, 朴文秀, 吳光運, 申濂, 鄭儁, 宋命基, 趙守謙, 孫是椈, 李守綱, 張東載, 張大諠, 張大啓, 權蕢, 崔迪基, 尹鳳九, 金尙星, 趙明鼎, 趙載浩, 尹東度, 李彝章, 李成中에게 보낸 것이다. 이덕수, 이광정, 조현명, 송인명, 오광운에게 보낸 편지는 선조의 묘도 문자에 관한 내용이며, 김상성, 조명정, 조재호, 윤동도, 이이장, 이성중에게 보낸 편지는 이들이 경상도 관찰사로 부임하였을 때 올린 인사 편지이다.

권 5는 權萬, 李守恒, 鄭權, 朴成玉, 鄭玉에게 보낸 것이다. 권만에게는 장자 鄭一鑑과 子婦를 잃은 심정을 피력하였으며, 이수항에게는 「心經質疑」와 「朱書質疑」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善本을 구하고 간행을 의논하였다. 정권에게 보낸 편지에는 거취에 대한 조언, 선조의 문집과 묘도문자에 관한 의논, 疑禮에 대한 의견 등이 실려 있다.

권 6은 鄭梯, 權得中, 崔達濟, 權得銖, 尹東涵, 南泰普, 金聖鎔, 成憲祖, 鄭燁, 李猷遠, 李宜翰, 李台華, 金美仲, 宋履陽, 曹龍燮, 李行遠, 徐至淵, 李國裁, 李弘离, 曹龍錫, 金道昌에게 보낸 것이다. 저자가 편찬에 참여한 문집과 청탁을 받아 지은 시문에 관한 언급이 자주 보이는데, 예컨대 「墳簞兩先生文集」의 續集 간행, 橫溪 玉磣亭의 기문, 慶州 龍山書院의 齋室名, 경주 霞溪書舍의 기문, 「朱書刊補」의 교정 등에 대한 내용이 있다. 이 밖에 「家禮」의 내용과 疑禮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내용이 실려 있다.

권 7은 申龍起, 柳灝, 李象靖, 李憲默, 李世澤, 李光靖, 洪尙倫, 宋學濂, 崔宗謙, 金駟行, 족제 鄭重周와 鄭重稷, 증제 鄭重言, 아우 鄭重簞, 족질 鄭一珪, 재증질 鄭一鎭, 申龍慶, 아들 鄭一鑑과 鄭一鑽, 외손 申昌教, 蔚山の 士林, 鳴山の 宗中에 보낸 것이다. 대부분 의례에 관한 질문에 답하는 내용이며, 자제들에게 보낸 편지는 서울에서 벼슬하는 근황을 전하며 학문에 힘쓰기를 당부하는 내용이다.

권 8은 雜著(14)이다. <義契約文>은 저자의 同姓八寸이 작성한 仙源契約案의 서문으로, 제사를 비롯하여 각종 吉凶事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中月而禫說>은 「儀禮」 士虞禮에 보이는 “中月而禫”의 해석에 대한 논설로, 27개월만에 담제를 지낸다는 鄭玄의 주석이 옳다는 내용이다. <祥後始飲酒食肉說>은 상을 당한 뒤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는 시기에 대한 「禮記」 間傳과 喪大記의 상이한 기술 중 어느 것이 옳은지 논하는 내용이다. <對近思錄策>은 1727년 會試에서 제출한 對策으로, 근사록의 편찬 경위와 구성, 의미를 종합적으로 서술하였다. <永川義陣答安東義陣文>은 무신란 때 영천에서 의병을 일으킨 저자가 안동 의병과의 협조를 위해 보낸 글이다. <結城勝示各面文>은 저자가 결성 현감으로 재직시 향약을 시행하기 위해 작성한 지침으로, 節目 10조를 부기하였다. 이 밖에 服制, 正寢, 太極圖說에 관한 글 및 「心經」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묻는 策問이 실려 있다.

권 9는 序(2), 記(6), 跋(6), 上樑文(2)이다. 序는 저자가 편찬한 「朱子書節要集解」와 「家禮輯要」의 서문이다. 전자는 李滉의 제자들이 엮은 講錄, 宋時烈的 「朱子大全筭疑」, 李裁의 「朱書講錄刊補」 등을 참조하



여 5 책으로 엮은 책이며, 후자는 申義慶과 金長生の 「喪禮備要」, 丘濬의 「家禮儀節」을 바탕으로 그 오류와 편차를 바로잡고 鄭萬陽, 鄭葵陽 형제의 초고를 참고하여 1752년 편찬한 책이다. 記는 1737년에 지은 新寧의 賢阜書堂, 1752년 慶州 皇南리에 세운 晉陽河氏의 旌閭閣, 1753년 중수한 軍威의 詠歸亭과 澄心亭, 1757년 중수한 橫溪의 玉礪亭과 경주 霞溪書畵의 기문이다. 跋은 「永陽尹氏族譜」, 정만양과 정규양의 「改葬備要」, 吳光運이 지은 崔震立의 묘갈명, 金宗直의 「佔畢齋集」, 최진립의 「貞武公實紀」, 孫汝斗의 「魯岑遺稿」를 읽고 쓴 글이다. 상량문은 李藝를 제향한 울산 尙忠祠 및 熟經齋의 건립 경위를 밝힌 글이다.

권 10은 祝文(7), 祭文(38), 誄文(1)이다. 제문은 山川에 올리는 祈雨祭文, 高祖 鄭守藩의 追贈을 고하는 焚黃文, 丹丘鄉社에 임란의병장 李希龍, 權復興, 李文軫을 제향하는 奉安文, 靑湖書院에 柳時藩의 배향을 고하는 글, 그리고 李玄逸, 族兄 鄭來陽, 아우 鄭重禹, 고모부 李德祺, 孫是采, 曹善長, 金始鑣, 鄭萬陽, 鄭葵陽, 宗兄 鄭重祿, 申濂, 族父 鄭碩臨, 당숙 鄭碩朋, 삼증제 鄭重周, 孫世鐸, 족형 鄭夢陽, 재증제 鄭重學, 族嫂 仁川李氏, 妹壻 李命厚, 金聖鐸, 재증질 鄭一鎭, 朴枰, 權得重, 재증형 宋命基를 애도하는 글이다. 뇌문은 李槩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이다.

권 11은 墓誌銘(13), 墓碣銘(15)이다. 묘지명은 從叔 鄭碩祖, 9대조 鄭從韶, 堂叔 鄭碩祐, 權穆, 12대조 鄭光厚, 孫是構, 손시구의 처 安東權氏, 從妹夫 崔承祖, 妹夫 崔承裕, 族祖 鄭時衍, 당숙 鄭碩朋, 權尙敏, 權陸에 대한 것으로 모두 저자의 멀고 가까운 친척이다. 묘갈명은 權炆, 金應生, 柳湜, 고조 鄭守藩, 崔震立의 처 瑞山柳氏, 權得輿, 鄭時欽, 金元鉉, 孫遜, 安后靜, 崔南斗, 孫光暉, 辛致寬, 孫汝奎, 孫宗老에 대한 것이다.

권 12는 行狀(7), 傳(2)이다. 행장은 族曾祖 鄭好信, 伯從祖 鄭時相, 叔祖 鄭時僑, 6대조 鄭允良, 종형 鄭重祿, 족증조 鄭好義, 權德麟에 대한 것이며, 전은 金浣과 權得重에 대한 것이다.

권말에 鄭宗魯가 1797년에 지은 발문이 있다.

## 정중기(鄭重器)

### 형태서지

조선후기 『포은속집』, 『가례집요』 등을 저술한 학자.문신.

### 개설

본관은 영일(迎日). 자는 도옹(道翁), 호는 매산(梅山). 정호례(鄭好禮)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정시심(鄭時諶)이고, 아버지는 정석달(鄭碩達)이며, 어머니는 권돈(權墩)의 딸이다. 정만양(鄭萬陽)-정규양(鄭葵陽) 형제 및 이형상(李衡祥)의 문인이다. 경사에 통달하고 전고(典故)와 예제(禮制)에 밝았다.

### 생애 및 활동사항

1727년(영조 3) 생원으로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731년 승정원주서가 되고, 이어 결성현감(結城縣監)으로 나가 이도(吏道)를 바로잡고 『여씨향약(呂氏鄉約)』에 의거하여 향속의 순화에 노력하였다. 사간원정언을 거쳐 1753년 사헌부지평이 되고, 뒤에 형조참의에 이르렀다. 이인좌(李麟佐)의 난 이후 조정에서 영남인사를 정권에서 소외시키자 연명상소를 하여 그 시정을 진정한 바 있다. 저서로

『매산집』이 있고, 편저로는 『포은속집(圃隱續集)』, 『가례집요(家禮輯要)』, 『주서절요집해(朱書節要集解)』가 있다.

卷之一 / 詩

만신상사사범 중모 輓申上舍士範 重模

17世 중모(重模) 父 : 염(濂)      祖父 : 하석(夏錫)      읍파(邑派)      만오공파(晩悟公派)

江南人物最吾兄。不是尋常上舍生。風範已收章甫望。文華能主藝園盟。堪嗟桂籍終無分。那意春闈遽失明。十許年前同日喜。追思今夕倍沾纓。

梅山集 卷一

地常坐石臺上布政且築小城邨於邨中以爲之今遺址尚存依巖藪長生靄路

絕輪蹄半掩苔。傲屋四經霜葉落。何如谷口子真來。

閒中謾興 甲辰

溪邊矮屋小如缸。上對層巒下石砠。雲帶水聲晨滴  
硯。月搖林影夜窺窗。案中有友書千卷。門外無人鷺  
一雙。藥瓢解教閒容醉。時抽傑句付長杠。

伏次玉礪亭韻

光霽曾襟迥出塵。別區烟月有佳因。書中沿泝千餘  
世。身上提撕十二辰。跡似商山肥遯客。心如沂水詠  
歸人。少微昨夜祥輝動。來照荊花滿樹春。

輓申上舍士範 重模

江南人物最吾兄。不是尋常上舍生。風範已收章甫  
望。文華能主藝園盟。堪嗟桂籍終無分。那意春闈遽  
失明。十許年前同日喜。追思今夕倍沾纓。

謹次龜邨族父碩玄 五懷堂韻

至樂融融在孔懷。有時豪宕外形骸。一行鴈序秋空  
闊。五朶荊花晚景佳。南極老星前夜照。西園芳宴此  
堂偕。家猷克守三休教。和氣盈門永不乖。

輓李文敏中 乙巳

海東咸仰體仁祠。闕里遺孫行亦奇。二百芸編眞活

卷之二 / 詩

만상사신장 염○정사 輓上舍申丈 濂○丁巳

16世 염(濂) 父 : 하석(夏錫) 祖父 : 재 (在) 읍파(邑派) 만오공파(晩悟公派)

堂翁瀛士盛名傳。餘範今看上舍賢。大鵠停梧英表秀。孤冰留壑雅操堅。丹墀未售三千字。白屋閒吟八十年。最是平生無限痛。一枝瑤樹隕庭前。

만신진사달중 효원○병소서○경신 輓申進士達仲 孝源○并小序○庚申

18世 효원(孝源) 父 : 여옥(汝鑿) 祖父 : 한성 (漢星) 귀파(龜派) 동지공파(同知公派)

鵝洲申君達仲。吾表從姪也。頃在癸丑歲。始相遇於洛中。見其姿地英妙。識度宏遠。文詞尤蔚然瞻麗。占漢城試高等。聲名播人口。吾心竊愛之。君亦傾心於我。源源迭往來不休也。後二歲魁嶺解。是年秋得司馬。又明年中廷試。既坼號。旋以多取見拔。蓋取三人。已有先朝故事。而是選取五人。故論者斥其多。然君之名實爲第三人。則照故事。固在數例之內。而并君名黜之。只取二人。以此人皆惜之。然君之才。每選每捷。若使天假之年。其不爲蓬蒿人決矣。而今也一疾。無端溘然若朝露。天之降斯人。抑何意哉。况達仲上有七十萱闈。下焉二男兒俱弱。尤可悲已。今聞其屬纊之日。呼筆書所相愛數人。氣窒未了而止。雖未知其所欲言者何事。其耿耿不相忘之意。抵九死猶未已也。如不佞亦參其中。聞來寧不益爲之酸噎耶。其葬也。宜臨壙哭訣。而病憊不能起。嗟哉。吾其負達仲矣夫。謹以數句語。和淚而題之。達仲有靈。其尚知之也否。詩曰。

西山頽日影闌珊。何事斑衣不盡歡。妙質玲瓏凝粹璞。清詞彬蔚壓騷壇。蜚英璧沼爭推袂。獻賦瑤墀竟褫鞶。聞道公車方大選。忍看秋岫獨懸棺。





相遇於洛中。見其姿地英妙。識度宏遠。文詞  
尤蔚然贍麗。占漢城試高等。聲名播人口。吾  
心竊愛之。君亦傾心於我。源源迭往來不休  
也。後二歲魁嶺解。是年秋得司馬。又明年中  
廷試。既坼號。旋以多取見拔。蓋取三人。已有  
先朝故事。而是選取五人。故論者斥其多。  
然君之名實為第三人。則照故事。固在數例  
之內。而并君名黜之。只取二人。以此人皆惜  
之。然君之才。每選每捷。若使天假之年。其不  
為蓬蒿人決矣。而今也一疾。無端溘然若朝

梅山集

卷之二

十三

露。天之降斯人。抑何意哉。况達仲上有七十  
萱闈。下焉二男兒俱弱。尤可悲已。今聞其屬  
續之日。呼筆書所相愛數人。氣窒未了而止。  
雖未知其所欲言者何事。其耿耿不相忘之  
意。抵九死猶未已也。如不佞亦參其中。聞來  
寧不益為之酸噎耶。其葬也。空臨墳哭訣。而  
病瘳不能起。嗟哉。吾其負達仲矣夫。謹以數  
句語。和淚而題之。達仲有靈。其尚知之也否。  
詩曰。

西山頽日影闌珊。何事斑衣不盡歡。妙質玲瓏凝粹

梅山集 卷二

璞。清詞彬蔚。歷騷壇。蜚英壁。沼爭推。杖獻賦。瑤瑤  
竟。褫鬻。聞道公車方大選。忍看秋。當獨懸棺。  
朱子大全。有十二辰詩。謹效其體。  
鼯鼠。饕晉厲階。由不若芳郊。眠草牛。身逃虎尾。謝軒  
冕。手染兔毫。點索立。龍肉坐談。愧知味。蛇足添畫。怕  
成疣。柴門罕見。馬喧鬧。策畦豈夢羊。蹴蹂閒。聽猿聲  
辨晷。刻夏。將雞骨。占田疇。肥遯願。追劉安。犬木石與  
處。豬與遊。

謹次鳳溪上舍族叔韻五首并序

梅山集

卷之二

十四

吾先祖吏部公三子。其仲又繼為吏部。自陽  
谷西遷于金陵之鳳沙。上舍公即其仍孫也。  
於吾為八從叔姪焉。蓋自我知奏公肇起于  
迎珪。組相繼。蔚然為麗朝巨室。中間自迎而  
移于永。分為兩派。圃隱先生家為宗。居郡東  
愚巷。吾典工判書府君為支。居郡南錢卮。典  
工公之嗣。仕本朝。又為正卿。至其孫教導  
公。移卜陽谷。五子皆有文。登第者三。而家嗣  
及次孫。又捷重試。乃吏部公父子也。鳳沙一  
派。世襲詩禮。迄于今科第不絕。而上舍公尤  
穎拔不凡。為山南大手。嘗遊泮齋。應旨獻

四一



근차신지평분황시신문수 친구 운 謹次申持平焚黃時申文叟 震龜 韻

18世 친구(震龜) 父 : 숙범(叔範) 祖父 : 한로 (漢老) 귀파(龜派) 오봉공파(梧峰公派)

明明我后樂崇賢。雨露遐垂及壤泉。封紫誥新同袞煥。爇黃儀古異茅纏。高風足令懦夫起。懿跡應輸太史傳。回首故閭雙棹楔。一家眞脈遠相聯。

芷或陟高岡訪松桂。或挂花圃檢灌澆。或植禾畦看樹藝。粉社槐市且不往。野鹿溪鷗同作儷。杞菊養精書養心。行年七十童顏麗。無乃太乙眞人幻青藜。吹出煙光豁無泥。抑亦蓬萊仙子借綠玉。分與刀圭耄益銳。若使此翁杖於朝。百萬蒼生庶拭臂。我是同源講睦人。搜託幽期暗相契。從今永謝風塵隨。公去。一鼓滄浪烟水裡。

次賢臯書堂韻 乙丑

黨序新開花縣東。養蒙奚待我求童。會文洋溢絃歌響。觀善薰成禮讓風。化遠牛刀思錦老。祠高鹿院挹

梅山集

卷之二

二十五

陶翁。衰遲久遜竅山下。卻喜芳鄰臭味同。

謹次申持平焚黃時申文叟 震龜 韻

明明我后樂崇賢。雨露遐垂及壤泉。封紫誥新同袞煥。爇黃儀古異茅纏。高風足令懦夫起。懿跡應輸太史傳。回首故閭雙棹楔。一家眞脈遠相聯。

次族弟允文韻

占得巖栖俯碧灣。去年何事遠離山。寧隨潦灑斟行止。謾逐風埃報往還。繡陌已成千里隔。雲林要做一生閒。羲經觀玩非無意。其奈愚蒙未易扳。

夢拜退溪先生

梅山集 卷二

卷之四 / 書

여신진사장 염○신해 與申進士丈 濂○辛亥

16世 염(濂) 父 : 하석(夏錫) 祖父 : 재 (在) 음파(邑派) 만오공파(晩悟公派)

半月阻音。炎候漸盛。伏未諳靜養體履何如。仁閭沴氣。其無更闖否。仰慕且慮。無任下情。重器村中瘟患。一向熾張。闔室出寓於鄰閭。而屋狹暑蒸。度日如歲。伏悶曷喻。壻君既避痘討店。彼處亦客也。於此留滯。實爲便好。而重違庭命。如是趨歸。殊極悵缺。看渠資地之美。未必非玉潤而質甚弱。不能極意勸課。其於俯託之意左矣。是爲愧悚。然年富才敏。若隨地隨力。溫習不輟。則何憂乎學不進也。竊計墨莊烟帷。已有成法。而愛念之至。不得不縷縷。儻蒙下諒否。

<p>耳。先祖湖叟公遺詩。既蒙步惠之教。諸族顯埃累年。而尚靳投示。其爲懋苑。奚啻渴者之思水耶。更乞亟賜落筆。以副輿望如何。</p>	<p>與申進士文濂 辛亥</p>	<p>半月阻音。炎候漸盛。伏未諳靜養體履何如。仁閭沴氣。其無更闖否。仰慕且慮。無任下情。重器村中瘟患。一向熾張。闔室出寓於鄰閭。而屋狹暑蒸。度日如歲。伏悶曷喻。壻君既避痘討店。彼處亦客也。於此留滯。實爲便好。而重違庭命。如是趨歸。殊極悵缺。看渠資地之美。未必非玉潤而質甚弱。不能極意勸課。其於俯託之意左矣。是爲愧悚。然年富才敏。若隨地隨力。溫習不輟。則何憂乎學不進也。竊計墨莊烟帷。已有成法。而愛念之至。不得不縷縷。儻蒙下諒否。</p>	<p>與鄭進士儻 辛酉</p>	<p>訪桑梓展丘墓。仍成宗族之會。此叔世所未見者。若非吾執事高義。其何能辦得耶。艷尚欣感。有不可量而承晤未多日。遽爾回旆。瞻想行塵。不任虛歎。未認風雪寒程。跋履無撓。而稅轄後亦無慵悴之患否。遠地遡慮。不能自己也。族姪門運不淑。春末夏初。連哭再從。兄暨四從叔父。痛怛之私。無以自堪。乃何道中</p>
-------------------------------------------------------------------	------------------	----------------------------------------------------------------------------------------------------------------------------------------------------------------------------------------------------------------------------	-----------------	------------------------------------------------------------------------------------------------------------------------------------------------------



卷之七 / 書

답외손신창교, 흥교 신미 答外孫申昌教, 弘教 辛未

19世 창교(昌教) 父 : 성(暲) 祖父 : 증모 (重模) 음파(邑派) 만오공파(晩悟公派)

19世 흥교(弘教) 父 : 황(煌) 祖父 : 증모 (重模) 음파(邑派) 만오공파(晩悟公派)

奴來得書。知汝重侍休宜。甚可喜也。吾衰病轉深。無可言者。伯也既成人。季也年漸長。不可不及時勉業。慎勿浪遊。日夜勤讀。毋墜爾家聲。至可至可。

孝道何必往山堂然後可讀耶。前讀詩傳。熟讀二百餘遍。後讀後集。曾讀之篇可也。

寄季子一鑽

守白去時。付兩度書。其果得見耶。近來家中無事耶。遠慮無已。此中姑安。而癘火大熾。使喚胥隸。連有痛出者。悶慮何言。端午過後。幸善奉上來。而鍵姪欲來。則同來可也。炎程千里之行。不可不各別謹慎。到仁同一宿後。即發。而晨出暮行。當午則止。道路勿禁馬。勿與行人相詰。值水勿輕涉。逢橋必步過。凡遇危險處。及官行。亦必下馬而行。至可至可。且癘氣無處不

梅山集

卷之七

四十一

熾。必詳問其有無而入接可也。若纔經者。則必曰無事。切須詳探其安淨處入宿亦可。行中凡事。千萬慎之。毋貽祖父之憂也。明史持來。而汝所看書冊。並爲持來焉。

答外孫申昌教弘教 辛未

奴來得書。知汝重侍休宜。甚可喜也。吾衰病轉深。無可言者。伯也既成人。季也年漸長。不可不及時勉業。慎勿浪遊。日夜勤讀。毋墜爾家聲。至可至可。

答鶴城士林 己未

頃荷李斯文枉訪。袖致辱札。仍審春寒。僉起居萬重。

梅山集 卷七

卷之十 / 祭文

제상사신장 염 문 祭上舍申丈 濂 文

16世 염(濂) 父 : 하석(夏錫) 祖父 : 재 (在) 음파(邑派) 만오공파(晩悟公派)

繫公之族。維嶺之右。玉署曾孫。晦堂玄胄。厥惟源深。乃厚其賦。風儀魁磊。氣像和裕。早登文苑。詞翰蔚如。纔占小試。竟屈公車。有義有命。得喪何論。恬然屏跡。偃臥衡門。睠彼錦水。有師有友。從遊前後。義重情厚。寔惟同臭。奚特潘楊。晚遭卜憾。燬心摧腸。猶以理遣。 **P** 不至傷生。教養稚孫。得紹家聲。回看末路。惟利是趨。公惟畏避。惴惴怯夫。名場如夢。活計奚顧。先廬在邑。跡絕公府。蔬糲悅口。書史灌心。一室蕭然。城市山林。年齡益尊。精力不老。黃冠素髮。望若商皓。顧余顛蒙。詣門供掃。講以世誼。重之姻好。頃赴湖南。歷候牀隅。警歎旋阻。札翰連紆。每擎手筆。竊喜康健。矧伊卜鄰。芳約適願。胥宇有命。掣憂未赴。那知一夕。遽爾承訃。龍蛇異讖。在今靡爽。耆德云亡。後生誰仰。節彼蘇原。青烏載卜。窀穸有期。輜車已泊。音塵漸邈。痛懷難禁。一觴奉訣。敬伸微忱。

梅山集 卷之十 三五

只憑風遞時奉手墨辭旨纖悉筆力勁確竊喜康健  
 暗祝期頤未書乍登計聲俄追千里遞便兩月乃徹  
 為位袒踊號痛何及謁告無法奔赴未即昨秋解綬  
 病憂連掣一周之後今始來哭單杯奉奠淚若泉泄

祭上舍申丈濂文 丁巳

繫公之族維嶺之右玉署曾孫晦堂玄胄厥惟源深  
 乃厚其賦風儀魁磊氣像和裕早登文苑詞翰蔚如  
 纔占小試竟屈公車有義有命得喪何論恬然屏跡  
 偃臥衡門睠彼錦水有師有友從遊前後義重情厚  
 寔惟同臭奚特潘楊晚遭卜憾燬心摧腸猶以理遣  
 不至傷生教養稚孫得紹家聲回看末路惟利是趨  
 公惟畏避惴惴怯夫名場如夢活計奚顧先廬在邑  
 跡絕公府蔬糲悅口書史灌心一室蕭然城市山林  
 年齡益尊精力不老黃冠素髮望若商皓顧余顛蒙  
 詣門供掃講以世誼重之姻好頃赴湖南歷候牀隅  
 警歎旋阻札翰連紆每擎手筆竊喜康健矧伊卜鄰  
 芳約適願胥宇有命掣憂未赴那知一夕遽爾承訃  
 龍蛇異讖在今靡爽耆德云亡後生誰仰節彼蘇原  
 青烏載卜窀穸有期輜車已泊音塵漸邈痛懷難禁  
 一觴奉訣敬伸微忱



## 매창선생문집(梅窓先生文集)

## 형태서지

권수제	매창선생문집(梅窓先生文集)
판심제	매창집(梅窓集)
간종	목판본(木版本)
간행년	1821년 간행
권책	연보(年譜), 원집(原集) 5권 합 3책
행자	11행 21자
규격	21.2×15.5(cm)
어미	上二葉花紋魚尾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도서번호	古 3428-544
총간집수	한국문집총간 속 10

## 저자

성명	정사신(鄭士信)
생년	1558년(명종 13)
몰년	1619년(광해군 11)
자	자부(子孚)
호	매창(梅窓), 신곡(神谷)
본관	청주(淸州)
특기사항	구봉령(具鳳齡)의 문인

행력

왕력		서기	간지	연호		연령	기사
명종	13	1558	무오	嘉靖	37	1	8 월 17 일, 安東 馬巖里에서 태어나다.
명종	18	1563	계해	嘉靖	42	6	伯兄 鄭士誠에게 受學하기 시작하다.
선조	7	1574	갑술	萬曆	2	17	栢潭 具鳳齡의 문하에서 수업하다.
선조	8	1575	을해	萬曆	3	18	가을, 鄉解에 합격하다.
선조	9	1576	병자	萬曆	4	19	3 월, 부친상을 당하다.
선조	12	1579	기묘	萬曆	7	22	永川李氏 李光俊의 딸과 혼인하다.
선조	14	1581	신사	萬曆	9	24	가을, 문과 초시에 합격하다.
선조	15	1582	임오	萬曆	10	25	봄, 明經科에 합격하다. ○ 가을, 권지 승문원부정자가 되다.
선조	16	1583	계미	萬曆	11	26	倭使 護送官으로 東萊에 가다.
선조	17	1584	갑신	萬曆	12	27	著作이 되다.
선조	18	1585	을유	萬曆	13	28	博士, 봉상시 직장이 되다.
선조	19	1586	병술	萬曆	14	29	봄, 예조 좌랑이 되다. ○ 여름, 형조 좌랑이 되다.
선조	20	1587	정해	萬曆	15	30	사간원 정언이 되다. ○ 병조좌랑 겸 춘추관기사관이 되다. ○ 禮安 縣監이 되다.
선조	22	1589	기축	萬曆	17	32	병조 좌랑이 되다. ○ 공조 정랑이 되다. ○ 병조정랑 겸 지제교, 부수찬, 검상이 되다. ○ 성균관 전적이 되다.
선조	23	1590	경인	萬曆	18	33	봄, 병조 정랑이 되다. ○ 光國 原從功臣에 녹훈되다.
선조	24	1591	신묘	萬曆	19	34	봄, 예조 정랑이 되다. ○ 수찬이 되다. ○ 겨울, 정언이 되다.
선조	25	1592	임진	萬曆	20	35	사간원 정언이 되다. ○ 6 월, 江陵에서 李民奭과 함께 關東의 土兵들을 모집하여 왜적을 토벌하다.
선조	26	1593	계사	萬曆	21	36	4 월, 醴泉 郡守가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선조	27	1594	갑오	萬曆	22	37	慶尙 都事가 되다.
선조	28	1595	을미	萬曆	23	38	善山 府使가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선조	31	1598	무술	萬曆	26	41	1 월, 모친상을 당하다.
선조	36	1603	계묘	萬曆	31	46	道味洞精舍를 짓다.
선조	37	1604	갑진	萬曆	32	47	權春蘭, 李垞과 龍山書堂에 모여 具鳳齡의 문집을 교정하다. ○ 鳳巖臺를 짓다.
선조	38	1605	을사	萬曆	33	48	權宇의 문집을 교정하다.
선조	40	1607	정미	萬曆	35	50	2 월, 백형 鄭士誠의 상을 당하다. ○ 가을, 특별히 서용되어 職牒을 받다.

선조	41	1608	무신	萬曆	36	51	광해군 즉위 후 사복시 정이 되다. ○ 重試에 합격하다. ○ 安胎使로 公州에 가다.
광해군	1	1609	기유	萬曆	37	52	봄, 餞慰使로 關西에 가다. ○ 첨지중추부사가 되다.
광해군	2	1610	경술	萬曆	38	53	潭陽 府使가 되다. ○ 賀至使로 北京에 가서 賀班의 朝服을 辨正하는 일로 禮部에 나아가 呈文하다.
광해군	3	1611	신해	萬曆	39	54	장례원 판결사가 되다. ○ 용양위 부호군이 되다.
광해군	5	1613	계축	萬曆	41	56	가을, 密陽府使 兼 慶尙中道防禦使가 되다.
광해군	11	1619	기미	萬曆	47	62	1 월 25 일, 正寢에서 졸하다. ○ 9 월, 義城縣 남쪽 上川坊 勝方洞에 장사 지내다.
인조	27	1649	기축	順治	6	—	光國의 공으로 예조 참판에 증직되다.
정조	20	1796	병진	嘉慶	1	—	鶴巖里社에 제향되다.
순조	21	1821	신사	道光	1	—	종 7 대손 鄭來成이 목판으로 문집을 간행하다.

## 정사신(鄭士信)

### 정의

조선시대 장례원판결사, 경상도중도방어사 등을 역임한 문신.

### 개설

본관은 청주(淸州). 자는 자부(子孚), 호는 매창(梅窓) 또는 신곡(神谷). 의영고직장 정윤소(鄭允昭)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진사정언보(鄭彦輔)이고, 아버지는 정두(鄭耉)이며, 어머니는 안동권씨로 사직(司直) 권식(權軾)의 딸이다.

현감 정사성(鄭士誠)의 아우이다.

### 생애 및 활동사항

1582 년(선조 15)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 저작·박사·감찰·정언·예안현감·병조·장랑·부수찬·검경연검토관·춘추관기서관·전적·예조·장랑·수찬 등을 지냈다.

1592 년 임진왜란 때 지평으로서 왕을 따라 평양으로 피난중 반송정(盤松亭)에서 이탈하였다 하여 삭직당하였다. 그 뒤 강원도지방에서 의병을 모아 많은 왜적을 무찌른 공으로 1594 년 경상도도사, 1595 년 선산군수가 되고 1609 년(광해군 1) 문과중시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이듬해 동지사(東使)로 명나라에 다녀온 뒤 선계변무(璿系辨誣)의 공으로 광국원종(光國原從)의 훈(勳)에 책록되고, 장례원판결사·밀양부사·겸 경상도중도방어사에 이르렀다. 예조참판에 추증되었고, 저서로는 『매창집』이 있다.

卷之一 / 詩

증별신순부 지제 贈別申順夫 之悌

14世 지제(之悌) 父 : 몽득(夢得) 祖父 : 응규 (應奎)

귀파(龜派)오봉공파(梧峰公派)

惆悵春風送子歸。嬌紅嫩綠照征衣。洛城如見舊相識。爲道衰翁鬢已絲。

萬化從來自一中。近聞丹道耳偏聰。瑰材合薦巖廊用。樗散甘追放達風。百劫可能行地上。三山本說在天東。久知浮世眞如夢。何必邯鄲訪呂翁。

又次前韻

一年佳節屬天中。四闕重門想舜聰。禁篋衣頒飄細葛。御爐香篆縷薰風。衆星自古心傾北。至治如今道在東。跡滯周南經幾歲。鬢毛衰颯已成翁。

天旱甚。又次前韻。

民物如焚烈火中。壁圭雖卒聽無聰。誰招地下烹羊汲。莫訟天門閣雨風。喊代都將忘南北。世人寧復紹西東。滄腸滌胃匡時策。數百年前仰晦翁。

梅窓集卷一 十四

金士悅 允來訪。是時喜雨連下方。營鳳巖臺。境僻人誰至。情濃話共長。原田忻有雨。國稷慶無疆。訪舊腸頻熱。憂君鬢欲霜。何時臺上坐。梧樹映朝陽。

輓李湖堂厚。代人作

交道韓公父子間。相逢披露兩心肝。湖西旌節承前後。洛北官僚試熱寒。盡美騷壇名滿世。修文地府鬼催關。古來顏夭終難詰。獨向高旻涕自潸。

贈別申順夫之悌

惆悵春風送子歸。嬌紅嫩綠照征衣。洛城如見舊相識。爲道衰翁鬢已絲。

是年孟秋。與金士悅期及重陽。夏謀鳳臺時倭。



卷之五 / 附錄

조천증행시[신지제] 朝天贈行詩[申之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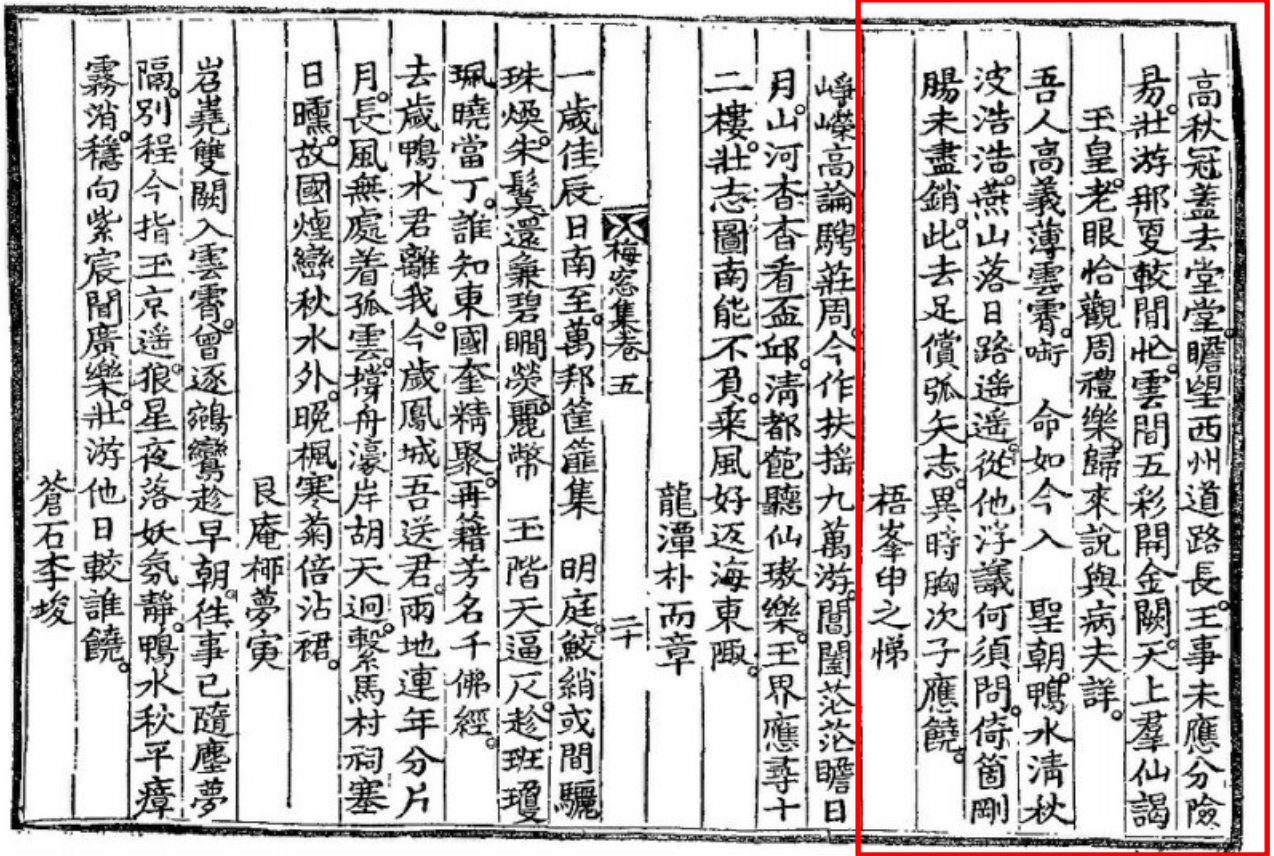
14世 지제(之悌) 父 : 몽득(夢得) 祖父 : 응규 (應奎)

귀파(龜派)오봉공파(梧峰公派)

高秋冠蓋去堂堂。瞻望西州道路長。王事未應分險易。壯游那更較閒忙。雲間五彩開金闕。天上羣仙謁玉皇。老眼恰觀周禮樂。歸來說與病夫詳。

吾人高義薄雲霄。嗚命如今入聖朝。鴨水清秋波浩浩。燕山落日路遙遙。從他浮議何須問。倚箇剛腸未盡銷。此去足償弧矢志。異時胸次子應饒。

梧峯 申之悌



## 명고선생문집(鳴臯先生文集)

### 형태서지

권수제	명고선생문집 원집(鳴臯先生文集 原集)
판심제	명고선생문집(鳴臯先生文集)
간종	목판본(木版本)
간행년	1844 년경 간행
권책	9 권 5 책
행자	10 행 21 자
규격	22.0×17.2(cm)
어미	上下二葉花紋魚尾
소장처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도서번호	D1-A1831
총간집수	한국문집총간 속 71

### 저자

성명	정간(鄭幹)
생년	1692 년(숙종 18)
몰년	1757 년(영조 33)
자	도직(道直)
호	명고(鳴臯)
본관	영일(迎日)
초명	권(權)
초자	도중(道中)
특기사항	정만양(鄭萬陽), 정규양(鄭葵陽)의 문인. 정중기(鄭重器) 등과 교유

행력

왕력		서기	간지	연호		연령	기사
숙종	18	1692	임신	康熙	31	1	9월 19일, 태어나다.
숙종	28	1702	임오	康熙	41	11	부친상을 당하다.
숙종	-	~	~	康熙	-	~	塏叟 鄭萬陽과 麓叟 鄭葵陽 형제를 공유하며 수학하다.
숙종	41	1715	을미	康熙	54	24	생원시에 합격하다.
영조	1	1725	을사	雍正	3	34	문과에 합격하다. ○ 承文院 副正字가 되다.
영조	3	1727	정미	雍正	5	36	모친상을 당하다.
영조	7	1731	신해	雍正	9	40	2월, 假注書가 되다. ○ 7월, 경연에서 「春秋」를 강의하다.
영조	8	1732	임자	雍正	10	41	9월, 議政府 司錄이 되다.
영조	9	1733	계축	雍正	11	42	1월, 著作이 되다. ○ 8월, 濟原道 察訪이 되다.
영조	11	1735	을묘	雍正	13	44	2월, 전적, 예조 좌랑이 되다. ○ 12월, 병조 좌랑이 되다.
영조	12	1736	병진	乾隆	1	45	6월, 咸鏡 都事가 되다.
영조	13	1737	정사	乾隆	2	46	1월, 병조 정랑이 되다. ○ 6월, 영조의 批旨를 모아 御筆帖을 만들다. ○ 9월, 靑陽 縣監이 되다.
영조	14	1738	무오	乾隆	3	47	8월, 烏山 狐頭浦의 貢倉을 증건하다.
영조	17	1741	신유	乾隆	6	50	2월, 宗廟 署 令이 되다. ○ 3월, 茂長 縣監이 되다.
영조	21	1745	을축	乾隆	10	54	7월, 지평이 되다. ○ 8월, 宗廟 祝式을 논하는 상소를 올리다.
영조	23	1747	정묘	乾隆	12	56	4월, 保寧 縣監이 되다.
영조	24	1748	무진	乾隆	13	57	6월, 동부승지, 우부승지가 되다. ○ 11월, 慶州 府尹이 되다. ○ 12월, 東萊 府使가 되다.
영조	26	1750	경오	乾隆	15	59	1월, 동부승지가 되었다가 곧 寧越 府使로 옮기다.
영조	27	1751	신미	乾隆	16	60	4월, 宣川 府使가 되다.
영조	30	1754	갑술	乾隆	19	63	1월, 동부승지가 되다.
영조	32	1756	병자	乾隆	21	65	3월, 蔚山 府使가 되다. ○ 4월, 改名을 청하는 상서를 올리다.
영조	33	1757	정축	乾隆	22	66	伯兄 鄭極의 상을 당하다. ○ 형조 참의, 동부승지, 우부승지, 좌승지가 되다. ○ 5월, 仁元王后의 장례에 있어 신하들의 服制에 관한 상소를 올리다. ○ 8월, 朴雲의 「龍巖集」을 정리하고 발문을 짓다. ○ 9월 29일, 즐하다. ○ 12월, 望社洞에 장사 지내다.

헌종	10	1844	갑진	道光	25	-	鄭裕昆 등이 목판으로 原集을 간행하다.
-	-	1935	을해	-	-	-	후손 鄭鉉杓가 李炳直 등과 함께 석판으로 續을 간행하다.

### 편찬및간행

저자 사후 아들 鄭周弁은 蔡濟恭에게 묘갈명의 작성을 부탁하였지만 완성을 보기 전에 졸하였고, 손자인 鄭夢奎에 의해 저자의 부록문자와 유문의 정리가 진행된 것으로 생각된다. 정몽규는 柳尋春(1762~1834)에게 저자의 행장을 위촉하였는데 그 가운데에 “遺稿數卷藏于家”라는 기록이 있다. 한편 문집에 수록되지 않은 발문이 金垞(1739~1816)의 「龜窩續集」 권 4에 있는데 그중에 “..... 公之咳唾之傳宜若盈箱 而每以謙退爲志 勿之收拾 僅存而未泯者 只不過輓祭書疏及諸家文字若干卷 ..... 公之孫夢奎與一方士友 謀所以錄諸梓 .....”라는 기록이 있다. 이를 통해 1800년대 초반 정몽규 등이 가장유고와 그때까지 지어진 부록문자를 바탕으로 문집을 간행하려 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간행이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원집 초간본에는 간행과 관련된 명확한 기록이 없다. 다만 권수에 있는 柳致明의 서문을 통하여 문집의 간행이 서문의 작성 연도인 1844년 무렵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저자의 族後孫인 鄭裕昆(1782~1865)의 「晚悟集」에서 관련 기록들을 찾을 수 있다. 「만오집」 권 2에 수록된 <答柳定齋>에는 “..... 鳴臯集刊事 實賴令執事就完 重以弁卷文字 辭懇意圖 有光斯文 私心感幸 ..... 昆等忝管此事始終 .....”이라는 언급이 있는데, 이를 통해 문집의 간행에 있어 柳致明의 역할과 함께 간행을 전반적으로 주관한 것이 정유곤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권 13에 수록된 <祭族叔東淵文>에는 간행 작업의 착수를 시사하는 “..... 鳴臯遺文 繡木方始 邀速柳令 淨加梳洗 玉亭旬月 這事商論 .....”이라는 언급이 있다. 東淵은 鄭伯休(1781~1843)의 호로서 물년을 고려하면 이 글의 작성 연도는 1843년에서 1844년 사이로 보인다. 곧 저자의 문집은 정유곤 등이 가장초고를 바탕으로 유치명의 교정을 받아 1844년경 목판으로 간행한 것으로 생각된다. 《原集》이 본은 현재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D1-A1831), 국립중앙도서관(한 46-가 141), 규장각(古 3428-391),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811.98/정권) 등에 소장되어 있다.

원집 간행 당시 저자의 유문은 십수 권 정도였는데 이 중 9권 분량만이 간행되고 나머지는 간행에서 누락되었다. 이후 이를 안타깝게 여기던 저자의 후손 鄭鉉杓가 李炳直과 함께 남아 있는 미간행 유고를 바탕으로 人家에 있는 詩律을 수습하고 國史에서 奏箋 약간 편을 채집하는 한편 원집 간행 이후에 지어진 부록문자와 及門錄을 합하여 4卷으로 정리하고 金獻周, 鄭道榮 등의 序跋을 받아 1935년 대구의 黑白堂에서 석판으로 續을 간행하였다. 《續》이 본은 현재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D1-A1831A), 국립중앙도서관(한 46-가 1411), 장서각(D3B-2082) 등에 소장되어 있다.

본서의 저본은 1844년경 목판으로 간행된 원집과 1935년 석판으로 간행된 속으로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장본이다.

原集序(柳致明 撰), 原集跋(金垞 撰, 龜窩續集 卷 4), 答柳定齋·祭族叔東淵文(鄭裕昆 撰, 晚悟集), 續集序(金獻周 撰), 續集跋(鄭道榮·李起轍 撰) 등에 의함

### 구성과내용

본집은 原集 9권, 續 4권 합 7책으로 되어 있다. 原集의 권수에는 柳致明이 1844년에 지은 序와 目錄이 있다.



권 1~2는 辭(1), 詩(345題)이다. 辭는 도연명의 작품에 차운한 <次歸去來辭>이다. 시는 시체와 상관없이 연도순으로 편차된 것으로 생각되나 분명하지는 않다. 스승인 鄭萬陽, 鄭葵陽 및 權相一, 鄭重器 등과의 수창시가 있고, 지방관에 여러 차례 부임한 이력으로 인해 부임지로 가는 노정이나 그곳에서의 생활, 유람한 장소 등에 관한 시편이 주류를 이룬다. 成起寅, 申重模, 李裁, 鄭脩, 李濼, 李光庭 등에 대한 만시가 실려 있다.

권 3은 疏(1), 上書(5), 啓(1), 奏(1), 講義(1), 箋(5)이다. 소는 1745년에 올린 <辭持平疏>로서 定宗, 端宗, 德宗 등 직계가 아닌 국왕에게도 宗廟의 祝式에 '孝曾孫'의 용어를 사용해야 함을 논하고, 「周易」 兌卦의 내용을 근거로 정치를 행하는 군주의 자세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고 있다. 상서는 형조 참의, 좌승지를 사직하는 것과 함께 이름을 鄭權에서 鄭幹으로 바꾸어 줄 것을 청하는 <請改名上書>, 仁元王후의 장례 때 신료들에게 白皮靴 대신 麻履를 착용할 것을 건의하는 등 喪禮에 대하여 논한 것 2편이 수록되어 있다. 계는 울산 부사 재임 중에 지은 <釐正倭館開市法啓>이고, 주는 성군관 유생들을 대신하여 지은 <請改試爲課奏>이다. 강의는 1731년 경연에서 영조에게 「春秋」 襄公 24년의 기사를 강의한 내용을 기록한 <專經講義>이다. 전은 端敬王후의 복위, 세자의 嘉禮, 국왕의 생일 등에 관한 것들이 수록되어 있다.

권 4~5는 書(93)이다. 권 4는 스승 鄭葵陽, 趙明鼎, 趙榮國, 李成中, 尹鳳五, 權相一, 金鍾萬, 金裕壽, 李守恒, 權萬, 李時沆, 鄭玉, 黃沈 등 29인에게 보낸 편지가 수록되어 있고, 권 5에는 李光靖, 張胤宗, 徐聖稷, 李標, 權墉, 成憲祖, 崔宗謙, 洪師國, 申維翰, 金緻, 朴思澈, 申近仁, 鄭重器 등과 죽인, 가족들에게 보낸 것들이 수록되어 있다. 이 중 정중기에게 보낸 편지가 20편 정도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권 6은 銘(7), 贊(1), 序(1), 記(3), 跋(14), 雜著(7)이다. 序는 <鳴山喪需稷題名錄序>로 고향에서 이어져 내려온 喪需稷의 유래와 의의 그리고 鄭一夔 등이 새로이 題名錄을 증보한 사실에 대하여 기술한 것이다. 기는 청양 현감 시절 화재로 소실된 狐頭浦의 貢倉을 중건하고 지은 것, 申之梯가 세운 龜湖書堂을 방문하고 학문에 대하여 강론한 내용을 담은 것 등이다. 발은 1736년 여행 중에 權相一로부터 소장하고 있던 이항의 梅花詩 1책을 얻고 지은 <題退溪先生梅花詩帖後>, 李滉의 高弟인 朴雲의 「龍巖集」에 대한 것 등이 수록되어 있다. 잡저의 <保寧縣小學訓蒙節目>은 보령 현감 시절 「소학」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영조의 뜻에 따라 마련한 지방 교육의 시행 절차와 세칙을 기록한 것이다.

권 7은 祝文(5), 祭文(16), 誄文(3)이다. 축문은 <茂長縣社稷壇祈雨文>, <因朝令祭疾疫死者文> 등 주로 지방관 재직 중에 지은 것들이다. 제문은 鄭萬陽, 鄭葵陽, 죽형 鄭夢陽, 屏厓 曹善長, 趙廷泰, 金鍾萬, 정규양의 처 仁川李氏, 尹天覺, 叔祖 鄭世復, 柳厚澤, 죽형 鄭構와 鄭相, 백형 鄭極 부부에 대한 것이다. 뇌문은 權斗緯, 權淳, 洪大龜에 대한 것이 수록되어 있다.

권 8은 墓表(2), 誌碣(7), 行狀(2), 行錄(2)이다. 묘표는 李漢柱와 鄭彦遐에 대한 것, 묘지와 묘갈은 鄭時僑, 鄭碩明, 鄭好義, 全三益, 鄭時相, 李弘愨, 李亨運에 대한 것이다. 행장은 孫端, 李夏衡의 처 裴氏에 대한 것이고, 행록은 鄭萬陽과 李道謙에 대한 것이다.

권 9는 附錄이다. 成胤儉이 지은 賜祭文과 權相一, 曹光國, 金裕壽, 李若初 등이 지은 輓誄 8수, 立巖書院, 松谷書院, 橫溪書堂의 유생들과 李世澤, 李文初, 鄭梯가 지은 제문, 유심춘이 지은 행장, 蔡濟恭이 지은 묘갈명 및 李家淳이 지은 影堂上樑文, 李光靖이 지은 影幀奉安文과 常饗祝文이 수록되어 있다.

續은 권수에 金獻周가 1935년에 지은 序와 目錄이 있다.

권 1 은 詩(151 제)이다. 詩體 구분 없이 저작 연대순으로 편차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族叔 鄭碩泰를 비롯 57 인을 애도한 만시의 분량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권 2 는 箋(6), 辭狀(2), 報牒(3), 書(50)이다. 전은 正朝 및 冬조에 올린 陳賀箋 이외에 왕세손의 괘유, 빈궁의 사망, 중궁전의 尊號 奉상을 계기로 지은 것들이다. 사장은 무장 현감 때 監司에게 올린 것이고, 보첩은 청양 부사와 선천 부사 재직 중에 작성한 것이다. 서는 스승 鄭葵陽, 趙榮國, 李成中, 尹鳳五, 李汝楨, 金裕壽, 李守恒, 權萬, 李時沆, 張壽崙, 洪相朝 등에게 보낸 것들이 수록되어 있다.

권 3 은 序(2), 記(4), 跋(3), 銘(5), 上樑文(1), 雜著(4), 祝文(7), 祭文(6), 誄文(1), 墓表(1), 誌碣(5), 遺事(1)이다. 서는 임진왜란 때의 의병장 柳湖 李居仁에 대한 實記와 李守悌가 부친의 유문을 정리하여 지은 「不忘帖」에 대한 것이다. 기는 承文院의 담을 수리한 일에 대한 기록과 軍威의 養士齋, 李汝樹의 서재 愛梅堂, 踊山の 法龍菴에 관한 것이다. 발은 「松沙誌」, 眉叟 許穆의 篆軸, 岫雲 柳德章의 墨竹屏에 대한 것이다. 잡저는 화폐의 성격과 관리 방법을 논한 <問錢貨>와 정치를 바둑에 비유하여 설명한 <當局者迷> 등이 수록되어 있다. 제문은 외조부 李斗柄과 외조모 道安李氏, 申賁龜, 洪有大, 족속들에 대한 것이고, 뇌문은 족형 鄭重祿에 대한 것이다. 묘표는 李龜山에 대한 것, 지갈은 李弘禧, 李爾洛, 증자 鄭龍, 金彩命, 尹致盤에 대한 것, 유사는 叔祖 鄭世復에 대한 것이다.

권 4 는 及門錄이다. 鄭一珪, 李壽裕, 鄭載延, 鄭一鎬, 李攀 등 저자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인물 120 인에 대한 정보를 모은 것이다. 각 인물별로 성명 아래에 자, 호, 본관, 간략한 가계, 생년, 거주지 등을 기록하고 문집에 관련 작품이 수록되었을 경우 이를 밝혀 주었다.

권말에는 曹秉健이 1935 년에 지은 後識와 같은 해 鄭道榮과 李起轍이 지은 跋이 수록되어 있다.

## 정간(鄭幹)

1692~1757

경상북도 영천 출신의 조선 후기 문신, 본관은 영일[오천]이며, 초명은 정권(鄭權)이었다. 자는 도중(道中), 호가 명고(鳴臯)이다. 그는 임진왜란 의병장 창대(昌臺) 정대임(鄭大任, 1553 ~1594)의 5대손으로 경상북도 영천 녹전동에서 태어났다.

1715년(숙종 41) 사마시 합격, 1725년(영조 1)에 문과에 급제하여 지평, 보령 현감, 청양 군수, 동래 부사, 경주 부윤 등을 역임했다. 1757년(영조 33) 승지를 역임하고 세상을 떠났다. 동래 부사 재임 당시 선정을 베풀어 치성이 높았으며, 왜인(倭人)들도 그를 위한 청덕비를 세웠다고 전한다.

卷之一 / 詩

만신진사사범 중모 輓申進士士範 重模

17世 중모(重模) 父: 염(濂) 祖父: 하석(夏錫) 음파(邑派) 만오공파(晩悟公派)

噫噫乙未契。何事值陽九。頃年失邦瑞。昨歲哭莘叟。士範忽又歸。喪車走江右。夫人有奇才。好辭稱幼婦。頎然美風骨。登壇攘大手。三戰卽三捷。宿將喘且走。壁沼十丈蓮。容易囊物取。聲名仍籍籍。朝夕可大受。無端病魔欺。壁弩崇樽酒。四十年間事。倏忽衣變狗。雙蘭一未長。堂上愁白首。行路尚惻愴。矧茲同年友。爲寄寂寥語。兄其知也否。

<p>鳴臯先生文集一 八</p>	<p>登默溪挹清樓。遇雨留三日。</p>	<p>三賢遺馥地。溪上有高樓。始挹清風至。還逢苦雨留。熱炎猶盛夏。節序已新秋。賴有山翁在。論詩慰客愁。</p>	<p>次玉上舍 報 年丈器器軒韻</p>	<p>主人自謂棄於時。齋外悠悠付不知。幽趣已從農叟託。閒情肯與帝鄉期。桃花洞裏乾坤別。荆樹壇邊日月遲。何事機心猶未息。時高卧夢殷伊。</p>	<p>輓申進士士範重模</p>	<p>噫噫乙未契。何事值陽九。頃年失邦瑞。昨歲哭莘叟。士範忽又歸。喪車走江右。夫人有奇才。好辭稱幼婦。頎然</p>	<p>羨風骨。登壇攘大手。三戰卽三捷。宿將喘且走。壁沼十丈蓮。容易囊物取。聲名仍籍籍。朝夕可大受。無端病魔欺。壁弩崇樽酒。四十年間事。倏忽衣變狗。雙蘭一未長。堂上愁白首。行路尚惻愴。矧茲同年友。爲寄寂寥語。兄其知也否。</p>	<p>瘞馬</p>	<p>利得坤貞物。則黃東方果。下素稱良。不隨八駿翔。瑤渚好。遂羣龍。覲玉皇。可惜海風侵瘦骨。誰知房宿墮寒芒。塞翁禍福何須說。瘞乏單帷歎恨長。</p>	<p>敬次篋叟先生熟兩暘不時韻</p>
----------------------	----------------------	---------------------------------------------------------	----------------------	------------------------------------------------------------------------	-----------------	-----------------------------------------------------------	-------------------------------------------------------------------------------------------------------------------	-----------	----------------------------------------------------------------------------	---------------------

만신진사 렬 輓申進士 濂

16世 濂(濂) 父 : 하석(夏錫) 祖父 : 재 (在) 음파(邑派)만오공파(晚悟公派)

憶曾透迤奉風裁。永夜寒窓燭跋堆。盃酌豈知彝鼎量。草茅虛棄棟梁材。居家綽有劉寬厚。哭子能無卜夏哀。弧北瑞星沈玉井。南瞻空怨巳年回。

不老當年森桂春。	習習東風陰又陽。空山伐木鳥聲長。詩多却怕塵添了。好把驪珠十襲莊。	次月松族叔碩臨見贈韻	起坐清晨喚索郎。小梅南畔憶茅堂。風埃半染芝蘭佩。世味全消鐵石腸。嶺外好音隨鴈落。雨中愁緒共雲長。靈丹活國非吾事。願采當歸備藥方。	次朴玉汝成玉	作意梳粧學少年。村翁野態尚依前。和風昨送千峯雨。歸夢宵牽五柳烟。已信矛戟森紫陌。却愁塵土穢丹田。	鳴臯先生文集一	三十八	偷閒點檢箱中卷。寶匣瑤琴又斷絃。	版曹慮南海魚鹽稅縮。擇姜殿中而直往檢虛。	實權一甫成近體三篇以贖之。追和其第一首。	海貢全歸夜壑藏。此行非為展蓬桑。天心政軫修三事。地部新掄第一郎。休道儒生才諳短。只愁炎瘴道塗長。	離懷糾結難成寢。曉拂菱花鬢半蒼。	輓申進士 濂	濂	憶曾透迤奉風裁。永夜寒窓燭跋堆。盃酌豈知彝鼎量。草茅虛棄棟梁材。居家綽有劉寬厚。哭子能無卜夏哀。弧北瑞星沈玉井。南瞻空怨巳年回。
----------	----------------------------------	------------	------------------------------------------------------------------	--------	--------------------------------------------------	---------	-----	------------------	----------------------	----------------------	--------------------------------------------------	------------------	--------	---	------------------------------------------------------------------



만신군임 중인 輓申君任 重仁

20世 중인(重仁) 父 : 도삼(道三) 祖父 : 분구 (貢龜)

귀파(龜派)오봉공파(梧峰公派)

論人何必問年齡。孔聖猶能畏後生。牙軸瑤徽尋舊好。松風梧月襲餘清。孤舟方理觀瀾楫。遠駕還傾指日程。偶滯錦江違漬酒。空山愁聽子規聲。

鶴月 皇壇殷祀秩。吾王此舉孝善忠。儀文豈獨遵 先志。心法端宜體建中。	仙仗侵晨展北壇。風詩千古下泉深。香烟細與祥雲合。 知是皇靈格 聖心。	謁 莊陵有感 山空花落月蒼蒼。杜宇一聲幽恨長。白髮孤臣多感慨 聞之再拜淚滂滂。	錦江亭敬次退陶先生韻。 乾坤灰劫幾經年。壁上孤亭獨巋然。晚樹風輕紅落雨。 遙岑日暖翠生烟。清流圍合眞成帶。細草雷連巧作氈。	鳴臯先生文集二 二十六 峽裏民淳無一事。凭欄閒對白鷗眠。	輓申君任重仁 論人何必問年齡。孔聖猶能畏後生。牙軸瑤徽尋舊好。 松風梧月襲餘清。孤舟方理觀瀾楫。遠駕還傾指日程。 偶滯錦江違漬酒。空山愁聽子規聲。	次洒仙菴八景韻 驅牧溪邊草正菲。碧蘿烏帶綠簑衣。牛眠熟處渠眠熟。 覺騎橫簷已夕輝。	井浦牧笛 東西二水互回旋。夜夜漁燈映碧天。逃網豈難移上瀨。 春來怕有懶敲淵。	鳳淵漁火
---------------------------------------	---------------------------------------	-----------------------------------------------	---------------------------------------------------------------------	------------------------------------	------------------------------------------------------------------------------------	-------------------------------------------------	----------------------------------------------	------

三九三

20世 중인(重仁)

父 : 도삼(道三) 祖父 : 분구(貢龜)

귀파(龜派)오봉공파(梧峰公派)

伏惟新正。王尊丈證候快復常度。省餘啓居亦膺休嘏。區區慰祝。有難勝喻。幹賣歎無效。只依舊日伎倆。且得如此而死而已。自憐奈何。向來竊覲君任舉止語默。絕少世俗輕俊態色。不覺暗暗稱奇。而意或勢有所屈。不免俯首場屋間。適聞朝家稱大慶設大比。不修人事而責天命。亦昔人所戒。故前書僭有云云。厥後見一二士友。始知君任早留意於此個門庭。初不屑舉子業。夫人坐泰山頂上。頽瞰世間多小人出沒塵埃裏。粲然發孤笑。彼出沒塵埃者。乃反翹頭引手而招之。其亦不自量之甚矣。庭下一語。叔盼輒知謾明。而如某者再接芝宇。亦有須臾之頃。尚未深得吾君任眼孔之窄。寧不自悲。漢唐以後。士之大患。惟在舉業之奪志。而今君任能躍出這科臼。想其腔子裏。猶保赤子時光景。何患德之不進而業之不修耶。然難持者心。易荒者志。更願存省之工。並進於動靜之時。疎密之誠。勿忘於誦讀之日。井必及泉。山無<sup>虧</sup>簣。復振吾嶺衰歇氣勢如何。念君任上<sup>有</sup>尊從大父丈。傍有令再從氏兄。門闌師友。不孤有隣。奚憂乎就正講討之無地哉。千萬勉旃。

周之日。別設祭奠而變除。而禪月服。令姪却從出繼。日行練祥禪如禮。而令從嫂禪除時。令姪不可參。令姪禪除前。令從嫂雖已除服。可以同憾。未知如何。

與申君任重仁

伏惟新正。王尊丈證候快復常度。省餘啓居亦膺休嘏。區區慰祝。有難勝喻。幹賣歎無效。只依舊日伎倆。且得如此而死而已。自憐奈何。向來竊覲君任舉止語默。絕少世俗輕俊態色。不覺暗暗稱奇。而意或勢有所屈。不免俯首場屋間。適聞朝家稱大慶設大比。不修人事而責天命。亦昔人所戒。故前書僭有云云。厥後見一二士友。始知君任早留意於此個門庭。初不屑舉子業。夫人坐泰山頂上。頽瞰世間多小人出沒塵埃裏。粲然發孤笑。彼出沒塵埃者。乃反翹頭引手而招之。其亦不自量之甚矣。庭下一語。叔盼輒知謾明。而如某者再接芝宇。亦有須臾之頃。尚未深得吾君任眼孔之窄。寧不自悲。漢唐以後。士之大患。惟在舉業之奪志。而今君任能躍出這科臼。想其腔子裏。猶保赤子時光景。何患德之不進而業之不修耶。然難持者心。易荒者志。更願存省之工。並進於動靜之時。疎密之誠。勿忘於誦讀之日。井必及泉。山無<sup>虧</sup>簣。復振吾嶺衰歇氣勢如何。念君任上

鳴臯集 卷四



有尊從大父丈。傍有令再從氏兄。門闌師友不孤有隣。  
奚憂乎。就正講討之無地哉。千萬勉旃。

答申天行龍起雲舉龍慶。

今年塵屨再涉貴境。而俱是忙裏行色。未暇歷造高軒。  
穩講舊誼。迨有歎悵之懷。即於僂中。得拜僉寵翰。仍審  
冬暝兩霽。權侍棟樑。均享冲福。區區感慰。有難勝喻。翰  
向忝靈職。猥入文字。言辭拙訥。未概 聖心。遠傲罷歸。  
雖以偃息田廬為幸。而尚切惶慄。昨見清臺權丈書。則  
聖上追採僭論。太廟祝式一段語。前月晦間。遣儀  
郎問議于在外大臣及儒臣云。姑未知諸臣獻議之如

鳴皋先生文集四

三

何。而若或因此改正。則寧非幸歟。伏聞王尊丈至行。潛  
德竟不堙坊於世。蒙被 褒贈之典。凡在鄉隣。莫不與  
有光寵。況如翰之謏劣。曾承款誨於王尊丈案下。又於  
尊丈濫同乙未契。累世情分。匪比尋常。雖無芳速。豈不  
欲趁焚誥稱慶之日。叨席端觀盛儀。而非惟緊有障碍。  
叔母及姑母忌事。并在至月朔朝。此月小。而盡廿九。即  
前一日。例不當進叅吉道。茲未副懇。悚恨而已。所需疑  
義。顧此孤陋寡聞。有何可以奉塞者。第此事原頭。既已  
蹉跌。所以節節有礙。鄙意則先行遷改之禮。退卜日焚  
黃。似得先後之序。而不多日內。當位再次改題。亦涉未

답신천행 용기, 운거 용경. 答申天行 龍起, 雲舉 龍慶

18世 성(暉) 父: 중모(重模) 祖父: 염(濂) 읍파(邑派)만오공파(晩悟公派)

18世 천봉(天鳳) 父: 먼(昞) 祖父: 구형(考亨) 귀파(龜派)응암공파(鷹巖公派)

今年塵履。再涉貴境。而俱是忙裏行色。未暇歷造高軒。穩講舊誼。迨有歉悵之懷。卽於便中。得拜僉寵翰。仍審冬暝雨霽。懽侍棣履均享冲福。區區感慰。有難勝喻。幹向忝憲職。猥入文字。言辭拙訥。未概聖心。違傲罷歸。雖以偃息田廬爲幸。而尙切惶懍。昨見清臺權丈書。則聖上追採僭論太廟祝式一段語。前月晦間。遣儀郎問議于在外大臣及儒臣云。姑未知諸臣獻議之如何。而若或因此改正則寧非幸歟。伏聞王尊丈至行潛德。竟不堙坳於世。蒙被褒贈之典。凡在鄉隣。莫不與有光寵。况如幹之謏劣。曾承欵誨於王尊丈案下。又於尊丈濫同乙未契。累世情分。匪比尋常。雖無芳速。豈不欲趁焚誥稱慶之日。叨席端靚盛儀。而非惟緊有障礙。叔母及姑母忌事。并在至月朔朝。此月小而盡廿九。卽前一日。例不當進參吉筵。玆未副懇。悚恨而已。所需疑義。顧此孤陋寡聞。有何可以奉塞者。第此事原頭既已蹉跎。所以節節有礙。鄙意則先行遷改之禮。退卜日焚黃。似得先後之序。而不多日內。當位再次改題。亦涉未安。無寧於焚黃日。以遷改蹉過。因焚黃始行之意。措語告由於各位。以蒙贈焚黃之意。特告當位。合并改題後。仍行祫事如儀。則既無一廟主或改或不改之嫌。而重君恩之意。自在其中。梅翁之論。儘有意見。未知先焚黃後行祫之儀。別有端的援據耶。至於王夫人改題主時。贈字與否。王尊丈爵秩既出貶贈。而王夫人又已下世。則雖無教旨。亦是贈也。何可不書贈字耶。中朝品階。與我朝不同。而嘗見朱子書於傳自得行狀。其曾祖俞贈奉正大夫。奉正非崇品也而其配張氏書贈碩人。韋齋公行狀。其考森贈承仕郎。承仕郎初階也。而其配程氏書贈孺人。則無論品階高下。告帖有無。生前所授。當無贈字。死後所授。當有贈字。梅翁之見亦好。而今承金瓢隱內子主面不書贈字云。彼是文獻之邦。禮法之家。豈不博考而審處耶。此兩欵。皆是無於禮之禮也。既未得先輩明證。而妄從手分世界中化現出來。惟高明之財擇焉。



有尊從大父丈傍有令再從氏兄門闈師友不孤有隣  
奚憂乎就正講討之無地哉千萬勉旃

答申天行龍起雲舉龍慶

今年塵擾再涉貴境而俱是忙裏行色未暇歷造高軒  
穩講舊誼迨有歎悵之懷即於僂中得拜僉寵翰仍審  
冬暝兩露懼侍棣後均享冲福區區感慰有難勝喻翰  
向忝憲職猥入文字言辭拙訥未概 聖心遠傲罷歸  
雖以偃息田廬為幸而尚切惶慄昨見清臺權丈書則  
聖上追採僭論 太廟祝式一段語前月晦間遣儀  
即問議于在外大臣及儒臣云姑未知諸臣獻議之如

鳴臯先生文集四

三五

何而若或因此改正則寧非幸歟伏聞王尊丈至行潛  
德竟不堙坊於世蒙被 褒贈之典凡在鄉隣莫不與  
有光寵况如翰之謏劣曾承款誨於王尊丈案下又於  
尊丈濫同乙未契累世情分匪比尋常雖無芳速豈不  
欲趁焚誥稱慶之日叨席端靚盛儀而非惟緊有障碍  
叔母及姑母忌事并在至月朔朝此月小而盡九九即  
前一日例不當進參吉筵茲未副懇悚恨而已所需疑  
義顧此孤陋寡聞有何可以奉塞者第此事原頭既已  
蹉跌所以節節有礙鄙意則先行遷改之禮退卜日焚  
黃似得先後之序而不多日內當位再次改題亦涉未

四三三

鳴臯集 卷四

安無寧於焚黃日以遷改蹉過因焚黃始行之意措語  
告由於各位以蒙 贈焚黃之意特告當位合并改題  
後仍行禘事如儀則既無一廟主或改或不改之嫌而  
重 君恩之意自在其中梅翁之論儘有意見未知先  
焚黃後行禘之儀別有端的援據耶至於王夫人改題  
主時 贈字與否王尊丈爵秩既出賜贈而王夫人又  
已下世則雖無 教旨亦是 贈也何可不書 贈字  
耶中朝品階與我 朝不同而嘗見朱子書於傳自得  
行狀其曾祖俞贈奉正大夫奉正非崇品也而其配張  
氏書贈碩人韋齋公行狀其考森贈承仕郎承仕即初  
階也而其配程氏書贈孺人則無論品階高下告帖有  
無生前所授當無贈字死後所授當有贈字梅翁之見  
亦好而今承金鄒隱內子主面不書贈字云彼是文獻  
之邦禮法之家豈不博考而審處耶此兩款皆是無於  
禮之禮也既未得先輩明證而妄從手分世界中化現  
出來惟高明之財擇焉

鳴臯先生文集四

三五

鳴臯先生文集卷之四



卷之五 / 書

여신의중(與申毅仲) 近仁○乙丑

20世 근인(近仁) 父 : 도삼(道三) 祖父 : 분구 (貢龜)

귀파(龜派)오봉공파(梧峰公派)

頃於悲擾中。草草相面而歸。迨切悵惘。春暮猶寒。未諳省餘服况何似。襄事亦已卜期耶。懸戀不置。此間凡百循常可幸。賢嫂氏服制有所獻愚。而令伯氏既已從厚。今無可論。但試觀疑禮問解。廣引諸說。力主當服之議。然所引賀循，魏仁浦，橫渠理窟，文公家禮及大明律，<sup>P</sup>本朝大典。皆是泛論嫡孫婦當從夫服。未嘗提及姑在當如何。則非可援證於此。惟張子所謂宗子雖母在。當爲宗子之妻服云者。似可以援證。而家禮既謂之其姑在則否。則朱子蓋以張子說爲不當遵也。虞喜所謂有嫡子無嫡孫。若其母尚存。玄孫之婦猶爲庶。庾蔚之所謂子婦尚存。其孫婦以下未得爲嫡。猶以庶服之云者。乃是不易之論也。退溪老先生答寒岡及金而精問。明言其不當服。又答寒岡問。反謂之當服。此固可疑。然文集中只載前兩說。不載後一段。想是前兩說爲晚來定論。若并存二說。則恐惹後世爭訟。故月川，西厓諸先生<sup>P</sup>刪去後一段。非闕漏也。而愚伏亦以爲不當服。細究禮意。詳考諸說。從違庶可決矣。至於心制人之遭期喪者。亦當服期之服。而我非習於禮者。何敢質言。以犯汰哉之誚哉。望須更稟于德門諸丈老。廣詢知禮之家而處之如何。此等大節。不可約綽過去耳。

晚秋漸涼。緬惟侍學冲齋。區區慰溯。僕昨月既望。入京投疏。疏中畧有陳列。批旨頗有未安之意。故違牌蒙罷晦日發程。今月之旬還家。而自數日前。有河魚之說。雖不大段。猶未快差可憫。女兒提幼歸去。亦覺悵然。

與申毅仲 近仁○乙丑

頃於悲擾中。草草相面而歸。迨切悵惘。春暮猶寒。未諳省餘服况何似。襄事亦已卜期耶。懸戀不置。此間凡百循常可幸。賢嫂氏服制有所獻愚。而令伯氏既已從厚。今無可論。但試觀疑禮問解。廣引諸說。力主當服之議。然所引賀循，魏仁浦，橫渠理窟，文公家禮及大明律。

本朝大典皆是泛論嫡孫婦當從夫服。未嘗提及姑在當如何。則非可援證於此。惟張子所謂宗子雖母在。當爲宗子之妻服云者。似可以援證。而家禮既謂之其姑在則否。則朱子蓋以張子說爲不當遵也。虞喜所謂有嫡子無嫡孫。若其母尚存。玄孫之婦猶爲庶。庾蔚之所謂子婦尚存。其孫婦以下未得爲嫡。猶以庶服之云者。乃是不易之論也。退溪老先生答寒岡及金而精問。明言其不當服。又答寒岡問。反謂之當服。此固可疑。然文集中只載前兩說。不載後一段。想是前兩說爲晚來定論。若并存二說。則恐惹後世爭訟。故月川，西厓諸先生

鳴臯集 卷五

刪去後一段。非闕漏也。而愚伏亦以為不當服。細究禮意。詳考諸說。從違庶可決矣。至於心制人之遭期喪者。亦當服期之服。而我非習於禮者。何敢質言。以犯汰哉之誚哉。望須夏稟于德門諸丈老。廣詢知禮之家。而處之如何。此等大節。不可約綽過去耳。

答鳳沙族叔 庚午

客臘仁里兩宗亮。歷致下惠書。兼有滿百珍珠。俯助饗賓之需。下懷不任感悚。而其歸從別路。又無他便風。尚遲仰報。罪恨何喻。伏惟番風動靜。茂膺純嘏。是庸慰祝之至。申君任竟至於斯。志行文學。後生中誠未易得。况

鳴臯先生文集五

十

通家義重。無間懿親。伏想同此痛惜也。翰牽復銀臺。行到幽谷。得變通之報。卸駟策。驚冒雨衝泥。間闕歸來。餘億雖未瘳。而殊以復初為私幸。又蒙東峽除命。方將赴都。肅息恩渥。稠荐惶感。則深而皓髮。懼顏。屑屑往來。江上白鷗。能不相笑耶。狂字步呈。覽訖轉寄芝嶺。如何。

答迂拙齋族兄 甲子

乍到西林池。臺林空觸目。驚心一步一顧。益覺懂懂於門屏之間。忽伏讀下惠書。仍審數日來體候。萬福。翰遇兩入金漢家。過狂煙。夏發到鳳歸巖下。又遇雨。至古縣



신운거(申雲舉) 龍慶 자사(字辭)

18世 천봉(天鳳) 父 : 먼(昞) 祖父 : 구형(考亨)귀파(龜派)응암공파(鷹巖公派)

申氏龍慶。德表雲舉。倂其字義。求改于余。余曰否否。嘗觀於易。咸傳乾爻。厥象可繹。精義入神。以底于用。譬蟄而存。變化不窮。潛焉勿用。見而在田。譬窮而養。達而是宣。既知則行。爲學之方。有屈必伸。立身之常。窮養有道。不外知行。嗟爾龍兮。爾舉毋輕。爾長四靈。孔昭其靈。靈或不靈。有慾其因。吻然潛深。研幾其神。愛爾爪牙。護爾甲鱗。日夕乾乾。爾埃爾辰。雲遠乎哉。氣應于同。豁豁天衢。瑞色葱籠。渺爾孤舉。利見九五。用作甘露。潤我土宇。嗟爾雲舉。能事畢矣。顧茲鰥生。曾知乃考。有翰不飛。庶幾裕後。絕絃之悲。眷眷于汝。毋負祝規。嗟爾雲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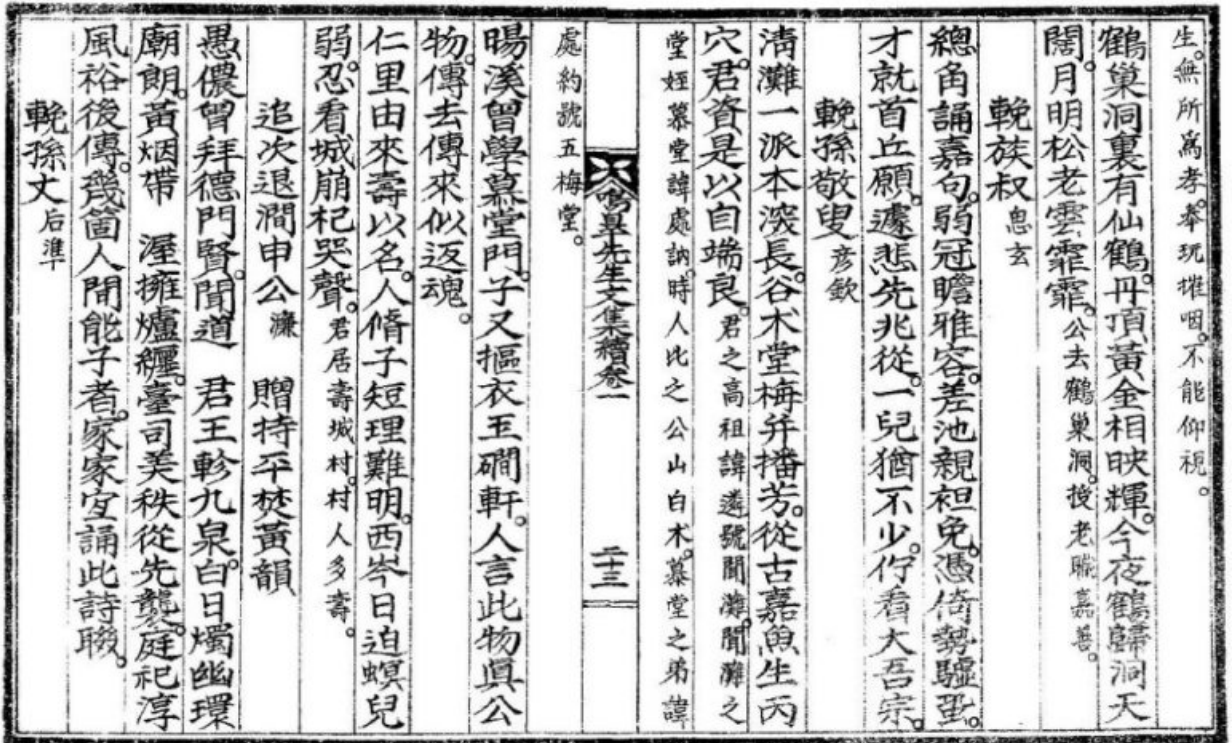


續卷之一 / 詩

추차퇴간신공(追次退澗申公) 염(濂) 증지평분황운(贈持平焚黃韻)

16世 염(濂) 父 : 하석(夏錫) 祖父 : 재 (在) 음파(邑派)만오공파(晩悟公派)

愚儂曾拜德門賢。聞道君王軫九泉。白日燭幽環廟朗。黃烟帶渥擁爐纏。臺司美秩從先襲。庭祀淳風裕後傳。幾箇人間能子者。家家宜誦此詩聯。



鳴臯集 續卷一

續卷之一 / 詩

제신장(祭申丈) 분구(貢龜) 문(文)

18世 분구(貢龜) 父 : 숙범(叔範) 祖父 : 한로 (漢老)

귀파(龜派)오봉공파(梧峰公派)

鵝洲靈胄。大於聞韶。梧翁松老。俯仰梓橋。翹楚儒林。以蔭孫曾。鸞停鵠峙。公是之承。端溫之資。密勿之局。前言往行。亦富其蓄。用此需世。安往不耐。雅厭趨營。早就斂退。龜溪一區。昔人菟裘。清時日月。閑界乾坤。花竹盈階。桑麻滿原。荊棣蔚茂。蘭玉輝暎。課農侑學。翁和嘯詠。天餉至樂。世稱清福。可惜白眉。器閎籌促。公又不淑。七旬少一。信也世界。難圓易缺。尚幸長文。克世厥家。妙齡志學。步武孔遐。斯其未艾。公莫自悲。顧茲讓劣。素善雙飛。方公寢苦。我嘗赴弔。公不我鄙。待以舊要。歸來廿載。徒夢雲樹。昨歲之冬。竊附婚媾。公有小孫。呼我曰舅。媵誼益密。訊訊偵偵。行治纈奩。責緣厚。今其已而。云何遽矣。有女無教。匪虎伊鼠。未奉暇脩。旋曳紅綰。公應有感。我當何懷。靈辰不留。忽忽既夕。數孟菲薄。雙淚滴瀝。公如有知。盍照肝膈。



鳴臯集 續卷三

## 백암선생문집(栢巖先生文集)

## 형태서지

권수제	백암선생문집(栢巖先生文集)
판심제	栢巖先生文集
간종	목판본(木版本)
간행년	1772 年刊
권책	原集 6 권, 補遺, 年譜, 附錄 합 4 책
행자	10 행 22 자
규격	21.6×15.5(cm)
어미	上下二葉花紋魚尾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도서번호	奎 4317
총간집수	한국문집총간 50

## 저자

성명	김륵(金玔)
생년	1540 년(중종 35)
몰년	1616 년(광해군 8)
자	희옥(希玉)
호	백암(栢巖)
본관	예안(禮安)
시호	민절(敏節)
특기사항	박승임(朴承任), 황준량(黃俊良), 이황(李滉)의 문인

## 행력

왕력		서기	간지	연호		연령	기사
중종	35	1540	경자	嘉靖	19	1	3월 9일, 榮川郡 栢巖里에서 태어나다. ○ 伯父 判書公 金士文의 양자로 가다.
명종	4	1549	기유	嘉靖	28	10	12월, 판서공의 상을 당하다.
명종	7	1552	임자	嘉靖	31	13	嘯臯 朴承任, 錦溪 黃俊良의 문하에서 從學하다.
명종	10	1555	을묘	嘉靖	34	16	仁同張氏와 혼인하다.
명종	12	1557	정사	嘉靖	36	18	퇴계 李滉의 문하에서 수업하다.
명종	15	1560	경신	嘉靖	39	21	5월, 本生妣 黃氏의 상을 당하다.
명종	18	1563	계해	嘉靖	42	24	3월, 錦溪先生을 곡하다.
명종	19	1564	갑자	嘉靖	43	25	7월, 생원 覆試에 합격하다.
선조	1	1568	무진	隆慶	2	29	7월, 本生考의 상을 당하다.
선조	3	1570	경오	隆慶	4	31	12월, 퇴계선생을 곡하다.
선조	8	1575	을해	萬曆	3	36	9월, 式年 鄉解에 장원하다. ○ 겨울, 紹修書院에서 독서하다.
선조	9	1576	병자	萬曆	4	37	3월,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다. ○ 5월, 승문원 권지부정자가 되다. ○ 11월, 가주서가 되다. ○ 12월, 呈辭하고 고향에 내려가 省親하다.
선조	10	1577	정축	萬曆	5	38	4월, 조정에 올라오는 도중에 丹陽을 지나다가 三島를 유람하다. ○ 5월, 승사랑에 제수되고 호송관에 차출되다. ○ 11월, 呈辭하고 고향으로 내려가다.
선조	11	1578	무인	萬曆	6	39	4월, 王子胎封書寫官으로 玄風에 가다. ○ 7월, 예문관검열 겸 춘추관기사관이 되다.
선조	12	1579	기묘	萬曆	7	40	봉교, 전적, 예조 좌랑이 되었다가 파직되어 돌아오다. ○ 12월, 서용되어 정언이 되다.
선조	13	1580	경진	萬曆	8	41	6월, 전적이 되다. ○ 7월, 西學教授를 겸하다. ○ 11월, 嘯臯先生을 모시고 凝石寺를 유람하다.
선조	14	1581	신사	萬曆	9	42	1월, 병조좌랑 지제교가 되다. ○ 4월, 정언 지제교가 되다. ○ 5월, 예조 좌랑이 되다. 이후 부수찬, 수찬이 되다.
선조	15	1582	임오	萬曆	10	43	4월, 성군관 전적이 되다. ○ 5월, 정언이 되다. 이후 수찬, 지평, 직강이 되다.
선조	16	1583	계미	萬曆	11	44	1월, 부수찬이 되다. ○ 2월, 전적이 되다. ○ 4월, 이조 좌랑이 되다. 呈辭하고 고향에 내려가다. ○ 9월, 정언이 되다. ○ 10월, 정사하고 歸勤하다. 司畜 騶 司畜이 되다. ○ 11월, 지평이 되다. ○ 12월, 宗묘서 영에 제배되었으나 부임하지 않다.



백암선생문집(栢巖先生文集) 김복(金玔)

선조	17	1584	갑신	萬曆	12	45	3 월, 지평이 되다. ○ 6 월, 寧越 郡守가 되다.
선조	19	1586	병술	萬曆	14	47	1 월, 嘯臯先生을 곡하다. ○ 6 월, 부인 張氏의 상을 당하다.
선조	22	1589	기축	萬曆	17	50	7 월 교리가 되다.
선조	23	1590	경인	萬曆	18	51	집의, 사간, 검상, 사인, 사성, 장악원 정을 거쳐 사복시 정으로 옮겨 교서관 교리를 겸하다. 수찬이 되다. ○ 8 월, 光國原從功臣에 녹훈되다.
선조	24	1591	신묘	萬曆	19	52	봄, 執義로 휴가를 청하여 省親하다. ○ 조정에 돌아오는 도중에 동부승지에 오르고, 우부승지를 거쳐 좌부승지가 되다. ○ 崔永慶을 伸冤하다가 임금의 뜻에 거슬려 용양위 상호군에 遞付 되다. ○ 겨울, 형조 참의에 제수되었으나 屢辭하고 귀근하다.
선조	25	1592	임진	萬曆	20	53	4 월, 왜적이 침입하자 경상도 安集使가 되다. ○ 7 월, 왜병이 禮安·安東을 침범하자 精兵을 보내어 물리치다. ○ 9 월, 安東 府使가 되다.
선조	26	1593	계사	萬曆	21	54	5 월, 尙州에 가서 총병 劉縉, 유격 吳惟忠을 만나다. 경상우도 관찰사가 되다. ○ 10 월, 도승지로 전임되어 경연 참찬관, 춘추관 수찬관, 예문관 직제학, 상서원 정을 겸하다. ○ 11 월, 대사간이 되다. ○ 윤 11 월, 한성부 우윤이 되다. ○ 12 월, 대사성이 되다.
선조	27	1594	갑오	萬曆	22	55	1 월, 동지의금부사를 겸하다. ○ 3 월, 대사헌이 되다. 이후 이조 참판, 부제학이 되다.
선조	28	1595	을미	萬曆	23	56	4 월, 대사간이 되다. ○ 7 월, 體察副使가 되다. ○ 8 월, 稷山, 全州, 南原, 居昌, 晉州를 거쳐 閑山島에 가서 통제사 李舜臣과 軍務를 논하다.
선조	31	1598	무술	萬曆	26	59	6 월, 대사간이 되다. ○ 9 월, 부제학이 되다. 상소하여 柳成龍을 伸救하다가 파직되다.
선조	32	1599	기해	萬曆	27	60	1 월, 형조 참판을 거쳐 예조 참판이 되다. ○ 3 월, 충청도 관찰사가 되다. ○ 5 월, 좌의정 李德馨을 밟고 軍兵 糧餉과 도내의 민폐에 대하여 의논하다.
선조	33	1600	경자	萬曆	28	61	5 월, 吳灋 등과 함께 伊山書院에 모여 嘯臯先生의 문집 간행을 의논하다. 退溪先生 문집이 완성되어 陶山書院에서 회합하다. ○ 6 월, 형조 참판이 되다.
선조	34	1601	신축	萬曆	29	62	2 월, 호조 참판이 되다. ○ 3 월, 忠佐衛 副司果가 되다.
선조	35	1602	임인	萬曆	30	63	6 월, 첨지중추부사가 되다. ○ 가을, 周易校正都廳으로 소명을 받고 조정에 돌아오다. ○ 8 월, 冬至上使가 되다.

선조	36	1603	계묘	萬曆	31	64	3 월, 복명하다. ○ 10 월, 대사성이 되다.
선조	37	1604	갑진	萬曆	32	65	3 월, 李好閔, 趙靖, 李竣 등과 서울에 嶺南會를 만 들다. ○ 8 월, 안동부사가 되다.
선조	38	1605	을사	萬曆	33	66	7 월, 廬江書院을 중수하다. ○ 9 월, 藥圃 鄭琢을 곡하다.
선조	39	1606	병오	萬曆	34	67	여름, 유성룡에게 편지를 보내 圃隱先生 문집의 교 정 일을 논하다. ○ 10 월, 月川 趙穆을 곡하다.
선조	40	1607	정미	萬曆	35	68	1 월, 안동 부사에서 체직되어 돌아오다. ○ 5 월, 유성룡을 곡하다.
선조	41	1608	무신	萬曆	36	69	2 월, 대사성이 되다. ○ 가을, 병으로 체직되다.
광해 군	2	1610	경술	萬曆	38	71	4 월, 한성부 좌윤을 거쳐 대사헌이 되다. 李潑, 鄭 介淸 등의 伸冤을 계청하여 윤허받다. ○ 5 월, 本朝 五賢의 文廟從祀를 계청하여 윤허받다. ○ 6 월, 奉 慈殿의 儀節을 논하다가 江陵 府使로 좌천되다.
광해 군	3	1611	신해	萬曆	39	72	12 월, 강릉 부사에서 파직되어 돌아오다.
광해 군	4	1612	임자	萬曆	40	73	4 월, 삭탈관직되어 시골로 내쫓기다.
광해 군	6	1614	갑인	萬曆	42	75	職牒이 還給되다. ○ 李竣, 趙纘韓 등과 星巖精舍에 서 공유하다.
광해 군	8	1616	병진	萬曆	44	77	11 월 16 일, 즐하다.
광해 군	9	1617	정사	萬曆	45	-	4 월, 順興 後洞에 장사 지내다.
광해 군	12	1620	경신	泰昌	1	-	士林이 龜城에 祠宇를 세우고 위판을 봉안하다.
효종	4	1653	계사	順治	10	-	宣武勳으로 이조 판서에 증직되다.
숙종	7	1681	신유	康熙	20	-	安東府 才山縣 不老谷에 改葬하다.
영조	16	1740	경신	乾隆	5	-	안동부 乃城縣 益谷으로 移葬하다.

## 편찬및간행

저자의 시문은 家藏草本으로 약간 권이 전해져 왔는데, 6 대손 金堉가 從子 金若鍊 및 族子 金世鍊으로 하여금 草本대로 謄寫하게 하여 연대순으로 편차하게 하고, 저자의 외손 金然 및 從孫 金鏞가 편차한 연보 2 권 및 부록을 합하여 李象靖의 교정을 거쳐 1772 년에 목판으로 간행하였다. 《초간본》이 초간본은 규장각(奎 4317), 국립중앙도서관(古 3648-文 10-339),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본서의 저본은 1772 년에 간행된 초간본으로 규장각장본이다.

序(李象靖 撰), 跋(金堉 撰)에 의함

## 구성과내용

본 문집은 원집 6 권, 補遺, 年譜, 附錄 합 4 책으로 되어 있다.

권수에는 1772 년에 쓴 李象靖의 序가 있고, 이어 目錄이 실려 있다.

권 1 에는 辭(次歸去來辭) 1 편, 賦(止水賦) 1 편, 詩 98 題가 실려 있다. 이 중 시는 대체로 연대순으로 편차되어 있고 그 사이에 특정 기간의 시 묶음이 있다. 즉 <西征錄>은 1577 년 4 월 조정에 올라오는 도중에 丹陽을 지나다가 三島를 유람할 때 지은 시이고, <南征錄>은 1577 년 5 월 護送官이 되었을 때 지은 시를 모은 것이다.

권 2 에는 94 제의 시가 실려 있다. 연대순으로 편차되어 있다. <西征錄>은 1579 년 奉敎가 되었을 때 지은 시이고, <南還錄>은 1580 년 4 월 휴가를 얻어 省親할 때의 시이며, <朝天錄>은 1602 년 冬至上使로 중국에 갔을 때의 시이며, <華山錄>은 북한산의 重興寺, 僧伽寺, 蕩春臺, 露積峯에 대한 시이며, <臨瀛錄>은 1611 년 강릉 부사로 있을 때 지은 시이다. 이 밖에 <東浦十六景>, <秋月亭八詠>, <蒼石亭八詠> 같은 주변 경치를 읊은 寫景詩 등이 실려 있다.

권 3 에는 敎書 2 편, 疏 8 편, 劄 5 편이 실려 있다. 이 중 <宗系辨誣頒赦中外敎書>는 1584 년에 지어 올린 것으로 李太祖의 宗系가 바로잡힌 것을 축하하여 대사면령을 내린 교서이다. <寧越郡陳弊疏>는 1585 년 영월 군수로 있을 때 郡의 폐단 10 가지를 상소한 내용이고, <處置兩司劄> 2 편은 1594 년 홍문관 부제학으로 있을 때 지은 것으로 崔永慶을 伸救한 내용이다.

권 4 에는 劄 4 편, 啓辭 3 편이 실려 있다. 이 중 <司憲府陳時務劄>는 1595 년 대사헌으로 있을 때 올린 것으로 '絶和議' 등 왜적에게 복수를 하기 위한 계책에 중점을 두어 16 條의 時務를 진달한 내용이다. <請本朝五賢從祀文廟啓>는 金宏弼, 鄭汝昌, 趙光祖, 李彥迪, 李滉 등 5 인을 문묘에 종사하기를 청하는 내용이다.

권 5 에는 狀啓 10 편, 呈文 7 편이 실려 있다. 장계는 1592 년과 1593 년에 경상도 安集使 때 올린 것으로 경상도의 軍情과 왜적의 형세에 대해 조목조목 진달한 내용이다. 정문 중 <答兵部問目>은 1602 년 冬至上使로 중국에 갔을 때, 병부 상서 蕭大亨의 임진 왜란의 시말 등 다섯 조목의 문목과 이에 대한 대답이다.

권 6 에는 書 10 편, 雜著(招募文) 1 편, 序 1 편, 箋 4 편, 上梁文 2 편, 祭文 11 편이 실려 있다. 書는 權好文, 柳成龍, 李德弘, 金誠一, 李庭堅, 韓日就 등에게 보낸 편지이다. <招募文>은 1592 년에 경상도 安集使가 되어 왜적의 토벌을 위해 義兵의 흥기를 포고한 내용이다.

補遺에는 詩 4 제, 書 1 편이 있다. 이어 年譜가 실려 있다.

부록 上은 賜祭文 1 편, 祭文 6 편, 輓詞 33 편, 鄉賢祠奉安文 1 편, 常享祝文 1 편이다.

부록 下는 신도비명(權階·趙顯命 撰), 묘지명(權斗寅·李光庭 撰), 記聞錄, 道內儒生疏, 贈行篇, 擬金某謝除江陵府使箋이다. 이 중 <贈行篇>은 저자가 1610 년 奉慈殿의 儀節을 논하다가 강릉 부사로 좌천되었을 때 沈喜壽, 李好閔 등이 지어 준 詩이다.

권미에는 1772 년에 쓴 金堉의 跋이 실려 있다.

## 김륵(金玔)

### 정의

조선시대 경상우도관찰사, 충청도관찰사, 안동부사 등을 역임한 문신.

### 개설

본관은 예안(禮安). 자는 희옥(希玉), 호는 백암(栢巖). 김만칭(金萬稱)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증 좌승지 김우(金佑)이고, 아버지는 진사 김사명(金士明)이며, 백부인 형조원외랑 김사문(金士文)에게 입양되었다. 이황(李滉)의 문인이다.

### 생애 및 활동사항

1576년(선조 9) 식년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고, 1578년 검열·전적을 거쳐서 예조원외랑·정언이 되었다. 1580년 전적 겸 서학교수가 되고 홍문록(弘文錄)에 등록되었고, 이듬해 부수찬·지평·직강 등이 되었다.

1584년 영월군수로 갔을 때 신임 군수마다 죽는 변이 있었다. 이에 [노산군\(魯山君\)](#)<sup>주 01)</sup>의 묘를 배알한 후 제청(祭廳)·재실(齋室)·찬청(饌廳)을 묘 옆에 짓고, 처음으로 '노산군'이라는 호칭을 신주(神主)에 써서 부인 송씨(宋氏)의 신위와 함께 모셔 변을 막았다.

3년 후에 돌아와 선조로부터 많은 치하를 받고 교리에 서용되었으며, 1590년 집의·사간·검열·사인·사성·사복시정이 되었다. 임진왜란 때에는 형조참의를 거쳐 안동부사가 되었다가 경상도 안집사(安集使)로 영남에 가서, 충성스럽고 의기있는 선비들에게 국가의 뜻을 알리고, 왜적을 토벌하도록 장려하고 백성들을 잘 다스렸다.

이듬해 경상우도관찰사가 되어서는 전라좌·우도의 곡식을 운반해 기근이 든 백성들을 구제하고자 하였다. 이어 도승지·대사간·한성부우윤·대사성을 거쳐, 1594년 동지의금부사·이조참판·부제학 등을 역임하였다. 이듬해 대사헌이 되어 「시무 16조」를 상소했는데, 모두 치안에 좋은 대책이라는 평을 들었다.

1599년 명나라 장수를 접반하고 예조참판에서 충청도관찰사로 나갔다. 1612년 하절사(賀節使)로 명나라에 가서 명나라 군사가 조선에 남아 있는 것처럼 꾸며 일본의 재침략을 막아 달라는 청을 올렸다. 그리고 명나라로부터 일본에게 재침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칙서를 보내게 하고 돌아왔다.

곧, 대사성이 되고 안동부사로 나가 범람하는 낙동강의 재해를 막기 위해 제방을 수축해 후세에까지 칭송을 들었다. 그러나 김직재(金直哉)의 무옥(誣獄)에 연루되고 또 앞서 광해군의 생모인 공빈 김씨(恭嬪 金氏) 별묘(別廟)의 의물(儀物)을 종묘 의물과 똑같이 하는 것에 반대해 강릉으로 유배가게 되었는데, 여러 대신들의 변호로 풀려났다.

영천의 구산서원(龜山書院)에 제향되었고 저서로는 『백암문집(栢巖文集)』이 있다. 이조판서에 추증되었고, 시호는 민절(敏節)이다.



## 卷之五 / 狀啓

조진경상도군정적세상계(條陳慶尙道軍情賊勢狀啓) 安集使時○壬辰

臣於去四月二十七日。經過本道豐基榮川等地。大小之民舉皆登山。尋到村閭。闐無人影。奉來之命。宣諭無地。憂惶痛憫。罔知所爲。乃於二十九日。收拾見聞。略具啓狀。而又未得陪去之人。令臣自京帶來者持進。則到忠清道堤川地。賊已踰嶺。不得前進而還。今五月初四日。又爲啓狀。令臣所率之奴奉進。則到京畿道楊根地。賊逼京城。亦不得前進而還。道路隔絕。聲響莫接。去邠之音。得<sup>P</sup>於傳聞。遙望痛哭。欲絕而不可得。近有自京奔還者。謂車駕向西。而又未知住筭何地。徒懷微懇。末由得達。日夜遑遑。鬚髮盡素。適臣里中人知臣憫迫。而欲爲往還。臣厚其行資。使之登山越谷。遠避賊路。庶或可近於警蹕之下。而其終得達。亦不可期。血涕盈襟。無以自裁。臣來此之後。審知人心潰散之由。則賊勢猖獗。連陷二鎮。久安之民。已皆褫魄。而爲將帥者。先自退縮。不能檢勅守令。爲守令者。先自逃避。不能鎮服人心。輾轉相因。至於渙散。平民則懼罹鋒鏑。逃竄林藪。亂民則謂無法禁。恣行胸臆。雖其本心不同。而其不得號令則一也。人心一散。情意乖悖。奴<sup>P</sup>僕不知有其主。吏卒不知有守宰。橫行閭里。白晝成群。焚劫人家。掠奪財物。甚至於變著倭服。屠割人民。彌漫原野。莫敢誰何。調軍赴敵之說。勢不得一措於其間。若士族之有識者。則頗慷慨奮發。欲以身當之。而應抄之軍。一無響答。雖率其子弟奴僕。不過百數。既無官軍可與協力。則徒死賊中。反助其聲勢而已。況兵水使，防禦使，助防將等。已皆踰嶺而去。監司去處。亦不得聞。本道之內。無一節制者。凡大小之人。欲從王事者。無所倚仗。欲爲私謀者。無所畏憚。而列邑守令。舉皆遁逃。爲民之倡。官私板蕩。不可形言。且狂賊踰嶺之後。餘黨之散布於本道者。或屯兵大鎮。或<sup>P</sup>結陣原野。或焚劫村落。人之畏怯。日甚一日。語及調兵。掩耳遠走。此雖臣之孱拙。不誠於勤王。而勢已至此。未如之何。自十月望後。登山者久經困苦。間或下來。村里之中。得見人面。臣之痛憫而不得爲者。庶有可施之路。經村歷邑。懇諭聖旨。兼以臣言感動之。若其有識之士。則咸謂雖不解操弓。如供爨刈芻等事。亦所甘心。第無知之民。不可一一拘繫。故各邑里中。皆以識理慷慨之人。差定里將有司。各其里中之人。勸令還集。又抄其丁壯。使赴國家之急。今茲數邑。略已成形。而人心未固。不作久計。其家屬糧資。皆在山上。乍聚乍散。朝夕異態。其能冒死不避。時未<sup>P</sup>可知。以此憂慮罔涯。既聚之後。不可每示溫言。亦必以號令鎮之。可濟大事。而臣無威重。又非所職。不知何以處之也。第以危亂之時。事難循例。而近邑存亡。繫於朝夕。賊醜進退。在於呼吸。所當急時料理。而受命之人。獨有微臣。憫迫之中。不計越職。或爲方伯之事。或爲主將之事。或爲守令之事。或爲里正之事。出入村落。巡歷官府。大小之務。隨時措處。而若無守宰之邑。則不可無人守城。故安東則前都事安霽前檢閱金涌。豐基則校書博士黃曙。義城則訓練權知權希舜。醴泉則前縣監李愈。竝假將差送。使之句當官務。四邑丁壯。幾爲抄出。而榮川奉化禮安。亦略措<sup>P</sup>置。故使龍宮縣監禹伏龍前判官趙鵬。領本縣及醴泉之軍。措捕多仁等地之賊。使禮安縣監<sup>申之倥</sup>新及第權詮。領本縣及安東之軍。謀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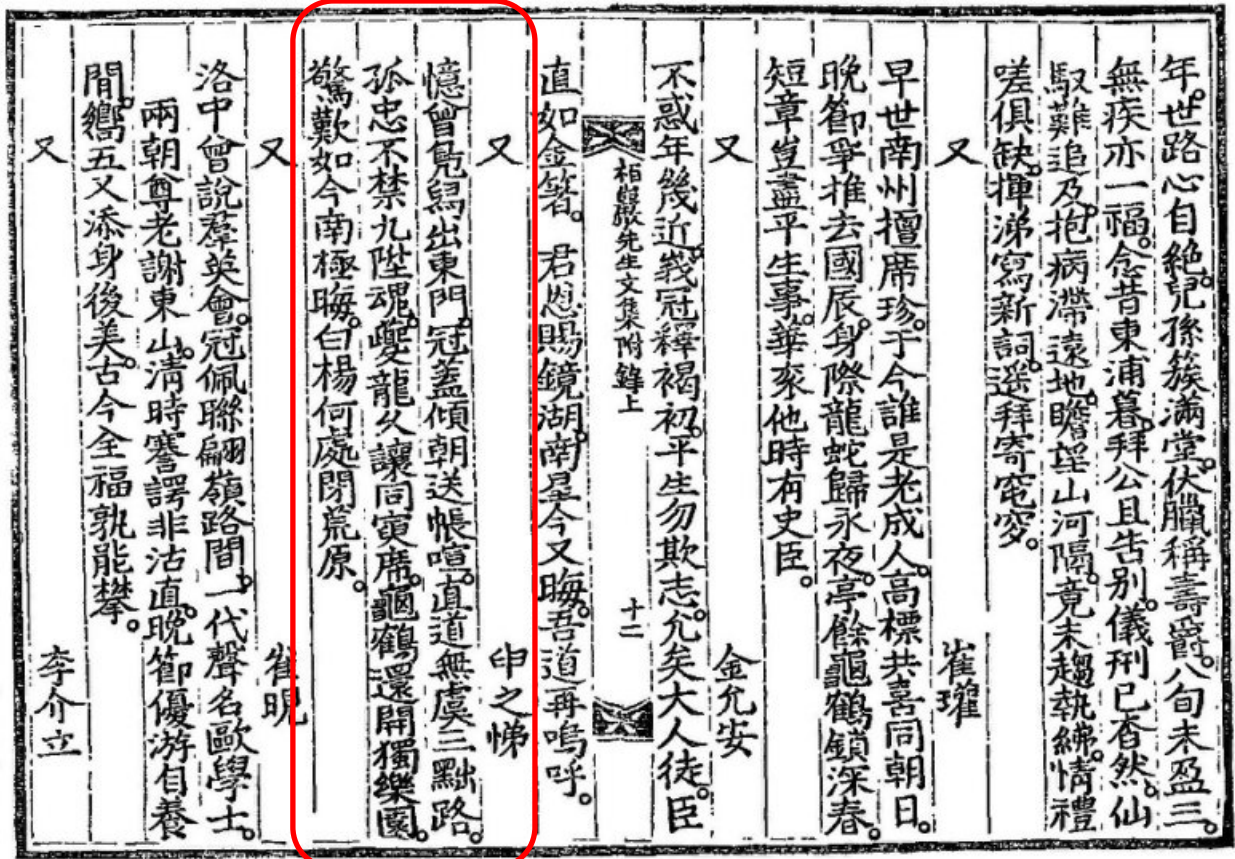
義城以下之賊。若奉化榮川豐基軍人。則待兩處探候之來。然後隨其所用之多寡。量宜分送。而多仁義城之賊。焚蕩殺掠之數。不可勝計。或與旁近屯住之倭。連臂合勢。則孤軍弱卒。恐不能支矣。若多仁義城之賊。已爲就捕。則隨宜進軍。自京直路之倭。亦令殲滅。以通右道之路。使之彼此協力。而右道列邑之或能保全者。略不得聞。雖已草檄。亦不能傳。事之難處。尤不可言。青松眞寶盈德清河興海等邑。僅保於賊藪之旁。而與慶<sup>P</sup>州相近。故慶州留住之倭。已令合力措捕。而昨見盈德文報。則以賊勢探候事出去云。但此等之邑。物力殘薄。難於大舉。是用爲憫。軍糧軍器。則守令等赴戰奔潰之際。散棄於野。還官逃避之時。見偷於人。寸刃斗粟。亦無所遺。今令盜取之人。許其自首。時或還納。而百不得一。方鳩聚鐵物。而打造之際。必至留時。收合私儲。而忙遽之間。未易作米。板蕩之後。凡事皆難。姑且隨備隨用。而若有私儲之優納者。則從當啓聞論賞事。已諭於衆矣。大概本道蕩敗之由。皆緣將帥守令之非人。而人心之潰裂。又從而乘之。言之氣塞。不覺失聲。爲將者遲留退避之狀。得於傳聞。今難<sup>P</sup>備達。而若安東。物衆地大。且有城子。爲竹嶺初程之保障。而軍額之多。義城爲最。堅守二城。合力於旁邑。則賊未易搏食以西。而府使縣令。先自恇怯。寇賊不一喙息於百里之外。而挺身逃去。爲他邑望。安東判官豐基醴泉等郡守。相繼遠遁。使官事至於蕩然。極爲痛心。近處數邑之外。皆爲賊路。消息不通。其餘郡邑之存亡。守令之有無。皆不可知。安東義城豐基醴泉等邑守令。爲先差出。刻期發送。使之及時料理。流聞本道左監司曾已差出。而至今尙無形影。又不知其故也。左道兵使亦合擇差。使之維繫軍情。掃除窮賊。時不可失也。當此危亂之時。得人爲急。禮安則縣<sup>P</sup>監<sup>P</sup>申<sup>P</sup>之<sup>P</sup>梯。挺然自守於列邑奔潰之際。使官事略無所虧。龍宮則縣監禹伏龍。凡百措置。克盡其方。雖寇賊逼境。而一不之動。盡誠盡力。期於勦捕。一邑吏民。樂爲之用。獨立奔波。極爲可嘉。安東等守令。亦以盡心王事者差之。則一隅數邑。庶或保存於既敗之餘矣。集慶殿參奉鄭士誠。洪汝栗等。陪奉御容。指向都城。行至原州。賊已踰嶺。道不得通。還到禮安。臣馳進同縣。見汝栗問之。則寇患已迫。人心極悖。意外之變。不可不慮。隨其身所在之處。謹密奉藏云。臣痛哭失聲。罔知爲處。山刹則難於守護。閭里則尤非所安。姑待數日。義城醴泉之賊。或有驅勦之勢。則淨<sup>P</sup>掃官舍。奉而安之。定軍人衛護。率守令祇謁。則人心之感動。想倍於前日。臣瞻望西極。天威咫尺。奉侍睟容。神儀儼臨。庶幾賴天之靈。或可濟事於萬一。而上道之人。本不閑於武事。值此危急之日。一無制兵之才。如臣腐儒。措手無策。雖切補天。一死何爲。前判官趙鵬前部將朴慶新前萬戶金克裕。崔大仁。則得之羈困之中。留作兵武之用。而此特轅門一卒耳。既無統御之人。則軍政之渙散。孰爲之收拾哉。狂賊之逼京者。如飄風驟雨。其勢不得不自散。天兵之下。亦必有勦殲者。而道路阻隔。時未之間。雖疲散之卒。隨其所得。可以入援。而傳聞三道之兵。已會京城。賊<sup>P</sup>若難支。則本道留屯之倭。似將奔往合力。助其聲勢。故姑與數邑大小之人。嚴其約束。圖出鄉兵。屯住直路之要害。遮截竹嶺之咽喉。倭寇之往者來者。隨皆勦捕。使入京之賊。首尾斷截。則上可以遠衛王室。下可以近保數邑。而人心已潰之餘。怪雨又作。田疇盡爲漂沒。民無生道。益思離散。收集人心。亦爲極難。五內崩墜。罔知所達。

附錄 / 附錄 上

성주 신순보 지제 의 시에 차운하다[次邑主申順夫 之悌]

14世 지제(之悌) 父 : 몽득(夢得) 祖父 : 응규 (應奎) 귀파(龜派)오봉공파(梧峰公派)

憶曾鳧鳥出東門。冠蓋傾朝送帳喧。直道無虞三黜路。孤忠不禁九陞魂。夔龍久讓同寅席。龜鶴還開獨樂園。驚歎如今南極晦。白楊何處閉荒原。



## 서계선생문집(西溪先生文集)

## 형태서지

권수제	서계선생문집(西溪先生文集)
판심제	서계선생문집(西溪先生文集)
간종	활자본(木活字)
간행년	1833 년 간행
권책	4 권 2 책
행자	10 행 20 자
규격	22.0×16.2(cm)
어미	上下三葉花紋魚尾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도서번호	한 46-가 893
총간집수	한국문집총간 속 8

## 저자

성명	이득윤(李得胤)
생년	1553 년(명종 8)
몰년	1630 년(인조 8)
자	극흠(克欽)
호	서계(西溪)
본관	경주(慶州)
초명	덕윤(德胤)
특기사항	서기(徐起), 박지화(朴枝華)의 문인. 김장생(金長生), 정사호(鄭賜湖) 등과 교유



## 행력

왕력		서기	간지	연호		연령	기사
명종	8	1553	계축	嘉靖	32	1	윤 3 월 30 일, 태어나다.
선조	8	1575	을해	萬曆	3	23	부친상을 당하다. ○ 묘소 아래에 追遠堂을 짓다.
~	~	~	~	~	~	~	孤靑 徐起, 守庵 朴枝華에게 수학하다.
선조	21	1588	무자	萬曆	16	36	진사시에 합격하다.
선조	24	1591	신묘	萬曆	19	39	서기를 곡하다.
선조	30	1597	정유	萬曆	25	45	1 월, 학행으로 禧陵 參奉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 3 월, 모친상을 당하다. ○ 翫易齋를 짓고 자호를 '西溪'라 하다.
선조	33	1600	경자	萬曆	28	48	6 월, 王子師傅가 되다.
선조	35	1602	임인	萬曆	30	50	형조 좌랑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선조	36	1603	계묘	萬曆	31	51	교정청에서 「周易」을 校正한 공으로 승직하여 공조 정랑, 형조 정랑, 의빈부 도사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선조	37	1604	갑진	萬曆	32	52	2 월, 義城 縣令이 되다.
선조	39	1606	병오	萬曆	34	54	淸州 郡守 韓百謙이 〈周穆卦變圖〉를 간행하여 주자 발문을 짓다.
선조	40	1607	정미	萬曆	35	55	淸州 西溪로 낙향하여 玉華洞에 玉華九曲을 설정하고 第五曲에 春風堂, 秋月軒 등을 짓고 학문에 전심하다.
선조	41	1608	무신	萬曆	36	56	有定書院(莘巷書院) 院長에 추대되어 후진을 양성하다.
광해 군	3	1611	신해	萬曆	39	59	三南 지방에 통문을 보내 이언적과 이항을 무고한 鄭仁弘을 성토하다.
광해 군	12	1620	경신	泰昌	1	68	「玄琴東文類記」를 編述하다.
인조	1	1623	계해	天啓	3	71	遺逸로 持平이 되다. ○ 공조 정랑이 되다. ○ 9 월, 선공감 첨정이 되다.
인조	2	1624	갑자	天啓	4	72	2 월, 槐山 郡守로 부임하다. ○ 12 월, 귀향하다.
인조	8	1630	경오	崇禎	3	78	5 월 28 일, 졸하다. ○ 8 월, 淸州 선영에 장사 지내다.
순조	33	1833	계사	道光	13	—	6 대손 李靜淵이 문집을 간행하다.

## 편찬및간행

저자는 孤靑 徐起와 守庵 朴枝華의 문인으로, 易學에 밝았으며 그가 남겼다는 <西溪李先生家藏訣>은 「鄭鑑錄」의 일부로 되어 있다. 음악에 정통하여 1620년에는 명현들의 거문고에 대한 銘, 賦, 記, 詩, 書와 安瑞, 趙晟, 許嗣宗 등이 지은 악보를 모은 <古今琴譜見聞錄>을 수록한 「玄琴東文類記」를 編述하여 역대 琴譜를 집대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저자의 시문은 사위 卞時望의 4대손인 梅坪 卞至鼎이 병란과 화재로 산실되고 남은 유고 약간 편을 수습하여 本孫에게 베껴서 소장하게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6대손 李靜淵이 산재된 유문을 수집하고 증보 재편하여 1833년에 목활자로 인행하였다.《초간본》이 본은 국립중앙도서관(한 46-가 893), 규장각(奎 4233), 장서각(4-6114, D3B-715),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그 밖에 상기 초간본에 후손 李漲源의 부탁으로 1834년에 宋欽象과 金奎瑞가 지은 발문 2편을 추가한 추각본이 충남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본서의 저본은 1833년에 목활자로 인행한 초간본으로 국립중앙도서관장본이다.

序(洪奭周 撰), 跋(李靜淵 撰), 跋(宋欽象·金奎瑞 撰, 忠南大本), 本集內容 등에 의함

## 구성과내용

본집은 4권 2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권수에 洪奭周가 지은 序와 목록이 있으며, 권미에는 1833년에 6대손 李靜淵이 지은 跋이 있다.

권 1은 七言絶句(46), 五言四韻(4), 七言四韻(3), 疏(8)이다. 저자의 行狀에는 이항의 <陶山十二曲>을 본받아 <西溪六歌>와 <玉華六歌>의 12곡을 지었다고 하나 본집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칠언 절구의 <題田畝> 2수는 文章이나 榮達, 仙術 등에 힘쓰기보다는 부지런히 농사지으며 살아가는 村老의 삶을 기린 글이며, 칠언사운의 <李進士遷葬挽歌>에서는 25세에 요절한 벗 李大建을 애도하였다. <三才變極疏>는 1623년 겨울에 올린 것으로, 三才가 常道를 잃어 五音이 조화를 상실하면 변란이 있을까 두렵다는 내용인데, 얼마 후 李适의 난이 일어났다. <槐山郡民瘼疏>는 1624년 괴산 군수 때에 田結虛負, 水軍, 刷馬輸運의 병폐를 주달하고 시정책을 논한 것이다. <陳情疏>는 1627년에 연이은 家患 등의 개인적인 사정을 아뢴 것이며, <陳弊疏>에서는 象數로써 다스리고 어지러운 이치를 밝히며 自強하는 도리를 아뢰었다.

권 2는 書(24)이다. <答金希元問目>은 옥화구곡에 칩거할 당시 金長生과 太極圖와 易學에 관해 토론한 내용이며, <答鄭下叔>은 鄭斗源과 거문고에 관한 지식을 교류한 것이다. 그 밖에 鄭賜湖, 문인이자 족손인 李時發, 卞時望 등과의 편지가 있다.

권 3은 雜著(3), 序(2), 題跋(3), 箴(1), 銘(4), 祝文(2), 祭文(9), 行狀(3), 禮說(14)이다. <徐山丈傳後序>에서는 흑자와의 문답 형식을 통하여 스승 徐起를 기리고 있으며, <勸學箴>은 왕자사부였을 때 왕자를 면려한 잠언이다. <琴銘>에서는 역학과 음률에 정통한 저자의 경지를 알 수 있다. 제문은 徐思遠, 鄭賜湖, 卞景福 등의 것이며, 예설은 被髮, 童子服, 奔喪, 墓祭 등 喪禮와 祭禮에 관한 14항목을 기술하였다.

권 4는 부록으로 金尙憲, 崔鳴吉 등이 지은 挽詞(33), 아우 李光胤·사돈 卞惟寅 등이 지은 祭文(14)과 문인 卞時益이 지은 行狀, 손자 李萬憲의 청으로 1657년에 李景奭이 지은 墓碣銘과 祝文(4)이 있다.

## 이득윤(李得胤)

### 정의

조선시대 『현금동문유기』, 『서계집』, 『서계가장결』 등을 저술한 유학자. 역학자(易學者), 음악인.

### 내용

본관은 경주(慶州). 자는 극흠(克欽), 호는 서계(西溪). 고려말 문신 이제현(李齊賢)의 후손으로, 유학자 서기(徐起)의 문하에서 수학한 뒤 박지화(朴枝華)에게 역학(易學)을 배우고, 1588년(선조 21)에 진사가 되었다.

1597년 학행으로 추천되어 희릉참봉(禧陵參奉)이 되었으나 곧 사직하고 독서에 전념하다가 왕자사부(王子師傅)가 되고 이어서 형조좌랑·의성현령을 지냈다. 광해군 때 혼란한 정계를 피하여 고향에 머무르면서 김장생(金長生)·정두원(鄭斗源) 등과 서한을 교환하며 역학과 음악을 토론했다.

음악에 남다른 관심을 두어 고향에 머무르는 동안에 거문고에 관련된 명(銘)·부(賦)·기(記)·시(詩)·서(書)·악보·고금금보(古今琴譜) 등을 집대성하여 『현금동문유기(玄琴東文類記)』라는 귀한 거문고 악보를 후세에 남겼다.

1623년 인조반정으로 선공감(繕工監)의 정(正)이 되고, 이듬해 괴산군수가 되어 이괄(李适)의 난으로 소란해진 민심을 수습하고 관기를 바로잡는 등 선정을 베풀었다. 청주의 신흥서원(莘巷書院)과 청안(淸安)의 구계서원(龜溪書院)에 제향(祭享)되고 있다.

『현금동문유기』외에 저서로 『서계집(西溪集)』·『서계가장결(西溪家藏訣)』이 있다. 특히, 정두원과 나눈 서한의 내용을 담은 『현금동문유기』는 『안상금보(安常琴譜)』·『조성금보(趙晟琴譜)』와 더불어 임진왜란 이전의 음악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卷之四 / 附錄

만사[신지익] 挽詞[申之益]

14世 지익(之益) 父 : 로(櫓)      祖父 : 천령 (千齡)      귀파(龜派)      직장공파(直長公派)

平生誠敬本多功。聖學相傳允執中。一貫工程期慥慥。兩楹凶夢遽忽忽。庭前翠栢含哀色。齋下寒泉咽怨涼。病裏格言猶在耳。數聲薤露激悲衷。

西溪接洙泗。東國作之師。函丈摳衣日。書齋立雪時。樑摧多士痛。龍逝哲人悲。餘慶肖存後。庭趨飽禮詩。

申之益

道東十載後。奎壁降文明。氣像高山在。曾櫓活水清。 蘭房曾托契。達籍幸聯名。鵬路雖垂翅。鸞樓早振纓。 軒裳非素志。泉石結幽盟。盤餐攀先哲。青幹引後生。 詩書兼義訓。學問用工程。讀易編三絕。窮經歲幾更。 避齡膺介福。餘慶紹家聲。大壺雲倚及。浮生夢忽驚。 百年存沒恨。萬事別離情。洙泗源絕。儒林大厦傾。 龍門孤月霽。鹿洞冷雲橫。醉後羊曇淚。臨風灑九京。	平生誠敬本多功。聖學相傳允執中。一貫工程期慥慥。兩楹凶夢遽忽忽。庭前翠栢含哀色。齋下寒泉咽怨涼。病裏格言猶在耳。數聲薤露激悲衷。 西溪接洙泗。東國作之師。函丈摳衣日。書齋立雪時。樑摧多士痛。龍逝哲人悲。餘慶肖存後。庭趨飽禮詩。 申之益	省得瞻仙表。先生赴召初。學窮河洛秘。身老水雲居。 南極星翻隱。西溪宅已虛。無由奉函丈。吾道日蕭疎。 李尚質	養德林泉下。平居學業醇。義經探蘊奧。顏巷任清貧。 恩秩紆三品。遐齡享八旬。追思先分厚。南望倍霑巾。 崔惠吉	附錄 西溪先生文集卷四 四 全 混
-------------------------------------------------------------------------------------------------------------------------------------------------------------------------------------------------	-----------------------------------------------------------------------------------------------------------------------------	-------------------------------------------------------------	-------------------------------------------------------------	----------------------------



卷之四 / 附錄

제문[신지익] 祭文[申之益]

14世 지익(之益) 父 : 로(櫓)

祖父 : 천령 (千齡)

귀파(龜派)

직장공파(直長公派)

天生夫子。夫豈偶然。既生夫子。云胡不天。以夫子德。置諸巖廊。出治風化。澤及四方。天胡不然。跡滯巖邑。以夫子學。任諸臺閣。繩愆糾謬。致君三代。天胡不然。身在遐裔。幸逢昭代。位躋貂秩。人謂其榮。我謂其屈。既有其德。必有其爵。踐履眞實。莫如夫子。實浮名沉。嗟我夫子。家傳清白。世稱孝友。文章小技。乃其餘事。嘉遯林泉。不屑功利。沉心聖學。日夕乾乾。溯之洄之。河洛眞源。平生讀易。韋編幾絕。月窟天根。探蹟奧域。吉凶消長。默契神符。得喪榮辱。豁然腎腑。壽樂東臯。玉華南阿。開亭起榭。得趣吟哦。風月爲懷。詩禮爲業。優遊卒歲。處困愈樂。抱一長琴。遡千古心。數曲慢調。上世遺音。仁山智水。奏出峩洋。純剛爲氣。太和爲腸。頤養精神。謂享百年。如何一疾。累月沈綿。竟至易簣。人莫可追。彼蒼者天。此何忍之。嗚呼哀哉。神龜藏焉。鱗甲疇依。斯文喪矣。後學誰師。邦國之瘁。多士之悲。况乎小子。異乎凡人。年甫十歲。負笈奉遵。函丈從容。誨教諄諄。提撕警覺。開發顛蒙。今焉已矣。孰啓盲聾。摧痛之懷。罔有紀極。聊奠菲薄。小伸誠恪。不昧者靈。庶幾來格。

申之益

西溪集 卷四

英覽 庶賜 啟格

金 瓊

兄入吾家。弟生一歲。撫我適我。視猶親弟。余年纔紀。奄失所怙。以余幼稚。未從祭禮。兄携我歸。潭川東逝。余邁痘疾。死且朝夕。終焉再活。是誰之德。嗚呼。余無祿。又遭妹喪。哀鴻失序。痛若割腸。自初至今。承誨幾年。倘欲仰報。恩亞昊天。余老且病。久闕趨快。新知何有。大德終負。前春一進。眷余猶舊。獻杯叙爵。且感且悲。年高氣衰。兄病疑危。仰瞻儀形。骨力已羸。歸來未久。遽聞凶訃。道已絕矣。誰能繼後。天機將開。月窟復迷。

附錄 西溪先生文集卷四 二十一

平生所學。竟何施諸。白里五馬。非兄之祭。年未及齒。大夢收驚。清秋再會。春有佳約。此願未遂。幽明永隔。病不啻藥。歿不飯舍。背患忘初。死多遺憾。吾黨何歸。聖言難考。長號失聲。感淚如雨。伏哭柩前。奉奠菲薄。不昧者靈。庶幾來格。

尹廷鳩

天生夫子。夫豈偶然。既生夫子。云胡不天。以夫子德。置諸巖廊。出治風化。澤及四方。天胡不然。跡滯巖邑。以夫子學。任諸臺閣。繩愆糾謬。致君三代。天胡不然。身在遐裔。幸逢昭代。位躋貂秩。人謂其榮。我謂其屈。既有其德。必有其爵。踐履眞實。莫如夫子。實浮名沉。嗟我夫子。家傳清白。世稱孝友。文章小技。乃其餘事。嘉遯林泉。不屑功利。沉心聖學。日夕乾乾。溯之洄之。河洛眞源。平生讀易。韋編幾絕。月窟天根。探蹟奧域。吉凶消長。默契神符。得喪榮辱。豁然腎腑。壽樂東臯。玉華南阿。開亭起榭。得趣吟哦。風月爲懷。詩禮爲業。優遊卒歲。處困愈樂。抱一長琴。遡千古心。數曲慢調。上世遺音。仁山智水。奏出峩洋。純剛爲氣。太和爲腸。頤養精神。謂享百年。如何一疾。累月沈綿。竟至易簣。人莫可追。彼蒼者天。此何忍之。嗚呼哀哉。神龜藏焉。鱗甲疇依。斯文喪矣。後學誰師。邦國之瘁。多士之悲。况乎小子。異乎凡人。年甫十歲。負笈奉遵。函丈從容。誨教諄諄。提撕警覺。開發顛蒙。今焉已矣。孰啓盲聾。摧痛之懷。罔有紀極。聊奠菲薄。小伸誠恪。不昧者靈。庶幾來格。

屈既有其儲。必有其壽。履真寶。莫如夫子。賈浮名  
 沉。嗟我夫子。疎傳清白。世稱孝友。文章小技。乃其餘  
 事。嘉繼林泉。不備勛利。沉心聖學。日夕乾乾。閉之烟  
 之。河洛真源。平生讀易。章句幾絕。月窟天根。探賾與  
 城。香山情長。照翠神符。得喪榮辱。豁然皆附。壽樂東  
 華。王垂南阿。開尊起樹。得趣吟哦。風月為懷。詩禮為  
 業。優遊卒歲。處困愈樂。抱一長琴。邈千古心。數曲慢  
 潮。上世遺音。仁山曾水。琴出。詳。純剛為氣。太和為  
 膈。願春稱神。謂享百年。如何。疾。累月。絕。竟至易  
 黃人。莫可追。彼蒼蒼天。此何忍之。嗚呼哀哉。神龜藏

附錄

西溪先生文集卷四

二十二

焉。麟甲嗜依。斯文喪矣。後學誰師。邦國之瘁。多士之  
 悲。况乎小子。異乎凡人。年甫十歲。負笈來遊。函丈從  
 容。誨教諄諄。提撕警覺。開發顯蒙。今焉已矣。孰啓盲  
 聾。摧痛之懷。罔有紀極。聊奠薄壽。小伸誠恪。不昧者  
 靈。庶幾未格。

中之盡

襟懷風月。體釋江湖。道則頗曾。學則程朱。年年窮經  
 疏。而喜易義。理象數。燭照龜卜。湖西夫子。海東康節。  
 蘭香一播。羣聞。九關。教迪一官。辭命斯職。義規兩  
 邑。鳳樓子棘。來暮方歌。去思遺瑞。一賦歸來。數椽墨

## 서담선생문집(西潭先生文集)

## 형태서지

권수제	서담선생문집 원집(西潭先生文集 原集)
판심제	서담집(西潭集)
간종	목판본(木版本)
간행년	1846 년 간행
권책	원집(原集) 4 권, 부록(附錄) 상하(上下) 합 2 책
행자	10 행 20 자
규격	22.7×16.7(cm)
어미	上下二葉花紋魚尾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도서번호	古 3648-文 93-49
총간집수	

## 저자

성명	홍위(洪瑋)
생년	1559 년(명종 14)
몰년	1624 년(인조 2)
자	위부(偉夫)
호	서담(西潭)
본관	남양(南陽)
특기사항	유성룡(柳成龍)의 문인. 정경세(鄭經世), 이준(李俊), 장현광(張顯光) 등과 교유

## 행력

왕력		서기	간지	연호		연령	기사
명종	14	1559	기미	嘉靖	38	1	10 월 2 일, 軍威縣 外良谷里에서 태어나다.
명종	19	1564	갑자	嘉靖	43	6	부친에게 수학하다.
선조	10	1577	정축	萬曆	5	19	喬桐印氏 印之信의 딸과 혼인하다.
선조	12	1579	기묘	萬曆	7	21	2 월, 柳成龍의 문인이 되다.
선조	14	1581	신사	萬曆	9	23	12 월, 장남 洪宗慶이 태어나다.
선조	18	1585	을유	萬曆	13	27	12 월, 차남 洪善慶이 태어나다.
선조	21	1588	무자	萬曆	16	30	생원시에 합격하다. ○ 성균관에서 申之悌, 崔暉 등과 교유하다.
선조	22	1589	기축	萬曆	17	31	7 월, 삼남 洪重慶이 태어나다.
선조	25	1592	임진	萬曆	20	34	4 월, 부모를 모시고 태백산으로 피란하다.
선조	26	1593	계사	萬曆	21	35	2 월, 부친상을 당하다. ○ 9 월, 모친상을 당하다.
선조	30	1597	정유	萬曆	25	39	體察使 李元翼에게 斥和攻戰을 주장하는 편지를 올린다.
선조	32	1599	기해	萬曆	27	41	3 월, 玉淵書堂에 낙향해 있던 유성룡을 찾아뵈다. ○ 7 월, 이황의 사당에 참배하고 商山(尙州)의 鄭經世를 방문하다. ○ 8 월, 善山의 盧景任을 방문하다.
선조	34	1601	신축	萬曆	29	43	4 월, 문과에 합격하다. ○ 7 월, 성균관 부정자가 되다. ○ 의정부 사록, 성균관 정자가 되다.
선조	35	1602	임인	萬曆	30	44	11 월, 봉상시 참봉이 되다.
선조	36	1603	계묘	萬曆	31	45	전란으로 逸失된 「南陽洪氏世譜」를 다시 만들다.
선조	38	1605	을사	萬曆	33	47	8 월, 박사가 되다.
선조	39	1606	병오	萬曆	34	48	6 월, 사헌부 감찰이 되다. ○ 12 월, 공조 좌랑, 예조 좌랑이 되다.
선조	40	1607	정미	萬曆	35	49	2 월, 병조 좌랑이 되다. ○ 4 월, 司果가 되다. ○ 5 월, 유성룡을 곡하다.
선조	41	1608	무신	萬曆	36	50	副司勇, 典籍, 兵曹 佐郎, 統制使 從事官이 되다.
광해군	1	1609	기유	萬曆	37	51	1 월, 司諫院 正言이 되다. ○ 이해에 正言은 3 차례, 持平은 2 차례 제수받다.
광해군	2	1610	경술	萬曆	38	52	2 월, 司果가 되다. ○ 4 월, 掃墳차 귀향했다 돌아오던 중 尙州에서 소란을 일으킨 백성을 장살한 사건으로 興陽에 유배되다. ○ 9 월, 아우 洪璞을 곡하다. ○ 10 월, 放還되다.
광해군	3	1611	신해	萬曆	39	53	낙향하여 軍威縣 慕魯洞에 望先臺를 짓고 ‘西潭’이



							라 自號하다.
광해군	8	1616	병진	萬曆	44	58	가을, 장남 홍종경이 진사시에 합격하다.
광해군	10	1618	무오	萬曆	46	60	봄, 善山 松亭에서 張顯光, 金涌, 金允安, 盧景任 등과 교류하다.
광해군	11	1619	기미	萬曆	47	61	2 월, 鄭經世, 李堧, 李竣, 盧景任 등과 屏山書堂에서 유성룡의 문집을 纂修하다.
광해군	14	1622	임술	天啓	2	64	봄, 南溪에 유성룡을 위한 서원 건립에 대해 의논하다. ○ 12 월, 장남 홍종경이 죽다.
인조	1	1623	계해	天啓	3	65	4 월, 병조 정랑이 되다. ○ 5 월, 성균관 사예, 병조 정랑이 되다. ○ 6 월, 삼남 홍종경이 죽다. ○ 안동 부사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 예천 군수가 되다. ○ 11 월,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간다.
인조	2	1624	갑자	天啓	4	66	2 월, 이괄의 난으로 인조가 공주로 播遷하자, 병사와 군량을 모집하다. ○ 8 월 22 일, 군위현 外良谷里 집에서 즐하다. ○ 12 월, 군위현 德洞 선영에 장사 지내다.
정조	10	1786	병오	乾陵	51	—	군위현 良川書院에 봉안되다.
헌종	12	1846	병오	道光	26	—	木板으로 원집이 간행되다.
고종	32	1906	병오	光武	10	—	10 세손 洪在英 등이 木活字로 속집을 인행하다.

## 편찬및간행

저자의 시문은 병란과 화재를 거치는 동안 散佚되고 남은 약간 편이 家藏되어 있었다. 1682 년에 손자 洪昇이 유고를 2 책으로 收拾 淨寫하여 家藏해 두었다. 5 대손 洪瀚과 洪滄, 洪<sup>爽</sup>이 李象靖에게 유고의 校勘과 跋文을 부탁하였으나 이상정이 이를 마치지 못하고 졸하자, 그 아우 李光靖이 대신 유고를 교정하였다. 이때 간행을 하고자 柳<sup>塗</sup>(1730~1808)에게 刊役告成文까지 받아 두었으나, 원집에 실린 <良川社奉安文>에 “正宗朝丙午陽坡先生并享時”라고 註를 단 것에서 왕의 사후에나 쓸 수 있는 ‘正宗’이란 어휘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간행은 正祖가 서거한 1800 년 이후에 이루어졌고, 속집에 실린 후손 洪在謙의 발문에 “往在丙午原集鋅板之日”이라 한 것에서 1800 년 이후 丙午年에 해당하는 1846 년에 원집이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원집》이 본은 현재 국립중앙도서관(古 3648-文 93-49), 규장각(奎 5937, 古 3428-47), 국사편찬위원회(D3B-199), 장서각(4-6118, D3B-509),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원집을 간행한 뒤 4, 50 년이 지났을 때 원집에 실리지 못했던 洪昇이 지은 年譜 및 추후에 수집된 詩文을 수습하여 1 책을 만들었다. 1906 년에 旁孫 洪圭燮, 洪潤燮과 10 세손 洪在英 등이 속집을 인행하기로 결정하여 10 세손 洪在謙에게 校正을 맡기고 방손 洪樟燮의 評訂을 받아 年譜, 詩文, 附錄 등을 포함한 1 책을 木活字로 인행하였다.《속집》이 본은 현재 국립중앙도서관(古 3648-文 93-49), 국사편찬위원회

(D3B-199), 장서각(D3B-508, D3B-509),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이 중 국립중앙도서관장본, 국사편찬위원회장본, 장서각장본(D3B-509),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장본,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장본 등은 원집과 속집이 합부되어 있다.

본서의 저본은 1846년에 목판으로 간행된 원집과 1906년에 목활자로 인행된 속집을 합부한 것으로 국립중앙도서관장본이다. 본 영인 저본은 原集 卷3의 제1판은 상태가 불량하여 동일본인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장본(811.98/홍위/서-판)으로 대체하였다.

序(蔡濟恭 撰), 跋(李光靖 撰), 續集跋(柳峻睦·洪在謙 撰), 本集內容 등에 의함

## 구성과내용

본집은 原集 4권, 附錄 上下 합 2책과 續集 3권, 附錄 합 1책이 습부되어 있다.

원집의 권두에는 1779년에 채제공이 지은 서문과 원집의 목록이 있다.

권 1~2에는 詩 156제, 詞 1제가 실려 있다. 시는 詩體名을 드러내지는 않았으나 앞부분에는 오언시(53), 뒷부분에는 칠언시(70)를 실었으며, 권 2 끝 부분에 輓詩 13제를 모아서 실었다. <留贈同學諸君>은 1610년에 유배지인 興陽에서 돌아온 뒤 지은 것으로, 同學에게 시간을 아껴 학문을 닦아 인재를 양성할 것을 권면한 시이고, <憶西厓先生>은 스승 유성룡을 그리며 1606년에 지은 오언시이다. <感懷視南溪同志諸君子>는 스승 유성룡, 李軫·李輔 형제,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며 3수의 시를 지어 南溪에서 함께 수학했던 동지들에게 보여 준 것이다.

권 3~4에는 疏(1), 書(20), 祭文(8), 墓碣(3), 雜著(8)가 실려 있다. <諫院疏>는 1609년에 사간원 정언으로 재임할 때 올린 소로, 天變을 거친 뒤 조정의 기강을 바로잡고 풍속을 교화시키기 위해 임금이 辨邪正, 絕嗜慾, 親君子, 遠小人, 廣聖學에 힘써야 함을 건의한 내용이다. 편지는 李元翼, 南以恭, 趙慶起, 李好閔 등과 사위 朴琛(7), 아들들(2)에게 준 편지이다. 체찰사 이원익에게 올린 편지에서는 明軍이 왜적과 和議를 원한다는 소식에, 무기와 병사를 모집하고 산성을 구축하여 방어 준비를 해야 한다고 主戰論을 펼쳤다. 제문은 유성룡, 李輔, 李光俊, 趙翊 등과 아우 洪璞, 아들 洪宗慶·洪重慶 등을 애도하는 것이다. 묘갈은 先考 洪訢, 文穆, 文應麟의 것이다. 잡저 중 <上麻提督詩歌拜>는 명의 提督 麻貴에게 우리나라에 왜적을 막아 주러 온 것에 대해 감사하는 글과 시이고, <營建南溪書院議>는 1620년에 남계에 유성룡을 위한 서원을 건립할 것을 주장한 글이다.

附錄上에는 鄭葵陽이 지은 行狀, 李竣이 지은 묘갈명, 鄭宗魯가 지은 묘지명이 있다.

附錄下에는 이준, 申之梯, 曹友仁 등이 저자에게 준 詩 12제와 柳成龍, 李好閔, 鄭經世 등이 저자에게 준 편지 22편, 曹友仁, 李民成, 申達道 등이 저자를 애도하며 지은 輓詞 9편이 있다. 또 저자가 세운 新峯草堂을 七灘書堂으로 바꾸면서 1749년에 南泰普가 지은 <七灘書堂上樑文>, 1786년에 칠탄서당이 良川社로 바뀌고 그곳에 저자를 배향할 때 李光靖이 지은 <良川社奉安文>, 柳澗(1730~1806)가 지은 <西潭先生文集刊役告成文>이 있다.

원집 마지막에 1785년에 이광정이 지은 발문이 있다.

속집은 권두에 속집 목록이 있다. 권 1은 先系로, 唐나라에서 고구려에 文學之士를 파견할 때 온 洪天河를 1세로 하여 10세 洪夢疇까지와, 다시 20代祖 洪殷悅을 1세로 하여 저자의 부친 洪訢까지 20세의 略歷을 기술했다.

권 2는 年譜로, 저자가 태어난 1559년부터 살았던 慕魯洞에 兩巖亭을 짓고 柳道奭 등이 儒楔를 맺는 1899년까지의 기록이다.

권 3은 詩(14), 賦(17), 策文(1), 書(3), 祭文(1), 附錄이다. 부록에는 증손 洪處貞이 지은 家狀, 손자 洪昇이 1682년에 지은 <敬書遺稿後>, 趙任이 지은 輓, 9대손 洪槩變과 후학 張錫龍이 1897년에 지은 <兩巖亭開基祝文>과 <兩巖亭上樑文>, 柳道獻·洪遠華·金奎昌이 지은 記가 있다.

마지막에 1906년에 柳峻睦이 지은 跋, 10세손 洪在謙이 지은 識가 있다.

## 홍위(洪瑋)

### 정의

조선시대 세자시강원사서, 정언, 병조정랑 등을 역임한 문신.

### 개설

본관은 남양(南陽). 자는 위부(偉夫), 호는 서담(西潭). 군위출생. 공조참의 홍의동(洪義全)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참봉 홍우식(洪禹軾)이고, 아버지는 증한성부우윤 홍흔(洪訢)이며, 어머니는 홍흔(洪渾)의 딸이다. 유성룡(柳成龍)의 문인이다.

### 생애 및 활동사항

1588년(선조 21) 사마시에 합격한 뒤 1592년 임진왜란을 맞아 부모를 정성껏 보호하였다. 이듬해 이원익(李元翼)이 체찰사로 파견되었을 때 수천언의 척화토적책(斥和討賊策)을 진언(陳言)하여 크게 참고하게 하였다.

1601년 생원으로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고, 지평·예조좌랑·성균관전적 등을 역임하였다. 이어 통제영종사관(統制營從事官)으로 선임되어 통제사를 보좌하여 백성을 구휼하였으며, 전비를 강화하는 데 공이 컸다.

다시 내직으로 들어와 춘추관기사관·세자시강원사서·정언·지평 등 요직을 역임하면서 직언으로 시사를 바로잡았다. 광해군대에 정치가 어지러워지자 관직에서 물러나 후생교육에 힘썼다.

그 뒤 1623년(인조 1) 인조반정 후에 다시 벼슬길에 나가 병조정랑·예천군수 등 내외직을 역임하였다. 정경세(鄭經世)·장현광(張顯光) 등과 친교가 두터웠다. 저서로는 『서담집』이 있다.

卷之一 / [詩]

孝縣次申順夫 之悌號梧峯 韻 間賊與天兵相持於公州錦江等處故云

14世 지제(之悌) 父 : 몽득(夢得) 祖父 : 응규(應奎) 귀파(龜派)오봉공파(梧峰公派)

古縣人稀夕。荒林葉落時。天心寧有極。世事本無期。樽酒班荆久。兵塵暗塞危。公城消息遠。西望獨支頤。

孝縣次申順夫 之悌號梧峯 韻 間賊與天兵相持於公州錦江等處故云。

古縣人稀夕。荒林葉落時。天心寧有極。世事本無期。樽酒班荆久。兵塵暗塞危。公城消息遠。西望獨支頤。

避賊將行。書昝子吉景順戚契。

朝社依墻壁。山河入戰場。西江持勝負。東海可遁藏。心事危途急。行裝歧路忙。滾警知未報。生死一毫茫。

又

草草行裝薄。怱怱道路危。分離何忍說。生死固難期。遼鶴悲城古。周烏歎屋誰。愁吟無痛哭。雷與故人知。

曉發 間賊至。與倒登。

西潭集卷之一 六

半夜蒼黃出。危途性命輕。腥塵近石嶺。寒角動江城。天地含愁色。山河沸哭聲。杜陵無限意。今日更傷情。

真城途中

峽裏寒雲合。林間細路分。蹇驢行草草。踈雨晚紛紛。關海連唐陣。家園隔楚氛。乾坤日欲暮。愁思轉糾紛。

踏青日。愛日堂席上。次月川韻。

探勝臨江閣。芳洲草色青。沙明天漠漠。春晚樹冥冥。盡日陪遊賞。傾心任醉醒。還驚佳節過。搔首倚風櫺。

洛邸遣懷

殘年愁正苦。羈旅意如何。懶宦因才拙。思歸為病多。

四四〇



卷之二 / [詩]

차신달부(次申達夫) 지효(之孝) 운(韻)

14世 지효(之孝) 父 : 몽득(夢得) 祖父 : 응규 (應奎)

귀파(龜派)응암공파(鷹巖公派)

人間離合猶關命。誰使傷心采艾秋。寸步尙違風雨夕。長安況隔樹雲悠。瓊章暫慰連宵夢。歸袂難謀一日留。寂寞離愁將歲暮。夜來霜月滿西樓。



西潭集 卷二

卷之二 / [詩]

만신달부(輓申達夫) 개장시(改葬時)

14世 지효(之孝) 父 : 몽득(夢得) 祖父 : 응규 (應奎)

귀파(龜派)응암공파(鷹巖公派)

瓊樹摧殘閱幾春。龍蛇月犯少微辰。稟全溫粹才兼學。生際搶攘壽嗇仁。半世明經傳二子。千季幽宅近雙親。故人未執新阡紼。空向天涯淚濕巾。

輓李南溪

慈祥愷悌自全初。政事文辭是緒餘。早歲獨傳厓老學。晚來偏喜晦翁書。循良遺愛留銘碣。清素生涯樂飯蔬。天不壽仁唯有後。九原無路舉籃輿。

又

去季哭厓老。今季哭溪翁。誰將雙白璧。忍埋九泉中。天意實難知。仰視徒夢夢。雲愁玉淵夜。波咽南溪東。吾道日益孤。誰與開羣蒙。茫茫宇宙間。此恨無終窮。長辭隔萬古。空教泣病洪。

輓李鶴洞

西潭集卷之二 十

天姿英毅早揚名。精學通才幹世楨。柄棘只緣毛義屈。芟棠爭覩召公行。李高八耄徵仁壽。慶衍三賢繼美聲。懿範在今人益慕。佇看鄉社祭先生。

又

小生何幸託姻親。三十季來得御頻。覲德每承情緒縈。叩疑濼荷語諄諄。中罹金革悲睽舄。晚汨塵埃負卜鄰。南極忽傳星彩晦。異鄉哀淚倍霑巾。

輓申達夫 改葬時

瓊樹摧殘閱幾春。龍蛇月犯少微辰。稟全溫粹才兼學。生際搶攘壽嗇仁。半世明經傳二子。千季幽宅近



만신승지순부(輓申承旨順夫)

14世 지제(之梯) 父 : 몽득(夢得) 祖父 : 응규(應奎)

귀파(龜派)오봉공파(梧峰公派)

德容端重學醇眞。先輩推爲第一人。桂籍蜚英季最少。春堂榮養孝偏純。銀臺寵秩邯鄲夢。羽谷仙遊億萬春。潭上舊交今抱病。自憐無路送靈輜。

又

親朋寥落曉星稀。人世如何事已非。早歲從遊傷舊跡。暮季離合負初期。蕭蕭白髮留孤影。杳杳丹旌送獨歸。此去定知非永隔。蓬瀛他日倘追隨



附錄下

만사[신달도 호만오] 輓詞[申達道 號晚悟]

13世 달도(達道) 父 : 흠(伋)      祖父 : 원록 (元祿)      읍파(邑派)만오공파(晚悟公派)

惆悵無畦畛。溫良自天真。乘驄振直氣。剖竹沛深仁。蕙死香猶在。鴻飛影未因。斯文堪痛哭。哀淚自霑巾。

輓詞		曹友仁	
後學。依傍揔迷方。斯文千載賴公彰。溫恭處已寧 修飾。誠信交人出肺腸。薄德詐堪希末照。半生猶 喜襲餘芳。從今嶺外儒宗失。瞻望南天涕自洟。			
又		李民宥	
少日。樞衣厓相門。端良文行迥超羣。中年栢署名 時彥。晚境槐安謝世紛。官諒自來循好惡。鄉評何 苦雜。猶薰山陽他日重經過。隣笛悽然不忍聞。			
又		申達道 號晚悟	
惆悵無畦畛。溫良自天真。乘驄振直氣。剖竹沛深 仁。蕙死香猶在。鴻飛影未因。斯文堪痛哭。哀淚自 霑巾。			
又		李大圭	
白玉溫溫絕點疵。早從河上謁淡衣。學師晦退淵 源正。見澈朱程旨訣微。日者喪明公又逝。天之福 善理何違。小生曾被龍門侍。痛哭于今匪為私。			
又		李興南	
萬里青雲器。連城白壁姿。儀容寬有度。衡鑑淨無 私。學正承伊洛。官微止憲司。登門今不再。悽斷重 吾忠。			



만사[신열도 호나재] 輓詞[申悅道 號懶齋]

13世 열도(悅道) 父 : 흘(屹) 祖父 : 원록 (元祿) 읍파(邑派)난재공파(畵齋公派)

小少提杖屨。于今卅餘春。葭莩情義密。鞭策訓誨頻。宿德今無在。斯文便長湮。誰教位不滿。無路問蒼旻。

又

李英男

自托仁賢側。浚欣德照隣。淵源關閩學。忠義夔龍臣。謂展君民志。翻摧柱石身。為公無限淚。何日不霑巾。

又

李民淳

厓翁門下早依歸。更得愚蒼麗澤資。為學淵源元有自。律身言行本無疵。立朝幾歎敦忠義。居室常欽止孝慈。從此吾南斯道晦。儒風他日孰扶持。

又

申悅道號懶齋

小少提杖屨。于今卅餘春。葭莩情義密。鞭策訓誨頻。宿德今無在。斯文便長湮。誰教位不滿。無路問蒼旻。

又

李擇可

學有淵源正名。因擢桂筮。乘駟霜栢府。樓風醴泉城。既失儒先輩。將誰覺後生。故園餘手植。藹露萬松聲。

又

七灘書堂上標文。初以新峯草堂中移為七灘書堂今號良川書社字。

綺歌不嗣歎昔賢之遠。遠棟宇載移。喜後人之改。撰事雖述古地則就新。蓋聞舊有新峯草堂。作者西潭夫子。道脈接陶山之正派。蓋嘗私淑諸人。音

續集卷之三 / 詩

만신승지 몽득 輓申承旨 夢得

13世 몽득(夢得) 父 : 응규(應奎) 祖父 : 한 (翰) 귀파(龜派)

吾君積慶世皆知。忠信傳家德可師。華祝多男寧有懼。箕疇五福自無期。恩榮寵秩銀臺峻。乘化仙區鶴洞奇。情分久從樂棘切。長辭不忍寫哀詞。

白梅兄樹下暗香穠。天涯形影愁中遠。海上歡娛醉後空。脉脉衷情來又去。此時魂夢倘相通。 鬢堂入齋	兩子初晴春尚早。南山爽氣滿虛樓。登臨極目雲天遠。薄暮窓間人自愁。 戲題寄益梅	冷艷殘香不自持。天寒多被雪風欺。春來又怕狂蜂鬧。爲報東君好護之。 輓申承旨 夢得	吾君積慶世皆知。忠信傳家德可師。華祝多男寧有懼。箕疇五福自無期。恩榮寵秩銀臺峻。乘化仙區鶴洞奇。情分久從樂棘切。長辭不忍寫哀詞。 西潭先生續集卷三 二	累世傳家學。平生托契深。昏慵頻見叩。言行永有欽。芳草南溪曲。庭松滿地陰。形容難復覩。卻憶淚沾襟。 輓金正叔 士貞 ○ 號後松齋	聞道沙真古壽鄉。吾兄七十豈云長。傳家懿範遺箴在。衛國貞忠義葆張。天監孝衷應錫福。世無公道且浴光。追思幼少從遊日。強疾題哀涕自滂。 輓鄭梅窓 士信
---------------------------------------------------	-------------------------------------------	---------------------------------------------	--------------------------------------------------------------------------------	--------------------------------------------------------------------	-----------------------------------------------------------------------------

## 성재선생문집(惺齋先生文集)

### 형태서지

권수제	성재선생문집(惺齋先生文集)
판심제	성재선생문집(惺齋先生文集)
간종	활자본(木活字)
간행년	1909 년 간행
권책	4 권 2 책
행자	10 행 18 자
규격	21.2×17.8(cm)
어미	上下二葉花紋魚尾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도서번호	古 3428-719
총간집수	한국문집총간 속 4

### 저자

성명	금난수(琴蘭秀)
생년	1530 년(중종 25)
몰년	1604 년(선조 37)
자	문원(聞遠)
호	성재(惺齋), 고산주인(孤山主人)
본관	봉화(奉化)
특기사항	이황(李滉)의 문인. 조목(趙穆), 김수일(金守一), 구봉령(具鳳齡) 등과 교류

행력

왕력		서기	간지	연호		연령	기사
중종	25	1530	경인	嘉靖	9	1	2월 13일, 禮安縣 淨羅里에서 태어나다.
중종	36	1541	신축	嘉靖	20	12	靑溪 金璉에게 수학하다.
명종	1	1546	병오	嘉靖	25	17	1월, 모친상을 당하다.
명종	4	1549	기유	嘉靖	28	20	겨울, 具鳳齡 등과 淸涼山 上仙庵에서 독서하다.
명종	5	1550	경술	嘉靖	29	21	橫城趙氏 趙大春의 딸과 혼인하다. ○ 趙穆의 권유로 李滉의 문하에서 수업하다.
명종	7	1552	임자	嘉靖	31	23	11월, 조목, 구봉령 등과 玄沙寺에서 修契하다.
명종	8	1553	계축	嘉靖	32	24	10월, 장남 琴愷이 태어나다.
명종	9	1554	갑인	嘉靖	33	25	봄, 惺齋를 짓자 이항이 扁額을 써 주다.
명종	10	1555	을묘	嘉靖	34	26	여름, 조목과 성성재에서 글을 읽다.
명종	11	1556	병진	嘉靖	35	27	4월, 조목과 月蘭庵에서 독서하고, 「朱子書節要」를 繕寫하다.
명종	12	1557	정사	嘉靖	36	28	8월, 차남 琴慄이 태어나다.
명종	13	1558	무오	嘉靖	37	29	4월, 易東書院 터로 鰲潭을 추천하여 이항을 모시고 보러 가다. ○ 가을, 普賢庵에서 李德弘과 머물다.
명종	14	1559	기미	嘉靖	38	30	봄, 이덕홍이 성성재에서 한 달간 유숙하다.
명종	15	1560	경신	嘉靖	39	31	11월, 星州에서 黃俊良과 吳健을 만나다.
명종	16	1561	신유	嘉靖	40	32	鄭琢과 轟石樓를 유람하다. ○ 4월, 雷龍堂에서 曹植을 뵈다. ○ 가을, 생원시에 합격하다.
명종	17	1562	임술	嘉靖	41	33	4월, 3남 琴愷가 태어나다.
명종	19	1564	갑자	嘉靖	43	35	가을, 日洞精舍(孤山亭)를 짓다.
선조	1	1568	무진	隆慶	2	39	1월, 鄭逵가 찾아오다.
선조	3	1570	경오	隆慶	4	41	12월, 이항을 곡하다.
선조	4	1571	신미	隆慶	5	42	1월, 4남 琴恪이 태어나다. ○ 6월, 易東書院에서 퇴계의 문집을 裒集하다.
선조	5	1572	임신	隆慶	6	43	4월, 金富弼 등과 浮石寺를 유람하다.
선조	7	1574	갑술	萬曆	2	45	〈退溪先生易名私議〉를 짓다.
선조	8	1575	을해	萬曆	3	46	5월, 부친상을 당하다.
선조	10	1577	정축	萬曆	5	48	8월, 일동정사로 柳夢鼎이 찾아오다. ○ 10월, 김부필을 곡하다.
선조	12	1579	기묘	萬曆	7	50	4월, 遺逸로 齊陵 參奉이 되다. ○ 8월, 강화도를 유람하다.
선조	13	1580	경진	萬曆	8	51	2월, 박연폭포를 유람하고 崧陽書院의 鄭夢周 사당



성재선생문집(惺齋先生文集) 금난수(琴蘭秀)

							에 참배하다.
선조	14	1581	신사	萬曆	9	52	11 월, 集慶殿 參奉이 되다.
선조	15	1582	임오	萬曆	10	53	8 월, 鮑石亭과 利見臺를 유람하다. ○ 겨울, 玉山書院에서 李彥迪의 글을 講討하다.
선조	16	1583	계미	萬曆	11	54	2 월, 敬陵 參奉이 되다. ○ 李珥가 찾아오다. ○ 7 월, 金誠一과 東西 分黨에 관한 館學儒疏를 논하다.
선조	17	1584	갑신	萬曆	12	55	<讀花潭集辨>을 짓다. ○ 8 월, 李安道를 곡하다.
선조	18	1585	을유	萬曆	13	56	2 월, 金宇顙이 찾아오다. ○ 12 월, 長興庫 奉事が 되다.
선조	19	1586	병술	萬曆	14	57	7 월, 具鳳齡을 곡하다.
선조	20	1587	정해	萬曆	15	58	12 월, 長興庫 直長이 되다.
선조	21	1588	무자	萬曆	16	59	8 월, 4 남 琴恪이 죽다.
선조	22	1589	기축	萬曆	17	60	6 월, 掌隸院 司評이 되다.
선조	23	1590	경인	萬曆	18	61	3 월, 통신사 金성일을 전별하다. ○ 4 월, 사직하고 귀향하다.
선조	25	1592	임진	萬曆	20	63	왜란이 일어나자 金垓와 함께 鄉兵을 모으다.
선조	26	1593	계사	萬曆	21	64	4 월, 金성일을 곡하다. ○ 6 월, 守城將이 되다. ○ 8 월, 安東에서 體察使 柳成龍을 만나다.
선조	27	1594	갑오	萬曆	22	65	申之悌와 청량산 산성을 살펴보고 수축하게 하다.
선조	29	1596	병신	萬曆	24	67	星州 判官과 翊衛司 翊衛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선조	30	1597	정유	萬曆	25	68	장남 琴標을 郭再佑가 있는 火旺山城으로 보내다. ○ 4 월, 天淵臺에서 체찰사 李元翼을 만나다. ○ 守城將이 되다.
선조	31	1598	무술	萬曆	26	69	鄉約을 講修하여 민심을 수습하다. ○ 韓浚謙이 찾아오다.
선조	32	1599	기해	萬曆	27	70	3 월, 奉化 縣監이 되어 향약을 시행하다.
선조	33	1600	경자	萬曆	28	71	玉淵亭에서 柳成龍을 만나다. ○ 5 월, 도산에서 「퇴계집」 간행을 고하다. ○ 8 월, 사직하고 귀향하다.
선조	37	1604	갑진	萬曆	32	75	2 월 13 일, 졸하다. ○ 8 월, 白雲山에 장사 지내다.
선조	38	1605	을사	萬曆	33	—	宣武 原從功臣에 추록되고, 左承旨에 추증되다.
숙종	35	1709	기축	康熙	48	—	禮安 東溪祠에 봉안되다.
순종	3	1909	기유	隆熙	3	—	10 대손 琴鼎基 등이 활자로 문집을 인쇄하다.

## 편찬및간행

저자는 禮安 출신의 학자로 손위 처남인 月川 趙穆의 권유로 退溪 李滉의 문하에 들었고 이황과는 姻戚 관계에 있다. 學行을 겸한 청빈한 선비이자 자연을 완상하는 감성을 아우른 인물로 임진왜란 때에는 守城將으로서 항병을 모으고 군량을 조달하는 등 국난 극복에 앞장서는 실천적인 삶을 살았다.

저자의 시문은 사후 200 여 년이 지나도록 간행되지 못하다가, 8 대손 琴詩述(1783~1851)과 琴書述(1791~1872) 형제 대에 이르러 「퇴계집」 등 여러 문집에서 저자의 시문을 수집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0 대손 琴鼎基와 琴岱基가 저자의 시문을 다시 수집하고, 연보 및 부록 등을 증보 합편하여 1909년에 활자로 문집을 인행하였다.《초간본》이 본은 규장각(古 3428-719), 국립중앙도서관(우촌古 3648-文 11-3),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晚松 D1-A1896) 등에 소장되어 있다.

본서의 저본은 10 대손 琴鼎基 등이 1909년에 활자로 인행한 초간본으로 규장각장본이며, 영인 저본의 권 2는 板次 '二'가 중복되어 있으며, 권 4의 제 3 판은 卷次가 '二'로 誤記되어 있다.

序(金道和 撰), 跋(李晚燾·琴鼎基 撰), 墓碣銘(柳根 撰), 遺事(琴書述 撰) 등에 의함

## 구성과내용

본집은 4 권 2 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두에는 1908년에 金道和가 지은 서문과 목록이 있다.

권 1은 詩 90 題로 시체와 관계없이 저작 연대순으로 수록되어 있다. 1553년에 「心經」을 읽고 이황에게 올린 칠언시를 시작으로 金守一, 裴三益 등과 교유한 시, 두류산과 가야산을 유람하면서 쓴 시, 日洞精舍를 소재로 한 시, 통신사 金誠一을 전송하는 送詩 등으로 대부분 師友간의 贈答詩이다.

권 2는 書(23)와 잡저(10)이다. 서는 이황과 조목, 金就礪, 金성일, 金富倫, 南致利에게 보낸 것이다. <上退溪先生問目>은 상례와 제례에 관해 질의하고 답한 것이고, 조목에게는 살가운 내용 등이 담긴 12 편이 있는데 그중 <答趙士敬>은 기축옥사에 연루된 지인들에 대해 염려하는 편지이다. 잡저는 識(5), 辨(2), 議(1) 등인데, <讀花潭集辨>은 서경덕의 理氣說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退溪先生易名私議>는 이황의 시호로 文, 元, 正 세 자 가운데 '文'이 가장 합당하다는 의견이며, <族契入議後識>와 <洞中鄉約小識>에 붙인 조목은 奉化에서 시행한 향약의 규정이다.

권 3은 記(3), 銘(2), 祭文(2), 年譜이다. <普賢菴壁上.....>은 淸涼山에서 정양하며 학문의 깊이를 다진 인연을 기록하였고, <陶山書堂營建記事>는 1574년에 창건한 도산서원의 건축 기록이다. 명은 좌우명과 유성룡의 玉淵亭에 대한 것이다. 제문은 이황을 애도한 것인데 동문들과 연명으로 쓴 것이 1 편 더 있다. 말미에 부록으로 연보가 있다.

권 4는 부록으로 柳根이 지은 묘갈명, 8 대손 琴書述이 지은 遺事와 봉안문, 상량문, 고유문 각 1 편과 挽詞 7 편, <孤山亭題詠>, <日洞山水記>가 수록되어 있다. <고산정제영>은 이황, 李文樑, 조목 등이 저자에게 贈遺한 시 49 제이다. 고산정은 일동정사의 異稱으로 自號를 '孤山主人'이라 할 만큼 저자가 애정을 기울인 곳이다. <일동산수기>는 요절한 4남 琴格이 16 세에 지은 것으로 일동정사 주변을 묘사하고 스승 許籥에게 記文을 청하는 글이다.

권미에는 1909년에 李晚燾와 10 대손 琴鼎基가 지은 跋이 있다.

## 금난수(琴蘭秀)

### 정의

조선시대 직장, 장례원사평, 봉화현감 등을 역임한 문신·학자, 의병장.

### 개설

본관은 봉화(奉化). 자는 문원(聞遠), 호는 성재(惺齋) 또는 고산주인(孤山主人). 경상북도 봉화 출생. 아버지는 첨지중추부사 금헌(琴憲)이며, 어머니는 영양남씨(英陽南氏)로 교수 남식(南軾)의 딸이다. 처음 김진(金進)에게 글을 배웠고, 뒤에 이황(李滉)의 문하에 들어가서 수학하였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금난수(琴蘭秀))]

### 생애 및 활동사항

1561년(명종 16) 사마시에 합격하였다. 1577년(선조 10) 제릉(齊陵)의 참봉을 비롯하여 집경전(集慶殿)과 경릉(敬陵)의 참봉을 지내고, 1585년 장흥고봉사(長興庫奉事)가 되었다.

그 뒤 직장(直長)·장례원사평을 지냈으나,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노모의 봉양을 위해 고향에 은거하다가 정유재란 때 고향에서 의병을 일으키니 많은 선비들이 호응해서 참가하고 지방민들은 군량미를 헌납했다.

그 해 성주판관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고, 1599년 고향인 봉화의 현감에 임명되어 1년 만에 사임하고 집에 돌아왔다. 좌승지에 추증되고 예안(禮安)의 동계정사(東溪精舍)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성재집(惺齋集)』이 있다.

卷之一 / 詩

孤山亭。용선사운정주쉬 신지제。 用先師韻呈主倅申之悌

14世 지제(之悌) 父 : 몽득(夢得) 祖父 : 응규 (應奎) 귀파(龜派)오봉공파(梧峰公派)

P 風流太守有來聲。物外肯問山民否。餐霞妙訣欲一陳。青鶴臺前坐待久。

<p>漠漠雲山裏。林深不見行。溪聲流咽急。花樹映紅明。少抱江湖志。還嗟汨沒生。關心多少事。誰與醉論情。</p>	<p>奉呈龜城倅李瀚</p> <p>每到花時不在家。吾生酸苦老堪嗟。十年京洛趨甲卯。兩載椒泉護病痾。</p>	<p>又賦一絕</p> <p>寥落山中客。無緣把酒杯。故人情款曲。時遣白衣來。</p>	<p>孤山亭用先師韻呈主倅申之悌。</p> <p>惺齋先生文集卷之一 二十</p> <p>風流太守有來聲。物外肯問山民否。餐霞妙訣欲一陳。青鶴臺前坐待久。</p>	<p>仙鶴臺月夜</p> <p>月白沙逾白。山青水轉青。幽人臺上詠。誰會此時情。</p>	<p>奉閱先師手簡感賦一絕。</p> <p>不讀孤山無益事。師門提誨儘非輕。老來悔悟工難着。汨沒滯慙負一生。</p>	<p>次月川韻</p> <p>七十今逢歲。又適少年華。佩已焉休。月川賴有</p>
---------------------------------------------------------	--------------------------------------------------------	---------------------------------------------	-----------------------------------------------------------------------------------	----------------------------------------------	------------------------------------------------------------	------------------------------------------

一一二



## 소산선생문집(小山先生文集)

### 형태서지

권수제	소산선생문집(小山先生文集)
판심제	小山先生文集
간종	목판본(木版本)
간행년	純祖年間 刊行
권책	13권 7책
행자	10행 18자
규격	19.6×16.9(cm)
어미	上下二葉花紋魚尾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도서번호	한46-가1037
총간집수	한국문집총간 232

### 저자

성명	이광정(李光靖)
생년	1714년(숙종 40)
몰년	1789년(정조 13)
자	휴문(休文), 경실(景實)
호	소산(小山)
본관	한산(韓山)
특기사항	이재(李裁)의 문인. 김낙행(金樂行), 최흥원(崔興遠), 유도원(柳道源) 등과 교유

행력

왕력		서기	간지	연호		연령	기사
숙종	40	1714	갑오	康熙	53	1	3월 9일, 安東 蘇湖里에서 태어나다.
숙종	42	1716	병신	康熙	55	3	生母喪을 당하다.
경종	3	1723	계묘	雍正	1	10	봄, 伯兄 등과 葛蘿山에 올라 〈葛蘿山〉 詩를 짓다. ○ 이후 三兄 李象靖과 함께 독서하다.
영조	4	1728	무신	雍正	6	15	외조부 密菴 李裁의 문하에 나아가 수업하다. ○ 학문은 求放心을 위한 것이니 학문에 전념하라며 密菴 선생이 지어준 시에 차운하다. ○ 李麟佐의 난이 일어나자, 16세에 모병에 응한 唐太宗을 끌어대며 의병모집에 나아가다.
영조	6	1730	경술	雍正	8	17	〈防川歌〉를 짓다.
영조	9	1733	계축	雍正	11	20	從叔父 李志和의 後嗣가 되다.
영조	11	1735	을묘	雍正	13	22	增廣 鄉試에 합격하다.
영조	15	1739	기미	乾隆	4	26	小山齋를 짓다.
영조	16	1740	경신	乾隆	5	27	東堂 鄉試에 합격하였으나 覆試에 낙방하자 이후 三兄 李象靖과 함께 窮理修身에 전념하다. ○ 〈三角山〉 詩를 짓다.
영조	18	1742	임술	乾隆	7	29	5월, 金烏山을 유람하다.
영조	20	1744	갑자	乾隆	9	31	8월, 집안 어른, 權德秀, 柳升鉉 등 30여인과 仙遊亭에 올라 藥峯 金克一의 詩에 차운하다.
영조	24	1748	무진	乾隆	13	35	1월, 召羅山으로 趙性道를 방문하여 李重光, 趙進道와 「心經」을 강하다. ○ 3월, 生父喪을 당하다.
영조	26	1750	경오	乾隆	15	37	崔興建에게 답하여 誠意, 昭穆에 대해 논하다.
영조	27	1751	신미	乾隆	16	38	金光翰을 곡하다.
영조	29	1753	계유	乾隆	18	40	紅疹을 피해 旌善으로 가다. 風巖亭의 牧隱先生 詩에 차운하다. ○ 御史 李得宗이 經術로 천거하다.
영조	30	1754	갑술	乾隆	19	41	과거 공부를 그만두다.
영조	32	1756	병자	乾隆	21	43	부인상을 당하다.
영조	33	1757	정축	乾隆	22	44	義城의 龜山에 거처하다. ○ 任必大 등과 八公山, 銀海寺를 유람하다.
영조	44	1768	무자	乾隆	33	55	모친상을 당하다.
영조	5	1775	을미	乾隆	40	62	蔡濟恭에게 편지하여 丁應泰의 일을 논하다.

	1						
정조	5	1781	신축	乾隆	46	68	三兄 大山 李象靖을 곡하다.
정조	7	1783	계묘	乾隆	48	70	2 월, 왕명으로 溫陵 參奉에 제수되었으나 병으로 나 아가지 못하다.
정조	8	1784	갑진	乾隆	49	71	8 월, 童蒙敎官이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 10 월, 영남 선비로서 「抄啓文臣講義」 7 책을 校準한 공으 로 陞六의 명을 받다.
정조	9	1785	을사	乾隆	50	72	5 월, 사포서 별제가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정조	10	1786	병오	乾隆	51	73	李宗洙가 「孟子」의 求放心章에 대한 程朱說을 물은 데 답하다. ○ 8 월, 百弗菴 崔興遠을 곡하다.
정조	12	1788	무신	乾隆	53	75	金熙民이 물은 「大學」의 明德, 明命, 絜矩에 대해 답하다.
정조	13	1789	기유	乾隆	54	76	7 월 25 일, 大山書堂 晩玩齋에서 즐하다. ○ 10 월 19 일, 軍威縣 북쪽 毛老洞에 장사 지내다.

## 편찬및간행

저자는 密菴 李裁의 외손이자 大山 李象靖의 동생으로서 그 학문적 영향을 받은 인물로 交遊의 범위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만년에 參奉, 敎官, 別提 등의 벼슬을 제수받기도 하였으나 나아가지 않고 평생을 講學에 힘썼다. 달리 著書를 남기지는 않았고, 死後에 遺稿 약간 권만이 남아 간행되었다.

저자의 遺稿는 1789 년에 저자가 즐한 뒤 아들 李堉가 家藏 草稿를 바탕으로 수집, 편차하고 校正해 놓았으나 1810 년에 李堉가 즐할 때까지 간행되지는 못하였다. 李堉는 저자가 즐하면서 부탁한 伯父 李象靖 遺稿의 補編과 刊行에 뜻을 기울여 여러 門人들과 함께 노력한 끝에 1802 년에 義城의 孤雲寺에서 목판으로 52 권 27 책의 「大山集」을 간행하였으며, 1795 년에는 李象靖의 저서인 「心經講錄刊補」를, 1804 년에는 「敬齋箴集說」을 간행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 이후 李堉는 1792 년(정조 16)에 莊獻世子 辨誣를 위해 상소하였던 것이 문제되어 1806 년에 古今島로 유배를 떠났다가 몇 달 만에 돌아오는 등 곤경을 겪기도 하다가 1810 년에 즐하였다.(李堉墓碣銘, 柳致明 撰, 定齋集 卷 28) 李堉는 즐하기에 앞서 병상에서 저자의 遺稿 간행을 李象靖의 손자이자 저자의 從孫인 李秉遠에게 맡겼다.(李堉言行錄, 李秉遠 撰, 所菴集 卷 20) 우선 遺稿를 淨寫하여 다시 정밀하게 校正하기를 부탁하였으나, 이후의 진행 과정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1840 년까지 생존한 李秉遠의 「所菴集」이나 1841 년까지 생존한 그 형 李秉運의 「俛齋集」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1834 년에 梅山 洪直弼이 李秉運에게 보낸 편지(梅山集 卷 16)에서, “大山, 小山의 遺集, 敬齋箴輯覽, 心經講錄刊譜 4 部書를 삼가 받았다.”고 한 것을 보면, 이때에 저자의 문집 「小山集」도 간행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거론된 「敬齋箴輯覽」은 1804 년에 간행된 「敬齋箴集說」의 착오로 보이고, 「心經講錄刊譜」도 1795 년에 간행된 「心經講錄刊補」의 誤記로 보인다. 결국 1810 년 이후 1834 년 이전인 純祖 연간에 李秉遠, 李秉運 등의 從孫이 중심이 되어 목판으로 13 권 7 책의 문집이 간행되었던 것이다. 《초간본》 현재 「韓國冊板目錄總覽」에는 安東에 冊板이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간행 장소는 알 수 없다. 또한 李秉遠이나 李秉運의 문집에도 크게 언급되지 않은 것은 아마도 李堉가 편차, 교정해 놓은 遺稿를 거의 그대로 간행하였기 때문인 듯하다. 이 본은 현재 국립중앙도서관(한 46-가

1037),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D1-A884), 성균관대학교 중앙도서관(D3B-563),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본서의 저본은 순조 연간에 목판으로 간행된 초간본으로, 국립중앙도서관장본이다.

李堉言行錄(李秉遠 撰, 所菴集 卷 20), 與李咸昌秉運(洪直弼 撰, 梅山集 卷 16), 俛齋集(李秉運), 定齋集(柳致明) 등에 의함

## 구성과내용

본집 13 권 7 책으로 卷頭에 總目錄이 있으며, 序跋이나 附錄은 없다.

권 1 은 詩(122 題)이다. 10 세에 伯兄과 葛蘿山에 놀라가 지은 <葛蘿山>을 시작으로 연대순으로 편차되어 있다. 외조부 密菴 李栽, 藥峯 金克一, 堂叔 李晟和, 崔興璧 등의 詩에 차운한 시, 三角山, 金烏山, 玉蓮寺, 龔淵 등에 놀러가서 읊은 시, 鄭重器, 金正漢, 崔興漸, 任必大 등에 대한 輓詞 등이다. 특히 <伏次外王父...>는 외조부가 학문은 放心을 구하는 데 있다며 지어준 시에 차운한 것이다. <大山下梅花...>는 매화가 활짝 핀 것을 보고 退溪의 梅花帖韻을 써서 지은 것이고, <遊金吾山詩>는 1742 년 5 월에 동지들과 金烏山에 놀러갔다가 지은 시로 登山, 東陽菴小憩, 下山 등의 6 수로 되어 있다. <元陵戊申...>은 戊申亂이 일어난 지 60 년 만에 지은 시로 당시 15 세의 나이로 모병에 응하였던 일을 추억한 시이다. <防川歌>는 안동 부사로 온 李重協이 제방을 쌓아 홍수를 예방하게 해준 일을 노래한 것으로 17 세 때 지은 것인데 맨 뒤에 편차되어 실렸다.

권 2~7 은 狀(3), 書(165), 雜著(8)이다. 狀은 1783 년에 溫陵 參奉, 1784 년에 童蒙敎官, 1785 년에 사포서 별제에 제수되었을 때 이조에 올린 辭免狀이다. 권 2 뒷부분부터 실린 書는 1730 년에 외조부 密菴선생에게 올린 것이 맨 앞에 있는데, 「魯論」의 의문점을 물은 것으로 答書가 첨부되어 있다. 그 뒤에 顧齋 李, 息山 李萬敷, 蔡濟恭 등과의 편지가 있는데, 특히 蔡濟恭에게 1775 년에 보낸 편지에서는 「菊圃集」의 간행과 교정 등에 대해 논하고, 別紙에서 丁應泰의 일과 관련하여 西厓 柳成龍, 梧里 李元翼의 처세에 대해 말하였다. 안동 부사 尹光紹의 問目에 답한 편지에서는 四端七情, 時習, 毋自欺에 대해 논하였다. 권 3 은 崔興遠, 崔興漸, 崔興建 형제, 柳道源, 柳長源 형제에게 보내고 답한 편지이다. 崔興遠에게는 안부를 묻는 편지, 李象靖이 줄한 후의 심경과 記實 文字를 부탁하는 뜻을 적은 편지 등을 보냈고, 崔興建에게는 誠意說, 昭穆說, 仁體 등을 논한 편지를 보냈고, 柳道源에게는 柳氏 집안의 先集과 李象靖의 「大山集」 편찬, 간행과 관련하여 편지를 보냈다. 권 4 는 李宗洙, 李象遠, 崔周鎭 등과의 편지이다. <答李學甫別紙>에서는 退溪 文集의 心統性情圖에 대해 말하였고, <答李學甫問目>에서는 「孟子」 求放心章에 대한 程朱說에 대해 말하였다. 권 5 는 金宗德, 金宗敬, 鄭宗魯, 柳養善 등과의 편지이다. <答柳而浩問目>에서는 柳養善이 물은 喪禮의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 답하였다. 권 6 은 金熙周, 金昌壽, 崔璧 등과의 편지이다. <答金公穆近思錄問目>은 金熙周가 「近思錄」의 太極之體 太極之理, 無形底理 有形底氣에 대해 질문한 것에 답한 것이다. <答金伯雍熙民...>은 金熙民, 金熙奮, 金熙洛 등에게 明德, 明命, 正心之正, 絜矩 등에 대해 답한 것이다. 권 7 은 형 大山 李象靖, 再從弟 李師靖, 조카 李堉, 아들 李堉, 손자 李秉鐸 등과의 편지이다. 1757 년(영조 33)에 大山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任重微 및 朋友들과 八公山을 유람하고 朱書의 의문 나는 곳을 강한 상황을 자세히 말하고 있다.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讀書하되 專心致志하기를 마치 성현을 대한 뜻이 하면 意思가 자연 專一해지고 義理가 자연 밝아진다고 하였다.

권 7 뒷부분의 雜著는 天理와 人欲은 사람에게 있어 서로 병행할 수 없으니 이것은 이치와 형세가 자연히 그러한 것이라고 한 <天理人欲同行異情辨>, 心術을 무너뜨리는 科擧의 폐단을 시정해야 한다고 말한



〈科學說〉, 洞中에 瞻學을 설치하고 연소한 이들이 居齋 勸學하는 발판으로 삼고서 지은 〈洞中勸學節目〉 등이다.

권 8~9 는 序(16), 記(6), 跋(22), 銘(1)이다. 家兄 李象靖을 대신해 지은 竺山全氏族譜, 張璩의 「錦江集」, 黃汝一의 「海月集」에 대한 序文이 앞에 있고, 그 뒤에 任必大의 「剛窩集」, 柳升鉉의 「慵窩集」, 權炳의 「約齋集」, 孫興禮의 「三省齋逸稿」, 光山卓氏世稿 등에 대한 서문이 있다. 권 9 의 記는 1739 년에 小山齋를 짓고서 지은 記文, 친우 金士濯의 齊省齋 記文, 百弗菴 崔興遠이 夫仁洞에 呂氏鄉約을 시행하며 세운 講堂에 대한 記文, 義城 龜山에 거처하며 任必大, 申寅徵 등 9 인과 水淨寺, 章淵, 洗心亭, 鈷鉤潭 등을 유람하고 지은 〈聞韶山水可遊記〉 등이다. 跋은 朱子, 呂祖謙, 張載 간의 왕복편지를 모아 편집하고 쓴 〈三先生往復書後跋〉을 비롯하여 柳仁培의 「猿溪遺集」, 洪瑋의 「西潭集」에 지은 跋, 柳景深의 龜村柳公遺墨, 龜潭書堂居齋錄 등의 書後이다. 銘은 〈書案銘〉이다.

권 10~11 은 上樑文(2), 祝文(21), 祭文(5), 墓誌銘(8), 墓碣銘(19)이다. 蔚馬書塾, 西山影堂의 上樑文, 迂溪書院에 善迂堂 李蒔를 奉安하는 文, 杏溪里社에 迂叟 金鋼을 봉안하는 文, 梧山里社에 峴山 金鸞祥을 봉안하는 文 등이 있다. 祭文은 장인 金良鉉, 李山斗, 李象靖, 崔興遠에 대한 것이다. 墓誌銘은 黃道重, 金光鉉, 崔福生과 亡子 李壩 등의 것이다. 墓碣銘은 盧道一, 柳顯時, 李宜泰, 柳仁培, 金學遠 등의 것이다.

권 12~13 은 行狀(17)이다. 권 12 는 李象靖, 李源, 李光友, 安命夏, 崔興遠 등, 권 13 은 李山斗, 河受一, 都汝兪, 權得重, 從祖叔父 李敬和 등의 行狀과 장인 金良鉉, 金崇濂, 伯兄 李後靖의 遺事이다.

## 이광정(李光靖)

### 형태서지

조선후기 『소산집』을 저술한 유학자.

### 개설

본관은 한산(韓山), 자는 휴문(休文), 호는 소산(小山)이다. 대산(大山) 이상정(李象靖)의 동생으로 밀암(密庵) 이재(李裁)에게 수학하였다. 1728년 이인좌의 난이 일어났을 때 부친이 의병을 일으키자, 15세의 나이로 종군하였다. 이항의 학문을 흠모하여 형 이상정의 지도를 받으며 경학과 성리학을 공부하였다. 경술(經術)로 천거되어 동몽교관(童蒙敎官) 등에 제수되었다. 당시 학자에 따라 구구하던 예설(禮說)을 정리하여 안동 지방의 표준 예설이 되게 하였다. 18세기 후반 퇴계학맥을 계승한 유학자로 형 이상정과 함께 북송 때 도학자 정호(程顥)·정이(程頤) 형제에 비유되었다.

### 생애 및 활동사항

아버지는 이태화(李泰和)이고, 어머니는 재령 이씨로 이재(李裁)의 딸이다. 1714 년(숙종 40) 3 월 9 일 출생하였다. 부인은 의성 김씨 김양현(金良鉉)의 딸로 김성일의 6 세손이다. 슬하에 2 남 1 녀를 두었는데, 장남은 이우(李堧), 차남은 이도(李壩)이며, 딸은 장수훈(張壽勳)에게 시집갔다.

종숙부인 이지화(李志和)의 양자로 출계한 이광정은 어려서부터 단정하고 청결하였으며, 타고난 성품이 남들보다 빼어났다. 7 세 때부터 글을 배우기 시작하였으며, 10 세 때 갈라산(葛蘿山)에 올라 시를 지어 원대한 포부를 드러내었다.

1728년 이인좌의 난이 일어나자 안동 지방 유림들이 의병을 일으켰는데, 15세의 나이로 응모를 청하여 종군하였다. 또한 밀암(密庵) 이재(李裁)의 문하에 나아가 수학하였고, 여러 차례 향시에 합격하였지만, 문과 시험에는 합격하지 못하였다.

1748년 생부의 상을 당해 삼년상을 치렀고, 1753년 암행어사가 경술(經術)로 조정에 천거하였다. 41세 때인 1754년 "춘추시대 거백옥(蘧伯玉)은 50세에 49세 때의 잘못을 알았는데, 나는 어찌 50세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고서 과거공부를 그만두고 은거하여 도를 구하는 공부를 하였다. 1768년 모친상을 당하여 삼년상을 치렀다.

1783년 정조가 "이상정의 동생 이광정이 독서하고 수신하여 형의 풍도가 있다."는 요지로 하교하고 온릉참봉(溫陵參奉)에 임명하였다. 1784년 동몽교관(童蒙教官)에 제수되고, 1785년 사포서 별제(司圃署別提)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나아가지 않았다.

1789년 7월 25일 대산서당(大山書堂) 만완재(晩翫齋)에서 별세하였으니, 향년 76세였다. 선영이 있는 군위현(軍威縣) 북쪽 모로동(毛老洞) 갑좌(甲坐) 언덕에 장사지냈다. 이후 안동 고산서원(高山書院)에 배향되었다.

## 활동사항

청소년기에 고문가(古文家)가 되고자 하여 제자백가서를 널리 박람하였는데, 외조부 이재에게 수학한 뒤로 학문을 하는 큰 방도를 전해 듣고 도를 구하려는 지향을 하여 형 이상정과 함께 부지런히 학문을 강마하였다. 공맹(孔孟)의 경서와 정주(程朱)의 글을 외우고 사색하였으며, 박학(博學)·심문(審問)·신사(愼思)·명변(明辨)의 지적탐구는 오로지 독행(篤行)을 위한 것으로 보아 실천을 중시하고, 평상의 도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하였다. 또한 사(私)를 온갖 병폐와 악행의 근본으로 여겨 이를 타파하는 것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요체를 삼았다. 퇴계학통을 계승한 형 이상정이 별세한 뒤, 원근(遠近)의 학자들이 모두 이광정에게 귀의하여 가르침을 청했는데, 진실하게 노력하여 자신에게 돌이켜 체험하게 하였다.

卷之一 / 詩

삼월이십육일。여신자장 체인 보유옥련사。三月二十六日。與申子長 體仁 步遊玉蓮寺  
20世 체인(體仁) 父 : 도만(道萬) 祖父 : 분구(賁龜) 귀파(龜派) 오봉공파(梧峰公派)

看水看山不厭深。一回深處一回心。此行豈憶蔬荀味。爲有幽期在藪林。山中蔬荀正肥。約共一飽故及之。

<p>三月二十六日。與申子長體仁步遊玉蓮寺。</p>	<p>看水看山不厭深。一回深處一回心。此行豈憶蔬荀味。爲有幽期在藪林。山中蔬荀正肥。約共一飽故及之。</p>	<p>次子長韻</p>	<p>雲山阻隔已多年。邂逅良朋賞石泉。小雨霏霏催客至。微風浩浩借詩便。精神遠岸千株樹。意態前簷一道川。仙境不空塵語著。強顏把筆續殘篇。</p>	<p>小山文集卷一</p>	<p>十一</p>	<p>荀蕨春山好。雨餘長幾芽。提攜出市里。意思已煙霞。澗底源源水。巖阿續續花。幽懷爲盡洗。山日坐忘斜。</p>	<p>仙菴指點外。隱隱入雲濛。是處多佳景。幾人能會心。庭花露下落。林影月中尋。至理源源在。於焉灑我襟。</p>	<p>夏日家兄次外玉父韻見寄。卻次呈。推移到夏節。休鈴門掩畫。擬遊甘甜鄉。閒臥北牕牖。千載誰會心。一回空搔首。白雲度青天。黃鸝轉翠柳。抱膝一喟爾。聊寄菴中舊。</p>
----------------------------	--------------------------------------------------------	-------------	-------------------------------------------------------------------------	---------------	-----------	---------------------------------------------------------	---------------------------------------------------------	-------------------------------------------------------------------------------------



卷之十一 / 墓碣銘

남열부신씨정려비음기 南烈婦申氏旌閭碑陰記 이성구(李星龜)

19世 이성구(李星龜) 父 : 방열(邦烈) 祖父 : 정모 (正模) 읍파(邑派) 호계공파(虎溪公派)

烈婦鵝洲申氏。高麗按廉使祐之後。六世至元<sup>○</sup> 祿。號悔堂贈參議。並以孝旌閭。世以孝烈聞。祖正模父邦烈。妣月城李氏。戊寅十一月日生。明秀淑婉。壬寅歸于士人南時潤。事舅姑孝。夫亦佳士也。摯而敬。癸卯春。南君赴試。以櫬而歸。申氏抱屍哭幾絕。既葬一如袒括時。一日自經于寢房。家人驚救。且諭之曰世亦有如爾所遭者。庶幾無死。立子而使亡者有所託。豈非未亡人之責與。婦泣曰然哉。病臥於牀。竭其調護。不救者命也。見其出而不見其入。婦之所獨也。且如我薄命。何心於育子乎。不與人酬酢。不執針<sup>○</sup> 線。淚痕浹於枕席。有時血點流出。其父來而慰諭之。且要俱歸而不從。稍久忽言語或服事。家人意或鎮定。防守稍解。一日請曰伯姊家在近。願一往見。舅姑哀而許之。與老婢件里夫從弟童子行。至雲山谷口。謂童子曰姊且來待。可自此歸矣。至澤畔。以裳掩面。直投水深處。婢救之無及。亦隨而自投。俄而兩屍浮出。髻髮衣服。結束牢固。已自爲襲斂之具焉。嗚呼。申氏在家爲孝女。既歸爲孝婦。夫死爲烈婦。父要歸而不從。姊在近而不見。義也。具襲服送童子。智也。得死<sup>○</sup> 所而擇深處。勇也。婢之從而赴死。義烈之感也。節義成雙。忠烈并著。斯固古今之卓異者也。御史金載人因多士之請入啓。上嘉之特命旌閭。噫。華周杞梁之妻。善哭其夫而變國俗。况此節行。非徒善哭而已。而聖朝之褒顯又如此。其扶植之功。豈直一時而已哉。噫。



二二六



祿號悔堂 贈參議 並以孝旌閭 世以孝烈聞  
 祖正模 父邦烈 妣月城李氏 戊寅十一月日生  
 明秀淑婉 壬寅歸于士人南時潤 事舅姑孝 夫  
 亦佳士也 擊而敬 癸卯春 南君赴試 以櫬而歸  
 申氏抱屍哭幾絕 既葬 一如袒括時 一日自經  
 于寢房 家人驚救 且諭之曰 世亦有如爾所遭  
 者 庶幾無死 立子而使 亡者有所託 豈非未亡  
 人之責與 婦泣曰 然哉 病臥於牀 竭其調護 不  
 救者命也 見其出而不見其入 婦之所獨也 且  
 如我薄命 何心於育子乎 不與人酬酢 不執針  
 線 淚痕浹於枕席 有時血點流出 其父來而慰  
 諭之 且要俱歸 而不從 稍久 忽言語或服事 家  
 人意或鎮定 防守稍解 一日請曰 伯姊家在近  
 願一往 見舅姑哀而許之 與老婢伴里夫從弟  
 童子行 至雲山谷口 謂童子曰 姊且來待 可自  
 此歸矣 至澤畔 以裳掩面 直投水溪處 婢救之  
 無及 亦隨而自投 俄而兩屍浮出 髻髮衣服 結  
 束牢固 已自為襲斂之具 嗚呼 申氏在家為  
 孝女 既歸為孝婦 夫死為烈婦 父要歸而不從  
 姊在近而不見 義也 具襲服送童子 智也得死

小山先生文集卷十一

四十三

小山集 卷十一

所而擇 濃處 勇也 婢之從而赴死 義烈之感也  
 節義成雙 忠烈并著 斯固古今之卓異者也 御  
 史金載人 因多士之請 入 啓 上嘉之特  
 命 旌閭 噫 華周杞梁之妻 善哭其夫 而變國俗  
 況此節行 非徒善哭而已 而 聖朝之褒顯 又  
 如此 其扶植之功 豈直一時而已哉 噫

小山先生文集卷十一

四十四

小山先生文集卷之十一



二三七

## 소암선생문집(所菴先生文集)

### 형태서지

권수제	소암선생문집(所菴先生文集)
판심제	소암선생문집(所菴先生文集)
간종	활자본(木活字)
간행년	1904년 간행
권책	20권 10책
행자	10행 20자
규격	23.1×17.2(cm)
어미	上下二葉花紋魚尾
소장처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소장도서번호	811.98/이병원/소-목
총간집수	한국문집총간 속 115

### 저자

성명	이병원(李秉遠)
생년	1774년(영조 50)
몰년	1840년(헌종 6)
자	신가(愼可)
호	소암(所菴), 삼지자(三止子), 일개산인(一介山人), 소호자(所戶子)
본관	한산(韓山)
특기사항	김종덕(金宗德)의 문인. 유건휴(柳健休), 유휘문(柳徽文), 강운(姜櫟) 등과 교류

행력

왕력		서기	간지	연호		연령	기사
영조	50	1774	갑오	乾隆	39	1	3월 11일, 一直縣 蘇湖里에서 태어나다.
정조	2	1778	무술	乾隆	43	5	「十九史」를 배우다.
정조	5	1781	신축	乾隆	46	8	12월, 조부상을 당하다.
정조	11	1787	정미	乾隆	52	14	廣州李氏 萬運의 딸과 혼인하다.
정조	13	1789	기유	乾隆	54	16	9월, 부친상을 당하다.
정조	16	1792	임자	乾隆	57	19	9월, 아들 李秀德이 태어나다.
~	-	~	~	~	-	~	川沙 金宗德에게 수업을 받다.
순조	1	1801	신유	嘉慶	6	28	성균관에 입학하다.
순조	2	1802	임술	嘉慶	7	29	「大山集」을 간행하다.
순조	6	1806	병인	嘉慶	11	33	11월, 부인상을 당하다.
순조	9	1809	기사	嘉慶	14	36	咸寧 縣監으로 간 伯兄 李秉運을 省觀하다.
순조	11	1811	신미	嘉慶	16	38	8월, 柳範休가 주재하는 高山講會에 참석하다.
순조	12	1812	임신	嘉慶	17	39	가을, 庭試를 보고 松西 姜樞, 鄭象觀과 강화, 개성 등지를 유람하다.
순조	14	1814	갑술	嘉慶	19	41	「續性理大全」을 만들고 序를 쓰다.
순조	15	1815	을해	嘉慶	20	42	7월, 蔭職으로 穆陵 參奉이 되다.
순조	16	1816	병자	嘉慶	21	43	永平과 水落山을 유람하다. ○여름, 비로 인해 목릉이 허물어지자 都監을 설치하여 개수하다. ○9월, 義禁府 都事가 되다.
순조	17	1817	정축	嘉慶	22	44	5월, 淸河 縣監이 되다.
순조	22	1822	임오	道光	2	49	6월, 모친상을 당하다.
순조	24	1824	갑신	嘉慶	4	51	8월, 香爐峯에 오르다.
순조	27	1827	정해	嘉慶	7	54	영남 사림과 高山書院의 堂齋를 세우는 일을 주관하다.
순조	28	1828	무자	嘉慶	8	55	7월, 아들 李秀德을 곡하다.
순조	30	1830	경인	嘉慶	10	57	12월, 仲兄 李秉進을 곡하다.
헌종	2	1836	병신	嘉慶	16	63	9월, 洪奭周의 추천으로 司僕寺 主簿가 되다.
헌종	3	1837	정유	嘉慶	17	64	6월, 改差되다.
헌종	4	1838	무술	嘉慶	18	65	7월, 比安 縣監이 되다.
헌종	6	1840	경자	嘉慶	20	67	3월 3일, 비안 官舍에서 즐하다. ○4월, 비안 下寧村에 장사 지내다.
고종	41	1904	갑진	光武	8	-	증손 李贊燾 등이 활자로 문집을 인행하다.

## 편찬및간행

저자는 大山 李象靖의 손자로 家學을 잇는 한편, 대산의 문인 川沙 金宗德에게 학문을 익혀 영남학파의 큰 줄기를 이루고 있는 인물이다. 문장은 도습을 하지 않고, 구양수와 증공의 문장에도 뒤지지 않으며, 시는 '淡靄遒勁'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저자의 유집은 嗣孫 李文稷(1809~1877)이 1870년에 편집하고 저자의 편서인 「決訟場補」와 함께 定本 수십 권을 손수 繕寫해 두었다고 한다. 이후에 1904년 증손 李贊燾 등이 다시 편찬 사업을 추진하여 활자로 인쇄하게 되었다. 《초간본》이 본은 현재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811.98/이병원/소-목), 국립중앙도서관(古 3648-文 62-445), 장서각(K4-6169), 성균관대학교 존경각(D3B-2180) 등에 소장되어 있다.

본서의 저본은 증손 李贊燾 등이 1904년에 활자로 인쇄한 초간본으로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장본이다. 본 영인저본 중 권 9의 제 30 판은 板次가 '二十三'으로, 권 17의 제 28 판은 판차가 '十八'로, 권 19의 제 16·50 판은 판차가 '十'·'四十九'로, 제 33·49 판은 卷次가 '十'으로 오기되어 있다.

行狀(柳致明 撰, 定齋集 卷 33), 墓碣銘(金道和 撰, 拓菴集 卷 22), 序(金道和 撰), 李文稷家狀(李敦禹 撰, 肯庵集 卷 19) 등에 의함

## 구성과내용

본집은 20 권 10 책으로 되어 있다. 권수에는 1904년에 쓴 金道和의 序, 目錄이 있다.

권 1은 詩(120題)이다. 詩體 구분이 없고, 저작 연대순으로 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영남 일대의 학문적 사승과 교류를 가졌던 인물에 대한 만사와 교유시가 많이 실려 있다. 누정과 명소에서 지은 제영시와 杜甫, 白居易, 朱熹, 조부 李象靖의 시에 차운한 시 등도 보인다.

권 2~12는 書(295)이다. 권 2에 金宗德, 李宗洙, 南漢朝, 鄭宗魯, 趙述道, 金魯敬, 金履載, 權敦仁, 金道喜, 권 3에 外舅 李萬運, 柳範休, 李周楨, 金慶進, 李以健, 李野淳, 柳學祚, 金壇, 柳晦文, 李泰淳, 李熙紹, 金川進, 文正儒, 李巖淳, 金熙奮, 徐活, 권 4에 姜必孝, 金經進, 金誠進, 柳德祚, 柳健休, 권 5에 유건휴, 崔昇羽, 洪永觀, 徐有洛, 姜禱, 柳魯文, 柳致明, 권 6에 유치명, 趙星復, 金弼秉, 金養休, 鄭象觀, 권 7에 정상관, 邊始暹, 金養駟, 金道壽, 金晚壽, 金鎮龜, 李廈祥, 金廷鎮, 柳鼎文, 권 8에 유정문, 張錫愚, 申瀾辰, 金養駿, 金弼淳, 李海鷹, 權玉相, 南始發, 吳進德, 姜必應, 권 9에 申伯重, 申大重, 姜景會, 李肇淳, 金養巽, 徐幹雲, 李秉玉, 李章坤, 李升洙, 金聖洙, 金允壽, 柳致孝, 柳聖文, 金誠樞, 金義裕, 金壽靜, 권 10에 金岱鎮, 金若洙, 李彙<sup>做</sup>, 金遇洙, 金敬樞, 金聲大, 柳致任, 柳致儉, 姜鉉, 金度銖, 南魯洙, 金秉樞, 鄭致章, 姜漢奎, 張福遠, 金廷鎮, 金壽英, 李晚慤, 外孫 姜濟, 龍岡書堂 儒生, 白鶴書堂 유생, 南基應, 권 11은 증숙 李堦, 재증형 李秉鐸, 증숙 李垞, 족제 李秉夏, 권 12에 족제 이병하, 백형 李秉運, 증형 李秉進, 조카 李秀應·李秀懋, 아들 李秀德, 조카 李秀懋, 손자 李文稷, 증손 李敦稷·李馨稷·李岐稷·李宏稷, 손자 李武稷 등에게 보낸 것이다. 영남의 당대 명유들과 나눈 학술 서간은 이 시기 영남 학술의 핵심적인 논점들을 파악하는데 유효한 글들이다. 김선에게 보낸 편지는 高山講會의 講錄을 정리하고 疑義에 대해 筭錄을 달아 보낸 것이고, 유건휴에게 보낸 편지는 역시 고산강회에서 있던 논의 중 理氣論을 비롯한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 견해를 밝힌 것, 率性圖, 一性四德圖, 玉山講義圖, 敬齋箴集說圖 등의 圖說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것이 있다. 유치명에게 보낸 편지는 대부분 禮說에 대해 답하거나 질의한 내용이며, 유정문에게 보낸 편지 역시 예설을 비롯하여 易學 등에 대한 문의에 답하거나 질의한 내용이다. 이하상, 장석우, 김구수 등에게 예설을 비롯하여 經義에 대해 답한 편지, 최정진, 김성대에게는 「中庸」의 질의에 답한 편지, 신



대중이 질의한 「朱書講錄刊補」의 疑義에 대해 답한 편지, 김대진에게 太極圖 등의 문의에 답한 편지, 종숙 이우에게 聖學十圖의 疑義를 질의한 편지, 족제 이병하에게 心無出入說, 太極動靜說, 理氣說, 公仁說 등을 비롯하여 경의, 예설 등에 대한 견해를 밝힌 편지 등이 실려 있다.

권 13~14는 雜著(34)이다. 권 13의 <啓蒙記疑>는 주자의 「易學啓蒙」과 이를 정리한 김종덕, 柳觀鉉 등의 易學 저술에서 뽑은 12 조에 대해 자신의 견해와 의문처를 정리한 것이다. <心無出入辨證>은 '마음에 출입이 없다[心無出入]'는 공자, 증자, 주자, 정자 등의 논의를 정리하고 그 함의를 밝혀 선유들의 의견이 다르지 않다는 견해를 밝힌 것이다. <讀金遯溪穉淵高山講義>는 김선이 率性之謂道說, 一性具四德說, 心無出入說 등에 대해 강론을 진행한 강의에 대해 12 조목에 걸쳐 견해를 밝힌 글이다. <讀四七新編>은 李瀼의 「四七新編」을 읽고 4 조목에 걸쳐 내용을 보충하면서 견해를 밝힌 것이다. <筭疑>는 주자의 <齋居感興> 詩에 나오는 '一息萬里奔'과 「大學或問」의 '恕'에 대한 견해를 밝혀 놓고 있다. <喪禮備要凡例辨>은 申義慶의 「喪禮備要」 범례의 「家禮」 가운데 보충할 수 있는 것은 보충한다'는 구절에 대해 주자의 본의를 변론한 것이다. <贈玄纁左右辨>은 장례 절차에서 玄纁의 의례에 대해 柳長源의 「東巖集」에 실린 내용과 1782년 조부의 장례 일기 등에 나타나는 차이를 변증한 글이다. <父在爲妻不練辨>은 유장원이 「常變通攷」에서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아내의 상을 당한 경우에 練祭를 지내지 않는다'라고 한 것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것이다. <禮疑問答>은 金敬樞 등이 예설을 질의한 것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6 조목으로 나누어 실었다. <亡失父母制服行喪之疑>는 부모의 생사가 확실하지 않을 때의 복제와 행사에 대해 제가의 견해를 실은 다음 자신의 견해를 밝힌 글이다. <讀柳誠伯禮疑叢話>, <論柳誠伯玄孫 .....>은 유치명의 「定齋集」에 실린 <禮疑叢話>와 <承重孫妻曾孫妻并服及其妻從服不從服辨>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정리한 것이다. <寒水亭夜話錄>은 姜樞, 姜岱重 등과 己亥禮訟에 대해 나눈 대화 내용과 견해를 따로 정리한 것이고, <書寒水亭夜話錄後示姜擎廈>는 <한수정야화록> 뒤에 쓴 기해예송에 대한 견해를 강운에게 보여준 것이다. <記夢>은 1839년 10월 꿈에서 어떤 학자가 근세 학자의 병통을 지적한 3조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示兒輩>는 주자가 呂祖謙에 보낸 편지 구절 중에 아들 李朱塾에 대한 걱정 내용을 인용하여 자식들에게 好人이 되도록 당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學令>은 晨興, 課受, 作字, 讀書 등 9 조에 걸쳐 童子가 학업과 일상에서 지켜야 할 규범을 제시한 글이다. <讀鄭叔顯文塚碑>는 鄭象觀의 文塚碑를 읽고 지은 것이다. 권 14의 <用九用六說>은 「주역」의 '用九'와 '用六'이 건곤괘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64 괘에 적용됨을 밝힌 것이다. <三止子說>은 止溪의 북쪽에 거처하며 편액을 '止北'이라 하고, '北'을 破字하여 자신의 호를 '삼지자'라고 한 내력과 의미에 대해 밝힌 글이다. <體用說>은 정자, 주자, 이항 등의 체용에 대한 견해를 總論을 포함하여 13 조에 걸쳐 다양한 용례와 쓰임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一介山人說>은 大夕山의 내력과 1832년 이곳에 거주하며 자신의 호를 '一介山人'이라 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名二孫說>, <文稷字說>, <姜漢奎字說>은 자신의 손자인 李文稷과 李武稷의 뜻, 이문직의 자를 '法祖'라 한 내력, 강한규의 자 '漢五'의 뜻을 각각 밝혀 놓았다. <潮汐說>은 조석이 생기는 이유를 밝힌 글이고, <祭式>은 제식의 규례를 5 조로 밝혀 놓고 있다. <高山講會錄>은 1811년 8월, 柳範休가 주재하는 高山講會에 참석하여 강학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鄉校下帖>, <帖諭>는 각각 청하와 비안 현감으로 있을 때 교육의 진흥을 위해 내린 칙문이다.

권 15는 序(9), 記(19)이다. <續性理大全序>는 저자가 우리나라의 성리 관련 저작을 類輯하고, 이어 答問論說을 엮어 1814년에 쓴 서문이다. <家範序>는 조부가 미처 정리하지 못한 집안의 규범 중 家政에 관련된 것을 저자가 問目을 나누어 類輯하여 內篇으로 하고, 조부의 訓誨와 편지를 外篇으로 해서 엮은 책의 서문이다. <常變通攷序>는 柳長源이 常禮와 變禮에 대한 여러 학설을 모아 정리한 禮書의 서문이다. 이언적의 후손 李塚의 문집에 쓴 <蒙庵李公遺集序>, 이치섭이 소장한 이항의 글씨 1 폭과 조부 이상정의 글씨 3 폭에 쓴 <李君致燮手粧溪湖遺墨序>, 李庭柏의 문집에 쓴 <樂琴軒李公遺集序>, 李珙의 문집에 쓴 <栗園李公遺集序>, 文東道の 문집에 쓴 <敬菴文公遺集序>, 조부가 「易」, 「詩」와 주자와 정자의

80 여조의 설을 부연하여 만든 서책에 쓴 <晚塢尙志錄序>가 있다. 기의 <所戶記>는 20 세 때 자신의 거주지인 蘇湖의 음을 차용하여 '所戶'로 자신의 室名을 정하고 호를 '所戶子'라 하였다가 戶를 庵으로 변경한 내력을 정리하고 있다. <堂室記>는 1805 년 봄, 개축하면서 砭齋·訂窩 두 개의 室과 一鑑軒을 세운 내력을 적은 것이다. <南陲晚家記>는 1815 년 伯兄 이병원이 관직에서 물러나 順庵, 好窩, 無咎齋, 夕陽軒, 百承樓, 吉鑄庫 등을 짓고 이를 王維의 시구를 따 '南陲晚家'라 한 내력에 대한 것이다. <永平山水可遊者記>, <遊水落記>는 1816 년 참봉을 지내는 여가에 永平과 수락산 산수를 유람하여 지은 것이다. <自軒記>는 昭義門 서쪽에 거주하며 이조에서 벼슬을 하고 있는 蔡弘韻이 자호한 집에 대한 것이다. <低庵記>는 이조 정랑 朴時源의 집에 대한 것이다. <下晚齋記>는 친구 邊日進이 서울 벼슬살이를 마치고 낙향하여 지은 집에 대한 것이다. <淨友軒記>는 친구 李定秀가 지은 집에 대한 것이다. <飛下臺記>는 內延山 三瀑 위 臺의 명칭이 延日 縣監을 지낸 조부에게서 유래한 내력을 밝히고 있다. <高山書堂名堂室記>는 1827 년 고산정사 후편에 있던 講堂을 이건하고, 1828 년 강당 앞에 齋室을 세운 내력을 기록한 것이다. <晚塢書堂記事>는 1832 년 大夕山 北麓에 완성된 만오서당에 대한 내력을 적은 것이다. <潮泉精舍記>는 咸寧에 있는 南漢普의 정사에 대한 것이다. <從吾軒記>는 姜樞의 정자에 대한 것이다. <養眞庵記>는 이황이 엮었던 양진암을 후손이 신축하자, 李晚燾의 부탁으로 쓴 것이다. <光風亭重建記>는 春坡의 居第 옆에 있던 敬堂 張興孝의 누정을 중건하여 지은 것이다. <石灘亭記>는 친구 李益文의 정자에 지은 것이다.

권 16 은 跋(14), 銘(3), 上樑文(2), 誄辭(1), 祝文(7), 祭文(18)이다. 발의 <敬書王考遺札後>는 청하 현감 때 조부가 연일 현감 시절에 남긴 글씨를 얻어 쓴 것이고, <近思別錄補跋>은 이상정이 「근사록」의 차례를 따르면서 장식과 여조겸의 설을 부기하여 만든 手澤本을 가지고 결락 부분은 남겨 둔 채 繕寫한 「근사별록보」에 쓴 것이다. <決訟場補跋>은 조부가 상례와 제례를 정리하여 만든 「決訟場」에 관례와 혼례를 합하고 조례를 정하여 「四禮常變通攷」라고 하였던 것을 대강과 세목을 「주자가례」에 따라 정리하고 보충하여 만든 禮書의 발문이다. <冠禮考定跋>은 조부의 제자 徐昌載가 관례에 대한 고례를 참고하면서도 시의에 맞게 만든 예서의 발문이다. <煙沙逸稿跋>은 徐福胤의 문집에 쓴 것이다. <感興詩集解跋>은 주자의 감흥시에 대한 역대 풀이를 后山 李宗洙가 정리한 서책의 발이다. <敬書王考手編心經刊補後>는 조부의 명을 받아 苟齋 金宗敬이 편찬한 「心經講錄刊補」에 대한 것으로 1825 년에 쓴 것이다. <三忠實紀跋>은 병자호란에 전사한 金燁, 金煜, 金燦 형제에 대한 기록을 수습하여 정리한 실기에 쓴 것이다. <近仁堂李公集跋>은 李宜泰의 문집에 쓴 것이다. <書松隱朴公行狀後>는 여말의 은자 朴翊의 행장에 쓴 것이고, <書雲巖先生李公傳後>는 병자호란 때 삼전도의 치욕에 은거한 李興淳의 전기에 쓴 것이다. 명에는 어머니 침실에 쓴 <順菴銘>, 최규찬이 한라산에서 구한 등나무 지팡이를 이만운에게 증정하고, 이를 이만운이 저자에게 준 내력을 담아 적은 <昌明藤杖銘>이 있다. 상량문에는 이황을 私淑한 金士貞의 祠宇에 쓴 <道潭里社上樑文>, 자신이 세운 精舍에 쓴 <魯川精舍上樑文>이 있다. 축문은 梧谷書院이 별사에서 서원으로 승격되면서 쓴 것, 明溪書院을 옮길 때 忘軒 李胄를 봉안하며 쓴 것, 淨友堂 曹致虞를 永川의 清白祠에 봉안하며 쓴 것, 鄒川 孫英濟를 밀양 慕禮祠에 향사하며 쓴 것, 진주의 芝溪書院에 태안박씨의 일문 중에 朴斐, 朴氈, 朴安道, 朴敏을 합향하며 쓴 것, 族弟 李秉夏가 이사를 하게 되자 告廟하며 쓴 것 등이 있다. 제문은 金宗德, 柳長源, 李宗洙, 趙述道, 金宗發, 金弼乘, 兪漢人, 鄭宗魯 등에 대한 것이다.

권 17 은 제문(23), 墓誌銘(7)이다. 제문은 外舅 李萬運, 柳範休, 金是瓚, 裴相說, 李玄逸 등에 대한 것이다. 묘지명은 부친 李堧·삼증제 李秉圭·모친 驪州李氏·아들 李秀德·족질 李秀弼의 壙記, 權濟敬·아내 廣州李氏의 묘지명이 실려 있다.

권 18 은 묘지명(4), 墓碣銘(9), 行狀(2)이다. 묘지명은 柳洛文, 朴斐, 姜樞, 李廷秀, 묘갈명은 朴瑄, 朴煌, 金漢卿, 徐思選, 李倚望, 姜倬, 李鼎儼, 金是權, 黃敬熙, 행장은 金宗德, 申體仁에 대한 것이다.

권 19~20 은 행장(10)이다. 從叔 李堦, 李憲儒, 金垞, 이만운, 姜滌, 金履萬의 행장과 부친 이완, 중형 이병진의 遺事, 종숙 李堦의 言行錄, 아내 이씨의 行蹟이 실려 있다.

## 이병원(李秉遠)

1775 년 영조 51) ~ 1840 년 (헌종 6), 본관은 한산(韓山), 자는 신가(愼可), 초명(初名)은 영원(永遠), 호는 소암(所庵)이다 적은 경상북도 안동(安東)으로 고조부는 석관(碩觀)이고 증조부는 태화(泰和)이다 조부는 퇴계(退溪) 학통을 계승하여 당시 영남학맥의 중주였고 예조 참의(禮曹參議)를 지낸 대산(大山) 상정(象靖)이다

부친은 홍문관 교리(弘文館 校理)를 역임한 간암(良巖) 완(完) 이며 모친은 이범중(李範中)의 따님으로 여강이씨(驪江李氏)이다 형은 함창 현감(咸昌 縣監)을 지낸 면재(旹齋) 병운(秉運)이며 배위(配位)는 묵헌(默軒) 이만운(李萬運)의 따님으로 광주이씨(廣州李氏)이다

천사(川沙) 김종덕(金宗德)의 문하에서 수학하며 사서(四書)와 성리학(性理學)을 익혔다 1825 년(순조 25) 을유(乙酉) 식년시(式年試) 생원(生員)에 합격하여 1804 년(순조 4) 가감역(假監役)을 제수받아 벼슬길로

나아가 1815 년(순조 15) 목릉참봉(穆陵參奉)을 거쳐 1816 년(순조 16) 부사과(副司果), 1817 년(순조 17) 의금부 도사(義禁府都事), 청하현감(淸河縣監) 등을 지냈다

1836 년(헌종 2) 사복시주부(司僕寺主簿)에 임명되고 1838 년(헌종 4) 7 월 비안현감(比安縣監)으로 도임(到任)하여 1840 년(헌종 6) 3 월 3 일비안 관아에서 졸(卒)하여 하령촌에 장사를 지냈다. 저서로 『소암선생문집(所菴先生文集)』이 있는데 1904 년(광무 8) 증손 이찬도(李贊燾)가 편집하여 간행하였다

## 卷之十七 / 祭文

제회병신공 체인 문 祭晦屏申公 體仁 文

20世 체인(體仁) 父 : 도만(道萬) 祖父 : 분구(貢龜)

귀파(龜派) 오봉공파(梧峰公派)

吾祖之門。號爲僕英。東箭南金。咸以陶鎔。是時先生。順流東行。潔爾珮瑤。趁我蒼珩。肩賜武夏。撤籬窺牆。蓋其入頭。有守有爲。狷則不搖。狂以進取。卒澤以道。範以登驟。聖學之要。其門不貳。知進敬涵。直上直下。乃遊其閑。乃泳其瀾。寧高無卑。寧新無陳。



日披床籤。南針攸存。漱其瀝液。揚彼繁絃。有德必言。其光千眠。杼抽予懷。閤合曩篇。君子固躬。曳履商聲。鳳凰于飛。豈與鷄搶。獨守其雌。是道也臧。晚卜林樹。水泌門衡。瓶無粟米。案有朱程。一山一壑。蕭然枯鶴。靈光于世。年邵以德。抱景依響。采篤瞻依。夢遽起起。火隨薪灰。小子癡獃。猶記契舊。駕言相迎。書以替資。及余顛沛。益荷眷係。莊樗未繩。南喬已摧。交臂失相。誰開余眸。復壤有期。名經一丘。自崖而返。余懷之悲。於乎哀哉。

所菴集 卷十七

祭晦屏申公體仁文

吾祖之門。號為傑英。東箭南金。咸以陶鎔。是時先生。順流東行。潔爾珮瑤。趁我蒼珩。肩賜武夏。撤籬窺墻。蓋其入頭。有守有為。獨則不搖。狂以進取。卒澤以道。範以登驟。聖學之要。其門不貳。知進敬涵。直上直下。乃遊其闕。乃泳其瀾。寧高無卑。寧新無陳。日披床籤。南針攸存。漱其瀝液。揚彼繁絃。有德必言。其光千眠。杼抽予懷。閤合曩篇。君子固躬。曳履商聲。鳳凰于飛。豈與鷄搶。獨守其雌。是道也臧。晚卜林樹。水泌門衡。瓶無粟米。案有朱程。一山一壑。蕭然枯鶴。靈光于世。年邵以德。抱景依響。采篤瞻依。夢遽起起。火隨薪灰。小子癡獃。猶記契舊。駕言相迎。書以替資。及余顛沛。益荷眷係。莊樗未繩。南喬已摧。交臂失相。誰開余眸。復壤有期。名經一丘。自崖而返。余懷之悲。於乎哀哉。

所菴先生文集卷之十七 九

祭姊氏文 續禮序

於乎。吾姊氏。今三十一年矣。棺和之出。再矣。此三十一之事。其亦有聞乎。泉臺否。於乎。已酉之天。椽吾何忍說。姊氏何忍聞。而未幾而姊氏有婦焉。如姊氏。有女焉。如姊氏。吾之妹。如姊氏者。又繼而入姊氏之門。庶幾以嗣續姊氏之迹。而既而歸之。夫如姊氏。

卷之十八 / 行狀

회병신공행장 晦屏申公行狀

20世 체인(體仁) 父 : 도만(道萬) 祖父 : 분구(貢龜) 귀파(龜派) 오봉공파(梧峰公派)

諱體仁字子長。本貢鵝洲。

曾祖諱淑範。妣■■■氏。

祖諱貢龜。妣載寧李氏。

父諱道萬。妣閻韶金氏。德水李氏。■■南氏。



鵝洲之申。爲東方聖族。自按廉使祐。始載族姓。累傳至梧峯先生諱之悌。官承旨贈吏曹參判。孤松先生諱弘望官正言。於公間六世五世。英廟七年辛亥四月二十五日。公生于義城縣西龜尾里第。方娠先處士公得異夢。而已乃生。生而眉宇清粹。骨格俊偉。自未解語。已癖好書冊。指認文字。方三四歲。聞鄰家讀書聲。因往赴焉。家人不知所在。窮搜乃得。問終日不食得無飢乎。對曰聞讀書聲。自不飢也。五歲上十九史。未數月而畢一卷。聰詣絕倫。一覽便記。篤志<sup>P</sup>厲業。不肅而藝成。八歲丁母夫人憂。號哭如成人。壬戌繼妣李氏入門。未一年歿。哀毀如所生。庚午聘柳氏。丙子丁外艱。繼喪柳氏。時厲氣彌天。喪威震疊。而躬親斂禭。戚易備至。己卯聘張氏。辛巳赴鄉解。考官李輝中擢置第一曰非今世科儒也。甲申摳衣於大山李先生之門。蓋自童子時。從剛窩任先生學。後因往來祝室。質問於九思金先生。已知俗學之外有向上事業。而至是復發憤刊落。一意內修。得師門剛明果勇之許。辛丑遭山樑之痛。以斯文墜地道學無傳爲憂。與同門老成。互相質難。隱然有歲寒之期焉。壬<sup>P</sup>寅錦淵精舍成。名其室之左曰主敬。右曰集義。其無求自樂之意。備見於自撰詩及記。甲辰遭夫人張氏喪。時家計日剝落。往往疏糲不繼。幼穉滿膝。人不堪其憂。而處之晏然。無一毫戚嗟之意。戊申患司視之症。幾不能辨字。閉目靜坐。專精內視。而存養之功益密焉。戊午伯胤上舍公歿。蓋公有四子。第二子十四而夭。第三子十七而夭。至是而上舍有儕友重望。家庭之間。期擬遠大。而又以青年辭庭。悲傷慘惻。殆非人理可堪。而能以理自遣。乃曰亡者好禮。今當以禮治喪。作壙銘書棺面以瀉哀。己未遭後妣南夫人喪。<sup>P</sup>時年已七耄。疾病漸頓。而式禮莫愆。丁卯縣侯金相任以經術文章。爲一方楷範薦。戊辰己巳方伯尹侯光顏、鄭侯東觀。相繼致禮。特加啓薦。壬申春疾患連綿。日漸添劇。而手足運措。皆有節度。至四月三日戌時啓手足。享年八十二。訃出遠近學者。爲位而哭。子鼎辰前夫人出。卽上舍先卒。子澗辰後夫人出。今嗣守錦淵精舍。有子祖樾爲上舍後。次祖植。皆能世其家者也。公才調出人。自少留意於文章家。甫成童讀史漢。唐宋以下。至皇明我東諸家。無不貫穿成誦。而酷慕韓子。著韓子文賦。嘗讀書于華藏山中。約五<sup>P</sup>夜一假寐。非便溺不出門。恐溫暖交睡。衣着單裕。房取涼冷。所讀不滿千不止。每自七月以後。至三月以前。窮日夜不暫休。如是者數歲。自是文思大進。有作者軌範。公車之文。亦不遵程式。縱橫滂沛。所至輒居前列。童子時赴縣校戰藝。筆翰如流。援引宏博。一場屬目。皆爲推先進。一日本倅設樂。公往觀之。歎正聲之微茫。述樂賦一篇。歷叙天人正變。上自黃帝顓頊以下。下至夷狄神巫之樂。鉤幽蹟微。張皇數千言。當世老師宿儒。莫不嘖嘖退一舍。工於詩學。往往逼古。旁及外史雜記。如天文地理兵家筭數卜筮醫藥之<sup>P</sup>流。無不涉獵究索。而中晚以後。文章專主理勝。觀書絕去駁雜。素性簡亢。處人接物。無所假貸。發言持行。多尙峻厲。而自承師門指教。磨礱陶養。漸就和緩。橫逆之來。談笑而處之。嘗以意外事被誣於人。禍將不測。子弟欲卞之。公曰相悉之間。只盡吾道而已。曲直不須論。親往罷之。其人愧服。事竟得已。平生窮約。四壁徒立而安之若性。見兒曹有飢色。則輒曰曾子居衛。七日不舉火。曳履而歌商頌。聲滿天地。若出金石。人苟堅其志操。卽飢寒不能累耳。嘗答人書曰殺年計活。與歲俱窮。惟將以窮當益堅。老當益壯。爲八字<sup>P</sup>符。念唐之樊紹述慕古道能文章。妻子或告乏

輒顧笑曰我道盖是也。皆應曰諾。無不意滿。可見其平日趣尚。爲家人信服。吾輩一不食。便不能泰然忘情。爲家人者亦未免失其歡色。其不食非可憂。惟不能使家人若樊子之妻孥者。爲可愧耳。江臯草閣。風日不蔽。而麻衣草履。蕭然孤坐。望之若枯鶴焉。謹於辭受之節。嘗作花山行。有數百泉文遺落路傍。從者欲取之。公曰汝不聞道不拾遺之語乎。遂使勿取。有一親冠其子。屬公以西階之位。及歸見幣束中有錢物。卽還書却之曰恐有痕跡。然心所未安處。不容自己云。P有族人以浦田屬之精舍。而鄰耕者欲冒占。公曰本非我物。何足與較乎。門內子姪及學者之來往者。收取如干財穀。爲久遠之計。而時值凶荒。貲多不入。公聞之令焚其券。窮日益甚而操日益勵。方伯守宰之贈遺。知舊姻族之調恤。必皆決於義。尤謹於行止。嘗赴南省。有綺紈子聞公名。要與同事。公以嫌疑之際。不可不慎。嚴辭以拒之。赴夏課覆試。主試者令密探公券。覺之不呈券而歸。方伯以朝廷命。請道內名碩。有會校之役。公辭以疾。與金川沙論去就之義。其後尹方伯將行鄉飲酒禮。遣官吏致問要速。亦不往。P少有四方之志。每當詞翰之場。秉羽先登。而既而約之於道德。雖隨衆應舉。不欲爲表高揭。已而恬於進取。不以得失介意。栖遲錦谷山中。閒居養靜。與世相忘。花藥繞砌。牙籤滿案。兀兀終日。不知老之將至。嘗書古人名言。如顏子四勿張子六有及心近要語。揭之四壁。作一小屏。模退陶聖學十圖。繞之座右。軒窓向東。朝旭方升。仍感提掇此心之義。集古今名言。作窓銘十六句。爲圖以資觀省。每當風朝月夕。歌詠聖訓。或緩步徐行。平章水石。有考槃永矢之樂焉。自少喜從先輩長者遊。早已發端於梧溪九思之門。而及P得依歸。毅然以此學爲己任。嘗曰昔年妄學文章。每覺胷中鬪熱。如水火交戰。就正以後。漸覺義理平實。心界專一。而師門亦許以志意堅愷。見識精審。朋友鮮有及云。嘗因事往來洛下。歷訪順菴安公。安公稱之爲南州豪傑。出示所撰東史綱目。多所商確。嘗謁銘於蔡樊庵。樊庵歎曰觀申某。吾輩不可謂讀書人。與后山李公，川沙金公，東巖柳公，晚谷趙公。結以道義。往復辨難。晚年疾病沉淹。兩眼全不辨。而口誦心惟。未嘗或懈。嘗曰衛武公九十五。猶箴警人。豈可以老廢自沮乎。其一心向上之義。炳然如丹。蓋其學以P主敬爲基本。乃曰聖賢論敬之說。昭在方冊。而其言散出。學者未易通看。遂編崇敬錄一篇。以論敬旨訣持敬淵源。分作兩卷。係以誠敬說，敬義說，靜敬說。而以懲省錄附其下。凡聖賢言敬之旨。無不蒐羅剔決。指南於斯道。又嘗謂秦漢以來。功利之習成。而義理之心晦。專由於王伯之分未明耳。欲蒐輯古今王霸之辨爲成書。而未及下手。又謂東方邪學大肆。聰明之士往往漸染。將至於彝倫滅而家國蒙禍。乃作天學辨。辭闢之意。偉然有障川之功。以獎進後學爲先務。其設教也。必本之於小學灑掃應對。而循序漸進P於大學。嘗作勸學歌。雜以真諺。令學者誦之。爲激厲奮發之資。蓋有感於程氏別欲作詩。令朝夕歌之義也。謹於禮節。日用應酬之間。雖疏行細節。必皆折之於禮。古今禮家之因訛襲謬者。多所釐改。祭以誠敬爲本。粢盛務致蠲潔。而豐約則稱家而已。不爲苟辦也。其主冰溪院也。舊有太乙壇。爲氓俗所信向。每當歲時。擊鼓祈禱。公令毀其祠。淫祀遂息。人服其定力云。公以卞急之性。而濟之以寬和。以文章之手。而返之於義理。講說則破固滯而歸平實。行己則去稜角而回坦夷。至其晚年。動作有節。行步有則。惰慢之氣。P不設於身。鄙悖之語。不出於口。氣像從容

。容貌莊嚴。操履之密。存養之熟。儼然有靈先之望焉。秉遠自幼少時。每見公至。則同門長德。互相招邀。所言不出講說之外。或綿日夜不倦。使人欣然知所慕尚。今荏苒之間。七十子已喪矣。俛仰今昨。不勝斯道日孤之歎。日其遺胤灑辰甫。以遺事一通來示曰。先人平日立心本末。粗有可述。而記德之狀。未有所屬。知先人事行者。無如夫子家人。子盍爲之撰次。俾有所徵信。秉遠自惟藐然後生。何足以知公之奧。則僭加記述。祇以重不韙之罪。再拜而辭而不獲。則仍竊惟念公不以無似爲不可教。蒙平昔拊頂而提耳之者累矣。雖愚蒙顛劣。白首無聞。以負公之教。而竊私識於言行威儀之間則有之矣。今而相茲役。亦烏敢以不文辭。遂按據而序次之如右。

可得而模擬矣。其爲文。類皆簡正古雅。不事時人雕繪。意味親切。視着不從皮膚上過去。其論學。要皆明的痛劄。無非從身親經歷中來者。所著書有聖學正路。聖學入門。孔門一統。草廬問答。釋學正賦。政本禮書。及詩文若干卷。皆近裏着已語也。於乎。小子以庚子歲冠首。先王考戒先生莅賓席。既又命執贊于先生之門。翌年辛丑。王考寢疾。而每見先生。必扶起而坐。其招語學者。亦必待先生至而爲之。王考之所以敬禮先生如此。願惟小子滅裂煇揚。不能體先生一言之教。以忝先生之門。而負王考之命。感其慇懃。托

所菴先生文集卷之十八 三十五

付之意。則猶有可得而窺測而佩服不敢忘者矣。於乎。婦矣。叔氏持憲公一日語小子曰。伯氏棄世已屢歲。而事行未有所記。及門諸君。盡各以一言叙述。自惟無似。獲陪先生晚暮。不爲不久。而愚無知識。其何能熟察而詳記之乎。惟是猥托門屏。不敢自外。於是命乃敢忘其僭猥。叙次如右。

晦屏申公行狀

諱體仁字子長本貫鵝洲

曾祖諱淑範妣氏

祖諱賁龜妣載寧李氏



父諱道萬。妣聞韶金氏。德水李氏。南氏。

鵝洲之申。爲東方望族。自按廉使祐。始載族姓。累傳至梧峯先生諱之悌。官承旨。贈吏曹參判。孤松先生諱弘望。官正言。於公間六世五世。英廟七年辛亥四月二十五日。公生于義城縣西龜尾里第。方娠先處士公得異夢而已。乃生。生而眉宇清粹。骨格俊偉。自未解語。已癖好書冊。指認文字。方三四歲。聞鄰家讀書聲。因往赴焉。家人不知所往。竊搜乃得。問終日不食。得無飢乎。對曰。聞讀書聲。自不飢也。五歲上十九史。未數月而畢一卷。聰詣絕倫。一覽便記。篤志

所菴先生文集卷之十八 三十六

厲業。不肅而藝成。八歲丁母夫人憂。號哭如成人。壬戌繼妣李氏入門。未一年。歿。毀如所生。庚午聘柳氏。丙子丁外艱。繼喪柳氏。時厲氣彌天。喪威震疊。而躬親歛穢。戚易備至。己卯聘張氏。辛巳赴鄉解。考官李輝中擢置第一。曰。非今世科儒也。甲申搢衣於大山。李先生之門。蓋自童子時。從剛窩任先生學。後因往來祝室。質問於九思金先生。已知俗學之外。有向上事業。而至是復發憤刊落。一意內修。得師門剛明果勇之許。辛丑遭山樑之痛。以斯文墜地道。學無傳焉。憂與同門老成。互相資難。隱然有歲寒之期焉。壬

所菴集 卷十八

寅錦淵精舍成。名其室之左曰主敬。右曰集義。其無求自樂之意。備見於自撰詩及記。甲辰遭夫人張氏。喪。時家計日剝落。往往疏糲不繼。幼穉滿膝。人不堪其憂。而處之晏然。無一毫戚嗟之意。戊申患司視之症。幾不能辨字。閉目靜坐。專精內視。而存養之功益密焉。戊午伯胤上舍公歿。蓋公有四子。第二子十四而夭。第三子十七而夭。至是而上舍有僚友重望。家庭之間。期擬遠大。而又以青年辭庭。悲傷慘惻。殆非人理可堪。而能以理自遣。乃曰。匹者好禮。今當以禮治喪。作壙銘書棺面以瀉哀。己未遭後妣南夫人喪。

所菴先生文集卷之十八 三十七

時年已七。羸疾病漸頓。而式禮莫愆。丁卯縣侯金相任以經術文章。爲一方楷範。薦。戊辰己巳。方伯尹侯光顏鄭侯東觀。相繼致禮。特加。啓薦。壬申春疾患連綿。日漸添劇。而手足運措。皆有節度。至四月三日。戊時。啓手足。享年八十二。計出遠近學者。爲位而哭。子鼎辰前夫人出。即上舍先卒。子灑辰後夫人出。今嗣守錦淵精舍。有子祖健。爲上舍後。次祖植。皆能世其家者也。公才調出人。自少留意於文章家。甫成童。讀史漢。唐宋以下。至皇明我東諸家。無不貫穿成誦。而酷慕韓子。著韓子文賦。嘗讀書于華藏山中。約五



主敬爲基本。乃曰聖賢論敬之說。昭在方冊。而其言  
 散出。學者未易通看。遂編崇敬錄一篇。以論敬旨訣  
 持敬淵源。分作兩卷。係以誠敬說。敬義說。靜敬說。而  
 以懲省錄附其下。凡聖賢言敬之旨。無不蒐羅剔透。  
 指南於斯道。又嘗謂秦漢以來。功利之習成。而義理  
 之心晦。專由於王伯之分未明耳。欲蒐輯古今王霸  
 之辨。爲成書。而未及下手。又謂東方邪學大肆。聰明  
 之士。往往漸染。將至於彝倫滅。而家國蒙禍。乃作天  
 學辨。辭闕之意。備然有障川之功。以獎進後學。爲先  
 務。其設教也。必本之於小學。灑掃應對。而循序漸進  
 於大學。嘗作勸學歌。雜以真諍。令學者誦之。爲激厲  
 奮發之資。蓋有感於程氏別欲作詩。令朝夕歌之義  
 也。謹於禮節。日用應酬之間。雖疏行細節。必皆折之  
 於禮。古今禮家之因訛襲謬者。多所釐改。祭以誠敬  
 爲本。菜盛務致瀾潔。而豐約則稱家而已。不爲苟辦  
 也。其主冰溪院也。舊有太乙壇。爲氓俗所信向。每當  
 歲時。擊鼓祈禱。公令毀其祠。泔祀遂息。人服其盡力  
 云。公以下急之性。而濟之以寬和。以文章之手。而返  
 之於義理。講說則破固滯。而歸平實。行已則去稜角  
 而回坦夷。至其晚年。動作有節。行步有則。嗜慢之氣

所菴先生文集卷之十八 四十一

不設於身。鄙悖之語。不出於口。氣像從容。容貌莊嚴。  
 操履之密。存養之熟。儼然有靈先之望焉。秉遠自幼  
 少時。每見公至。則同門長德。互相招邀。所言不出講  
 說之外。或綿日夜不倦。使人欣然。知所慕尚。今在菴  
 之間。七十子已喪矣。俛仰今昨。不勝斯道日孤之歎。  
 日其遺胤。瀛辰甫。以遺事一通來示。曰。先人平日立  
 心本末。粗有可述。而記德之狀。未有所屬。知先人事  
 行者。無如夫子家人。子盍爲之撰次。俾有所徵信。秉  
 遠自惟蕪然。後生何足以知公之奧。則僭加記述。祇  
 以重不韙之罪。再拜而辭。而不獲。則仍竊惟念公不  
 以無似爲不可教。蒙平昔拊頂而提耳之者。累矣。雖  
 愚蒙顛劣。白首無聞。以負公之教。而竊私識於言行  
 威儀之間。則有之矣。今而相茲役。亦烏敢以不文辭。  
 遂按據而序次之。如右。

所菴先生文集卷之十八 四十二

所菴先生文集之卷十八

## 송소선생문집(松巢先生文集)

### 형태서지

권수제	송소선생문집(松巢先生文集)
판심제	송소선생문집(松巢先生文集)
간종	목판본(木版本)
간행년	1811년 간행
권책	4권 2책
행자	10행 21자
규격	20.2×16.3(cm)
어미	上下二葉花紋魚尾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도서번호	한 46-가 572
총간집수	한국문집총간 속 7

### 저자

성명	권우(權宇)
생년	1552년(명종 7)
몰년	1590년(선조 23)
자	정보(定甫)
호	송소(松巢)
본관	안동(安東)
특기사항	이황(李滉), 조목(趙穆)의 문인. 이덕홍(李德弘), 김해(金垓), 남치리(南致利) 등과 교유

### 행력

왕력		서기	간지	연호		연령	기사
명종	7	1552	임자	嘉靖	31	1	태어나다.
명종	13	1558	무오	嘉靖	37	7	모친상을 당하다.
명종	15	1560	경신	嘉靖	39	9	계모 具氏의 상을 당하다.
선조	3	1570	경오	隆慶	4	19	李滉의 문하에 나아가다.
선조	5	1572	임신	隆慶	6	21	향시에 합격하다. ○ 경상도 東堂試에 장원하다. ○ 겨울, 서울의 別試에서 「大學」의 補亡章에 대해 程朱의 논리로 답하여 장원하다.
선조	6	1573	계유	萬曆	1	22	생원시에 합격하다. 이후로 舉業을 폐하고 성리학 연구에 전념하다. ○ 장남 권익민이 태어나다.
선조	8	1575	을해	萬曆	3	24	10 월, 청량산을 유람하고 <遊清涼山錄>을 짓다.
선조	10	1577	정축	萬曆	5	26	차남 권익정이 태어나다.
선조	13	1580	경진	萬曆	8	29	3 남 권익신이 태어나다.
선조	15	1582	임오	萬曆	10	31	7 월, 金隆과 함께 烏川에 머물며 시를 지어 주다.
선조	16	1583	계미	萬曆	11	32	4 남 권익린이 태어나다.
선조	18	1585	을유	萬曆	13	34	가을, 청량산을 유람하고 3 수의 시를 짓다.
선조	19	1586	병술	萬曆	14	35	學行으로 천거되어 敬陵 參奉이 되었다가 부친 봉양을 위해 集慶殿 參奉이 되다. ○ 5 남 권익겸이 태어나다.
선조	20	1587	정해	萬曆	15	36	2 월, 부친상을 당하다.
선조	22	1589	기축	萬曆	17	38	遺逸로 光海君의 師傅가 되다. ○ 胄筵에서 經書의 疑義에 대해 답하자 宣祖가 唐詩 十絶을 써 주며 칭찬하다.
선조	23	1590	경인	萬曆	18	39	3 월 26 일, 서울에서 졸하다. ○ 5 월, 鶴駕山 龍泉에 장사 지내다.
선조	41	1608	무신	萬曆	36	—	光海君이 즉위하자 左承旨로 증직되다.
숙종	30	1704	갑신	康熙	43	—	1 월, 魯林書院에 봉안되다.
순조	11	1811	신미	嘉慶	16	—	7 대손 權達忠이 목판으로 문집을 간행하다.

### 편찬및간행

저자는 이황과 조목의 문인으로 생원시에 합격한 후 성리학 연구에 힘쓰다가 학문을 인정받아 광해군의 사부를 지내기도 하였다.

저자의 저술은 저자가 졸한 후 동생 權宏(1575~1652), 종손 權赫(1595~1643) 등이 수집 정리하여 4 권의 稿本으로 만들어 張顯光(1554~1637), 李堧(1560~1635), 金得研(1555~1637)의 발문을 받았으나 간행까지 이어지지는 못하고 家藏되었다.



그 후 5 대손 權相一(1679~1759)이 1752 년에 고본 4 권을 교정하고 刪定하여 2 책으로 편집하였다. 7 대손 權達忠이 2 책의 산정본을 바탕으로 鄭宗魯의 교감을 받아 조카 權暹과 목록을 만들고 오자를 교정한 다음 鏡光書院의 도움을 받아 1811 년 尙州 山陽에서 4 권 2 책을 목판으로 간행하였다.《초간본》이 본은 국립중앙도서관(한 46-가 572),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D1-A2442),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장서각(D3B-1842),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성균관대학교 존경각(D3B-2387) 등에 소장되어 있다.

본서의 저본은 7 대손 權達忠이 1811 년에 목판으로 간행한 초간본으로 국립중앙도서관장본이다.

序(鄭宗魯 撰), 跋(張顯光·李垞·金得研 撰), 識(權達忠 撰) 등에 의함

## 구성과내용

본집은 4 권 2 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수에 鄭宗魯가 1811 년에 지은 序와 目錄이 있다.

권 1 은 詩(102), 賦(1), 辭(1)이다. 시는 연대순으로 편차되어 있다. <蓮臺寺>, <致遠庵觀先師甲子題名>, <風穴臺> 등은 淸涼山을 유람하며 지은 것이다. <題南袞續三綱行實序下>는 「삼강행실도」의 서문을 지어 풍속을 아름답게 하고 백성들을 교화한다는 말을 한 사람이 士禍를 일으켰나며 남곤의 행실을 비판한 것이다. <續三綱行實忠臣類無六臣>은 「삼강행실도」에 빠진 효자와 충신을 추가하면서 六臣이 빠졌음을 아쉬워한 것이다. <秋夜病臥草堂有螢火一點入牕徹夜明滅>은 초당의 창으로 날아든 반딧불을 보고 車胤의 螢雪之功을 생각한 것이며, <送朴叔彬赴羅州提督>은 계유년(1573)의 同榜인 朴而章을 전송하며 지은 것이다.

권 2 는 書(28)이다. 趙穆, 柳成龍, 李德弘 등과의 편지이다. <答柳西厓>에서는 유성룡에게 「退溪集」의 교정과 편차에 대해 말하였고, <答李宏仲>은 李德弘과 致知에 대해 논한 것이다. <與南義仲>은 南致利와 「書經」의 “舜命禹……往欽哉” 중 ‘欽’ 字의 의미에 대해 논한 것이며, <答權彥晦>는 權春蘭과 耐遷의 禮, 祥祭 때의 복장 등 상례와 제례에 대해 논한 것이다.

권 3 은 祭文(10), 雜著(6), 行狀(2)이다. 제문은 李滉, 南致利, 具鳳齡, 李安道 등에 대한 것이다. 잡저의 <諸說辨解>는 理, 性 등에 대해 여러 주석을 비교하며 설명한 것이다. <遊淸涼山錄>은 1575 년 10~11 월에 淸涼山을 유람한 기록이다. <自警說>은 마음은 담대하고 말은 어눌하고 도량은 크게 가져야 한다는 등 스스로를 경계한 글이다. 행장은 남치리와 부친의 것이다.

권 4 는 부록으로, 李壽鵬·琴蘭秀 등이 지은 輓詞(5), 賜祭文, 趙穆·權春蘭·金垞 등이 지은 祭文(10), 權暹가 지은 行狀, 金應祖가 지은 墓碣銘, 李玄紀가 지은 <魯林書院奉安文>, 李象靖이 지은 <鏡光書院復享文> 등이다.

권미에 張顯光이 1637 년에 지은 발문, 李垞이 지은 발문, 金得研이 지은 발문, 金應祖가 1658 년에 지은 識, 金邦杰이 지은 <御賜書帖後跋>, 7 대손 權達忠이 1811 년에 지은 識가 있다.



## 권우(權宇)

### 정의

조선전기 경릉참봉, 사부 등을 역임한 문신.

### 개설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정보(定甫), 호는 송소(松巢). 병절교위(秉節校尉) 권갑성(權甲成)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장사랑(將仕郎) 권엽(權燁)이고, 아버지는 생원 권대기(權大器)이며, 어머니는 훈도(訓導) 이제(李濟)의 딸이다. 이황(李滉)의 문인이다.

### 생애 및 활동사항

1573년(선조 6) 생원시에 합격한 뒤 과거공부를 그만두고 성리학에 전심하여 학문으로 이름이 높았다. 1586년 경릉참봉(敬陵參奉)에 제수되었다. 1589년 왕자(뒤의 광해군)의 사부에 제수되었으나 그 다음해에 죽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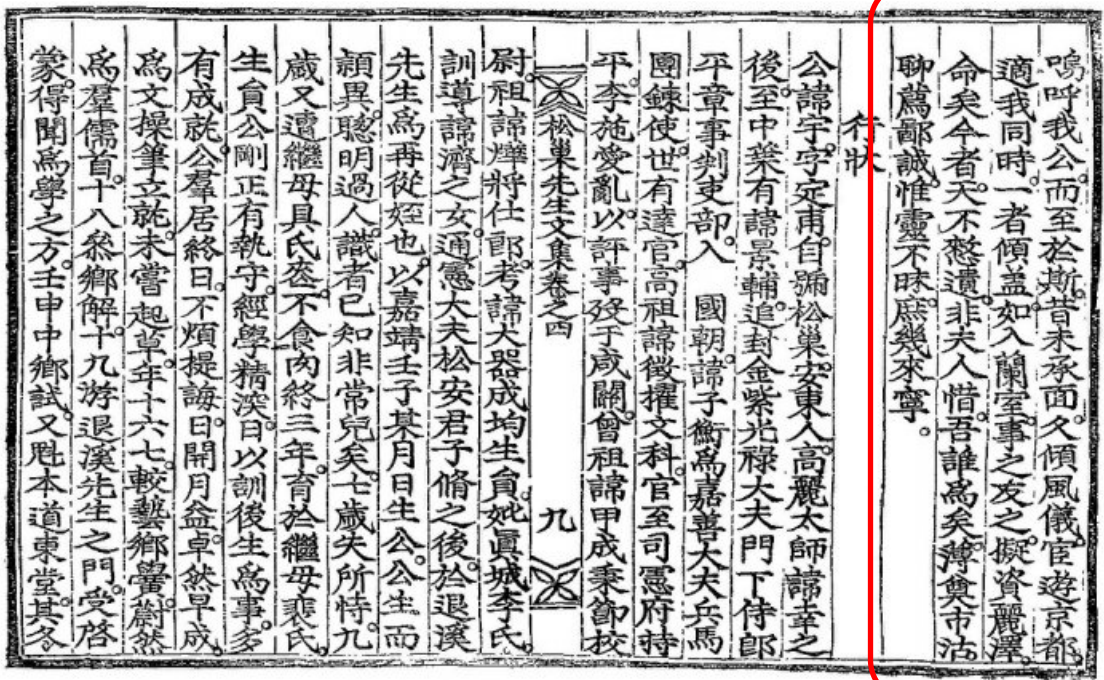
광해군이 즉위하자 스승인 권우의 옛 은혜에 보답하고자 좌승지를 추증하고 예관(禮官)을 보내어 제사지내게 하였다. 안동의 경광서원(鏡光書院)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송소집(松巢集)』이 있다.

卷之四 / 附錄

제문[신지제] 祭文[申之悌]

14世 지제(之悌) 父 : 몽득(夢得) 祖父 : 응규 (應奎) 귀파(龜派)오봉공파(梧峰公派)

嗚呼我公。而至於斯。昔未承面。久傾風儀。宦遊京都。適我同時。一者傾盖。如入蘭室。事之友之。擬資麗澤。命矣今者。天不憖遺。非夫人惜。吾誰爲矣。薄奠市沽。聊薦鄙誠。惟靈不昧。庶幾來寧。



## 송정선생문집(松亭先生文集)

## 형태서지

권수제	송정선생문집(松亭先生文集)
판심제	松亭集
간종	석인본(石印本)
간행년	1939 年刊
권책	原集 5 권, 續集 3 권 합 4 책
행자	10 행 20 자
규격	19×14.2(cm)
어미	上黑魚尾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도서번호	古 3648-文 88-8
총간집수	한국문집총간 61

## 저자

성명	하수일(河受一)
생년	1553 년(명종 8)
몰년	1612 년(광해군 4)
자	태역(太易)
호	송정(松亭)
본관	진주(晉州)
특기사항	조식(曹植)의 문인

행력

왕력		서기	간지	연호		연령	기사
명종	8	1553	계축	嘉靖	32	1	1월 22일, 晉州 水谷里에서 태어나다.
명종	14	1559	기미	嘉靖	38	7	從叔父 覺齋 河沆의 門下에서 배우다.
선조	2	1569	기사	隆慶	3	17	坡平尹氏와 혼인하다.
선조	3	1570	경오	隆慶	4	18	9월, 조부상을 당하다.
선조	5	1572	임신	隆慶	6	20	2월, 南冥 曹植의 부음을 듣고 곡하다.
선조	8	1575	을해	萬曆	3	23	8월, 善山 鄉試에 응하여 <東征賦>를 짓다.
선조	10	1577	정축	萬曆	5	25	윤 8월, 부인 윤씨의 상을 당하다.
선조	11	1578	무인	萬曆	6	26	4월, 아우 河天一, 河成一과 함께 靑巖寺에서 독서하고 西岳을 유람하다.
선조	12	1579	기묘	萬曆	7	27	<尹澤遠登進士慶燕序>와 <弟天一司馬宴序>를 짓다. ○ 가을, 德山寺를 유람하다.
선조	13	1580	경진	萬曆	8	28	6월, 부친상을 당하다. ○ 12월, 아들 河辰이 죽으니 墓銘을 짓다.
선조	15	1582	임오	萬曆	10	30	10월, 覺齋先生을 모시고 晦山書院에 가서 南冥의 위판을 奉安하고 黃溪를 유람하다. ○ <丹城鄉校聖殿記>를 짓다.
선조	16	1583	계미	萬曆	11	31	<德川書院洗心亭記>를 짓다. ○ 8월, 德川 鄉禮를 보고 崔琦弼, 吳長 등과 獐項洞을 유람하다. ○ 滄浪 成文濬에게 답서를 보낸다.
선조	17	1584	갑신	萬曆	12	32	密陽孫氏와 혼인하다. ○ 8월, 조모상을 당하다.
선조	18	1585	을유	萬曆	13	33	<西臺八詠解義>를 짓다. ○ 元堂의 潮溪 柳宗智의 書堂에 대한 記를 짓다.
선조	19	1586	병술	萬曆	14	34	문인 李翰周, 李純勳, 柳綱春을 송별하다.
선조	20	1587	정해	萬曆	15	35	3월, 李惟誠과 落水巖을 구경하다. ○ 鄭逵를 뵈고 「周禮」를 講問하다.
선조	22	1589	기축	萬曆	17	37	생원시에 합격하자 목사 崔岾이 多會灘에서 연회를 베풀어 주다. ○ <玉山月牙龍堂祈雨文>을 짓다.
선조	23	1590	경인	萬曆	18	38	守愚堂 崔永慶을 뜻하다. ○ 從父이자 스승인 覺齋 河沆의 상을 당하다.
선조	24	1591	신묘	萬曆	19	39	8월, 文科에 丙科로 합격하다. ○ 10월, 尙州에서 從父 喚醒齋 河洛을 뵈다. ○ 11월, 山陰에서 思湖 吳長을 만나다.
선조	25	1592	임진	萬曆	20	40	4월, 尙州에서 倭亂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가 義兵의 召募에 힘쓰다. ○ 종부 河洛과 아우



							河成一이 전사하다. ○ 11 월, 牧使 金時敏을 곡하다.
선조	27	1594	갑오	萬曆	22	42	妻伯父 孫天佑의 부음을 듣고 곡하다.
선조	30	1597	정유	萬曆	25	45	아우 河天一이 졸하다. ○ 大笑軒 趙宗道を 곡하다.
선조	31	1598	무술	萬曆	26	46	金烏山에 가서 吉再의 묘소에 참배하다. ○ 榮川 郡守인 李惟誠을 찾아가 伊山書院에 머물다. ○ 月川 趙穆과 함께 陶山書院에 가서 退溪와 南冥의 학문을 논하다. ○ 鑑谷 李汝積이 찾아오다. ○ 9 월, 啓功郎이 되다. ○ 12 월, 務功郎이 되다.
선조	33	1600	경자	萬曆	28	48	2 월, 전적이 되다. ○ 3 월, 昌樂道 察訪이 되다. ○ 4 월, 靈山 縣監이 되다. ○ 겨울, 벼슬을 그만두고 尙州 無量洞에 거주하다.
선조	34	1601	신축	萬曆	29	49	1 월, 箆巖으로 이사하다. ○ 5 월, 女壻 鄭壻, 從子 河瑄을 데리고 洛東江을 유람하다.
선조	37	1604	갑진	萬曆	32	52	3 월, 李元翼을 만나 禹惇, 劉義甲의 復讐疏와 五賢의 文廟從祀에 대해 논하다.
선조	38	1605	을사	萬曆	33	53	2 월, 慶尙道 都事가 되다. ○ 4 월, 〈河氏族譜序〉를 쓰다. ○ 金宏弼과 南冥의 사당에 참배하다. ○ 河應圖와 함께 雙溪 靑鶴洞을 유람하다. ○ 여름, 雲錦亭을 중수하다.
선조	39	1606	병오	萬曆	34	54	1 월, 尙州 教授가 되다. ○ 6 월, 〈山陰換鵝亭記〉를 짓다.
선조	40	1607	정미	萬曆	35	55	李東臯가 내방하다. ○ 愚伏 鄭經世를 찾아보다. ○ 5 월, 형조 좌랑이 되다. ○ 6 월, 弘文錄에 선발되다. ○ 7 월, 형조 정랑이 되다. ○ 8 월, 社稷壇 執禮가 되다.
선조	41	1608	무신	萬曆	36	56	4 월, 이조 정랑이 되다.
광해 군	1	1609	기유	萬曆	37	57	1 월, 濟川亭에 오르다. ○ 11 월, 妹壻 李惟誠의 부음을 듣고 곡하다.
광해 군	2	1610	경술	萬曆	38	58	河應圖의 부음을 듣다. ○ 9 월, 大覺書院이 낙성되어 覺齋 河沆의 위판을 봉안하다.
광해 군	3	1611	신해	萬曆	39	59	〈水月軒記〉를 짓다. ○ 謙齋 河弘도가 찾아와 「論語」와 「伊洛淵源錄」을 배우다.
광해 군	4	1612	임자	萬曆	40	60	1 월 13 일, 졸하다. ○ 3 월, 淸州 世星山 선영에 장사 지내다.
숙종	44	1718	무술	康熙	57	-	大覺書院에 배향되다.
정조	9	1785	을사	乾隆	50	-	李光靖이 행장을 짓다.
정조	12	1788	무신	乾隆	53	-	6 세손 河正中이 문집을 간행하다.(蔡濟恭, 李玄錫

							의 序)
-	-	1939	기묘	-	-	-	13 세손 河宗根이 서울에서 續集과 함께 문집을 중간하다.(河宗根의 跋)

## 편찬및간행

저자는 생전에 자신이 지은 시문을 「松亭歲課」란 이름으로 수집하여 類別로 편차해 놓았다. 본집에 실린 自序인 〈松亭歲課序〉에 의하면, 1580년 부친상을 치르느라 松亭에 머물러 있으면서 雜文과 雜詩들을 松亭이란 이름으로 편차하여 자손들에게 남겨 주려는 의도에서 시작하였는데 ‘歲課’란 이름을 붙인 것은 해마다 지은 글들을 계속 기록해 두겠다는 뜻에서 지은 것이라고 하였다. 또 1598년에 쓰여진 李汝鰲의 〈書松亭歲課後〉에도 저자가 직접 「松亭歲課」 3권을 보여 주었으며 詩, 文, 序, 賦, 記, 頌, 銘 등이 유별로 분류되어 있었다고 하였다.

이 저자의 自編稿는 저자의 사후에도 비교적 잘 전존된 듯하다. 李光靖이 지은 行狀에 “공이 일찍이 저술을 수집하여 「松亭歲課」라고 명하였는데 공이 죽은 지 2백여 년이 지났고 자손들이 禍亂을 겪었지만 遺文이 아직 家藏되어 있다. 6세손인 河達中이 비로소 간행을 계획하여 그 동생 河致中을 보내어 나에게 校勘을 부탁하였다...”라고 하였고, 蔡濟恭의 序文에서도 “공의 6세손 河正中이 가장된 유문을 간행하려고 나에게 서문을 부탁하였다.”라고 하였다.

즉 저자의 6대손인 河正中과 河達中이 家藏되어 있던 「松亭歲課」를 바탕으로 저자의 遺文을 수집하여 李光靖의 교정과 편차를 거친 뒤, 1788년(정조 12)에 蔡濟恭의 서문을 받아 6권 3책을 목판으로 간행한 것이다. 《초간본》 한편 이 초간본에는 李玄錫(1647~1703)의 序도 실려 있어 1700년경에 자손들에 의해 유문의 정리가 일찍이 행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또 金垞이 지은 墓碣銘이 첨입된 본이 있는데 이는 문집의 초간 이후 1812년(순조 12)경에 묘갈명을 받아 추각 후쇄한 것인 듯하다. 본집 중에 묘갈명을 지은 해가 “上之十三 壬申”이라고 되어 있으나 壬申年은 純祖 12년이므로 十三은 十二의 誤記일 것이다. 현재 초간본은 장서각(4-6197), 국립중앙도서관(한 46-가 1022), 고려대학교 도서관 晚松文庫(D1-A1450), 연세대학교 도서관 등처에 소장되어 있다.

이후 11세손 河謙鎭이 狀碣과 日記 등을 참고해 年譜를 짓고 續集을 편차하였으며, 河謙鎭의 스승인 勉宇 郭鍾錫이 原集을 다시 讎校하여 몇 편을 刪定하였다. 이에 1939년 13세손 河宗根이 자신의 발문을 붙여 原集 5권, 續集 3권 합 4책을 서울에서 石印으로 간행하였다. 《중간본》 이 본은 국립중앙도서관(古 3648-文 88-8), 성균관대학교 도서관(D3B-617) 등처에 소장되어 있다.

중간본은 초간본 원집과 비교해 볼 때 文의 編次를 달리하고 작품 수도 약간 줄었다. 初刊本은 原集 6권과 附錄을 합해서 3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卷首의 目錄에는 각 권마다의 총수록 작품 수가 기재되어 있다. 즉 권 1은 詩(135), 권 2는 詩(171)와 賦(8)가 실려 있으며, 권 3은 書(12)와 序(22), 권 4는 記(32), 說(9), 跋(1), 論(1)이, 권 5는 上樑文(2), 祈雨文(3), 祭文(19), 通文(2), 雜著(2), 箋(2), 頌(2)이 수록되어 있고, 권 6은 銘(4), 墓誌銘(6)이 있다. 중간본에서는 권 5와 권 6을 권 5로 합쳤고, 초간본 附錄에는 世系가 있는데 중간본에는 빠져 있다.

본서의 저본은 1939년 石版으로 간행된 중간본으로 국립중앙도서관장본이다.

序(李玄錫, 蔡濟恭 撰), 跋(河宗根 撰) 및 書松亭歲課後(李汝鰲 撰), 年譜識(河謙鎭 撰) 등에 의함

## 구성과내용

본 문집은 原集 5 권, 續集 3 권 합 4 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수에는 蔡濟恭과 李玄錫의 序, 원집목록이 실려 있다. 원집의 권 1~2 에는 賦와 詩, 권 3~5 에는 文, 그리고 附錄이 있다.

권 1 에는 賦 7 편과 詩 82 題가 실려 있는데, 詩는 오언절구 9 題, 육언절구 1 題, 오언율시 57 題, 기타 오언배율·장단구 등의 詩 15 題로 되어 있다. 賦 중 <忠烈廟賦>는 宋 나라 岳飛의 충성과 억울한 죽음을 표현한 글이고, <東征賦>는 1575 년(선조 8)에 善山 지방으로 가며 산천을 보고 느낀 것을 기록한 글이다. 권 2 에는 칠언절구 89 題, 칠언율시 31 題 등의 칠언시 123 題가 실려 있다. 시는 從叔父인 河沆, 河洛과 매부인 李惟誠, 동생들과 수창한 것이 많으며, 그 밖에 趙宗道, 崔永慶 등 南冥系 학자들과 주고 받은 시가 들어 있다. 권말에는 <昭敬大王挽章>을 비롯해 挽詩를 모아 놓았다.

권 3 에는 書 12 편과 說 9 편, 論 3 편이 실려 있다. 편지는 李惟誠, 成文瀾 등에게 보낸 것이고 내용도 時事보다는 일상적인 안부가 주내용이다. 說 중 <孝有不及說>은 부친상을 당한 다음 해인 1581 년에 지은 것이고, <劔說贈崔君>은 1579 년에 지어서 崔琦準에게 준 것이다. <讀蘇老泉管仲論>에서는 蘇洵의 管仲論을 읽고 管仲과 蘇洵이 근본을 알지 못했다고 하고 管仲이 평상시에 賢人을 천거하지 않은 것을 책망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讀西臺八詠解義>는 1585 년작으로 叔父 覺齋 河沆이 지은 <西臺八詠>의 주석을 내어 뜻을 밝힌 것이고, <李杜韓柳詩文評>은 李白, 杜甫, 韓愈, 柳宗元의 詩文을 평한 것이다.

권 4 에는 序 21 편, 記 22 편이 실려 있다. 序 중 <永感實錄序>는 李惟誠의 부친의 유고에 대한 서문이며, <雲錦亭雜詠卷後序>는 저자의 고조부인 河應天 때부터 저자의 형제에 이르기까지 雲錦亭을 두고 지은 詩와 記序를 모아 놓은 卷에 대한 서문이다. <晉陽聯稿序>는 晉陽河氏 중 河渾의 5 대 조상의 유고를 합간한 것에 대한 서이고, <陶溪遺稿序>는 먼저 죽은 동생 河天一의 遺稿를 정리하면서 쓴 글이다. <松亭歲課序>는 1580 년 이후에 지은 著者 자신의 글을 모아 기록한 「松亭歲課」의 自序이다. <大覺書院奉安序>는 1610 년 大覺書院이 낙성된 다음 覺齋 河沆의 位版을 봉안한 일에 대해서 기록한 글이며, <送朴修撰景賢爲冬至使書狀官序>는 同年 朴景賢이 1605 년 겨울에 冬至使 서장관으로서 燕京에 갈 때 써 준 것이다. <洞約序>는 고향인 晉州 水谷里에서 洞約을 정하고 나서 지은 것으로 水谷里의 풍속을 알려 주는 글이다. <德山書院洗心亭記>는 南冥의 位版이 봉안되어 있는 晉州의 德山書院 남쪽에 守愚 崔永慶이 지은 洗心亭에 대한 記이고, <矗石樓重修記>는 1583 년에 牧使 申點이 判官 金元龍과 협력하여 晉州의 矗石樓를 重修한 일에 대해 쓴 記이다.

권 5 에는 記 7 편, 跋 1 편, 箋 2 편, 頌 4 편, 上樑文 1 편, 祈雨文 3 편, 祭文 20 편, 通文 1 편, 銘 4 편, 墓誌 7 편과 附錄이 실려 있다. 墓誌는 李惟誠과 妻 尹氏의 墓誌銘과 李守一의 遺愛碑銘 등이다. 通文은 <河氏族會通文>이다. 초간본에는 <大覺祠宇營建通文>과 <李汝實祠宇上樑文>이 더 있으며 제문의 제목도 중간본에서는 격식에 맞게 일부 수정하였다.

附錄에는 李光靖과 河弘도가 지은 行狀 2 편이 실려 있는데 謙齋가 지은 것은 뒷부분이 빠진 채 실려 있다. 이 밖에 金堧이 1812 년 지은 墓碣銘, 河弘도가 지은 遺事, 李萬敷가 쓴 奉安文이 실려 있으며 끝으로 발문 대신 1598 년 李汝積이 쓴 <書松亭歲課後>가 있다.

續集의 권수에는 目錄이 있고, 권 1 은 詩, 권 2 는 文, 권 3 은 年譜이다.

권 1 에는 詩 66 題가 詩體 구분없이 실려 있는데 저작 연도순으로 되어 있지도 않아 뚜렷한 수록 기준을 알 수 없다. <奉次申孤山絕句五十首>는 申之梯가 金珽과 酬唱한 絕句의 韻을 따서 1598 년에 지은 詩로 5 수가 빠진 45 수만 실려 있다.

권 2에는 雜著 2 편, 序 6 편, 記 1 편, 跋 1 편, 祭文 3 편, 墓銘 2 편이 실려 있다. 이 중 記는 <遊靑巖西岳記>인데, 1578년 4월에 아우 河天一, 鏡輝와 靑巖寺에서 독서하다가 함께 西岳을 유람하고 쓴 글이다. 이 외에 亡妻와 殤子에 대한 祭文, 그리고 曹慶潤의 제문, 李禮勳의 碣銘이 있다.

권 3에는 附錄으로 1837년 11세손 河謙鎭이 편찬한 年譜와 年譜識가 실려 있다. 끝에는 13세손 河宗根의 跋이 있으며 昭和 14년(1939)으로 기록된 印權紙가 붙어 있다.

## 하수일(河受一)

### 정의

조선시대 형조좌랑, 형조정랑, 현감 등을 역임한 문신.

### 개설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태이(太易), 호는 송정(松亭). 고려 문신 하공진(河拱辰)의 후손이며, 황간현감 하형(河滢)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생원 하희서(河希瑞)이고, 아버지는 하면(河沔)이며, 어머니는 조정견(趙庭堅)의 딸이다.

### 생애 및 활동사항

1589년(선조 22) 사마시에 합격하여, 생원이 되고, 1591년(선조 24)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607년 형조좌랑·형조정랑을 거쳐 현감까지 지냈다. 문장(文章)과 사장(詞章)이 당대에 널리 알려졌으며, 좋은 평가를 받았다.

문집으로 『송정문집』이 그의 6세손 달중(達中) 등의 주선으로 1785년(정조 9)에 판각, 간행되었다. 진주의 대각사우(大覺祠宇)에 제향되었다.



卷之一 / 詩

몽증신순부 奉贈申順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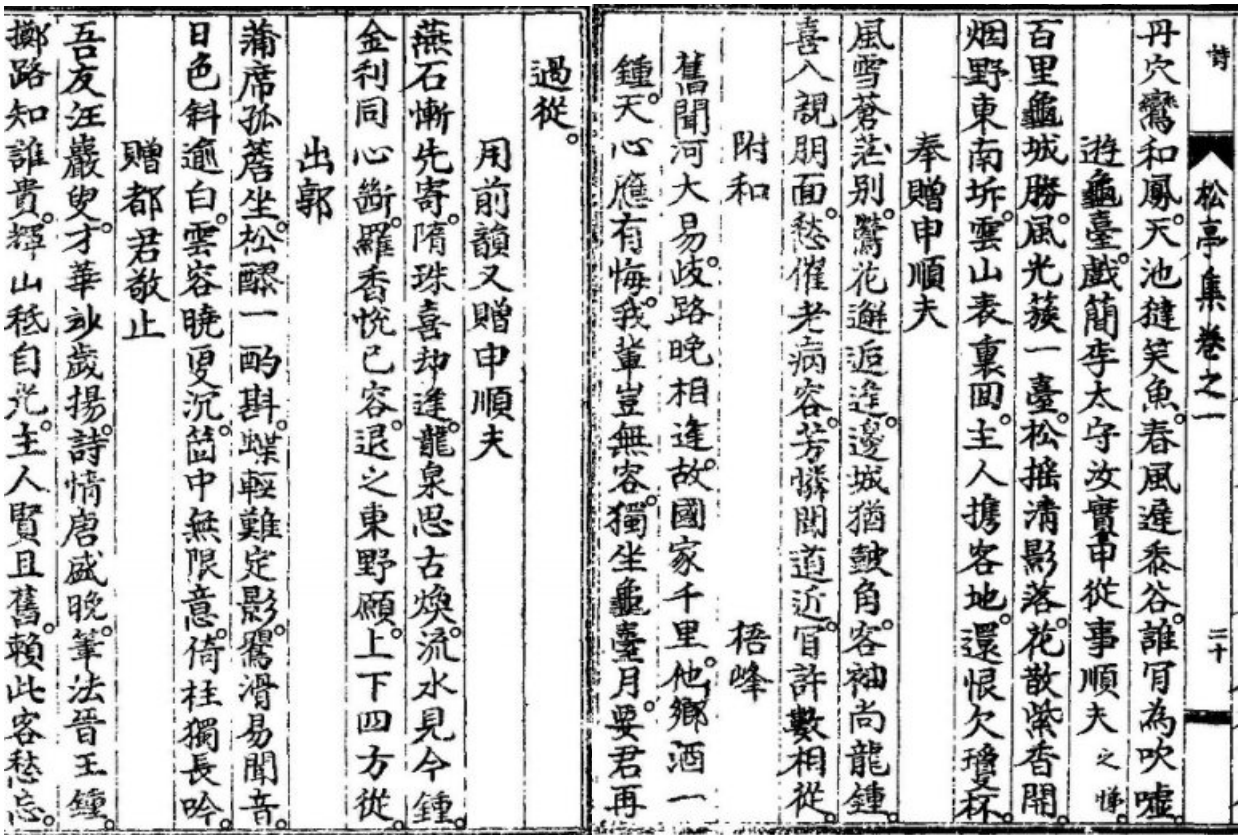
14世 지제(之悌) 父 : 몽득(夢得) 祖父 : 응규 (應奎)

귀파(龜派)오봉공파(梧峰公派)

風雪蒼茫別。驚花邂逅逢。邊城猶敲角。客袖尚龍鍾。喜人親朋面。愁催老病容。芳憐聞道近。肯許數相從。

附和 梧峯

舊聞河大易。岐路晚相逢。故國家千里。他鄉酒一鍾。天心應有悔。我輩豈無容。獨坐龜臺月。要君再過從。



용전운우증신순부 用前韻又贈申順夫

14世 지제(之梯) 父 : 몽득(夢得) 祖父 : 응규(應奎)

귀파(龜派)오봉공파(梧峰公派)

燕石慚先寄。隋珠喜却逢。龍泉思古煥。流水見今鍾。金利同心斷。羅香悅已容。退之東野願。上下四方從。

過從。	用前韻又贈申順夫	燕石慚先寄。隋珠喜却逢。龍泉思古煥。流水見今鍾。金利同心斷。羅香悅已容。退之東野願。上下四方從。	出郭	蒲席孤簷坐。松醪一酌斟。蝶輕難定影。鶻滑易聞音。日色斜逾白。雲容曉更沉。齒中無限意。倚柱獨長吟。	贈都君敬止	吾友汪巖叟。才華妙歲揚。詩情唐盛晚。筆法晉王鍾。擲路知誰貴。輝山祗自光。主人賢且舊。賴此客愁忘。	詩	松亭集卷之一	十一	贈宋佐郎贊哉二首	箕斗聞名久。金蘭托契逢。世情雙鬢見。吾道一簪知。風詠龜臺晚。盃盤坎谷時。新交還失舊。從此百年隨。君上龍門早。我登雲路遲。面從今日識。心許十年知。兵革悲生事。詩書愧亂時。憑將報國意。白首下風隨。	附和	松澗	早歲佩蘭麝。名場得路遲。松筠真舊伴。水月是新知。尺劍空鳴匣。長鏡未濟時。風塵為客久。江海白鷗隨。
-----	----------	--------------------------------------------------	----	--------------------------------------------------	-------	--------------------------------------------------	---	--------	----	----------	--------------------------------------------------------------------------------------------------	----	----	--------------------------------------------------

松亭集 卷一

## 오한선생문집(聳漢先生文集)

## 형태서지

권수제	오한선생문집(聳漢先生文集)
판심제	오한문집(聳漢文集)
간종	목판본(木版本)
간행년	1825 년 간행
권책	목록(目錄), 원집(原集) 4 권, 연보(年譜), 부록(附錄) 합 3 책
행자	10 행 21 자
규격	22.5×16.8(cm)
어미	上下二葉花紋魚尾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도서번호	古 3648-文 38-22
총간집수	한국문집총간 속 11

## 저자

성명	손기양(孫起陽)
생년	1559 년(명종 14)
몰년	1617 년(광해군 9)
자	경징(景徵)
호	오한(聳漢)
본관	밀양(密陽)
특기사항	정구(鄭述)의 문인. 정경세(鄭經世), 이준(李俊) 등과 교류

## 행력

왕력		서기	간지	연호		연령	기사
명종	14	1559	기미	嘉靖	38	1	7월 20일, 密陽府 龍城里에서 태어나다.
선조	10	1577	정축	萬曆	5	19	龍城宋氏 宋瑾의 딸과 혼인하다. ○ 禮林書院에 유학하다.
선조	18	1585	을유	萬曆	13	27	봄, 진사시에 합격하다.
선조	21	1588	무자	萬曆	16	30	3월, 文科에 합격하다. ○ 成均館 學諭가 되다.
선조	22	1589	기축	萬曆	17	31	星州 教授가 되다.
선조	23	1590	경인	萬曆	18	32	鄭述의 문인이 되다.
선조	25	1592	임진	萬曆	20	34	4월, 양친을 모시고 虎踞山으로 피란하다. ○ 호거산 아래 石洞村에서 의병을 모집하다. ○ 省峴道 察訪이 되다.
선조	26	1593	계사	萬曆	21	35	양친을 모시고 淸道 西枝驛으로 移居하다.
선조	27	1594	갑오	萬曆	22	36	10월, 都會試의 試官으로 慶州에 가다. ○ 綿峴에 복병을 설치하여 왜적을 사살하다.
선조	28	1595	을미	萬曆	23	37	新寧 縣監이 되다. ○ 慶州 慈仁縣으로 이거하다. ○ 여름, 天將支待官으로 晚悟堂에 머물다. ○ 火旺山城의 郭再祐 진중에서 있었던 전략회의에 참여하다.
선조	29	1596	병신	萬曆	24	38	1월, 체찰사로 성주에 머물던 李元翼과 兵事를 논하다. ○ 3월, 縣民을 이끌고 八公山城에 양곡 창고를 만들다. ○ 가을, 李垞 등과 內延山을 유람하다.
선조	30	1597	정유	萬曆	25	39	9월, 팔공산성에서 <公山誌>를 만들다. ○ 신녕 현감에서 체임되어 양친을 모시고 安東 春陽縣으로 이거하다.
선조	31	1598	무술	萬曆	26	40	義糧을 구하는 일로 山南村(星山)에 가다. ○ 3월, 가족을 이끌고 溫陽으로 피란하다.
선조	32	1599	기해	萬曆	27	41	1월, 辨誣文을 지어 給事中 徐觀瀾에게 올리다. ○ 3월, 춘양으로 돌아가다. ○ 6월, 幕客으로 慶尙右道에 머물다. ○ 義興 岳溪로 이거하다.
선조	33	1600	경자	萬曆	28	42	成均館典籍 兼 中學教授로 조정에 나아가다.
선조	34	1601	신축	萬曆	29	43	慶州教授 兼 提督官이 되다. ○ 芝山 曹好益을 찾아뵈다. ○ 大丘 解顔으로 이거하다.
선조	35	1602	임인	萬曆	30	44	봄, 蔚州 通判이 되다. ○ 栢岸堂을 짓다.
선조	36	1603	계묘	萬曆	31	45	1월, 永川 郡守가 되다. ○ 曹好益, 鄭述를 뵈다. ○



							10 월, 부친상을 당하다.
선조	37	1604	갑진	萬曆	32	46	고향인 密陽 竹院으로 돌아오다.
선조	38	1605	을사	萬曆	33	47	7 월, 부인 宋氏의 상을 당하다.
선조	39	1606	병오	萬曆	34	48	예림서원을 重修하고, <佔畢齋金先生辨誣文>을 짓다. ○ 10 월, 모친상을 당하다.
광해군	1	1609	기유	萬曆	37	51	羽溪李氏 李孝麟의 딸과 혼인하다. ○ 조호익을 곡하다. ○ 서자 손돈이 태어나다.
광해군	2	1610	경술	萬曆	38	52	11 월, 昌原 府使가 되다.
광해군	3	1611	신해	萬曆	39	53	3 월, 舟師를 이끌고 閑山 바다에서 전투 훈련을 하다. ○ 10 월, 合浦에 珠還堂을 짓다.
광해군	4	1612	임자	萬曆	40	54	2 월, 벼슬을 버리고 귀향하다. ○ 겨울, 薩川으로 이거하다.
광해군	5	1613	계축	萬曆	41	55	봄, 죽원에 돌아가다. ○ 사헌부 장령이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광해군	6	1614	갑인	萬曆	42	56	12 월, 예림서원에서 「역경」을 강하다.
광해군	8	1616	병진	萬曆	44	58	봄, 정구를 찾아뵈다. ○ 9 월, 아들 손현이 태어나다. ○ 尙州 牧使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광해군	9	1617	정사	萬曆	45	59	身後事를 문인 蔣文益에게 부탁하다. ○ 1 월 11 일, 졸하다. ○ 3 월, 密陽 龍城 菊花山에 장사 지내다.
순조	25	1825	을유	道光	5	—	7 대손 孫鐘夏 등이 목판으로 문집을 초간하다.

## 편찬및간행

저자가 졸한 뒤, 저자의 유고로는 「排悶錄」 2 권, 「輟釣錄」 4 권이 家藏되어 있었다. 그 후 「철조록」은 화재로 1~3 권이 燒失되어 권 4 만이 남았다.

증손 孫碩寬(1670~1743)이 남은 유고를 掇拾하여 謄寫하였으나, 成帙하는 데 이르지 못하는 못하였다. 5 대손 孫孫翼(1711~1794)이 이 등사본에 李瀼에게 받은 행장을 첨부하여 유고를 간행하려고 1792 년에 入梓를 시작하였으나, 그해에 전염병과 기근이 겹쳐 결국 간행하지 못하였다. 6 대손 孫有魯·孫秉魯 등이 저자의 手草日記 및 채록되지 못했던 書簡, 邑誌에 실렸던 事蹟 등을 더 수집하여 4 권으로 재편하였다. 이것의 校勘을 大山 李象靖에게 부탁하였으나 이상정이 마치지 못하고 졸하자, 1782 년에 그 아우 李光靖(1714~1789)에게 다시 부탁하여 刪定을 받았다.

손사익의 손자이자 저자의 7 대손인 孫鐘夏가 1819 년부터 다시 族叔 孫拭魯, 宗弟 孫鐘玉 등과 함께 財源을 마련하고 七灘亭의 財穀을 보태어, 1825 년에 原集 4 권, 附錄 1 권을 木板으로 간행하였다. 이때 원집은 이전에 교감해 두었던 유고를 바탕으로 하되, 刪正이 미진한 부분은 李祥發의 釐正을 거쳤다.《초간본》이 본은 현재 국립중앙도서관(古 3648-文 38-22), 장서각(D3B-1412),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성균관대학교 존경각(D3B-740),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이 밖에 초간본 권 1 의 <李謹齋遷葬輓> 1 수가 2 수로 늘고, 권 1 에 실려 있던 <登山吟>이 권 2 말미로 자리가 바뀌고 <輓黃僉知>가 첨부되고, 초간본에 있던 <文集後識>가 제외되었으며, 부록에 丁若鏞의 <墓

誌銘〉과 柳致明의 〈七灘書院奉安文〉, 睦萬中の 〈七灘亭上樑文〉, 李彙寧의 〈七灘書院清節祠上樑文〉 등을 첨부하여 改刻한 영인본이 현재 전해지고 있다. 1986년에 후손 孫八洲가 초간본과 개각본을 합하여 국역하고 원문을 붙인 「聳漢先生文集」을 간행하였다.

본서의 저본은 7대손 孫鐘夏 등이 1825년에 목판으로 간행한 초간본으로 국립중앙도서관장본이다.

序(李光靖·蔡濟恭 撰), 文集後識(孫思翼 撰), 跋(柳尋春 撰) 등에 의함

## 구성과내용

본집은 目錄, 原集 4권, 年譜, 附錄 합 3책으로 되어 있다. 권두에 1782년에 李光靖, 蔡濟恭이 지은 서문과 목록이 있다.

권 1에는 시 2제, 「排悶錄」에 실린 시 177제 합 179제의 시가 실려 있다. 「배민록」에 실린 시는 1592년에 지은 〈壬辰九日〉부터 관직에 있을 때 지은 것을 모아 놓은 것으로 年代順으로 실려 있다. 申之儔·李垞·呂大老 등의 시에 차운하여 지은 것들과 宋依仁·鄭經世·朴瑞龜·睦長欽 등에게 지어 준 贈詩 등이 있다. 그중 〈散悶〉은 추석에 팔공산성에 있으면서 詩人으로서 仕宦하는 괴로움과 江西에 있는 신지재의 안전을 염려하는 마음을 담고 있고, 〈次李五峯金藏臺韻〉은 1598년에 李好閔이 울산 등지에 왜적이 물러갔다고 기뻐하며 지은 시에 차운한 것이다.

권 2는 「輟釣錄」으로 128제의 시가 실려 있다. 輟釣는 '輟官釣魚' 즉 '벼슬을 그만두고 고기를 낚는다.'는 뜻으로, 창원 부사에서 물러나 밀양으로 귀향했을 때인 1612년 이후에 지은 시를 모아 놓은 것이다. 〈茶村十絶〉은 저자가 거처하던 밀양 茶村의 풍광을 10수로 읊은 것이고, 〈七里灘卽景賦雜言〉은 다촌 앞을 흐르던 七里灘을 소재로 지은 오언장편시이다.

권 3에는 疏 1편, 書 13편, 序 2편, 記 3편, 碑銘 3편, 祭文 2편, 箋 3편, 上樑文 2편, 傳 1편이 실려 있다. 〈伸辨晦齋先生請從祀疏〉는 士林을 대신하여 지은 것으로, 李彥迪을 文廟에 從祀할 것을 청하는 상소이다. 편지는 鄭述(2), 曹好益(2), 孫處訥(2) 등에게 준 것이다. 〈缶溪洞憲序〉는 병란 때 양친을 모시고 피란했던 곳인 팔공산 기슭 부계동의 백성들이 洞規를 만들어 줄 것을 청하자, 藍田鄉約을 본떠 洞憲을 만들어 주고 그 서문을 지은 것이다. 〈枳岸堂記〉는 울주 통판으로 있을 때 '언덕의 모난 곳을 깎아 평탄하게 하다'라는 뜻의 '얼안'으로 堂의 이름을 짓고, 통판이 절도사와 아전, 백성 사이에서 '얼안'하는 역할을 해야 함을 밝힌 記이다. 〈黃忠義傳〉은 名相 黃喜의 후손으로 부귀한 출신의 黃日新이 학업을 포기하고 사냥과 주색으로 빈궁해진 사연을 적음으로써 학업에 힘쓸 것을 권장한 글이다.

권 4는 雜著, 年譜, 附錄이다. 잡저에는 誌, 說, 辨 등 14편의 글이 있는데, 그중 〈公山誌〉는 1595년 겨울에 惟政이 왜적의 재침에 대비하여 公山城을 개축한 일, 1596년에 新寧 縣監으로서 縣民을 이끌고 산성 동문 안에 식량 창고를 건립한 일, 1597년에 각 지방관들이 산성에 모여 왜적과 전투한 일, 그 과정에서 순찰사가 보여 준 비겁한 행동 등을 상세히 기록한 것이다. 〈估畢齋金先生辨誣文〉은 김종직을 名賢으로 받들어 서원에서 존송하는 것을 비난하는 일부의 견해에 대해, 그 의견이 잘못된 것임을 변론한 글이다. 〈排悶鎖錄〉은 李恒福, 林梯, 高應陟 등에 얽힌 詩話를 모은 것이다. 〈日錄〉은 본래 亂中日錄인데 중간에 산일되고 남은 것만을 실은 것으로, 1598년 1월 1일부터 1599년 3월 27일까지의 기록이다. 부록에는 李灑이 지은 行狀, 蔡濟恭이 지은 墓碣銘, 申之儔·安玗·李儼 등이 지은 祭文, 李垞·孫處訥·蔣文益 등이 지은 輓詞, 鄭克後의 〈松壇記〉와 「密州誌」·「先賢錄」 등에 실린 저자 관련 기록, 이익이 지은 〈七灘亭題詠〉 등이 있다. 부록의 말미에 5대손 孫思翼과 7대손 孫鐘夏가 지은 文集後識가 있다.

마지막에 1825년에 柳尋春이 지은 발문이 있다.

## 손기양(孫起陽)

### 정의

조선시대 성균관전적, 울주판관, 영천군수 등을 역임한 문신.

### 개설

본관은 밀양(密陽). 자는 경징(景徵), 호는 오한(聳漢)·송간(松澗). 할아버지는 군자감정(軍資監正) 손응(孫凝)이고, 아버지는 생원 손겸제(孫兼濟)이다. 어머니는 신취(辛鷲)의 딸이다.

### 생애 및 활동사항

약관의 나이로 백가(百家)의 책을 탐독, 학식이 매우 깊었다. 1585 년(선조 18)에 사마시에 합격한 뒤 1588 년 식년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고, 1592 년 성헌찰방(省峴察訪)이 되어 왜란을 당하자 중대를 모아 역마(驛馬)를 적절히 배치하면서 전쟁 수행에 만전을 기하였다.

이어 1597 년 왜가 재침하자 관찰사가 왕의 호종을 위해 떠나버려 얼마 동안 외로이 텅 빈 산성을 지켰는데, 이 때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기기도 하였다. 1600 년 성균관전적으로 중학교수(中學教授)를 겸했고, 이듬해 경주제독이 되어 무너져 가는 옛 문물을 복구하는 데 힘썼다.

이 때 「성묘중건상량문(聖廟重建上樑文)」을 찬했는데, 이 내용이 『동경지(東京誌)』에 실려 있다. 이어 1602 년에 울주판관을 지냈으며, 이 해 『얼안당기(얼안당記)』를 찬하기도 하였다. 이 해 체찰사 이덕형(李德馨)의 천거로 영천군수가 되었고, 1610 년 창원부사를 지냈다.

1612 년(광해군 4) 정치가 어지러워지자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였다. 그 뒤 다시 사헌부와 사간원의 벼슬을 거쳐, 상주목사에 임명되었으나 사퇴하고 여생을 학문에 전념하였다. 이황(李滉)의 학통을 이은 정구(鄭逵)와 도의(道義)의 계(契)로 깊은 관계를 맺었던 성리학자이다. 정경세(鄭經世)·조호익(曹好益)·이윤(李潤)·이전(李堧)·이준(李峻) 등 영남 명유들과도 교유가 있었다. 만년에는 역학(易學)에 전심하여 침식을 잇을 정도였으며, 평일에 독서할 때는 『논어(論語)』만 읽는 성벽이 있었다.

저서로는 『배민록(排悶錄)』 2 권과 『철조록(輟釣錄)』 1 권 등이 있다.

卷之一 / 詩○排悶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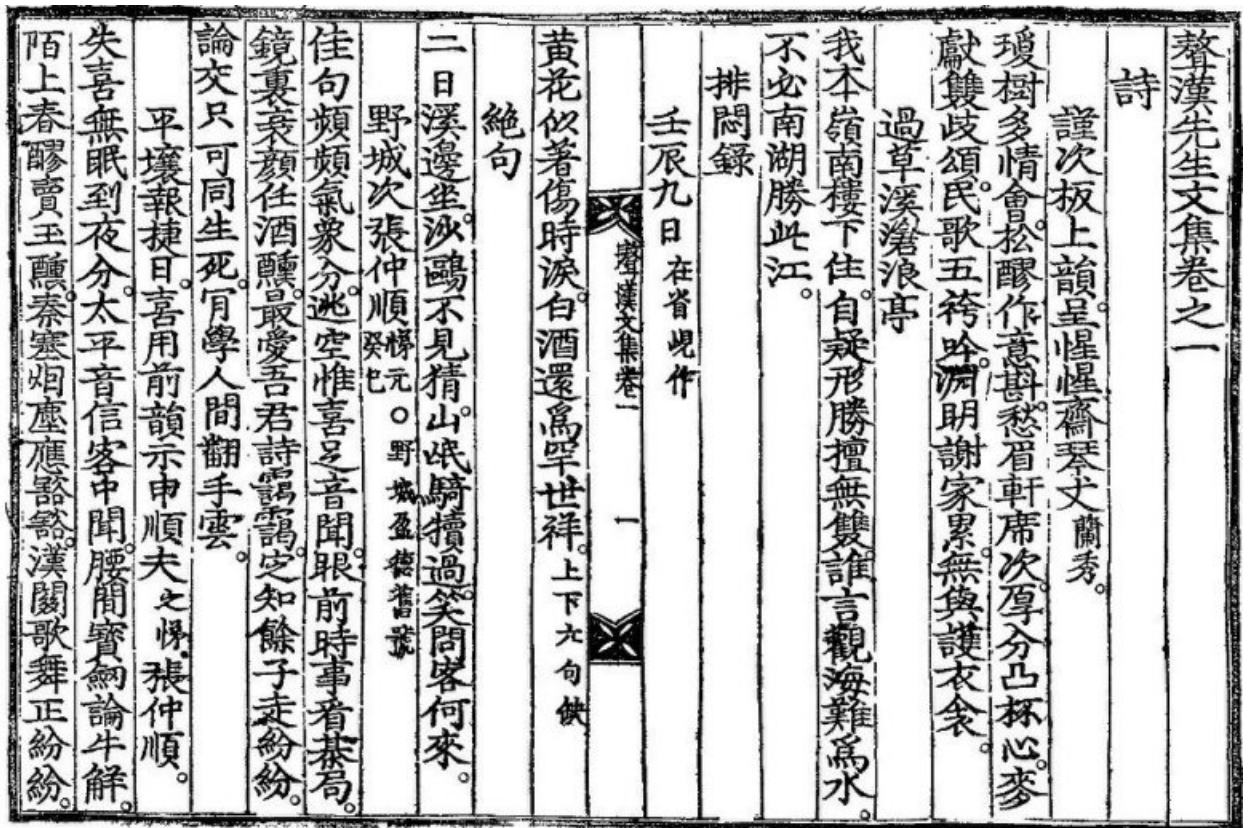
평양보첩일. 희용전운시신순부 지제, 장중순 平壤報捷日. 喜用前韻示申順夫 之悌, 張仲順

14世 지제(之悌) 父 : 몽득(夢得) 祖父 : 응규 (應奎) 귀파(龜派)오봉공파(梧峰公派)

失喜無眠到夜分。太平音信客中間。腰間寶劍論牛解。陌上春醪賣玉醺。秦塞烟塵應豁豁。漢關歌舞正紛紛。故山泉石依然在。擬把青藜踏白雲。

附次韻 梧峯

百歲三分已七分。人生四十奈無聞。身經百戰行將老。顏借三杯暫欲醺。日出山河晴靄靄。春生楊柳綠紛紛。故園物色應如此。時向南州望白雲。





차신순부 次申順夫

14世 지제(之悌) 父 : 몽득(夢得) 祖父 : 응규 (應奎)

귀파(龜派)오봉공파(梧峰公派)

東風吹起故鄉情。萬里那堪步月明。遙憶竹村烟景足。b011\_175d岸花堤柳弄新晴。

故山泉石依然在。擬把青藜踏白雲。	附次韻	梧峯
百歲三分已七分。人生四十奈無聞。身經百戰行將老。顏借三杯豎欲醺。日出山河晴靄靄。春生楊柳綠紛紛。故園物色應如此。時向南州望白雲。	挽朴迺日 <small>世薦</small>	
蚤歲穿楊葉。中年縮竹符。專城迎五馬。半刺滯雙鳧。二豎妨人傑。三山動海隅。圓丘春寂寞。何處問黃墟。	次申順夫	
東風吹起故鄉情。萬里那堪步月明。遙憶竹村烟景足。岸花堤柳弄新晴。	除日在西枝驛。次簡齋韻。	
夜到西枝驛。晨迎甲午年。浮生今日恨。何處此身遷。孫鄭咸陽鑿。愁看浪泊蒼。兒童不解事。拍手笑燈前。	永陽客館賦雲間月 <small>甲午</small>	
月豈與雲約。雲應妬月華。狗衣橫復斷。鱗影缺還斜。寶鑑初疑躍。霜鏤忽似磨。俄然風捲去。玉宇滿金波。	贈宋生 <small>依仁。宋東萊人。今年自賊中逃來。</small>	
三載身經百戰來。漢關何處夢氛開。驚鴻失侶隨風散。困鳥思林帶日回。詩句多君清靄靄。鬢髮猶我白皚皚。		

증신순부 贈申順夫

14世 지제(之悌) 父 : 몽득(夢得) 祖父 : 응규 (應奎)

귀파(龜派)오봉공파(梧峰公派)

文場把酒昔相從。亂後那知一笑同。僻縣溪山君作主。異鄉頭髮我成翁。干戈擾擾家書阻。歲月悠悠客路窮。舊好新詩并此夜。也應樽酒政無功。

聳漢集 卷一

搔頭爲問蓬山客。往者繁華安在哉。

中秋夜無月。用前韻。

爲待中秋皓月來。一年今夜一樽開。明皇橋上人難步。天柱峯前首更回。對酒只愁青嶺暗。入簾誰慰白頭皤。雲陰作祟渾如此。何日蘭臺賦快哉。

贈申順夫

文場把酒昔相從。亂後那知一笑同。僻縣溪山君作主。異鄉頭髮我成翁。干戈擾擾家書阻。歲月悠悠客路窮。舊好新詩并此夜。也應樽酒政無功。

次順夫韻述懷

聳漢集卷一

三

客從花謝到花開。役役風埃去又來。春入故園人未返。

夢魂頻繞手栽梅。主辰春手植早梅于讀書窓前。兵燹之後猶不枯死。應想荒草遺墟。亭亭獨立。若待主人之歸。而有不

可得見者。于今三載故云。

乙未春李都事叔平。携張上舍。憐元鄭生之僑。

到縣阻雨留三日。仍題短律。以爲同話錄。

行李皇華貴。交情縣宰深。八公山下過三日。雨中吟好。把張生酒聊同。鄭老襟吹。葦千載會。斗覺古猶今。

次叔平馬上吟

十日長程九日霾。客行何處客懷開。官情無賴鄉情惱。農事其如玉事催。滿路青泥妨倦馬。排空黑浪沒高臺。



卷之二 / 詩○輟釣錄 輟釣者。輟官釣魚也。

기증신순부 寄贈申順夫

14世 지제(之悌) 父 : 몽득(夢得) 祖父 : 응규 (應奎)

귀파(龜派)오봉공파(梧峰公派)

故人西望三年阻。宦客南來一紙招。堪笑檜山慵太守。老來猶作冷炎交。

聳漢集 卷二

暮年農圃願無違。

叢棘中有穉梅兩樹。開花甚佳。病未能賞。春末始  
尋花花已落盡。寫賦一絕寄恨。

亂棘叢中偶托根。馨香不願主人聞。晚來攀折風吹盡。  
剛恨花時未襲薰。

題五梅亭

階面新添竹數竿。坐來殊勝昔年看。薔薇躑躅休誇艷。  
未見繁華耐歲寒。

擬堯夫觀物吟呈席間

碧水青山無古今。春榮秋悴謾相尋。年年點檢燈湖景。

聳漢先生文集卷二

三十一

岸柳巖花自淺深。

見松枯柳榮感賦

松逢野燒成枯葉。柳被春風長綠陰。世事祇今多感慨。  
衰年何必費長吟。

寄贈申順夫

故人西望三年阻。宦客南來一紙招。堪笑檜山慵太守。  
老來猶作冷炎交。

割破網伸為繩。割訖感賦。

此網當年初結時。寸添銖積費千絲。纏綿猶恐魚逃了。  
洗濯還嫌蠹爛之。數載手中虧輒補。一朝刀下割無遺。

만사[신지제] 輓詞[申之悌]

14世 지제(之悌) 父 : 몽득(夢得) 祖父 : 응규 (應奎)

귀파(龜派)오봉공파(梧峰公派)

升堂曾謁大夫人。後事丁寧語及頻。歸報九原堪一慰。掌中貪見寶珠新。

聳漢集 附錄

惟靈升堂之學金玉之章。早登科第。歷治四鄉。時與  
我違。漁稼川鳴。左右詩禮。教誨有方。多士指南。鄉人  
棟樑。如何一夕。楹夢便壯。琴郊烟斷。書榻風涼。內子  
摧痛。幼兒弄璋。捨而去之。天理何茫。日月流邁。奄及  
期祥。鴉啼墮上。宿草已荒。凡在故舊。尚且悼傷。况於  
門下。眷厚最深。追思儀範。悲感纏心。奠具菲薄。祇薦  
微忱。嗚呼哀哉。庶幾尚歆。

又祭文 壬辰改葬時

門人李儼

惟我先生。斯文山斗。士林宗盟。才優經濟。學造高明。  
位不稱德。天不憖遺。哀孀婦。呱呱胤嗣。當年卜兆。

聳漢文集附錄

九

咸慮絕地。奉遷誠孝。遺孤素志。天不福善。哲人先亡。  
信義新阡。父子同岡。山明水麗。日吉辰良。式相保佑。  
休命無疆。昔余樞衣。承誨義方。德音在耳。沒世可忘。  
後托婚媾。蓋慕德義。有孫有五。食報在此。終期成立。  
幽明至意。靈若有知。豈無陰隲。漬綿來哭。庶展胸臆。

輓詞

申之悌

升堂曾謁大夫人。後事丁寧語及頻。歸報九原堪一  
慰。掌中貪見寶珠新。

又

李塚

朋友深情異姓兄。衰齡何耐隔幽冥。故家餘慶生明



## 유헌선생문집(遊軒先生文集)

## 형태서지

권수제	유헌선생문집(遊軒先生文集)
판심제	유헌선생문집(遊軒先生文集)
간종	목판본(木版本)
간행년	1925년 간행
권책	원집(原集) 11권, 연보(年譜) 3권 합 7책
행자	10행 18자
규격	21.3×17.3(cm)
어미	上下二葉花紋魚尾
소장처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도서번호	만송D1-A236A
총간집수	한국문집총간 속 133

## 저자

성명	장석룡(張錫龍)
생년	1823년(순조 23)
몰년	1908년(순종 2)
자	진백(震伯)
호	유헌(遊軒), 운전(雲田)
본관	인동(仁同)
초명	용규(龍逵)
시호	문헌(文憲)

행력

왕력		서기	간지	연호		연령	기사
순조	23	1823	계미	道光	3	1	10월 17일, 仁同 吳山里에서 태어나다.
순조	29	1829	기축	道光	9	7	친생 조부 張濠에게 수학하다.
순조	34	1834	갑오	道光	14	12	친생 조부상을 당하다.
헌종	2	1836	병신	道光	16	14	從父 張櫛의 양자가 되다.
헌종	4	1838	무술	道光	18	16	金海許氏 許儻의 딸과 혼인하다.
헌종	5	1839	기해	道光	19	17	星州 監試에 응시하다.
헌종	8	1842	임인	道光	22	20	겨울, 嶺營 覆試에 응시하다.
헌종	12	1846	병오	道光	26	24	2월, 庭試에 장원급제하다. ○ 성균관 전적에 제수되다. ○ 여름, 사헌부 감찰, 전적이 되다.
헌종	13	1847	정미	道光	27	25	사헌부 지평, 사간원 정언이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헌종	14	1848	무신	道光	28	26	太廟 酌獻禮에 祝史로 참여하다. ○ 3월, 增廣文科 會試에 七試官으로 참여하다. ○ 7월, 海南 縣監이 되다. ○ 가을, 玉果의 東堂試 副試官으로 참여하다.
헌종	15	1849	기유	道光	29	27	蓮洞의 孤山 尹善道 사당을 참배하다. ○ 검춘추관 기사관이 되다. ○ 高敞 監試의 부서관, 光州 동당시의 부서관으로 참여하다.
철종	1	1850	경술	道光	30	28	3월, 사헌부 장령이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철종	2	1851	신해	咸豐	1	29	黃澗으로 귀양 가다. ○ <黃溪錄>을 짓다.
철종	3	1852	임자	咸豐	2	30	5월, 解配되다.
철종	4	1853	계축	咸豐	3	31	本館錄에 선발되다. ○ 장령이 되었다가 副司直으로 옮기다. ○ 12월, 홍문관 수찬 지제교 겸 경연검토관 춘추관기사관이 되다. ○ 乞養疏를 올린다.
철종	5	1854	갑인	咸豐	4	32	2월, 문신 겸 선전관이 되다. ○ 교리가 되다.
철종	6	1855	을묘	咸豐	5	33	3월, 생모상을 당하다.
철종	8	1857	정사	咸豐	7	35	윤 5월, 교리가 되다. ○ 常溪君 李湛의 치제문을 지어 올린다. ○ 8월, 純元王后가 승하하자 進香文을 지어 올린다.
철종	9	1858	무오	咸豐	8	36	여름, 집의, 부교리가 되다. ○ 9월, 玄風 縣監이 되다. ○ 接慰官으로 釜山에 가서 永嘉臺를 유람하다.
철종	10	1859	기미	咸豐	9	37	道東書院을 참배하고 瑜珈寺를 유람하다. ○ 7월, 金奎漢, 金奎應과 도동서원 근처 강에서 뱃놀이하다.
철종	11	1860	경신	咸豐	10	38	윤 3월, 집의가 되다. ○ 겨울, 사간이 되다.
철종	12	1861	신유	咸豐	11	39	3월, 수찬이 되다. ○ 여름, 부응교가 되다. ○ 겨울, 軍

							資監 正이 되다.
철종	13	1862	임술	同治	1	40	3 월, 병조 정랑이 되었다가 左通禮로 옮기다. ○ 동부 승지가 되다. ○ 4 월, 부호군이 되다. ○ 呈辭하여 歸覲하다.
철종	14	1863	계해	同治	2	41	동부승지가 되다.
고종	1	1864	갑자	同治	3	42	1 월, 開言路, 擇民牧, 正衣章, 重名器의 내용으로 萬言疏를 올리다. ○ 4 월, 대사간이 되다.
고종	2	1865	을축	同治	4	43	1 월, 병조 참의가 되었다가 예조 참의, 공조 참의로 옮기다. ○ 대사간이 되었다가 동부승지로 옮기다.
고종	3	1866	병인	同治	5	44	4 월, 좌부승지에 제수되었다가 좌승지가 되다. ○ 10 월, 敦寧府 都正이 되다. ○ 本生弟 張錫龜의 아들 張承遠을 후사로 삼다.
고종	4	1867	정묘	同治	6	45	대사간, 예조 참의가 되다.
고종	5	1868	무진	同治	7	46	좌승지가 되었다가 형조 참의로 옮기다. ○ 겨울, 慶州府尹이 되다.
고종	8	1871	신미	同治	10	49	2 월, 생부가 嘉善의 품계를 받고 3 대가 추증되다. ○ 3 월, 생부상을 당하다.
고종	10	1873	계유	同治	12	51	이조 참의가 되다.
고종	11	1874	갑술	同治	13	52	겨울, 旅軒 張顯光의 請麻疏를 짓다. ○ 대사간, 좌승지, 공조 참의가 되다.
고종	12	1875	을해	光緒	1	53	5 월, 蔚山 府使가 되다.
고종	13	1876	병자	光緒	2	54	울산에 온 修信使 金綺秀와 시를 주고받다.
고종	14	1877	정축	光緒	3	55	5 월, 좌승지가 되다.
고종	15	1878	무인	光緒	4	56	嘉善大夫에 오르고 병조 참판이 되다. ○ 白湖 尹鑄의 舊莊을 방문하여 感懷詩를 짓다. ○ 12 월, 漢城府 右尹이 되다.
고종	16	1879	기묘	光緒	5	57	5 월, 동지경연사, 동지춘추관사, 동지의금부사, 동지성군관사가 되다. ○ 여름, 屏山을 유람하여 西厓 柳成龍의 玉淵亭 시에 차운하다.
고종	17	1880	경진	光緒	6	58	형조참판 겸 동지돈녕부사 동지춘추관사가 되다. ○ 한성부 좌윤, 대사간, 우부승지가 되다. ○ 5 월, 홍문관 경연특진관으로 抄啓되다. ○ 報恩寺를 유람하여 估畢齋 金宗直의 板上詩를 차운하다.
고종	18	1881	신사	光緒	7	59	우윤이 되다.
고종	19	1882	임오	光緒	8	60	3 월, 백형의 상을 당하다. ○ 4 월, 한성부좌윤 겸 동지경연사 동지성군관사가 되다. ○ 6 월, 軍變을 듣고 謁로 달려가 오위도총부 부총관이 되다. ○ 8 월, 坤殿이

							還御할 때 龍仁으로 배종하러 가고 이어 좌승지가 되다.
고종	20	1883	계미	光緒	9	61	봄, 형조참판 겸 동지의금부사가 되다. ○ 가을, 우승지가 되다. ○ 겨울, 대사간이 되다.
고종	21	1884	갑신	光緒	10	62	좌승지가 되다. ○ 9 월, 이조 참판이 되다.
고종	22	1885	을유	光緒	11	63	1 월, 嘉義大夫에 오르다. ○ 4 월, 우윤이 되었다가 바로 대사헌이 되다.
고종	23	1886	병술	光緒	12	64	여름, 좌윤이 되다.
고종	24	1887	정해	光緒	13	65	고향으로 돌아가다.
고종	25	1888	무자	光緒	14	66	2 월, 대사헌이 되었다가 우승지로 옮기다. ○ 겨울, 동지돈녕부사가 되었다가 좌승지로 옮기다.
고종	26	1889	기축	光緒	15	67	屏山書院을 방문하다.
고종	27	1890	경인	光緒	16	68	1 월, 資憲大夫에 오르고 형조 판서가 되다. ○ 龍驤衛大護軍 兼 知義禁府事가 되다. ○ 呈辭하고 고향에 내려가 焚黃하다. ○ 대사헌이 되고, 의정부 당상에 특차되다.
고종	28	1891	신묘	光緒	17	69	가을, 대사헌이 되다. ○ 9 월, 부인상을 당하다.
고종	29	1892	임진	光緒	18	70	正憲大夫에 오르고 공조 판서가 되다. ○ 1 월, 耆老社에 들다. ○ 2 월, 대사헌, 한성부 판윤이 되다.
고종	30	1893	계사	光緒	19	71	3 월, 지중추부사, 지의금부사, 지춘추관사가 되다. ○ 11 월, 대사헌이 되다. ○ 고향으로 돌아가 金烏書院을 방문하다.
고종	31	1894	갑오	光緒	20	72	5 월, 대사헌이 되다.
고종	33	1896	병신	建陽	1	74	3 월, 嶺南 曉諭使가 되다. ○ 陶山書院을 방문하다. ○ 金溪로 西山 金興洛이 찾아오다. ○ 靑巖亭에 올라 退溪 李滉의 판상시를 차운하다.
고종	35	1898	무술	光武	2	76	봄, 周王山을 유람하다.
고종	36	1899	기해	光武	3	77	12 월, 莊烈王后 玉冊文 書寫官에 특차되다. ○ 「崇善殿誌」를 짓다.
고종	37	1900	경자	光武	4	78	觀星里에서 본생부의 緬禮를 행하다.
고종	38	1901	신축	光武	5	79	동생 張錫龜를 곡하다.
고종	39	1902	임인	光武	6	80	2 월, 宮內府 特進官이 되었으나 상소하고 나아가지 않다. ○ 3 월, 崇政大夫에 오르다.
고종	40	1903	계묘	光武	7	81	4 월, 弘文館 學士가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고종	41	1904	갑진	光武	8	82	인동의 校洞으로 거처를 옮기다.
고종	42	1905	을사	光武	9	83	「仁同邑誌增補」를 짓다. ○ 손자 張吉相이 桂坊에 선발되자 警戒하는 시를 짓다.



고종	43	1906	병오	光武	10	84	2 월, 回科榜이 되다.
고종	44	1907	정미	隆熙	1	85	崇祿大夫에 오르다.
순종	1	1908	무신	隆熙	2	86	1 월, 규장각 제학이 되다. ○ 10 월 21 일, 졸하다.
순종	2	1909	기유	隆熙	3	-	仁同 威鳳山에 장사 지내다.
순종	3	1910	경술	隆熙	4	-	‘文憲’으로 시호를 받다.
-	-	1925	을축	-	-	-	손자 張吉相이 목판으로 문집을 간행하다.

## 편찬및간행

저자는 旅軒 張顯光의 후손으로 조선 말기의 문신이자 영남 지방의 유학자이다. 저자의 유문은 嗣子 張承遠(1853~1917)이 蒐集 編次하였으나 간행하지 못하고 졸하였고, 이후 손자 張吉相이 수 차례의 勘校를 거쳐 1925년 목판으로 간행하였다. 《초간본》이 본은 현재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만송 D1-A236A), 국립중앙도서관(우촌古 3648-文 66-9), 장서각(D3B-410), 규장각(古 819.5-J257y),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811.98/장석룡/유), 성균관대학교 존경각(D3B-836) 등에 소장되어 있다.

본서의 저본은 저자의 손자 張吉相이 1925년에 목판으로 간행한 초간본으로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장본이다. 본 영인저본 중 卷 2의 제 5 판과 제 6 판은 錯簡되어 있어 바로잡았고, 年譜 卷 2의 제 15 판은 卷次가 漏落되어 있다.

跋(張吉相 撰), 年譜 등에 의함

## 구성과내용

본집은 原集 11 권, 年譜 3 권 합 7 책으로 되어 있다. 권수에 總目이 있다.

원집 권 1~3은 詩(421題)이다. 대체로 연도순으로 편차되어 있으며 명승을 유람하고 감상을 읊은 것, 차운시, 만시 등이 많다. 권 1은 黃澗에 귀양 갔을 때의 술회를 읊은 것, 曹讚奎의 梧竹亭詩를 차운한 것, 孫永老, 족형 張錫駿, 金鎭衡, 柳致好 등이 내방한 기쁨을 읊은 것, 中宮殿·王大妃殿·大殿에 올린 春帖子, 燕京에 가는 金昌熙, 李建昌, 洪遠植, 姜蘭馨을 전송할 때 읊은 것 등이다. 만시는 족형 張錫奎, 族姪 張仁遠, 족형 張錫駿, 尹宜善 등 11인에 대한 것이다. 권 2는 강화 판관으로 가는 柳進徽를 전송한 것, 燕行使로 가는 沈舜澤, 金益容을 전송한 것, 東萊 府使로 부임하는 沈東臣을 전송한 것 등이다. 만시는 許祚, 韓啓源, 李炳教, 權寧夏, 許傳 등 26인에 대한 것이다. 권 3은 차운시와 만시가 많다. 차운시는 尹宇善의 〈送春亭〉, 李邁久의 〈持被〉, 金聲根의 〈麥浪〉, 趙秉式的 〈生朝〉, 金晚植의 〈買鶴〉, 沈宜奎의 〈新秋〉, 金宇顯의 〈考槃精舍落成〉, 鄭冕錫의 〈飾慶〉, 鄭元容의 〈花樹亭〉, 朴周大의 〈黃花〉, 朴允集의 〈舞雩臺〉 등의 시에 차운한 것이다. 만시는 교리 朴周雲, 族孫 張奎相, 판서 沈履澤, 金秀穆, 족제 張錫祚, 판서 李世宰, 족숙 張時杓와 張福樞, 金興洛, 족제 張錫裕, 사위 李喆淵 등 26인에 대한 것이다.

권 4는 疏(23)이다. 소는 1853년부터 1908년 사이에 올린 것으로 〈乞郡便養疏〉는 연로하신 부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지방관에 나갈 것을 청한 것이고, 〈進言疏〉는 開言路, 擇民牧, 節財用, 重名器를 주요 내용으로 1864년에 올린 것이다. 〈請景慕典禮疏〉는 莊獻世子를 祔廟하고 尊號를 追上할 것을 청하는 상소이다. 이 외에 이조 참의, 형조 판서, 승록대부, 규장각 제학 등의 사직을 청하는 상소 9편이 있다.

권 5는 筭(2), 敎書(2), 表(5), 箋(8), 進香文(1), 告由文(8)이다. 차자는 흥문관 부수찬과 부교리로 있을 때 올린 것으로 法講과 召對에 힘써 禹임금이 寸陰을 아낀 것, 湯임금의 日新한 덕, 成왕의 無逸을 본받기를 바라는 내용이다. 교서는 總戎使 李熙綱에게 내린 것과 판서 徐俊輔에게 几杖을 하사하는 내용의 것이 있다. 표는 冬至使行에 물품을 하사해 준 것과 연회에 참석한 것, 漂民 韓致得·金明福·高致萬을 보내 준 것을 謝恩하는 내용이다. 전은 1874년 世子宮 誕降時에 大殿에 올린 것, 1882년에 세자궁이 加禮를 행할 때 東宮에 올린 것, 文祖翼皇帝와 神貞皇后 尊號를 追上하고 明憲太后와 皇帝陛下 존호를 加上하고 明成皇后에게 존호를 추상할 때 황제폐하와 명헌태후 등에게 올린 것이다. 진향문은 1857년 純元王后가 승하하자 지어 올린 것이다. 고유문은 宗廟, 社稷, 永寧殿, 景慕宮 등에 올린 것이다. 經筵講義는 1857년 윤 5월 12, 13, 16, 17일과 1858년 8월 16~19일, 21~24일, 9월 3, 27, 29일 晝講에서 「詩經」, 「綱目」, 「通鑑」, 「小學」 등을 講釋한 내용을 모아 놓은 것이다.

권 6은 書(61), 致祭文(2), 祭文(16), 祝文(8)이다. 즉속 張時潤에게 답한 편지에서는 聽天堂을 중건한 것은 가문의 성대한 일이라 하였고, 鄭冕錫에게 답한 편지에서는 「虛庵遺集」을 보내 준 것에 사례하였다. 李璟均에게 답한 편지에서는 아우를 잃은 슬픔을 표현하였다. 손자 張吉相과 張稷相에게 준 편지에서 장길상에게는 「詩經」·「書經」을, 장직상에게는 「論語」·「孟子」를 열심히 읽으라고 하였다. 치제문은 1854년 知製敎 재임 중에 지은 文元公 李彥迪의 廟에 치제할 때, 1857년에 常溪君 李湛을 改葬할 때 지은 것이다. 제문은 李能亨, 李以鉉, 柳教睦, 李能華, 사위 柳道鼎과 李昇久, 族叔 張福樞, 아우 張錫龜에 대한 것이다. 축문은 小山 李光靖의 不祧祝文, 濯清軒 郭漣과 晚築齋 郭漣를 봉안하는 축문, 社稷壇·白龍淵·文殊山·黃龍淵의 祈雨文이다.

권 7은 上樑文(6), 序(30)이다. 상량문은 張顯光이 창건한 不知巖精舍를 중건할 때, 장현광의 아들 張應一의 聽天堂을 중건할 때의 것 등이다. 서는 許栻과 郭漢一이 邪說이 날로 성해지는 것을 탄식하며 尊聖興學의 요체와 동방 현인들의 格言과 懿行을 엮은 「大東正路」에 대한 것과 崔性奎가 잘못을 고치려는 뜻을 가지고 지은 <知非箴>에 대한 것이 있고, 임진왜란 때의 의병장 崔文炳의 遺事와 詩文을 엮은 「省齋實記」, 李夔의 「龍山齋文集」 등의 서문이 있다.

권 8은 序(6), 記(28)이다. 서는 「星州都氏族譜」, 「靈山辛氏族譜」 重刊本과 星州李氏, 晉陽鄭氏, 南平文氏, 永川李氏 派譜에 대한 것이다. 기는 張潛을 모신 賢巖書院이 철거된 자리에 세운 竹林精舍, 선조 月浦 張顯道の 洋洋齋, 鄭時燁이 선조를 추모하며 세운 慕先齋, 范仲淹의 義莊과 陳德固의 義田을 모방하여 남양흥씨 洪洛範, 洪九範, 洪有範, 洪宇範, 洪文範, 洪履範 6 형제가 세운 六友齋, 정원에 있는 孤竹을 보고 대나무는 四時에 不變하고 君子는 貞操가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호를 지은 裴經國의 竹窩에 대한 것 등이다.

권 9는 跋(7), 箴(4), 銘(4), 雜著(5), 禮狀(5), 墓碑銘(6), 碑銘(1), 墓表(2), 墓碣銘(10)이다. 발은 寒岡 鄭述의 문인인 松齋 崔門柱가 정구, 장현광, 郭再祐 등 35인이 배를 타고 龍華山을 유람하던 일을 기록한 「龍華同泛錄」, 1885년 봄에 東社 10명의 벗이 醉石亭과 環碧亭에 모여 읊은 시를 엮은 「十老詩帖」에 대한 것 등이다. 잠은 言, 行, 動, 靜에 대한 것이다. 명은 <座右銘>, <克己銘>, <觴銘>, <琴銘>이다. 잡저는 「仁同邑誌」에 대한 識, 李萬膺의 효행에 대한 지, 벗 朴耆奭이 '澗畔晚翠'의 뜻을 취해 澗翠로 호를 짓자 지어준 翠松贊, 黃澗에 귀양 가서 지은 <黃溪錄>, <雜說>이다. 예장은 巡察使, 兵馬節度使, 統制使 등에게 올린 것이다. 묘비명은 선조 장현도, 林應坤, 雲齋 都勻 등에 대한 것이고, 비명은 守軒 李義山의 祭壇碑銘이다. 묘표는 辛希遠, 尹宗忠에 대한 것, 묘갈명은 綸庵 孫宇男, 逸齋 張世益, 遯齋 李洪林 등에 대한 것이 있다.

권 10은 묘갈명(17), 陰記(2), 墓誌銘(1)이다. 묘갈명은 柳光睦, 張錫駿, 金鼎台, 張德元, 李能九 등에 대한 것이고, 음기는 駕洛國 許太后的 夫人堂遺墟碑와 金墳의 墓碣에 붙인 것이다. 묘지명은 부인 金海許氏를 위해 지은 것이다.

권 11 은 諡狀(2), 行狀(9), 遺事(3)이다. 시장은 權輓, 金宗武에 대한 것, 행장은 竇巖 李璣玉, 鶴渠 張岫, 梧月堂 安鴻漸, 然然子 權瑊, 장인 許慘 등에 대한 것, 유사는 생부 張學樞, 생모 善山金氏, 백형 張錫鳳에 대한 것이다.

권말에 손자 張吉相이 문집을 간행하며 지은 跋이 있다.

年譜 권 1 은 연보이다. 저자 생년부터 1925 년 문집 간행 때까지 일들을 수록하고 있다.

권 2 는 附錄이다. 嗣子 張承遠이 지은 家狀, 閔種默이 지은 諡狀, 金鶴鎮이 지은 神道碑銘, 趙鍾弼이 지은 묘지명이 수록되어 있다.

권 3 은 부록이다. <入耆社肅拜靈壽閣時次韻> 7 수는 저자가 70 세 때 耆老社에 들어갈 때 申獻求, 李憲植, 金鳳五 등이 저자의 시에 차운하여 지은 시이다. <回科榜宴序>는 저자가 문과에 급제한지 60 년이 된 것을 축하하는 回榜宴에 許焄과 李秉韶가 지은 것이다. 그 뒤에 金鴻遠, 柳道默, 張升澤, 許衡, 張錫蓋 등이 지은 挽章(50)과 屏山書院 儒生 李宅鍾 등, 柳道弼, 趙南軾, 金錫東, 陳元澤 등이 지은 제문(20)이 수록되어 있다.

## 장석룡(張錫龍)

### 정의

개항기 공조판서, 이조참의, 궁내부특진관 등을 역임한 문신.

### 개설

본관은 인동(仁同). 자는 진백(震伯), 호는 유헌(遊軒) 또는 운전(雲田). 아버지는 장학추(張學樞)이며, 어머니는 선산김씨(善山金氏)로 김구운(金龜雲)의 딸이다.

### 생애 및 활동사항

1846년(헌종 12) 정시문과에 급제, 성균관전적·사헌부감찰을 지내고 이듬해 사헌부지평과 사간원정언에 제수되었으며, 1848년 증광문과회시(增廣文科會試)의 시관(試官)을 거쳐 춘추관기사관이 되었다.

해남현감으로 나갔다가 1849년(철종 즉위년) 사헌부장령에 제수되었으나 나가지 않았고, 1854년 홍문관 부수찬·지제교 겸 경연검토관 등의 직을 역임하고, 1857년 홍문관교리 등을 거쳐 현풍현감에 제수되었다.

1864년(고종 1) 만언소(萬言疏)를 올려 당시의 시폐(時弊)를 지적하였다. 이해에 대사간·예조참의·공조참의·경주부윤이 되었으나 곧 귀향하였으며, 77세에 다시 공조판서·이조참의, 80세인 1892년에 궁내부특진관을 지냈다. 저서로 『유헌집(遊軒集)』11권이 전한다. 시호는 문헌(文憲)이다.

## 卷之九 / 墓碣銘

통훈대부병조정랑이치재신공묘갈명 병서 通訓大夫兵曹正郎二恥齋申公墓碣銘 并序

17世 정모(正模) 父 : 덕순(德洵) 祖父 : 문석 (文錫)                    읍파(邑派) 호계공파(虎溪公派)

公諱正模字景楷號二恥齋。申氏系出鵝洲。上祖諱祐麗朝按廉使。父卒廬墓泣血。墓前有雙竹抽生。載三綱行實。至元祿號悔堂。子伋贈左承旨。子適道以扈從勳。除郵丞贈吏議。曾祖塚進士。祖文錫。考德溢。妣宣城李氏。星耆女。明陵辛未。公生于安東新池洞祝館。時先公下世已七朔矣。公四歲。聞他兒呼父。問于母<sup>P</sup>夫人曰。人皆呼其父。我誰呼之。因泣請啓父墓。一見父顏。諸長老止之。十歲已知事親敬長之道。晨起拜廟。溫清于重幃。乙未參鄉校釋奠。李提學眞望爲邑宰。問才學兼備者。諸生以公對。己亥增廣策居魁。庚子分隸槐院。選副正字。趙豐原君顯命同隸而多有資益。冬乞暇歸覲。日讀心經近思錄等書。一時德望如李息山，李密庵，權清臺諸賢。與之從遊而講道焉。六月拜正言。丁未除江原都事，兵曹正郎。皆不赴。十二月除居昌府使。奉板輿莅任。以程伯子視民<sup>P</sup>如傷四字爲模範。戊申聞清州警報。而監兵鎮無發關戒嚴之令。公憂之欲報營。吏校皆言不可以途聽遽爲之。有人歷傳一書。乃安陰熊輔等檄書也。公促令捕捉則已逃矣。卽齎其書。馳報三營。母夫人方嬰疾在衙。急舁往倂峽中。還過朴巖邨。邨民遮道曰。賊購急。願明府小遲之。公又手艸狀。送家僮告急于知禮，星州。諭以合力討之。民散者復聚。軍容稍成。擬赴賊陣。而方伯深於黨論者也。欲因此擠陷。只以到付二字題送回報。不許發軍。而不數日罷官。公待罪於<sup>P</sup>金吾。律爲徒三年。判堂以公老母在。定配于軍威。公到配所。吟一絕詩曰。白雲阻咫尺。丹極夢嵯峨。忠孝平生志。其如兩缺何。己酉上特命放釋。辛亥繡使李滄以戊申事誣啓。公又謫興陽。縣僻在海隅。聞公至。請學者衆。自號二恥。蓋離親去國之義也。有齋銘。乙卯元子誕慶。量移錦山。丙辰世子冊封。覃慶付處忠原。己未奔母夫人喪。經葬仍還。壬戌三月日。患痘卒于謫所。享年五十二。十月返櫬。明年癸亥。葬縣南五土山向丙原。至是始有全釋之命。嗚呼。<sup>P</sup>公平生著述。敬說窒慾存心二箴，素行錄，戒懼兼動靜說，四書撮要，定志說等編。最其要領也。及警漸熾。先移病親。報上司檄鄰郡。期圖剿討。出於忠孝兩全之心。而不幸前後三遷配矣。所至皆以誠意教導學者。常曰古聖賢謨訓。布在方冊。何必強己見別立論。此可見其謙退不自居之美也。配順興安氏。文成公後履順女。繼配東萊鄭氏鈇女。男邦烈，光烈，弘烈。女趙居正。邦烈男瑞教。女金學東，南時潤，李星斗，南憲龜。光烈男成教。女鄭秀暉，南朝澈。弘烈男<sup>■</sup>教。請銘<sup>P</sup>者五代孫相憲也。銘曰。

爲忠爲孝。本無二致。義有兩全。推之一理。士馬方整。遽奪其符。黨禍孔慘。纔有旋投。十年賦鵬。一遲唱雞。西神作祟。哲人云萎。盆照有日。復秩如初。屹彼龜嶺。貞珉三尺。銘焉不諛。永垂來百。



赫烏家聲。隱德不仕。表厥佳城。樵牧之戒。

通訓大夫兵曹正郎二恥齋申公墓碣  
銘并序

公諱正模。字景楷。號二恥齋。申氏系出鵝洲。上祖諱祐麗。朝按廉使。父卒。廬墓泣血。墓前有雙竹。抽生。載三綱行實。至元。祿號悔堂。子伋。贈左承旨。子適。道以扈從勳。除郵丞。贈吏議。曾祖埰。進士。祖文錫。考德溢。妣宣城李氏。星考女。明陵辛未。公生于安東新池洞祝館。時先公下世已七朔矣。公四歲。聞他兒呼父。問于母。遊軒先生集 卷之九 三十五

夫人曰。人皆呼其父。我誰呼之。因泣請啓父墓。一見父顏。諸長老止之。十歲。已知事親敬長之道。晨起拜廟。溫清于重幃。乙未。參鄉校釋奠。李提學眞。望烏邑宰。問才學兼備者。諸生以公對。已亥。增廣策居魁。庚子。分隸槐院。選副正字。趙豐原君顯命。同隸。而多有資益。冬。乞暇歸覲。日讀心經。近息錄等書。一時德望如李息山。李密庵。權清臺。諸賢。與之從遊。而講道焉。六月。拜正言。丁未。除江原都事。兵曹正郎。皆不赴。十二月。除居昌府使。奉板輿。莅任。以程伯子視民。

如傷四字。烏模範。戊申。聞清州警報。而監兵鎮無發關戒嚴之令。公憂之。欲報營。吏校皆言。不可以途聽。遽為之。有人歷傳一書。乃安陰熊輔等檄書也。公促令捕捉。則已逃矣。即齋其書。馳報三營。母夫人方嬰疾在衙。急昇往。俾峽中。還過朴巖邨。邨民遮道曰。賊購急。願明府小遲之。公又手舛狀。送家僮告急于知禮星州。諭以合力討之。民散者復聚。軍容稍成。擬赴賊陣。而方伯浚於黨論者也。欲因此擠陷。只以到付二字題送回報。不許發軍。而不數日。罷官。公待罪於

遊軒先生集 卷之九 三十六  
金吾。律為徒三年。判堂以公老母在。定配于軍威。公到配所。吟一絕詩曰。白雲阻咫尺。丹極夢嵯峨。忠孝平生志。其如兩鼓何。己酉。上特命放釋。辛亥。繡使李滄。以戊申事誣。啓公又謫興陽縣。僻在海隅。聞公至。請學者。象自號二恥。蓋離親去國之義也。有齋銘。乙卯。元子誕慶。量移錦山。丙辰。世子冊封。覃慶付處忠原。己未。奔母夫人喪。經葬。仍還。壬戌。三月。日。患瘧卒。于謫所。享年五十二。十月。返櫬。明年癸亥。葬縣南五土山。向丙原。至是始有全釋之命。嗚呼。

## 이계선생문집(伊溪先生文集)

## 형태서지

권수제	이계선생문집 원집(伊溪先生文集 原集)
판심제	이계집(伊溪集)
간종	목판본(木版本)
간행년	1820년 간행(1937년 후쇄본)
권책	6권 3책
행자	10행 20자
규격	20.1×16.4(cm)
어미	上下二葉花紋魚尾
소장처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소장도서번호	811.98/남몽뢰/이
총간집수	한국문집총간 속 35

## 저자

성명	남몽뢰(南夢賚)
생년	1620년(광해군 12)
몰년	1681년(숙종 7)
자	중준(仲遵)
호	이계(伊溪)
본관	영양(英陽)
특기사항	김시온(金是榘)의 문인. 남천한(南天漢), 김방걸(金邦杰), 유정휘(柳挺輝), 이유장(李惟樟), 이보(李篋), 김이기(金履基) 등과 교류

## 행력

왕력	서기	간지	연호	연령	기사	
광해군	12	1620	경신 泰昌	1	1	12월 9일, 義城縣 新村里에서 태어나다.
인조	1	1623	계해 天啓	3	4	12월, 조부상을 당하다.
인조	15	1637	정축 崇禎	10	18	鵝洲申氏 申之義의 딸과 혼인하다.
인조	16	1638	무인 崇禎	11	19	1월, 모친상을 당하다.
인조	18	1640	경진 崇禎	13	21	瓢隱 金是樞에게 受學하다.
인조	19	1641	신사 崇禎	14	22	가을, 鄉試에 합격하다.
인조	20	1642	임오 崇禎	15	23	봄, 司馬試에 합격하다.
인조	22	1644	갑신 順治	1	25	성균관에 유학하다.
인조	24	1646	병술 順治	3	27	10월, 아들 南明夏가 태어나다.
효종	2	1651	신묘 順治	8	32	가을, 文科에 합격하다.
효종	3	1652	임진 順治	9	33	3월, 권지학유가 되다. ○ 5월, 학록이 되다. ○ 6월, 부봉사가 되다. ○ 7월, 조봉대부에 가자되고, 栗峯道 察訪이 되다.
효종	4	1653	계사 順治	10	34	3월, 俗離山을 유람하다. ○ 윤 7월, 조산대부, 봉령대부에 연달아 가자되다. ○ 9월, 尹谷村에 伊溪堂을 짓다.
효종	5	1654	갑오 順治	11	35	겨울, 통훈대부에 가자되고, 전적이 되다.
효종	6	1655	을미 順治	12	36	1월, 감찰이 되다.
효종	7	1656	병신 順治	13	37	윤 5월, 형조 좌랑이 되다. ○ 8월, 任實 縣監이 되다. ○ 겨울, 어사의 보고로 파직되다.
효종	8	1657	정유 順治	14	38	1월, 감사의 上書로 다시 임실 현감이 되다.
효종	10	1659	기해 順治	16	40	10월, 부사과가 되다.
현종	2	1661	신축 順治	18	42	1월, 감찰이 되다. ○ 7월, 固城 縣令이 되어 기사관을 겸하다.
현종	7	1666	병오 康熙	5	47	12월, 호조 좌랑이 되다.
현종	8	1667	정미 康熙	6	48	10월, 예조 정랑이 되다. ○ 12월, 부친상을 당하다.
현종	11	1670	경술 康熙	9	51	12월, 병조 좌랑이 되다.
현종	12	1671	신해 康熙	10	52	1월, 사정이 되다. ○ 4월, 咸陽 郡守가 되다.
현종	14	1673	계축 康熙	12	54	2월, 晉州 牧使가 되다.
숙종	4	1678	무오 康熙	17	59	여름, <應旨疏>를 올리다.
숙종	5	1679	기미 康熙	18	60	2월, 우통례가 되다. ○ 6월, 善山 府使가 되다.
숙종	6	1680	경신 康熙	19	61	3월, 許篈의 옥사에 연루되어 의금부에 갇히다.

숙종	7	1681	신유	康熙	20	62	겨울, 興陽으로 유배되다. ○ 11 월 15 일, 다시 拿命을 받고 올라가던 도중 南原에서 자결하다.
숙종	8	1682	임술	康熙	21	-	3 월, 金堂山에 장사 지내다.
숙종	15	1689	기사	康熙	28	-	장손 南胤胄의 상언으로 복관되다.
순조	20	1820	경진	嘉慶	25	-	증손 南聖天和 현손 南象毅가 목판으로 원집을 간행하다.
-	-	1937	정축	-	-	-	10 세손 南佑龍과 南圭佑 등이 석판으로 속집을 인행하고, 원집을 후쇄하다.

### 편찬및간행

자는 庚申黜陟 때 유배되어 그 이듬해에 죽었으며 그로부터 8 년이 지나 장손 南胤胄의 상언으로 복관 되었으나 內弟 權泰時가 저자의 행적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行狀을 지었음 뿐 오랫동안 문집 간행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저자 사후 100 여 년이 지나서야 증손 南聖天和 현손 南象毅가 遺稿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6 권 3 책으로 편찬한 다음 李象靖의 교감을 거쳐 1778 년에 이상정의 서문을 받아 1820 년에 목판으로 간행하였다. 《원집》 이 본은 현재 국립중앙도서관(한 46-가 1718), 규장각(古 3428-657), 장서각(K4-6400),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D1-A924) 등에 소장되어 있다.

원집이 간행되고 40 여 년이 지나 1861 년경에 저자의 7 세손 南萬會가 행장을 바탕으로 遺事를 찬술한 다음 속집을 간행할 목적으로 원집 간행 때에 누락된 유문을 수습하여 정리하였으나 간행하지 못하였다. 이 逸稿本을 10 세손 南佑龍과 南圭佑 등이 1935 년에 찾아내 2 권으로 편차하고, 遺墨과 年譜를 권 2 뒤에 수록한 다음 부록에 해당하는 글들을 모아 1 권으로 편차하여 3 권 2 책으로 엮어 1937 년에 義城 伊溪堂에서 석판으로 인행하였다. 《속집》 이 본은 현재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811.98/남몽뢰/이-속),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811.081 남몽뢰○) 등에 소장되어 있다. 이때 남우룡과 남규우 등은 원집을 함께 후쇄하였는데, 이 본은 현재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811.98/남몽뢰/이) 등에 소장되어 있다.

본서의 저본은 증손 南聖天和 현손 南象毅가 1820 년에 목판으로 간행한 원집을 1937 년에 후쇄한 것에 10 세손 南佑龍과 南圭佑 등이 1937 년에 석판으로 인행한 속집을 합부한 것으로 원집과 속집 모두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장본이다.

原集序(李象靖 撰), 續集跋(南佑龍 撰), 年譜, 板權紙 등에 의함

### 구성과내용

본집은 원집 6 권 3 책과 속집 3 권 2 책으로 되어 있다.

원집은 卷首에 李象靖이 1778 년에 쓴 序와 목록이 수록되어 있다.

권 1 에 賦(2)와 詩(113), 권 2 에 시(107)와 拾遺로 수록된 시 1 수가 있다. 부 가운데 〈東國通鑑賦〉는 741 字로 이루어진 장편으로 1400 년의 역사를 편년체로 서술하여 흥망을 거울삼을 수 있게 한 「東國通鑑」의 위대성을 말하고 檀君부터 고려 恭愍王까지의 역사를 요약하여 읊었다. 시는 1643 년의 작품인



〈閒居偶吟〉부터 1681년 興陽 配所에서의 작품인 〈樂安倅使人來問〉까지 총 220수가 연도순으로 편차되어 있다. 습유로 수록된 시는 權揀에게 부친 〈寄鶻峴權戚丈〉으로 지어진 연도는 미상이다.

권 3에 疏(2)와 書(3), 雜著(2)가, 권 4에 雜著(4)와 序(5)가 수록되어 있다. 소 2편은 모두 代作으로, 李珥와 成俔을 모욕하는 상소를 올렸다 하여 처벌 받은 柳稷의 벌을 풀어달라는 〈請解柳稷罰疏〉와 金誠一의 시호를 청하는 〈請贈諡金鶴峯疏〉이다. 서는 許穆에게 보낸 편지가 1통, 金學培에게 보낸 편지가 2통인데, 허목에게 보낸 편지는 「喪服考證」의 간행을 논의하는 내용으로 허목의 답서가 첨부되어 있다. 잡저는 모두 6편으로 〈東國小乘〉은 단군부터 조선 건국까지 우리나라의 역사를 개괄한 것이고, 〈居官不忘記〉는 任實 縣監으로 재임 중에 지은 것으로 모두 33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奸計를 부리는 관리를 엄히 단속하고 백성의 고통을 살피며 마음을 맑게 하고 일을 줄일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己亥禮論始末〉은 孝宗이 승하한 1659년 5월 5일부터 현종이 服制를 바로잡고 승하한 1674년 7월 13일까지 날짜순으로 대립되는 의견과 인물 및 처리되고 결정되는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 밖에 〈策問〉, 〈遊俗離山錄〉, 〈許應祥事蹟〉 등이 있다. 序는 임실 현감으로 부임할 때 벗들이 지어 준 〈南征別語〉에 대한 것을 비롯하여 庚申稷憲, 家牒, 四同契, 重修한 沙村里의 鄉約에 대한 것이다.

권 5에 記(8), 跋(8), 銘(2), 箋(1), 上樑文(4)이 수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기는 모두 건물에 대한 것이며, 跋은 〈題喪服考證後〉, 〈歐蘇手束跋〉 및 權階의 詩編에 대한 〈題權皆玉詩編後〉 등이다.

권 6에 祭文(8), 墓表(2) 및 墓碣銘(1), 墓識銘(2), 墓壙銘(1), 壙記(1), 自銘(1) 등 6편과 저자의 先考인 南海準의 家狀 1편이 수록되어 있다. 제문은 白鶴書院에 향사하는 李滉과 黃俊良, 시조 英毅公의 壇所, 李瑀, 스승 金是樞, 사위 申斗錫의 조부인 申悅道, 장인 申之義, 李廷機 및 熊川에서 죽음을 당한 將士에 대한 것이고, 묘표는 金是樞의 先考 金澈, 저자의 先妣 安東權氏에 대한 것이며, 나머지는 申斗錫의 외조부 肅承孝에 대한 묘갈명, 저자의 외조부 權誌와 申坡에 대한 묘지명, 權昌業에 대한 묘광명, 先妣에 대한 광기와 자명이다.

卷尾에 판권지가 있다.

속집은 卷首에 李家煥이 쓴 序가 있다. 이 서문은 원집의 서문으로 이가환이 도총관에 제수된 시기인 1797년과 몰년인 1801년 사이에 쓴 것으로 추정되는데, 원집이 간행될 당시에 누락되어 속집에 편차된 것으로 이가환의 문집인 「錦帶詩文鈔」에도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權秉燮이 1936년에 쓴 속집 序와 목록이 수록되어 있다.

권 1에 詩 79수가 수록되어 있는데, 역시 연대순으로 편차되어 있다.

권 2에는 저자의 죽음에 큰 영향을 미친 장문의 〈應旨疏〉 1편이 수록되어 있고, 金邦杰, 孫萬雄 등에게 보낸 편지와 저자가 자결한 후 衣帶 안에서 나온 일종의 유언으로 아들 南明夏에게 보낸 편지 등 총 4편이 수록되어 있다. 이 밖에 〈殿策題〉, 〈擬周冢宰周公進無逸表〉, 임실에 있는 大同廳의 記, 저자의 7대조 南灝의 修稷軸에 대한 後識인 〈友鄉稷帖後識〉, 저자의 선조 南君甫의 事實에 대한 跋인 〈書先祖密直府君事實下〉 등 雜著 5편과 上樑文 2편, 저자의 8대조 南佑良, 6대조 南義元에 대한 行略 2편이 수록되어 있다. 권 2와 권 3 사이에 遺墨 2점과 年譜가 수록되어 있다.

권 3은 부록이다. 〈請解柳稷罰疏〉에 대한 批答과 旛州 牧使 재임 시에 받은 諭文이 수록되어 있고, 임실 현감으로 부임할 때 趙瑛, 金尙琦 등 15인의 벗들이 지어 준 〈南征別語〉 및 頭流山 유람시 南九萬의 贈詩 1수가 수록되어 있으며, 이 밖에 金邦烈 등이 쓴 祭文 14편, 權泰時가 쓴 行狀, 李漢膺이 쓴 墓碣銘, 7세손 南萬會가 쓴 遺事, 李義發이 쓴 伊山社廟宇의 上樑文, 李彙寧이 쓴 奉安文·祝文, 金宗德이 쓴 〈伊溪堂重修記〉, 金岱鎭이 쓴 〈暨碣告由文〉이 수록되어 있다.

卷尾에는 속집 간행 과정과 참여 인원을 자세히 기록한 10세손 南佑龍의 續集跋과 族後孫 南炳斗가 쓴 續集跋이 수록되어 있고, 다음에 판권지가 있다.

## 남몽뢰(南夢賚)

### 형태서지

조선후기 예조정랑, 진주목사 등을 역임한 문신.학자.

### 개설

본관은 영양(英陽). 자는 중준(仲遵). 호는 이계(伊溪). 경상도 의성현 신촌리(新村里)[현 경상북도 점곡면 동변리 월촌(月村)]에서 출생하였다. 아버지는 통사랑(通仕郎) ㄴ해준(南海準), 어머니는 안동권씨(安東權氏)로 군자감 직장(軍資監直長) 권지(權誌)의 딸이다. 어려서 문장을 조달하여 문명이 있었다.

### 생애 및 활동사항

1642년(인조 20) 사마시에 합격하고, 1651년(효종 2)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세자시강원설서(世子侍講院說書)에 기용되고, 이어서 연원도찰방(連原道察訪)을 거쳐 예조정랑(禮曹正郎)이 되었다. 1655년 김성일(金誠一)의 시호(諡號)를 청하는 상소를 올렸다.

뒤에 고성(固城)과 임실(任實)의 군수를 역임하면서 고을 수령으로 저질러서는 안될 일들을 모아 「거관불망기(居官不忘記)」를 지어 자신과 후임 관리들을 훈계하였다. 백성의 부세를 경감하고 농사를 권장하는 등 선정을 베풀었다. 1666년(현종 7) 진주목사(晉州牧使)가 되었으나 예제(禮制)의 개혁을 상언했다가 왕의 노여움을 당해 파직되었다.

그 뒤 이계정사(伊溪精舍)를 지어서 후진을 교육하였다. 특히, 사학(史學)에 밝아 국조 이후 당시까지 역사적인 사실을 「동국통감부(東國通鑑賦)」와 「동국소승(東國小乘)」을 지어서 밝히고, 「기해예송전말(己亥禮訟顛末)」을 지어 숙종 초에 있었던 예론 시비의 근원을 밝혔다.

죽은 뒤 9년 만에 예제가 자기의 주장대로 고쳐지자 손자 ㄴ윤주(南胤胄)가 상언하여 복관되었다. 저서로는 『이계문집(伊溪文集)』 10권이 있다.

卷之一 / 詩

만신성유 명원○무술 輓申聖俞 命元○戊戌

15世 명원(命元) 父 : 지의(之義) 祖父 : 몽득 (夢得) 귀파(龜派) 괴헌공파(槐軒公派)

慳祕幾年地。分留太古天。堂開新物色。村帶舊風煙。滿戶雲傾蓋。浮階水鋪筵。悠然清意味。難與俗人傳。

Ⓟ浮世間無地。良時別有天。魚吞洗硯墨。鶴避煮茶煙。遇客方沽酒。逢僧始設筵。就中間事足。料得少人傳。

만신성유 명원○무술 輓申聖俞 命元○戊戌

15世 명원(命元) 父 : 지의(之義) 祖父 : 몽득 (夢得) 귀파(龜派) 괴헌공파(槐軒公派)

闊別相思歲月綿。去冬攜手縣衙前。無多鬢髮皤皤爾。依舊風神凜凜然。有約來秋斟白酒。那知今日隔黃泉。一年兄弟俱淪沒。慘禍人間慟徹天。

만신순유 명설 輓申舜俞 命高

15世 명설(命高) 父 : 지의(之義) 祖父 : 몽득 (夢得) 귀파(龜派) 괴헌공파(槐軒公派)

曩君病臥日。我脂歸秦牽。歷路問君病。告以明朝別。我憂君羸悴。君念我行役。兩心俱脈脈。握手長惻惻。雖灑丈夫淚。不謂有今日。別日幾多日。我行纔入洛。Ⓟ君凶繼而至。夢邪真邪非。驚呼不自定。欲赴難奮飛。君年長我九。視君猶視兄。中年又通家。廿載肝膽傾。篤厚是家風。君又淳且真。居鄉且恂恂。人稱君子人。謂宜享遐壽。安知遽至斯。寡妻尙未老。稚子猶貽罹。有兄已冥漠。先君閉泉路。有弟亦子子。血涕營君墓。萬事一沾巾。浮生何太草。下川閒居日。西湖遠遊時。山川雖或間。筆札猶相隨。忽已成今古。那堪此別離。人生信風燭。天理亦茫茫。既來孰不去。脩短無其常。在世固無樂。畢竟吾亦已。鷹山鬱蒼蒼。魂兮歸來是。魂歸不可見。望望心斷絕。貧而奠菲薄。病亦違執紼。Ⓟ緘辭寓一哀。淚盡情不竭。

만난재신공 열도○기해 輓懶齋申公 悅道○己亥

旅軒門下早聞仁。誠敬工夫老且新。韞櫝深藏珠待價。尺腰能屈蠖宜伸。差池三品官何薄。薰善千人道不貧。安得蔡邕無愧筆。爲揚徽德鎖貞珉。

만신정숙 금 輓申定叔 坡

14世 금(坡) 父 : 열도(悅道) 祖父 : 흘 (屹) 음파(邑派) 난재공파(畵齋公派)

憶昨丹丘敘別時。班荊握手問前期。差池鴈信驚秋晚。眞贗凶音似夢疑。儒行合求洙泗席。家聲堪付淵沈兒。新阡未灑平生酒。淚盡東城一首詩。



伊溪集 卷一



君凶繼而至。夢邪真邪非。驚呼不自定。欲赴難奮飛。  
 君年長我九。視君猶視兄。中年又通家。廿載肝膽傾。  
 篤厚是家風。君又淳且真。居鄉且恂恂。人稱君子人。  
 謂空享遐壽。安知遽至斯。寡妻尚未老。稚子猶貽囑。  
 有兄已冥漠。先君閉泉路。有弟亦子子。血涕營君墓。  
 萬事一沾巾。浮生何太草。下川閒居日。西湖遠遊時。  
 山川雖或間。筆札猶相隨。忽已成今古。那堪此別離。  
 人生信風燭。天理亦茫茫。既來孰不去。脩短無其常。  
 在世固無樂。畢竟吾亦已。鷹山鬱蒼蒼。魂方歸來是。  
 魂歸不可見。望望心斷絕。貧而真菲薄。病亦違執紼。  
 緘辭寓一哀。淚盡情不竭。

伊溪集一

輓懶齋申公悅道 已亥

依軒門下早聞仁。誠敬工夫老且新。韞積濛濛藏珠待  
 價。尺腰能屈蠅空伸。差池三品官何薄。薰善千人道  
 不貧。安得蔡邕無愧筆。寫揚徽德鎖貞珉。

輓金丈 尚丑

天之生比人。賦以質之美。天之奪此人。書其壽與位。  
 天意信難諶。此人今已矣。孝友出天性。直諒由眞實。  
 於今罕見儔。在古無多得。接物以誠款。笑語何啞啞。  
 聞人有急難。必盡心與力。纖毫邪枉心。未嘗畱肝腎。

伊溪集 卷一

使人得一見。傾心知可信。謂公有此才。空在朝士列。  
 如何竟棲遲。林壑空淪沒。謂公有此德。空享遐壽福。  
 如何竟沈疴。中年遽摧折。欲問但蒼蒼。此理亦難悉。  
 余生世已久。屈指算今昔。善與不善者。禍福恆不一。  
 善者恒不幸。不善恒於幸。知君得者天。而不得者命。  
 然其暫聚形。豈與物俱化。惟其不化者。未應埋泉下。  
 於公無損益。死生可柰何。况此世混濁。至人難託些。  
 蟬蛻厭塵喧。此行亦爲豪。是乃公之志。我又何悲怛。  
 但有不忍言。欲言聲反吞。雙輪並就祖。兩旌晨出門。  
 子婦競叫叩。伯李追悲呼。君姪哭諸父。親朋淚丈夫。  
 僵臥獨不聞。一去而莫回。天寒雪路長。日落蒼山哀。

伊溪集一

輓申定叔 坡

憶昨丹丘敘別時。班荆握手問前期。差池鴈信驚秋  
 晚。眞履凶音似夢疑。儒行合求洙泗席。家聲堪付淵  
 沈兒。新阡未灑平生酒。淚盡東城一首詩。

次李商翼韻

飄泊東西又北南。一身榮辱不須談。馮唐老作郎猶  
 喜。黃霸朝聞道亦甘。客裏忽逢秋月七。病中仍過夏  
 庚三。金雞早晚如相訪。何處溪山夏結庵。

書懷求和未幾聖則 李文規至用前韻對贈

차신방숙 전 분매운 次申方叔 樽 盆梅韻

14世 전(樽) 父: 열도(悅道) 祖父: 흘(屹) 음파(邑派) 난재공파(聃齋公派)

君家一見小盆梅。魂夢無時不往來。清致豈嫌幽致並。孤芳猶壓衆芳猜。風枝月上疑佳客。雪骨春生已化胎。我欲扁舟湖裏去。連根毋惜共含杯。



舊業雖嘗問新詩亦幸論。還慚誠未篤四十始登門。  
 還巢後。飄更又步前韻。遠問詠歎之餘不勝感戰。次韻仰呈。

隱德兼閒趣。山居近水村。優游三百禮。汎濫五千言。  
 用舍寧須下。升沈不足論。祗今依仰地。何幸有龍門。

輓李文廷吏

早年詞賦繼家風。昌曲文星映海東。始舉終沈關世道。有才無命問天公。黃庭字誤清都遠。白玉樓成藝苑空。何處新阡埋好手。梨山松柏兩濛濛。

丙午立春前一日。瓢叟次雲巖公梅花帖韻

伊溪集一

投示輒和以呈。

寂寞山齋暮。蒼茫歲月遷。毛欺白雪。雙頰減紅妍。  
 獨坐三更夜。誰傳五字篇。開緘仍伏讀。如對卷中賢。

次申方叔博益梅韻

君家一見小盆梅。魂夢無時不往來。清致豈嫌幽致並。孤芳猶壓衆芳猜。風枝月上疑佳客。雪骨春生已化胎。我欲扁舟湖裏去。連根毋惜共含杯。

贈別花山李使君使君名星徵字吉應是余司馬同年也。交契甚密。乙巳秋見劾。自銀臺出。為安東府使。丙午夏。因嶺疏重被臺評。而

만신침지 명익 輓申僉知 命翼

15世 명익(命益) 父 : 지선(之善) 祖父 : 흥준(弘俊) 귀파(龜派) 참봉공파(參奉公派)

百年偕老一堂春。爭道吾鄉瑞世人。鄧氏無兒猶有子。黃公不仕尚垂紳。仙桃花下時何早。神鬼關頭夜未晨。多少平生勤款意。却教哀淚倍霑巾。

恩重慶席輝煌彩舞頭。魚笥竟為今日慟。堂堂豈非復舊時春。那堪孝子來奔夕。哭擗哀聲動比隣。公山生進俱中。未幾登第。又捷重試。其子增生員及第。俱在十年間。人皆以為榮。故一聯及之。公山自任所奔喪。故結句及之。

送李碩之之任善山

墨綬初分大州山。川仍帶善名雷。明時莫歎官聯薄。聖主深知吏治優。冰雪一冬曾別恨。火雲三夏更離愁。秋風見欲南鄉去。儻掃波亭待我遊。碩之前冬以說差官久留嶺外。故五句及之。

伊溪集一

奉次葛溪金丈韻

淪落明時坐困蒙。竹扉深掩小庭空。身如鄧郢招魂客。心似柴桑避俗翁。晚雨寒聲溪上下。曉霜秋色峽西東。此時葛老伴相問。短律長書百貝同。

輓申僉知命翼

百年偕老一堂春。爭道吾鄉瑞世人。鄧氏無兒猶有子。黃公不仕尚垂紳。仙桃花下時何早。神鬼關頭夜未晨。多少平生勤款意。却教哀淚倍霑巾。

敬次松隱金先生韻二首

曾過松隱故居時。最是留情冒雪姿。聲籟秋濤聞浙

만고송신공 홍망○계축 輓孤松申公 弘望○癸丑

15世 홍망(弘望) 父 : 지제(之悌) 祖父 : 몽득 (夢得)

귀파(龜派)

오봉공파(梧峰公派)

十年來往緒言承。何幸龍門早獲登。對酒未曾爲醉客。論文無處不呼燈。家傳詩禮聲名重。業繼箕裘諳藝稱。湖海臨民多惠化。霜臺飛簡想風稜。藍關暮雪連東路。秦嶺孤雲隔幾層。仕宦非心由世隘。行藏有義奈君微。官如工部三資少。壽比尼丘一歲增。萬事卽今渾似夢。輓歌淒斷愴難勝。

玄玄。

輓孤松申公 弘望 癸丑

十年來往緒言承。何幸龍門早獲登。對酒未曾爲醉客。論文無處不呼燈。家傳詩禮聲名重。業繼箕裘諳藝稱。湖海臨民多惠化。霜臺飛簡想風稜。藍關暮雪連東路。秦嶺孤雲隔幾層。仕宦非心由世隘。行藏有義奈君微。官如工部三資少。壽比尼丘一歲增。萬事卽今渾似夢。輓歌淒斷愴難勝。

輓拙齋柳公元之

德星何處彩先稀。拙老瓢翁繼逝時。松石新阡秋草

伊溪集一

三三

宿玉淵精舍主人非。泉臺曾有重逢約。塵世今無大  
嗟期。牀下小生餘白首。遠題哀輓淚霑衣。

贈別 甲寅

東歸前路政逶迤。贏得吟鞭幾首詩。渭北風流何寂寞。周南身世負棲遲。年來聚散仍萍水。老去襟期夏酒卮。最是流光催別恨。碧梧新月近秋時。

輓人

學業詩書禮。儒家祖子孫。青氈傳舊物。白首泝真源。柏府監風憲。蘭臺任討論。功名猶草草。何處有孤墳。  
贈別臺官



卷之六 / 祭文

제난재신선생문 祭懶齋申先生文

13世 열도(悅道) 父 : 흠(伋)

祖父 : 원록(元祿)

읍파(邑派)

난재공파(懶齋公派)

惟公之家。世德之懿。王父兄弟。孝行卓爾。迨公先考。人品偉異。世共嗟惜。不滿年位。乃克有子。男三女二。惟公之生。於第爲季。克紹前人。淵源有自。天資超邁。氣宇和粹。水月襟懷。冰霜風致。溫而能剛。寔天全界。P 恬靜清疎。不爲物漬。夙承家學。知所用志。旋登旅門。提掖是被。服膺周旋。惟恐失墜。景慕退陶。常切欽跂。聖學十圖。夜誦朝肄。伊閩正脈。不出敬義。熟復朱書。不離造次。踐履既篤。所造亦邃。及登科第。學優而仕。清官顯職。無不歷試。到處而治。令聞無已。薇垣柏府。風采是倚。北城南州。龜石斯峙。晚歲丘林。惟取適意。世路紛華。浮雲敝屣。一向深縮。如鳥斂翅。再見除書。堅臥不起。養精治病。左書右史。靜得其壽。謂享遐禩。云何不淑。天不慙遺。士慟靡依。邦增殄瘁。念我小子。早襲盜昧。小有成就。無非公賜。仍許婚姻。不以卑鄙。P 網繆密勿。朱陳奚啻。長篇短札。月無不至。隻僮單騎。時或來侍。闕然相思。見之則喜。仲春之初。西行千里。歷路辭公。爲我興喟。握手相別。別語可記。那知別後。公忽我棄。踽踽獨立。不禁涕泗。聊薦菲薄。文以代贄。惟公不亡。鑑此誠意。



伊溪集 卷六



恬靜清疎不為物漬。夙承家學。知所用志。旋登旅門。提掖是被。服膺周旋。惟恐失墜。景慕退陶。常切欽跂。聖學十圖。夜誦朝肄。伊閔正脈。不出敬義。熟讀朱書。不離造次。踐履既篤。所造亦邃。及登科第。學優而仕。清官顯職。無不歷試。到處而治。令聞無已。薇垣柏府。風采是倚。北城南州。龜石斯峙。晚歲丘林。惟取適意。世路紛華。浮雲蔽徒。一向淺縮。如鳥斂翅。再見除書。堅臥不起。養精治病。左書右史。靜得其壽。謂享遐禩。云何不淑。天不慙遺。士慟靡依。邦增殄瘁。念我小子。早襲盜昧。小有成就。無非公賜。仍許婚姻。不以卑鄙。編繆密勿。朱陳奚啻。長篇短札。月無不至。隻僮單騎。時或來侍。闕然相思。見之則喜。仲春之初。西行千里。歷路辨公。為我興喟。握手相別。別語可記。那知別後。公忽我棄。踽踽獨立。不禁涕泗。聊薦菲薄。文以代費。惟公不亡。鑑此誠意。

伊溪集六

祭舅氏文

惟靈早得賢師。妙契道奧。精思刻厲。實地允蹈。心得體用。學非口耳。涵省主敬。斷制以義。真積力久。繩直準平。若鳥時用。可作世程。人莫我知。名不及聞。殉身以歿。天道亦吝。賚也小子。久忝趨侍。提耳警惰。誘

九三

卷之六 / 墓碣識

선교랑하촌신공묘식명 병서 宣敎郎霞村申公墓識銘 并序

14世 급(圾) 父 : 열도(悅道) 祖父 : 흘 (屹) 음파(邑派) 난재공파(畵齋公派)

聞韶縣古有隱君子曰悔堂申先生諱元祿。以孝聞於朝。旌其閭。悔堂之子曰屹。亦以孝名於鄉。是有子曰懶齋先生諱悅道。遊於旅軒張先生之門。得聞脩己治人之術。官至司憲府掌令。懶齋娶鶴峯金先生之子法之女。以萬曆丁巳正月辛卯生男。名曰圾字定叔。定叔生而秀異。自幼孩已有成人度。受經屬文。有聲庠塾間。士大夫之賢而文者。一見莫不嗟賞而奇愛之。於是藻思日進而華聞日益大。四與計偕。未成名。再試禮部皆不第。己亥遭懶齋喪。柴毀日甚。人或疑其傷生。而定叔不悔也。服闋財一月而不起。實辛丑七月十一日也。嗚呼。定叔其亦死於孝也邪。其年十二月九日。葬于縣西金磊里卯向之原。其弟塽氏狀其行。使其孤應錫來請余以銘其窆者。噫余其忍銘定叔之窆邪。世之秉筆者不無其人。而猶以得余一言為重者。豈不以余為定叔友而知定叔平生者。亦莫余若也。噫余其忍不銘定叔之窆邪。義不可辭。謹按其狀。定叔鵝洲人也。鵝洲之申。皆祖按廉使。其世系本末之所繇。則鶴沙金公已識於懶齋墓矣。今不復著。定叔以穎悟之質。早得家庭之訓。其平生行己。無一不出於正。而惟以孝友為百行之源。蚤歲喪其先妣。又喪其伯氏。終身悲慕。愈久不衰。事懶齋公盡誠敬。兄弟之間。怡怡如也。懶齋公嘗患痔。定叔侍其側。蚤夜不解帶。劑和烹飪。必躬必親。及其屬纊之夕。欲斷指用藥。為子姪輩所尼。常以不得伸其至情。為無涯之痛。懶齋累典州郡。素履清寒。定叔又不事產業。簞瓢屢空。而處之裕如也。為文無所不能。而尤長於駢儷。一時文士無出右者。懶齋公亦以青氈之業託之。不幸以戚而亡。天將何以勸人子之孝



乎。定叔以父任累階宣教郎。自號霞村散人。娶豐山金氏察訪昌祖之女。生三男五女。男長應錫。卽求銘者。次興錫。次幼。女三人已適人。士人鄭惟興，曹壽昌，金命賢其壻也。曹出二男。金出一女。內外子孫十一人。天將以是報定叔也邪。凡狀之所載如此。與余前所竊論者。實相發明。謹敘而并書之。系之以銘。銘曰。

惟君家世孝友。德之載之其後。君承之勢欲振。執父喪殞厥身。而永歸藏於是。我爲文銘孝子。

泣血謹敘。

宣教師霞村申公墓識銘并序

聞韶縣古有隱君子曰梅堂申先生諱元祿。以孝聞於朝。旌其閭。梅堂之子曰侗。亦以孝名於鄉。是有子曰懶齋先生諱悅道。遊於旅軒張先生之門。得聞脩己治人之術。官至司憲府掌令。懶齋娶鶴峯金先生之子滂之女。以萬曆丁巳正月辛卯生男。名曰坂。字定叔。定叔生而秀異。自幼孩已有成人度。受經屬文。有聲庠塾間。士大夫之賢而文者。一見莫不嗟賞。而奇愛之。於是藻思日進。而華聞日益大。四與計偕。

伊溪集六

五

未成名。再試禮部皆不第。已亥遭懶齋喪。柴毀日甚。人或疑其傷生。而定叔不悔也。服闋財一月而不起。實辛丑七月十一日也。嗚呼。定叔其亦死於孝也邪。其年十二月九日。葬于縣西金磊里卯向之原。其弟埽氏狀其行。使其孫應錫求請余以銘其壻者。噫。余其忍銘定叔之壻邪。世之秉筆者不無其人。而猶以得余一言爲重者。豈不以余爲定叔友而知定叔平生者。亦莫余若也。噫。余其忍不銘定叔之壻邪。義不可辭。謹按其狀。定叔鶴洲人也。鶴洲之申。皆祖按廉使。其世系本末之所錄。則鶴沙金公已識於懶齋墓。

一〇二

矣。今不復著。定叔以穎悟之質。早得家庭之訓。其平生行已。無一不出於正。而惟以孝友爲百行之源。蚤歲喪其先妣。又喪其伯氏。終身悲慕。愈久不衰。事懶齋公盡誠敬。兄弟之間。怡怡如也。懶齋公嘗患痔。定叔侍其側。蚤夜不解帶。劑和烹飪。必躬必親。及其屬續之多。欲斷指用藥。爲子姪輩所尼。常以不得伸其至情。爲無涯之痛。懶齋累典州郡。素履清寒。定叔又不事產業。單瓢屢空。而處之裕如也。爲文無所不能。而尤長於駢儷。一時文士無出右者。懶齋公亦以青蘊之業託之。不幸以戚而亡。天將何以勸人子之孝乎。定叔以父任累階宣教郎。自號霞村散人。娶豐山金氏察訪昌祖之女。生三男五女。男長應錫。卽求銘者。次興錫。次幼。女三人已適人。士人鄭惟興。曹壽昌。金命賢其壻也。曹出二男。金出一女。內外子孫十一人。天將以是報定叔也邪。凡狀之所載如此。與余前所竊論者。實相發明。謹敘而并書之。系之以銘。銘曰。惟君家世孝友。德之載之其後。君承之勢欲振。執父喪殞厥身。而永歸藏於是。我爲文銘孝子。

伊溪集六

三五

伊溪散人自銘

散人降生萬曆庚申。南姓夢齋。字曰仲遵。自號伊溪。

伊溪集 卷六

續集卷之一 / 詩

방단애신방숙부우。류제벽상。 訪丹崖申方叔不遇。留題壁上

14世 전(傳) 父: 열도(悅道) 祖父: 흘(佺) 음파(邑派) 난재공파(懶齋公派)

P 丹崖霜葉染紅粧。菊老秋風水滿塘。閒趣此中如許足。問君何事更奔忙。

<p>伊溪先生續集卷一 十三</p>	<p>夢裏曾過百卉堂。平泉無主月荒涼。爭如綠水青山下。依舊仙家化日長。花樽客醉非中散。石徑僧歸是上房。早晚扁舟相訪處。更題風景也無妨。</p>	<p>輓李震明 六韻</p>	<p>每憶溪堂悼大時。一牀相對散餘悲。存亡半世君頭白。離別經年我鬢衰。書滯江山來者少。歌催薤露夢耶疑。金枝產藥家聲遠。鴈塔題名宅相宜。漬酒生菊何處奠。滿腔哀淚不勝垂。今歸必見南弘夏。細說孀娘護斗兒。</p>	<p>訪丹崖申方叔不遇留題壁上。</p>	<p>丹崖霜葉染紅粧。菊老秋風水滿塘。閒趣此中如許足。問君何事更奔忙。</p>	<p>呈金丈 尚琦</p>	<p>溪上孤村畫掩扉。夕陽林畔宿禽歸。幽懷獨向明僧話。四十年來百計違。</p>	<p>何處元宵好。次朱文公韻二首 在山寺時</p>	<p>何處元宵好。頭陀有髮僧。塵塵照心鏡。皎皎讀書燈。萬物萌初動。三陽意可憑。靜觀潛思地。邪念未曾興。何處元宵好。牕間獨宿人。凍瓶凝有水。寒簟淨無塵。說法仍思侶。觀心更覺神。應知片時夢。曾未到城闈。</p>
------------------------	-------------------------------------------------------------------------	----------------	---------------------------------------------------------------------------------------------------------	----------------------	-----------------------------------------	---------------	-----------------------------------------	---------------------------	---------------------------------------------------------------------------------------------------------



만호계신공 적도 輓虎溪申公 適道

13世 적도(適道) 父 : 흘(屹)      祖父 : 원록 (元祿)      읍파(邑派)      호계공파(虎溪公派)

聞說吾鄉又失公。壽躔仁宅一時空。二三小子於何考。九十光陰到此窮。篁館胡爲留夜月。薇亭無復襲春風。身縻海徼難奔走。千里緘詞愧素衷。

伊溪先生續集卷一		十八	
壁上韻以贈。			
走淤泥。能避焦焚之患。非白首乾沒東征。此遷者所可同日而語。不勝健羨。仍走次。			
歲暮南鄉處士居。敗荷殘菊盡無餘。寒塘猶有清漣水。留養神龜曳尾滋。			
谷城南畔竹西鄰。梧里君居夢到頻。無價買山閒是主。有錢沽酒醉呼賓。一生詩興仍成癖。數尾池魚夏近人。好笑磻溪垂釣老。暮年何事出經綸。			
輓虎溪申公適道			
聞說吾鄉又失公。壽躔仁宅一時空。二三小子於何考。九十光陰到此窮。篁館胡爲留夜月。薇亭無復襲春風。身縻海徼難奔走。千里緘詞愧素衷。			
次寄金敬始學基			
海風驅雨葉堆墻。遠樹微分曉色蒼。萬慮關心難了。一官輕意轉茫茫。思將邑俸輸醫藥。忍見村氓盡鬻桑。千世久知無妙策。不如歸去卧溪堂。			



續集卷之三 / 附錄

남정별어[신급] 南征別語[申級]

14世 급(級) 父: 열도(悅道) 祖父: 흘(伋) 음파(邑派) 난재공파(懶齋公派)

丙申八月之望。南子五馬之行。愁細雨於龍山。離思鬱結。掛片帆於漢浦。別魂悠揚。去路自然東西。人生長是離別。伏惟使君。清標玉峙。雅性蘭薰。妙年英聲。負個儻奇偉之志。立朝重望。抱仁民愛物之才。青瑣丹墀。佇見朝夕之啓沃。朱幡阜盖。旋膺令宰之榮光。爰擊節而辭朝。遂脂轄而出宿。睠彼任縣。實維名區。藹豪傑之雲興。人才府庫。兼形勝之天險。表裏山河。浮于海達于江。租賦充羨。登於山臨於水。觀覽無窮。南原纔二息程。身遊廣寒樓上。雲峯隔數疊岵。足躡大捷碑前。于時金風起而宵露溥。秋寒已緊。木葉黃而暮蟬咽。客意偏驚。官路南歸。雲樹積兩地之思。郵亭東望。煙霞生故鄉之悲。嗟乎。盈虛消息。尚覺造化之爲勞。歧路風塵。豈免離合之不定。所冀推赤心而置腹。若身之瘻。念蒼生而察眉。猶己之痛。循良擅譽。寧久十年之淮陽。冰蘖持身。可擢三司之顯秩。序何止也。詩以係焉。

遠客本多思。况復與君別。中宵耿不寐。空階秋雨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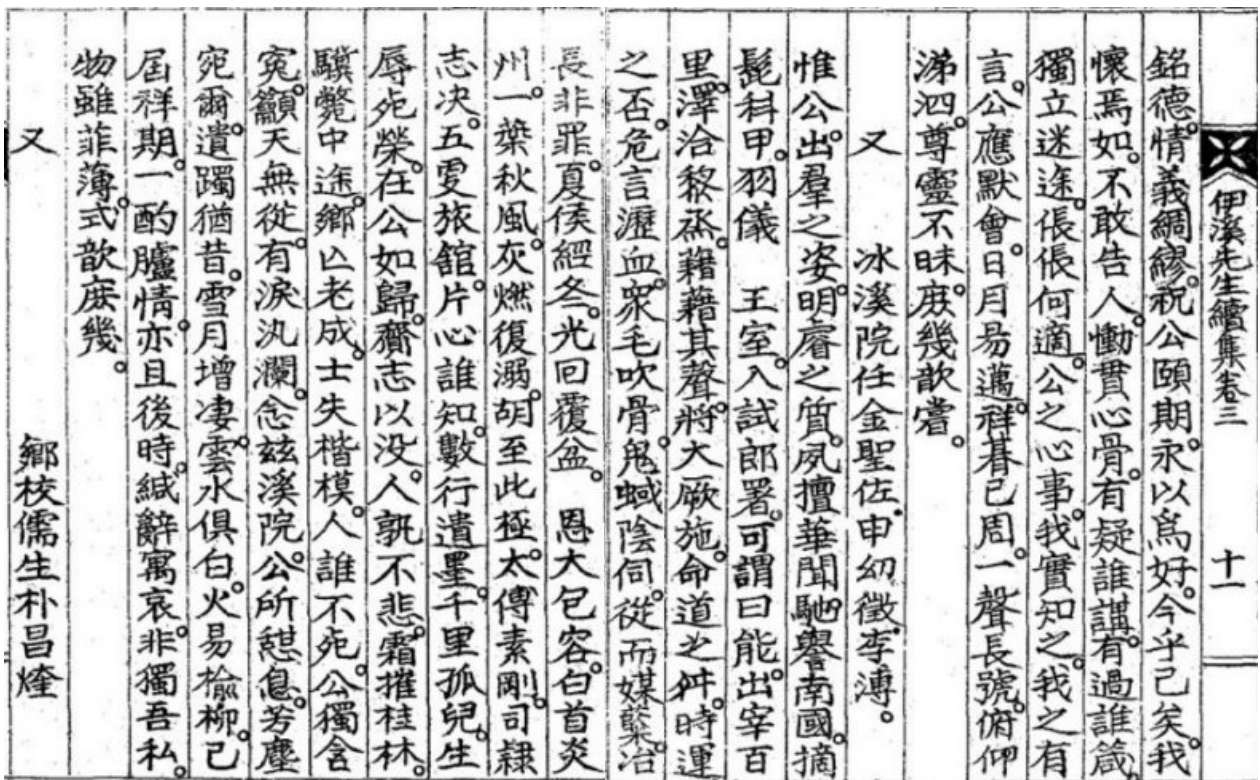


續集卷之三 / 附錄

제문 [빙계원임김성좌, 신유징, 이부] 祭文 [冰溪院任金聖佐, 申幼徵, 李溥

15世 유징(幼徵) 父 : 지경(之敬) 祖父 : 몽득(夢得) 귀파(龜派) 통덕랑공파(通德郎公派)

惟公。出羣之姿。明睿之質。夙擅華聞。馳譽南國。摘髭科甲。羽儀王室。入試郎署。可謂曰能。出宰百里。澤洽黎烝。藉藉其聲。將大厥施。命道之舛。時運之否。危言瀝血。衆毛吹骨。鬼蜮陰伺。從而媒孽。治長非罪。夏侯經冬。光回覆盆。恩大包容。白首炎州。一葉秋風。灰燃復溺。胡至此極。太傅素剛。司隸志決。五更旅館。片心誰知。數行遺墨。千里孤兒。生辱死榮。在公如歸。齋志以沒。人孰不悲。霜摧桂林。驥斃中途。鄉亡老成。士失楷模。人誰不死。公獨含冤。籲天無從。有淚汎瀾。念茲溪院。公所憇息。芳塵宛爾。遺躅猶昔。雪月增淒。雲水俱白。火易榆柳。已屆祥期。一酌臚情。亦且後時。緘辭寓哀。非獨吾私。物雖菲薄。式歆庶幾。



제문 천조시 [외손신이준] 祭文 遷厝時 [外孫申以浚]

16世 이준(以浚) 父 : 두석(斗錫) 祖父 : 전(搏) 음파(邑派) 난재공파(懶齋公派)

於乎。公之下世。于今二十七年矣。典形日遠。警欬莫接。孫又流寓南州。遠隔墳塋。不能以時省謁。恩負窮天。恨結極地。今以葬地不吉。將以舉遷厝之禮。而以是月九日啓墓。棺槨衣衾。一不渝色。縱未能盡更斂襲。開棺一慟。宛若復覩典刑而再聞警欬。愴感之情。追慕之誠。其何以自裁也。嗚呼。公有 P 邁倫之才幹時之局。少承先公教導之嚴。肆力博學。早年決科如摘髭。蓋將應時需而大展布也。不幸不容於內而見擯於州郡。雖到處有績。累蒙褒獎。曷足謂之普施也。畢竟遭時罔極。痛迫之懷。益復何如也。於乎。昔我先君。年十六贅于公門。公視若己出。授之以詩書。資之以衣食。先君遂築室于伊溪堂之側。居之殆二十年。以是小孫特荷撫育之恩。無間於親父母。第以中年先君挈而南渡。小孫兄弟迭相來往侍側公。晝則口授書史。夜則呼韻命步。一日有鄰人月下吹笛。小孫承命口號。公 P 喜甚曰此兒於詩。頗有步驟。到今四十而無聞。嘗竊以爲公若在世訓迪。則必不如是碌碌也。可勝歎哉。公居官。清儉自律。不以一塵自染。以我母氏窮無所歸。本邑田庄。必以專委。我母不敢盡私。以糊口之餘。買若干田土。歸之我舅氏。公不喜曰無爲我子孫計。己未春。朝廷擬公以鴻臚。公不樂城市。卽求外補善山。小孫自永陽往拜衙軒。公命之前。執手驚喜。溫語慰來。而小孫嚴威不敢仰視。蓋公居家則神色和悅。臨政則頗整肅故也。一日公搔首曰白首爲吏。殊不如歸卧溪堂。孫至今不忘 P 斯語。益知公素心不在於軟紅鷄肋。而終不免於世罔。吁亦慟哉。公平日剛介自守。不肖隨俗俯仰。故世之知公者鮮。而或有情外之謗。雖青蠅之點。未害於良玉。而末俗囂囂。亦云險矣。謂之何哉。於乎。公雖不遇於世。諸孫各有子女。充堂而衍宇。又能學詩禮。以世其家。天之未報于公身者。其將裕之於後耶。小孫既受罔極之恩於公。改葬之日。豈不欲盡誠於奠酌。而新接草創。窮乏日甚。單杯薄具。物不稱情。公或默認於冥冥中矣。於乎。故山之明月尙留。溪上之清風不盡。而公不眷係于此。佳 P 城乍開而還閉。型範再邇而復遠。攀櫬號叫。靡所逮及。柰何柰何。於乎。言有盡而情不可窮。

### 祭文[外曾孫申震標]

17世 진표(震標) 父 : 이제(以濟) 祖父 : 두석 (斗錫)

읍파(邑派)난재공파(懶齋公派)

P 嗚呼。公之捐館。一紀將匝。年代已邈。九原難作。渺茲晚出。承顏無因。公之懿行。粗聞于人。剛介之操。可範頽俗。博洽之文。亦宜華國。遭時罔極。抱冤而沒。凡厥聽聞。孰不嗟惜。况在孫曾。傷慟何極。隔世追慕。警欬靡接。時一念之。祇自沾纓。矧余私悃。寔百恒情。昔者先君。少育于公。恩斯勤斯。鞠之懷中。衣之食之。長於膝下。雖云外孫。義同生我。大恩未報。公已下世。先君不幸。又至早逝。孤露餘生。號叫無逮。語及前事。淚



盡血繼。今因改窆。佳城再發。衣冠宛然。典刑如昨。攀櫬一慟。心腸欲裂。曾未幾日。復就窆。單盃薄奠。詎盡微誠。公若有知。冀鑑虫鳴。嗚呼哀哉。

已迫。淒涼几案。寂寞軒屏。儀形從此而永隔。德音何時而可承。於乎。庭梅依舊。溪柳宛然。物猶是也。人歸何處。書不盡意。公其知耶否耶。

又遷厝時

外孫申以浚

於乎。公之下世。于今二十七年矣。典形日遠。馨歎莫接。孫又流寓南州。遠隔墳塋。不能以時省謁。恩負窮天。恨結極地。今以葬地不吉。將以舉遷厝之禮。而以是月九日啓墓。棺槨衣衾。一不渝色。縱未能盡夏斂。襲開棺一慟。宛若復親典刑。而再聞馨歎。愴感之情。追慕之誠。其何以自裁也。嗚呼。公有

伊溪先生續集卷三

十五

邁倫之才。幹時之局。少承先公教導之嚴。肆力博學。早年決科。如摘髭。蓋將應時需。而大展布也。不幸不容於內。而見擯於州郡。雖到處有績。累蒙褒獎。曷足謂之普施也。畢竟遭時罔極。痛迫之懷。益復何如也。於乎。昔我先君年十六。贅于公門。公視若己出。授之以詩書。資之以衣食。先君遂築室于伊溪堂之側。居之殆二十年。以是小孫特荷撫育之恩。無間於親。父母第以中年先君挈而南渡。小孫兄弟迭相來往侍側。公晝則口授書史。夜則呼韻命步。一日有鄰人月下吹笛。小孫承命口號。公

伊溪集 續集 卷三

喜甚曰。此兒於詩。頗有步驟。到今四十而無聞。嘗

竊以為公若在。世訓迪則必不如是碌碌也。可勝歎哉。公居官清儉自律。不以一塵自染。以我母氏窮無所歸。本邑田庄。必以專委。我母不敢盡私。以糊口之餘。買若干田土。歸之我舅氏。公不喜曰。無為我子孫計。已未春。朝廷擬公以鴻臚。公不樂。城市。即求外補善山。小孫自永陽往拜衙軒。公命之前。執手驚喜。溫語慰來。而小孫嚴威不敢仰視。蓋公居家則神色和悅。臨政則頰整肅故也。一日公搔首曰。白首為吏。殊不如歸卧溪堂。孫至今不忘

伊溪先生續集卷三

十六

斯語。益知公素心不在於軟紅。鷄肋而終不免於世罔。吁亦慟哉。公平日剛介自守。不冒隨俗俯仰。故世之知公者。鮮而或有情外之謫。雖青蠅之點。未害於良玉。而末俗囂囂。亦云險矣。謂之何哉。於乎。公雖不過於世。諸孫各有子女。克堂而行字。又能學詩禮。以世其家。天之未報于公身者。其將裕之於後耶。小孫既受罔極之恩。於公改葬之日。豈不欲盡誠於奠酌。而新接草創。窮乏日甚。單杯薄具。物不稱情。公或默認於冥冥中矣。於乎。故山之明月尚留。溪上之清風不盡。而公不眷係于此。佳

一五五



城乍開而還閉。型範再遁而復遠。攀擗號叫。靡所逮及。奈何奈何。於乎。言有盡而情不可窮。

又

從弟良賚

於乎。公何歸乎。穹昊冥茫。冥茫寥漠。緊道難詳。天耶人耶。勸之何極。謂之天也。天不可必。謂之人也。人之不淑。何豐而賦。何奮其施。九闕莫通。怨毒其深。昔公妙年。早登文科。家聲振揚。門戶增華。筮仕登朝。歷典州邑。故無疵疵。治有異績。往在己未。作宰惡鄉。志存糾惡。威制豪強。秋毫無犯。行李蕭然。歸卧林泉。若將終焉。如何物忤。白玉求玼。覆盆難

伊溪先生續集卷三

十七

照其冤誰知。路出帶方。惠我契托。那意一夜。精沉響絕。時耶命耶。慟悼莫追。奉柩還家。行路悽其。於乎。慟哉。端直無諂。公之天性。懷貞抱潔。公之稟命。遭世罔極。逢此百罹。惟彼浮言。百車何垢。洞徹見幾。餘波恐浼。含笑入地。死而無悔。公之於我。視猶同氣。寒暑以衣。有無以資。凡有行違。公即糾之。凡有非義。公即警之。今而失公。誰正誰察。言念及此。五內摧裂。悠悠此夜。儀形永闕。不昧者存。庶賜歆佑。

又

外曾孫申震標

嗚呼。公之捐館。一紀將匝。年代已逝。九原難作。泐玆晚出。承顏無因。公之懿行。粗聞于人。劉介之操。可範頽俗。博洽之文。亦宜華國。遭時罔極。抱冤而沒。兀厥聽聞。孰不嗟惜。況在孫曾。傷慟何極。隔世追慕。警歎靡接。時一念之。祇自沾纓。矧余私悃。寔百恒情。昔者先君。少育于公。恩斯勤斯。鞠之懷中。衣之食之。長於膝下。雖云外孫。義同生我。太恩未報。公已下世。先君不幸。又至早逝。孤露餘生。號叫無逮。語及前事。淚盡血繼。今因改空。佳城再發。衣冠宛然。典刑如昨。攀擗一慟。心腸欲裂。曾未幾日。復就窀穸。單盃薄奠。詎盡微誠。公若有知。冀鑑虫鳴。嗚呼哀哉。

伊溪先生續集卷三

十八

行狀

公諱夢賚。字仲遵。姓南氏。英陽人。高麗密直副使諱君甫之後也。密直六世有叅判諱敏生。又四世有進士諱龜壽。進士。判決事諱應震。判決事生佐郎諱樞。佐郎為叅判七世孫諱灝之子。諱蓋忠後生。通仕郎諱海準。於公為高曾祖考也。妣安東權氏。高麗太師諱幸之後。吏曹判書諱輓之曾孫。贈叅判諱安世之孫。直長諱誌之女也。萬曆庚

## 인재선생문집(訥齋先生文集)

### 형태서지

권수제	인재선생문집(訥齋先生文集)
판심제	訥齋集
간종	목판본(木版本)
간행년	1778年刊
권책	原集 13卷, 別集 2卷, 拾遺, 年譜, 附錄 합 9책
행자	10행 21자
규격	22×16.2(cm)
어미	上下二葉花紋魚尾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도서번호	규장각 : 古3428-682, 국립중앙도서관 : 한46-가1149
총간집수	한국문집총간 67

### 저자

성명	최현(崔暉)
생년	1563년(명종 18)
몰년	1640년(인조 18)
자	계승(季昇)
호	인재(訥齋)
본관	전주(全州)
시호	정간(定簡)
특기사항	김성일(金誠一), 정구(鄭逵)의 문인. 이윤우(李潤雨), 노경임(盧景任)과 교유

행력

왕력	서기	간지	연호		연령		기사
명종	18	1563	계해	嘉靖	42	1	6월 10일, 善山府 海平縣 松山 私第에서 태어나다.
선조	3	1570	경오	隆慶	4	8	杜谷 高應陟에게 수업하다.
선조	4	1571	신미	隆慶	5	9	8월, 모친상을 당하다.
선조	8	1575	을해	萬曆	3	13	金烏書院에서 공부하다.
선조	14	1581	신사	萬曆	9	19	봄, 臨河에서 鶴峯 金誠一을 뵈고 수업을 청하다. ○ 7월, 義城金氏와 혼인하다.
선조	20	1587	정해	萬曆	15	25	2월, 부인 金氏의 상을 당하다.
선조	21	1588	무자	萬曆	16	26	3월, 生員試에 합격하다. ○ 昌寧曹氏와 혼인하다.
선조	22	1589	기축	萬曆	17	27	6월, 부친상을 당하다.
선조	25	1592	임진	萬曆	20	30	봄, 金吾郎에 추천되다. ○ 여름, 왜란이 일어나자 義兵을 일으켜 盧景任을 義兵將으로 삼고 자신은 掌書가 되다. ○ 8월, 義城으로 피난하다. ○ 9월, 右巡察 鶴峯先生에게 편지를 올려 방어책을 논하다. ○ 12월, 부인 曹氏의 상을 당하다.
선조	26	1593	계사	萬曆	21	31	1월, 金谷에서 지내다. ○ 載寧李氏와 혼인하다. ○ 鶴峯先生을 곡하다.
선조	27	1594	갑오	萬曆	22	32	1월, 巡察 韓孝純에게 글을 올려 善山에 屯田을 설치하도록 청하다. ○ 〈琴生異聞錄〉이 완성되다.
선조	28	1595	을미	萬曆	23	33	〈友愛箴〉을 짓다.
선조	29	1596	병신	萬曆	24	34	1월, 體察使 李元翼에게 편지를 올려 三綱九目を 진달하다.
선조	30	1597	정유	萬曆	25	35	1월, 體府 從事官 金涌에게 편지를 보내 山城에 木柵을 설치할 계책을 논하다. ○ 健齋 朴遂一을 뵈고 先妣 李氏를 上林에 改葬하다.
선조	31	1598	무술	萬曆	26	36	2월, 健元陵 參奉이 되다. ○ 王子師傅에 擬望되다. ○ 南還하여 九條疏를 올린다. ○ 9월, 典牲署 參奉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선조	33	1600	경자	萬曆	28	38	1월, 郭再祐에게 편지하여 방어책을 논하다.
선조	36	1603	계묘	萬曆	31	41	4월, 朝命으로 「亂中雜錄」을 撰輯하다.
선조	37	1604	갑진	萬曆	32	42	李彥迪을 伸辨하는 疏를 올린다.
선조	39	1606	병오	萬曆	34	44	9월, 文科에 丙科로 합격하다.
선조	40	1607	정미	萬曆	35	45	3월, 薦學로 藝文館 檢閱에 제수되다. ○ 7월, 사직소를 올리고 고향으로 내려가다. ○ 10월, 「杜谷先生遺

인재선생문집(訥齋先生文集) 최현(崔峴)

							集」을 찬수하다.
선조	41	1608	무신	萬曆	36	46	2 월, 待敎가 되다. ○ 3 월, 說書가 되다. ○ 5 월, 정언이 되다. ○ 〈九知銘〉을 짓다. ○ 8 월, 冬至使 書狀官으로 중국에 가다.
광해군	1	1609	기유	萬曆	37	47	5 월, 張顯光을 찾아 뵙고 「周易」과 「太極圖說」을 강하다. ○ 10 월, 정언에 제수되었으나 길에서 呈狀하여 체차되다. ○ 12 월, 不知巖에서 泗水로 가서 寒岡先生을 뵙고 書院入享事와 喪禮諸條를 논하다.
광해군	2	1610	경술	萬曆	38	48	2 월, 지평이 되다. ○ 실록청 검춘추가 되다. ○ 4 월, 弘文錄에 들다. ○ 5 월, 평안도 암행어사로 나가다. ○ 10 월, 體府 從事官이 되다. ○ 12 월, 舟師勾管司 從事官에 차임되다.
광해군	3	1611	신해	萬曆	39	49	2 월, 辭朝하고 南下하다. ○ 洗兵館에서 統制使 李慶濬과 兵事를 논하다. ○ 6 월, 玉山에 이르러 晦齋先生 사당을 배알하다. ○ 11 월, 鏡城 判官에 제수되었으나 곧 체직되다.
광해군	4	1612	임자	萬曆	40	50	2 월, 실록청 검춘추가 되다. ○ 3 월, 舟師 從事官으로서 兩南 巡撫御史를 겸하다. ○ 10 월, 수찬이 되다. ○ 11 월, 鳥嶺 主屹山城 巡審御史가 되어 聞慶에 내려가 山城의 형세를 살피다. ○ 부교리가 되다. 비변사의 鳥銃廳 都廳을 겸하다.
광해군	5	1613	계축	萬曆	41	51	3 월, 시강원 문학이 되다. ○ 4 월, 정언이 되다. ○ 5 월, 피험하고 그날로 富平에 우거하다. ○ 7 월, 고향으로 돌아오다. ○ 12 월, 金溪에 있으면서 「鶴峯先生言行錄」을 찬집하다.
광해군	6	1614	갑인	萬曆	42	52	1 월, 金溪에 머물면서 「鶴峯先生遺集」을 校讎하다. ○ 11 월, 「冶隱先生行錄」 및 「杜谷先生遺集」을 校讎하다.
광해군	7	1615	을묘	萬曆	43	53	9 월, 부인 李氏의 상을 당하다.
광해군	8	1616	병진	萬曆	44	54	1 월, 尋源에 가서 머물다. ○ 9 월, 還鄉하다.
광해군	10	1618	무오	萬曆	46	56	〈一善誌〉를 완성하다.
광해군	11	1619	기미	萬曆	47	57	4 월, 寒岡을 뵙고 鶴峯 行狀을 考訂하다. ○ 7 월, 靑松 椒井에서 無語坪으로 돌아오다.
광해군	12	1620	경신	泰昌	1	58	1 월, 寒岡을 뵙다.
인조	1	1623	계해	天啓	3	61	3 월, 反正이 일어난 뒤 수찬이 되다. ○ 8 월, 응교가 되다. 이후 司藝, 사도시 정, 사인, 집의, 응교, 사성, 보덕을 역임하다.
인조	2	1624	갑자	天啓	4	62	1 월, 體府 從事官이 되다. ○ 지제교, 춘추관 편수관



							이 되다. ○ 사인이 되다. ○ 摠戰御史가 되다. ○ 7 월, 병조 참지를 거쳐 동부승지가 되다. ○ 10 월, 대사간 이 되다. ○ 11 월, 병조 참지가 되다. ○ 12 월, 呈辭하고 還鄕하다.
인조	3	1625	을축	天啓	5	63	봄, 형조 참의를 거쳐 예조 참의, 대사성, 부제학이 되다. 八務箚를 條陳하다. ○ 대사성 겸 승문원 부제 조가 되다.
인조	4	1626	병인	天啓	6	64	2 월, 우부승지를 거쳐 좌부승지가 되다. ○ 延慰使가 되어 定州에 가다. ○ 8 월, 강원도 관찰사가 되다.
인조	5	1627	정묘	天啓	7	65	오랑캐가 平山에 들어오자 漢江을 防守하고 道內에 檄文을 띄워 義兵을 일으키다. ○ 龍骨山城의 義兵將 鄭鳳壽에게 軍需를 보내어 돕다.
인조	6	1628	무진	崇禎	1	66	會寧에 유배되었다가 특명으로 放還되다.
인조	8	1630	경오	崇禎	3	68	거울, 무함을 받아 감옥에 갇혔으나, 곧 특명으로 석 방되다.
인조	10	1632	임신	崇禎	5	70	「東國通鑑」을 저술하다.
인조	14	1636	병자	崇禎	9	74	12 월, 淸兵이 쳐들어오자 고향에서 義兵을 일으키 다.
인조	15	1637	정축	崇禎	10	75	1 월, 軍旅를 정돈하여 聞慶 杜谷에 진을 치다. ○ 3 월, 아들 崔山輝를 뜻하다. 張顯光을 곡하다.
인조	18	1640	경진	崇禎	13	78	6 월 4 일, 金山 鳳溪의 別墅에서 卒하다. ○ 8 월, 예조 판서에 贈職되다. ○ 9 월, 善山 默語坪으로 返葬되다.
숙종	33	1707	정해	康熙	46	-	4 월, 鄉人이 松山에 社를 세워 位版을 봉안하다.
영조	52	1776	병신	乾隆	41	-	9 월, 松山社를 昌林洞으로 移建하다. ○ 李象靖이 行 狀을 짓다.
정조	2	1778	무술	乾隆	43	-	6 대손 崔光璧이 三治堂에서 문집을 간행하다.(崔光 璧의 後識)
정조	9	1785	을사	乾隆	50	-	6 대손 崔光璧이 續集을 간행하다.(李獻慶의 續集序)

### 편찬및간행

저자의 시문이 편찬, 간행된 경위는 6 대손 崔光璧이 적은 後識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유고는 家禍로 散佚되고 또 몇 권의 手稿도 화재로 소실되었다. 이에 族孫 崔象乾·崔斗南이 代를 이어 遺稿를 모았으나 책을 이루지는 못하였다. 그 후 5 대손 崔壽頤 등이 여러 일가에 소장되어 있던 유고를 모아 비로소 草稿를 만들어 成編하고, 權斗寅과 權斗經의 校正을 받았다. 이어 권두인에게 墓碣銘을, 권 두경에게 跋文을 받았으나 서문이 없어 간행하지 못하였다. 그 시기는 權斗經의 跋文이 지어진 1718 년 (숙종 44)경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후 6代孫 崔光璧을 비롯한 族人들이 재차 간행을 도모하여 財源을 마련하고, 이미 만들어진 定稿本을 바탕으로 淨寫하여 李象靖, 蔡濟恭, 丁範祖에게 질정을 받는가 하면 李象靖에게 行狀을, 蔡濟恭에게 神道碑銘과 序文을, 丁範祖에게 墓誌銘과 序文을 부탁하여 받았다. 또한 여러 族人의 집안에서 찾아낸 手本 日記 등을 바탕으로 經筵講義 및 年譜를 만들고, 關西錄 1 권, 逸稿 2 권과 함께 李象靖과 朴孫慶에게 질정을 받았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편차를 마쳐 原集 13 권, 別集 2 권, 拾遺 1 권, 年譜 1 권, 附錄 1 권 합 18 권으로 만들어 1778 년(정조 2)에 三治堂에서 목판으로 開刊하고 고을 士林들의 도움을 받아 4 개월 만에 완성하였다. 《초간본》 「鑲板考」에 의하면 본집의 판목이 善山の 松山書院에 소장되어 있었는데, 문집 간행이 저자의 세거지인 善山の 族人들에 의해 완료된 뒤 저자가 배향된 松山書院에 판목이 보관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규장각(古 3428-682), 국립중앙도서관(한 46-가 1149)에 소장되어 있는데, 규장각 장본에는 年譜와 附錄이 빠져 있다.

7년 뒤인 1785년(정조 9)에는 또 崔光璧에 의해 續集이 간행되었는데, 朝天錄과 初刊에 누락되었던 詩文을 모아 7 권 3 책으로 만들어졌고 李獻慶이 序文을 썼다. 《속집》 권 1~5는 朝天錄이고, 권 6은 朝天 때의 呈文, 狀啓, 中原禁物, 書冊禁物, 中原物價, 所經路呈이며, 권 7은 拾遺로 詩, 書, 序, 雜著, 祭文과 附錄이다. 이 속집은 현재 誠庵古書博物館(4-898), 계명대학교 중앙도서관(오 811. 081)에 소장되어 있다. 본서의 저본은 1778년 간행된 초간본으로, 원집과 별집은 규장각장본이고 연보와 부록은 국립중앙도서관장본이다.

序(丁範祖, 蔡濟恭 撰), 跋(權斗經 撰), 後識(崔光璧 撰), 續集序(李獻慶 撰)에 의함

## 구성과내용

본 문집은 原集 13 권, 別集 2 권 拾遺, 年譜, 附錄으로 구성되어 있다.

原集은 권수에 1775년에 쓴 丁範祖의 序와 1778년에 쓴 蔡濟恭의 序가 실려 있고, 이어 目錄이 있다. 권 1은 詩 128題와 敎文 4 편이다. 詩는 크게 오언시(28), 칠언시(52), 만시(48)의 차례로 편차되어 있고, 각기 절구, 율시, 고시의 순으로 실려 있다. 여러 곳에 자세한 自序가 실려 있고, 編者註도 달려 있다. 맨 앞에 晦齋先生의 遺宅을 지나며 지은 <澄心臺>(1594)와 不知巖에 들러 旅軒先生을 만나 지은 <次張旅軒韻>(1617)을 실어 尊師의 의미를 두었다. 1608년 冬至使 書狀官 때 지은 <過首陽山有感>과 <山海亭詠懷>, 1611년 舟師 從事官으로 全州를 지나며 지은 <威鳳寺有感>, 1620년 西厓先生의 꿈을 꾸고 지은 <記夢見西厓先生> 등이 있고, 輓詩는 鄭宗溟, 鄭經世, 張顯光, 鄭逵 등에 대한 것이다. 敎文은 1610년 知製敎, 1623년 舍人, 1624년 兵曹 參知로서 지어 올린 교문들이다.

권 2~5는 疏, 筭子, 啓, 書啓, 狀啓이다. 疏는 1598년 고향에 물러나 있으면서 올린 <陳時務九條疏> 이하 15 편이 연대순으로 편차되어 있고, 맨 끝에 1624년에 逆賊의 供招에서 이름이 나왔다 하여 올린 <兵曹參知時原情疏>가 있다. 筭子는 交河 遷都를 반대하며 올린 4 편의 玉堂筭子가 앞쪽에 있고, 그 뒤로 玉堂과 司諫院 시절 올린 차가 5 편이 있다. 啓는 1613년 正言 시절 올린 避嫌啓부터 1626년 承旨로서 올린 계사까지 8 편이 연대순으로 실려 있다. 書啓는 1608년 冬至使 書狀官으로 중국에 갔을 때 別單으로 올린 1 편이다. 狀啓는 1627년 江原 監司 시절 丁卯胡亂을 당하여 올린 4 편이다.

권 6~7 앞부분은 講義이다. 1608년(선조 41) 4월부터 5월 사이에 행한 書筵講義와 1623년(인조 1) 4월, 5월, 6월, 10월과 1624년 7월부터 9월 사이에 행한 經筵講義에 대한 일기 형식의 글이다. 이는 후손 崔光璧이 手本日記 등을 찾아 정리한 부분이다.

권 7~9 앞부분은 書 28 편이다. 대표적인 서찰로 1592년 9월에 右巡察使 鶴峯 金誠一에게 보낸 편지와 1600년 兵使 郭再祐에게 보낸 편지가 맨 앞쪽에 편차되어 있고, 그 뒤로 다시 왜란 기간 중 金誠一, 朴晉, 韓孝純, 李元翼 등에게 보낸 편지와 1596년 이후 曹友仁, 鄭仁弘, 尹文學, 朴愷, 金長生, 鄭經世 등에게 보낸 편지가 있다.

권 9~13은 雜著(18), 序(4), 記(7), 跋(5), 箴(1), 銘(1), 箋(2), 祝文(2), 祭文(26), 墓碣(4), 墓誌(6), 行錄(4)이다. 雜著는 앞쪽에 1603년 亂後 事蹟을 찬집할 때 道內에 通文한 글과 1604년 善山의 月巖書院 건립을 위해 一鄕에 통문한 글, 왜란 때 開寧의 義兵을 일으키며 지은 통문이 실려 있고, 檄文, 書, 論, 呈文, 遺書 등 다양한 글이 있다. 跋은 「寒岡集」, 「杜谷集」에 대한 跋 등이며, 祭文은 丹山과 月巖書院 奉安文과 金誠一, 鄭述, 高應陟 등에 대한 제문이다. 行錄은 先考, 杜谷 高應陟, 鶴峯 金誠一의 言行錄 등이다.

別集은 2 권으로, 앞에 目錄이 있다.

권 1은 關西錄이다. 1610년(광해군 2) 平安道 暗行御史 시절 지은 狀啓, 書啓 등을 모아 놓은 것이다. 권 2는 書啓와 狀啓이다. 원집에서 누락되었던 3편을 실어 놓았는데, 1612년 巡審御史로서 赤裳山城을 살피고 나서 올린 書啓, 1608년 冬至使 書狀官으로 갔을 때와 1624년 李适의 난을 평정하고 올린 狀啓이다.

拾遺는 원집과 별집에 빠진 글들을 다시 모은 것인데, 앞에 目錄이 달려 있고 詩 3수, 書 2편, 事蹟이 실려 있다. <嘲鄭仁弘> 詩와 <答鄭仁弘書> 등 鄭仁弘을 배척하였음을 나타내는 글과 <三仁事蹟>으로 籠巖 金澍, 丹溪 河緯地, 耕隱 李孟專 등 月巖書院에 봉안된 세 선생의 事蹟이다.

끝에 1718년 權斗經이 지은 跋과 1778년 崔光璧이 初刊 때 지은 後識가 있다.

그 뒤에 年譜와 附錄으로 李象靖이 지은 行狀(1776), 權斗寅이 지은 墓碣銘(1716), 蔡濟恭이 지은 神道碑銘(1778), 丁範祖가 지은 墓誌銘(1775), 기타 仁祖의 賜祭文, 祭文, 挽詞가 실려 있다.

## 최현(崔暉)

### 정의

조선시대 형조참의, 부제학, 강원도관찰사 등을 역임한 문신.

### 개설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계승(季昇), 호는 인재(訥齋). 최이회(崔以淮)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최치운(崔致雲)이고, 아버지는 최심(崔深)이며, 어머니는 동래정씨(東萊鄭氏)로 정희좌(鄭熙佐)의 딸이다.

### 생애 및 활동사항

구(鄭述)·고응척(高應陟)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켜 도처에서 공을 세웠고, 1598년 그 공으로 원릉참봉(元陵參奉)이 되었다. 1606년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1608년 예문관대교에 제수되었다.

같은 해 동지사(冬至使)의 서장관(書狀官)으로 명나라에 가서 진상용

『대학연의(大學衍義)』, 『소대전칙(昭代典則)』을 가져 왔고, 1612년(광해군 4) 실록청 검 춘추관에 들어가 『선조실록』 편수에 참여하였다.

1623년 인조반정 후 홍문관수찬에 임명되었고, 이듬해 예부종사관을 거쳐  
형조참의·부제학·강원도관찰사에 이르렀다. 1627년 횡성사람 이인거(李仁居)의 모반에 관련되었다는  
혐의를 받고 투옥되었으나 왕의 특명으로 곧 석방되었다.

숙종 때 선산의 송산서원(松山書院)에 제향되었고, 저서로는 『인재집』이 있다. 예조판서에 추증되었고,  
시호는 정간(定簡)이다.

卷之一 / 詩

신장령형보 달도 만 申掌令亨甫 達道 輓

13世 달도(達道) 父 : 흘(屹) 祖父 : 원록(元祿) 음파(邑派) 만오공파(晩悟公派)

靑氈惟孝友。舊物非贏金。根深葉自茂。鬱鬱三槐陰。惟君振家聲。弟兄聯朝簪。行誼孚一  
國。豈獨鄉隣欽。南州頌遺惠。柏府聆鳳音。將期展驥足。庶盡君民忱。中途忽摧折。天意  
誠難諶。搢紳惜云亡。士友共霑襟。孰不哀痛極。老我尤不禁。追思亂離瘼。携我城洞林。  
姨母子視我。 姨兄同枕衾。新池又同室。對榻同苦吟。在世有幾親。寧不雙淚淫。知君誠  
意到。托此平生心。嗚呼誰復仗。四顧雲沈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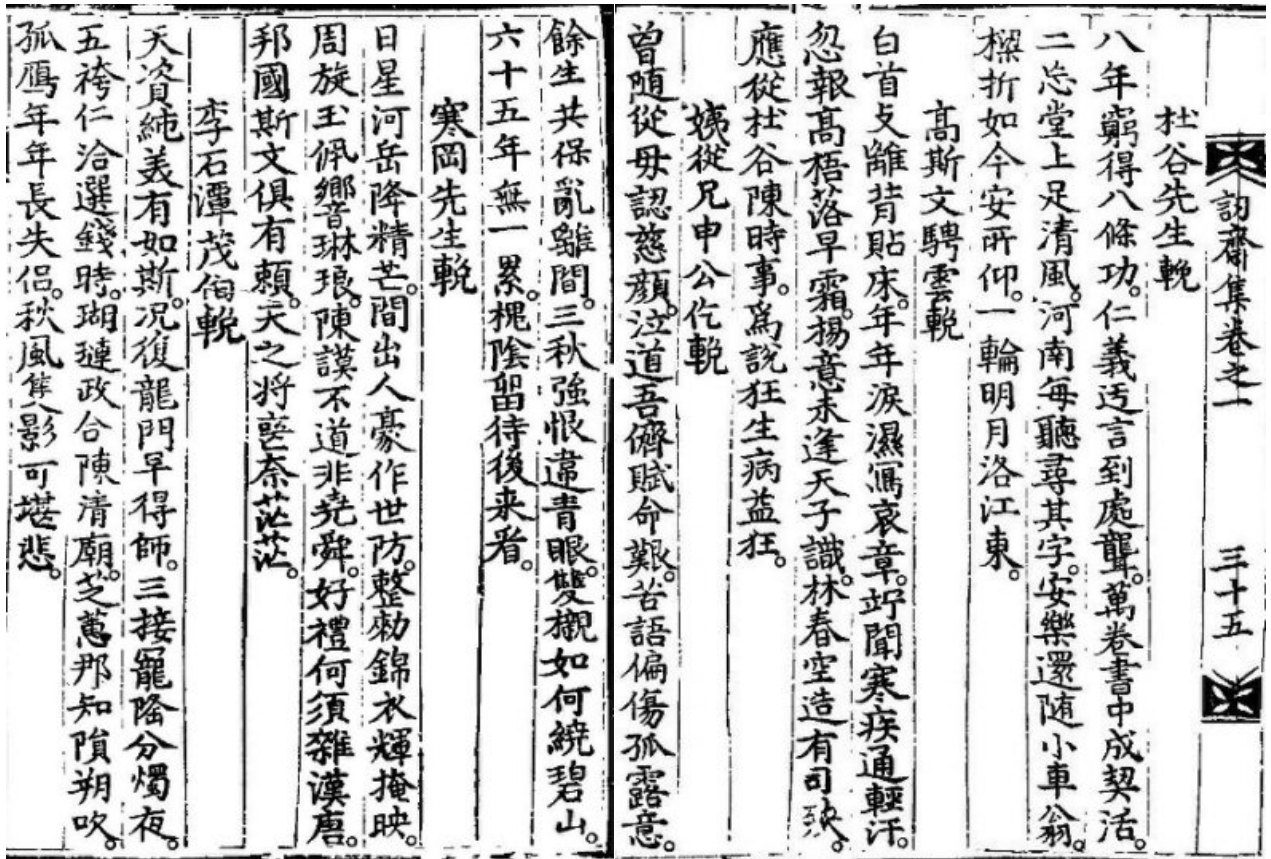




이종형신공흘만 姨從兄申公屹輓

12世 흘(屹) 父 : 원록(元祿) 祖父 : 수 (壽) 읍파(邑派)

曾隨從母認慈顏。泣道吾儕賦命艱。苦語偏傷孤露意。餘生共保亂離間。三秋強恨違青眼。雙櫬如何繞碧山。六十五年無一累。槐陰留待後來看。



卷之十二 / 祭文

제이종형처사신공 흘 문 祭姨從兄處士申公 乞 文

12世 흘(乞) 父 : 원록(元祿) 祖父 : 수 (壽) 음파(邑派)

嗚呼。聞韶之申。按廉耳孫。世篤誠孝。詩禮傳門。至于陶巖。寔我姨舅。學慕先哲。鄉稱孝友。種德莫施。天奪其壽。惟我從母。克配君子。睦族慈幼。厚人約己。嗚呼我兄。稟此純美。溫恭愷悌。念絕驕吝。不雕不琢。良玉自潤。何修何飾。天賦能全。錫類如此。敬矣其先。贏金何貴。厚遺青氈。我命奇夔。幼失慈天。既覲從母。宛在母前。追想言貌。有淚漣漣。孤露此生。兩家同然。相弔悲切。中心戚戚。越在龍蛇。遭時孔棘。提携共避。林藪川谷。死生患難。情愛日篤。升沈晚歲。閑忙異路。優遊養痾。兄自固守。日暮道窮。我獨窘步。自貽伊阻。怒焉如擣。今歲仲春。相對草草。二兄鼎坐。慰余勞苦。兩家兄弟。惟我三人。白首久別。寧不沾巾。隰有香藪。江有脩鱗。可採可釣。娛我情親。遠處苦念。餘生幾日。那知斯語。是爲訣別。兄暨賢嫂。生同庚戌。宜爾樂爾。友以琴瑟。尚遠偕老。奄成同穴。兩喪先後。只隔數月。哀姪馳書。兄病忽劇。奔走來救。踵門聞哭。及嫂同殯。五土山麓。嗚呼。以兄淳慤。命何窮厄。以兄靜厚。壽何偏嗇。天道何舛。使人疑惑。仁必有後。吾聞其說。王氏之門。槐陰鬱鬱。不祿不壽。有待後日。想兄平日。壘篋和悅。至老愈篤。不忍暫離。伯兄在此。舍而何之。嗚呼。端良之性。敦素之質。溫雅之懷。和順之色。痛哉痛哉。永不可覲。牛岡在南。青烏既卜。丹旆雙飛。異棺同槨。萬事已矣。一枕青山。夫我何悲。兄所安兮。

脚蹉跌欲進未得。餘馥薰心。時覺有益。嗚呼已矣。誰與爲適。今歲之春。駕言立巖。蓬廬信宿。喜奉征衫。將隨東路。對壑講庵。耄癯餘喘。如草猶甘。卜日將發。余陷私眼。哭子未奠。二豎侵毒。沉綿半歲。遂闕問牘。疾不問藥。飲不奔哭。靈輒卽速。又孤匍匐。人生到此。遺恨難贖。代奠蕉黃。詐盡衷情。靈其不昧。鑑此微誠。

祭姨從兄處士申公 乞 文

嗚呼。聞韶之申。按廉耳孫。世篤誠孝。詩禮傳門。至于陶巖。寔我姨舅。學慕先哲。鄉稱孝友。種德莫施。天奪其壽。惟我從母。克配君子。睦族慈幼。厚人約己。嗚呼我兄。稟此純美。溫恭愷悌。念絕驕吝。不雕不琢。良玉自潤。何修何飾。天賦能全。錫類如此。敬矣其先。贏金何貴。厚遺青氈。我命奇夔。幼失慈天。既覲從母。宛在母前。追想言貌。有淚漣漣。孤露此生。兩家同然。相弔悲切。中心戚戚。越在龍蛇。遭時孔棘。提携共避。林藪川谷。死生患難。情愛日篤。升沈晚歲。閑忙異路。優遊養痾。兄自固守。日暮道窮。我獨窘步。自貽伊阻。怒焉如擣。今歲仲春。相對草草。二兄鼎坐。慰余勞苦。兩家兄弟。惟我三人。白首久別。寧不沾巾。隰有香藪。江有脩鱗。可採可釣。娛我情親。遠處苦念。餘生幾日。那知斯語。是爲訣別。兄暨賢嫂。生同庚戌。



成。宜爾樂爾。友以琴瑟。尚遠偕老。奄成同穴。兩恠先後。只隔數月。哀姪馳書。兄病忽劇。奔走來救。踵門聞哭。及嫂同殯。五士林麓。嗚呼。以兄淳慤。命何窮厄。以兄靜厚。壽何偏嗇。天道何忤。使人疑惑。仁必有後。吾聞其說。王氏之門。槐陰鬱鬱。不祿不壽。有待後日。想兄平日。墳麓和悅。至老愈篤。不忍暫離。伯兄在此。舍而何之。嗚呼。端良之性。敦素之質。溫雅之懷。和順之色。痛哉痛哉。永不可覩。牛岡在南。青鳥既下。丹旒雙飛。異棺同槨。萬事已矣。一枕青山。夫我何悲。兄所安方。

祭申掌令達道文

訥齋集卷之十二

三

嗚呼。世有行之方德之清守之固。而事親以孝。事君以忠。處兄弟以友。交朋友以信者。斯不謂善人乎。孔子曰。善人吾不得以見之矣。善人之難得也。如此。幸得見於亨甫。而今也則亡。吾安得不悲乎。同余悲者。世復有幾人。而我則老矣。永不得復見。如亨甫白首同居。死生相託之約。何先負之遽耶。吾生險巇。濱死者幾許。而貽君之憂。又復有幾。朔雪咸關。君為我行。慘然相別。以笑代哭。春寒京洛。非君有意於宦情。而黽勉扶病。遠涉畏途。君雖不言。我知君為我而作行。促君之病。我實使之。君病日劇。我不能在君之側。救君之病。而一脫危機。棄君南還。君誠以父視我。而我不能視君猶子。遺恨無窮。而慟亦無窮也。茫茫乎得罪於天。而壽且福者何限。何君之三世為善。孝友傳家。不褻天畀。而反不祐於天耶。以君兄弟。聯芳并美。羽儀清時。人皆謂積善降祥。可必乎天。而今也不幸。才不大施。壽靳五十。人將謂可必之天。竟不可必。而怠為善之心。無振作之氣。噫天將何以勸人之為善也。嗚呼。吾聞君子。死而為星辰為雲霓。衆人則不然。安知世間之樂。特一夢幻。而乘白雲入帝鄉。游乎太空之上。與我悔堂叔。城隱兄。侍側洋洋。俯視濛濛之人世。是誠真樂也。若然則為亨甫而不幸者。誠惑矣。而我之悲。亦可以少洩矣。靈其有知。入我夢而相告。以解我悲惑也。

제신장령 달도 문 祭申掌令 達道 文

13世 달도(達道) 父 : 흘(屹) 祖父 : 원록 (元祿) 음파(邑派) 만오공파(晩悟公派)

嗚呼。世有行之方德之清守之固。而事親以孝。事君以忠。處兄弟以友。交朋友以信者。斯不謂善人乎。孔子曰。善人吾不得以見之矣。善人之難得也。如此。幸得見於亨甫。而今也則亡。吾安得不悲乎。同余悲者。世復有幾人。而我則老矣。永不得復見。如亨甫白首同居。死生相託之約。何先負之遽耶。吾生險巇。濱死者幾許。而貽君之憂。又復有幾。朔雪咸關。君為我行。慘然相別。以笑代哭。春寒京洛。非君有意於宦情。而黽勉扶病。遠涉畏途。君雖不言。我知君為我而作行。促君之病。我實使之。君病日劇。我不能在君之側。救君之病。而一脫危機。棄君南還。君誠以父視我。而我不能視君猶子。遺恨無窮。而慟亦無窮也。茫茫乎得罪於天。而壽且福者何限。何君之三世為善。孝友傳家。不褻天畀。而反不祐於天耶。以君兄弟。聯芳并美。羽儀清時。人皆謂積善降祥。可必乎天。而今也不幸。才不大施。壽靳五十。人將謂可必之天。竟不可必。而怠為善之心。無振作之氣。噫天將何以勸人之為善也。嗚呼。吾聞君子。死而為星辰為雲霓。衆人則不然。安知世間之樂。特一夢幻。而乘白雲入帝鄉。游乎太空之上。與我悔堂叔。城隱兄。侍側洋洋。俯視濛濛之人世。是誠真樂也。若然則為亨甫而不幸者。誠惑矣。而我之悲。亦可以少洩矣。靈其有知。入我夢而相告。以解我悲惑也。



成宜爾樂爾。友以琴瑟。尚遠偕老。奄成同穴。兩恣先後。只隔數月。哀姪馳書。兄病忽劇。奔走來救。踵門聞哭。及嫂同殯。五士林麓。嗚呼。以兄淳慤。命何窮厄。以兄靜厚。壽何偏嗇。天道何忤。使人疑惑。仁必有後。吾聞其說。王氏之門。槐陰鬱鬱。不祿不壽。有待後日。想兄平日。墳麓和悅。至老愈篤。不忍暫離。伯兄在此。舍而何之。嗚呼。端良之性。敦素之質。溫雅之懷。和順之色。痛哉痛哉。永不可覲。牛岡在南。青鳥既下。丹旒雙飛。異棺同槨。萬事已矣。一枕青山。夫我何悲。兄所安方。

祭申掌令達道文

訥齋集卷之十二

三

嗚呼。世有行之方德之清守之固。而事親以孝。事君以忠。處兄弟以友。交朋友以信者。斯不謂善人乎。孔子曰。善人吾不得以見之矣。善人之難得也。如此。幸得見於亨甫。而今也則亡。吾安得不悲乎。同余悲者。世復有幾人。而我則老矣。永不得復見。如亨甫白首同居。死生相託之約。何先負之遽耶。吾生險巖。瀕死者幾許。而貽君之憂。又復有幾。朔雪咸關。君為我行。慘然相別。以笑代哭。春寒京洛。非君有意於宦情。而黽勉扶病。遠涉畏途。君雖不言。我知君為我而作行。促君之病。我實使之。君病日劇。我不能在君之側。救君之病。而一脫危機。棄君

南遠。君誠以父親我。而我不能視君猶子。遺恨無窮。而慟亦無窮也。茫茫乎得罪於天。而壽且福者何限。何君之三世為善。孝友傳家。不襲天畀。而反不祐於天耶。以君兄弟聯芳。弁義羽儀。清時人皆謂積善降祥。可必乎天。而今也不幸。才不大施。壽靳五十人。將謂可必之天。竟不可必。而怠為善之心。無振作之氣。噫。天將何以勸人之為善也。嗚呼。吾聞君子。死而為星辰。為雲霓。衆人則不然。安知世間之樂。持一夢幻。而乘白雲入帝鄉。游乎太空之上。與我悔堂叔城隱兄。侍側洋洋。俯視濛濛之人。世是誠真樂也。若然則為亨甫而不幸者。誠惑矣。而我之悲。亦可以少洩矣。靈其有知。我夢而相告。以解我悲感也。

訥齋集卷之十二

四

祭盧校理弘仲文

嗚呼。我公而至然耶。何稟之全。而壽不全。胡質之厚。而福不厚。世謂五福。仁者能有。公其庶幾。衆亦同期。充積既久。素志可施。畜養有方。鬢髮未衰。那知今日。而遽如斯。五十非夭。在公為天。五馬非少。在公為少。公之稟受。既淳而弘。風度凝遠。雅儀雍容。家傳孝友。早聞儒風。耳濡目染。樂有父兄。以公義質。宜其夙成。年甫弱冠。對策明經。曳裾脩門。振彩飛英。發軔通衢。入賀烏榮。公懷謙退。謂學未優。矜期任重。志存靜修。耽經淨寫。端默優游。兕



卷之十二 / 墓誌

회당신공묘지 悔堂申公墓誌

11世 원록(元祿) 父 : 수(壽) 祖父 : 준정 (俊禎) 음파(邑派)

公姓申。諱元祿。字季綏。號悔堂。鵝州人。六世祖諱祐。仕麗季。爲全羅道按廉使。時丁昏濁。獨持廉潔。以孝行旌其門。歷內府令諱光富，彥陽縣監諱士廉。至成均生員諱錫命。是公會祖。祖諱俊禎。承仕郎。考諱壽。業儒素。妣義興朴氏。郡守惟昌之孫。主簿自儉之女。公幼而聰穎。志操耿介。惇行孝悌。不由勉強。先公早嬰風漸。醫治不效。公年十餘歲。登八公山採藥。從良醫劑之。日夜湯進。目不交睫。衣不解帶者八年。癸巳春。公年十八而遭憂。哀有過而禮無愆。自殯至葬。凡所以附於親者。盡其誠信。廬于墓側。泣血三年。人稱善居喪。戊戌。承慈教遊國學。自是研精篤志。講習不怠。嘗與伯氏。同屈於漢城發解。還途。伯氏遘瘧。未克前路。至天民川。秋水方漲。人言此水有毒蟒害人。不可徒涉。公負兄乃克濟。癸卯冬。聞豐基倅周慎齋世鵬。始建竹溪書院。士子全集。公贄文往謁。慎齋出題試院生。批公所製文曰。我院有人。其心如玉。天將玉汝。申其祿矣。自是以德器稱之。因規以言行相顧之實。東方道學之緒。亶亶忘倦。辭歸之日。贈一絕云。爲學思原水。論交取兕觥。相規唯十字。庶悉百年情。其眷重也如是。而公亦佩服終身焉。連遭中仁廟國恤。時人。只舉義服之制。公獨以素餐終三年。辛亥春。公歎曰。光陰易邁。立揚無期。慈闈年深。甘旨不稱。古人云家貧親老。不爲祿仕。一不孝也。吾將冒恥笑。得除殘邑訓學。以遂負米之情。於是除湖南長水學。以資養焉。癸丑。荒政方棘。邑宰委公賑恤之任。公曰。此乃濟人之事。豈敢規避。竭誠措置。民賴以存活。甲寅。聞周慎齋易簣。奔往哭之。心喪三年。公之自竹溪還也。謂伯氏曰。豐川之有書院。乃是盛事。吾鄉獨無藏修之所乎。遂約同志。營建書院于長川之上。創立十餘間。因時不利而止。至戊辰秋。告于邑宰。專任其事。晨夜殫力。歲再周畢工。立祠廟。以鄉先正金慕齋奉安。方伯啓聞。賜額長川。其篤於庠塾之事。勉進後學。以衛斯文。乃公素志也。庚申。與同鄉姓族。結約修契。講信親睦。又與柳義興希潛。議立鄉約。春秋講禮。伯氏嫁女。勤苦資粧。使不費力。妹夫喪葬。獨當營辦。其四女一男。親自擇人婚嫁。使不失時。凡遇窮族婚喪。類如是。嘗書壁上曰。負重涉遠。不擇地而休。親老家貧。不擇祿而仕。知公前後除學。皆爲親屈也。及其親年益衰。專以定省爲事。未嘗遠遊。凡可以慰悅親心者。無不致意。嘗雜植奇花異草。每於佳辰令節。陪親邀兄。作宴親曲八闕。歌以獻酌。盡愛日之誠。敘天倫之樂。因口占一絕曰。愁裏生涯莫怨嗟。吾門一樂最堪誇。七旬兄弟斑衣處。百歲慈親有幾家。時親年九十餘矣。親之所厚者。必厚其人。進食必區二品。擇其美味而進之。請其所與而與之。所着褻衣。常作小槽。必手澣然後付人。便旋之器。亦必躬自除穢。不使之人。母病轉劇。遑遑晝夜床褥。小不安穩。則重茵累席。或藉以白絮柔毛。務安其體。憫其皮膚糜爛。裹衣抱坐。日復益勤。親曰。我不遑死。使汝勞苦。誰知汝之至此哉。公竦然曰。固所子職。是何言也。雖千萬歲。猶爲不足。有何勞焉。乙亥。親病日篤。嘗糞以驗之。飲泣籲天。食不下咽。及其

終天也。不以百歲爲長。而以棄養之促。爲無窮之痛。送終之事。素講心上。家雖貧乏。辦若預構。不及於兄姊。務合於禮制。 **P** 無有遺憾。供奠之具。躬執其勞。不食菜醬。唯糜粥糲飯而已。嘗作慈堂影幀。至是揭之几筵上。朝暮哭拜。以致如在之誠。日三省墓。環繞哀痛。雨雪不廢。子弟泣諫。卽曰。命稟於有生之初。豈以此致死乎。丙子三月。得疾彌留。哭奠之禮。猶不少廢。至四月初七日。乃曰。明日是觀燈令節。可設別奠。命取薔薇花來。因扶起盥漱。病旋大作。已不可爲。內子來省。嚔顛曰。廬所非婦人所至。何以來爲。問後事不答。但云以母氏遺像。置我棺傍。吾將奉侍于泉下矣。至八日酉時。乃逝。嗚呼。人生天地間。孰無稟賦之良性。孰非職分之當爲。而鮮有全其孝悌之行 **P** 者。公稟質既異於人。而早知踐履之學。既孝既友。老而彌篤。不爲崖岸斬絕之行。只就日用間盡其所當行者。故知公者寡而名不顯於世。若其處心行己之正。待人接物之誠。教子以義方。訓人以遜悌。存中者仁。處事也勤。堅苦篤行之志。孜孜焉惟日不足。雖不博究諸書以極其所就之地。而本原如此。其他不必論也。況孝悌百行之原也。公能力行於人所不知之處。克紹按廉公之芳躅。以立家範。君子多能乎哉。此可爲則於後世也。公生于正德丙子十二月癸亥。歿于萬曆丙子四月辛未。春秋周甲。六月某日。葬于八智山先塋下巽坐之原。配 **P** 星山李氏。大提學堅幹之後。司諫院正言孟專之曾孫女也。祖通德郎通禮門通贊諱惓。考秉節校尉諱智源。與公同年生。柔婉淑慎。承公之志。家貧無戚容。施與無難色。事姑三十五年。孝誠亦純至矣。歿于萬曆癸巳。合塋公墓。生二男。長曰佺。司憲府監察。次日乞。贈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監察娶司猛蔣崙女。生五男一女。長尙道判官。女適察訪李挺南。次泳道，志道，敏道，師道。承旨娶展力副尉朴倫女。生三男三女。長適道祥雲道察訪。次達道司憲府掌令。次悅道禮曹正郎。女長適士人金有曄。次適奉事任乃重。次適僉正朴宗敬。曾孫男 **P** 女四十餘人。噫天將以是爲報耶。李氏卽我從母也。公之懿行。既知之詳矣。且得伯氏所撰家狀。無一字溢美。所謂父母昆弟之言。人無間然矣。遂略加增剔。因以爲誌。崇禎乙亥冬十有一月日。通政大夫前守江原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崔峴。謹誌。

### 증승지신공묘지 贈承旨申公墓誌

12世 흘(乞) 父 : 원록(元祿) 祖父 : 수 (壽) 읍파(邑派)

公諱乞。字懼之。其先鵝州人。八世祖諱祐。仕高麗。爲全羅道按廉使。以孝旌其門。是生諱光富。中顯大夫內府令。內府令生諱士廉。彥陽縣監。縣監生諱錫命。成均生員。於公爲高祖。曾祖諱俊禎。承仕郎。祖諱壽處士。考諱元祿。 **P** 號悔堂。有孝友賢行。事聞旌閭。妣星山李氏。曾祖諱孟專。奉正大夫司諫院正言。祖諱瑞。通德郎通禮門通贊。考諱智源。秉節校尉。以嘉靖庚戌九月九日。生公。公稟質醇厚。慈詳惻怛。孝友因行。式遵先訓。歲丙子居外艱。廬墓終制。奉慈闈十八年。色養無違。癸巳。遭內憂。時丁大亂。不暇禮義。而葬祭一從禮制。追慕之心。終始不懈。事伯氏盡友恭。教諸子以義方。嘗作一絕曰。持身

如履薄。待人一至誠。若不謙受益。恐忝爾所生。又以取友必端。不妄交遊爲戒。處於鄉黨。謙恭自牧。與物無競。凡人有喪。莫不匍匐相救。癸甲兵荒之歲。饘粥不給。而親戚<sup>P</sup>之飢餓者。必以周急。平生無疾言遽色。口不言人過。然其好惡取舍。一斷以義。未嘗枉道苟合。家契屢空。怡然自處。不以爲戚嗟。嘗曰。吾見世人。勤苦營產。以遺子孫。而有不能守者。此不知命也。中年多疾。守靜養病。攻學業。屢中鄉解。而亦未嘗留意焉。甲寅六月二十七日。以疾終于正寢。享年六十五。配順天朴氏。端良仁孝。允協公德。事君子訓子女。皆可爲壺範。與公同年生。而歿亦同年四月十六日。是歲十二月二十八日丙午。合葬于義城縣南五兔山兌向之原。嗚呼。以公兩美之相合。宜其克享遐福。而身不免窮厄。壽亦靳耆耄。天之報施<sup>P</sup>善人。果止於是耶。崇禎己巳。贈公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兼經筵參贊官。以男達道參寧社原從故也。男女六人。長適道中丙午進士。仕爲祥雲道察訪。次達道擢癸亥廷試壯元。今爲司憲府掌令。次悅道擢甲子增廣。兵曹佐郎。女適士人金有曄。無後。次適訓練奉事任乃重。次適僉正朴宗敬。內外孫男女總若干。諸孤遵公之志。克述家聲。意者天之福善之道。其有待於今日也。掌令述世系行蹟。請誌於余。余於公。爲兩姨兄弟也。以吾早失所恃。見憐於從母。公亦視以親弟。壬辰亂。托公伯仲爲命。生死共之。知兄之篤行。宜莫如余。有拙於<sup>P</sup>稱揚。無嫌於溢美。至其世惇孝友。嘉言懿行。多有可稱。而今不盡述焉。皇明崇禎三年庚午五月日。前江原監司崔峴。謹誌。

## 임여재선생문집(臨汝齋先生文集)

### 형태서지

권수제	임여재선생문집(臨汝齋先生文集)
판심제	임여재선생문집(臨汝齋先生文集)
간종	목판본(木版本)
간행년	간행 연도 미상(1849년 이후 간행)
권책	9권 5책
행자	10행 20자
규격	21.1×17.5(cm)
어미	上下二葉花紋魚尾
소장처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도서번호	석주D1-A1064
총간집수	한국문집총간 속 92

### 저자

성명	유규(柳)
생년	1730년(영조 6)
몰년	1808년(순조 8)
자	수부(秀夫), 사극(士極)
호	임여재(臨汝齋)
본관	풍산(豊山)
특기사항	박손경(朴孫慶) 등과 교유



행력

왕력		서기	간지	연호		연령	기사
영조	6	1730	경술	雍正	8	1	4 월 20 일, 安東에서 태어나다.
영조	21	1745	을축	乾隆	10	16	〈玉淵書堂記〉를 짓다.
영조	22	1746	병인	乾隆	11	17	瓊璣玉衡說, 律呂薺策에 이르기까지 象數學을 두루 통하다.
영조	27	1751	신미	乾隆	16	22	李宜震, 鄭忠弼 등과 雲谷書堂에서 회합하여 시를酬唱하다.
영조	32	1756	병자	乾隆	21	27	襄陽의 東郭으로 거처를 옮기고 南野 朴孫慶을 증유하다.
~	-	~	~	~	-	~	鄉試에는 여러 차례 합격하였으나 省試에 번번이 떨어진 후 거업을 그만두다.
영조	41	1765	을유	乾隆	30	36	河回로 돌아와 ‘忠孝拙誠’을 근본으로 삼아 家學에 힘쓰며 畏齋 柳宗春과 경학을 탐구하다. ○ 이후 매년 봄여름에는 著述에 힘쓰고 가을 겨울에는 屏山書院을 중심으로 講學활동을 하다.
영조	52	1776	병신	乾隆	41	47	아들 柳雄介가 18 세로 요절하고, 이어서 사위 姜世濂의 상을 당하다. ○ 10 월, 부인 永陽李氏의 상을 당하다. 이어서 막내딸의 상을 당하다.
정조	2	1778	무술	乾隆	43	49	5 월, 姜必恭, 金光澈, 金滄 등과 龍門書堂에서 회합하다.
정조	3	1779	기해	乾隆	44	50	8 월, 부친상을 당하다.
정조	6	1782	임인	乾隆	47	53	3 월, 모친상을 당하다.
정조	7	1783	계묘	乾隆	48	54	百弗庵 崔興遠에게 편지를 올려 문안하다.
정조	10	1786	병오	乾隆	51	57	姜杭이 筵席에서 경학에 뛰어난 안동의 선비로 추천하다. ○ 최흥원의 상을 듣고 만사와 제문을 짓다.
정조	13	1789	기유	乾隆	54	60	嗣子 柳若春을 곡하다.
정조	15	1791	신해	乾隆	56	62	3 월, 蔡濟恭의 천거로 의금부 도사가 되다. ○ 4 월, 사재감 봉사가 되다.
정조	16	1792	임자	乾隆	57	63	4 월, 柳星漢, 尹九宗을 탄핵하는 연명소를 올린다. ○ 9 월, 宗簿寺 直長이 되었다가 靖陵·宣陵 直長으로 바꾸어 제수되다.

정조	17	1793	계축	乾隆	58	64	丁範祖에게 편지하여 李象辰의 「下枝遺集」의 서문을 부탁하다. ○ 12 월, 사옹원 주부, 감찰이 되다.
정조	18	1794	갑인	乾隆	59	65	6 월, 사직서 영이 되다. ○ 11 월, 慶山 縣丞이 되다.
정조	20	1796	병진	嘉慶	1	67	12 월, 慶山 縣丞에서 체직되어 귀향하다. ○ 화재로 저술이 대부분 소실되다. ○ 金道行에게 편지로 「九思堂集」의 간행을 문의하다.
정조	21	1797	정사	嘉慶	2	68	李堉에게 편지로 權槩의 「屏谷集」 校正의 일을 논의하다.
정조	23	1799	기미	嘉慶	4	70	士林을 대신하여 蔡濟恭의 祭文을 짓다.
정조	24	1800	경신	嘉慶	5	71	통정대부에 가자되고 특지로 돈녕부 도정이 되다. ○ 鄭東弼에게 편지하여 「拙齋集」의 간행을 알리다.
순조	1	1801	신유	嘉慶	6	72	〈寢屏八箴〉을 짓고 序와 識를 쓰다.
순조	6	1806	병인	嘉慶	11	77	李堉에게 편지하여 嶺南萬人疏의 일을 논의하다.
순조	7	1807	정묘	嘉慶	12	78	豐山柳氏의 族譜를 중간하고 서문을 쓰다.
순조	8	1808	무진	嘉慶	13	79	10 월 19 일, 즐하다.
순조	9	1809	기사	嘉慶	14	—	2 월, 龜尾山에 장사 지내다.

## 편찬및간행

저자의 사후 유적의 정리와 유고의 간행을 추진한 사람은 손자 柳雲祚(1780~1817)와 柳鶴祚(1783~1845), 그리고 三從孫이자 문인인 柳台佐(1763~1837)이다. 유태좌가 지은 행장을 보면 “저술이 매우 많고 내용 중 경전의 뜻을 밝힌 것이 많았는데 병진년(1796) 화재 중에 거의 다 타버렸다. 공의 손자 윤조가 약간 권을 수습하였으나 미처 간행하지 못하고 죽었고 그 동생인 학조가 정성을 다해 힘을 써서 형의 뜻을 이루고자 도모하고 있다.”라고 하며 유학조의 부탁으로 행장을 짓는다고 하였다. 이를 보면 유운조가 유고를 수습 정리하여 간행을 준비하다가 죽자 아우인 유학조와 유태좌가 그 일을 이어 진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1839 년경 洪命周가 지은 묘갈명과 같은 해에 지은 것으로 보이는 鄭鴻慶의 묘지명은 모두 위의 행장을 바탕으로 찬술한 것인데, 문집의 간행 여부에 대한 언급은 없다.

한편 본집에 실린 李羲發(1768~1849)의 서문을 보면 “공은 평소 저술이 매우 많았는데 지금 문집으로 모은 것은 10 의 2~3 에 지나지 않는다. 공의 손 학조가 목판으로 간행하여 후세에 전하고자 하는데 나에게 서문을 부탁하면서 이는 鶴棲公(柳台佐)의 유지라고 말하였다. 학서공은 내 평생의 벗이다. 지난해 玉淵亭에 모여서 공의 유문을 對校하고 돌아올 때에 이 일을 부탁하였으나 나는 말을 사람이 아니므로 사양하고 감히 받들지 못하였는데 얼마 뒤에 학서공은 고인이 되어버렸다.”라고 하였으니, 1837 년 유태좌가 죽기 전에 문집의 교정을 위해 모였었고 이후 유학조가 문집 간행의 사업을 맡았던 것이다. 또 이 희발의 문집 「雲谷集」 年譜를 보면 이와 관련된 사항이 자세히 나오는데, 1839 년(헌종 5) 기사에 “校柳公臨汝齋文集”이라 하였고, 1841 년(헌종 7) 기사에서는 “往遊玉淵亭因重校臨汝齋集, 著臨汝齋集序”라고 하여, 이희발이 1839 년과 1841 년 본집의 교정에 참여하였고 본 서문도 1841 년에 지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본집에 실린 서문에는 이희발의 관직이 형조 판서라고 나오는데 이희발이 형조 판서에 제수된 것은 1849 년이다. 1841 년에 지어진 서문에 1849 년에 제수된 관직을 쓴 것은 이즈음에 본집이 간행되면서 서문 말미를 당시의 관직으로 바꾸어 쓴 것으로 생각된다. 아니면 1845 년 유학조가 죽으면서 다시 문집 간행 사업이 주춤해지고 이후 어느 시기에 간행되면서 서문을 쓴 이희발의 마지막 관직을 쓴 것이라고 추측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본다면 문집의 간행 시기는 1849 년 이후 언젠가가 되어 특정할 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본집은 저자 사후 손 유운조와 유학조, 유태좌 등이 소실되고 남은 家藏 遺文을 수습하여 편차하고 이희발의 교정을 거쳐 1849 년 이후에 목판으로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초간본》이 본은 현재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석주 D1-A1064), 국립중앙도서관(한 46-가 59), 규장각(奎 12284), 장서각(D3B-1493),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811.98/유규), 성균관대학교 존경각(D3B-2952) 등에 소장되어 있다. 본서의 저본은 저자의 손자 柳雲祚와 柳鶴祚가 수습하고 柳台佐와 李義發의 교정을 거쳐 1849 년 이후 목판으로 간행된 초간본으로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장본이다. 본 영인저본 중 권 1 의 제 1 · 2 판은 落張이므로 동일본인 국립중앙도서관장본으로 보충하였다.

序(李義發 撰), 行狀(柳台佐 撰), 墓誌銘(鄭鴻慶 撰), 雲谷年譜(雲谷集) 등에 의함

## 구성과내용

본서는 9 권 5 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권두에 1841 년 李義發이 지은 序文과 總目錄이 실려 있다.

권 1 은 詩(131 題), 疏(1)이다. 시는 詩體에 관계없이 1751 년 이후부터 1804 년경까지 연대순으로 배열되어 있는데 이 중 53 편이 輓詩일 정도로 만시의 비중이 높다. 시를 수창한 대상은 李宜震, 鄭忠弼, 安敏修, 權縉, 李宗洙, 李堦, 李垸, 金宗燮, 姜必恭, 金光澈, 金滄, 趙宜陽, 南箕燮 등과 죽인 柳灑, 柳灑, 柳一春 등이다. 시의 내용은 서당에서 회합을 가지고 수창하거나 「拙齋集」, 「大山集」, 「講錄刊補」를 간행, 교정하는 모임에 참가하고 지은 것, 贈別詩 등이다. 만시의 대상은 앞의 시를 수창한 대상과 중복되는 면이 많은데 懶拙齋 李山斗, 下枝 李象辰, 剛窩 任必大, 瑞雪堂 權正模, 崔興遠, 金光緒, 姜必岳, 李宗岳, 金一鍊, 洪天休, 川沙 金宗德, 申國賓, 臥雲齋 李命天, 正祖大王 등 당시 영남의 인사라 할 만한 이는 대부분 실려 있다. 소는 <屏山書院請額疏>로 당시 士林을 대신해 지은 것인데 柳成龍을 제향하는 서원의 사액을 청하는 내용이다.

권 2~3 은 書(123)이다. 권 2 는 45 명에게 보낸 77 편의 편지가 실려 있다. 최흥원, 蔡濟恭, 李德祥, 李承延, 정충필, 丁範祖, 金道行, 안민수, 李宜白, 金弼衡, 權明佑, 李鎮東, 李禎國, 鄭東弼, 李堦, 權訪, 權尙佑, 李春溥, 崔南復, 崔光迪, 李觀燮, 李宜謙, 李尙璣 등이 그 대상인데 비교적 짧은 편지이다. 채제공에게 보낸 편지는 嶺南人物考를 편찬하는 일에 대한 것이고, 정충필에게 보낸 글은 璿璣玉衡說에 대한 논의, 1793 년 정범조에게 보낸 글은 자신이 간행에 관여한 「下枝遺集」의 서문을 부탁하는 것이다. 1798 년 정충필의 아우인 정동필에게 답한 편지는 정충필의 묘도문자를 부탁받은 일과 그의 문집을 교감하는 일에 대한 것이다. 이처럼 先賢 遺集의 간행과 교정 등 영남 유현의 전적이거나 유적의 정리에 대한 일, 주변에서 상을 당한 일, 자신이 노년의 몸으로 관직에 나가게 된 일 등을 기술한 짧은 편지이고, 구체적으로 주제를 정해서 학문을 논하거나 문목에 답한 편지는 드물다.

권 3 에는 21 명에게 보낸 46 편의 편지가 실려 있는데 대상은 李萬運, 李仁行, 金宗錫, 金宗鎬, 尹陽憲, 李光一, 金宇弼 등과 사위 金楨運, 尹汝瓚, 죽질 유일춘, 柳泰春, 柳尋春, 柳宗睦, 柳漢, 柳匯, 柳相祚, 柳岡祚, 柳雲祚 등에게 보낸 것이다. 권 2 와 달리 권 3 은 자체, 문인들과의 편지가 많아서 경학에 대해 문답

한 학문적 내용이 많다. 이만운과의 편지는 「啓蒙傳疑」에 나오는 籌學에 대한 자세한 해설법이 실려 있고, 이인행에게 보낸 편지에도 乘除法이나 量田法, 碁三百에 대한 설명이 실려 있어 저자가 算律과 星曆에 정통했다는 평을 증명해 준다. 유증목에게 보낸 글에는 <洪範>의 揲蓍法이 나오고, 별지로 <皇極內篇疑義辨>이 있으며, 聖可學圖에 대한 설명, 「近思錄」 質疑에 대한 답변이 실려 있다. 사도세자를 옹호하는 의리를 천명하는 영남유생 연명소를 올리는 일에 대한 논의는 유일춘과 아우 유미에게 보낸 편지에 나온다. 유운조에게 보낸 편지는 장인 김종호를 스승으로 삼아 학문에 정진하라는 내용이다.

권 4는 雜著(2), 序(12), 記(2), 識跋(10), 箴(2), 贊(1), 上樑文(5)이다. <筵說>은 1791년 12월 사재감 봉사로 입대하였을 때 正祖와 대화한 기록인데 柳成龍의 후손으로서 선조의 전형을 저버리지 말도록 장려한 내용이다. 서문은 저자가 편차와 교정에 참여했던 문집과 족보에 대한 서가 많아 저자의 왕성한 활동을 짐작케 한다. 孫肇瑞의 「格齋集」, 李肅의 「忘軒遺集」, 「咸昌金氏族譜」, 「順天張氏族譜」, 「豐山柳氏世譜」, 蔡應麟의 「松潭逸稿」, 李庭柏의 「樂琴軒集」, 都愼徵의 「竹軒集」, 안민수의 「守吾齋遺稿」 서문 등이 실려 있다. 기문은 저자가 중건에 참여한 <龍門書堂重修記>가 있고 松安君 李子修를 모신 鶴山精舍에 대한 기문이 있다. 지발은 문집보다 행적이나 事蹟에 대해 쓴 것이 많다. 權柱의 「花山逸稿」를 간행하고 쓴 後識, 權紀의 「龍巒集」 발문, 光山卓氏世稿에 대한 발문, 龜巖 金謹信의 行蹟에 대한 후서, 9세에 죽은 杏堂 金童子의 遺帖과 錦春堂 姜翰의 事蹟에 대한 書後 등이 실려 있다. 잠은 1801년에 자신과 자손들에게 경계로 남긴 <寢屏八箴>과 1805년 지은 <立春箴>이다. 상량문은 花樹堂, 忠孝堂, 雲溪廟宇, 雙節祠, 花川書院 講堂의 상량문이다.

권 5는 祝文(16), 祭文(27)이다. 孤竹書院, 明溪書院, 鶴巖里社, 豐巖里社, 竹阜鄉社, 山泉書院, 川谷書院, 花川書院, 別廟 등에 모신 선현들의 상향축문이나 고유문이 실려 있고, 5대조인 柳柳와 증조 柳萬河의 비석을 세운 고유문이 실려 있다. 제문은 권 1 輓詩의 대상과 중복되는 인물이 많은데, 최흥원, 채제공, 강필공, 金弼衡, 안민수, 金敏源, 김종석 등과 족형, 족숙, 종질 등 친지에 대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亡室 淑人李氏에 대한 제문과 18세에 요절한 아들 柳雄介에 대한 제문이 실려 있는데, 아들에 대한 제문에서는 1776년 한 해에 아들과 딸, 사위, 부인을 모두 잃은 절절한 심정이 담겨 있다.

권 6은 誄辭(2), 哀辭(5), 碑碣(12), 墓表(5)이다. 뇌사는 崔柱泰와 삼종손 柳爽佐에 대한 글이고, 애사는 金士準과 족손 柳善祚, 삼종손 柳應祚, 삼종손녀인 權氏婦와 李氏婦에 대한 글이다. 묘갈명은 金宗武, 申元福, 李瑞翼, 李德祿, 趙元胤, 趙錫喆, 鄭宗弼, 鄭衡弼, 李憲國, 李侃, 朴受綱에 대한 글이다. 묘표는 선조 고인 柳伯의 碑陰記, 李中立, 金協, 5대조 柳柳, 증조 柳萬河에 대한 묘표이다.

권 7~8은 墓誌(8), 行狀(14)이다. 묘지는 金燧, 金龍普, 정충필, 李弘績, 李宗岳, 李晦根, 柳後章, 柳聖疇에 대한 글이고, 행장은 金奉祖, 李宗準, 吳守盈, 鄭士信, 金始鑛, 宋摘, 李洪仁, 盧啓禎, 權憲, 鄭泰履, 柳世楨, 柳遇春, 柳瀾 등에 대한 글이다.

권 9는 附錄으로 柳台佐가 지은 행장, 洪命周가 쓴 묘갈명, 鄭鴻慶이 지은 묘지명이 있다. 그 외에 鄭宗魯, 金垞, 姜世白, 李龜星, 이우, 黃龍漢, 李仁行 등이 지은 만사 9편과 屏山書院과 良川社의 유생들, 이진동, 李尙璣, 李宜渙, 金道言, 金宗鐸, 柳長春, 유상조 등이 지은 제문 13편이 실려 있다.

## 유규(柳規)

### 정의



조선후기 사헌부감찰, 사직령, 경산현령 등을 역임한 문신·학자.

## 개설

본관은 풍산(豊山). 자는 사극(士極)·수부(秀夫), 호는 임여재(臨汝齋). 아버지는 유성오(柳聖五)이며, 어머니는 안동권씨(安東權氏)로 권정로(權鼎老)의 딸이다.

## 생애 및 활동사항

유성룡(柳成龍)의 6 대손으로, 특별한 스승 없이 가학을 이어받아 병산서원(屏山書院)에서 경서를 비롯하여 역사·율령(律呂)·주학(籌學)·음양학·천문학 등 다방면에 걸쳐 학문을 연구하였다. 여러 번 향시(鄉試)에 합격하였으나 회시(會試)에 실패하고, 고향인 하회에서 은둔생활을 하였다.

이렇듯 물러나서 후진들에게 성리학을 강의하고 있던 중 1791년(정조 15) 채제공(蔡濟恭)의 천거로 의금부도사에 제수되었다. 그 뒤 사재감봉사(司宰監奉事)·종부직장(宗簿直長)·사옹원주부(司饗院主簿)·사헌부감찰·사직령(社稷令)·경산현령(慶山縣令)을 역임하였는데, 특히 경산현령으로 있을 때에는 풍속교화와 빈민구제에 힘썼다.

1800년 70세 때 돈녕부도정(敦寧府都正)이 되었다. 경(敬)의 덕목에 입각한 생활을 실천하며 학문을 탐구하였고, 이황(李滉)·유성룡·유원지(柳元之) 등으로 내려오는 학풍을 이어받았다. 저서로는 『임여재문집(臨汝齋文集)』 9권이 있다.

## 卷之一 / 詩

陪李大山，朴南野遊謙亭。申子長 體仁，金直夫 宗敬 諸人皆會。

20世 체인(體仁) 父：도만(道萬) 祖父：분구(賁龜) 귀파(龜派) 오봉공파(梧峰公派)

石逕逶迤盡。江亭眺望幽。風烟傍西嶽。文雅盡南州。花發屏心樹。人行鏡面舟。天機供玩討。斜日更淹留。

夫宗敬諸人皆會。

石逕逶迤盡。江亭眺望幽。風烟傍西嶽。文雅盡南州。  
花發屏心樹。人行鏡面舟。天機供玩討。斜日更淹留。

次族兄柳洲公禮韻

暗覺中宵一氣新。盎然三十六宮春。青燈結社携良  
友。黃卷齋心讀古人。花雨一年賜谷節。水雲千古洛  
江濱。瑤琴寶韻空餘畫。晚向床頭拂舊塵。

最我今朝喜。迓新。襄陽愁度十年春。歸心每逐東流  
水。佳節誰尋北郭人。性以愛詩耽勝界。家因隨族又  
河濱。花辰快拂凌波石。清興相連步襪塵。

臨齋先生文集卷二

四

輓懶拙齋先生李公山斗

嶠南耆德入。宸聰壽閣恩光特地崇。素節不欺名  
利上。丹忱難盡畫圖中。秋菱一面磨塵瑩。孤鶴三清  
唳月空。痛哭今年吾黨厄。懷溪北望又悲風。

次守吾齋安訥甫敏修廢塘古井韻兼示金

克夫弼衡。

半畝澄澄修憶古。村空有夕陽痕。西江咫尺波如  
許。巨耐春泥沒脛渾。

綺花瑤石擁觀居。蘭麝清香自燒渠。誰識此翁閒意  
味。廢塘東畔日蹢躅。

卷之一 / 詩

만신원명 창교 輓申元明 昌教

19世 창교(昌教) 父 : 성(暉) 祖父 : 중모 (重模) 음파(邑派) 만오공파(晚悟公派)

P 墳簾令行繼墳簾。退澗家謨一世知。巷外闌閤官隔海。門前芻飯客淹時。詩書振業孤兒足。蓮桂爭榮兩姪奇。戚分交情今莫說。荒山遙付送行詩。

頃。麓令行繼墳。麓退澗家謨。一世知。巷外闌閣官隔。海門前。芻飯客淹時。詩書振業孤兒足。蓮桂爭榮兩姪奇。戚分交情今莫說。荒山遙付送行詩。

輓趙明仲

溫雅謙恭學道人。弄清門下夙書紳。黔溪世德瓊為寶。洛社公評櫝韞琤。暗室分明真路脈。窮廬蕭灑老精神。孤燈細律還千古。甲長歸雲惱殺人。

輓權通伯楸

文雅兼忠信。山南士望尊。風霜操履確。顛沛笑談溫。三別憐荆璞。一經識庾孫。逢場披不盡。脈脈寫哀幡。

臨汝齋先生文集卷一

輓李賓卿觀變

有美川居子。天然近道資。反躬常自勉。閉戶恊人知。嘉穀培根早。幽蘭在谷萎。盡方遺訓揭。琤重馬家眉。

輓李幼聞重祖

安陵詩禮舊名門。海嶺歸來見好孫。行義逢圭安苦淡。襟懷鐵石抱煩冤。玄天敢意機緘妙。白酒時傾慷慨樽。歸臥先廬成一笑。盡吾心外更何言。

輓李上舍東伯寅炯

簪盞欣然亦瞿然。宣城詩禮好周旋。精神九莖花生筆。趣味三時酒湧泉。大縣風流今白社。曲江門戶舊

만신관여 홍교 輓申寬汝 弘教

19世 홍교(弘教) 父 : 황(煌) 祖父 : 증모 (重模) 음파(邑派) 만오공파(晩悟公派)

念昔吾宗擇壻賢。古家詩禮得山泉。停鸞色映趨隅地。鳴鴈聲來志學年。孝友於今重見古。文章宜陸遽爲淵。雙蘭付與晨昏節。莫向萱堂怨彼天。

青壇玄厓盡引同心去。昨報新池又各天。

輓申寬汝弘教

念昔吾宗擇壻賢。古家詩禮得山泉。停鸞色映趨隅地。鳴鴈聲來志學年。孝友於今重見古。文章宜陸遠為淵。雙蘭付與晨昏節。莫向萱堂怨彼天。

壬戌秋七月既望巖亭齋唱

喬山松柏尚餘愁。有客何心辦勝遊。地隔黃州千尺岸。天回白露一年秋。沙邊鷗鷺迎如喜。臺上風烟浩莫收。畱待山高兼月小。長年分付意悠悠。

亨睦孫三加日吟示二絕

蒼枏臯下小溪因。溪上茅堂好主人。主人遠棄茅堂去。堂上何人會宿賓。

含飴當日皓鬚繁。三世遺痕此一孫。天道昭昭應福善。一孫將見大公開。

輓李遲菴聖哉東沈

明眸廣額照清徹。邊訥言頭玉屑霏。筆鏑能鑄衡岳字。詩城欲豎建安旂。青霞氣自江山辟。白屋人稱孝友肥。莫說邱樊空老大。廣陵門戶頓生輝。

雙亭秋日曬巖楓。伯仲詩裝共一筒。窟亦海山生羽翰。達應經席佐熙隆。文垣斂卻屠龍手。蓬戶蕭然伴

卷之二 / 書

여신자장 갑인 與申子長 甲寅

20世 체인(體仁) 父 : 도만(道萬) 祖父 : 분구 (貢龜)

귀파(龜派) 오봉공파(梧峰公派)

西來頓隔音容。間作鄉行。與近居士友。爲浹日之款則有之。而獨於左右未也。區區一念。



何嘗不係戀於嵌巖清淵之際耶。卽日霜冷。伏惟靜攝氣况。一味神衛。日用翫適。政有人不與知之妙。墮落塵網人。何由得聞其緒餘耶。翹首興言。繼之以黯然而懷也。漚一<sup>P</sup>番出脚。仍作騎虎之人。感怒神明。積殃隨之。四五年來。所值慘境。已是人理極處。而至於今夏。又哭舍弟內外。廓然宇內。親愛都盡。痛苦摧剝。尙何言喻。八月由歸。遽畢葬埋。還仕才十餘日耳。依舊渙浥。慙負心期。無足與故人道也。大地呼庚。吾嶺特甚。竊想啖齋活計。不免隨俗關念。然素貧行貧。隨處自得。惟是之恃耳。適有一門卒云自貴里來。能談高人動靜。甚是奇事。月滿告歸。不可無書。適值曛暮。信筆胡修。

답신자장 갑자 答申子長 甲子

客冬旅次。替奉典刑。才接數語。儻爾告別。金上舍景<sup>P</sup>理臘末袖致長牋。滿紙披露。無非情愴。乃知胤君歸達賤悰。致煩乃翁一書。深愜所望。承示仙說太長。係是相愛之至。樂聞故人安信。而故爲推獎誇詡之言耶。仍審年來動靜節頗詳。但恨歲已翻而時已久。依舊馳仰。無虛日也。漚已過二年於大聖之壽。樗櫟之頑。姑荷造物寬假耶。近來無他况味。惟有二亭屬自家物。背負行沙。坐處流穢。未知閩苑瑤圃。亦有此等仙子耶。好呵好呵。萬事灰心。惟有慕徒一念。緣何移淵上瘦筇於凌波臺。與共數日團討也。人事未可知。或有未化前拭青之期耶。彼此切勿自斷。以圖早晚<sup>P</sup>一握如何。近來必有可觀文字。因便示及耶。

窮巷雪深徒勤離索之憂此君來傳侍歡諸節甚詳且傳佔畢之工老而益篤伏想翫適日淡儲蓄日富令人翹首馳神而已年來所看讀何書朱退兩帙一味熟複否爾野丈看書到骨吾儕不易及惟大讀勤誦可庶幾焉而向衰氣力亦不逮爲可懼也璣衡之說年前獲有商確所恃者屏谷註解如此必不誤人矣春間達城孫友寄書來打破虛中受直距之說要設雙直距掛玉衡於兩距之要中其說極有理蓋用單直距則玉衡搭在偏傍不能正窺午中之星而本註中各施內外面外指等語全沒下落所以有此起疑望兄夏勘本註後復回示如何念吾輩盍簪無期如有閒中寓興之篇不妨寄示與共往復暢懷如何如何

臨汝齋先生文集卷三

與申子長 甲寅

西來頓隔音容間作鄉行與近居士友爲浹日之款則有之而獨於左右末也區區一念何嘗不係戀於嵌巖清淵之際耶卽日霜冷伏惟靜攝氣况一味神衛日用翫適政有人不與知之妙墮落塵網人何由得聞其緒餘耶翹首興言繼之以黯然而懷也漚一



番出脚。仍作騎虎之人。感怒神明。積殃隨之。四五年來。所值慘境。已是人理極處。而至於今夏。又哭舍弟內外。廓然宇內。親愛都盡。痛苦摧剝。尚何言喻。八月由歸。遽畢葬埋。還仕才十餘日耳。依舊洪忍。慙負心期。無足與故人道也。大地呼庚。吾嶺特甚。竊想啖齋活計。不免隨俗關念。然素貧行貧。隨處自得。惟是之恃耳。適有一門卒云。自貴里來。能談高人動靜。甚是奇事。月滿告歸。不可無書。適值曠暮。信筆胡修。

答申子長 甲子

客冬旅次。替奉典刑。才接數語。儻爾告別。金上舍景

臨汝齋先生文集卷二

九

理臘末袖致長牋。滿紙披露。無非情悃。乃知胤君歸達。賤踪致煩。乃翁一書。浚愜所望。承示仙說。太長。係是相愛之至。樂聞故人安信。而故為推獎誇詡之言。耶。仍審年來動靜。節頗詳。但恨歲已翻。而時已久。依舊馳仰。無虛日也。渣已過二年於大聖之壽。樗櫟之頑姑。荷造物寬假。耶。近來無他况味。惟有二亭屬自家物。背負行沙。坐處流穢。未知閻苑瑤圃。亦有此等仙子耶。好呵好呵。萬事灰心。惟有慕徒一念。緣何移淵上瘦筇。於凌波臺。與共數日。團討也。人事未可知。或有未化前拭青之期耶。彼此切勿自斷。以圖早晚。

一握如何。近來必有可觀文字。因便示及耶。

與丁海左範祖。癸丑

講服高風宿矣。年來因薄宦。滯留京口。間承車馬入城。輒因人叩館接之所。而亦不敢遽然自通於隸人。以遂望履之願。自訟不敏。烏在其嚮德之誠也。即日天氣正熱。伏惟台體動止。順序增衛。區區貢慕。又不尋常。渣偶霑恩命。三年未歸。日用勞碌。無足仰溷於大方之聽也。就控下枝。翁遺文。登梓屬耳。自本家擬請序文於執事。而瘵病洪汨。抽動無人。方以為閥迺者。季氏老兄。說與洋中僉友。以為兩家契分。世所

臨汝齋先生文集卷二

十

共知文字之請。烏可辭也。強疾誠難。折簡無妨。本家諸人。轉聞此言。不勝感幸。以渣在此。獲近聲問。要作紹介於門下。伏想執事俯仰。思惟。必不能愬然於此矣。如渣之愚。亦嘗與聞校刊之役。為此集圖不朽。自謂不下於本家之人。則此等周旋。似無代請之嫌。謹將本帙三冊。及若干伴簡之儀。送托洪可貞僚兄。以達於清案。如蒙不卻。亟賜回示。通于彼家。俾無冒炎強疾之弊。亦一事也。如何如何。

與尹巡相 光顏

歲暮寒嚴。伏惟巡相閣下。道體動靜。順序康衛。月前

卷之六 / 碑碣

헌릉참봉정은신공묘갈명 병서 獻陵參奉靜隱申公墓碣銘 并序

20世 체인(體仁) 父 : 도만(道萬) 祖父 : 분구(賁龜) 귀파(龜派) 오봉공파(梧峰公派)

公諱元福字仲綏。姓申氏。靜隱其號也。系出鵝洲。六代祖湖南按廉使諱祐。以至孝卓行。蒙朝家旌表。享士林俎豆。按廉生諱光富。中顯大夫內府令。府令生諱士廉縣監。縣監生諱錫命生員。於公爲曾祖。祖諱後禎教授。考諱壽參奉。妣義興朴氏。主簿自儉女。以皇明正德己巳正月日。生公于義城縣南元興<sup>P</sup>里第。幼有美質。孝悌祥順。志操耿介。參奉公積年患奇疾。醫藥無效。時公年十八。弟悔堂公諱元祿年十一。兄弟侍湯晝夜。醫言八公山有藥草。悔堂公請往採。公憫其幼。欲自往而侍側無人。悔堂公曰爲親求藥。天必有助。遂送之。及採藥還。齋沐劑試。洞洞屬屬。不交睫不解帶者首尾八年。癸巳二月。竟遭大故。十一月卜葬地於八智山。山下居民禁之。公至誠泣乞。村人曰吾等亦人耳。忍孤孝子之請乎。卽挈家移居。得安厝焉。因與悔堂公廬墓三年。構齋室于墓下。爲永世供祭之所。奉養母夫人。盡誠竭力。飲食每品必<sup>P</sup>具二器。隨其適口而進之。凡可慰悅親心者。靡不用極。雜植奇花異草。每於佳辰令節。陪親設宴。晨昏之際。手澣褻衣。躬滌穢器。不使人代之。甲戌冬。親瘳危劇。公籲天嘗糞。有庾黔婁之愛。乙亥六月日。竟遭變。十月合窆于先考墓。葬時公與悔堂公。身自執役。人曰役夫足矣。何必自爲。公泣曰吾心自安。不知爲勞。每日三至墓前。還繞號痛。雖雨雪不廢。當時士友有大小連之稱焉。公自少明於經學。篤志研精。癸卯冬間周慎齋先生爲豐基倅。倡明學術。建白雲洞書院。遣悔堂公使之執贄。及還兄弟慨然相議曰。吾鄉獨<sup>P</sup>無藏修之所乎。遂營建于長川之上。奉安文敬公金慕齋先生。方伯啓聞賜額。今縣南之冰山書院也。悔堂公先公歿。公摧痛若割。述其孝父母友兄弟之事。名之曰孝友錄。鶴峯金先生題錄後。有孝友難兄難弟之語。宣廟庚辰。薦除獻陵參奉不赴。乃就溪山勝區。築室數間。顏其堂曰靜隱。嘯咏書史。頤養性情。甲申五月二日。終于正寢。享年七十六。葬于八智山悔堂公墓下。嗚呼。公天資超凡。平生行業純備。又以堅固刻厲之志。自勉己學。以啓後進。至今鄉評咸以尸祝之闕然爲恨。豈有待而然歟。配興陽李氏。<sup>P</sup>崇年之女。閨範特著。後公二年歿。合塋焉。生二子。長儼次僊。三女張慶斗，康景福，鄭希恭其壻也。儼有一子弘道。僊有二子崇道，欽道。弘道生二子。曰埴文科縣監。清白著稱。次日墳。崇道生二子。曰圻曰堦。欽道生四子。曰規曰埴曰<sup>埴</sup>堦曰塈。六代孫纘模氏。袖家狀來請墓銘。辭意甚切。有不敢以不文辭。謹撮其槩。敘次如右。系之以銘曰。

按廉之孫。悔堂之兄。焯世令行。鄉邦式刑。八智之原。載奉延劔。錫羨來昆。垂千萬稔。



於焉來投。天地茫茫。鬼神難誅。奉公遺衣。同歸九泉。人情允協。神理無愆。以燾遺昆。椒聊盈掬。洋洋百世。視此珉斲。

獻陵參奉靜隱申公墓碣銘并序

公諱元福。字仲綬。姓申氏。靜隱其號也。系出鵝洲。六代祖湖南。按廉使諱祐。以至孝卓行。蒙 朝家旌表。享士林俎豆。按廉生諱光富。中顯大夫內府令。府令生諱士廉。縣監。縣監生諱錫命。生負於公。為曾祖。祖諱俊禎。教授。考諱壽參奉。妣義興朴氏。主簿。自儉女。以 皇明正德己巳正月日。生公于義城縣南元興

臨汝齋先生文集卷六

十二

里第。幼有美質。孝悌祥順。志操耿介。參奉公積年患奇疾。醫藥無效。時公年十八。弟悔堂公諱元祿。年十一。兄弟侍湯晝夜。醫言八公山有藥草。悔堂公請往採。公憫其幼。欲自往。而侍側無人。悔堂公曰。為親求藥。天必有助。遂送之。及採藥還。齋沐劑試。洞洞屬屬。不交睫。不解帶者首尾八年。癸巳二月。竟遭大故。十一月卜葬地於八智山。山下居民禁之。公至誠泣乞。村人曰。吾等亦人耳。忍孤孝子之請乎。即挈家移居。得安厝焉。因與悔堂公廬墓三年。搆齋室于墓下。為永世供祭之所。奉養母夫人。盡誠竭力。飲食每品必

臨汝齋集 卷六

具二器。隨其適口而進之。凡可慰悅親心者。靡不用。極。雜植奇花異草。每於佳辰令節。陪親設宴。晨昏之際。手澣褻衣。躬滌穢器。不使人代之。甲戌冬。親齋危劇。公籲天嘗糞。有庾黔婁之愛。乙亥六月日。竟遭變。十月合窆于先考墓。葬時公與悔堂公。身自執役。人曰。役夫足矣。何必自為。公泣曰。吾心自安。不知為勞。每日三至墓前。還繞號痛。雖雨雪不廢。當時士友有大小連之稱焉。公自少明於經學。篤志研精。癸卯冬。聞周慎齋先生為豐基倅。倡明學術。建白雲洞書院。遣悔堂公使之執贄。及還。兄弟慨然相議曰。吾鄉獨

臨汝齋先生文集卷六

十三

無藏修之所乎。遂營建于長川之上。奉安文敬公金墓齋先生方伯。啓聞賜額。今縣南之冰山書院也。悔堂公先公歿。公摧痛若割。述其孝父母友兄弟之事。名之曰孝友錄。鶴峯金先生題錄後。有孝友難兄難弟之語。宣廟庚辰。薦除 獻陵參奉。不赴。乃就溪山勝區。築室數間。顏其堂曰靜隱。嘯唳書史。頤養性情。甲申五月二日。終於正寢。享年七十六。葬于八智山。悔堂公墓下。嗚呼。公天資超凡。平生行業純備。又以堅固刻厲之志。自勉已學。以啓後進。至今鄉評咸以尸祝之闕。然為恨。豈有待而然歟。配興陽李氏。



崇年之女。閨範特著。後公二年歿。合塋焉。生二子。長儼。次憫。三女張慶斗。康景福。鄭希恭。其壻也。儼有一子弘道。憫有二子崇道。欽道。弘道生二子。曰墉。文科。縣監。清白著稱。次曰墳。崇道生二子。曰圻。曰堦。欽道生四子。曰堦。曰堦。曰堦。曰堦。六代孫纘。模氏。袖家狀。來請墓銘。辭意甚切。有不敢以不文辭。謹撮其槩。敘次如右。系之以銘曰。

按廉之孫。悔堂之兄。焯世令行。鄉邦式刑。八智之原。載奉延劔。錫羨來昆。垂千萬稔。

烈婦淑夫人草溪卞氏旌閭閣碑銘并序

臨汝齋先生文集卷六 十四

我昭敬大王四十一年戊申月日。嶺南道臣狀啓。略曰。故孝子清白吏號白棗堂鄭玉良。玄孫康翎。縣監鄭邦俊。妻草溪卞氏。牧使世鳳之女也。壬辰春。邦俊武仕赴義。倭寇彌滿。卞氏與其姑尹氏同匿文巖山中。嘗與人言曰。若於平地遇賊。雖欲求死。必不可得。先定死所。可處吾身。同年六月十二日。爲賊所迫。乃給賊曰。吾家財寶。盡埋于山下。賊爭掘取。卞氏望其姑隱處而拜哭曰。少婦今自決矣。夫若生還。爲傳此消息。抱五歲女子。自投于千仞絕壁。一時俱碎。賊徒驚駭。指屍解散。如此卓絕之行。合有旌表之典。

## 자암집(紫巖集)

## 형태서지

권수제	자암집(紫巖集)
판심제	紫巖集
간종	목판본(木版本)
간행년	1741 年刊
권책	7 권 2 책
행자	10 행 19 자
규격	20×15.4(cm)
어미	上下二葉花紋魚尾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도서번호	奎 7130
총간집수	한국문집총간 82

## 저자

성명	이민환(李民奐)
생년	1573 년(선조 6)
몰년	1649 년(인조 27)
자	이장(而壯)
호	자암(紫巖)
본관	영천(永川)
시호	충간(忠簡)
특기사항	심하(深河)의 역(役)에 참전(參戰)

행력

왕력		서기	간지	연호		연령	기사
선조	6	1573	계유	萬曆	1	1	義城縣에서 태어나다.
선조	22	1589	기축	萬曆	17	17	모친상을 당하여 여묘살이를 하다.
선조	26	1593	계사	萬曆	21	21	스승인 鶴峯 金誠一의 상에 곡하다.
선조	27	1594	갑오	萬曆	22	22	廣州李氏와 혼인하다. ○ 5 월, 부인 이씨가 즐하다.
선조	33	1600	경자	萬曆	28	28	別試에 丙科로 합격하여 괴원에 선보되다. ○ 翰院에 천거될 때 중형인 敬亭公 李民晟도 함께 승정원에 천거되다.
선조	34	1601	신축	萬曆	29	29	검열, 대교, 봉교가 되다.
선조	35	1602	임인	萬曆	30	30	부친이 江原道 監司가 되자 휴가를 얻어 형 李民晟, 崔岌, 韓濩 등과 함께 부친을 모시고 금강산을 유람하다. 崔岌이 <遊金剛山卷序>를 짓다.
선조	37	1604	갑진	萬曆	32	32	사서, 정언, 병조 좌랑이 되다.
선조	38	1605	을사	萬曆	33	33	平安道 암행어사 겸 순무사가 되다. ○ 예조·병조 좌랑이 되다.
선조	41	1608	무신	萬曆	36	36	부친의 봉양을 위해 永川 郡守가 되다.
광해군	1	1609	기유	萬曆	37	37	부친상을 당하여 여묘살이를 하다.
광해군	5	1613	계축	萬曆	41	41	忠原 縣監이 되다. 北人과의 알력으로 파직되다.
광해군	10	1618	무오	萬曆	46	46	명의 징병에 따라 원수 姜弘立의 종사관으로 종군하다. ○ 管餉使 朴燁을 군량운반 문제로 문책하자 이로 인해 유감을 품다. ○ 深河의 役 때 富車에서 패하여 淸軍의 포로가 된 후 17 개월 동안 구류되다. 이후 적에게 항복하여 절의를 저버렸다는 비난을 받다. ○ 「性理群書」, 「二程全書」, 「名臣言行錄」 등의 격언을 모아 <朝聞錄>을 짓다.
광해군	12	1620	경신	泰昌	1	48	建州에서 풀려나 滿浦에 도착했으나 朴燁이 私感으로 무고하여 4 년간 義州에서 대죄하다.
인조	2	1624	갑자	天啓	4	52	李适의 亂 때 호종하다.
인조	5	1627	정묘	天啓	7	55	丁卯胡亂이 일어나자 旅軒 張顯光의 종사관이 되어 군병을 소모하다.
인조	11	1633	계유	崇禎	6	61	大同 察訪이 되다.
인조	13	1635	을해	崇禎	8	63	洪原 縣監이 되다.
인조	14	1636	병자	崇禎	9	64	丙子胡亂이 일어나자 행재소로 가려고 하였으나 길이 막혀 가지 못하고 嶺南에서 義兵을 모집하다.
인조	16	1638	무인	崇禎	11	66	전적이 되었다가 軍자감 정이 되다. ○ 가을, 東萊

							府使가 되다.
인조	19	1641	신사	崇禎	14	69	장예원 판결사가 되어 규정 이외의 功臣 奴婢를 查出하여 本役으로 환속시키자 이로 인해 공신의 원망을 사 탄핵을 받다.
인조	21	1643	계미	崇禎	16	71	호조 참의에 제수되다.
인조	22	1644	갑신	崇禎	17	72	특명으로 형조 참판이 되다.
인조	23	1645	을유	順治	2	73	慶州 府尹이 되다. ○ 학교의 흥설 등 교육에 힘쓰고 私奴婢 隱漏의 폐단을 적발하여 수천 명을 查出 해내다. 흥년 때 기민을 구제하여 특별히 말을 하사받다.
인조	27	1649	기축	順治	6	77	2 월 24 일, 병으로 졸하다. ○ 4 월, 義城縣 南山에 장사 지내다.
영조	17	1741	신유	乾隆	6	-	문집이 간행되다.(李光庭의 序)
고종	8	1871	신미	同治	10	-	‘忠簡’으로 시호를 내리다.
고종	23	1886	병술	光緒	12	-	후손 李綱在가 문집을 중간하다.(金興洛의 跋)

### 편찬및간행

저자의 문집에 대해서는 1693 년에 지어진 神道碑銘(李沃 撰)에도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유문에 대한 정리가 뒤늦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朝聞錄」이나 「博約集說」의 경우는 1641 년에 쓴 李光庭의 <博約集跋>과 본인이 지은 서문이 있어 일찍부터 편찬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朝聞錄은 저자가 淸의 구류에서 돌아온 직후에 이루어졌는데 이는 深河의 役에서 義節을 저버렸다는 비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한편 이것은 후손에 의해 문집이 발간되는 동기가기도 하였다. 1740 년에 쓰여진 柳升鉉의 後識에서는 그 후에도 계속되던 저자에 대한 모함을 없애고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 柵中日錄 등을 포함한 문집을 발간하게 되었다고 하였으며, 李瀾과 李光庭의 서문에서도 저자가 억울한 무고를 받아왔음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다. 저자의 유문은 曾孫 李秀泰에 의해 수집 정리되었고, 그의 아들인 李德龍의 부탁으로 李光庭의 교정을 거쳐 1741 년에 義城의 茶井齋舍에서 목판으로 개간되었다.《초간본》

그런데 이 초간본에 실린 李瀾의 서문이 乙丑年(1745)으로 되어 있고, 중간본의 발에 초간본이 純廟 辛酉年(1801)에 간행되었다고 적혀 있어 간행연대가 의심스러운 점이 없지 않다. 즉 초간본 말미에 ‘辛酉年 四月 茶井齋舍 開刊’이란 刊記는 분명하지만 그 연도가 1741 년인지 1801 년인지가 애매한 것이다. 그러나 본 문집의 존재가 정조 연간에 편찬이 완료된 「鏤板考」와 「增補文獻備考」에 실려 있고 문집의 편찬 주체가 저자의 曾孫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1741 년이 더 설득력이 있다. 따라서 이익의 서문은 후에 추각하여 덧붙인 것이고 重刊跋의 내용은 후대의 착오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초간본은 현재 규장각(奎 7130)과 장서각(4-6432), 국립중앙도서관(한 46-가 1891) 등에 소장되어 있다.

그 후 목판이 화재로 소실되자 1886 년 후손 李綱在가 초간본에서 누락된 유문 약간 편과 연보를 증보해 8 권 3 책으로 편차해서 金興洛의 발을 실어 목판으로 간행하였다.《중간본》 중간본의 간행 당시 저자의 유문은 10 권의 분량으로 초간본 7 권 외에 「博約集說」과 年譜, 諡狀 등의 부록문자를 합하여 3 권이 더 있었는데, 이 중 「博約集說」은 별도로 간행하고 부록을 상하 두 권으로 나누어 중간한 것이다. 중간



본의 구성과 내용은 초간본과 다른 점이 많다. 우선 시의 경우 편차 순서를 많이 바꾸어 저작 연대별로 배열하였으며, 편자의 小註를 달아 저작 배경을 설명하였고 다른 작품과 같이 제목도 관직을 빼고 대부분 字를 쓰는 등 대체로 일관성 있게 손질하였다. 이 밖에 자식들에게 보내는 書 3 편, 〈杜句類抄序〉를 증보하였으며, 권 5 와 권 6 은 西行錄이라는 제목하에 〈柵中日錄〉과 〈建州聞見錄〉을 편차하고, 〈越江後追錄〉을 빼고 부록에 〈上言草〉를 첨가하였다. 이 본은 장서각(4-6431), 국립중앙도서관(古 3648-文 62-195), 연세대학교 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본서의 저본은 1741 년에 목판으로 간행한 초간본으로 규장각장본이다. 저본 중 後識의 板次 '二十四...二十七'은 '二十五...二十八'의 誤記이다.

序(李光庭 撰), 跋(柳升鉉 撰), 重刊跋(金興洛 撰)에 의함

## 구성과내용

본집은 7 권 2 책으로 권 1 은 시, 권 2~6 은 문, 권 7 은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수에 李瀾과 李光庭의 서가 있고, 목록은 없으며 권말에 柳升鉉의 後識가 실려 있다.

권 1 은 賦 3 편과 각 체의 詩 10 여 편이다. 〈上流飲犢賦〉는 漢城試에 장원했던 작품으로 堯 임금 때 許由의 고사를 인용한 것이고, 〈義牛塚〉은 주인을 구하기 위해 호랑이에게 덤벼 목숨을 잃은 소를 기린 것으로 義節을 강조한 내용이다. 시는 挽詩 외에는 대체로 칠언시인데 워낙 적은 편수여서 저작 연대를 무시한 채 나열되어 있다.

권 2 는 疏筭 9 편과 啓辭 1 편, 書 9 편, 祭文 4 편이다. 이 중 〈自建州還後陳情疏〉는 저자가 建州에서 풀려난 직후에 자신이 투항하게 된 경위를 변명하는 내용이지만 당시 明·淸·朝鮮 삼국의 미묘한 관계와 강화를 맺게 된 경위를 문답식으로 상세히 기술하고 있어 사료적 가치가 있다. 이 밖에 두 편의 擬疏는 모두 저자가 제안하고 싶었던 국가의 방어책을 기술한 것이고, 나머지는 사직소이다. 그리고 〈答上兩兄書〉는 建州에 구류되어 있는 동안 서신의 왕래가 가능했음을 나타내 주는 서간문이다.

권 3 은 序 3 편, 跋 3 편, 墓誌와 行狀 각 1 편씩이다. 「朝聞錄」은 저자가 구류기간 동안 「性理群書」와 「二程全書」, 「名臣言行錄」, 「皇華集」 등에서 名句를 초록한 것으로 '朝聞道夕死可'라는 구절에서 제목을 취하였는데 스스로를 黃霸와 夏侯勝의 故事에 비기면서 자신의 節義를 보인 것이다. 이에 대한 後序가 실려 있고, 〈博約集說序〉는 「論語」, 「孟子」, 「禮記」, 「周易」 등에 나오는 顏子에 관한 말과 그 주석들을 모아 편찬한 「博約集說」에 대한 서문으로 이에 대해서는 李光庭의 발문이 있다. (訥隱集 卷 8) 이외에 先考의 묘지와 申之儔의 행장이 있다.

권 4 의 〈祭品定式〉은 祭禮에 쓰이는 품목을 정해 놓은 것이고, 〈對或問〉은 인조반정 이후 田制, 貢納, 奴婢, 築城, 馬政, 錢貨, 兵制, 賦役 등 여러 事目的 정리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저술한 것으로 저자의 실리적인 經世觀을 엿볼 수 있다.

권 5 는 〈柵中日錄〉으로 1618 년 4 월 明의 徵兵에서부터 1620 년 滿浦鎭에 도달하기까지의 일기인데 1619 년의 기술이 가장 자세하다. 渡遼助明軍이 구성되면서부터 직접 종사했던 당사자의 기록으로 당시 遼東에서의 明과 淸의 상황 그리고 조선군의 동태에 대해 알 수 있는 자료이다.

권 6 의 〈建州聞見錄〉은 누루하치 통솔하의 滿洲族의 상황을 기록한 것으로 군제인 八旗制를 비롯하여 생활습관, 혼인과 복장에 대한 기록까지 자세히 서술하여 만주족의 연구에 자료적 가치가 있다. 그리고 끝에는 이들에 대한 방비책 6 가지를 건의하였다. 〈越江後追錄〉은 姜弘立의 패전 후 국내에 떠돌던 자신

에 대한 모함을 변명하기 위한 것이며, 권말의 〈憂憤詩〉와 〈題崔陟傳後〉는 형인 李民歲이 저자의 억울함에 대한 울분과 변론을 시로 지은 것이다.

권 7 은 附錄으로 行장(申悅道 撰)과 신도비명(李沃 撰), 제문, 향교제문, 永溪書院祭文, 挽詞 등이다.

## 이민환(李民奐)

### 정의

조선시대 영천군수, 호조참의, 형조참판 등을 역임한 문신.

### 개설

본관은 영천(永川). 자는 이장(而壯), 호는 자암(紫巖). 이세헌(李世憲)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이여해(李汝諧)이다. 아버지는 관찰사 이광준(李光俊)이며, 어머니는 평산신씨(平山申氏)로 선무랑 신권(申權)의 딸이다. 장현광(張顯光)의 문인이다.

### 생애 및 활동사항

1600 년(선조 33)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그 뒤 검열·정언·병조좌랑을 거쳐, 1603 년 암행어사로 평안도에 가서 수령의 비행과 민정을 살폈으며, 1608 년 영천군수로 나갔다. 1618 년(광해군 10) 명나라에서 군원을 요청하자, 원수 강홍립(姜弘立)의 막하로 출전하여 부차(富車)싸움에서 패하여 청군의 포로가 되었다.

17 개월 동안 청나라의 항복 권유를 물리치고, 1620 년에 석방되어 의주에 이르렀을 때 사원을 가진 박엽(朴燁)의 무고를 받아, 4 년간 평안도에서 은거생활을 하다가 1623 년(인조 1) 인조반정으로 서울로 올라왔다. 이괄(李适)의 난 때와 정묘호란 때 왕을 호종하였고, 1636 년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영남호소사(嶺南號召使) 장현광의 종사관이 되어 출전하였다.

난이 끝난 뒤 군자감정으로 통정계(通政階)에 올랐고, 이어 동래부사가 되어 번거로운 폐단을 근절하였다. 그 뒤 판결사·호조참의·형조참판에 임명되었다가, 1645 년에 경주부윤으로 나갔다.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충간(忠簡)이다. 저서로는 『건주견문록(建州見聞錄)』, 『자암집』이 있다.

卷之二 / 書

답신생망구 홍망 서 시신공반자전주 答申甥望久 弘望 書 時申公半刺全州

15世 홍망(弘望) 父 : 지제(之悌) 祖父 : 몽득(夢得) 귀파(龜派)오봉공파(梧峰公派)

近日連承遠書。審侍奉吉慶。朴府尹何遽至此也。此令公頗有洪量。與物無忤。實末路難得之人。而 **P** 耽嗜麪羹。家有九十老親。不自謹慎。痛惜痛惜。新府尹。未知誰某爲之。吾病中。炎熱如焚。晝夜熬煎。憫不可言。聞都郎又生子。子與壻一時生子。實是一家之慶。無由把袂以賀。可恨。

紫巖集 卷三 三十三

患濫用人情。遂成痼弊。若不痛禁。雖是土產。怨苦則一。宜令紬綿。盛於柵籠。以踏印紙塗其外面。直於提調開坐。監察請臺之日。使之進納。則阻撻之弊。庶乎少熄矣。此在執事一轉移之間。而若以擅便爲嫌。則伏乞閣下將紬綿稅太曲折。具由入啓。換定而防禁下人操縱之弊。不勝幸甚。係是民生大利害。不得不冒瀆。無任悚仄之至。

答申甥望久 弘望書 時申公半刺全州

近日連承遠書。審侍奉吉慶。朴府尹何遽至此也。此令公頗有洪量。與物無忤。實末路難得之人。而耽嗜麪羹。家有九十老親。不自謹慎。痛惜痛惜。新府尹。未知誰某爲之。吾病中。炎熱如焚。晝夜熬煎。憫不可言。聞都郎又生子。子與壻一時生子。實是一家之慶。無由把袂以賀。可恨。

寄諸子書 癸未十二月。爲戶曹參議時。

近日寒冽。諸况如何。吾行到醴泉水山驛。境內民人等。持狀齊訴。京人姜渭興等。防納本郡稅米。豆於可興倉。倍後徵捧。侵督如火。勢將流離云。事極驚駭。招詰支待鄉所。使之緩督。肅謝後將論啓。判書參判極口救解。吾豈受制於長官而在法循

卷之二 / 祭文



제신오봉문 祭申梧峯文

14世 지제(之梯) 父 : 몽득(夢得) 祖父 : 응규(應奎)

귀파(龜派)오봉공파(梧峰公派)

惟靈宇宙間氣。河嶽鍾精。早擢巍科。人皆信其片。玉。歷敷臺府。世共謂之條冰。三佩銅符而爭歌何暮。晚登喉司而佇見惟允。如何二豎之侵。遽至兩楹之夢。九重軫不憖之懷。多士起云亡之痛。嗚呼哀哉。端重之容。正直之氣。洪大之量。孝友之行。宏博之學。政事之才。吾不得而見之。天胡爲至於斯哉。當公之病也。嬋媛先訃。聖善繼逝。公遂不起。皆在於一兩月之間。世寧有此酷耶。善者福。仁者壽。天道也。而善不必福。仁不必壽。有如是哉。然猶有可慰者。幹蠱一子。有公之風。岐嶷孫兒。骨相不群。知天之報施。當不差於毫髮。若有證於質劑。于公之門。駟馬可容。張氏之後。冠冕不絕。顧不猗歟。僕萬死之餘。尚保視息。而公爲泉下人。仁莫余補也。善莫余責也。含杯酒而忘飲。就枕席而却坐。嗚呼。昔之人尚友千古。常嘒嘒而不已。矧乎生并一世。居共一鄉。又有此婚姻之好。景仰之懷。悲感之情。曷有窮已。日月如流。宿草已荒。再暮遽周。靈筵將撤。臨風一慟。萬事已矣。僕亦近來。齒髮日益衰。眼視昏花。耳聽聵聵。能幾何於世上。當永隨於地<sup>P</sup>下。公其有知耶。言盡於此。又一慟而不知止。嗚呼哀哉。

祭申梧峯文

惟靈宇宙間氣。河嶽鍾精。早擢巍科。人皆信其片玉。歷敷臺府。世共謂之條冰。三佩銅符而爭歌何暮。晚登喉司而佇見惟允。如何二豎之侵。遽至兩楹之夢。九重軫不憖之懷。多士起云亡之痛。嗚呼哀哉。端重之容。正直之氣。洪大之量。孝友之行。宏博之學。政事之才。吾不得而見之。天胡爲至於斯哉。當公之病也。嬋媛先訃。聖善繼逝。公遂不起。皆在於一兩月之間。世寧有此酷耶。善者福。仁者壽。天道也。而善不必福。仁不必壽。有如是哉。然猶有可慰者。幹蠱一子。有公之風。岐嶷孫兒。骨相不羣。知天之報施。當不差於毫髮。若有證於質劑。于公之門。駟馬可容。張氏之後。冠冕不絕。顧不猗歟。僕萬死之餘。尚保視息。而公爲泉下人。仁莫余補也。善莫余責也。含杯酒而忘飲。就枕席而卻坐。嗚呼。昔之人尚友千古。常嘒嘒而不已。矧乎生并一世。居共一鄉。又有此婚姻之好。景仰之懷。悲感之情。曷有窮已。日月如流。宿草已荒。再暮遽周。靈筵將撤。臨風一慟。萬事已矣。僕亦近來。齒髮日益衰。眼視昏花。耳聽聵聵。能幾何於世上。當永隨於地

紫巖集 卷二 三六



제신수찬 달도 문 祭申修撰 達道 文

13世 달도(達道) 父 : 흘(屹)      祖父 : 원록 (元祿)      읍파(邑派)만오공파(晩悟公派)

嗚呼哀哉。端重之容。剛方之氣。吾不得而復見矣。正直之言。慷慨之論。吾不得以復聞矣。天乎天乎。既賦公如此之才之美。而胡嗇公以黃耇期頤之壽乎。哀然舉首。聲振文闈。屈跡真郵。剗弊蘇繭。貳棘雄州。游刃恢恢。翱翔臺府。一鶚秋天。有犯勿欺之志。難進易退之風。不惕於威。不吐於剛。人皆信其大有展布。那知一疾遽至於此。茲豈非命耶。今公之亡也。士類莫不靈傷。而鄉里之間。不無嗶舞。正吾夫子所謂鄉人之善者好之。不善者惡之。公無愧此矣。年相若也。居相近也。又有葭莩之親。公不以不如己而見遺。平生過從之樂。壘唱而箎和。蘭臭而金斷。豈料今日棄余而先逝。公嘗謂余曰。朴拙之性。仕宦非樂。早謝簪笏。誅茅於金城之麓。與吾子杖履相從。此吾之志。方鳩材料。擬將營造。何人事之不如意一至此哉。嗚呼哀哉。家兄之喪。未踰數暮。公又繼逝。踽踽此生。尙寐無覺。疾病侵尋。吾能有幾。尙相從於地下。庶不負於初約。公其知耶。執爵一痛。萬事已矣。嗚呼哀哉。

紫巖集 卷二 祭申修撰 達道 文 嗚呼哀哉。端重之容。剛方之氣。吾不得而復見矣。正直之言。慷慨之論。吾不得以復聞矣。天乎天乎。既賦公如此之才之美。而胡嗇公以黃耇期頤之壽乎。哀然舉首。聲振文闈。屈跡真郵。剗弊蘇繭。貳棘雄州。游刃恢恢。翱翔臺府。一鶚秋天。有犯勿欺之志。難進易退之風。不惕於威。不吐於剛。人皆信其大有展布。那知一疾遽至於此。茲豈非命耶。今公之亡也。士類莫不靈傷。而鄉里之間。不無嗶舞。正吾夫子所謂鄉人之善者好之。不善者惡之。公無愧此矣。年相若也。居相近也。又有葭莩之親。公不以不如己而見遺。平生過從之樂。壘唱而箎和。蘭臭而金斷。豈料今日棄余而先逝。公嘗謂余曰。朴拙之性。仕宦非樂。早謝簪笏。誅茅於金城之麓。與吾子杖履相從。此吾之志。方鳩材料。擬將營造。何人事之不如意一至此哉。嗚呼哀哉。家兄之喪。未踰數暮。公又繼逝。踽踽此生。尙寐無覺。疾病侵尋。吾能有幾。尙相從於地下。庶不負於初約。公其知耶。

知邪。執爵一痛。萬事已矣。嗚呼哀哉。

祭旅軒張先生文

惟先生學究誠明。道傳晦退。潛心積躬。粹面盎背。當今達尊。國中矜式。天不愍遺。斯文之厄。九重震悼。多士雪涕。噴寧無憾。始終以禮。顧惟無狀。屢蒙警誨。春風座上。積雪門外。杖屨之下。奉以周旋。山頽今日。恨未溘先。聊奠菲薄。一慟再嗑。神其降臨。照此衷曲。

祭金經歷是樞文

惟靈稟賦之厚。氣力之健。加於人數等。是以年過

紫巖集 卷二

三六

六旬。肌膚充實。毛髮不衰。人皆以遐壽期之。豈料一疾遽至於此。天之難諶。而理有所不可必者邪。嗚呼哀哉。昏朝之日。奸兇擅權。人莫敢議。公獨挺身奮發。唱率嶺儒。繭足千里。顛訴九重。一時兇類側目。切齒。人莫不危之。公獨怡然。不少搖挫。何其壯哉。三登仕籍。竟以寘合。蹉跎於仕路。而終莫之悔。豈是趙孟所可貴賤也哉。昔我先君與鶴峯先生交契甚厚。僕在弱冠。樞衣於函丈之間。多承警誨。因與公為莫逆交。約為婚姻。永以為好。不幸兒子妖札。公又不壽。何人事之舛錯。一至此哉。僕



## 卷之三 / 行狀

## 신오봉행상 申梧峯行狀

14世 지제(之悌) 父 : 몽득(夢得) 祖父 : 응규 (應奎) 귀파(龜派)오봉공파(梧峰公派)

夫源深者流遠。根厚者枝茂。此天理之必然也。水木尙爾。況積善之餘慶者乎。觀於鵝洲申氏家。尤信。在昔麗朝。全羅道按廉使申祐。版圖判書允濡之子也。有至行。廬墓三年。日夜號哭。有雙竹生塋前。人以爲誠孝所感。事聞旌閭。丹陽郡守希信。乃其孫。卽公之七代祖也。公諱之悌。字順夫。考諱夢<sup>P</sup>得。贈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兼經筵參贊官。祖諱應奎。贈嘉善大夫工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行承仕郎。恭陵參奉。曾祖諱翰。贈通政大夫掌隸院判決事。妣贈淑夫人月城朴氏。士人敏樹之女。厚陵參奉亨孫之孫也。以嘉靖壬戌七月辛丑。生公。公天性至孝。生八歲。丁母夫人憂。執喪終制。無異成人。小妹生未晬而母夫人下世。襁褓中啼聲甚哀。公亦稚齡。痛自悼念。常抱置所處房內。勤求乳孀。親自護養。晝夜不離于傍。聞者異之。自幼刻意爲學。隣有一門老。挾冊請學。<sup>P</sup>門老方鋤圃。久不出。公輒涕泣。立於樊外。必受課學。然後乃辭去。稍長。益辨志勵業。考左承旨公慨念門戶衰替。日夜勸督。冀其成立。聞安東金上舍彥璣有學行。教誨生徒。公年未成童。負笈往從之。厲志力學。夙夜勤苦。金公奇之曰。此兒言貌謹重。篤學又如此。他日必成大器。年十七。讀書山堂。一日有村女美貌者。就見因以往來。或至夜深躑躅。公默識其意。使其女取楚來。正色曰。汝無端到此。夜分不還。必有意於吾也。汝以村女。陰懷貳心。欲褻書生。焉得逃其罪乎。撻之以送。居數十日。一漢<sup>P</sup>持酒饌進餽。公素不相知。問其故。漢曰。聞公有盛德。教村女以正道。故來拜耳。蓋其女感其言。還告其夫也。公自少持身莊嚴。類如此。萬曆己丑。擢增廣甲科第三人。拜司贍寺直長。朝中人見公風儀秀出。動止閒習。無不嘖嘖稱歎。辛卯春。陞成均館典籍。卽授司憲府監察。秋。除禮安縣監。金鶴峯惜之曰。仕進之初。何汲汲求外補乎。近日朝議將薦君兵郎。盍少待乎。公答曰。仕路通塞有數。且縣近庭闈。便於省養。卽赴任。翌年壬辰。遭倭變。領兵赴東邊。聞賊充斥內地。還守本縣。安集使以安東無<sup>P</sup>守。檄公兼任。仍招集兩邑兵民。親領赴龍宮地。遮截賊路。兵散而還。賊自安東犯本縣。公更謀舉兵。賊退乃止。當亂初搶攘之日。列郡守令皆棄城逃竄。而公以白面書生。獨提兵奮義。爲遏賊之計。時論韙之。巡察使以公不離任所。論啓賞職。兼禮曹正郎春秋館編修官。時歲荒民飢。公盡力賑救。逐日分給斗粟。曰人情見多則易費。不如隨急輒救。以此縣民賴免顛壑。遠近流丐。聞聲全集。公無不賑恤曰。此皆國民。何分彼此。全活者甚衆。公常慨念年少未及溪門。自莅本縣。往來陶山。與長老<sup>P</sup>士友。講究學問旨訣。商確政務。殆無虛日。公與烏川金內翰垓。同登己丑榜。亂離中。公守本縣。金內翰爲義將。因以相從。交契甚篤。每語及時事。輒相與慨然曰。吾輩當一心殉國。脫有不幸。可託以妻子。未久。金內翰卒逝。闔家飢餒濱死。公爲之愍念。盡力賑濟。率致稚兒于衙內。羸瘠骨立。夫人承公命。親自梳類。去其垢蝨。先以稀粥。潤其枯腸。經月後始飯之。得以保活。幽明之間。終始不負。公之高義。可謂無媿愧古人矣。丙申夏。瓜蒲。體察使啓請仍任。丁

酉春。拜司諫院正言。遞授侍講院文學。以 **P** 親家在南方。去賊藪不遠。無意遠宦。從事於巡營幕下者二年。庚子春。拜全羅都事。辛丑。除禮曹佐郎。陞正郎。秋。除全州判官。巡察使以兼任留營事務煩劇。公盡心裁決。咸當於理。巡察弟。恃勢干請。公一切揮斥。抑強扶弱。威惠竝行。吏民莫不畏服。遞後。州人立碑頌之。壬寅春。拜司憲府持平。旋遞爲體察使從事官。秋。爲全羅道暗行御史。癸卯。按覈慶尙道軍務。甲辰夏。復除侍講院文學兼春秋館記注官知製教。參宣武扈聖勳一等。乙巳夏。復入爲持平。兼職如故。時有風水災。自上 **P** 求言。府中將陳筍。公構草。有權奸當國語。大司憲朴承宗怒其語逼時宰。格而不奏。遂呈告歸鄉。丙午秋。除統制使從事官。行裝諸具。無不破毀。人有言統營。工匠聚會處。何如是罷弊耶。公曰。吾嘗見統制使內外求請軸。其中所載。不可勝計。目閱可駭。吾何忍添名於其間乎。丁未春。除江界判官。以親病未赴。其夏。丁內艱。廬墓三年。哀毀盡禮。足不出山門。己酉。服闋。時昏朝政亂。除工曹正郎。不赴。庚戌。除忠清都事。李蒼石贈詩曰。臺閣卽今多後進。朝廷誰復記先生。數月卽解歸。秋。除咸鏡道評 **P** 事。辛亥冬。除全羅都事。皆不赴。癸丑秋。除昌原府使。爲繼母養。黽勉赴任。當路者以奴婢相訟事。請囑。公據理斥之。時鄭仁弘以領相在陝川。遙執朝權。四隣守令。莫不奔走干謁。惟恐或後。而昌原去陝川不遠。公絕不到其門。仁弘雖知其不附。而亦無以怒也。有一品官做言。府使私用宮闕綿布四十疋。播告仁弘。仁弘曰。吾聞其爲政。必不爲此也。公聞之。卽令鄉所。會府民。查覈綿布。而終不問做言者。及公之歸也。其人來餞路上。追謝而去。蓋其心服也。本府兵燹之後。學校頽廢。公卽鳩材營建。 **P** 勸課儒學。有獷賊群聚島中持兵阻險。出入焚掠。隣邑懼不能下手。朝家甚憂之。公設爲方略。悉加勦捕。其黨瓦解。沿海諸郡賴以無事。事聞。陞通政階。戊午春遞還。閒居六年。至癸亥春。朝廷清明。公聞反正之夜。廢主蒼黃逃竄。卽潸然出涕曰。自取誰尤。今上卽位初。擢拜同副承旨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以病陳疏不赴。甲子正月初八日。終于正寢。享年六十三。葬義城縣羽谷面栗谷里己坐亥向之原。丙戌。追贈嘉善大夫吏曹參判兼同知經筵義禁府春秋館成均館 **P** 事。世子左副賓客。蓋以公在宣廟朝參勳。故有此恩例也。公天資粹美。器度寬偉。居家以孝悌爲本。持身以忠信爲主。平生以早失所恃。爲至痛。義興外家。母夫人結縵時寢房猶在。公自少往來之日。嘗到房外。遶壁叩窓。悲泣不自勝。傍人爲之隕淚。奉繼母吳氏。至老不懈。滄澹之供。盡力取足。凡家間事。無不將順。蓋有人所難能者。而亦有人所不及知者。伯氏長於公纔一歲。而自兒時事之如嚴父。愛敬備至。壬辰亂。遭鴿原之變。身縻職事。未及奔赴救護。尋常追戀。輒泫然流涕。友愛諸 **P** 弟。常加警誨。恩義俱篤。是以人無間言。公憫念宗姪之少孤零丁。祠廟之修。享祀之具。必躬自措置。分己田土。以助奉先之資。祭祀時。必前期齋沐。悲感之容。見於顏面。及其老病。猶教督姪孫。略無暇日。子弟等諫其病中勤昔。公卽斥之曰。何忍使亡兄子孫。爲禽獸乎。歲癸亥。公年過六十。已患風痺。往調山齋。而繼母吳氏。亦感疾。公以山齋去親家稍隔。卽強疾來侍湯藥。過三冬。日夜不怠。元氣萎蕩。殆不支持。子弟親屬。咸言他子弟多在親側。公宜退家調病。公堅執不許。及其病篤。不省人事。而 **P** 憂慮母病。頃刻不弛。吳氏病革。公亦奄奄。子弟舁公還家。而母氏何嘗



之問。嗚咽在口。侍者以砂糖入口。不能下咽。而惟聞喉中微聲。此物進母氏否。身後事無一毫言及。而母病何如之說。既絕乃已。嗚呼孝乎。孝子不匱。永錫爾類者。其公之謂乎。公性勤儉仁厚。莊毅有守。居常晦默。不自矜伐。樂聞人善。而務掩其過。每早起頭不脫冠。腰不解帶。雖一家人。未嘗見其惰慢之容。平生華靡之服。不掛於身。嘗著木綿衣曰。此服於余甚便。平居手不釋卷。在官時。晝則整理公務。夜則張燈讀書。輒至夜<sup>P</sup>分。夫人曰。釋褐已久。何乃自苦至此。公笑曰讀書豈但爲立揚而已乎。常戒其子弟曰。吾以草莽。幸叨科第。汝等須十分謹慎。勿言人之惡。人或議己。切勿相較。內外親屬之貧窮者。曲加矜念。隨力周急。至於婢僕下賤。飢寒疾病。無不救恤曰。是亦人子。而寄命於我者也。惠愛勤至。咸得歡心焉。其處鄉也和氣藹然。與人有父母者語。必教之以孝養。與有兄弟者語。必勸之以友愛。與儒士語。必勸之以讀書。待人接物。一以誠款。故至今鄉人莫不敬慕焉。其立朝也。志操堅確。進退明正。律己清謹。務<sup>P</sup>持大體。常曰居官者以罷職爲恐。則不得不屈於人。是以在官爲政。必行己志。寘散之日。尋常書札。絕不入京。一生蹤跡。未嘗及於權貴之門。嘗在京時。有連姻時士來見曰。某宰相愛君欲見。君須往拜。公不答。他日又來言。公曰。草莽寒士。何敢跡及權貴門庭乎。其人怫然而去。隣邑。有一朝士。方幸於權門。一日。夜來宿公寓所曰。某宰相常語及君。頗願見。君可往拜。公切責曰。君我俱是寒士。濫叨科第。此亦萬躅涯分。況仕路窮通有命。不可汲汲有榮進之心。我則決不敢。君當自慎行止。其人慙<sup>P</sup>恨而去。未久。竟遭竄謫。公閒居有詩曰。可惜南州淪謫客。失群何事落深坑。自註其下曰。災厄之來。有係於天。有係於人。係於天者。吾無如何。係於人者。可慎而避之。某也。不念友生忠告之情。急於仕進。自蹈禍機。惜哉。渠能記憶吾言否。世之知公者。皆以公輔期之。卒之位不滿德。年未耄耋。豈非有數存乎其間。而抑難進易退之節。有以致之耶。柳西厓一見。稱其爲第一人物。張旅軒亦謂公賢人。稱道不已。諫詞曰。溫恭雅度非虛矯。樂易真情是自然。先兄敬亭祭文。有曰。確乎難拔之操。毅然難<sup>P</sup>犯之色。恢乎有容之量。今不可得而復見矣。又曰。秉簡而著直節之名。理劇而騰循良之聲。余雖不言。世固有知者云。則公之風神事蹟。概可想見矣。公初居梧桐山北。自號梧峯。晚年。移居龜村。又號龜老。公娶咸安趙氏。贈嘉善大夫吏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行通訓大夫珍山郡守銅虎曾孫。贈資憲大夫刑曹判書兼知義禁府事址之女。生一女一男。女適進士李學。男弘望。前司諫院正言。娶前參判李民奐女。有一男八女。男曰漢老。女壻士人柳重河金時任。李朝衡。任世準。都爾高。餘<sup>P</sup>未嫁。庶子漢傑。漢伯。公在宣城。當大饑。血誠賑救。全活屢千人。時公無嗣。夢忽有神人來告。君積善。天將錫君奇兒。君其受之。以望字名焉。庚子。正言果生。積善餘慶。其理有必然者。有才行。爲士類所重。當不墜家聲。流遠而枝茂者。其將復在斯歟。年月日。嘉善大夫前刑曹參判李民奐。謹狀。

만사[신유] 輓詞[申濡]

16世 유(濡) 父: 영석(永錫) 祖父: 강(綱) 읍파(邑派) 삼백당공파(三栢堂公派)

雷雨當年起涸鱗。欸來鷓列珥貂新。秋曹峻秩尙書亞。海甸治聲兩府隣。已道盤根須利器。亦知明主重才臣。白頭報國心何壯。埋入泉臺鬱未伸。

<p>又 知公大器實時需。文武全才孝友俱。少日光輝 映聯壁。卽今簪笏帶雙珠。亞卿峻秩入猶憾。七 袞遐齡理亦吁。哭向南雲多憾慨。荒詞未必減 生芻。</p>	<p>又 雷雨當年起涸鱗。欸來鷓列珥貂新。秋曹峻秩 尚書亞。海甸治聲兩府隣。已道盤根須利器。亦 知明主重才臣。白頭報國心何壯。埋入泉 臺鬱未伸。</p>	<p>紫巖集 卷七 二十二 又 高標落落古人心。文彩先朝舊翰林。塵世是 非都夢幻。名場蹤跡任浮沉。家傳詩禮庭趨玉。 身契風雲帶有金。關嶺橫天違執紼。可堪回首 一沾襟。</p>	<p>又 先朝學士比肩誰。中道林泉數遇奇。白首久爲 羣少愠。丹心終被聖君知。官高未試擎天手。 身退猶矚戀國眉。庭畔槐陰看漸滿。應教餘 慶在枝枝。</p>
----------------------------------------------------------------------------------------------	----------------------------------------------------------------------------------------------	-------------------------------------------------------------------------------------------------------------	----------------------------------------------------------------------------------------------

一五二

## 장암선생집(丈巖先生集)

## 형태서지

권수제	장암선생집(丈巖先生集)
판심제	丈巖集
간종	활자본(芸閣印書體字)
간행년	1756年刊
권책	26권 15책
행자	10행 20자
규격	21.9×14.9(cm)
어미	上白魚尾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도서번호	국립중앙도서관 한46-가259, 규장각 奎7110
총간집수	한국문집총간 157

## 저자

성명	정호(鄭澔)
생년	1648년(인조 26)
몰년	1736년(영조 12)
자	중순(仲淳)
호	장암(丈巖)
본관	연일(延日)
시호	문경(文敬)

## 행력

왕력		서기	간지	연호		연령	기사
인조	26	1648	무자	順治	5	1	10월 10일, 태어나다.
현종	8	1667	정미	康熙	6	20	부친상을 당하다.
~	~	~	~	~	~	~	상을 마치고 尢庵 문하에 나아가 수업하다.
숙종	4	1678	무오	康熙	17	31	봄, 모친상을 당하다.
숙종	6	1680	경신	康熙	19	33	別試에 응해 初試에 1등 하다.
숙종	10	1684	갑자	康熙	23	37	文科에 급제하다.
숙종	11	1685	을축	康熙	24	38	槐院에 선보되다.
숙종	12	1686	병인	康熙	25	39	예문관 검열이 되다.
숙종	13	1687	정묘	康熙	26	40	가을, 대교가 되다. ○ 時事를 記注한 것으로 인해 高陽에 遷배되다.
숙종	14	1688	무진	康熙	27	41	1월, 赦免받아 봉교가 되다. ○ 성균관 전적, 예조 좌랑, 병조 좌랑이 되다. ○ 5월, 정언이 되어 吳道一을 削版할 것을 청하다. 곧 金弘福, 朴泰淳 등의 공척을 받고서 외직으로 나가 石城 縣監이 되다.
숙종	15	1689	기사	康熙	28	42	봄, 병조 좌랑이 되었다가 己巳換局이 일어나자 鏡城 判官으로 쫓겨나다. ○ 尢庵의 訃告를 듣고 복을 입다. ○ 鏡城에서 彰義祠에 제향하고 壬辰亂에 倡義한 자의 자손을 復戶하다. 「擊蒙要訣」, 「喪禮備要」 등을 간행하여 학문을 장려하다.
숙종	16	1690	경오	康熙	29	43	겨울, 대간의 탄핵으로 仕版에서 삭거되다. 이후 延豐 丈巖에 우거하며 인근의 유생과 講學하다.
숙종	20	1694	갑술	康熙	33	47	4월, 지평이 되다. ○ 상소하여 趙嗣基가 明聖王后를 誣辱한 것을 논핵하다. 또 徐文重, 李玄逸의 처벌을 청하다. ○ 8월, 弘文錄에 뽑히다. 수찬 겸 지제교가 되다. ○ 상소하여 張希載를 옹호하는 南九萬을 배척하니, 嚴敎를 받다.
숙종	21	1695	을해	康熙	34	48	봄, 부교리가 되다. ○ 가을, 정언, 수찬이 되다. ○ 李師尙의 疏斥을 받고 丈巖으로 내려가다. ○ 11월, 교리가 되다.
숙종	22	1696	병자	康熙	35	49	외직으로 나가 義城 縣令이 되다.
숙종	24	1698	무인	康熙	37	51	1월, 수찬, 필선이 되다. ○ 3월, 집의가 되다. ○ 4월, 嶺南의 廉問御史가 되어 하직하는 자리에서 袖箭을 올려 崔錫鼎이 淸과 互市한 것을 탄핵하다. ○ 復命한 뒤 수찬, 보덕이 되다. ○ 8월, 사간이 되다. ○ 휴가를 받아 고향으로 돌아간 뒤 상소하여 성균관 祭酒로 제



장암선생집(丈巖先生集) 정호(鄭澐)

							수된 尹拯의 背師 행위를 배척하다. ○ 李彥經이 상소하여 윤증을 변호하며 공격하자, <師生說>을 지어 三事의 의리를 밝히다.
숙종	25	1699	기묘	康熙	38	52	7 월, 東萊 府使가 되다.
숙종	26	1700	경진	康熙	39	53	倭人에게 은을 받아 倭館을 보수했다는 죄로 동래 부사에서 체직되다.
숙종	27	1701	신사	康熙	40	54	2 월, 廣州 府尹이 되었으나 곧 파직되다. ○ 겨울, 예조 참의, 동부승지가 되다.
숙종	28	1702	임오	康熙	41	55	張禧嬪의 巫蠱獄으로 南九萬 등이 유배되자 李世白, 權尙夏의 권유로 상경하여, 金鎭圭 등과 淸論을 주도하다. ○ 6 월, 대사성, 이조 참의가 되다.
숙종	29	1703	계미	康熙	42	56	吳命峻의 疏斥을 받고 사직하다. ○ 4 월, 부제학이 되다. 朴世堂의 李景奭碑文 사건을 계기로 兪彥明과 李廈成을 공격하다. ○ 7 월, 이조 참의가 되다.
숙종	30	1704	갑신	康熙	43	57	1 월, 함경도 관찰사가 되다. 하직하면서 神宗皇帝의 建廟를 청하다. ○ 3 월, 동지중추부사, 판의금부사에 제수되었으나 곧 還鄉하다. ○ 부인상을 당하다. ○ 도승지, 부제학이 되다. ○ 겨울, 漢城 右尹이 되다.
숙종	32	1706	병술	康熙	45	59	부인의 장례시 山訟으로 인해 淸風에 徒配되다. ○ 가을, 사면받아 丈巖으로 돌아오다. ○ 崔錫鼎의 「禮記類編」이 나오자 權尙夏에게 편지해 世道를 바로잡을 것을 권유하며 서로 去就에 대해 의논하다.
숙종	36	1710	경인	康熙	49	63	봄, 대사간이 되자 상소하여 崔錫鼎을 논핵하다. ○ 4 월, 三年上食을 폐한다는 죄목으로 朴世堂의 門徒를 탄핵하다. ○ 부제학 겸 동지성균관사가 되다. ○ 洪胄亨의 儒罰을 환수하도록 유생들을 사주해 상소하게 한 자로 지목되어 黨論을 일삼는다는 죄목으로 甲山에 정배되다.
숙종	37	1711	신묘	康熙	50	64	8 월, 강원도 平昌으로 이배되다.
숙종	38	1712	임진	康熙	51	65	1 월, 석방되다.
숙종	39	1713	계사	康熙	52	66	2 월, 서용의 명이 내려 대사성이 되다. ○ 4 월, 병조 참판, 부제학이 되다. ○ 孝廟의 尊號를 올리는 일로 상소하다. ○ 11 월, 李明彥의 일로 상소하다.
숙종	40	1714	갑오	康熙	53	67	鄭壽期의 疏斥을 받자 외직으로 나가 京畿 監司가 되다. 대사헌 尹德駿의 상소가 나오자 사직하다. ○ 8 월, 漢城 左尹, 형조 참판에 제수되었으나 사직하다. ○ 겨울, 三陟 府使가 되다.
숙종	41	1715	을미	康熙	54	68	6 월, 부제학으로 소명을 받았으나 사직하고 樓巖으로 내려가다. ○ 「家禮源流」의 발문에서 尹拯의 죄상을 서

장암선생집(丈巖先生集) 정호(鄭濤)

							술한 일로 削黜되다.
숙종	42	1716	병신	康熙	55	69	丙申處分을 계기로 출사하여 이조 참판이 되다. ○ 孝宗을 무함한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尹宣學의 「魯西遺稿」를 毀板火書하게 하다.
숙종	43	1717	정유	康熙	56	70	상이 온천에 행차하자 行宮에 입대하다. ○ 東宮 聽政의 명이 내리자 上書하고 대죄하다. ○ 12 월, 특지로 예조 판서가 되다.
숙종	44	1718	무술	康熙	57	71	2 월, 이조 판서가 되다. ○ 3 월, 尹宣學의 配享 書院을 毀撤하기를 청하다. ○ 6 월, 이조 판서에서 면직되었다가 예조 판서, 대사헌이 되다.
숙종	45	1719	기해	康熙	58	72	봄, 공조 판서, 한성 판윤이 되다. ○ 11 월, 대사헌이 되었다가 좌참찬, 판의금부사가 되다.
숙종	46	1720	경자	康熙	59	73	肅宗이 승하하자 哀冊文 製述官이 되다. ○ 休致를 청하고 병으로 환향하다.
경종	1	1721	신축	康熙	60	74	실록청 총재관이 되어 「肅宗實錄」 편찬에 참여하다. ○ 世弟 延祜君(英祖)의 冊封과 代理를 주장하다.
경종	2	1722	임인	康熙	61	75	柳鳳輝, 趙泰耆를 논척하니, 理山으로 찬축되다. ○ 유배가는 金昌集을 전송하다. ○ 10 월, 康津 薪智島에 안치되다.
영조	1	1725	을사	雍正	3	78	봄, 사면받아 예조 판서에 제수되다. ○ 2 월, 우의정이 되다. ○ 좌의정 겸 세자부가 되다. 辛壬獄事 때 죽은 老論四大臣의 伸冤을 청하다. ○ 상소하여 景宗의 질환과 소인배의 죄를 告廟頒教하기를 청하다. ○ 4 월, 영의정이 되다. ○ 鄭錫三이 상소하여 告廟의 일을 논핵하니, 忠州로 돌아가다. ○ 9 월, 致仕하는 상소를 올리며 討逆의 義理를 논하다.
영조	2	1726	병오	雍正	4	79	3 월, 상소하여 討逆을 주장한 任徵夏를 옹호하다. ○ 12 월, 상소하여 자책하고 사직하다.
영조	3	1727	정미	雍正	5	80	상소하여 金一鏡 등 疏下六臣을 斬하기를 청하다. ○ 4 월, 영의정에서 면직되고, 영종추부사가 되다. ○ 7 월, 黨爭을 일삼는다는 죄로 파직되고, 삭탈관작 문외출송되다. ○ 10 월, 양사의 합계로 中途付處되다.
영조	4	1728	무신	雍正	6	81	1 월, 榮川郡에 유배되다.
영조	5	1729	기유	雍正	7	82	5 월, 방환되다. ○ 9 월, 직첩을 돌려받다.
영조	6	1730	경술	雍正	8	83	2 월, 판중추부사가 되다. ○ 10 월, 상소하여 蕩平策의 兩是兩非論과 調劑補습을 비판하다.
영조	9	1733	계축	雍正	11	86	2 월, 縣道로 상소하여 다시 黨論을 제기하다.
영조	12	1736	병진	乾隆	1	89	10 월 13 일, 樓巖江舍에서 졸하다. ○ 승지와 제관을

							보내 致祭하다.
영조	13	1737	정사	乾隆	2	-	1월 8일, 忠州 知藏里 花英山에 장사 지내다. ○ 京畿, 江原, 忠淸의 유생이 樓巖書院에 配享하기를 청하였으나 允허받지 못하다.
영조	32	1756	병자	乾隆	21	-	文集이 활자로 인행되다.(鄭宗의 識)
영조	45	1769	기축	乾隆	34	-	6월, ‘文敬’으로 시호를 내리다.

## 편찬및간행

저자는 權尙夏와 같이 宋時烈의 촉망받는 제자로서 초년에 과거를 포기하고 性理學에 힘썼으나, 곧 政界에 진출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는 점에서 평생을 은둔해 학문에만 몰두한 權尙夏와 대비된다. 저자가 생전에 자신의 글을 정리했다거나 自編한 흔적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1745년 李穡가 지은 行狀에서는 “文集 약간 권이 家藏되어 있다. 또 독서와 강학하던 여가에 손가는 대로 기록을 남겨 성현의 깊은 뜻을 발명한 것이 많았으나 미처 다시 정리하지 못하였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본국의 故事에 대해 어두운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檀君부터 高麗末까지 치란과 흥망에 관계된 기사를 추려내어 曾先之의 「史略」 중 그 시대를 상고해 歷代紀年 아래에 붙여서 편집해 간행하여 젊은이들의 학문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行狀, 陶菴集 卷 49)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1745년경까지 遺稿가 간행되지 못한 채 家藏되어 있었으며 시문집 외에도 經學에 관한 저술과 우리나라 歷史를 정리한 저술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전자가 「文義通考」이고 후자는 「史略補要」이다.

저자의 詩文을 처음 수습하여 정리한 것은 長子인 醉石公 羲河이다. 구체적인 과정과 시기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대략 행장이 지어지던 때를 전후하여 문집의 편차도 함께 이루어졌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평소의 저술이 遺失된 것이 많았고 특히 편지의 유실이 많아 完帙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한다. 본집의 편지가 1권 분량밖에 안 된다는 것은 저자의 사회적, 정치적 지위를 고려해보거나 동시대 다른 사람들의 문집과 비교해 보아도 상당히 적은 분량이며 대상도 매우 적은 편이다. 특히 宋時烈의 「宋子大全」, 朴世采의 「南溪集」, 李箕洪의 「直齋集」, 李柬의 「巍巖遺稿」, 韓元震의 「南塘集」 등에는 저자와 주고받은 편지가 다량 실려 있지만, 본집에는 이들에게 보낸 편지가 한 편도 실려 있지 않은 것을 볼 때, 遺稿의 수습과정에서 유실된 부분이 상당량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후 그나마 편차한 유고도 경제적인 문제로 간행하지 못하고 있던 차에 저자의 從孫인 鄭宗이 1755년 安東 府使로 나가게 되자 곧 문집의 간행에 착수하여 1756년에 鐵活字로 26권 15책을 인행하였다.《초간본》 鄭宗은 본래 저자의 親孫인데 부친인 鄭舜河가 저자의 동생 鄭泳의 양자로 나가 從孫이 된 것이다. 본집의 말미에는 간행 경위를 기록한 鄭宗의 識가 목판으로 실려 있는데, 家藏草稿를 오랫동안 보관하기도 힘들고 지금 시기를 놓치면 다시 간행할 기약이 없기에 우선 伯父인 醉石公(鄭羲河)이 편차한 것을 그대로 鐵活字로 인행해 7개월 만에 일을 마쳤다고 하였다. 그는 또 미처 수습하지 못한 文字는 이후 얻는 대로 보충하겠다고 하였으나 문집에 拾遺나 追補가 추가된 異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후 追刻은 행해지지 않은 듯하다. 본집은 규장각(奎 7110), 장서각(4-6442), 국립중앙도서관(한 46-가 259),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는데 대부분 補寫本이나 목판이 일부 보충되어 있어 깨끗한 完本이 드물다. 본집의 인행에 쓰인 활자는 芸閣印書體活字인데 字體가 깔끔하지 못하고 印行 상태도 좋지 않아 곳곳에 목활자 등 다른 활자로 보충한 곳이 눈에 띈다.

본서의 저본은 권 1~2, 권 16~19, 권 22~26 은 국립중앙도서관본이고, 권 3~15, 권 20~21 은 규장각장본이다. 다만 영인저본 중 권 4 의 제 1 판, 권 7 의 제 14 판, 권 11 의 제 1 판, 권 14 의 제 10 판은 누락되거나 補寫한 부분이어서 국립중앙도서관장본으로 대체 보완하였다.

識(鄭宗 撰) 등에 의함

## 구성과내용

본집은 26 권 15 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권두에 總目이 있고 권마다 다시 目錄이 있다. 序와 부록문자는 없고 권말에 간행자인 孫 鄭宗이 1756 년에 쓴 識가 있다.

권 1~2 는 詩이다. 약 230 여 題의 시가 詩體別로 실려 있으며 동일한 체내에서는 다시 연도별로 수록되어 있다. 오언절구(26), 칠언절구(97), 오언율시(17), 칠언율시(80), 오언고시(7)의 순으로 실려 있고, 오언배율, 칠언배율시가 한 편씩 있다. 高陽, 鏡城, 淸風, 甲山, 平昌, 薪智島 등에 유배되었을 때, 丈巖에 은둔하였을 때 지은 시가 많다. 함께 시를 주고받은 사람은 金鎭圭, 權尙夏, 宋相琦, 金構 등이며 스승인 尤庵, 선조인 松江 鄭澈, 저자가 흠모했던 石洲 權輶의 韻에 차운한 시들도 많다. 挽詩는 20 여 편으로 李世白, 閔維重, 魚震翼, 閔鎭厚, 金普澤 등 老論 선배와 동료들에 대한 것이다. 저자의 文章은 수식을 하지 않고 오직 뜻이 통하는 것을 위주로 하였으며 시에도 소박한 옛날 풍격이 있어 불만하다는 평을 듣고 있는데, 실제로 어려운 故事나 기발한 警句를 지어내기보다는 직설적이고 담담하게 심정을 읊은 시가 많다.

권 3~9 는 疏劄(122), 啓辭(6), 書啓(8), 獻議(2) 등의 公車文이다. 저자는 鄭澈의 후손이라는 배경 외에도 과격한 성격으로 黨論을 주도해왔기에 계속 반대당의 표적이 되었고 이 때문에 肅宗이나 英祖의 꺼림을 받아 벼슬길도 순탄치 못하였다. 따라서 여러 차례 유배와 외직을 전전했고 노론 집권기에도 중앙의 요직에 오랫동안 재직하지 못하였다. 三司와 副提學, 吏曹, 議政府의 직을 사임하는 사직소 외에 몇몇 주요 상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권 3~4 는 1680 년에서 1698 년 사이에 올린 疏劄 24 편이 실려 있다. 첫머리에 실린 <庚申更化後辨先誣疏>는 楊夢學의 疏에 반박해 先祖인 鄭澈이 己丑獄事時 崔永慶의 죽음에 책임이 없음을 변론한 내용이고, <正言時言事疏>는 1688 년 吳道一 등을 비난하고 金壽恒, 李選을 옹호하는 내용으로 7400 여 字에 달하는 長文의 상소인데, 저자의 과감하고 강직한 성격이 잘 드러나 있다. 유생을 대신해 지은 상소들도 내용을 보면, 李珣의 入山 사실을 金長生의 글을 인용해 증명한 洪受疇의 상소를 반박한 疏, 宋時烈的 제향 서원인 萬義書院의 건립을 청한 疏, 宋時烈的 道峯書院 배향을 반대한 李濟億을 공격한 疏, 金長生의 禮學을 멸시한 李禧鼎을 공격한 疏, 金長生의 文廟從祀를 청하는 疏 등 老論의 입장을 충실하게 대변하는 내용들이다.

권 5~6 은 1699 년에서 1717 년 사이에 올린 44 편이다. 권 4 의 <辭咸鏡監司疏> 이하는 1704 년 함경 감사 시절 저자에게 원한을 품은 李廷濟, 李振海, 崔啓翁 등의 疏가 잇달아 나오고 또 부인상을 당하게 되자 극구 사직한 내용이다. 이후 몇 년간 丈巖에 은둔하였다가 1710 년 올린 것이 역적을 비호하고 朱子學을 무시했다는 죄목으로 崔錫鼎을 논핵한 <大司諫時陳所懷疏>이다. <因尹德駿疏乞遞疏>는 저자가 鄉儒를 회유해서 疏本을 써주고 올리도록 사주했다며 무함한 尹德駿에 대해 반박한 것인데 결국 이로 인해 저자는 甲山에 정배되었다. 이 외에 「家禮源流」 발문 사건으로 인해 사직한 <辭禮曹參判疏>, 尹宣學의 文集을 毀板할 것을 주장한 <辭大司憲兼陳所懷疏> 등이 있다.



권 7~8은 1718년에서 1735년 동안에 올린 54편이 실려 있다. 권 7의 <壬寅正月...>은 1722년 柳鳳輝, 趙泰耆 등을 탄핵한 것으로 이로 인해 3년간 唐津 薪智島에 위리안치되었다. 권 8의 상소들은 英祖의 즉위 이후 올린 것인데, <論誣獄劄>는 建儲代理를 요청했다가 辛壬士禍 때 죽은 老論四六臣의 伸冤을 요청한 것이고, <辭領議政兼陳所懷疏>는 景宗의 질병을 공포하자는 저자의 告廟論을 반대한 鄭錫三의 疏로 인해 올린 것이며, <中路還鄉後辭職...> 등도 南人에 대한 차별이 미온적인 것에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영조는 肅宗, 景宗 연간의 극한적인 黨爭을 불식시키고자 蕩平策을 실시하려고 했기 때문에 노소론을 막론하고 저자처럼 黨色이 강한 인물을 싫어했고, 저자는 英祖가 老論의 추대를 받은 임금으로서 老論의 義理를 분명히 밝히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잘 맞지 않았다.

권 10은 書이다. 모두 50여 편으로 權尙夏(26), 金鎭圭(3), 李頤命(3), 李健命, 閔鎭厚, 金昌集, 李宜顯, 俞命賚, 金普澤 등 모두 17명의 인물과 주고받은 편지이다. 그러나 老論의 선봉으로 적극적으로 黨論을 주도했던 저자의 지위를 고려해 볼 때 편지의 분량이 매우 적고, 내용도 빈약한 편이다. 이는 편찬 기사에서도 언급했듯이 家藏遺稿가 상당수 遺失되었고 간행 과정에서도 편지를 제대로 수습할 만한 여유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同門인 遂庵 權尙夏와의 편지가 가장 많으며, 내용은 조카의 죽음 등 집안의 안부부터 「問疑通編」의 교정, 스승인 尤庵의 筆帖에 대한 발문, 「家禮源流」의 序跋 문제, 崔錫鼎을 經學的으로 辨破해 줄 것을 부탁한 것, 尹宣學의 문집에 대한 대응 등 다양한데 특히 권상하에게 너무 물러나 있지만 말고 정치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李頤命에게 준 別紙는 西北面의 軍政에 대한 대책을 의논한 것이고, 李禎翊에게 준 글은 <土亭集序>의 수정에 관한 내용이다.

권 11은 經義問答과 讀書漫錄이다. <經義問答>은 經書의 해석이나 논쟁거리에 대해 問目을 설정하고 거기에 답하는 형식인데 저자 스스로 설정한 문답도 있으나 실제 다른 유생들과의 문답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問目的 내용도 단순한 경서의 해석뿐만 아니라 단풍이 붉은 이유, 낙엽이 지는 이유 등 사물의 이치를 性理學的으로 설명한 것, 일상의 예절까지 다루고 있다. <讀書漫錄>도 저자가 독서하는 즈음에 깨달은 이치나 의문점들을 체계없이 써놓은 것인데, 章句의 뜻뿐만 아니라 試官을 하면서 생겼던 일, 우리나라 先賢들의 경전 해석, 門人들의 논쟁, 朱子, 程子 등 중국의 제현들과 우리나라 선현의 행적을 소개하고 있다.

권 12~21은 墓誌銘(34), 神道碑(5), 墓碣(25), 墓表(23), 諡狀(3), 行狀(13)이다. 저자는 총 100여 편의 묘도문자를 지었는데 저자의 가족이나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것이 많고, 神道碑나 諡狀 외에는 의외로 유명한 사람의 묘도문자가 적은 편이다. 가족으로는 일찍 죽은 형제 鄭泌, 鄭涉, 鄭津, 鄭溫, 鄭泳, 조카인 鄭龜河, 鄭章河, 鄭龍河, 누이(趙泰期 妻), 사위인 俞度基를 비롯해 사돈 집안인 俞正基, 俞相基, 俞命夔, 俞槐에 대한 글이 있다. 碑文은 栗谷 李珣를 제향한 江陵 松潭書院의 廟庭碑와 扶餘 義烈祠의 廟庭碑가 있는데 義烈祠는 百濟의 충신인 成忠, 階伯, 興首와 麗末의 문인 李存吾를 제향한 곳이다.

권 22~26은 祭文과 散文, 雜著, 應製錄 등이다. 권 22는 祭文(30), 告辭(2)이다. 스승인 尤庵을 비롯해 金壽恒, 金壽興, 趙師錫, 權尙夏, 李世白, 李選, 宋疇錫, 金鎭圭, 金普澤 등 老論의 인물들과 가족들에 대한 제문이며, 道峯書院, 慶州書院, 松溪書院 등의 奉安祭文과 鏡城 彰烈祠의 치제문이 실려 있다.

권 23은 序(21), 권 24는 記(23), 권 25는 跋(24)이다. 서문은 送序와 文集序, 詩序 등 다양하게 실려 있다. 「史略補要」는 저자가 曾先之의 「史略」에 우리나라의 역사를 요약하여 덧붙여서 중국의 역사와 비교해 참고하기 쉽도록 편집한 것인데 본 서문에서 元 나라를 正統으로 삼은 문제를 논하고 있어 당시 우리 학자들의 역사관이 朱子の 正統論에 경도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밖에 李之菡의 「土亭遺藁」, 曹偉의 「梅溪集」, 任鏞의 「鳴阜詩集」, 宗室인 漢陰君 李侃의 「交翠堂遺稿」, 尹柔의 「聾啞子遺稿」에 대한 서문이 있으며, <四友稷序> 2편은 모두 文房四友를 의인화하여 자신을 돕는 벗으로 여겨 지은 것이다. 기문은 대부분 樓臺나 堂, 齋에 대한 글이다. 尹瓘을 제향하는 文肅公祠宇의 重修記와 尤庵을 제향하는 草江書院, 權喜叔의 養拙齋, 石川 林億齡이 유숙하던 息影亭, 李箕洪의 直齋, 尤庵의 필적을 새긴 雲

漢臺 등 尤庵과 관련된 곳의 기문이 눈에 많이 띈다. 발문은 書帖이나 詩帖, 筆跡에 지은 것이 많으며 서적에 대한 것으로는 유명한 <家禮源流跋>, 孫舜孝의 「勿齋遺稿」에 대한 발문이 있다. 또 李顯益이 尹拯 부자의 비리를 문답식으로 밝힌 管山問答에 쓴 題後, 함경 감사 때 지은 <書關北養士廳節目後>, 吳以井이 우리나라 諸賢들의 행적을 輯錄한 「童蒙筮告篇」에 대한 발문이 실려 있고, 마지막으로 저자의 선조인 畸庵 鄭弘溟의 門人錄에 대한 발문이 있다.

권 26은 雜著로 上樑文(5), 箴(3), 銘(1), 贊(2), 詞(1), 辨(1), 說(3), 傳(1) 등 다양한 문체의 글과, 應製錄으로 肅宗의 哀冊文, 世子の 흥역 회복을 축하하는 頒敎文 2편이 실려 있다. 雜著 중 <師生說問答>은 스승과 부모, 임금은 生三事一이라는 義理를 밝힌 것으로 1698년 李彥經의 상소를 계기로 尹拯의 背師 행위를 공격하기 위해 지은 것이다.

## 정호(鄭澔)

### 형태서지

조선후기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등을 역임한 문신.

### 개설

본관은 연일(延日). 자는 중순(仲淳), 호는 장암(丈巖). 정철(鄭澈)의 현손이며, 정종명(鄭宗溟)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정직(鄭溲)이고, 아버지는 감찰 정경연(鄭慶演)이다. 어머니는 민광환(閔光煥)의 딸이다.

### 생애 및 활동사항

송시열(宋時烈)의 문하로 매우 촉망받았으며, 1675년(숙종 1) 송시열이 귀양가게 되자 과거를 단념하고 성리학(性理學)에 힘썼다. 그 뒤 여러 형제의 권유로 1682년 진사가 되고, 1684년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검열을 거쳐 정언이 되자, 오도일(吳道一)이 봉당을 키우고 권세를 부린다고 탄핵하였다.

1689년 기사한국으로 인현왕후(仁顯王后)가 폐출되고 송시열이 사사(賜死)당하자, 그는 파직되고 문외출송(門外黜送)당했다가 경성에 유배되었다. 1694년 갑술옥사로 인현왕후가 복위되자 풀려나 지평·수찬·교리 등을 역임하고, 1696년 이사상(李師尙)을 논핵하는 등 과격한 발언으로 파직되었다.

1698년 다시 수찬·집의·사간을 거쳐 이듬해 동래부사로 나갔다가, 1700년에 신은(新銀) 12만여 냥을 왜에 상매(商買)한 관계로 파직되었다. 이듬해 광주부윤(廣州府尹)으로 기용되었고, 1702년 승지·부제학을 거쳐 1704년 함경도관찰사에 이어 1710년 대사간·대사헌을 지냈는데, 당론을 일삼는다 하여 흥해·갑산 등지에 유배되었다.

1713년 대사성에 재임용되어 송시열의 묘정배향을 건의하였다. 1715년에는 부제학으로서 유계(兪槩)의 유저(遺著)인 『가례원류』의 발문을 썼다. 그 내용에 소론인 윤증(尹拯)이 송시열을 배반했다는 내용이 문제되어 파직되었다. 이듬해 노론이 승리함으로써 대사헌이 되었는데, 이 때 윤선거(尹宣舉)의 문집 『노서유고(魯西遺稿)』가 간행되자, 효종에게 불손한 내용으로 썼다 하여 樞판(毀板)하고 윤선거 부자의 관작도 추탈하게 하였다.

1717년 세자(世子)<sup>주 01)</sup>의 대리청정에서 소론의 반대를 물리치고 이를 시행하도록 했고, 예조판서를 거쳐 다음 해 이조판서에 올랐다. 1721년(경종 1) 실록청총재관(實錄廳總裁官)으로 『숙종실록』의 편찬에 참여하다가 신임사화로 노론 4대신과 함께 파직되어 강진으로 유배되었다.

1725년(영조 1) 노론의 재집권으로 풀려나와 우의정에 승진되어 신임사화로 죽은 노론 4대신의 신원(伸冤)<sup>주 02)</sup>을 누차 상소했으며, 좌의정을 거쳐 영의정이 되었다. 1727년 정미환국으로 관직에서 물러났다. 1729년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으며, 영중추부사로 죽었다.

### 상훈과 추모

일생을 노론의 선봉으로 활약했으며 늘 가난하게 지냈다 한다. 시문과 글씨에 모두 솜씨가 있었다. 충주의 누암서원(樓巖書院)에 제향되었다. 저서로 『장암집』 26권이 전해지고, 편서로 『문의통고(文義通攷)』가 있다.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 卷之二十四 / 記

#### 신씨세가사실기 申氏世家事實記

16世 응태(應泰) 父 : 심(鑣)      祖父 : 지익 (之益)      귀파(龜派)      직장공파(直長公派)

鵝洲申君應泰甫。一日訪余於丈巖洞中。袖出其世家事實一冊。示余曰。吾鵝洲之申。粵自麗季。入我朝。聞人善士。前後相望。至于今日。冠冕不繼。零替則甚。而家傳文行。有聞於世。不見絕於當世之大賢君子。此編下面。有尤庵老先生跋語。願吾子徵斯語而續題序若記。則其於發潛闡幽之道。庶乎無憾。余謹受而讀之曰。嗚呼盛矣哉。申氏自君鼻祖版圖判書公。至君之考慮士公。餘十數代。忠孝之行。懿美之訓。代不絕書。而其中尤有所絕異而最奇者。判書公以 P 忠節有名。勝國之末。其子按廉公以出天之孝。雙竹生於居廬之所。事載三綱行實。君之五代祖直長公。教子義方。有遺書其子參奉君。率循義訓。受學於西溪李公。卒能成立。抗疏昏朝。直聲振一時。且與其子處士某及其從子某。兩代三人。俱以篤孝。聞於朝。旌其閭。能繼祖武。不墜家聲。嗚呼盛哉。此足為東國名家。而宜見賞於當世之大賢君子也。余竊觀我東世家。自三韓至于今。子姓不絕。綿綿相繼者固難。而其或冠冕相襲。能世其家者十僅二三。至於忠孝傳家。代有聞人者。則千百中一二焉。以此言之。世襲冠冕。 P 保有其家。固人家之所罕。而屢世忠孝。不忝所生。尤世家之所絕無而僅有。以此較彼。得失天壤。君何感感於家業之零替乎。此古人所以先德行而後功名。請君以此遺諸子孫。承繼無怠。向所謂冠冕付之儻來。則天道福善。必有其徵。君其俟之。至於弁卷之文。則老先生猶以佛頭鋪糞為辭。顧余小子何敢妄犯糠粃之譏乎。謹題其所感於卷末云爾。

國敬輿而曾左右。聖祖者也。其托意之深。寓慕之切。吁亦悲矣。後廿五年辛巳。西河公之從子李尚書。養叔就相國舊居白江精舍之後。石崖陡起處。斷而磨之。刊此八大字。取詩雲漢為章之義。名其臺曰雲漢。使後世昭然知。聖祖賢佐志業之出尋常萬萬。將與天壤不弊。若養叔可謂有得於前王不忘之義。而其所感於中者亦深矣。古人嘗謂讀孔明出師表。不墮淚者。真無人心。今茲數字遺墨。萬古淒涼。後之過此而讀者。其有不隕淚者乎。養叔名頤命。相國公仲子敏迪之子也。

丈巖集卷二十四 記 二十四

申氏世家事實記

鵝洲申君應泰甫。一日訪余於丈巖洞中。袖出其世家事實一冊。示余曰。吾鵝洲之申。粵自麗季。入我朝。聞人善士。前後相望。至于今日。冠冕不繼。零替則甚。而家傳文行。有聞於世。不見絕於當世之大賢君子。此編下面。有尤庵老先生跋語。願吾子徵斯語而續題序若記。則其於發潛闡幽之道。庶乎無憾。余謹受而讀之曰。嗚呼盛矣哉。申氏自君鼻祖版圖判書公。至君之考慮士公。餘十數代。忠孝之行。懿美之訓。代不絕書。而其中尤有所絕異而最奇者。判書公以



丈巖集 卷二十四

忠節有名。勝國之末。其子按廉公以出天之孝。雙竹生於居廬之所。事載三綱行實。君之五代祖直長公。教子義方。有遺書其子。奉君率循義訓。受學於西溪李公。卒能成立。抗疏昏朝。直聲振一時。且與其子處士某及其從子某。兩代三人。俱以篤孝聞於朝。旌其閭。能繼祖武。不墜家聲。嗚呼盛哉。此足為東國名家。而宜見賞於當世之大賢君子也。余竊觀我東世家。自三韓至于今。子姓不絕。綿綿相繼者固難。而其或冠冕相襲。能世其家者。十僅二三。至於忠孝傳家。代有聞人者。則千百中一二焉。以此言之。世襲冠冕。之巖集六 卷二十四 記 二十五

保有其家。固人家之所罕。而屢世忠孝。不忝所生。尤世家之所絕無。而僅有。以此較彼。得失天壤。君何憾。憾於家業之零替乎。此古人所以先德行而後功名。請君以此遺諸子孫。承繼無怠。向所謂冠冕付之儻來。則天道福善。必有其徵。君其俟之。至於弁卷之文。則老先生猶以佛頭鋪糞為辭。顧余小子。何敢妄犯糠粃之譏乎。謹題其所感於卷末云爾。

有斐軒記

為學之道無他。只是自治有緒。循序漸進。自粗而精。自淺而深。表裏無間。終始不輟。而後可以成就其德。

## 제암집(濟庵集)

## 형태서지

권수제	제암집(濟庵集)
판심제	제암집(濟庵集)
간종	목판본(木版本)
간행년	간행 연도 미상
권책	8권 4책
행자	10행 20자
규격	21.0×17.4(cm)
어미	上下二葉花紋魚尾
소장처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소장도서번호	D3B-2608
총간집수	한국문집총간 속 99

## 저자

성명	김중섭(金宗燮)
생년	1743년(영조 19)
몰년	1791년(정조 15)
자	홍보(弘輔)
호	제암(濟庵)
본관	안동(安東)
특기사항	이상정(李象靖)의 문인. 김굉(金攄), 이완(李完), 유범휴(柳範休) 등과 교유

행력

왕력		서기	간지	연호		연령	기사
영조	19	1743	계해	乾隆	8	1	4월 15일, 義城 沙村에서 태어나다.
영조	25	1749	기사	乾隆	14	7	「十八史略」을 읽다.
영조	28	1752	임신	乾隆	17	10	재미삼아 大學圖를 그리다.
영조	34	1758	무인	乾隆	23	16	經義의 요점을 파악하고 詞, 賦, 對策도 세상에 나갈 수준에 오르다.
영조	35	1759	기묘	乾隆	24	17	冠禮를 치르다. ○ 大山 李象靖에게 나아가 배우다.
영조	38	1762	임오	乾隆	27	20	1월, 부친상을 당하다.
영조	44	1768	무자	乾隆	33	26	생원시에 2등으로 합격하다.
영조	47	1771	신묘	乾隆	36	29	義城 縣令 徐命敏이 향교에서 실시한 「心經」 강론에 참여하다.
정조	5	1781	신축	乾隆	46	39	12월, 이상정의 상을 당하다.
정조	9	1785	을사	乾隆	50	43	4월, 仲兄 金宗敬이 졸하다.
정조	12	1788	무신	乾隆	53	46	10월, 모친상을 당하다.
정조	-	~	~	乾隆	-	~	「心經講錄刊補」를 修補하다.
정조	15	1791	신해	乾隆	56	49	12월 2일, 졸하다.
정조	16	1792	임자	乾隆	57	—	1월, 獅子洞 선영에 장사 지내다.

편찬및간행

저자는 伯兄 川沙 金宗德(1724~1797), 仲兄 苟齋 金宗敬(1732~1785), 叔兄 容淵 金宗發(1740~1812)과 함께 四棣先生이라 불렸는데, 네 형제가 大山 李象靖의 문인으로 모두 사마시에 합격하고 문명을 날렸다.

간행되어 현재 유통 중인 저자의 문집에는 서발이 없어 편찬 및 간행 경위를 자세히 알 수 없다. 다만 저자의 백형 김종덕이 1795년 윤 2월에 지은 저자의 행장에 저자의 아들 金經進(1767~1826)이 저자의 유문을 수습하여 5책으로 편차하였다는 내용이 들어 있으며 김종덕의 연보에는 1792년 7월 김종덕이 직접 저자의 유고를 교감하였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저자가 죽고 바로 지어진 柳晦文의 제문에 김경진이 저자의 유문을 수습하였고 이것을 읽었다는 내용이 있으니 저자의 유문은 사후 아들 김경진에 의해 바로 수집 편차되고 1792년 7월에는 백형 김종덕에 의해 교감까지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문집은 행장 등 부록문자가 추가되어 목판으로 간행되었는데 그 경위와 간행 연도는 분명하지 않다. 《초간본》이 본은 현재 성균관대학교 존경각(D3B-2608), 국립중앙도서관(古 3648-文 10-332), 장서각(K4-6472) 등에 소장되어 있다.

이 밖에 저자의 스승 이상정이 편차하던 것을 스승의 명으로 중형 김종경이 敬義章 이후부터 이어 편차하고 저자가 3차에 걸쳐 修補하였으며 백형 김종덕이 교감한 「心經講錄刊補」가 1795년 목판으로 간행되었다.

본서의 저본은 저자의 아들 金經進이 수집 편차하고 저자의 백형 金宗德이 교감한 고본을 목판으로 간행한 초간본으로 성균관대학교 존경각장본이다. 본 영인저본 중 권 8은 板次 '一'·'二'가 重複되어 있다. 行狀(金宗德 撰), 金宗德年譜(川沙集 附錄 卷 1) 등에 의함

## 구성과내용

본집은 8 권 4 책으로 되어 있다. 권수에 目錄이 있다.

권 1~2는 詩(160 題)로 詩體와 관계없이 저작 연도별로 편차되어 있고 저자의 自註가 간혹 달려 있다. 13 세 때인 1755 년 伯兄 金宗德이 띄운 운을 따라 즉석에서 지은 <梅花>에서는 宰相의 재주를 말하고 있는데 1766 년 24 세 때 지은 <一日偶坐無事歎年進學不進 .....>에서는 <매화>를 지을 당시에는 영달과 공명만을 알았지 기본에 뜻을 두고 재주를 양성하는 것을 몰랐다면 스스로 경계하고 있다. <曾柳秀夫>는 柳<sup>1</sup>主의 종 5 대조 柳衫의 「修巖集」을 更定하던 날 가장되어 오던 遺簡을 가지고 屏山書院에 도착하여 지은 것이다. <和李白紫極宮感秋詩>는 이백이 49 세에 지은 시에 마침 저자 나이 49 세에 화운한 것으로 살아온 날에 대한 반성과 日新의 다짐을 담고 있다. 형들과 친족들의 시에 차운한 것들이 많고 만 시로는 權炳, 崔鎮觀, 曠孫 金養直, 曹龍錫, 曠형 金宗九, 鄭一鐸, 李重光, 金江漢, 申光烈, 李象靖, 金光裕, 申鼎沃, 權以肅, 崔興遠, 孫思綱, 趙進道, 金履運, 李世立, 柳道源, 李世述 등에 대한 것이 있다.

권 3~6 의 앞부분은 書(116)로 권 3~5 는 이상정, 蔡濟恭, 金槃, 李宗洙, 柳長源, 申體仁, 유규, 黃敬熙, 鄭宗魯, 金坵, 李垸, 柳範休, 李萬運, 柳星休, 柳川休, 金始寅, 李宇綱, 趙友愿, 俞漢人, 李秉運, 金宏運 등 주로 스승과 친지들에게 보낸 것들이고, 권 6 의 앞부분은 백형 김종덕, 仲兄 金宗敬, 叔兄 金宗發, 曠형 김종구, 從弟 金宗駿, 從姪 金堂進, 曠질 金敬進, 曠손 김양직과 金養心, 아들 金經進 등 가족과 친족들에게 보낸 것들이다. 스승 이상정에게 보낸 편지들은 공부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가르침을 요청하는 내용들로 대부분이 뒤에 별지가 붙어 있다. 「大學」, 「論語」, 「孟子」, 「中庸」, 「朱子書節要」의 의문점을 질문한 문목으로 그에 대한 답변이 함께 수록되어 있는데 그 분량이 매우 많다. 간혹 가르침을 받은 후 깨달은 점들을 기록한 것들이 첨부되어 있다. 친지들에게 보낸 편지들은 공부의 진척상황이나 경서와 성리학적인 문제들에 대한 학문적 토론이 주 내용인데 유장원, 이완, 유범휴, 유천휴, 이우강 등과는 이상정의 문집 편찬에 관해서도 논의하고 있고 신체인, 이완, 유범휴, 이만운 등과는 「心經講錄刊補」의 修補 문제에 관해서도 상의하고 있다. 1791 년 김공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朴孫慶의 의견에 따르면 이상정의 朱熹와 張栻의 仁說에 대한 변설을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니 장식의 「南軒集」을 빌려 볼 곳이 있으면 빌려서 전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형들에게 보낸 편지들은 대부분이 집안의 소식과 안부를 전하며 상대방의 안부를 묻는 내용들인데 공부에 대한 상의, 의문점에 대한 질문, 충고와 위로, 師門의 소식 특히 이상정의 문집 편찬 상황 등도 들어 있다. 자질과 친족들에게 보낸 편지들은 주로 공부에 대한 충고와 독려의 내용을 담고 있다.

권 6 의 뒷부분~7 은 雜著(11), 說(3), 跋(3), 箴(2), 墓誌銘(1)이다. 잡저의 <師門記聞錄>은 스승 이상정에게 나아가 배운 내용들을 기록한 것으로 주로 「논어」, 「대학」, 「맹자」 등 경서와 喪禮, 祭禮, 冠禮 등에서 의문나는 것들을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기술하고 있다. <隨錄>은 이종수, 김강한, 그리고 형제들과 四書, 李滉의 「退溪集」, 鄭經世의 「愚伏集」의 내용과 상례, 제례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은 것들을 기록해 둔 것이다. <書示齋中諸君>은 1762 년에 지은 것으로 집안 父兄의 명으로 子弟들이 선조 사당 齋房에 모여 강독하게 되었을 때 제군들에게 공부와 수신을 독려하는 내용이다. <讀朴南野甲乙錄箴錄>은 주희가 장식의 인설을 논한 것을 일찍이 이상정이 변설한 적이 있는데 박손경의 갑을록을 읽고 이상정이 오인한 부분을 발견해 다시 「朱子大全」, 「朱子語類」 등에 근거해 변증한 것이다. 책문은 맹자



의 정통성, 퇴계학의 의의, 未發時의 공부, 敬齋箴과 恐懼謹畏, 復卦의 天地之心에 관한 것이다. <藏待書院呈文>은 禁書에 저촉되어 祠宇로 降號된 義城 장대서원의 호칭을 다시 승격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다. <大山先生考終錄>은 1781년 10월 15일 이후 이상정이 혈변증을 보이기 시작한 때부터 12월 9일 졸한 후 12일 成服하기까지 스승의 병세와 언행, 간병 내용, 문병객 등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설 가운데 <冠說>은 1766년에 관례를 치른 종자 金慶進을 위해 지은 것으로 초학자의 요체로 '謹威儀' 3자를 강조하고 있고, <講心經說>은 義城 縣令 徐命敏이 1771년 향교에서 유생들에게 한 달간 실시한 「心經」 강론을 듣고 지은 것으로 「심경」의 중요성과 그 실천을 역설하고 있다. 발 가운데 <題鄭箕東漆燈篇後>는 당대의 기인 滄海 鄭瀾의 아들 鄭箕東이 죽을 때 六經을 함께 묻어 달라 하자 그의 舅氏가 經傳, 子書, 문집, 문장가를 종이 한 장에 두루 적어 '漆燈歸讀篇'이라 하여 壙에 넣었는데 그 일화를 정란에게서 듣고 지은 것이다. 묘지명은 죽손 김양직에 대한 것이다.

권 8은 哀辭(5), 誄文(3), 祭文(15), 附錄이다. 애사는 金樂行, 任必大, 李光一, 金柱東, 金始器에 대한 것이고, 뇌문은 崔恒鎭, 申弘教, 黃啓熙에 대한 것이며, 제문은 沙村洞神에게 올린 것과 李泰和, 姪女, 죽손 김양직, 季父 金東應, 죽형 김중구, 이상정, 중형 김중경, 從子 金彦光, 죽숙 金龍應, 죽형 金宗聖과 金宗岳, 이완, 李光靖, 유도원에 대한 것이다. 부록은 유장원 등 6인이 지은 만사, 신체인이 지은 뇌문, 이만운이 지은 애사, 柳泰春 등 8인이 지은 제문, 백형 김중덕이 지은 행장, 종자 金慶進이 지은 <辛亥考終日錄>이다.

## 김중섭(金宗燮)

김중섭(金宗燮 ; 1743~1791)은 안동인(安東人)으로, 자(字)는 홍보(弘輔), 호(號)는 제암(濟庵)이며, 의성(義城) 사촌(沙村)에 거주한다. 천사(川沙) 김중덕(金宗德)의 동생으로 이상정(李象靖)의 문인. 천성(天性)이 심정(沈靜)하고 재지(才智)가 출중(出衆)하여 스승의 촉망을 받았다. 1768년에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였으나 출사(出仕)의 뜻을 끊고 거경궁이(居敬窮理)로 위기지학(爲己之學)에 전심(專心)하였으며 선사(先師)의 유업(遺業)인 심경청록간보(心經請錄刊補) 편찬(編纂)중 돌아가셨다. 신체인(申體仁), 조술도(趙述道), 정박(鄭璞), 이우(李土+禹)등과 도의(道義)로 상교(相交)하였고 저서(著書) 대산서절요(大山書節要) 5권과 문집 8권 4책이 전한다.

卷之一 / 詩

후산동신회병 체인 차로두운 후산동신회병 체인 차로두운

20世 체인(體仁) 父 : 도만(道萬) 祖父 : 분구 (貢龜) 귀파(龜派) 오봉공파(梧峰公派)

庭槐垂穗晚鴉回。共對秋風沙水隈。歲事明春無大椀。詩情今夜有深盃。勝游未易窮閭做。至語參聽長者來。却是芭蕉心不盡。離筵續續自抽開。

차신윤경 정옥○용전운 次申贊卿 鼎沃○用前韻

21世 정옥(鼎沃) 父 : 중인(重仁) 祖父 : 도삼 (道三) 귀파(龜派) 오봉공파(梧峰公派)

P 晦屏山下小車回。君又騎驢渡水隈。短燭深宵看舊面。後山高會有餘盃。芭蕉一角分心去。苦竹三秋送韻來。只管風流前輩做。故將詩句盡情開。



濟庵集 卷一

卷之二 / 詩

만신장 광렬 輓申丈 光烈

18世 광열(光烈) 父 : 정모(正模) 祖父 : 덕순 (德洵) 음파(邑派) 호계공파(虎溪公派)

古木門垂枝。悵悵舊時宅。長公今白首。虛堂餘寄客。每見鄉黨人。泣道阿季蹟。哀哀終身慕。大被恒無斃。文雅爲茶飯。到死猶脉脉。有心人不知。但見其面白。P 此生良悠悠。空然送窀穸。言歌淚無已。聞者咸嗟惜。

<p>濟庵集卷之二 三</p>	<p>走筆次鄭琢之久雨詩 依依連日雨。漠漠阻交親。勢逐殘炎薄。光霽老樹新。座隅馴鳥雀。園裏長荆榛。何以摘禾黍。杵聲起四鄰。</p>	<p>擬輓孫進士思駿 山川多間閤。逆旅或追陪。滿座盡驚起。初筵自覓來。素心雙鬢晚。餘教一經開。獨有池塘草。依然入夢迴。</p>	<p>輓申丈光烈 古木門垂枝。悵悵舊時宅。長公今白首。虛堂餘寄客。每見鄉黨人。泣道阿季蹟。哀哀終身慕。大被恒無斃。文雅爲茶飯。到死猶脉脉。有心人不知。但見其面白。此生良悠悠。空然送窀穸。言歌淚無已。聞者咸嗟惜。</p>	<p>次叔兄 莊陵詩軸韻 五首 彰節祠 桑海茫茫迷往事。松杉肅肅拜明宮。無由一見魁嵬面。不耐虛憑想像中。移蹕固應知六老。入山卻意見斯翁。擡頭錯落星辰照。畱取精神萬古同。</p>	<p>拜鶴樓 四望無雲片月浮。杜鵑啼斷客登樓。悄然一拜衣衿濕。檻外空江水自流。</p>	<p>嚴參判問</p>
---------------------	-----------------------------------------------------------------------	---------------------------------------------------------------------	-------------------------------------------------------------------------------------------------------------------	--------------------------------------------------------------------------------------------------	-------------------------------------------------	-------------



卷之二 / 詩

만신윤경 輓申贊卿

21世 정옥(晶沃) 父 : 중인(重仁) 祖父 : 도삼 (道三)

귀파(龜派) 오봉공파(梧峰公派)

弱冠謙庵上。衆中始識荆。嶷嶷鍾鼎器。儼然已圓成。遂與語古今。聞之使人驚。末路無多見。歎息念家聲。眼前道脩長。委委趨瓊珩。徘徊歲云暮。古調無人賡。風雨滿牕夕。春秋讀寒檠。君嘗有滿牕。風雨讀春秋之句。激昂胷中氣。詩句時崢嶸。願言常阻闕。流水空盈盈。相望一敵隱。鄉邦知重輕。不宜今世有。黃鳥古詩情。塵箱尋舊墨。錯落餘玫瑰。期勉固如斯。草草已幽明。聲勢日以孤。此臆向誰鳴。惟有賢弟在。稍慰愛日誠。可會屏翁心。虛屋涕自橫。





卷之二 / 詩

소지야. 신회병도천사초려. 동백숙련구. 小至夜. 申晦屏到川沙草廬. 同伯叔聯句.

20世 체인(體仁) 父 : 도만(道萬) 祖父 : 분구 (貢龜) 귀파(龜派) 오봉공파(梧峰公派)

江雪錦齋冷。主人向北行。道彦。碧潭鄰鴨鶩。幽峽訪楛櫟。子長。寒月如期到。稚陽應候生。景蘊。蒼茫前歲會。風雨後山楹。弘輔。團聚情人在。存亡世事更。道。天寒啼斷鴈。江迥喚孤鶩。長。只得欣相見。何須吐不平。蘊。素心雙鬢改。古意一燈明。弘。酒煖風無勢。梅溫氣欲萌。道。天心休復吉。人事善端亨。長。鈍滯離羣久。開醒下語精。蘊。自知頽志業。因覺少經營。弘。憂樂忘天<sup>P</sup>下。優游作野氓。道。心期黃卷在。家計白雲耕。長。道自無通塞。時惟任濁清。蘊。古人不可見。茲席有誰爭。弘。至理羣心炳。平途衆目盲。道。抱經歌舜禹。論學慕朱程。長。星日垂羣哲。天人共一誠。蘊。學如雞抱卵。行愧鐵中錚。弘。欲造聖人妙。先由小學成。道。實功惟主敬。外念肯求名。長。自在平兼易。曾無色與聲。蘊。固知如菽粟。要自整冠纓。弘。邂逅南山語。縱橫太極評。道。挑燈開筆陣。酌酒破愁城。長。爲愛襟懷展。却忘河斗傾。蘊。流光空晚晚。意氣尚崢嶸。弘。紫闕胚祥慶。嘉朋共弟兄。道。白頭憐盡老。青眼喜相迎。長。煖氣爐中酒。<sup>P</sup>風聲戶外擗。蘊。參差人事。磊落歲寒盟。弘。極目山河闊。聯牀肺腑呈。道。癯容愁似鶴。能語愧如鸚。長。莫恨前修遠。方教俗慮輕。蘊。守巢同燕燕。耽酒怕猩猩。弘。浩蕩看冥鵠。寵榮任繡牲。道。晚工須並武。佳句敢爭衡。長。及此同衰暮。相期勛邁征。蘊。斯篇傳後裔。百代更誰賡。弘。

濟庵集 卷二

鏡似粹明鐵似剛。聖門顏子有誰強。勿旗一脚工夫在。不著纖塵翳古塘。

小至夜申晦屏到川沙草廬同伯叔聯句。

江雪錦齋冷。主人向北行。道彦。碧潭鄰鴨鶩。幽峽訪楛櫟。子長。寒月如期到。稚陽應候生。景蘊。蒼茫前歲會。風雨後山楹。弘輔。團聚情人在。存亡世事更。道。天寒啼斷鴈。江迥喚孤鶩。長。只得欣相見。何須吐不平。蘊。素心雙鬢改。古意一燈明。弘。酒煖風無勢。梅溫氣欲萌。道。天心休復吉。人事善端亨。長。鈍滯離羣久。開醒下語精。蘊。自知頽志業。因覺少經營。弘。憂樂忘天<sup>P</sup>下。優游作野氓。道。心期黃卷在。家計白雲耕。長。道自無通塞。時惟任濁清。蘊。古人不可見。茲席有誰爭。弘。至理羣心炳。平途衆目盲。道。抱經歌舜禹。論學慕朱程。長。星日垂羣哲。天人共一誠。蘊。學如雞抱卵。行愧鐵中錚。弘。欲造聖人妙。先由小學成。道。實功惟主敬。外念肯求名。長。自在平兼易。曾無色與聲。蘊。固知如菽粟。要自整冠纓。弘。邂逅南山語。縱橫太極評。道。挑燈開筆陣。酌酒破愁城。長。爲愛襟懷展。却忘河斗傾。蘊。流光空晚晚。意氣尚崢嶸。弘。紫闕胚祥慶。嘉朋共弟兄。道。白頭憐盡老。青眼喜相迎。長。煖氣爐中酒。<sup>P</sup>風聲戶外擗。蘊。參差人事。磊落歲寒盟。弘。極目山河闊。聯牀肺腑呈。道。癯容愁似鶴。能語愧如鸚。長。莫恨前修遠。方教俗慮輕。蘊。守巢同燕燕。耽酒怕猩猩。弘。浩蕩看冥鵠。寵榮任繡牲。道。晚工須並武。佳句敢爭衡。長。及此同衰暮。相期勳邁征。蘊。斯篇傳後裔。百代更誰賡。弘。

風聲戶外傳。參差入世事。磊落歲寒盟。極目山河闊。聯牀肺腑呈。道癯容愁似。鶴能語。愧如鸚。長莫恨前修。遠方教俗慮。輕蘊守巢同。燕燕耽酒怕。猩猩弘浩蕩。看冥鶴。籠榮任繡牲。道晚工須金。武佳句敢爭。衡長。及此同。衰暮相期。勗邁征蘊。斯篇傳後裔。百代更誰賡。弘。

病中不堪兄弟存亡之戀詩以瀉意。

病久無眠坐數更。鷓原餘淚暗縱橫。鳳飛但見寒雲向。麝去無痕野草馨。不隔一紗通肺腑。誰填西海近儀形。歷選吾南多少士。私家何獨毀長城。

濟庵集卷之二

二十

開齋中李齡與昌發韻追和

天寒搔首鎖荆扉。坐數愆尤更整衣。鸚鵡不關能解語。鸞鳩堪愧尚單飛。固知引路書中在。休覓單方海上稀。但得此心無間歇。過庭應許不虛歸。

和李春伯戊申

前年三夜雨中游。回首西溪一夢幽。閭巷自今成古事。江湖有分著清流。參差世論園蒿沒。容易年光野杏收。方有千秋光霽景。歸來須向卷中求。

次山亭韻示諸人

晚玩齋中陪坐辰。是時文教蔚彬彬。如今受用無真



卷之四 / 書

답신회병 체인○여백형련찰 答申晦屏 體仁○與伯兄聯札

20世 체인(體仁) 父 : 도만(道萬) 祖父 : 분구 (貢龜) 귀파(龜派) 오봉공파(梧峰公派)

頃書忙卒。未暇細布悃幅。擬偵便追申而未及。辱書<sup>P</sup>又鄭重焉。只此一事。可見用心處。殆愧縮不自安也。伏審江齋靚暇。興致超謐。承歡護躬之餘。時有傍花隨柳之樂。可想世上冗累。不入於靈臺矣。三復來書。烏得不興言傾溯耶。更望寬居厚養。懋進德業。作得一方儀式焉。心經講錄付標處。逐條奉玩。見處超詣。說得活絡。不止按文字外面責應而已。幽明之感。蓋無窮已。咸陽方鏡涵養此意。屋漏體用顯微。徽庵說起疑處凡八九條。謹已依教脩潤。其餘諸條。皆有師門批正。不敢輕動。從當與一二朋友。商量從違。來書所提本來底。亦有師門手畢。這裏難處一段。亡弟蓋<sup>P</sup>以非著意非不著意。勿忘勿助下工夫極難之意。縷縷稟質。先生答書曰盛論恐未安。本文未有此意。未以難下言語形容。丁寧指教。此必有義意在其中。而今承尊諭如此。二叟訓釋又如此。愧無的見可以折衷。幸更加思議。不憚反復。要歸至當如何。隨事規箴之教。邇來所未聞者。兩耳覺爽。如有信不及處。豈不仰陳瞽見。而愛慕之深。不敢摘疵。無或終歸於善柔耶。若不較而先施之。幸又可言耶。墳篋遺集已經勘過。整頓有期。係是斯文大事。玩閱之餘。必有契悟。而自說疑貳而未決者。無由致身座下。以聽緒餘。徒有<sup>P</sup>慨想而已。

一雨跨月。平陸成江。轉遶安問。亦曠闕多時。區區戀德。蓋無時之或已也。卽日濕熱中人。伏惟閒中節宣。若序康衛。宗彥仲兄祥禫俱畢。老親疾病相仍。一味無悵緒。零星數墨。亦斷續無常。無有曾中素蓄。可以藉手。就正於丈席之下。恐只如此誤了一生也。自慊一端。前後批諭。破開疑亂。心曾膠滯之見。自爾浚釋。所以不敢復煩提告耳。乃於伯兄書末。更垂振德之誨。益見好察之盛。更將近目所見仰質焉。夫大學書中。只有一箇自慊字。而朱門既以工夫說。又以效驗說。蓋如好好色。如惡惡臭。當下便是自慊。不可道如好好色。如惡惡臭。了方自慊。以上工夫說。然自如好好色。如惡惡臭。以後看則其表裏洞徹。快足無疚者。目之以符驗成效。亦無不可以。至心廣體胖。亦只是自慊而已。以上效驗說。言功效而本旨之主工夫者。自若。言工夫而推說以功效。更無相妨。不必多費註解。疊生枝節。向來要自慊者工夫。自慊者功效之說。意與今說無異。遣辭之際。澁滯不圓。致煩提誨。在所當廢也。仰感不遺之意。謹更奉聽。悚甚。

答申晦屏 體仁○與伯兄聯札

頃書忙卒。未暇細布悃幅。擬偵便追申而未及。辱書



又鄭重焉。只此一事。可見用心處。殆愧縮不自安也。伏審江齋靚暇。興致超謐。承歡護躬之餘。時有倚花隨柳之樂。可想世上冗累。不入於靈臺矣。三復來書。烏得不興言傾溯耶。更望寬居厚養。懋進德業。俾得一方儀式焉。心經講錄付標處。逐條奉玩。見處超詣。說得活絡。不止按文字外面責應而已。幽明之感。蓋無窮已。咸陽方鏡涵養此意。屋漏體用顯微。微庵說起疑處。凡八九條。謹已依教脩潤。其餘諸條。皆有師門批正。不敢輕動。從當與一二朋友商量。從違來書所提本來底。亦有師門手畢。這裏難處一段。公弟蓋

濟庵集卷之四

三十五

以非著意。非不著意。勿忘勿助。下工夫極難之意。縷縷稟質。先生合書曰。盛論恐未安。本文未有此意。末以難下言語形容。丁寧指教。此必有義意在其中。而今承尊諭如此。二叟訓釋。又如此。愧無的見。可以折衷。幸更加思議。不憚反復。宴歸至當如何。隨事規箴之教。邇來所未聞者。兩耳覺爽。如有信不及處。豈不仰陳瞽見。而愛慕之深。不敢摘疵。無或終歸於善柔耶。若不較而先施之。幸又可言耶。頃篋遺集已經勘過。整頓有期。係是斯文大事。玩閱之餘。必有契悟。而自說疑貳而未決者。無由致身座下。以聽緒餘。徒有

慨想而已。

與柳秀夫 塗○癸巳

江齋數夜。穩承款誨。自是缺畧勝事。况多少提警。有足以喚起蒙蔽。此義又可忘耶。歸坐窮閭。塵冗依舊。所以馳想尤深。日來伏惟承懼起居超謐。伏切仰溯之忱。府院判役。果以十日始事否。庚戌榜目。歸卽伴問校洞。則蓋懶齋伯氏。掌令晚悟公。與修巖先生同年。省試在萬曆三十三年。庚戌閏三月。而鄉解榜目不記日月。他無可考云耳。校洞書中。又有月沙相國。為恩門之語。故聊此弁告。頃畱拙句。荷有瓊報之意。先發遂扣覬得一言。以周旋。非敢以尋常詩債仰浼長者。未知尊史將何以見教也。

濟庵集卷之四

三十六

與黃文若 敬熙

戊子春。遞上一書。竟未承覆。可知洪喬作書郵疾。向後聲息一切相阻。顏面之違。何暇言耶。頃因族孫自湖齋來。傳道兄來樓有日。請問有業。一嶺之間。漠然不相知。何其至此也。悵歎之餘。傾溯如新。即日爰烘客履。必重學業崇滋否。知左右未獲周旋於師席之間。已有年。靜中滋造之餘。意味所淺。疑難所蓄。正有三五日說不盡者。切欲馳往。親叩端緒。而事務之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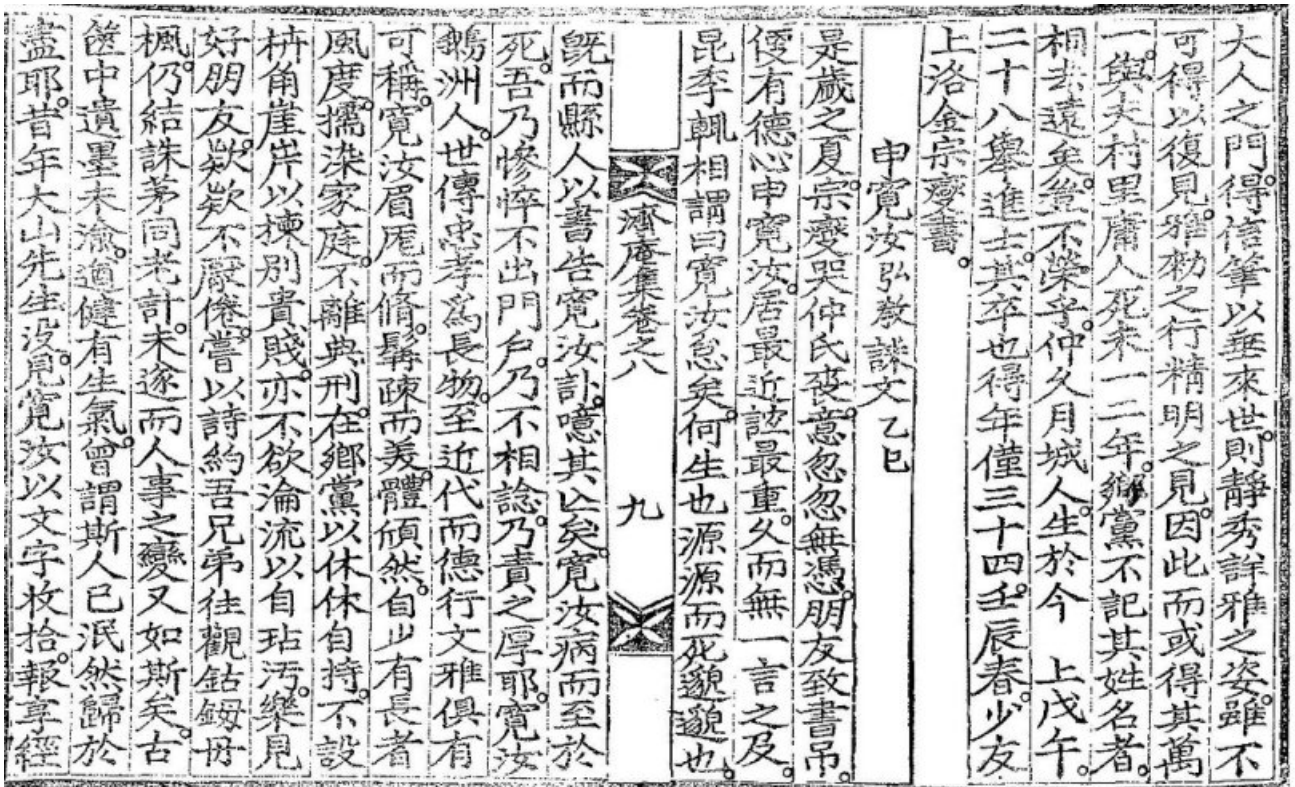


卷之八 / 誄文

신관여 흥교 퇴문 을사 申寬汝 弘教 誄文 乙巳

19世 흥교(弘教) 父 : 황(煌) 祖父 : 중모 (重模) 읍파(邑派) 만오공파(晩悟公派)

是歲之夏。宗燮哭仲氏喪。意忽忽無憑。朋友致書吊。便有德心申寬汝。居最近誼最重。久而無一言之及。昆季輒相謂曰寬汝怠矣。何生也源源而死邈邈也。 **P** 既而縣人以書告寬汝訃。噫其亡矣。寬汝病而至於死。吾乃慘悴不出門戶。乃不相諗。乃責之厚耶。寬汝鵝洲人。世傳忠孝爲長物。至近代而德行文雅俱有可稱。寬汝眉厖而脩。髯疎而美。體頎然。自少有長者風度。孺染家庭。不離典刑。在鄉黨以休休自持。不設枿角崖岸以揀別貴賤。亦不欲淪流以自玷污。樂見好朋友。欸欸不厭倦。嘗以詩約吾兄弟往觀鈞鉅丹楓。仍結誅茅同老計。未遂而人事之變又如斯矣。古篋中遺墨未渝。適健有生氣。曾謂斯人已泯然歸於盡耶。昔年大山先生沒。見寬汝以文字收拾。報享經 **P** 畫之節。累言不一言。自恨登門差池。志業躡躑。唏噓不能已。此見好德之彝。邁往之志矣。嗚呼。處城市膠擾人物都會聲色昵近之地。超然是非林中。免得紛華躁競之習。斯亦爲難能也。未知長公能維持緒餘。護養羣孤。不墜故家風味。使賢弟目瞑於地下否。今聞以某日入地。適病不能出。哀痛在心。又不能奏歌詩以相紓。略以數行語。仰呈伯氏座下。以抒同病之憐云。



濟庵集 卷八

畫之節。累言不一言。自恨登門。差池志業。躑躅啼噓。不能已。此見好德之彝。適往之志矣。嗚呼。處城市膠擾。人物都會。聲色昵近之地。超然是非林中。免得紛華躁競之習。斯亦為難能也。未知長公能維持緒餘。護養羣孤。不墜故家風味。使賢弟目瞑於地下否。今聞以某日入地。適病不能出。哀痛在心。又不能奏歌詩以相紓。略以數行語。仰呈伯氏座下。以抒同病之憐云。

黃審幾翁 啓熙 誄文

嶺以南殆千里之國也。中洛水而分左右。東西相望。正落落焉。顧守株窟巷。不能遍遊歷。以盡平生之觀。早與遊者金子河。鄭士仰也。二人者性清峻。少然諾。秤人品不借錙銖。亟稱審幾黃公。志業之大。行誼之厚。學問之精懇。文章特餘事耳。蓋想像欽歎者有年。無由踏門以供灑掃。頃在丁酉之歲。宗變適自外暮歸。入伯氏堂。見座上有一丈人。顏貌粹澗。鬚髮疎莢。冠巾珮服。皆翛然無塵土氣。吾兄三人對坐。甚有愛敬色。始入不敢問其為某。自然生敬。敬拜而肅之。又進拜叙寒暄。於是乎知其為審幾翁。既而侍諸兄座下。參聽其言議。或叩發名理。墻扃。或評論古人出處。

卷之八 / 附錄

뢰문[신체인] 誄文[申體仁]

20世 체인(體仁) 父 : 도만(道萬) 祖父 : 분구 (貢龜) 귀파(龜派) 오봉공파(梧峰公派)

金弘輔之兄弟四人。同遊湖上。聞古人為學之方。次第登大小科。蔚有令望。弘輔於倫為季也。少有才志。年甫弱冠成進士。以恭謹穎敏。見稱於師門。論文講義。見解精到。一時儕友。莫之相先也。余少與弘輔之伯仲氏遊。既同門相善。晚而相期益深。顧弘輔年稍下。故每推余以丈人行。余輒辭不居。並 P 許以知己也。故於書疏往復。酬贈題名。輒一體並列。齊視無間。研究講討。各以所見畢陳。未嘗少隱。或相對命酒賦詩。挑燈列坐。更唱迭和。每令弘輔攜筆坐前席。隨諸人口號輒書。應聲揮灑。字法敏妙。所自吟諷聯題者。往往璀璨穠麗。聲韻鏗然。不淪常調。蓋嘗有詞氣可觀也。其仲氏持憲兄嘗以清朝雅望。進途方闢。中外加額。而一朝奄忽。陳迹已遠。尚令人嗚泣不已。惟弘輔與二兄。無恙共存。年齡尚少。志業方進。而二兄者嘗以是自慰。隱然有所恃而無憂。知友之屬望弘輔家者。蓋亦期 P 以無窮也。嗚呼。今弘輔又不幸矣。弘輔之生於世。僅四十有九年矣。法門摧敗。吾黨日孤。同志中聰明篤實可期以遠大如弘輔者。豈易得耶。學不能究其志。才未得售於時。蓋與其仲氏同恨。而顧伯氏今年已七耄。西景奄迫。叔氏又抱病呻楚。意象憔悴。其為可悲。豈不加於前日歟。聞弘輔於臨絕之際。神思不亂。顧語二兄。丁寧勉戒。謂勿過悲。其平日所養。於是可驗。未知其為二兄者。果能安命順受。節抑自愛。不與化者相欺否。意二兄之講此已久。為朋友者。亦非必深憂也。窀穸告期。埋玉有 P 日。想遠近親友。或為之題詩寄誄。以



述悲哀。而顧余殘喘病寒龜縮。無由躬起臨穴。又新有功衰之憾。不宜歌詠爲詩。乃以寂寥數語。略記其志行萬一。以遺其二兄而塞土中之悲。噫其可惜也已。

今空半。此生渺合弁。人間賢路窄。上帝樓成。靈簡吾無質。牛壇誰主盟。風斤嗟已撤。枕淚想應傾。永負歸山緋。淚漸范巨卿。

誄文

申體仁

金弘輔之兄弟四人同遊湖上。聞古人爲學之方。次第登大小科。蔚有令望。弘輔於倫爲季也。少有才志。年甫弱冠。成進士。以恭謹穎敏。見稱於師門。論文講義。見解精到。一時儕友莫之相先也。余少與弘輔之伯仲氏遊。既同門相善。晚而相期益深。顧弘輔年稍下。故每推余以丈人行。余輒辭不居。命

濟庵集卷之八

二十九

許以知己也。故於書疏往復。酬贈題名。輒一體並列。齊視無間。研究講討。各以所見卑陳。未嘗少隱。或相對命酒賦詩。挑燈列坐。受唱送和。每令弘輔攜筆坐前席。隨諸人口號。輒書。應聲揮灑。字法敏妙。所自吟諷聯題者。往往璀璨穠麗。聲韻鏗然。不淪常調。蓋嘗有詞氣可觀也。其仲氏持憲。兄嘗以清朝雅望。進途方闊。中外加額。而一朝奄忽。陳迹已遠。尚令人嗚泣不已。惟弘輔與二兄無恙。共存年齡尚少。志業方進。而二兄者嘗以是自慰。隱然有所恃。而無憂。知友之屬望弘輔家者。蓋亦期

以無窮也。嗚呼。今弘輔又不幸矣。弘輔之生於世。僅四十有九年矣。法門摧敗。吾黨日孤。同志中聰明爲實。可期以遠。大如弘輔者。豈易得耶。學不能究其志。才未得售於時。蓋與其仲氏同眼。而顧伯氏今年已七耋。西景奄迫。叔氏又抱病呻楚。意象憔悴。其爲可悲。豈不加於前日歟。聞弘輔於臨絕之際。神思不亂。顧語二兄。丁寧勉戒。謂勿過悲。其平日所養。於是可驗。未知其爲二兄者。果能安命。順受節。抑自愛。不與化者相欺否。意二兄之講此已久。爲朋友者。亦非必深憂也。窆告期埋玉有

濟庵集卷之八

三十

日。想遠近親友。或爲之題詩寄誄。以述悲哀。而顧余殘喘病寒龜縮。無由躬起臨穴。又新有功衰之憾。不宜歌詠爲詩。乃以寂寥數語。略記其志行萬一。以遺其二兄而塞土中之悲。噫其可惜也已。

哀辭

李萬運

川沙諸公。聞令望達于家邦。有畏壘高陽之風。頃年仲氏無祿。士流至今惜其賢焉。其季卽弘輔。文詞出人。早歲登上岸。志專而精。行篤而淳。與余交久而不狎。聽其言。寡而必中。見解超悟。詳密而退然。不以賢智上人。蓋多務本之意。噫。世方以苟

## 척암선생문집(拓菴先生文集)

### 형태서지

수제	척암선생문집 원집(拓菴先生文集 原集)
판심제	척암선생문집(拓菴先生文集)
간종	목판본(木版本)
간행년	1917 년 간행(後刷), 1956 년경 간행
권책	목록(目錄), 원집 36 권 합 19 책
행자	10 행 19 자
규격	20.0×17.3(cm)
어미	上下二葉花紋魚尾.
소장처	부산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도서번호	OCC4-2191
총간집수	한국문집총간 속 138~139

### 저자

성명	김도화(金道和)
생년	1825 년(순조 25)
몰년	1912 년
자	달민(達民)
호	척암(拓菴)
본관	의성(義城)
특기사항	유치명(柳致明)의 문인. 강건(姜健), 김흥락(金興洛), 유도성(柳道性) 등과 교류



행력

왕력		서기	간지	연호		연령	기사
순조	25	1825	을유	道光	5	1	9 월 1 일, 安東府 一直面 龜尾里에서 태어나다.
순조	32	1832	임진	道光	12	8	「小學」, 「通鑑」을 배우다.
헌종	5	1839	기해	道光	19	15	固城李氏 李瓚의 딸과 혼인하다.
헌종	15	1849	기유	道光	29	25	4 월, 定齋 柳致明에게 나아가 수업하다. ○ 유치명에게 '展拓' 두 자를 받고 '拓菴'으로 자호하다.
철종	1	1850	경술	道光	30	26	李鍾泰와 南水菴에서 「大學」을 읽다.
철종	2	1851	신해	咸豐	1	27	孤雲寺에서 「中庸」을 읽다.
철종	12	1861	신유	咸豐	11	37	10 월, 스승 유치명을 곡하다. ○ 西山 金興洛과 유치명의 遺集을 수습 정리하다.
고종	3	1866	병인	同治	5	42	11 월, 부친상을 당하다. ○ 이후로 學業을 그만두다.
고종	5	1868	무진	同治	7	44	서원철페령이 내려지다. ○ <太極圖>, <玉山講義>, <仁說> 등의 편을 手抄하여 「聖學眞源」이라 하다.
고종	8	1871	신미	同治	10	47	5 월, 서원철페령을 반대하는 상소를 쓴 외숙부 箕疇 鄭民秉을 따라 상경하였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돌아오다. ○ 紀行詩를 짓다.
고종	11	1874	갑술	同治	13	50	<元日自警箴>을 짓다. ○ 8 월, 晚愚亭에 모여 동문들과 유치명의 유집을 교정하다.
고종	13	1876	병자	光緒	2	52	흥년이 들자 祭田을 매각하여 궁핍한 사람들을 진휼하다.
고종	17	1880	경진	光緒	6	56	1 월, 큰아들 金綱輝를 곡하다.
고종	21	1884	갑신	光緒	10	60	10 월, 모친상을 당하다.
고종	30	1893	계사	光緒	19	69	조정에서 遺逸로 천거하여 의금부 도사가 되다.
고종	32	1895	을미	光緒	21	71	12 월, 명성왕후 시해사건이 일어나고, 단발령이 내려지자 俛宇 郭鍾錫 등과 안동의진을 결성하다. ○ 고종이 <哀痛詔>를 내리다.
고종	33	1896	병신	建陽	1	72	1 월, 안동의진의 대장으로 추대되다. ○ 京兵의 압력과 여러 차례 해산을 촉구하는 綸音이 내려와 할 수 없이 罷兵하다. ○ <自明疏>를 올린다.
고종	42	1905	을사	光武	9	81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請罷五條約疏>를 초하였으나 올리지 못하다.
순종	3	1910	경술	隆熙	4	86	한일합방이 이루어지자 統監府에 <請勿合邦疏>, <檄告統監文>을 보내고, <慟哭詞>를 짓다.
순종	-	1911	신해	隆熙	-	87	1 월, 총독의 명으로 방문한 일본 文學士 高橋亨이

							詩를 청하자 愛君憂國의 시를 지어 답하다.
순종	-	1912	임자	隆熙	-	88	8 월 7 일, 졸하다. ○ 10 월, 안동부 松川에 장사 지내다.
순종	-	1917	정사	隆熙	-	-	손자와 문인들이 永川에서 원집을 목판으로 간행하다.
~	-	~	~	~	-	~	續集, 附錄이 목판으로 간행되다.
-	-	1956	병신	-	-	-	이즈음 別集이 鉛活字로 인행되다.

## 김도화(金道和)

### 정의

조선후기 『척암문집』을 저술한 학자.의병장.

### 개설

본관은 의성(義城). 자는 달민(達民), 호는 척암(拓菴). 안동 출신. 김약수(金若洙)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진양정씨(晉陽鄭氏)이다. 유치명(柳致明)의 문인이다.

### 생애 및 활동사항

1893년 유일(遺逸)로 천거되어 의금부도사에 임명되었다. 1895년 12월 을미사변과 단발령에 항거하여 안동군내 유림대표로 거의통문(舉義通文)을 발표하였다. 또한 안동에 입성한 김도화는 의병진의 의병장에 추대되었다. 그해 12월 3일에 안동의 의병 수백명이 모여 안동관찰부를 점령하고 무기를 빼앗자 관찰사 김석중(金奭中)은 도망하였다.

이로 인하여 안동의병의 기세를 크게 떨쳤다. 1896년 태봉전투에 참전하였으며, 그뒤 노환으로 은거하면서도 을사조약과 경술국치를 맞아 항의문과 규탄문을 통하여 일제에 항거하였다. 저서로는 『척암문집(拓菴文集)』이 있다.

### 상훈과 추모

1983년 건국포장, 1990년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卷之一 / 詩

근차호계신공 적도 분황운 謹次虎溪申公 適道 焚黃韻

13世 적도(適道) 父 : 흘(屹)      祖父 : 원록 (元祿)      읍파(邑派)호계공파(虎溪公派)

若使當年遇聖人。春秋袞筆特書之。三韓義士鵝洲某。可與西山伯仲之。

先生高義烈霜然。歎息苞蕭浸下泉。隻劍精神磨欲盡。三刀宦業視如捐。太陽均照無幽壑。

渙霈新霑最吉年。華祝輿情歌未足。諸君何莫奏笙絃。

葛山林麓最清幽。中闕書齋好息游。詩禮劉庄空  
 遠述規模鹿社勉增修。巡山醋果人誰摘。海明珠我自求。老矣無能揮塵拂。謾將雪日惹閒愁。

謹次虎溪申公適道焚黃韻

若使當年遇聖人。春秋袞筆特書之。三韓義士鵝  
 洲某。可與西山伯仲之。

先生高義烈霜然。歎息苞蕭浸下泉。隻劍精神磨  
 欲盡。三刀宦業視如捐。太陽均照無幽壑。渙霈新  
 霑最吉年。華祝輿情歌未足。諸君何莫奏笙絃。

謹次瓢隱金先生愚江草堂韻

拓菴先生文集卷一 二十四

魚河蓬劫水聲多。賢躅茫然可奈何。鹿洞千年悲  
 茂草。廬山一半認仙家。悠悠不返晴霄鶴。啞徒  
 聞古樹鴉。卻恨愚蒙生苦晚。未曾操帚席間過。

次自樂堂權公守經馳贈韻

煌煌東史續編年。丙子忠良堪畫傳。自樂先生真  
 丈夫。大日月獨臨天。英靈尚在孤鴻上。寵渥新  
 霑雙鳳邊。寄語當今韓范輩。莫謂書生是貌然。

次隱侯詩寄贈李參奉士澄 壽澄

我抱一張琴。湖海少鍾期。君侯自南來。政好傾蓋  
 時。暑風催歸御。惘然不敢持。幸無金玉爾。慰我春

四五

卷之二 / 詩

만신덕문 석호 輓申德文 錫祐

21世 석호(錫祐) 父 : 면위(冕璋) 祖父 : 진교 (晉教)

읍파(邑派)호계공파(虎溪公派)

十世家聲有悔翁。如君眉白尙餘風。言譚快破豐城劍。氣節峻嶠大嶺松。齷璞久爲人所擯。絳籌何奈世無公。人間宿債知多少。竚看庭階振羽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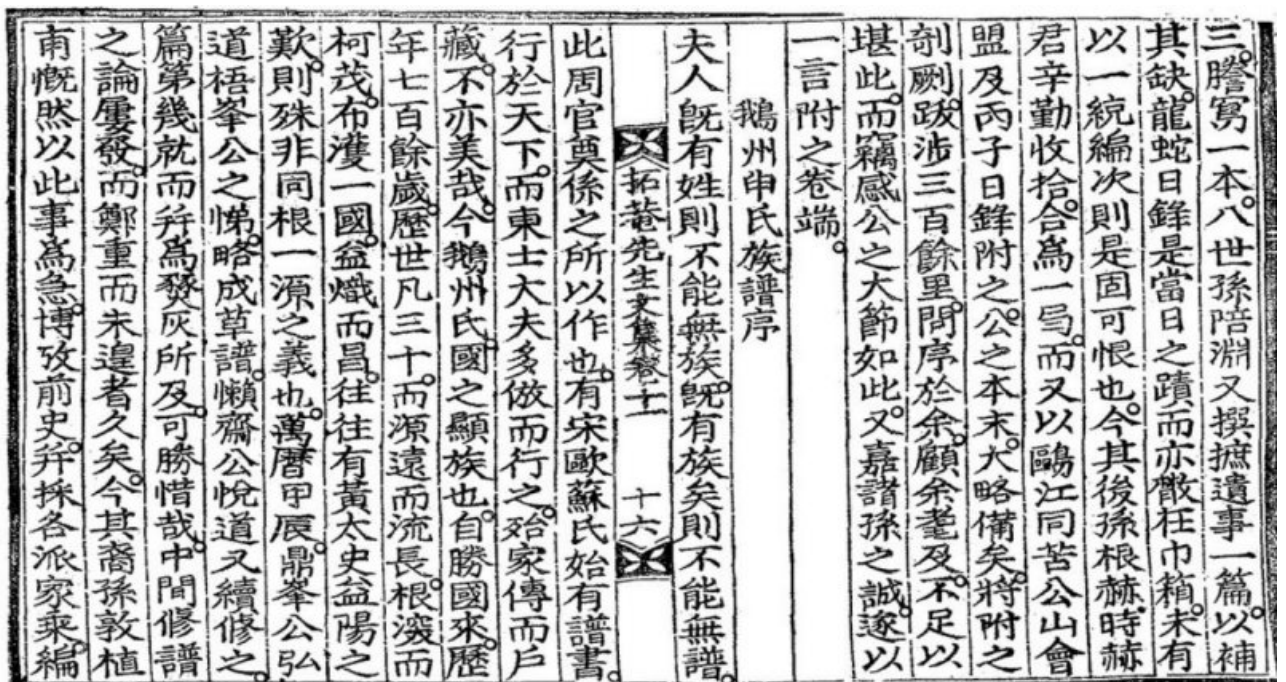




卷之十一 / 序

아주신씨족보서 鵝州申氏族譜序

夫人既有姓則不能無族。既有族矣則不能無譜。P 此周官奠係之所以作也。有宋歐蘇氏始有譜書。行於天下。而東士大夫多做而行之。殆家傳而戶藏。不亦美哉。今鵝州氏。國之顯族也。自勝國來。歷年七百餘歲。歷世凡三十。而源遠而流長。根深而柯茂。布濩一國。益熾而昌。往往有黃太史益陽之歎。則殊非同根一源之義也。萬曆甲辰。鼎峯公弘道梧峯公之悌。略成草譜。懶齋公悅道又續修之。篇第幾就而并爲燹灰所及。可勝惜哉。中間修譜之論屢發。而鄭重而未遑者久矣。今其裔孫敦植甫慨然以此事爲急。博攷前史。并採各派家乘。編P 爲幾冊。而諸宗協力。亟附劄削。蓋積一生之精力。而篤於追遠者也。按申氏之先。在麗初有壯節公崇謙。以開國元勳。大顯于世。是爲鼻祖。中世有門下侍郎益休。以軍功錫封鵝州。是爲分貫之祖也。繼而有貞肅公允濡。清名直節。擬於唐介。按廉公祐當麗季。與冶隱先生有攜手同歸之契。親喪泣血。有雙竹生墳之異。蓋忠孝二字。卽申氏世傳之箕裘也。奕葉相承。聯徽疊照。若靜隱公之孝友文雅。鼎峯清齋之文章行誼。皆足以躋其美矣。悔堂公則卓異之行醇正之學。具載於三綱行實。不待P 愚言之贅矣。興溪之執徐義舉。城隱之重光疏辨。亦足以有辭於世矣。虎溪之學問節義。晚悟之淵源學問。懶齋之志節剛直。蔚然爲難兄難弟。有光於前烈矣。忍齋之克紹家學。至登六行之選。豈非有是父而有是子者歟。由是觀之。則是譜也不啻爲列敘昭穆。備錄派系。爲一家一門之一部惇史而已。上有以闡忠義之先烈。下有以垂孝友之家謨。推而達之。家而國而。則抑將大有補於世教矣。程夫子所謂管攝天下人心。收宗族而厚風俗。其言豈欺余哉。余既感敦植君追本之誠。又嘉申氏P 之世烈。於是乎書。



二三三



爲幾冊。而諸宗協力。亟附劄劄。蓋積一生之精力。而篤於追遠者也。按申氏之先。在麗初有壯節公。崇謙。以開國元勳。大顯于世。是爲鼻祖。中世有門下侍郎益休。以軍功錫封鵝州。是爲分貫之祖也。繼而有貞肅公允瀉。清名直節。擬於唐介。按廉公祐當麗季。與冷隱先生有攜手同歸之契。親喪泣血。有雙竹生墳之異。蓋忠孝二字。卽申氏世傳之箕裘也。奕葉相承。聯徽疊照。若靜隱公之孝友文雅。鼎峯清齋之文章行誼。皆足以躋其美矣。梅堂公則卓異之行醇正之學。具載於三綱行實。不待

拓菴先生文集卷十一 十七

愚言之贅矣。與溪之執徐義舉。城隱之重光疏辨。亦足以有辭於世矣。虎溪之學問節義。晚悟之淵源。學問。懶齋之志節剛直。蔚然爲難兄難弟。有光於前烈矣。忍齋之克紹家學。至登六行之選。豈非有是父而有是子者歟。由是觀之。則是譜也不宜高列敘昭穆。備錄派系。爲一家一門之一部。惇史而已。上有以闡忠義之先烈。下有以垂孝友之家謨。推而達之。家而國而。則抑將大有補於世教矣。程夫子所謂管攝天下人心。收宗族而厚風俗。其言豈欺余哉。余旣感敦植君追本之誠。又嘉申氏

之世烈。於是乎書。

茅邨先生李公遺集序

文貞公南冥先生講道方丈之下。一時成德之士。蔚然而作。蓋東南一會也。時則茅邨先生李公。以明敏近道之資。承師門正大之訣。才足以經綸庶務。學足以黼黻皇猷。而不幸國運中否。島夷衝突。藩鎮望風而瓦解。人民隨波而魚散。凜乎其不可爲矣。公首先倡義。募集流民。設機斬捕。抗百萬日滋之勢。旣又申請於招諭使鶴峯先生。借奇兵而截其衝。收戰骨以覆其露。先生特以信義許之。是

拓菴先生文集卷十一 十八

其爲國之忠何如也。凶焰漲天。禍及先隴。而白頭神翁夢告丁寧。故有幽明之感。蓋其爲先之孝何如也。德山卽先師尸祝之所。而兵燹之餘。墟莽蕩然。公卽與同志協謀重剏。幸觀昔日之規模。是其爲師之誠又何如也。夫君子之學。莫大於生三事一而大節如此。此足以觀公之始終矣。是以寒岡先生稱其才行可敬。東岡先生歎其忠義素著。蒼窻先生以爲南冥之門。無出公右。至葛菴李先生敘其狀曰。其亦有講於學道愛人。執干戈衛社稷之義矣。噫。當日知德之論。後賢傳信之筆。炳若日



卷之十一 / 序

성은신공일고서 城隱申公逸稿序

12世 흥(亨) 父 : 원록(元祿) 祖父 : 수 (壽) 음파(邑派)

日申君敦植以其先祖城隱公逸稿一冊來示余。因請弁其首。噫甚寂寥也。然按公以純愨之姿。生閥閥之家。以悔堂先生爲父。以虎溪，晚悟，懶齋諸公爲子。服襲忠孝之裘褐。飽飫義理之芻豢。居作述之間而蔚然有是父是子之稱。成周氣數之萃於一室。不亦盛哉。侍廬於前後之喪而血淚無乾則如其孝也。奮義於執徐之難而艱危不避則如其忠也。持身則以謙卑自牧。處世則以濟恤爲務。日用可見之行。無不是家庭之遺範也。至若辛亥再疏。義理昭哲。辭氣森嚴。雖錢氏子袒胷受箭之勇。無以加焉。其見道之明。樹立之卓。非一時慷慨之可能也。不朽莫大於是。文詞之寂寥。又何足恨哉。姑書所感。爲城隱逸稿序。

日申君敦植以其先祖城隱公逸稿一冊來示余。因請弁其首。噫甚寂寥也。然按公以純愨之姿。生閥閥之家。以悔堂先生爲父。以虎溪，晚悟，懶齋諸公爲子。服襲忠孝之裘褐。飽飫義理之芻豢。居作述之間而蔚然有是父是子之稱。成周氣數之萃於一室。不亦盛哉。侍廬於前後之喪而血淚無乾則如其孝也。奮義於執徐之難而艱危不避則如其忠也。持身則以謙卑自牧。處世則以濟恤爲務。日用可見之行。無不是家庭之遺範也。至若辛亥再疏。義理昭哲。辭氣森嚴。雖錢氏子袒胷受箭之勇。無以加焉。其見道之明。樹立之卓。非一時慷慨之可能也。不朽莫大於是。文詞之寂寥。又何足恨哉。姑書所感。爲城隱逸稿序。

拓菴先生文集卷十一 四三

雲塲趙君遺集序

鄙夫子有言曰。豪傑之士。雖無文王猶與。余以是言。歷觀世之君子。其能卓然自立。不爲時俗所變者。蓋無幾焉。噫。俗之弊也久矣。今以雲塲趙君遺卷觀之。庶幾所謂豪傑之徒也歟。蓋君以英達特異之姿。有強毅不屈之操。聞塾師之一言而知行能。著於妙齡。揖時相之援引。而志節逾堅於要路。

拓菴集 卷十一

卷之十四 / 序

만오신공문집서 晚寤申公文集序

13世 달도(達道) 父 : 흘(屹)

祖父 : 원록(元祿)

읍파(邑派)만오공파(晚悟公派)

日申君昶休。自東海跋跣而來。袖三冊示余。乃其王考晚寤公遺卷也。余受而閱之。詩文雜著凡若干篇。雖甚寂寥乎。其府庫之蘊畜。氣韻之爽朗。猶足以髣髴於閒酬酢敘情懷之間。不亶爲九鼎之一戴而已。撮其大而論之。其曰愚一錄者。推極乎理氣之原。究觀乎性命之妙。終之以誠敬克治之說。其曰尚志錄者。採輯羣聖之格言。講求日用之彝倫。爲終身服膺之資。評列古今人物而權衡不差。則稽古之所以錄也。經綸軍國庶務而綱條畢舉。則謾錄之所以作也。本之經傳而旁通乎百家之浩博。邇自日用而徧及於當世之機務。往往獨得之見。瞭然如是。則此豈一時觚墨之士所能及哉。詩則又情性之發也。詞氣頓挫。音韻悲壯。如烟波浩漾。微風蕩激。雖謂之怨騷遺響。非過語也。獨惜乎以若經綸之腹。以若黼黻之手。不一試於世而潛伏海濱。白首無聞。卒之名湮沒而不傳也。於乎。昔太史氏叙伯夷之傳曰非附青雲之士。惡能施於後世哉。蓋傷之也。愚於晚寤公亦云。



拓菴集 卷十四



이치재신공문집서 二恥齋申公文集序

17世 정모(正模) 父 : 덕순(德洵) 祖父 : 문석(文錫)

읍파(邑派)호계공파(虎溪公派)

孟子曰誦其詩讀其書。不知其人可乎。是以論其世也。噫人之精神心術。必見於言語文詞之間。故雖百世之遠。猶可以因其語而得其心也。焉可誣也。今於二恥齋先生申公。益信其然。蓋公稟清明之氣。得溫裕之性。自其良知良能。而端序已見矣。見時果而必獻則陸續之至行也。遵小學而不懈<sup>P</sup>則靜翁之遺意也。周旋於跬步之間。而猶恐其或忘。婉容於唯諾之際。而常戒其或拂。則是其至性之得於天者。固有以異於人。而亦豈無所本而能之哉。蓋申氏之先。以忠孝相承。按廉公基之於始。悔堂翁繼之於後。卓行懿蹟。並載於國朝三綱錄。箕裘之傳。有以及於公。則其積厚矣。其本深矣。是以策名清朝。望實俱隆。一時名公鉅卿之互相推轂。翕然無異辭。其兆足以行矣。而不幸遭值艱虞。至有澤畔之行。風霜之貫剝。川陸之湫險。每有人所不堪。而耿耿一念。常在於戀闕而思親。蘇軾瓊<sup>P</sup>樓之詠。輒形於寓物。狄子白雲之望。屢發於宵寐。如所謂感懷記夢之作。雉鳴子規之篇。使人哽咽而不堪讀。則後之欲求公者。庶幾於此而得之矣。嗚呼。娥林之事。尚忍言哉。幸賴天日下臨。覆盆遍照。英廟全釋之教。有曰求忠臣必於孝子之門。噫大聖人至公至正之論。足以破時人之惑。而恩光漏泉。幽鬱始彰。則公之所以兩全於忠孝之道者。於是而益炳然矣。何庸贅焉。公之嗣孫相憲甫收拾遺文。將付之剞劂。既就余而丁乙之。因以弁卷爲請。余雖老弊不堪。而亦有不忍終辭者。遂書<sup>P</sup>其所感者如此。以對揚聖教之萬一云爾。



拓菴集 卷十四



則靜翁之遺意也。周旋於跬步之間。而猶恐其或  
忘。婉容於唯諾之際。而常戒其或嘖。則是其至性  
之得於天者。固有以異於人。而亦豈無所本而能  
之哉。蓋申氏之先。以忠孝相承。按廉公基之於始。  
悔堂翁繼之於後。卓行懿蹟。並載於國朝三綱錄。  
箕裘之傳。有以及於公。則其積厚矣。其本潔矣。是  
以策名清朝。望實俱隆。一時名公鉅卿之互相推  
轂。翕然無異辭。其北足以行矣。而不幸遭值艱虞。  
至有澤畔之行。風霜之貫剝。川陸之湫險。每有人  
所不堪。而耿耿一念。常在於戀闕而思親。蘇軾瑣

拓菴先生文集卷十四 二十八

樓之詠。輒形於寓物。狄子白雲之望。屢發於宵寐。  
如所謂感懷記夢之作。雉鳴子規之篇。使人哽咽  
而不堪讀。則後之欲求公者。庶幾於此而得之矣。  
嗚呼。娥林之事。尚忍言哉。幸賴天日下臨。覆盆遍  
照。英廟全釋之教。有曰求忠臣必於孝子之門。  
噫。大聖人至公至正之論。足以破時人之惑。而思  
光漏泉幽鬱始彰。則公之所以兩全於忠孝之道  
者。於是而益炳然矣。何庸贅焉。公之嗣孫相憲甫  
收拾遺文。將付之剞劂。既就余而丁乙之。因以升  
卷為請。余雖老弊不堪。而亦有不忍終辭者。遂書

三〇三

拓菴集 卷十四

其所感者如此。以對揚 聖教之萬一云爾。

竹坡李公遺集序

玉蘊於山。珠藏於澤。皆至寶之潛于山澤者。而不  
遇良工之見採。則亦終於潛而已。然其氣如虹。其  
光輝然。照人耳目。愈久而不滅。何其異也。其於人  
也。文章亦然。遲遲有懷瑾握瑜而枯藁於嵌巖之  
下者。漢太史所謂名湮沒而不稱可悲也。南州有  
竹坡處士李公。以超拔之才。生文獻之世。知能夙  
著。才思逸發。七歲而賦。孝子吟。駭駭有天馬步驟  
而嘗以立揚為志。從事公車。能聲籍甚。晚然有廬

拓菴先生文集卷十四 二十九

前之稱。數郡風靡。多士雲集。蓋亦騷壇之獨步也。  
不幸齷齪於時。無聞而終。則豈非所謂磨竭之命  
途也歟。或者又以時文少之。然昔王子安四傑之  
一也。所傳倂儷之文。猶不免於俗。何獨於公而疑  
之哉。雖然。文藝末也。德行本也。當日師友之評。以  
為某甫實行優於文藝。蓋其事親之誠。無間於終  
始。追遠之篤。不衰於老耄。見善如嗜欲。濟窮如不  
及。歲暮田園。優游自適。所以治心律身。而刑于家  
達于鄉者。莫非實地上做來也。且以遺集觀之。其  
詩與文。皆出於性情。醇實而無華。渾樸而不雕。亦

응암선생신공순효유허제단비명 병서 鷹巖先生申公殉孝遺墟祭壇碑銘 并序

14世 지효(之孝) 父 : 몽득(夢得) 祖父 : 응규(應奎) 귀파(龜派)응암공파(鷹巖公派)

嗚呼。此鷹巖先生申公殉孝之墟也。何謂殉孝。蓋<sup>P</sup>當執徐島寇之難。公將母避匿於巖穴間。猝遇賊。卽挺身受賊刃而全其母於危禍之地。非至孝而能如是乎。爲母而殉其身。非殉於孝者歟。不寧惟是。方公之受刃也。半體墜傷。流血如川。其慘毒何如。而公神閒氣定。處置從容。既攬葛而齧之。又截衫而裁之。濡血作書。寄與宣城宰。宰卽仲弟梧峯先生之悌也。其書曰藏身不密。爲賊所害。又曰足掌書宣城二字。首尾凡十五字。廩可記認。而一書辭意不啻丁寧。首句八字。言自己之不密。而凜然殉孝之意可見也。末句七字。言季氏之當殉於國。<sup>P</sup>而足書二字。所以備原隰之求也。處己則以殉孝自決。勉弟則以殉忠相勉。欒恭子所謂人生於三。事之如一。所在卽致死者。非是之謂歟。若公者眞可謂忠孝兩全。而賢於趙苞輩遠矣。公諱之孝字達夫。其先鵝州人也。曾祖曰翰贈判決事。祖曰應奎參奉贈參議。考曰夢得贈左承旨。妣月城朴氏。贈參議敏樹女。妣高敞吳氏。參奉士翼女。公朴氏出也。生於嘉靖辛酉。歿於萬曆壬辰。時年三十二。葬于本縣板反山震兌之原。公氣質英爽。才性穎拔。及成童。與弟梧峯登惟一齋金<sup>P</sup>先生彥璣之門。學業日就。金公每以遠到期之。弱冠爲校長。終日端坐。以禮自持。諸生敬服。無敢怠慢失儀者。傍治公車業。屢魁於鄉。承旨公喜曰此兒能復立吾門也。平居好讀書。取四子諸經。手書口誦。又抄出性理格言。以爲服膺之資。梧峯嘗追書其尾曰吾兄平日用力。大有條理。此足以見公之爲學矣。是以死生危迫之際。雍容整暇。自有不期然而然者。雖其姿質之美異於人。而學問之力。又焉可誣也。配咸昌金氏。習讀彊之女。有二男。命義禁府都事。命夔。義子孟堪主簿。仲堪季堪。夔子<sup>P</sup>考亨都事。孟堪子睦。盼護軍。瞻。仲堪子睽武科。季堪子粹。考亨子眇。眇。以下不盡錄。其登科者。玄孫天杰生員。天達生員。五世孫漢雲進士。嗚呼。今距公之世三百有餘歲矣。實蹟已梓矣。遺墓已碣矣。而獨鷹洞一麓。蕪沒榛荒。班班鮮血之痕。風磨而雨洗。烈烈揮瀉之跡。煙消而雲滅。則千古志士之涕。安得不兢兢爾乎。是宜後嗣子孫之行過於是瞻仰於是者。盡然而痛傷。怵然而感泣。圖所以髣髴寓慕之地也。於是後孫正遠。學遠。膺基。燦基等。築壇而護其墟。立石而表其壇。將舉歲一之享。<sup>P</sup>以致如在之誠。使族姪相鎬囑余記其事。余雖老洫不堪。而旋伏念先大夫龜窩先生題跋之文載在實蹟。則申君之請。豈不以龍門之契歟。何敢辭。遂不揆而敘顛末。以爲天下後世爲人臣子之勸焉。銘曰。

嶷嶷我公。天賦挺特。梧爺難兄。惟一高足。蚤辦熊魚。爰自象勺。國有寇難。奉母巖隙。凶鋒如電。我身奚惜。齧葛書衫。字字腔血。百里宣城。一體相勸。噫茲鷹洞。惟巖不泐。點點苔痕。黝黝山色。陟降如在。風悲雨咽。乃築之壇。乃樹之石。特書二字。庸警<sup>P</sup>衰叔。凡有彝衷。疇不涕雪。



嘉善義淑子霖行府使乾元子治水益子有平以下不盡錄後孫鍾洛鍾殷鍾旭等緬慕遺蹟特立石而表其墟問銘於不佞義有不忍辭遂撮其槩而銘之曰

忠平遠韻密直家學服習忠孝飽飫墳籍乃進芹宮乃長經幄聞風于干旋彼鴻碩屬逝山空宛宛遺躅泉石被光草樹含馥歲月滋茂檣慕彌激載琢貞珉揭示千億

鷹巖先生申公殉孝遺墟祭壇碑銘并序  
嗚呼此鷹巖先生申公殉孝之墟也何謂殉孝蓋

拓菴先生文集卷十九

三十三

當執徐島寇之難公將母避匿於巖穴間猝遇賊即挺身受賊刃而全其母於危禍之地非至孝而能如是乎為母而殉其身非殉於孝者歟不寧惟是方公之受刃也半體墜傷流血如川其慘毒何如而公神閒氣定處置從容既攬萬而齧之又截衫而裁之濡血作書寄與宣城宰辛即仲弟梧峯先生之悌也其書曰藏身不密為賊所害又曰足掌書宣城二字首尾凡十五字墮可記認而一書辭意不啻丁寧首句八字言自己之不密而凜然殉孝之意可見也未句七字言季氏之當殉於國

而足書二字所以備原隰之求也處已則以殉孝自勉勉弟則以殉忠相勉欒恭子所謂人生於三事之如一所在即致死者非是之謂歟若公者真可謂忠孝兩全而賢於趙苞輩遠矣公諱之孝字達夫其先鵝州人也曾祖曰翰贈判使事祖曰應奎參奉贈參議考曰夢得贈左承旨妣月城朴氏贈參議敏樹女妣高敞吳氏參奉士翼女公朴氏出也生於嘉靖辛酉歿於萬曆壬辰時年三十二葬于本縣板友山震兌之原公氣質英爽才性穎拔及成童與弟梧峯登惟一齋金

拓菴先生文集卷十九

三十四

先生彥幾之門學業日就金公每以遠到期之弱冠為校長終日端坐以禮自持諸生敬服無敢怠慢失儀者傍治公車業屢魁於鄉承旨公喜曰此兒能復立吾門也平居好讀書取四子諸經手書口誦又抄出性理格言以為服膺之資梧峯嘗追書其尾曰吾兄平日用力大有條理此足以見公之為學矣是以死生危迫之際雍容整暇自有不期然而然者雖其姿質之美異於人而學問之力又焉可誣也配咸昌金氏習讀彊之女有二男命義禁府都事命夔義子孟堪主簿仲堪季堪夔子



耆亨都事。孟堪子。睦。盼。護。軍。瞻。仲。堪。子。瞻。武。科。季。堪。子。粹。耆。亨。子。眇。瞻。以下不盡錄。其登科者。玄孫天杰生員。天達生員。五世孫漢雲進士。嗚呼。今距公之世三百有餘歲矣。實蹟已杳矣。遺墓已碣矣。而獨鷹洞一麓。蕪沒榛荒。班鮮血之痕。風磨而雨洗。烈烈揮瀉之跡。煙消而雲滅。則千古志士之涕。安得不漉漉爾乎。是宜後嗣子孫之行過於。是瞻仰於是者。盡然而痛傷。怵然而感泣。圖所以。髮鬢寓慕之地也。於是後孫正遠。學遠。詹基。燦基。等。築壇而護其墟。立石而表其壇。將舉歲一之享。

拓菴先生文集卷十九

三五

以致如枉之誠。使族姪相鎬。囑余記其事。余雖老。洎不堪。而旋伏念先大夫龜窩先生題跋之文載。在實蹟。則申君之請。豈不以龍門之契歟。何敢辭。遂不揆而敘顛末。以為天下後世為人臣子之勸。

勇銘曰

嶷嶷我公。天賦挺特。梧翁難兄。惟一高足。蚤辦熊魚。爰自象勺。國有寇難。奉母巖隙。凶鋒如電。我身奚惜。鬪萬書衫。字字腔血。百里宣城。一體相助。噫茲鷹洞。惟巖不泐。點點苔痕。黝黝山色。陟降如枉。風悲兩咽。乃築之壇。乃樹之石。特書二字。庸警。

衰叔。凡有彝衷。晴不涕雪。

鳳岡書院廟墟碑銘 并序

直岳溪縣北鳳山之下高山之里。有曰鳳岡書院。即故忠宣公三曼堂文先生安靈之所。而又以其孫靖惠公乘躋配。同堂合設。儀文秩然。蓋後人所。以塵利報佛之義也。嗚呼。忠宣公。麗季名臣也。事親至行。著於夷蠻之感服。為國貞忠。顯於南荒之。竄逐。至若濟眾之仁。利民之澤。東國億兆之衣章。文物。莫非其賜也。一管絲種。流播於萬里之外。上有授衣之詠。下有挾纊之頌。則是其功與德。何讓。

拓菴先生文集卷十九

三十六

於后穆氏之播厥也哉。雖然。此特先生之餘事耳。先生以剛明正直之姿。當淫邪倣擾之際。毅然以崇正學。闢邪說。為已任。承襲於稼亭之門。切瑳於圃翁之席。使息孟程朱之學。始明於東。孝悌忠信之道。復行於世。家誦聖賢之書。人知聖賢之學。遺風遠韻。久而不泯。若先生者。不啻為一代之儒宗。而千古斯文之統。自有所歸矣。我列聖朝。褒崇之典。大君子紀述之篇。其不為鄉黨之活畫歟。先生有五子。曰中庸文獻。納曰中誠。贈兵判諡純質。曰中實。贈參知諡毅安。曰中晉。進士。曰中啓。

卷之三十一 / 行狀

건원릉참봉호계선생신공행상 健元陵參奉虎溪先生申公行狀

13世 적도(適道) 父 : 흘(屹)      祖父 : 원록(元祿)      읍파(邑派)호계공파(虎溪公派)

先生諱適道字士立號虎溪姓申氏。其先鵝洲人也。勝國時有版圖判書諱允濡。以清直著。生諱祐按廉使。廬墓三年。有雙竹之異。事聞旌閭。至三世有諱俊楨教授。於公高祖也。曾祖曰壽除寢郎不就。祖曰元祿號悔堂。遊退陶慎齋兩先生門。得聞淵源之學。亦以孝行旌門。贈戶曹參議。享藏待書院。考諱屹號城隱。有士林碩望。贈左承旨。妣順天朴氏副尉倫女。參判安命玄孫也。萬曆甲戌十二月某日。公生于義城縣陶巖里第。稟質粹美。才性聰穎。自幼妙時。已能觸事物而曉悟者衆也。及長就學於寒岡鄭先生。密切聽受。所見日富。既而登旅軒張先生之門。難疑講質。屢蒙獎詡。乙巳捷鄉解。西厓柳先生見其券歎曰義理條暢。匪俗儒可及也。愚伏鄭先生亦曰申某見識端的。足爲吾黨矜式也。丙午與季弟懶齋公悅道俱陞上庠。聲譽藉甚。甲寅薦遭內外艱。哀毀幾不支。殯葬儀節必稟於旅軒先生而行之。俾無遺憾。既葬因廬于墓。以終三年。庚寅賊臣鄭造以道伯題名院案。公卽董率諸生削去之曰蔑倫亂賊。何可暫齒於儒林之列乎。聞者無不灑然變色易容者。丁卯聞金虜東搶。公奮然曰鑿馭蒙塵。王事孔棘。此非爲人臣子草間苟活之時也。與遠邇同志。糾義旅募義糧。星夜馳進而賊已退矣。因詣闕陳疏。縷縷數千言。仁廟優批答之。特除祥雲道察訪。道於兵燹屢經之餘。公私赤立。公至則拊摩凋瘵。如恐不及。於是郵民深感再蘇之惠。至立碑去思云。壬申拜齊陵參奉。尋又拜健元陵參奉。皆一肅而退。丙子金人再窺。公不勝憤惋。招集人士之有智勇者。爲出萬死直前之計。而旋聞雙嶺已陷。和議乃定。卽馳赴行在。灑泣封章。極言其賣國之罪。與清陰金公尙憲，桐溪鄭公蘊，龍洲趙公綱相對慟哭。因呼一絕曰斥和認是堂堂事。胡爾講和相反之。寔出怯夷抒禍耳。倒懸賈喻先符之。既歸又吟一絕曰誤被天恩重。還慚臣分疎。故園春已晚。何用更躑躅。洛中士爲之傳誦。時李相景奭嘗於筭對。特奏曰申某眞國家忠良之臣也。當有拔例之典。上允之。公歎曰天地閉矣。冠履倒矣。此豈白首進取之日乎。自是無復當世之念。置數架茅屋於鶴山薇谷。扁其軒曰採薇。杜門端坐。日讀春秋。以寓其悲惋之意。時人稱之曰韶州林壑。獨有大明日月云。癸卯七月一日。以疾考終于寢。享年九十。是歲十二月某日。葬于安平面鷹峯向震之原。會者數百人。配坡平尹氏。僉正淳之女。參判希曾之孫。配德無違。先公而歿。葬于雞峴。後遷合封。生四男。堦將仕郎，均宣教郎，塚進士，坵宣教郎。女適士人金尙珪，縣監鄭復亨。堦嗣子慶錫。均二子慶錫爲堦後，爾錫。塚二子禹錫，文錫。坵二子昌錫，玄錫。金子某某。鄭子某某。內外孫曾總五十餘人。嗚呼。公以聰明特異之才。襲家世相承之學。忠孝爲基本。敬義爲節度。俛焉孜孜。常有不得不措之意。及登師門。益留意於講明旨訣。取庸學二書。逐章揭圖。以爲學者之指南。日與晚晤懶齋二弟。壘唱箎和。相對怡悅。又與李蒼石，鄭桐溪，趙龍洲，全沙西，金鶴沙，柳修巖諸先生。託爲道義交。歲晏莫逆也。嘗愛冰溪水石。與一鄉同志。移設長川院宇。以爲藏修之所。惓惓以興學校育英材爲務。蓋其規模節目。一出於悔堂先生所



制也。事親極其孝。友弟極其樂。篤於彝倫如此。故其移君也亦然。當強圉柔兆之變。擁強兵坐而觀者相環也。公以一介國子生。手無尺寸之兵。而奮然先倡。視死地如鶩。而時運已去。國論遂定。雖不得效答強夷係單于之功。而前後封章。觸犯無諱。使當日誤國之臣。一見足以破膽。則其所以伸大義於天下。激彝衷於萬世者。果何如也。是其忠義之節。敵愾之勇。有非猝乍間徒然襲取者。而莫非從平日學問中出來。則於是而悔堂家學之懿。寒旅化導之正。自有不可誣者矣。於乎偉哉。且先生之大節。久而不泯。鄉邦人士建祠而尸祝之。至今上丁卯。因直指褒啓。特贈先生爵吏曹參議。豈非所謂一時之屈而萬世之伸者耶。道和以鄰鄉晚生。竊嘗聞公之風而慨然有執鞭之願久矣。日公之裔孫相夏等。以公之第三子忍齋公所撰遺事。屬道和敘次之。蓋辭之再三而其請愈勤。有不得終辭者。迺於吟病之暇。取遺事略加隱括。并敘其所感如此。

既歿。朝廷始有擢用之命。惜乎其未及。然昔顏閔氏未嘗仕而自爲四科之首。今之論公者。何獨不然哉。配固城李氏。承旨景明女。襄憲公原之後也。有淑德。後公歿。葬附公墓。生四男。曰壻曰叔曰壘曰垞。俱登兩岡門。世稱四賢。女鄭鍾。內外孫會凡百餘人。不盡錄。日公之後孫漢儀。甫越三百里。持遺狀而來。囑余敘次之。顧不佞以眇然後生。何敢泚筆於先生狀德之文。自犯僭妄之罪哉。蓋辭之再三。而其請愈勤。遂不揆耄荒。迺於負席之暇。伴記如右。倘世之秉筆者。有所採擇。則幸矣。謹狀。

拓菴先生文集卷三十一 十八

健元陵參奉虎溪先生申公行狀

先生諱適道。字士立。號虎溪。姓申氏。其先鵝洲人也。勝國時有版圖判書諱允濡。以清直著。生諱祐。按廉使廬墓三年。有雙竹之異。事聞旌閭。至三世有諱俊楨。教授於公高祖也。曾祖曰壽除。寢郎不就。祖曰元祿。號悔堂。遊退陶慎齋兩先生門。得聞淵源之學。亦以孝行旌門。贈戶曹參議。享藏待書院。考諱侂。號城隱。有士林碩望。贈左承旨。妣順天朴氏。副尉倫女。參判安命玄孫也。萬曆甲戌十二月某日。公生于義城縣陶巖里第。稟質粹美。才性

卷之三十四 / 行狀

암재신공행상 巖齋申公行狀

21世 동협(東協) 父 : 면조(冕祖) 祖父 : 한규 (漢奎) 읍파(邑派)만오공파(晩悟公派)

申氏之先。出自鵝洲。按廉使諱祐其遠祖也。中世有諱元祿。以學問孝友贈戶曹參議號悔堂。有諱達道弘文館修撰號晚悟。於公爲八世也。曾祖曰光佑號箴齋。祖曰大奎有文學德望。考曰冕祖。妣丹陽禹氏命裕之女。有婦行。克配君子。公諱東協字敬叔。巖齋其自號也。仁陵甲子十月某日。公生於金城山下塔前里第。骨相岐嶷。王考處士公喜曰此兒必張大吾門。幼不好弄。甫七歲受十九史。能曉解文義。自是勤讀不懈。長者止之則輒曰 讀書不知爲苦也。丁丑遭先公喪。拚擗啼號。無異老成。既而隨王父移居于傳巖先楸之下。奉事重闈。志物之養無不至。暇日取四子諸書。口誦心惟。以爲終身服膺之地。傍治功令文字。日夕勉勉。而旋以不利而廢之。淨坐一室。討究經籍。未嘗無故而掩卷。每晨興輪誦范浚心箴及程夫子四勿箴。至老不廢。其篤志如此。尤篤於彝倫。有一弟蚤歿。拊養孤姪。以至成就。而無間於己子。鄰居族兒來學而家甚窶。朝晡不繼。則輒推食食之。見人窮餓。不啻若在己。矜恤之情形於辭色。皆人所難也。癸巳遭王考喪。哀慟不自勝。附身附槨之物。必誠無憾。遇喪餘。力求所嗜以薦之。丙午丁先夫人憂。一如前喪。先祖晚悟公墓下舊無圭田。公竭力規置。以爲歲奠之備。奉先則前期齊沐。躬執剗爛之需。以致其誠。教子則必以義方。常曰士不尚志則所見日趨卑下。終於墜墮而已。可不戒哉。凡術數之人來談禍福者。待之若不聞然。族大父市南公於人少許可。而雅信愛公。家事鉅細悉與之商榷。至以身後幽宅之地。丁寧託付。則其所以見信於父老名碩又何如也。嘗以所居坊名偶合於版築。故 因以巖齋揭楣。爲優游卒歲之計。其激昂之志。不爲事物所奪可知也。癸酉春考終于寢。卽二月二十二日也。十月某日。葬于傳巖負兌之原。享年七十。配南陽洪氏雨國女。有淑行。先公歿。葬在同原。三男仁植，義植出，滌植。一女柳宇榮。仁植三男鳳燮，鷹燮，鴻燮。女姜隣欽，金在鍊，金甲鍾，任慶宰。滌植一男鵬燮。柳宇榮一男哲佑。嗚呼。公姿性雅潔。志行高古。不隨世而桔槔。不與人而爭競。惟以閉門自修爲務。而於鄉里追逐則不屑也。是以人之知之者蓋鮮。而獨有金公安教，李公龍在俱以真醇之心。相與不淺。柳閩山道洙亦以歲寒之交。其志莫逆也。故其誄詞曰古柏寒松。辛桂辣薑。此足以觀公之平生矣。曰公之獅孫哲佑君。以其伯舅氏遺命。請余以敘次之役。乃於負席呻病之暇。就遺事而彙括如右。以塞亡友之孝思云爾。



已見而及登師門。聞見益親切。用意於日用彝倫。著力於聖賢經傳。未嘗無故而自弛。又未嘗有得而自足。德器可謂漸成矣。學業可謂精詣矣。是以居家有度。而閨門為之穆然。接人以正。而婦孺莫不敬畏。則若公者。豈非君子所謂篤學之徒歟。獨惜乎。裏面之蘊如此。其熾而終老林下。泯沒無稱。安得無世道之憾也哉。昔余東遊之日。幸而有眇眇之雅見。其容薰然而可愛。聽其言灑然而可樂。於心不念矣。今其孤胤君東。人以善狀為請。拊念疇昔。不勝隣笛之感。迺按摺遺事而第錄如右。

拓菴先生文集卷三十四 四十二

巖齋申公行狀

申氏之先。出自鵝洲。按廉使諱祐其遠祖也。中世有諱元祿。以學問孝友。贈戶曹參議。號悔堂。有諱達道。弘文館修撰。號晚悟。於公為八世也。曾祖曰光佑。號巖齋。祖曰大奎。有文學。德望。考曰冕。妣曰丹陽禹氏。命裕之女。有婦行。克配君子。公諱東協。字敬叔。巖齋其自號也。仁陵甲子十月某日。公生於金城山下塔前里第。骨相岐嶷。王考處士公喜曰。此兒必張大吾門。幼不好弄。甫七歲。受十九史。能曉解文義。自是勤讀不懈。長者止之。則輒曰。

七三七

讀書不知為苦也。丁丑遭先公喪。拚擗啼號。無異老成。既而隨王父移居于傳巖先楸之下。奉事重。闡志物之養。無不至。暇日取四子諸書。口誦心惟。以為終身服膺之地。傍治功令文字。日夕勉勉。而旋以不利而廢之。淨坐一室。討究經籍。未嘗無故而掩卷。每晨興。輪誦范浚心箴。及程夫子四勿箴。至老不廢。其篤志如此。尤篤於彝倫。有一弟蚤歿。拊養孤姪。以至成就。而無間於已子。鄰居族兒來學。而家甚窶。朝晡不繼。則輒推食食之。見人窮餓。不啻若狂。已。矜恤之情形。於辭色。皆人所難也。癸

拓菴先生文集卷三十四 四十三

巳遭王考喪。哀慟不自勝。附身附槨之物。必誠無憾。遇喪餘力。求所嗜以薦之。丙午丁先夫人憂。一如前喪。先祖晚悟公墓下。舊無圭田。公竭力規置。以為歲奠之備。奉先則前期齊沐。躬執剗爨之需。以致其誠。教子則必以義方。常曰。士不尚志。則所見日趨卑下。終於墜墮而已。可不戒哉。凡術數之人。來談禍福者。待之若不聞然。族大父市南公。於人少許可。而雅信愛公。家事鉅細。悉與之商榷。至以身後幽宅之地。丁寧託付。則其所以見信於父老名碩。又何如也。嘗以所居坊名。偶合於版築。故



續卷之四 / 書

답신경안 돈식 答申敬安 敦植

22世 돈식(敦植) 父 : 태협(泰協) 祖父 : 면낙 (冕洛)

읍파(邑派)호계공파(虎溪公派)

昨自無何。忽承兩度書。顧此頽廢。何足以備數於記存之末。而倒垂繾綣。若是鄭重。奉讀愧感。無以爲謝。伏惟孝思慨然。何以堪處。只切瞻溯之至。示及禮疑。區區素昧。何敢遽議。但考禮書。古禮自當依行。而先輩議論。許禁不一。朝家令甲。亦多參差。丁丑國恤時。手教許行。故其時禮論。皆令依禮過行。丙申國恤時。復有行會禁止。故又有遵用時制之論。大山集中前後所論之不同。蓋皆因時制而然也。今番行會。姑未見到。未知當出於何議。然凡禮之交互不一處。但以一書爲據。而在行禮者自擇之如何。今既未見朝家指揮。只依丁丑制。今雖依而行之。亦非國制之外。先輩又有言服制祭禮。多有捨國制從古禮。而朝家亦不之禁。則以曾子問爲據而當日過行。亦無未安之論。此則惟在哀斟酌而行之如何耳。

拓菴先生續集卷四	六	情圖左仁禮右義智其爲對立不啻截然是四者隨其所感而以發何嘗惻隱了便辭讓辭讓了便羞惡如天道之流行矣乎仁義禮智之與元亨利貞其理雖未嘗不一而對待與流行有不能同試思之如何	答申敬安敦植	昨自無何忽承兩度書顧此頽廢何足以備數於記存之末而倒垂繾綣若是鄭重奉讀愧感無以爲謝伏惟孝思慨然何以堪處只切瞻溯之至示及禮疑區區素昧何敢遽議但考禮書古禮自當依行而先輩議論許禁不一朝家令甲亦多參差丁丑國	恤時手教許行故其時禮論皆令依禮過行丙申國恤時復有行會禁止故又有遵用時制之論大山集中前後所論之不同蓋皆因時制而然也今番行會姑未見到未知當出於何議然凡禮之交互不一處但以一書爲據而在行禮者自擇之如何今既未見朝家指揮只依丁丑制今雖依而行之亦非國制之外先輩又有言服制祭禮多有捨國制從古禮而朝家亦不之禁則以曾子問爲據而當日過行亦無未安之論此則惟在哀斟酌而行之如何耳	答洪舜卿在謙
----------	---	----------------------------------------------------------------------------------	--------	----------------------------------------------------------------------------------------------------	----------------------------------------------------------------------------------------------------------------------------------------------------------------------------------	--------

附錄卷之二

제문[문인신상하] 祭文[門人申相夏]

22世 상하(相夏) 父 : 인협(寅協) 祖父 : 면목 (冕穆)

읍파(邑派)호계공파(虎溪公派)

先生之棄後學。已再周星霜矣。先生之典型日以寢遠。而小子之志業日以益荒。以益荒之志業。念寢遠之典型。莫逮之痛。辜負之恨。當何如哉。嗚呼。先生之謦咳。已不可得以聞矣。而先生之道與德。固有百世而不可泯者。小子之所勉焉而無忝於先生者。惟在於斯。而自顧愚鈍不能實用其力。而因循汨沒。無以拔於流俗。則何其不爲小人之歸。而君子之棄耶。言念及此。哀懼交深。嗚呼。日月跳丸。祥期隔晨。時節如昨。痛懷采切。物菲誠摯。庶賜歆格。



## 청대선생문집(淸臺先生文集)

### 형태서지

권수제	청대선생문집(淸臺先生文集)
판심제	청대선생문집(淸臺先生文集)
간종	목판본(木版本)
간행년	1797 년 간행
권책	원집(原集) 16 권, 연보(年譜) 2 권 합 9 책
행자	10 행 21 자
규격	21.8×17.3(cm)
어미	上下二葉花紋魚尾
소장처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도서번호	D1-A449
총간집수	한국문집총간 속 61

### 저자

성명	권상일(權相一)
생년	1679 년(숙종 5)
몰년	1759 년(영조 35)
자	태중(台仲)
호	청대(淸臺)
본관	안동(安東)
시호	희정(僖靖)
특기사항	이만부(李萬敷), 오상원(吳尙遠), 이익(李翼) 등과 교류



행력

왕력		서기	간지	연호		연령	기사
숙종	5	1679	기미	康熙	18	1	10월 12일, 尙州 近嶽里에서 태어나다.
숙종	23	1697	정축	康熙	36	19	2월, 宣城金氏 金可柱의 딸과 혼인하다.
숙종	24	1698	무인	康熙	37	20	日記를 쓰기 시작하다.
숙종	25	1699	기묘	康熙	38	21	〈元朝感懷詩〉를 짓다.
숙종	26	1700	경진	康熙	39	22	〈學知錄〉을 엮다.
숙종	27	1701	신사	康熙	40	23	〈自警詩〉를 짓다.
숙종	31	1705	을유	康熙	44	27	8월, 漢城試에 합격하다.
숙종	32	1706	병술	康熙	45	28	3월, 부인 김씨의 상을 당하다. ○ 12월, 驪興李氏 李萬英의 딸과 혼인하다.
숙종	33	1707	정해	康熙	46	29	8월, 鄉試에 합격하다.
숙종	36	1710	경인	康熙	49	32	1월, 아들 權煜이 태어나다. ○ 4월, 增廣 東堂試에 합격하다. ○ 10월, 승문원 권지부정자가 되다.
숙종	38	1712	임진	康熙	51	34	4월, 모친상을 당하다. ○ 10월, 부인 여흥이씨의 상을 당하다. ○ 11월, 조모상을 당하다.
숙종	40	1714	갑오	康熙	53	36	11월, 眞城李氏 李柔의 딸과 혼인하다. ○ 12월, 부정자가 되다.
숙종	41	1715	을미	康熙	54	37	5월, 저작이 되다.
숙종	42	1716	병신	康熙	55	38	겨울, 息山 李萬敷와 편지로 格物 및 理發, 氣發에 대해 논하다. 〈理氣辨〉을 짓다.
숙종	44	1718	무술	康熙	57	40	9월, 전적이 되다.
숙종	45	1719	기해	康熙	58	41	1월, 부인 진성이씨의 상을 당하다. ○ 5월, 직강이 되다.
숙종	46	1720	경자	康熙	59	42	1월, 예조 정랑이 되다. ○ 6월, 因山都監 郎廳에 차임되다.
경종	2	1722	임인	康熙	61	44	12월, 병조 좌랑이 되었으나 체차되어 돌아오다.
경종	3	1723	계묘	雍正	1	45	봄, 〈戒懼辨〉, 〈絜矩辨〉을 짓다. ○ 4월, 屏山書院을 방문하여 密菴 李裁와 강론하고 돌아오다.
경종	4	1724	갑진	雍正	2	46	5월, 이만부와 弄淸臺에서 노닐고 酬唱詩를 짓다.
영조	3	1727	정미	雍正	5	49	7월, 萬頃 縣令이 되다.
영조	4	1728	무신	雍正	6	50	李麟佐의 난이 일어나자 성을 굳게 지켜 민심을 안정시키다.
영조	5	1729	기유	雍正	7	51	3월, 부친상을 당하다.
영조	7	1731	신해	雍正	9	53	4월, 靈巖 郡守에 제수되었으나 喪期가 끝나지 않아

청대선생문집(淸臺先生文集) 권상일(權相一)

							부임하지 않다. ○ 8 월, 장령이 되다. 사직소를 여러 차례 올렸으나 허락받지 못하다.
영조	8	1732	임자	雍正	10	54	1 월, 체직되어 귀향하다. ○ 2 월, 장령이 되다. ○ 12 월, 이만부를 곡하다.
영조	9	1733	계축	雍正	11	55	1 월, 梁山 郡守에 제수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아 체차되다. ○ 군자감 정이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 「退溪言行錄」을 교정하다. ○ 10 월, 장령이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영조	10	1734	갑인	雍正	12	56	7 월, 장령이 되다. ○ 10 월, 장남 권옥을 곡하다.
영조	11	1735	을묘	雍正	13	57	3 월, 군자감 정, 蔚山 府使가 되다. ○ 12 월, 춘추관편수관을 겸하다.
영조	12	1736	병진	乾隆	1	58	2 월, 울산 鷗江書院의 東·西齋를 창립하다.
영조	14	1738	무오	乾隆	3	60	12 월, 벼슬을 그만두고 귀향하다.
영조	15	1739	기미	乾隆	4	61	8 월, 浮石寺를 유람하고, 白雲洞書院에 가다.
영조	16	1740	경신	乾隆	5	62	尙州 弄淸臺 옆에 尊道書窩를 짓고 ‘淸臺’라 자호하다.
영조	17	1741	신유	乾隆	6	63	4 월, 醴泉의 遮架洞을 유람하다. ○ 11 월, 시강원 필선이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영조	21	1745	을축	乾隆	10	67	3 월, 봉상시 정이 되다. ○ 필선, 헌납이 되다. ○ 大山 李象靖과 편지로 太極, 動靜에 대해 논하다.
영조	22	1746	병인	乾隆	11	68	4 월, 헌납이 되다. ○ 6 월, 公忠道 都事가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 10 월, 집의가 되다.
영조	23	1747	정묘	乾隆	12	69	3 월, 侍從臣을 지냈으면서 朝參에 참석하지 않은 일로 심리를 받다. ○ 5 월, 사간이 되다. ○ 6 월, 집의, 종부시 정이 되다. ○ 9 월, 사간이 되고, 통정대부에 가자되다. 형조 참의가 되다. ○ 11 월, 동부승지가 되다.
영조	24	1748	무진	乾隆	13	70	1 월, 우부승지, 좌부승지가 되다. ○ 4 월, 咸昌의 臨湖書院에서 「小學」을 강설하다. ○ 7 월, 道南書院에서 「소학」을 강설하다.
영조	25	1749	기사	乾隆	14	71	2 월, 安東에 가서 孤山 李惟禕의 비문을 쓰다. ○ 7 월, 「商山誌」를 완성하다. ○ 8 월, 대사간, 이조 참의가 되다. ○ 「鶴城誌」를 완성하다.
영조	26	1750	경오	乾隆	15	72	1 월, 판결사가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영조	27	1751	신미	乾隆	16	73	4 월, 竹潭 仙遊洞을 유람하다. ○ 5 월, 修禊所에 향약을 행하다.
영조	28	1752	임신	乾隆	17	74	9 월, 선조 松巢 權宇의 문집을 교정하다. ○ 11 월, 가선대부 겸 동지의금부사가 되다. ○ 부제학이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영조	29	1753	계유	乾隆	18	75	1 월, 대사간이 되다. ○ 4 월, 三代의 贈牒을 받다.
영조	30	1754	갑술	乾隆	19	76	2 월, 한성부 좌윤, 동의금, 병조 참판이 되었으나 나가지 않다.
영조	31	1755	을해	乾隆	20	77	2 월, 대사간이 되었으나 나가지 않다. ○ 11 월, 찬수 청 당상이 되다.
영조	33	1757	정축	乾隆	22	79	1 월, 가의대부에 오르다.
영조	34	1758	무인	乾隆	23	80	1 월, 자헌대부에 오르고, 지중추부사가 되어 耆老所에 들어가다. ○ 4 월, 삼대의 증첩을 받다. ○ 6 월, 〈感懷〉를 짓다.
영조	35	1759	기묘	乾隆	24	81	대사헌, 知事가 되다. ○ 7 월 11 일, 졸하다. ○ 9 월, 山東 果雙洞에 장사 지내다. ○ 12 월, 예조 좌랑 金埴를 보내 치제하다.
정조	7	1783	계묘	乾隆	48	-	10 월, 竹林精舍에 위판이 봉안되다.
정조	10	1786	병오	乾隆	51	-	10 월, 近岳書院에 移享되다.
정조	14	1790	경술	乾隆	55	-	10 월, ‘僖靖’으로 시호를 받다.
정조	21	1797	정사	嘉慶	2	-	문인 趙錫喆과 증손 權遵, 從姪 權煥 등이 목판으로 문집을 간행하다.

## 편찬및간행

저자는 退溪 李滉의 학문을 계승한 家學의 전통을 이어받아 經傳과 濂洛諸書에 잠심하였으며, 「初學指南」, 「觀書錄」, 「近思錄集解」, 「昭代備考」, 「家範」, 「歷代史抄」, 「常目詩文雜著」, 「日記」 등 수십여 권을 저술하였다고 한다.

저자 사후에 후손들이 李象靖, 蔡濟恭, 丁範祖에게 각각 행장, 시장, 신도비명 등 묘도문자를 수집한 것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유문의 간행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진 듯하다. 이후 1796 년에 문인 趙錫喆과 증손 權遵, 從姪 權煥 등이 가장초고를 바탕으로 수집 편차하여 1797 년에 讎校에 참여했던 鄭宗魯(1738~1816)의 서문을 받아 목판으로 간행하였다. 《초간본》이 본은 현재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D1-A449, 만송 D1-A449), 국립중앙도서관(古 3648-文 07-108), 장서각(K4-6550, D3B-744),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811.98/권상일) 등에 소장되어 있다.

이 밖에 저자가 1749 년에 名家의 譜牒과 여러 文籍을 수집 보충하여 완성한 尙州의 邑誌인 「商山誌」는 1929 년에 7 권 3 책의 연활자본으로 行되어 장서각(B15BB-27) 등에 소장되어 있고, 또한 1932 년에 목활자로 行된 「초학지남」 1 책은 부산광역시 시민도서관(古 151.52-3) 등에 소장되어 있다.

저자가 20 세부터 시작하여 81 세로 몰하기 10 일전까지 쓴 30 권의 일기는 2003 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淸臺日記」(한국사료총서 제 47 집)로 탈초하여 간행하였는데, 저자의 관직생활과 일상생활의 면모 및 당시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기록이다. 또한 1749 년에 편찬한 山의 읍지인 「鶴城誌」 초고본을 2010 년 山남구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에서 국역하여 간행하였다.



본서의 저본은 저자의 문인 조석철과 증손 권준 등이 1797년에 목판으로 간행한 초간본으로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장본(D1-A449)이다. 본 영인저본 중 권 16의 제 26 판은 낙장이므로 동일본인 同館藏本(만송 D1-A449)으로 보충하였다.

序(鄭宗魯 撰), 跋(趙錫喆 撰), 本集內容 등에 의함

## 구성과내용

본집은 원집 16 권, 연보 2 권 합 9 책으로 되어 있다. 권두에 鄭宗魯가 1797년에 쓴 서문과 목록이 있다.

권 1~4는 詩(580題)이다. 詩體 구분 없이 저작 연대순으로 편차되어 있다. 권 1은 31세 때인 1709년부터 54세인 1732년까지 지은 것이고, 권 2는 1732년부터 68세인 1746년까지 지은 것이고, 권 3은 1746년부터 73세인 1751년까지 지은 것이고, 권 4는 74세인 1752년 이후부터 작고하기 전까지 지은 것이다. 그리고 권 4의 끝에는 만시 73수를 별도로 묶어 편차하였다. 시의 내용은 감회, 경물, 기행, 제영, 제화 등으로 다양하고, 〈次伴翠丈遊江左諸勝地韻〉, 〈石村八景〉, 〈次寄李訥隱天祥鹿門二十詠〉, 〈次朱詩雲谷十二詠〉 등 연작시가 많은 편이다. 퇴계 이항을 사숙한 저자는 특히 「退溪集」에 차운한 시가 많은데 춘하추동 사계절을 계절별로 각각 하루 4시로 나누어 읊은 〈敬次退溪四時吟十六絶〉을 비롯 〈敬次退溪先生感春韻〉, 〈敬次退溪東齋感事十絶〉, 〈敬次退溪先生不欺堂韻〉 등의 시가 있다. 그리고 朱子詩에 차운한 시도 여러 편 있다. 吳尙遠, 李萬敷 등과 수창한 시도 많아 교류가 활발했음을 알 수가 있다. 洪相朝와는 太極圖 등 '聖學十圖'를 강학한 뒤에 도설마다 감회를 읊은 연작시가 있다. 울산 부사 시절 경주, 부산 등지를 돌며 풍광과 감회를 읊은 〈東京感吟〉, 〈洛東江〉, 〈駕洛舊都〉, 〈待變樓〉, 〈海雲臺〉 등의 시가 있다. 〈前秋穡事大無 .....〉는 1746년 봄, 지난 가을 농사의 흉작으로 기근이 들었는데 추운 날씨에 유리걸식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잠 못 드는 밤에 지은 것으로 〈寒夜卽事〉, 〈行田卽事〉, 〈田家歎〉 등 민생고를 묘사한 현실 참여적인 시들이 다수 있다. 만년의 시에는 마음을 다잡아 독서에 매진한다는 내용의 〈自警〉 시가 여러 수 있다. 만시는 金楷, 權斗紀, 權斗經, 洪萬朝, 蔡獻徵, 金侃, 李萬敷, 鄭葵陽 등을 애도하여 지은 것이다.

권 5는 疏(26), 箋(1)이다. 소는 대부분 장령, 집의, 승지, 이조 참의, 대사간 등을 사직하는 사직소이고, 이 외에 왕과 세자의 병이 회복된 것을 기뻐하며 올린 〈上候平復後上書〉, 〈東宮痘候平復後上書〉와 1757년 숙종의 계비 仁元王后의 국상이 난 뒤에 올린 〈國恤後上書〉, 1758년 자헌대부에 승자되고 耆老所에 들어간 뒤에 올린 〈陞資入耆社後上書〉 등이 있다. 전은 1756년에 올린 것으로 老病을 위로하여 쌀과 魚物 등을 내려 준 것에 대해 사례하는 내용이다.

권 6~9는 書(184)이다. 편지를 주고받은 대상별로 묶어 연대순으로 배열하였는데, 문집 전체로 봤을 때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密庵 李裁, 息山 李萬敷, 星湖 李瀾을 비롯한 문인, 자제를 포함하여 90여 명이 넘는 인사들과 서신을 교환하였다. 이 중 〈與李息山〉 몇 편은 이만부와 格物, 理氣 등에 대한 논변한 내용이다. 1736년 李守淵에게 보낸 〈與李希顔〉, 1743년 이익에게 보낸 〈答李子新〉과 경상 감사 金尙星에게 보낸 〈答金方伯〉은 이항의 「理學通錄」을 讎校하여 重刊하는 문제에 대해 의논한 것이다. 〈答黃再叟〉 다섯 번째 편지는 1723년 靈光 郡守가 되어 가는 黃翼再에게 준 당부의 글이다. 〈答李知事〉는 李世煥이 朴世采의 「東儒師友錄」 續錄을 지어 補編하면서 영남 인사들의 행적을 수습해 줄 것을 부탁하였는데, 이에 대해 약간의 자료를 모아 보낸다는 내용이고, 〈答高養予〉는 高命傳에게 선조인 泰村 高尚顔의 遺稿와 效顰錄을 좀 더 정밀하게 교정할 것을 당부한 내용이다. 〈答申文叟〉는 1739년 申之儻의 「梧峯集」과 申弘望의 「孤松集」에 대한 발문을 써서 후손 申震龜에게 보낸 것이다. 〈與李萬甫〉는 李憲國

에게 無忝堂 李宜潤의 묘갈명을 지어 주면서 쓴 편지이다. <答李正字>는 1752년 良齋 李德弘의 후손 李長泰에게 보낸 편지로 「良齋集」을 교정하고 발문을 작성하여 보낸다는 내용이다.

권 10은 雜著(15), 銘(3), 上樑文(3), 祭文(16)이다. 잡저 중에는 烈婦에 대한 記事가 5편 있는데 그중 <朴烈婦記事>는 1737년에 정려된 車載輿의 부인에 대한 것이고, <裴烈婦記事>는 李夏蘅의 부인에 대한 것이다. 이 밖에 「中庸」의 戒愼恐懼에 대한 변, 「大學」의 絜矩에 대한 변 등이 있고, <完滅孔姓軍役文>은 울산 부사 시절 그 지역에 사는 孔子의 후손인 孔氏들에게 균역을 완전히 면제해 줘야 한다는 취지의 글이다. 명은 鄭之鏐의 炳燭齋에 대한 것 등이다. 상량문에는 礪溪書堂, 玉川의 明倫堂 重修에 대한 것 등이 있다. 제문은 이만부, 山陰 柳聖和, 迂翁 蔡命龜, 澗西 李國春, 華陰翁 李漢訥, 晚松 洪相朝 등을 위해 지은 것이다.

권 11은 序(5), 記(10), 跋(29)이다. 서에는 병자호란 때 순국한 崔震立의 「貞武公實記」(1738년)에 대한 것, 蔚산의 읍지인 「鶴城誌」(1749년)에 대한 것 등이 있다. 기에는 北溪書堂, 潁濱書堂, 觀水樓, 鷗江書院의 東西齋, 觀逝亭, 尊道書窩, 南溪書院, 葛浦齋舍, 蟋蟀軒 등에 대한 것이 있다. 발에는 신지재의 「오봉집」, 신홍망의 「고송집」, 「湖陽遺稿」, 이덕홍의 「간재집」, 全湜의 「沙西集」, 「石塘遺稿」, 구강서원에 소장된 「退溪集」 등 문집에 대한 발문이 상당히 많은데, 이를 통해 당시 저자의 학문적 위상을 알 수가 있다.

권 12는 墓碣(22)이다. 洛峯 申嵩考, 瀨西 全命龍, 羅峯 安漫, 負暄堂 金楷, 忍百堂 金樂春, 石門 鄭榮邦, 無忝堂 李宜潤, 龜峯 權德麟, 淸風子 鄭允穆, 松隱 姜碩弼 등에 대한 것이다.

권 13은 墓表(2), 墓誌(3), 行狀(8)이다. 묘표는 선조 權徵과 金銓에 대한 것이고, 묘지는 신홍망, 愛楊堂 李世興, 義士 李彭壽에 대한 것이고, 행장은 고상안, 與物軒 蔡獻徵, 霽亭 李達夷, 開巖 金宇宏, 외조부 李達意, 烈士 葛溪 禹鼎 등에 대한 것이다.

권 14는 行狀(10)이다. 臥隱翁 張緯恒, 孫萬雄, 裴晉龜, 李景翼, 遯軒 權晟, 부친 權深, 조부 權以僞, 증조부 權坵, 고조부 權益鄰, 아들 權煜에 대한 것이다.

권 15~16은 觀書錄이다. 저자가 저술한 수십 권 저서 중의 하나로 다방면의 많은 책을 읽은 뒤에 든 생각과 사실들을 기록하여 남긴 것이다. 내용은 經傳, 性理書를 비롯 太極, 陰陽, 五行 등에 관한 朱子와 程子の 설, 「宋朝名臣言行錄」, 「近思錄」, 退溪 李滉, 農巖 金昌協, 이익, 이만부 등의 글 중에서 발췌하여 실은 것이다.

年譜 권 1은 1790년 '僖靖'의 시호를 받은 일까지 기록된 연보 및 遺事가 실려 있다. 年譜 권 2는 附錄이다. 大山 李象靖이 1780년에 지은 행장, 蔡濟恭이 지은 諡狀, 丁範祖가 지은 神道碑銘, 지제고 金耆耆가 지은 致祭文, 道南書院 원임 姜杭, 玉成書院 원임 呂台周, 金樂行 등이 지은 제문 14편, 李守貞이 지은 竹林精舍奉安文, 柳宗春이 지은 近岳書院奉安文, 이수정이 지은 近岳書院常享祝文, 幼學 蔡涑 등 17인이 지은 墓祭文, 이익, 이상정 등이 지은 만사 23편이 실려 있다.

권미에는 趙錫喆이 1796년에 지은 발이 있다.

## 권상일(權相一)

### 정의

조선후기 대사간, 홍문관부제학, 대사헌 등을 역임한 문신. 학자.

### 개설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태중(台仲), 호는 청대(淸臺). 상주의 근암리(近菴里)에서 출생했다. 아버지는 증이조판서 권심(權深)이며, 어머니는 경주이씨로 부사 이달의(李達意)의 딸이다.

### 생애 및 활동사항

학문을 일찍 깨우쳐 20 세에 옛 사람들의 독서하는 법과 수신하는 방법을 모아 「학지록(學知錄)」을 저술하였다. 1710 년(숙종 36)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해 승문원부정자가 되었으며, 1715 년 저작·전적·직강 등을 역임하고, 1720 년 예조좌랑을 지냈다.

1722 년(경종 2) 병조좌랑을 지내고, 1727 년(영조 3)에는 만경현령이 되어 이듬 해 일어난 이인좌(李麟佐)의 난을 사전에 탐지해 영문에 보고하고, 난을 토벌해 공을 세웠다. 1731 년 영암군수와 사헌부장령을 지내고, 1733 년 양산군수·군자감정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같은 해 『퇴계언행록(退溪言行錄)』을 교열해 간행하고, 이듬 해 상소해 민폐 근절책과 관기숙정 방안을 건의했다. 홍문관의 계청에 의해 경연에 참석해 소신을 진술했다. 그 해 울산부사가 되어 춘추관편수관을 겸임하고, 구강서원(鷗江書院)을 창립해 학문을 진흥시켰으며, 공씨에게 군역을 면제하는 등 선치를 하였다.

1741 년 시강원필선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고, 1745 년 봉상시정, 이듬 해 사헌부헌납·사간원사성·사헌부집의·동부승지·형조참의 등을 역임하고, 1748 년 우부승지로 물러났다.

뒤에 대사간·판결사(判決事)·홍문관부제학·한성좌윤·지중추부사·대사헌 등을 역임하고 기로소에 들어갔다. 이황(李滉)을 사숙해 「사칠설(四七說)」을 지어 이(理)와 기(氣)를 완전히 둘로 분리하고, 이는 본연의 성이며 기는 기질의 성이라고 주장했다.

저서로는 『청대집(淸臺集)』 18 권, 『초학지남(初學指南)』, 『관서근사록집해(觀書近思錄集解)』, 『소대비고(昭代備考)』, 『가범(家範)』, 『역대사초상목(歷代史抄常目)』과 『일기(日記)』 30 여 권이 있다. 시호는 희정(僖靖)이다. 죽림정사(竹林精舍)·근암서원(近菴書院)에 향사되었다.



卷之四 / 詩

만신상사 頌 挽申上舍 濂

16世 頌(濂) 父 : 하석(夏錫) 祖父 : 재 (在) 음파(邑派)만오공파(晩悟公派)

嶠南耆德日淒涼。閒養丘園獨壽康。家在聞韶今彩鳳。名留太學古仇香。詩書蘊發賢人面。松菊圍成志士庄。再拜麗床乖宿願。祇將哀淚灑虞章。

<p>官合 宵遶侍講臣。髮白骨清林外鶴。形和德厚座間春。新阡遠望空垂淚。我是床前再拜人。</p>	<p>挽崔五薰信菴 流水桃花洞。主人藥白雲。悲風度虛閣。落日照孤村。獨聽山陽篳。難傾賀老樽。陰森有松塢。夜月想精魂。</p>	<p>挽鄭子真 撰 陶院逢迎揖子言。半儀已識樂翁孫。故家難得一佳士。逸足將期千里轅。風急庭中摧玉樹。月明湖上閉松軒。既生又奪天何意。我淚丸緣契誼敦。</p>	<p>挽洪輔卿 相晉 嶠南士流最公奇。外貌端疑內可知。文行漢為韓子壻。淵源在是晦翁兒。春陽洞壑畱閒躅。粟里田園掩舊茨。大限百年差未半。一花零落紫荊枝。</p>	<p>挽申上舍 濂 嶠南耆德日淒涼。閒養丘園獨壽康。家在聞韶今彩鳳。名留太學古仇香。詩書蘊發賢人面。松菊圍成志士庄。再拜麗床乖宿願。祇將哀淚灑虞章。</p>	<p>挽金濟州 倣 瀟洲仙伯忽乘雲。舟載空棺渡海門。斯世許公廊廟器。昔年尋我近岳村。位躋崇品猶合惜。壽享稀齡亦說寬。</p>
--------------------------------------------------	--------------------------------------------------------------------	------------------------------------------------------------------------------------	-------------------------------------------------------------------------------------	------------------------------------------------------------------------------------	--------------------------------------------------------------------

卷之七 / 書

답신문수 친구○기미 答申文叟 震龜○己未

18世 친구(震龜) 父 : 숙범(叔範) 祖父 : 한로 (漢老)

귀파(龜派)오봉공파(梧峰公派)

睽違戀嚮。積有年紀。每欲奉一書。替伸情素。而坐於面前酬接之無暇。蹉過至今。意外蒙賢從氏來訪。兼手牘<sup>P</sup>先辱。披復累過。無異對討。仍審靜養有相。體履珍毖。尤慰瞻想之懷。相一四載吏役。身心全壞。幸得快脫。閒卧於田廬。私分甚安。將杜門調病。優游終老。不復有一毫當世之念也。俯眎曲折謹悉。合下拙陋。自分撰不得此等重大文字。苦心懇辭於誤囑之家。已多矣。况年來簿墨汨役。專廢書冊。文思筆路。頓覺荒蕪。雖蒙兄委托誌銘之勤。而決不敢承當。極知愧懼。特賜諒恕。不以爲罪。千萬顒俟。梧松遺集。再拜受讀。有以窺文章懿德之一二。晚生竊不勝欣幸。欲不揆僭妄。謹搆數行跋語。畧效景慕之私。而本秩留置未安。付從氏還呈。其付標處。略<sup>P</sup>獻愚見。以備兄采擇取舍之如何爾。

益梅一樹瀉開。踈韻淡格。自有契心者存。俞。訥翁望八  
 之年。筋力精神。比前無甚減損云。吾嶺之幸也。令伯從  
 兄。連住山莊否。聞近頗有林居氣像。居養所得。自然如  
 此。極可嘉尚。意中諸人。皆衰老。遠居無由面晤。是爲慨  
 恨。惟望從者。策一驢出來。於春和後。與公望諸伴。得一  
 望。從遊於學舍山房間。如何。姜思卿每語。兄不已。若此  
 會得成。可與共之。俞。呵凍信筆。不盡遠懷。

答申文叟 震龜 己未

睽違戀嚮。積有年紀。每欲奉一書。替伸情素。而坐於面  
 前。酬接之無暇。蹉過至今。意外蒙賢從氏來訪。兼手牘  
 先辱。披復累過。無異對討。仍審靜養有相。體履珍毖。尤  
 慰瞻想之懷。相一四載吏役。身心全壞。幸得快脫。閒卧  
 於田廬。私分甚安。將杜門調病。優游終老。不復有一毫  
 當世之念也。俯眎曲折謹悉。合下拙陋。自分撰不得此  
 等重大文字。苦心懇辭於誤囑之家。已多矣。况年來簿  
 墨汨役。專廢書冊。文思筆路。頓覺荒蕪。雖蒙兄委托誌  
 銘之勤。而決不敢承當。極知愧懼。特賜諒恕。不以爲罪。  
 千萬顒俟。梧松遺集。再拜受讀。有以窺文章懿德之一  
 二。晚生竊不勝欣幸。欲不揆僭妄。謹搆數行跋語。畧效  
 景慕之私。而本秩留置未安。付從氏還呈。其付標處。略

三五二

卷之十三 / 墓誌

고송신공묘지명 병서 孤松申公墓誌銘 並叙

15世 흥망(弘望) 父: 지제(之悌) 祖父: 몽득(夢得)

귀파(龜派)오봉공파(梧峰公派)

公諱弘望。字望久。號孤松。同副承旨贈吏曹參判梧<sup>P</sup>峯申公之子。參判公嘗爲禮安守。因歲饑。活數千人。得異夢。生公。幼而神采炯潔。才氣超邁。見者稱其遠器。受庭訓甚謹。力學爲文。滂沛有餘。丁卯中進士。戊寅。除康陵參奉。不赴。己卯。擢別科。初補太學館。李相國聖求。惜其才。薦翰院。見尼於當路。甲申。始除承政院注書。應對通敏。筆翰優贍。仁廟奇之。及由還。賜臘藥及扇。遺老母。蓋異數也。丙戌。陞典籍。卽遷兵郎。未數月。擢拜司諫院正言。俄遶授禮郎。丁亥。又拜正言。爲親養。出判完山府。府卽參判公桐鄉也。奉板輿至任。榮養備盡。其爲政。一循先蹟。境內大治。及歸。府民。刻銘于先碑之<sup>P</sup>陰以頌德。壬辰。拜司憲府持平。有李時祿。素不廉於官。不謹於喪。人言喧藉。持平李溫發啓。旋被院駁以去。及時祿。爲都承旨。陳疏自明。且引先賢爲證。聞者憤惋。公將舉劾。同列畏時祿執。固止之。且曰。君朝夕且瀛選。言此必塞。公笑而不聽。遂獨啓曰。時祿疏。有曰。不廉不謹。昔賢亦多被誣。所謂被誣者何賢。誣賢者何人。時祿重被臺彈。不杜門省譽。敢妄自引喻。侮辱先賢。請削仕版。上不允。於是。諫院駁罷如李溫。公卽出城而還。未幾。竄碧潼。家人皆號泣。公不小動。怡然就寢。翌曉。辭家廟。行及至弘濟院。特命付處。兩司請還收。上不<sup>P</sup>許。公卽改路。赴平海配所。未一月赦還。丙申。除蔚山府。律己清簡。革祛弊瘼。民立碑。寓去思。己亥。除豐基守。先是。邑宰三人。連歿官。皆曰不祥。公言吾不就官。無以解妖言。遂赴任。郡僻無事。以訓士興學爲務。留數歲棄歸。行橐蕭然。惟紅梅一盆。癸卯。授關東幕。改授司藝。謝恩而還。後除宗簿正判校等職。俱不赴。生庚子。歿癸丑。享年七十四。訃聞。朝廷致賻如禮。某月日。葬于義城縣下川黑石里巴向之原。公天性篤孝。歲甲子。參判公捐館。公哀毀踰禮。三年不飲酒漿。登科以不及於先公在時。賀者至。輒出涕。及遭先夫人喪。年既衰。而<sup>P</sup>猶執喪如前。墓距家稍遠。而往省甚數。寒暑不避。朝夕謁家廟。忌日齋沐悲感。終身如一日。平居。無惰慢氣。無疾言遽色。宏器碩德。足以致位廊廟。賁飾治教。而爲權貴所擠。終沉淪而歿。宅畔有孤松蒼鬱。取以爲號。榜其堂曰樂善。此可見其平生也。申氏。系出鵝州。有諱允濡。仕高麗。版圖判書。諱祐。有孝行。旋閩。官至按廉使。曾祖諱應奎。贈工曹參判。祖諱夢得。贈左承旨。考卽梧峯公諱之悌。妣貞夫人咸安趙氏。贈判書祉之女。公娶永川李氏。父參判民寅。祖觀察使光俊。淑人生於簪纓家。淑德懿行。有古女士之風。先公二歲而歿。葬于<sup>P</sup>同塋。子男一人。宣教郎漢老。女八人。柳重河，金時任，進士李朝衡，任世準，都爾高，權然，朴文約，縣監朴望之。其壻也。側室子漢傑，漢伯。宣教有四男。叔範，叔篋，叔筵，叔箎。三女適生員李之煜，柳聖時，李華。內外曾玄至八百餘人。多不能盡錄。公之曾孫上舍震龜。以李奉事光庭狀。請誌其墓。相一累辭不獲。謹按狀而掇其大者。序以銘之。銘曰。



克孝且廉。梧峯之嗣。雖墮不渝。孤松之翠。既豐其有。胡嗇其位。維身退野。維言扶紀。曾玄千百。寔天攸賜。崇丘有藏。毋敢傷毀。

察訪外裔校理洪彥忠。贊成丁應斗。右相姜士尚。領相李德馨。判書宋浚吉。最著。判書外孫文。即我仁顯王后。乙酉歲。公弟大護軍承富之後孫演。按節本道。治二石。一豎神道碑于洛城君墓。一為公墓。舊碑經亂傷缺。許之。今年秋。始得改豎。而諸孫恐事蹟遂泯沒。請相一采錄。得以考信於來後。不得終辭。謹記一二。以為表墟之文云爾。

墓誌

孤松申公墓誌銘 並叙

公諱弘望。字望久。號孤松。同副承旨。贈吏曹參判。梧

清臺先生文集卷十三

三

峯申公之子。參判公嘗為禮安守。因歲饑。活數千人。得異夢。生公。幼而神采炯絜。才氣超邁。見者稱其遠器。受庭訓甚謹。力學為文。滂沛有餘。丁卯中進士。戊寅。除康陵參奉。不赴。已卯。擢別科。初補太學館。李相國聖求。惜其才。薦翰院。見尼於富路。甲申。始除承政院注書。應對通敏。筆翰優贍。仁廟奇之。及由還。賜臘藥及扇。遺老母。蓋異數也。丙戌。陞典藉。即遷兵部。未數月。擢拜司諫院正言。俄遞授禮部。丁亥。又拜正言。為親養。出判完山府。府即參判公桐鄉也。奉板輿至任。榮養備盡。其為政。一循先蹟。境內大治。及歸。府民刻銘于先碑之

陰以頌德。壬辰。拜司憲府持平。有李時楙。素不廉。校官不謹於書。入言。喧藉。持平李溫諫。啓。旋校院駁以去。及時楙。為都承旨。陳疏自明。且引先賢為證。聞者憤惋。公將舉劾。同列畏時楙執。固止之。且曰。君朝夕且瀛選。言此必塞。公笑而不聽。遂獨啓。曰。時楙疏。有曰。不廉不謹。昔賢亦多校誣。所謂校誣者何賢。誣賢者何人。時楙重被臺彈。不杜門省誓。敢妄自引喻。侮辱先賢。請削任版。上不允。於是諫院駁罷如李溫。公即出城而還。未幾。竄碧潼。家人皆號泣。公不小動。怡然就寢。翌曉。辭家廟。行及至弘濟院。特命付處。兩司請還。上不以

清臺先生文集卷十三

四

許。公即改路。赴平海配所。未一月。赦還。丙申。除蔚山府律。已清簡。革祛弊。瘼民立碑。寓去思。已亥。除豐基守。先是。邑宰三人。連殺官。皆曰不祥。公言。吾不就官。無以解妖言。遂赴任。郡僻無事。以訓士興學為務。雷數歲。棄歸。行囊蕭然。惟紅梅一盆。癸卯。授關東幕。改授司藝。謝。恩而還。後。除宗簿正判。校等職。俱不赴。生庚子。歿。癸丑。享年七十四。訃聞。朝廷致賻如禮。某月日。葬于義城縣下川黑石里。已向之原。公天性篤孝。歲甲子。參判公捐館。公哀毀踰禮。三年不飲酒漿。登科以不及於先公在時。賀者至。輒出涕。及遣先夫人喪。年既衰。而



猶執喪如前。墓距家稍遠。而往省甚艱。寒暑不避。朝夕  
謁家廟。忌日齋沐。悲感終身。如一日。平居無惰慢氣。無  
疾言遽色。宏器碩德。足以致位。廊廟賁飾。治教而為權  
貴。所擠終沉淪而歿。宅畔有孤松蒼鬱。取以為號。楠其  
堂曰樂善。此可見其平生也。申氏系出鵝州。有諱允濡。  
仕高麗。殿圖判書。諱祐。有孝行。旋閭。官至按察使。曾  
祖諱應奎。贈工曹參判。祖諱夢得。贈左承旨。考即  
梧峯公諱之悌。妣貞夫人咸安趙氏。贈判書社之女。  
公娶永川李氏。父參判民興。祖觀。祭使光俊。淑人生於  
簪纓家。淑德懿行。有古女士之風。先公二歲而歿。葬于  
同塋。子男一人。宣教即漢老。女八人。柳重河金時任進  
士李朝衡任世准。都爾高權休林文約。縣監朴望之。其  
壻也。側室子漢傑。漢伯。宣教有四男。叔範。叔蓋。叔達。叔  
麓。三女適生負李之煜。柳聖時李華。內外曾玄至八百  
餘人。多不能盡錄。公之曾孫上舍震龜。以李奉事光庭  
狀。請誌其墓。相一累辭不獲。謹按狀而掇其大者。序以  
銘之。銘曰。  
克孝且廉。梧峯之嗣。雖躋不渝。孤松之翠。既豐其有。胡  
晉其位。維身退野。維言扶紀。曾玄千百。寔天攸賜。崇丘  
有藏。毋敢傷毀。

淸臺先生文集卷十三

五

## 하음선생문집(河陰先生文集)

## 형태서지

권수제	하음선생문집(河陰先生文集)
판심제	하음집(河陰集)
간종	목판본(木版本)
간행년	1835년 간행
권책	9권 5책
행자	10행 21자
규격	21.3×17.2(cm)
어미	上下二葉花紋魚尾
소장처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소장도서번호	D3B-2336
총간집수	한국문집총간 속 20

## 저자

성명	신증(申楫)
생년	1580년(선조 13)
몰년	1639년(인조 17)
자	여섭(汝涉)
호	하음(河陰)
본관	영해(寧海)
특기사항	정경세(鄭經世)의 문인. 이준(李俊), 조형도(趙亨道), 홍호(洪鎬) 등과 교류



행력

왕력		서기	간지	연호		연령	기사
선조	13	1580	경진	萬曆	8	1	5월 15일, 外家인 安東 松村里에서 태어나다.
선조	32	1599	기해	萬曆	27	20	高應陟, 朴愷 등과 交遊하다.
~	~	~	~	~	~	~	柳成龍을 찾아뵈다. ○ 栗村으로 鄭經世를 찾아가 執贄하고 玉成書堂에서 머물며 수업을 받다.
선조	37	1604	갑진	萬曆	32	25	4월, 周房山을 유람하다. ○ 5월, 李彦迪을 辨誣하는 일로 上京하다. ○ 宣祖가 儒生들을 위해 課題를 設行하여 13인을 선발하였는데, 그 안에 들다.
선조	38	1605	을사	萬曆	33	26	洪鎬, 金是柱, 鄭侏 등과 廬江書院에서 讀書하다.
선조	39	1606	병오	萬曆	34	27	10월, 文科에 합격하다.
선조	41	1608	무신	萬曆	36	29	三陟 教授가 되다.
광해 군	1	1609	기유	萬曆	37	30	正字가 되다.
광해 군	2	1610	경술	萬曆	38	31	著作이 되다.
광해 군	3	1611	신해	萬曆	39	32	정경세가 柳活 등의 誣陷을 받아 仕版에서 削去되자 상소를 지어 올리려고 하였으나, 정경세의 만류로 그만두다.
광해 군	4	1612	임자	萬曆	40	33	博士가 되다. ○ 겨울, 典籍이 되다.
광해 군	5	1613	계축	萬曆	41	34	永昌大君의 獄事가 일어나자 落鄕하여 咸寧의 栗里에 寓居하다.
광해 군	7	1615	을묘	萬曆	43	36	趙亨道, 權翊 등과 李埈을 모시고 紫霞洞을 유람하다.
광해 군	10	1618	무오	萬曆	46	39	이준을 모시고 招鶴臺를 유람하다.
광해 군	12	1620	경신	泰昌	1	41	8월, 모친상을 당하다. ○ 모친을 龍宮 河豊에 장사지내고 ‘河陰’이라 自號하다.
인조	1	1623	계해	天啓	3	44	求禮 縣監이 되다.
인조	2	1624	갑자	天啓	4	45	2월, 부인 흥씨의 상을 당하다.
인조	4	1626	병인	天啓	6	47	형조 좌랑이 되다. ○ 8월, 江原 都事가 되다.
인조	5	1627	정묘	天啓	7	48	1월, 胡亂의 소식을 듣고 原州營으로 달려가다. ○ 北關에 가서 張晩과 鄭忠信의 軍營에 軍糧을 조달하다. 鐵原에 가서 李景奭과 軍糧의 조달에 대해 상의하다. 伊川에 가서 흠어졌던 거주민을 安集시

							키다. ○ 5 월, 兼鹽鐵使 從事官으로서 嶺東을 순찰하다.
인조	6	1628	무진	崇禎	1	49	공조 정랑, 형조 정랑이 되다. ○ 柳孝立 逆獄의 推鞠에 참여한 공으로 寧社 原從功臣에 녹훈되다. ○ 4 월, 충청 도사가 되다. ○ 5 월, 동생 申柁의 상을 당하다.
인조	8	1630	경오	崇禎	3	51	務安 縣監이 되다.
인조	13	1635	을해	崇禎	8	56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다.
인조	14	1636	병자	崇禎	9	57	호란이 다시 발발하자 龍宮에서 舉義하다.
인조	15	1637	정축	崇禎	10	58	5 월, 漢城府 庶尹이 되었다가 곧 형조 정랑이 되다. ○ 7 월, 點馬를 위해 경상도에 다녀오다. ○ 10 월, 다시 한성부 서윤, 형조 정랑이 되다.
인조	16	1638	무인	崇禎	11	59	2 월, 司藝가 되다. ○ 7 월, 公州 牧使가 되었으나, 병으로 부임하지 않다.
인조	17	1639	기묘	崇禎	12	60	4 월, 司僕寺 正이 되다. 表裏, 廐馬와 「近思錄」 등을 하사받다. ○ 8 월, 密陽 府使가 되다. ○ 9 월 24 일, 부임하기 앞서 勤親하러 고향에 갔다가 갑자기卒하다. ○ 12 월, 龍宮의 夢美에 장사 지내다.
순조	25	1825	을유	道光	5	—	文集이 初刊되다.
헌종	1	1835	을미	道光	15	—	7 대손 申弘佐가 문집을 重刊하다.

### 편찬및간행

저자의 遺文으로는 遺稿를 비롯하여 燕覽, 公行錄, 雜述 등과 아들 申光夏가 지은 저자의 年譜가 남아 있었다. 이것들은 모두 신광하가 收拾하고 編次하여 도합 30 여 권으로 정리해 두었던 것인데, 그 후 喪亂을 겪으면서 태반이 散逸되었다. 1800 년경에 이르러 權徹과 申鼎周가 다시 校正과 편차를 하였다. 刊行을 염두에 두고 정리를 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간행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였다.

문집의 初刊은 1825 년에 이루어지는데, 저자의 후손들이 앞서 권창 등이 편찬한 유문을 가지고 柳晦文과 柳致明 父子의 교정을 받아 不分卷 1 冊으로 간행한 것이다. 이 초간본은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일부의 詩文만을 대상으로 삼아 간행되었는데, 현재 남아 있는 것이 매우 희귀한 것으로 보아 소량만을 간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초간본》 이 본은 현재 慶尙北道 漆谷郡의 李敦柱씨가 소장하고 있다.

그 후 저자의 유고가 다시 화재를 겪어 초간본에 수록되지 못하고 남아 있던 시문의 상당수가 소실되었고, 미간행으로 남아 있던 연보 또한 이때에 함께 유실되고 말았다. 1835 년에는 저자의 7 대손 柳弘佐가 초간본에 수록되지 못하고 남아 있던 시문과 초간본에 수록된 시문을 통합하여 再編하고, 輓詞, 祭文, 行狀, 墓碣銘 등을 附錄으로 편차하여 목판으로 9 卷의 문집을 간행하였다.《중간본》 본서의 저본 책 표지 안쪽에는 '松鶴書院印送'이라고 筆寫되어 있는데, 송학서원은 靑松에 있는 서원이고 저자의 근거지도 청송인 것인 점을 근거로 추정해 보면, 청송의 송학서원이 중간본의 간행 장소로서 가장 유력하다고 판단된다. 이 본은 현재 성균관대학교 존경각(D3B-2336)에 소장되어 있다.

본서의 저본은 1835년에 7대손 申弘佐가 木板으로 간행한 중간본으로 성균관대학교 존경각장본이다.  
跋(柳致明·申弘佐 撰) 등에 의함

## 구성과내용

본집은 9권 5책이다. 卷首에는 目錄이 수록되어 있다.

권1~3은 賦 2편, 詩 399題, 詞 3편이다. 부 2편 가운데 <貧賦>는 어느 선비와 摺紳先生 간의 貧窮과 富貴에 대한 問答을 통해 君子的 守身과 樂道, 出處에 대해 논한 글이고, <種松賦>는 소나무가 歲寒의 志操가 있음을 찬양하고, 자신의 뜰에 옮겨 심게 된 경위와 감회를 읊은 글이다. 시는 1598년 19세 때에 지은 것부터 졸한 해인 1639년에 지은 것까지가 연대순으로 수록되어 있다. 시를 주고받은 대표적인 인물로는 洪鎬, 全以性, 趙亨道, 李民成, 高用厚, 柳衫, 金世濂, 權濤 등이 있다. 권1은 1598년부터 1616년까지의 시이다. 맨 앞에 실려 있는 <贈別陳差官>은 1598년 4월 中國 南京 출신의 陳 差官 등 4인이 저자의 집에 와서 머물 때 지어 준 시로서, 진 차관의 原韻이 附記되어 있다. <越松途中>부터 <穿川>까지의 11제는 1608년 三陟 教授로 재직할 때에 지은 것이고, <叢竹>은 玉山 李瑀가 선물한 대나무의 貞苦한 節概를 노래한 시이다. 권2는 1618년부터 1627년까지의 시이다. 이 가운데 <題雲峯荒山大捷碑>부터 <罷官歸別崔汝凝>까지의 19제는 求禮 縣監으로 재직하면서 지은 것이고, <龍津偶吟> 이하는 關東錄으로서, 1626년 강원 도사로 부임한 이후부터 1627년 정묘호란을 겪고 난 후 兼鹽鐵使 從事官으로서 嶺東을 순찰할 때 지은 것이다. 권3은 1628년부터 1639년까지의 시이다. <將赴綿城留別申晉甫趙景行>부터 1635년 <寄徐善伯林伯圭兩秀才>까지의 시는 綿城錄으로서, 務安 縣監으로 재직할 때에 지은 것인데, 林堧에게 지어 준 시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詞 3편은 모두 洪鎬와 이별하며 지어 준 것이다.

권4는 疏 1편, 狀啓 3편, 呈文 2편, 狀 9편이다. 이 가운데 <擬愚伏先生伸冤疏>는 1611년 정경세가 柳活 등의 誣陷을 받아 仕版에서 削去되자 스승의 辨誣를 위해 지은 것이었으나, 정경세의 만류로 올리지는 못한 상소이다. <呈備邊司陳弊文>은 1622년에 靑松의 鄉民을 대신하여 지은 것으로 전쟁의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田賦와 軍役을 과도하게 부과하여 백성이 流亡하게 되고 侵徵까지 발생하게 된 폐단을 시정해 주기를 청한 글이다.

권5는 書 83편, 序 1편이다. 書는 鄭經世, 張顯光, 崔暉, 全湜, 權泰一, 李貴, 趙纘韓, 동생 申柁·申櫟, 조카 申光詰, 아들 申光夏 등에게 보낸 편지이다. 정경세에게 보낸 편지는 喪禮에 대한 질문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1624년 권태일에게 보낸 편지는 구레 현감으로서 李适의 亂을 토벌하기 위해 兵士를 調發하여 전주 부윤으로 있던 권태일에게 보내면서 쓴 것이다. 1633년 아들 신광하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길이 장마로 막히지 않을까 염려하고 항상 물을 조심하라고 당부하는 내용으로서,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는 심정이 잘 드러난 글이다. <望雲亭詩序>는 咸安趙氏의 정자인 望雲亭에서 趙亨道 형제들과 시를 짓고 그 詩帖에 쓴 서문이다.

권6~7은 箋 2편, 上樑文 2편, 頌 1편, 雜著 8편, 錄 3편이다. <平倭頌>은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도와 준 명나라 황제의 은덕과 大義를 지켜 外敵을 막아낸 宣祖의 공덕을 찬양하는 내용이고, <記劉海事>는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명나라 提督 劉綎의 養子가 되어 중국에 들어간 劉海라는 사람의 일화를 기록한 글이다. <遊周房山錄>은 1604년 4월 周房山 즉 지금의 周王山을 유람하고 지은 기행문이고, <關東錄>은 1626년 8월부터 12월까지 강원 도사로 있을 때의 기록인 兼掌選錄, 1627년 1월부터 4월까지 關北 등지에서 軍糧을 조달할 때의 기록인 管餉錄, 1627년 5월에 兼鹽鐵使 從事官으로서 嶺東을 순찰할 때의 기록인 兼鹽鐵使從事官錄, 같은해 6월부터 9월까지 金剛山을 유람한 기록인 遊金剛錄으로 되어 있다.

권8은 祭文 20편, 墓誌 6편, 行狀 1편이다. 제문은 柳成龍, 鄭宗溟, 韓浚謙, 鄭經世, 鄭介淸, 張顯光 등에 대한 것이다. 묘지는 先祖 申演, 先妣 申慶男妻 權氏, 亡室 洪氏, 亡弟 申柁 등에 대한 것이고, 행장은 金蕃에 대한 것이다.

권9는 附錄이다. 全湜, 李景奭, 金榮祖 등이 지은 輓詞 25편, 鄭榮邦, 洪鎬, 申適道 등이 지은 祭文 10편, 鄭宗魯가 지은 行狀略, 李野淳이 지은 行狀, 韓致應이 지은 墓碣銘 등이 수록되어 있다.

卷尾에는 柳致明과 7대손 申弘佐가 지은 발이 있는데, 모두 1835년에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 신증(申楫)

### 정의

조선시대 의병장, 사복시정 등을 역임한 문신·학자.

### 정의

본관은 영해(寧海). 자는 여섭(汝涉), 호는 하음(河陰). 경상도 상주 출신. 신종위(申從渭)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신연(申演)이고, 아버지는 주부(主簿) 신경남(申慶男)이다. 정경세(鄭經世)의 문인이다.

### 정의

1606년(선조 39)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 문한직인 전적(典籍)을 지냈다. 광해군이 즉위한 뒤, 대북정권이 패륜행위를 거듭하자 벼슬을 버리고 명승지를 찾아 유랑하였다. 1627년(인조 5) 정묘호란 때는 강원도도사로 종군하였으며, 1636년 병자호란 때는 의병장이 되었고, 사복시정(司僕寺正)에 이르렀다.

효성이 지극하고 지조가 강하였다. 성리학을 비롯하여 의약·복서(卜筮)·지리·천문 등에 통달하였으며, 스승 정경세와 학문과 의례에 대하여 많은 문목(問目)과 토론을 하였다. 상례(喪禮)와 복제(服制)에 관한 문목이 『우복집(愚伏集)』에 수록되어 있다.

卷之一 / 詩

사신오봉장 지제 혜선(謝申梧峯丈 之悌 惠扇)

14世 지제(之悌) 父 : 몽득(夢得) 祖父 : 응규 (應奎)

귀파(龜派)오봉공파(梧峰公派)

湘玉千竿冷。巴牋萬杵光。覆翻看動靜。舒卷任行藏。畏日方焦土。清風忽滿堂。遙知使君意。寄與共炎涼。

誰知者。窮途志果哉。春深蜀魄怨。江暮楚魂哀。舊識負難見。新篇病未裁。莫令朋友信。專美古陳雷。

奉酬蒼石丈贈別韻

半世閒居寂寞濱。藥鑿茶竈養清真。山中舊迹依然在。海內新知幾箇親。函丈自多承玉露。濡毫還媿和陽春。別來猶戀方塘石。安得重尋拜下塵。

輓吳竹牖溪

憶得年前重臥淮。當時遺愛舊民懷。南躔忽報星收彩。東郡誰教哭滿街。福祿已傳雙玉樹。休祥應驗一庭槐。桐鄉路遠遠臨穴。數字哀辭強自排。

河陰集卷之一

三十一

謝申梧峯丈之悌惠扇

湘玉千竿冷。巴牋萬杵光。覆翻看動靜。舒卷任行藏。畏日方焦土。清風忽滿堂。遙知使君意。寄與共炎涼。

宿玉成書堂有感

舊迹居然二十秋。此來人事白渾頭。存亡有數偏多感。離合無常易作愁。水碓響來清夢散。山鳩啼罷濕雲收。升堂更欲操由瑟。却媿吾人最下流。  
其時同榻。如李信甫。李德茂。已仙。金慎伯。金考精。皆久別故云。

次崔命豪病中吟示韻

看君詩律似陰何。浩浩詞源萬頃波。觸處已能通事物。

河陰集 卷一

卷之二 / 詩

김화객관. 증신증사진보 열도. 金化客館。贈申從事晉甫 悅道

13世 열도(悅道) 父 : 흠(忸) 祖父 : 원록 (元祿) 음파(邑派)난재공파(聃齋公派)

極目兵塵暗不開。衝冠華髮壯心摧。銅盤已許金繪費。尺劍誰圖社稷恢。男子須成天下事。故人今自日邊來。何當共挽銀河水。看取神都翠蓋回。

邑中一蕭條。居民皆避亂。舉目風景殊。悄然坐空館。 江都盟	消息來。行在銅盤已定從。吾其左社矣。從此失朝宗。 新溪兵潰歎	借問大將誰。纔見小敵怯。可憐關西伯。冤魂知飲泣。 聞賊退	絕島回。天步臨津偃甲兵。三春調度事。今日竟何成。 金化客館。贈申從事晉甫 悅道。	極目兵塵暗不開。衝冠華髮壯心摧。銅盤已許金繪費。 尺劍誰圖社稷恢。男子須成天下事。故人今自日邊來。何當共挽銀河水。看取神都翠蓋回。	和洪汝時韻 北關歸客又南回。亂後無緣一笑開。猶有風流賢太守。 夜光時復暗投來。	元帥鐵原府。揔戎南漢城。誰知龍骨將。有此大功名。 次朴楊根 宗賢 號韻。	擲地皆瓊句。金聲聽戛然。沈吟知有味。倦客欲無眠。會 合嗟何晚。閒忙較孰賢。明朝隔關嶺。離恨爲君偏。 再酬林一丈
---------------------------------	-----------------------------------	---------------------------------	---------------------------------------------	----------------------------------------------------------------------	-----------------------------------------------	-----------------------------------------	---------------------------------------------------------------



卷之九 / 附錄

만사[군수신홍망] 輓詞[郡守申弘望]

15世 홍망(弘望) 父 : 지제(之悌) 祖父 : 몽득 (夢得)

귀파(龜派)오봉공파(梧峰公派)

南州自昔儒林盛。醇厚如公最老成。佇見盤根須利器。驚聞阜蓋變丹旌。風塵生意人間少。詩酒名流地下傾。別有親知長慟處。倚門黃髮淚交橫。

<p>逢迎海縣月。留醉錦城春。忘形卽肝膽。膠漆無罅磷。 浮生無定端。聚散跡已陳。殷勤喪亂後。相訪來何頻。 嗟吾若孤露。羨君高堂。雄藩出自蓋。專城志願申。 那知畫錦行。丹旌回征輪。行路亦嗚咽。忍言鶴髮親。 家聲寄玉樹。餘慶尚可新。在世吾幾時。衰謝病日臻。 天長阻一哭。命駕慙古人。</p>	<p>又 進士李身圭 意傾心豁色敷腴。見知爲大丈夫。立雪初年聞至 道。擲風萬里騁長衢。並州方佇來迎馬。葉縣還驚去 化鳧。惟有文章傳世上。使人吟咏重嗚呼。</p>	<p>又 都事南碩 斗北聲名振。圖南意氣雄。天南曾出馬。湖右舊馴鴻。 督府銜新重。齋間望已空。斜陽一掬淚。京舍數旬同。</p>	<p>又 郡守申弘望 南州自昔儒林盛。醇厚如公最老成。佇見盤根須利 器。驚聞阜蓋變丹旌。風塵生意人間少。詩酒名流地 下傾。別有親知長慟處。倚門黃髮淚交橫。</p>	<p>又 別檢李德圭 山頽抱餘慟。玉立覩孤標。遂學傳道德。清才佐盛朝。 青鳥纔稅駕。白鶴遽還遼。江左耆英盡。嗚呼此道消。</p>
---------------------------------------------------------------------------------------------------------------------------------------------------------------------	--------------------------------------------------------------------------------------------------	-----------------------------------------------------------------------------	---------------------------------------------------------------------------------------------------	------------------------------------------------------------------------------

卷之九 / 附錄

제문[참봉신적도] 祭文[參奉申適道]

13世 적도(適道) 父 : 흠(伋)      祖父 : 원록 (元祿)      읍파(邑派)호계공파(虎溪公派)

天之生公。若有意於斯世。天之奪公。又何速之至此。才不時展。位不滿德。邦其殄瘁。民亦無祿。時耶命耶。天不可謀。如我疎愚。志契斷金。屢枉阜蓋。幾年僣切。今其已矣。儀形永隔。病未執紼。情義俱闕。單杯隻雞。聊奠路左。不亡者存。庶幾顧我。

<p>死生窮達。孰主張是。追惟往今。淚下如瀉。嗟嗟兄乎。尚何言哉。冀諒深情。庶盡一杯。</p>	<p>又</p>	<p>參奉申適道</p>	<p>天之生公。若有意於斯世。天之奪公。又何速之至此。才不時展。位不滿德。邦其殄瘁。民亦無祿。時耶命耶。天不可謀。如我疎愚。志契斷金。屢枉阜蓋。幾年僣切。今其已矣。儀形永隔。病未執紼。情義俱闕。單杯隻雞。聊奠路左。不亡者存。庶幾顧我。</p>	<p>又</p>	<p>參奉李煥</p>	<p>惟公與我四十年舊。金蘭契重。瓜葛情厚。升沈異路。</p>	<p>河陰集卷之九</p>	<p>八</p>	<p>聚散無常。及至丙子。國事蒼黃。奮義膽。公奮登壇。運筆紹餉。幕賓才難。謂公勞。我謂公賢。雄藩佩符。實為榮養。孰謂半途。遽傳屬纊。青山麓。公所圖居。今為真宅。萬事嗚呼。分山舊約。即此歸虛。顧瞻悲涼。我懷何如。</p>	<p>又</p>	<p>正字金好哲</p>	<p>惟靈天資寬厚。稟氣洵美。存心無競。視優不媿。負笈門牆。所學何事。見善而從。擇言而發。位登太僕。名著邦國。窺管十年。髮鬢其心。平生友愛。半世書淫。嗟嗟今日。邈矣難尋。青城之南。夢村之陽。余懷之悲。山高</p>
-------------------------------------------------	----------	--------------	---------------------------------------------------------------------------------------------------------------------------	----------	-------------	---------------------------------	---------------	----------	---------------------------------------------------------------------------------------------------------------	----------	--------------	------------------------------------------------------------------------------------------------------------

## 학교선생문집(鶴臯先生文集)

### 형태서지

권수제	학교선생문집(鶴臯先生文集)
판심제	학교선생문집(鶴臯先生文集)
간종	목판본(木版本)
간행년	간행 연도 미상(19 세기 중반 이후 간행)
권책	11 권 6 책
행자	10 행 20 자
규격	20.7×17.3(cm)
어미	上下二葉花紋魚尾
소장처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소장도서번호	D3B-1124
총간집수	한국문집총간 속 65

### 저자

성명	김이만(金履萬)
생년	1683 년(숙종 9)
몰년	1758 년(영조 34)
자	중수(仲綬)
호	학교(鶴臯), 동애(東厓)
본관	예안(禮安)
특기사항	오상렴(吳尙濂), 이서주(李瑞胄), 이익(李瀾), 박사휴(朴師休) 등과 교류



행력

왕력		서기	간지	연호		연령	기사
숙종	9	1683	계해	康熙	22	1	6월 3일, 堤川 檀谷에서 태어나다.
숙종	17	1691	신미	康熙	30	9	9월, 부친상을 당하다.
숙종	30	1704	갑신	康熙	43	22	澤南 吳尙濂과 함께 果川 청계산 부근에 퇴거해 있던 松谷 李瑞雨를 찾아가 수업하다.
숙종	39	1713	계사	康熙	52	31	가을, 사마시에 합격하고, 성균관에 입학하다. ○ 大科에 합격하다.
숙종	40	1714	갑오	康熙	53	32	3월, 가주서가 되다.
숙종	-	~	~	康熙	-	~	부정자, 박사가 되고, 太常寺에 선발되다.
숙종	43	1717	정유	康熙	56	35	2월, 승문원 저작이 되다. ○ 4월, 가주서가 되다. ○ 5월, 봉상시 직장이 되다.
숙종	44	1718	무술	康熙	57	36	윤 8월, 전적이 되다. ○ 12월, 감찰이 되다.
숙종	45	1719	기해	康熙	58	37	1월, 병조 좌랑, 겸춘추가 되다. ○ 2월, 영접도감 낭청이 되다. ○ 4월, 기사관으로서 不粧弓 1張을 하사 받다. ○ 9월, 모친상을 당하다.
경종	4	1724	갑진	雍正	2	42	3월, 평안 도사가 되다. ○ 4월, 겸춘추가 되다.
영조	2	1726	병오	雍正	4	44	5월, 병조 좌랑이 되다. ○ 7월, 함경 도사가 되다.
영조	3	1727	정미	雍正	5	45	8월, 공조 좌랑이 되다. ○ 10월, 병조 좌랑이 되다. ○ 11월, 務安 縣監이 되다.
영조	6	1730	경술	雍正	8	48	임기를 마치고 귀향하다.
영조	13	1737	정사	乾隆	2	55	윤 9월, 병조 좌랑이 되다. ○ 10월, 병조 정랑이 되다.
영조	14	1738	무오	乾隆	3	56	4월, 추고 경차관이 되다. ○ 5월, 겸춘추가 되다.
영조	16	1740	경신	乾隆	5	58	2월, 사예가 되다. ○ 3월, 梁山 郡守가 되다.
영조	21	1745	을축	乾隆	10	63	5월, 장령이 되다. ○ 9월, 종부시 정, 정언이 되다. ○ 10월, 부사과, 장악원 정, 정언이 되다.
영조	22	1746	병인	乾隆	11	64	1월, 종부시 정이 되다. ○ 2월, 瑞山 郡守가 되다.
영조	23	1747	정묘	乾隆	12	65	파직되어 귀향하다. ○ 그동안 지은 詩를 初, 中, 晩稿 5 권으로 自編하다.
영조	25	1749	기사	乾隆	14	67	1월, 부사과가 되다. ○ 12월, 부인상을 당하다.
영조	28	1752	임신	乾隆	17	70	12월, 집의가 되다.
영조	29	1753	계유	乾隆	18	71	1월, 사간, 부호군이 되다. ○ 2월, 집의가 되다. ○ 4월, 군자감 정이 되다. ○ 9월, 사간이 되다.
영조	30	1754	갑술	乾隆	19	72	11월, 집의가 되다.

영조	31	1755	을해	乾隆	20	73	3 월, 집의가 되다.
영조	32	1756	병자	乾隆	21	74	1 월, 통정대부에 오르고, 첨지중추부사가 되다.
영조	34	1758	무인	乾隆	23	76	自編 詩稿를 완성하다. ○ 2 월 9 일, 졸하다. ○ 4 월, 檀谷에 장사 지내다.

## 편찬및간행

저자는 燕超齋 吳尙濂, 義湖 李瑞胄 등과 詩社를 결성하여 詩作 활동을 활발히 하였고 평소 산수를 좋아하여 평생 유람한 곳이 매우 많았는데 이를 '山史'로 엮기도 하였다. 중년 이후로 특히 詩律을 짓는 데 힘써 평생 저술한 시가 만여 편이 넘어 당시 사람들이 송나라 시인 陸游의 「劍南詩稿」에 비의하기도 하였다. 저자는 1747 년에 평생 지은 시를 初稿, 中稿, 晩稿의 세 시기로 나누어 5 권 분량으로 自編하였으며, 1752 년에 口述한 <家訓>에서는 후손 중에 간행할 여력이 있다면 만고 이후에 지어진 시는 續稿로 만들되 정밀하게 刪定하여 중고 이전의 시는 초고로, 만고는 중고로, 속고 이하는 만고로 再編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후 76 세 때인 1758 년에 자신의 시를 다시 抄擇하여 초고에서는 10 분의 1 만 남기고, 중고에서는 10 분의 2, 3 만 남기고, 만고에서는 10 분의 6, 7 만 남긴 채 산삭하고 書, 疏, 雜著까지 수습 정리하였다.

현전하는 저자의 문집은 11 권 6 책의 목판본으로, 序跋이나 刊記 등이 없어 간행 경위가 불분명하다. 저자의 아들 金相錫이 星湖 李瀾에게 묘갈명을 받은 이래, 4 대손 金永猷가 부친 金璣吉의 유지를 이어 所庵 李秉遠(1774~1840)에게 행장을 받아 유적을 정리하였는데, 문집의 부록에 행장이 실린 것으로 보아 19 세기 중반 이후에 저자의 자편고를 바탕으로 재편하여 간행한 것으로 보인다. 《초간본》이 본은 현재 성균관대학교 존경각(D3B-1124), 국립중앙도서관(古 3648-文 10-803) 등에 소장되어 있다.

그 밖에 10 권 10 책의 필사본 「鶴臯漫言」이 규장각(古 3428-635)에 소장되어 있는데 1~9 책은 모두 시이고 10 책은 산문이다. 1 책의 표제는 覆甌이며 329 수가 실려 있고, 2 책은 湖社唱酬錄으로 권두에 저자가 지은 <湖社唱酬錄序>가 있고, 15 제의 시와 이에 대한 지인들의 화답시가 실려 있다. 3 책의 표제는 鶴臯漫言 권 2 로 300 여 수가 실려 있다. 4 책의 표제는 靑田雜聚 권 3 이다. 5, 6 책은 靑田三稿 권 4 와 권 5 로 모두 晩稿라고 되어 있다. 7 책의 표제는 鶴臯漫言 권 6 으로 327 수가 실려 있다. 8 책의 표제는 詩稿 권 7 로 283 수가 실려 있다. 9 책의 표제는 鶴臯漫言 권 8 로, 지방관으로서 關西, 關北, 湖南 등지를 유력하며 지은 시가 대부분이다. 10 책의 표제는 談腴로 평생 유력한 산수에 대한 기록인 '山史'가 실려 있다. 이 필사본은 각 책의 권두에 金履萬印, 仲綏, 東厓 등 저자의 성명과 자호가 刊印되어 있고, 3 책과 8 책의 끝에는 '龍鳴齋'라는 印이 있는 것으로 보아 手澤稿本으로 보인다.

본서의 저본은 19 세기 중반 이후에 목판으로 간행된 초간본으로 성균관대학교 존경각장본이다. 본 영인 저본 중 권 1 의 제 7 판은 卷次가 누락되어 있고, 권 11 의 제 32 판은 권차가 '十'으로 오기되어 있으며, 권 5 의 제 20 판은 낙장이므로 同一本인 국립중앙도서관장본으로 보충하였다.

行狀(李秉遠 撰), 墓碣銘(李瀾 撰), 鶴臯漫言(筆寫本), 本集內容 등에 의함

## 구성과내용

본집은 11 권 6 책으로 되어 있고, 권두에 목록이 있다.

권 1~6 은 賦(2), 詩(1,103 題)이다. 賦의 <林湖賦>는 제천 북쪽에 있는 뛰어난 풍광을 사랑하는 林湖에 대해 서울에서 온 客과 임호 주인의 문답 형식을 빌려 자세히 묘사하였다. <閑居賦>는 潘岳의 <한거부>를 읽고 감흥이 일어나 차운하여 지은 것이다. 시는 저자가 생전에 自編한 것인데 初稿, 中稿, 晚稿의 세 시기로 나누어 시체별 저작 연대순으로 편차하였다. 한가롭게 고향 堤川에 퇴거해 있으면서 지은 閑居詩와 각지를 유력하며 지은 記行詩, 중국 史書에 나오는 인물에 대한 詠史詩 등이 많은 편이다. 蘇軾, 袁宏道, 杜甫의 시, 陳與義의 「簡齋集」 등에서 차운하여 지은 것이 다수 있다. 權斗紀, 申滌, 洪萬朝, 李德秀, 權斗經, 蔡獻徵, 朴師休, 金鎮商, 鄭瑾, 李浹, 權斗緯, 李濼, 李光庭, 鄭重器 등에 대한 만시가 있다. 권 1 은 초고에 오언고시 13 제, 칠언고시 4 제, 오언절구(附六言絶) 5 제, 칠언절구 9 제, 오언율시(附排律) 20 제, 칠언율시(附排律) 35 제, 중고에 오언고시 13 제, 칠언고시 7 제, 오언절구(부육언절) 5 제, 칠언절구 34 제, 오언율시(부배율) 36 제가 실려 있고, 권 2 는 중고에 칠언율시 63 제, 만고에 오언고시(부육언) 86 제가 실려 있고, 권 3 은 만고로 칠언고시 33 제, 오언절구(부육언절) 14 제, 칠언절구 76 제가 실려 있고, 권 4 는 만고로 칠언절구 81 제, 오언율시(부배율) 131 제가 실려 있고, 권 5 는 만고로 오언율시 105 제, 칠언율시 97 제가 실려 있고, 권 6 은 만고로 칠언율시 236 제가 실려 있고, 권 끝에 詩稿에 대한 저자의 後記가 있다. 중고 칠언율시의 <題過仙閣>은 富城(瑞山) 太守를 지낸 崔致遠의 친필 편액이 있는 과선각에서 지은 것이다. 만고 칠언고시의 <放熊行>은 효종 때 궁궐에서 기르던 곰을 죽이자고 하자 당시 세자였던 현종이 사람을 해친 일이 없는 곰을 깊은 산에 풀어 주도록 요청했다는 野史를 듣고 盛德을 칭송하여 지은 것이다. 만고 오언율시의 <五月十日雨>는 太宗이 가뭄을 걱정하다 5월 10일에 승하하자 그 날 비가 내렸다고 전하는데, 그 이후로는 해마다 이날이 되면 비가 내리기 때문에 '太宗雨'라고도 한다는 설명이 붙어 있다.

권 7 은 疏(10), 箋(5), 書(4)이다. 소의 <丹溪書院講額疏>는 선조 金淡을 享祀한 順興의 단계서원에 대한 사액을 청한 것으로 사림을 대신하여 지은 것이고, 나머지는 장령, 정언, 사간, 집의 등을 사직하는 상소이다. 서는 權斗經, 權萬, 金聖鐸에게 답하거나 보낸 것이고, <與族姪時伯>은 족질 金行秋에게 보낸 것으로 족보를 重刊하는 일에 대해서 의논한 내용이다.

권 8 은 序(13), 記·跋(9), 祝文·祭文(18)이다. 서에는 1739년 왕이 친경한 일을 병풍으로 만든 것에 대해 기록한 <親耕契屏序>가 있고, 權斗經이 지은 「退陶先生言行通錄」을 산절하여 만든 「退陶先生言行遺編」에 대한 것, 申之樞의 「梧峯集」 別集, 李遂大의 「松厓集」, 吳尙濂의 「燕超齋集」, 洪大龜의 「東菴遺稿」 등에 대한 것이 있다. 기에는 鶴鳴軒, 凌虛臺, 저자의 거처인 鶴阜草堂, 부친의 遺愛碑를 세운 永思閣, 梁山 鄉校, 樂拙齋 등에 대한 것이 있고, 명나라 袁宏道の 「袁中郎集」에 대한 題後가 있다. 축문은 破愚 李有仁의 봉안문, 토지신에 대한 것, 林湖, 社稷, 瑞山の 抗口尾에 대한 기우제문 등이고, 제문은 李瑞雨, 金鳳至, 吳始績, 吳尙涵, 李瑞胄, 鄭弘祖 등에 대한 것이다.

권 9 는 雜著(1)로 <山史>이다. 산수 유람을 좋아한 저자가 天下名山記를 읽던 중 영동 및 단양 유람에 대한 기록만 있고 나머지 다른 지역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을 깨닫고는 과거 자신이 유람했던 곳에 대한 기억을 되짚어 기록으로 남기면서 '산사'라 이름한 것이다. 三角山, 曹溪, 開城, 浮碧樓, 統軍亭, 白雲洞書院, 浮石, 宣城, 淸凉山, 安東의 河回, 咸興의 樂民樓, 擊毬亭, 知樂亭, 北城樓, 歸州寺, 穿島, 城津, 七寶山, 長白山, 彰烈祠, 朱溫堡, 鍾城의 受降樓, 安邊의 飄飄然亭, 釋王寺, 小白山, 酒泉, 雉嶽山, 上院寺, 五臺山, 月出山 道岬寺, 光山の 風詠亭, 映碧亭, 無等山, 榮山江, 僧達山, 箕城, 月嶽山, 淸風의 寒碧樓, 沃川의 喚仙樓, 永春, 堤川의 義林池 등 고향을 포함 머나먼 북에서 남쪽에 이르는 수많은 지역을 유람했던 추억을 회상하여 지은 것이다.

권 10 은 雜著(10), 碑碣表(5)이다. 잡저 중 <東遊錄>은 1716년 종숙, 재종형 鄭瑾과 함께 강원도 溟州(강릉)에 재임 중이던 외숙부를 방문하여 21일 동안 강릉 일대 및 眞珠府(삼척)의 竹西樓 등을 유람하고 지은 기행록이고, <遊丹陽山水錄>은 1731년 사위 許倬과 함께 단양 지역을 유람하고 남긴 기록이다.



〈扈聖翁傳〉은 金擎日, 趙善哲 등과 함께 平壤의 세 장사로 불리었고, 병자호란이 끝난 1637년 昭顯世子와 鳳林大君이 瀋陽에 볼모로 갈 때 수행하여 호위한 8장사의 한 사람인 武臣 金志雄에 대한 전기이다. 〈記異〉는 번개와 비를 내리게 하는 '強鐵'이란 짐승이 지나간 곳에는 피해가 심하다는 얘기를 듣고, 양산군수 시절 이런 일을 직접 목격한 뒤에 기이하게 생각되어 기록한 것이다. 〈家訓〉은 1752년에 長孫 金維로 하여금 써서 보관하게 한 자손들에게 남긴 유훈으로, 문집의 간행을 부탁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비갈표는 鄭世規의 묘비명, 鄭瑾, 형 金亨萬, 李輝謙의 妻 禮安金氏의 묘갈명, 처 同福吳氏의 묘표이다. 권 11은 行狀(4), 附錄이다. 행장은 鄭奎祥, 부친 金海一, 伯父 金南一, 仲父 金兌一에 대한 것이고, 부록에는 李秉遠이 지은 행장, 李瀾이 지은 묘갈명, 이익, 申宗岳, 朴孫慶, 鄭弘儒가 지은 만사가 실려 있다.

## 김이만(金履萬)

### 정의

조선후기 집의, 통정대부, 첨지중추부사 등을 역임한 문신.

### 개설

본관은 예안(禮安). 자는 중수(仲綏), 호는 학고(鶴臯). 金得善(金得善)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증 호조참판 金단(金端)이고, 아버지는 경주부윤 金해일(金海一)이며, 어머니는 진사 이은진(李殷鎭)의 딸이다.

### 생애 및 활동사항

1713년(숙종 39) 사마시에 합격한 뒤, 이어 이해에 증광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정자(承文院正字)가 되었다. 1718년 전적(典籍)을 거쳐, 이듬해 병조좌랑이 되었다. 그 뒤 1727년 무안현감이 되고, 1737년에는 병조에 들어가 군사에 관한 직무를 4년동안이나 맡았다.

이어 1740년에는 양산군수가 되었는데, 이때 수재를 막기 위하여 자기의 녹봉으로 제방을 쌓았다. 이에 백성들이 그 은혜를 칭송하여 비를 세우고, 이름을 '청전제(靑田堤)'라고 불렀다. 1745년 장령(掌令)으로서 민생안정의 저해 요인으로 풍속의 사치스러움과 수령·감사의 탐오함을 들어, 현명한 지방관을 선임하도록 주장하여 영조의 치하를 받았다.

그 뒤 정언(正言)을 거쳐 사간·집의(執義) 등 청요직을 지내며, [시정\(時政\)](#)<sup>주 01)</sup>의 득실을 주청하는 소를 자주 올렸다. 1753년 사간에 있을 때에 수령의 탐학을 막아 흉년에 백성이 유리되는 일이 없도록 주장하였다. 1756년 국가에서 노인을 우대하는 정책에 따라, 통정대부에 올랐고 이어 첨지중추부사에 이르렀다.

卷之八 / 序

오봉신공별집서 梧峯申公別集序

14世 지제(之悌) 父 : 몽득(夢得) 祖父 : 응규 (應奎)

귀파(龜派)오봉공파(梧峰公派)

不佞雅聞梧峯先生之風。慕悅之無窮。而世相後地 P 相遠。未及親炙之是恨。辛酉夏。適有嶠南之役。迂轡訪公之舊庄。徘徊顧眄。飲其遺馥。公之玄孫上舍震龜氏。以書一帙授不佞而言曰。此乃吾先祖遺集也。業已付剞劂氏。顧詩文之散逸者。近頗追拾而別錄。且草成年譜一通。將欲繼刊焉。子其訂正而去就之。以一語相斯役可乎。不佞辭不獲。遂敬受焉。歸而卒業。典雅鬯適。令人肅焉斂衽。有德者必有言。其徵也夫。觀其追拾詩文。皆可以傳於後。而貴精不貴多。上舍亦云。遂不揆僭妄。抄選若而首。年譜亦瞻核得記事之體。略加刪節而歸之。乃若公行誼之卓。出處之 P 正。詞翰之華。則紫巖之狀。鶴沙之碑及李天祥，權台仲之序若跋盡之矣。不佞又何贅。

梧峯申公別集序	不佞雅聞梧峯先生之風。慕悅之無窮。而世相後地	鶴阜先生文集卷六	相遠。未及親炙之是恨。辛酉夏。適有嶠南之役。迂轡	訪公之舊庄。徘徊顧眄。飲其遺馥。公之玄孫上舍震	龜氏。以書一帙授不佞而言曰。此乃吾先祖遺集也。	業已付剞劂氏。顧詩文之散逸者。近頗追拾而別錄。	且草成年譜一通。將欲繼刊焉。子其訂正而去就之。	以一語相斯役可乎。不佞辭不獲。遂敬受焉。歸而卒	業典雅鬯適。令人肅焉斂衽。有德者必有言。其徵也	夫觀其追拾詩文。皆可以傳於後。而貴精不貴多。上	舍亦云。遂不揆僭妄。抄選若而首。年譜亦瞻核得記	事之體。略加刪節而歸之。乃若公行誼之卓。出處之	正。詞翰之華。則紫巖之狀。鶴沙之碑及李天祥。權台	仲之序若跋盡之矣。不佞又何贅。	李松厓遂大遺集序	我東之詩。昉于羅暢于麗。而大盛于 國朝。作者相	踵。家驥人壁。決決乎東海之風也。逮至近世。瀾瀾日	以下。寢不如中古之盛。而間有英才雋識。卓然自闢
---------	------------------------	----------	--------------------------	-------------------------	-------------------------	-------------------------	-------------------------	-------------------------	-------------------------	-------------------------	-------------------------	-------------------------	--------------------------	-----------------	----------	-------------------------	--------------------------	-------------------------

## 학사선생집(鶴沙先生集)

### 형태서지

권수제	학사선생집(鶴沙先生集)
판심제	鶴沙先生集
간종	목판본(木版本)
간행년	1776年頃刊
권책	原集 9권, 外集 1권, 世系圖, 年譜, 附錄 합 6책
행자	10행 22자
규격	23×16.5(cm)
어미	上下二葉花紋魚尾
소장처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도서번호	晚松 D1-A1927
총간집수	한국문집총간 91

### 저자

성명	김응조(金應祖)
생년	1587년(선조 20)
몰년	1667년(현종 8)
자	효징(孝徵)
호	학사(鶴沙), 아헌(啞軒)
본관	풍산(豊山)
특기사항	유성룡(柳成龍), 장현광(張顯光), 정경세(鄭經世)의 문인



행력

왕력		서기	간지	연호		연령	기사
선조	20	1587	정해	萬曆	15	1	12 월 26 일, 榮川 奉香里 집에서 태어나다.
선조	29	1596	병신	萬曆	24	10	형제들과 함께 權虎臣, 權斗文에게 나아가 배우다.
선조	35	1602	임인	萬曆	30	16	3 월, 부친상을 당하다.
선조	37	1604	갑진	萬曆	32	18	小白山에서 독서하다. ○ 겨울, 鶴峯 金誠一의 孫女 義城金氏와 혼인하다.
선조	39	1606	병오	萬曆	34	20	형 金延祖와 함께 西厓先生을 배알하다. 이듬해 선생을 뜻하다.
광해군	2	1610	경술	萬曆	38	24	陶山의 尙德祠를 展謁하고, 서원에서 독서하다.
광해군	4	1612	임자	萬曆	40	26	葛山으로 移居하다. 三虛堂을 짓다.
광해군	5	1613	계축	萬曆	41	27	가을, 慶尙左道 監試와 生員試에 합격하다. ○ 10 월, 형 金延祖를 곡하다. 이후 旅軒 張顯光에게 수업하다.
인조	1	1623	계해	天啓	3	37	5 월, 謁聖試에 丙科로 합격하다. ○ 승문원 부정자, 정자를 지내다. ○ 愚伏 鄭經世를 배알하다.
인조	2	1624	갑자	天啓	4	38	4 월, 주서 겸 춘추관기사관이 되다.
인조	3	1625	을축	天啓	5	39	10 월, 병조 정랑이 되다.
인조	4	1626	병인	天啓	6	40	2 월, 모친상을 당하다.
인조	6	1628	무진	崇禎	1	42	6 월, 병조 정랑이 되다.
인조	9	1631	신미	崇禎	4	45	2 월, 興德 縣監이 되다.
인조	10	1632	임신	崇禎	5	46	1 월, 관직을 버리고 돌아오다.
인조	11	1633	계유	崇禎	6	47	6 월, 병조 정랑이 되다. ○ 鄭經世를 곡하다. ○ 7 월, 忠淸道 京試官이 되다. ○ 9 월, 善山 府使가 되다.
인조	12	1634	갑술	崇禎	7	48	관직을 버리고 돌아오다. 南厓精舍와 淸香池를 만들다.
인조	13	1635	을해	崇禎	8	49	9 월, 지평이 되다. ○ 10 월, 장령이 되다.
인조	14	1636	병자	崇禎	9	50	12 월, 호란이 일어나자 南漢山城으로 扈駕하다.
인조	15	1637	정축	崇禎	10	51	4 월, 司藝가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 9 월, 旅軒 先生을 곡하다. ○ 12 월, 椴島의 함락 소식을 듣고 <哀椴島> 詩를 짓다.
인조	16	1638	무인	崇禎	11	52	장령, 종부시 정, 헌납을 지내다.
인조	17	1639	기묘	崇禎	12	53	6 월, 사예가 되다. 이후 장령, 다시 사예가 되었으나 모두 나아가지 않다.
인조	18	1640	경진	崇禎	13	54	7 월, 헌납이 되어 숙배하다. ○ 10 월, 仁同 府使가

							되다. ○ 「旅軒集」을 교정, 간행하다.
인조	19	1641	신사	崇禎	14	55	1 월, <鶴沙亭記>를 짓다. 衙舍를 移建하고, 察眉堂을 짓다. 이듬해 관직을 버리고 돌아오다.
인조	21	1643	계미	崇禎	16	57	1 월, 장령이 되다. 이후 종부시 정, 헌납, 부수찬 지제교를 역임하다.
인조	22	1644	갑신	崇禎	17	58	九老會를 만들다.
인조	23	1645	을유	順治	2	59	3 월, 「四禮問答」을 편찬하다.
인조	24	1646	병술	順治	3	60	8 월, 수찬이 되다. ○ 11 월, 부교리가 되다.
인조	25	1647	정해	順治	4	61	3 월, 시강원 보덕이 되다. ○ 4 월, 부교리가 되어 應旨 上疏하다. 이후 부수찬, 보덕, 집의가 되다.
인조	26	1648	무자	順治	5	62	사간, 보덕, 부교리, 집의를 역임하다.
인조	27	1649	기축	順治	6	63	2 월, 부수찬이 되다. 이후 부응교, 집의, 직강, 사간, 부교리, 보덕 등을 역임하다.
효종	1	1650	경인	順治	7	64	2 월, 아들 金時止를 곡하다. ○ 4 월, 사간이 되었다가 곧 응교가 되다. 선왕 비방의 죄목으로 遠竄의 명을 받은 沈大孚와 兪榮의 일로 상소하다. ○ 5 월, 집의가 되다. ○ 7 월, 응교가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 윤 11 월, 응교로 부르니, 상소하여 사직하다.
효종	2	1651	신묘	順治	8	65	5 월, 사간이 되다. 召命에 나아가 陳啓하여 자신이 만들었던 三分耗米 會錄法의 혁파를 요청하다. 곧 동부승지가 되다. ○ 8 월, 仁政殿 晝講에 입시한 뒤 곧 체차되어 돌아오다. ○ 10 월, 密陽 府使가 되다. 이듬해 관직을 버리고 돌아오다.
효종	4	1653	계사	順治	10	67	「追遠錄」을 완성하다. ○ 7 월, 潭陽 府使가 되다. 이듬해 관직을 버리고 돌아오다.
효종	6	1655	을미	順治	12	69	6 월, 鄉老들과 九仙契를 만들다. ○ 11 월, 우부승지를 거쳐 좌승지가 되었으나 곧 체차되어 돌아오다.
효종	7	1656	병신	順治	13	70	1 월, 예조 참의가 되다. 곧 체차되어 돌아오다.
효종	8	1657	정유	順治	14	71	不夜齋를 짓다.
효종	9	1658	무술	順治	15	72	11 월, 형조 참의가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효종	10	1659	기해	順治	16	73	4 월, 공조 참의가 되다. ○ 10 월, 孝宗大王 挽詞를 지어 올리고 곧 下鄉하다.
현종	1	1660	경자	順治	17	74	7 월, 旱災로 인한 求言에 應旨 上疏를 올리다. ○ 10 월, 榮川과 醴泉 사우들과 鶴沙亭에서 모이다.
현종	2	1661	신축	順治	18	75	가을, 이웃 사우들과 水落臺에서 모이다.
현종	3	1662	임인	康熙	1	76	9 월, 陶山書院을 전알하다. ○ 11 월, 대사간이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현종	5	1664	갑진	康熙	3	78	2 월, 前官이었던 潭陽의 糶米 질 저하 문제로 告身을 빼앗기다. ◦ 〈自銘〉과 遺書를 짓다. ◦ 4 월, 〈月川集跋〉을 쓰다. ◦ 醴泉의 사우들과 新巖을 유람하다. ◦ 11 월, 夢吟寺를 유람하다.
현종	7	1666	병오	康熙	5	80	〈西厓柳先生辨誣錄〉을 짓다. ◦ 12 월, 특별히 敍用의 명이 내리고 嘉善階에 오르다.
현종	8	1667	정미	康熙	6	81	2 월, 동지중추부사가 되다. ◦ 10 월, 한성부 우윤이 되었으나 상소하고 사직하다. ◦ 12 월 1 일, 졸하다.
현종	9	1668	무신	康熙	7	-	2 월, 榮川 鶴駕山 북쪽 巖廊洞에 장사 지내다. ◦ 3 월, 상이 예관을 보내어 致祭하다.
현종	11	1670	경술	康熙	9	-	3 월, 醴泉 勿溪書院에 位版을 봉안하다.
숙종	5	1679	기미	康熙	18	-	3 월, 醴泉 義山書院에 위판을 봉안하다.
영조	52	1776	병신	乾隆	41	-	이즈음 현손 金瑞必이 義山書院 院儒의 도움을 받아 문집을 간행하다.(李象靖의 序)

### 편찬및간행

저자의 시문은 1734 년경 증손 牧使公 金倣이 家藏 草稿를 바탕으로 수집한 뒤, 金倣의 仲兄 同樞公 金价가 年譜 및 附錄을 추가하고, 訥隱 李光庭이 편차하였다. 이 가운데 詩는 저자가 山中錄으로 自編해 놓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때 간행되지는 못하였다.

이후 1774 년 봄, 金倣의 次子 金瑞必이 위의 稿本을 간행하기 위하여 義山書院의 院儒들과 의논하여 財源을 마련하였으나 元稿의 分卷 次第가 가지런하지 않고 字劃에도 잘못된 것이 많으며 年譜에 간혹 누락된 기사가 있는 등 문제점이 대두되어 讎校하여 바로잡아야만 하였다. 退溪의 8 대손 李世澤이 지은 跋文에 의하면, 그가 이 교정을 맡아서 끝내고 1774 년 8 월에 跋文까지 썼다. 이때 만들어진 정고본이 곧 原集 9 권에 外集 1 권, 世系圖, 年譜, 附錄의 형태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外集은 墓碣誌銘 24 편으로, 「退溪集」편차의 영향을 받아 家藏 草稿 이외에 수집된 것을 모은 것이다. 또한 世系圖가 만들어지고 年譜와 附錄도 보완되었으나 이때에도 간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1776 년 8 월에 李象靖이 지은 序文에 의하면, 一鄉의 人士들이 위의 定稿本이 간행되지 못하고 堙沒될 것을 우려하여 간행을 결정하였고 金倣의 아들 金瑞必이 序文을 부탁하면서 새로 編次하는 데에도 도움을 요청하였다고 하였다. 실제 李象靖은 序文뿐만 아니라 附錄의 行狀 뒤에 붙은 識까지 지어 문집의 편찬에 깊이 관여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 1796 년에 완성된 「鏤板考」에, 「鶴沙集」의 판목이 榮川 義山書院에 소장되어 있다고 하였으니, 義山書院이 문집 간행에 관여하였음을 알려 주는 것이다.

따라서 1776 년경에 현손 金瑞必이 주도하여 院儒들의 협조와 李象靖의 도움을 받아 위 정고본을 손보아 목판으로 간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초간본》 현재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晚松 D1-A1927), 국립중앙도서관(우촌古 3648-文 10-148),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이후의 重刊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본서의 저본은 초간본으로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장본인데, 卷 6 의 第 23 板 板心에 卷次 '五'는 '六'의 誤記이다.



序(李象靖 撰), 跋(李世澤 撰), 鏤板考 등에 의함

## 구성과내용

본집은 原集 9 권, 外集 1 권, 世系圖, 年譜, 附錄 합 6 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맨 앞에 1776 년에 지은 李象靖의 序文이 있다. 그 뒤에 原集 目錄과 外集 目錄이 있는데, 외집 목록에 附錄의 目錄도 함께 들어 있다.

권 1~2 는 詩 320 여 題이다. 저자는 1664 년(갑진) 7 월에 山中錄으로 詩作을 自編하고 그 序文을 적었는데, 실제로는 그 이후 1667 년 12 월 졸하기 전까지의 詩作들도 함께 실려 있다. <鄭昌寧鳳輝道應輓>이 1667 년에 지어진 것이다. 自編의 방식은 저작 연대순 편차이고, 五言과 七言의 절구, 율시, 고시가 섞여 있다. 또 여러 곳에 自註가 달려 있어 작품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 권 2 가 68 세(1654 년) 이후의 작품들임을 볼 때 말년에 閑居하면서 지은 작품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연작시로 1634 년에 지은 <南厓精舍雜詠>, 1658 년경에 지은 <貧家四時詞>와 <和田家四時詞> 등 다수가 실려 있다.

권 3 은 敎(2), 疏(9)이다. 敎는 江原 監司와 左議政 南以雄에게 내리는 것이다. 疏는 辭職疏 여러 편과 1647 년 부교리로서 올린 遇災修省을 바라는 應旨 上疏, 1621 년에 嶺南 儒生을 대신하여 지은 李爾瞻을 誅罰하라는 내용의 상소 등이다.

권 4 는 筓(4), 啓(3), 書(12)이다. 筓는 玉堂 재직시 올린 차자들인데, 1646 년(인조 24)에 올린 죄인 辛生의 鞫問을 청하는 차자 등이다. 啓는 1651 년 司諫이 되어 召命에 나아가 三分耗米 會錄法의 혁파를 요청한 계사 등이다. 書 가운데 <上旅軒先生問目>은 스승 張顯光에게 「家禮」 가운데 의문 나는 사항을 물은 편지이다. <與趙龍洲書>는 趙綱과 氷山書院의 廟享 位次를 논란한 편지로, 西厓, 鶴峯, 旅軒 三先生을 慕齋와 함께 主享으로 모실 것을 주장하였다.

권 5 는 雜著(4), 序(4), 記(10), 跋(28)이다. 雜著에는 1666 년에 지은 <西厓柳先生辨誣錄>이 실려 있는데, 이는 鄭蘊이 月川の 神道碑銘을 지으면서 月川이 西厓에게 보낸 편지에, '主和하여 나라를 그르쳤다'고 한 말을 실은 것을 보고 이를 변호하기 위하여 여러 자료를 모아 지은 글이다. 序에는 自作 <鶴沙三曲>의 序, <九仙錄序> 등이 있고, 記에는 義山書堂, 鶴沙精舍, 察眉堂, 不夜齋 등의 記文이 실려 있다. 跋에는 저자가 편찬한 「四禮問答」의 跋, <鶴峯集跋>, <松堂集跋>, <月川集跋> 등 다수의 文集 跋文이 실려 있다.

권 6 은 銘(4), 箋(2), 上樑文(6), 祭文(40)이다. 특히 祭文에는 淸溪書院, 丹山書院 등의 奉安文, 愚伏, 旅軒, 西厓 祭文, 三峯里社 常享祝文 등이 실려 있다.

권 7 은 閭表(3), 墓碣銘(28)이다. 閭表는 安珣, 朴漢柱 등의 것이고, 墓碣銘은 自銘을 비롯하여 金富仁, 權好文 등의 것이다. 권 8 은 墓誌(17)로, 鄭逵, 申悅道, 崔山輝 등의 것이다. 권 9 는 神道碑(3), 行狀(10)인데, 柳景深, 朴毅長 등의 신도비명, 李介立, 權斗文 및 金奉祖를 비롯한 兄弟들의 행장 등이 실려 있다.

外集 권 1 은 墓碣誌銘(24)이다. 여기에는 「退溪集」 편찬의 영향을 받아 家藏 草稿 이외에 수집된 墓碣誌銘을 모아 놓은 것으로 추측된다. 處士, 生員, 進士 등의 묘도문이 특히 많다.

그 뒤에 1774 년에 退溪의 8 대손 李世澤이 지은 跋이 실려 있다.

맨 뒤에 世系圖, 年譜, 附錄이 있다. 年譜와 附錄은 증손 金价가 엮은 것을 현손 金瑞必 및 李世澤이 다듬고, 다시 李象靖의 손을 거친 것이다. 附錄에는 1747 년 李光庭이 지은 行狀, 저자의 세 스승에 대한 從遊의 先後를 밝힌 李象靖의 狀後識, 李世澤의 神道碑銘, 기타 誄詞, 輓詞, 祭文, 常享祝文 등이 실려 있다.

## 김응조(金應祖)

공은 허백당(虛白堂) 김양진(金楊震)의 증손인 유연당(悠然堂) 김대현(金大賢)의 아홉 자제 중 여섯째 자제이며 자는 효징(孝徵) 호는 학사(鶴沙) 휘는 응조(應祖)이며 본관은 풍산(豊山)이다. 16세 때 부친을 여의고 줄곧 백형(휘: 봉조奉祖)의 훈도를 받으며 성인이 되었다.

권두문(權斗文) · 권호신(權虎臣)선생에게 글을 배우고, 17세 때에는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선생에게 배웠으며, 광해 5(1613)년 생원시에 합격한 후, 광해군의 난정에 과거를 포기하고 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선생의 문하에서 학문에 정진하다가, 인조가 즉위하던 계해(癸亥:1623)년 알성문과에 급제, 승문원 권지부정자(承文院權知副正字)에 임명되어, 이듬해에 정자(正字) · 주서(注書)가 되고, 인조 3(1625)년 교수(教授)를 거쳐 병조좌랑(兵曹佐郎)이 되었다.

이듬해에 인조 4(1626)년에 모친상을 당하였는데 복상을 마치고 병조정랑(兵曹正郎)에 복직, 인조 7(1629)년 성균관직강(成均館直講), 이듬해 다시 병조정랑이 되고, 인조 9(1631)년 전라도 흥덕현감(興德縣監)으로 부임하여 백성을 사랑하고 학교를 일으키니 그 성예가 지금에 이른다.

인조 11(1633)년 다시 병조정랑이 되었다가 9월 다시 경상도 선산도호부사(善山都護府使)로 나갔다. 선산은 인동의 이웃 고을로 선현의 유적이 많은 곳인데, 공은 길재(吉再), 하위지(河緯地), 김종직(金宗直), 박영(朴英) 정봉(鄭鵬)선생 등 여러 현인의 묘소에 친히 제사하였다.

이듬해 (1635년)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에 취임, 그 이듬해 병자호란(丙子胡亂)으로 중형 망와(忘窩 휘: 영조榮祖)공과 함께 남한산성에 인조를 호종하였다. 왕이 삼전도(지금의 서울 송파구 한강나루)에서 항복하니, 그 치욕을 누를 길 없어 사직하고 돌아와, 지금의 영주시 장수면 갈산(葛山) 남쪽의 정사에 숨어서 청의 연호를 쓰지 않았고, 달력이 입수되면 반드시 머리에 쓰인 연호를 오려 버리고야 펼쳐 보았다.

그 후 성균관사예(成均館司藝), 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 사간원헌납(司諫院獻納) 등에 잇달아 임명이 내려졌으나 다 나가지 않았으며, 인조 18(1640)년 다시 사간원헌납에 임명되어 비로소 사은하고 인동도호부사(仁同都護府使)로 부임하여, 스승 장여헌선생의 사당을 세워 영정을 봉안하고 그 문집을 간행했으며, 야은(冶隱) 길재선생의 서원에 여헌선생을 배향하였다. 이듬해(1641년) 어떤 사건으로 벼슬에서 물러나와 학가산(鶴駕山) 북쪽 기슭 천석이 그윽하고 아름다운 사천(沙川) 언덕의 학사정사(鶴沙精舍)로 돌아왔다.

인조 21(1643)년 다시 장령(掌令)에 취임, 종부시정(宗簿寺正) · 헌납을 거쳐 홍문관부수찬겸지제교(弘文館副修撰兼知製敎)가 되고, 인조 24년 수찬(修撰)에 오른 다음 다시 부교리(副校理)로 옮겼으며, 이듬해 세자시강원보덕(世子侍講院輔德)이 되었다. 그 때 인조 임금께서 경의(經義)에 밝은이를 물으니, 봉림대군(후에 효종)이 공이라고 대답하였으며, 인평대군(효종의 아우)이 동궁을 모시고 있다가 동궁이 실수를 저지른지라 동궁이 놀라며 보덕(輔德: 공을 가리킴)이 알지 못하도록 하라고 했으니, 공에 대한 예경(禮敬)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그 해 4월 다시 부교리가 되었을 때, 심한 가뭄으로 인조께서 깨우치는 말을 구하므로 공이 상소를 올려 당면한 세 가지 폐단을 극론했는데, 곧 “왕실과 세가(勢家)에서 백성의 이(利)를 빼앗음이요, 아문(衙門)과 영문(營門)에서 물건을 팔아 이득을 챙김이요, 고을의 수령들이 백성들을 착취함”이라고 전제하고, “백성은 모두 임금의 백성이요, 부고(府庫)는 모두 임금의 재물인데, 내수사(內需司:궁내에서 쓰이는 곡식·옷감·잡물·노비 등에 관한 일을 맡은 기관)만 권권(眷眷: 마음속에 두고 잊지 않음)함은 옳지 않으며, 조정의 신하로 내수사의 제조(提調)·낭청(郎廳)을 겸하게 하여, 거기에 도사린 온갖 고질의 폐단을 없애고 모든 비용을 절약할 것이며, 협잡 농간을 막아 그 여분을 내어 군국의 수요에 충당케하고, 친히 검소 절약하는 모범을 보이면서 간곡한 교유를 내려, 기왕의 잘못은 백성에 알림과 함께, 위에 열거한 여러 가지 폐단을 없애야 할 것이니, 이렇게 하고서 민심이 기뻐하지 않는다거나, 하늘 뜻이 돌아서지 않는다거나, 단비가 내릴 것이옵니다.” 라고 강조하고 끝으로, “그렇게 하되, 진심으로 깨달아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천심(天心)이.....천재(天災)를 그치게 할 수 없을 것이옵니다.”하였다.

이에 대하여 임금은 “경의 우국(憂國)의 정성에서 편 상소는 그 조목조목이 모두 지론(至論)이다. 내 마땅히 척념(?念)하여 채택 실시하리라.” 고 비답(批答)을 내렸다.

그 뒤 다시 수찬(修撰), 보덕(輔德), 집의(執義), 사간(司諫), 교리(校理), 직강(直講) 등을 지내고, 인조 27(1649)년 5월 인조께서 승하하고 효종이 즉위하자, 공은 사간으로 옮겼는데 사간을 사양하는 소(疏)에서 말하기를 먼저 상중(喪中)에 있어서의 임금의 도리를 들고, 이어 “나라가 수십년동안 병란(兵亂)을 거듭 치르고, 수재(水災)·가뭄으로 흉년이 잇달아 민정(民情)이 어수선하고 종사(宗社)가 위태로운 고비에 처하여, 임금은 천명과 인심의 거취를 살펴서 작은 것에 얽매어 큰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하옵니다. 전하께서 즉위 이래로 간(諫)함을 잘 받아들여 왔지만, 심대부(沈大孚-인조의 아호문제로 연금됨)의 문제와 김홍욱(金弘郁-무고로 억울하게 죽은 소현세자비 모자의 억울함을 상소, 효종의 즉위 초에 노여움을 사서 투옥됨, 후에 사형 당함)사건 등에 대해서는 백성들의 기대에 어긋나고 근일 양사(兩司)의 의논을 받아들이지 않으시니, 이로 하여 식자(識者)들은 언로(言路)가 열리지 못할 조짐인가 하여 매우 근심하고 있는 실정인데, 전하께서도 많은 글을 읽으면서 일찍 역사상에 간언(諫言)을 물리치고 망하지 않은 이가 없음을 보지 않았나이까?” 라고 따끔히 반성을 촉구하였다. 이에 임금은 “내가 아직 듣지 못했던 훌륭한 말이로다. 마땅히 적어서 기억할지니 공은 사직하지 말지어다.” 고 답하였다.

그 뒤에도 공은 보덕(輔德), 응교(應教), 사간(司諫), 필선(弼善) 등을 거듭 지내고 그 겨울 다시 응교가 되었다. 그때 조정의 의논이 엇갈려, 서로의 사이에 시기와 의심이 날로 짙어 장차 또 한바탕 회오리를 일으킬 듯, 각 사(司)에서는 수포(收布)를 구실아치에게만 맡겨 뇌물이 공행(公行)하고, 주현(州縣)의 어려움이 심한데다가, 아문을 증설하고 물건을 판매하여 이익을 챙기므로 민간 상업이 위축되고, 민생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으로 민정이 들끓는 실정을 낱알이 밝혀 상소하니 임금이, “위에 펼친 사실들은 감히 누구도 말하지 못하는 바를 깨우친 실로 약석(藥石)의 지론(至論)이다.” 라고 답하였다.

효종 2(1651)년 여름 다시 사간이 되어 앞서 인조 15(1637)년 빈번한 청나라 사신의 접대에 쓰이는 임시적 재원의 염출방법으로, 공이 삼분모작목법(三分耗作木法)을 제안하여 실시해 왔는데, 이때에는 그 필요성이 없게 되었고, 한편 교활한 구실아치들의 농간으로 거기에 따른 폐단이 심하여 그 폐지를 건의하여 없애게 하였다.



그 후 승정원동부승지(承政院同副承旨)를 거쳐 우부승지(右副承旨)가 되어, 앞서 조정에서 각 고을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관이 유명무실하다하여 그 제도를 폐지하였는데, 공이 경연에서 교수관을 폐하면 나라의 문교가 어두워짐을 역설하고 또 이르기를, 효자를 포상함에 있어 벼슬에 있는 사람인 경우 본직에 한 계급만을 더하는 것은 너무 박하다고 건의했던 바, 임금이 가납하여 교수관제도를 회복시키게 하고 효자로 나타난 이는 당상직(堂上職)에 올리게 하였다.

그해 (효종3 · 1652) 10월 밀양도호부사(密陽都護府使)에 부임, 공진관(拱辰館)과 예림서원(禮林書院)의 강당을 새로 지어 교학을 장려하고 모든 폐정을 고치니 백성의 칭송이 컸으나 노비 관계에 잘못이 있다고 한 모씨(某氏)의 말을 들은 대간의 논계(論啓)가 있었다.

임금은 불윤(不允)했으나 공이 결연히 사퇴하고 떠나오니, 매우 아쉽게 여긴 백성들이 '다스림이 겨우 다섯 달이로되 그 은혜는 천년에 뵈으리라.'고 그 덕을 기리는 유애비(遺愛碑)가 부중(府中)과 부남(府南)에 세워졌다는 기록이 있다.

이듬해인 효종 4(1653)년 담양도호부사(潭陽都護府使)에 부임, 먼저 양노례(養老禮)를 베풀어 효제(孝悌), 경로(敬老)정신을 드높이니 백성들이 다시 태평고사(太平故事)를 본다고 하였고, 11개월의 짧은 재임기간에도 금성산성(金城山城)을 수축하고 춘추(春秋)로 군사를 단련시켰다. 공은 이르는 곳마다 교화에 치중하여 고을의 선비를 모아 친히 교도하면서 교학진흥에 힘을 다했고 백성의 편익을 위하여 개혁에 힘썼으며, 어려운 일은 조정에 청하여 고쳐 나갔다. 백성들은 칭송이 컸으나 상사에 거슬러, 전후 다섯 고을을 거치는 동안 임기를 채운 곳은 한 곳도 없었다.

효종 6(1655)년 좌승지(左承旨)를 거쳐 병신(丙申:1656)년에 예조참의에 올랐으며, 무술(戊戌:1658)년에 다시 형조참의(刑曹參議)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했다. 효종 10(1659)년 공조참의(工曹參議)로 불러 상경도중 효종이 승하하니, 인산(因山) 뒤에 병을 칭탁하고 고향에 돌아와 다시는 벼슬에 나가지 않았다. 공이 처음 벼슬에 나설 무렵 공신들이 국정을 휘어잡아 경학(經學) 하는 선비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은 매양 진퇴에 조심했으며, 병자호란 뒤엔 더욱 벼슬이 탐탁지 않아 오래 머물지 않고 곧 물러나곤 하였다. 효종의 지우가 두터워 공의 건의는 중의(衆議)를 물리치면서까지 채택되어 국정에 이바지함이 많았다.

현종 7(1666)년 12월 특하서명(特下舒命)으로 품계가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오르고 그 이듬해(1667년) 2월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하였으며, 10월에 다시 한성부우윤(漢城府右尹)의 명을 받았으나 또 사양하는 상소를 올리고 나가지 않았다.

현종 정미(丁未:1667)년 음력 12월 하세하니 향년 81세이다.

공은 문장에 능하여 영남의 각 서원이나 정자를 비롯하여 당대 유명인사의 묘명(墓銘) 등 각처에 많은 명문을 남겼다.

묘소는 경북 안동시 북후면 석탑리 (암영골) 해향(亥向)이고, 배 정부인 문소(의성 김씨: 종사랑 · 휘 광의 따님)의 묘소는 예천군 감천면 포리에 있다.

향도사림(鄕道士林)의 공의(公議)에서 불천지위(不遷之位)로 허(許)되어 오록리의 가묘에 봉향되었다. 그리고, 오미리의 추원사(追遠祠) 구위동당(九位同堂)으로, 안동(지금의 감천) 물계서원(勿溪書院)과 영주의 의산서원(義山書院)에 배향되었다.

저서로 추원록(追遠錄) 2권, 학사집(鶴沙集) 6권, 변무록(辨誣錄), 사례문답(四禮問答) 2권, 산중록(山中錄) 등이 있다.

卷之一 / 詩○山中錄

병중. 별신난재진보 열도 부연경. 病中. 別申懶齋晉甫 悅道 赴燕京

13세 열도(悅道) 父 : 흘(屹) 祖父 : 원록(元祿) 읍파(邑派)난재공파(懶齋公派)

荒涼舊社草盈庭。萬死歸來獨愴情。別後閉門仍瞑臥。不堪牕外聽蟬聲。

<p>有客客無心。有罇罇無綠。相看樂在中。世人潭不識。</p>	<p>右罇虛 避寓鳳山縣人。為余作松簷令避暑。</p>	<p>蒼髯當碧瓦。白木勝朱欄。蟾影猶能透。烏炎却未干。不妨行雨細。偏引晚風寒。自足容吾膝。何須千萬間。</p>	<p>病中。別申懶齋晉甫。悅道赴燕京。</p>	<p>荒涼舊社草盈庭。萬死歸來獨愴情。別後閉門仍瞑臥。不堪牕外聽蟬聲。</p>	<p>堪牕外聽蟬聲。 自笑以騎曹正郎赴朝。因就醫樂。</p>	<p>呈病休官是常理。因官調病理如何。秋風策馬登長路。白慮攻中兩鬢皤。</p>	<p>白石衣曉題 孤村藪屋夜悠悠。蛩語偏添病客愁。歸夢五更難一唱。忽驚身是在揚州。<small>時余有盲病。就醫於揚州。</small></p>	<p>謝金城主瑄來訪 村居寥落沒蒿萊。誰料門前皂蓋來。欲謝殊知難自力。此身非敢效澹臺。</p>	<p>謹次仲氏忘言公韻 遠客西歸歲欲闌。朔風吹雪暗秦關。祇今聖主求賢急。從古孤臣涉世難。鵬舉想應撐九萬。鷹稀誰為報平安。</p>
---------------------------------	---------------------------------	---------------------------------------------------------	-------------------------	-----------------------------------------	------------------------------------	-----------------------------------------	------------------------------------------------------------------------------	-----------------------------------------------------	----------------------------------------------------------------------

卷之一 / 詩○山中錄

송신망구 홍망 부완산소윤 병서 送申望久 弘望 赴完山少尹 并序

15世 홍망(弘望) 父 : 지제(之悌) 祖父 : 몽득(夢得) 귀파(龜派)오봉공파(梧峰公派)

余嘗誦西厓柳先生無親無君非孝非忠之句。以爲事親而後可以事君。盡孝而後可以盡忠。君親固一體也。忠孝固一事也。今天曹長趙公綱。秉銓衡纔數月。初以金君貫之倅順天。中以趙君士靖伯嶺南。終以申君望久爲完山少尹。人皆以爲失政。金，趙兩公事。得失未暇詳。余愛望久容姿灑灑。襟韻飄飄。所謂山頭一玉。波面一月。眞箇玉皇香案吏。豈容厄之於米鹽升斗之間歟。顧望久今年四十八歲。大夫人今年八十五歲。望久事君與事親之日。果孰長而孰短哉。趙公今既令望久孝於親。他日豈不能令望久忠於君哉。由此言之。銓曹今日注擬。雖謂之得人焉可也。而況完山是望久先世桐鄉也。戲綵之暇。對舊民理舊政。其夙興夜寐思所以無忝者。可知。是亦所以忠於君。豈獨孝於親而已哉。若余不天。誰爲孝。不才無以忠。只君親一念。炳然如丹。於望久之行。不覺感淚盈襟。乃序而詩之。

舉舉南州第一人。安陽奉檄爲偏親。板輿再駕騰新慶。稚子重來理舊民。堂下彩衣光絢旭。臘前花柳暖回春。感君此去恩榮溢。孤露餘生只愴神。

鶴沙先生文集卷一 二十四

臺迢忽卽風樓。沙雲乍捲明銷雪。壁霧初收翠擁屏。省事久拋杯勺興。謗教漁夫忌偏醒。

送申望久弘望赴完山少尹并序

余嘗誦西厓柳先生無親無君非孝非忠之句。以爲事親而後可以事君。盡孝而後可以盡忠。君親固一體也。忠孝固一事也。今天曹長趙公綱。秉銓衡纔數月。初以金君貫之倅順天。中以趙君士靖伯嶺南。終以申君望久爲完山少尹。人皆以爲失政。金趙兩公事。得失未暇詳。余愛望久容姿灑灑。襟韻飄飄。所謂山頭一玉。波面一月。眞箇玉皇香案吏。豈容厄之於米鹽升斗之間歟。顧望久今年四十八歲。大夫人今年八十五歲。望久事君與事親之日。果孰長而孰短哉。趙公今既令望久孝於親。他日豈不能令望久忠於君哉。由此言之。銓曹今日注擬。雖謂之得人焉可也。而況完山是望久先世桐鄉也。戲綵之暇。對舊民理舊政。其夙興夜寐思所以無忝者。可知。是亦所以忠於君。豈獨孝於親而已哉。若余不天。誰爲孝。不才無以忠。只君親一念。炳然如丹。於望久之行。不覺感淚盈襟。乃序而詩之。

鶴沙先生文集卷一 二十五

詩之。

舉舉南州第一人。安陽奉檄爲偏親。板輿再駕騰新慶。稚子重來理舊民。堂下彩衣光絢旭。臘前花柳暖回春。感君此去恩榮溢。孤露餘生只愴神。



卷之二 / 詩

풍기쉬신군망구기관귀 豐基倅申君望久棄官歸

15世 흥망(弘望) 父 : 지제(之悌) 祖父 : 몽득 (夢得)

귀파(龜派)오봉공파(梧峰公派)

君去白山在。對山疑是君。欲問君消息。其如山不言

臣身上易麻衣。  
重陽日獨酌  
滿酌重陽酒。黃花色映杯。陶然臥枕麴。不待白衣來。  
水落臺。次洪百源汝河韻。  
名區草木被昭回。緬仰餘光意未裁。芳躅至今畱澗壁。白雲依舊鎖瑤臺。山含元氣巖巖轟。水接源頭滾滾來。更喜瓊仙弭羽蓋。清罇且傍菽花開。  
李通禮器成元圭觀  
脫俗高懷寄酒筒。清水置在玉壺中。文章父有文章子。學士家傳學士風。臺閣多官難寄足。才名驚世摠成空。比鄰一枕黃梁夢。畱與深悲付此翁。  
鶴沙先生文集卷二 十九  
朴察訪丈寄一枝梅。次韻謝之。  
朔氣厲。巽玄律。窮凶。颺接攬空衢。日江南誰寄一枝春。忽驚韶光過一室。分明寄自老仙手。銘佩不啻同心結。臨風三嗅馨香處。沉吟坐到三更月。  
豐基倅申君望久棄官歸  
君去白山在。對山疑是君。欲問君消息。其如山不言。  
月夜獨坐  
短短疎籬淡淡波。小堂蕭灑畫無譌。清宵獨坐無人到。月壓庭梅滿樹花。

鶴沙集 卷二

卷之四 / 書

답신난재 열도 答申懶齋 悅道

15世 흥망(弘望) 父 : 지제(之悌) 祖父 : 몽득 (夢得)

귀파(龜派)오봉공파(梧峰公派)

辱惠書感慰。信後天時漸熱。遠惟靜中德履珍相。書中有宜復者。敢略布之。十數年前。與玉山諸友。論及吳山合享事。有貶薄治隱說話。愚嘗掩耳而不欲聞。頃年宋燦玉之來。承盛

意以移安老先生位版於巖院爲當。已知高見之有在。而自分愚蒙。不敢名言爭之矣。夫以老先生一生尊慕治隱之誠。合祠竝享。已積歲年。一朝分而二之。其於天理人情。俱有所未安。又況貶薄前賢之意。隱然在於其中者乎。當其舍舊就新。始設俎豆之際。竊恐先生在天之靈。必將眷顧遲疑而不安於顧享。故權辭以慰安之。實與高明本意。自相謬戾。宜其削去而不疑也。誠宜一言曉諭而今不然。何歟。前日高明以鄙人之爲賁趾作文爲非。其貶薄賁趾之意。灼然可見。而終不肯明言其所以然。只以戲言爲諉。至於上年。高明又以鄙文中一兩句爲非。其貶薄治隱之意。亦灼然可見。而又不肯明言其所以然。只以未妥爲言。愚恐高明之於此二款。不幸而或近於侯師聖議論也。其何以明至正之論而破愚者之惑哉。從古以來。廟享位次。何嘗一從道德高下。而未聞後生輩嘵嘵多言任意低昂。如今日所爲也。況始合享而終分異。實千古所未有之舉措也。圍隱，靜菴兩先生之始合而終異。則抑有說焉。疑其當初靜菴配享於圍隱。而及其并入從祀之列。則陞并既未安。仍配亦未妥。故有此不得已之事。自與今日事不同。而拙文中引其意爲說。兄若以此攻斥。則弟何敢辭其責哉。大槩竊觀高明近日所爲。毅然以斯文之重自任。斷定先賢高下。略無持難慎重意思。此誠愚者之所宜恭聽指揮而從事者。自今何敢復有爭論。願高明之矜而恕之也。

罪者右相引八矣。五字亦在其中。夫伸救二臣而得罪。此上之過舉故云耳。奚暇論其人之賢愚哉。其時憲府多官。皆是時輩中望輕者。而勿論彼此力救之。豈盡賢於右相者乎。然弟本無見識。臨事多做錯。豈獨此數款事而已。諉之者何怪焉。書中縷縷垂誨。出於血心。談舌久不掉。聊相爲言之謹白。

答張司諫經叔應一

玉胤扣柴扉。仍披辱札。感慰何極。兄之一言。聳動瞻聆。雖不免怪鬼揶揄。而名高一世。身享清福。其視冥行妄作。衆笑羣詆者。不啻若黃鸝之與壞蟲。乃反歉然若有悔吝意。思此豈相愛問。悃悃語邪。顧此老病。無由承一晤。襲正氣以爲革面自新之地。來教所謂愧憤羞辱等語。豈指老物發也歟。幸爲我謝諸益。而月斯征。我日斯邁。見先師於地下足矣。

鶴沙先生文集卷四 三十二

答申懶齋悅道

辱惠書感慰。信後天時漸熱。遠惟靜中德履珍相。書中有宜復者。敢略布之。十數年前。與玉山諸友論及吳山合享事。有貶薄治隱說話。愚嘗掩耳而不欲聞。頃年宋燦玉之來。承盛意以移安老先生位版於巖院爲當。已知高見之有在。而自分愚蒙。不敢名言爭之矣。夫以老先生一生尊



慕冶隱之誠。合祠並享。已積歲年。一朝分而二之。其於天

理人情。俱有所未安。又况貶薄前賢之意。隱然在於其中。

者乎。當其舍舊就新。始設俎豆之際。竊恐先生在天之靈。

必將眷顧遲疑。而不安於顧享。故權辭以慰安之。實與高

明本意。自相謬戾。宜其削去而不疑也。誠宜一言曉諭。而

今不然。何歟。前日高明以鄙人之為貴趾作文為非。其貶

薄貴趾之意。灼然可見。而終不肯明言其所以然。只以戲

言為諉。至於上年。高明又以鄙文中一兩句為非。其貶薄

冶隱之意。亦灼然可見。而又不肯明言其所以然。只以未

妥為言。愚恐高明之於此二款。不幸而或近於侯師聖議

論也。其何以明至正之論。而破愚者之惑哉。從古以來。廟

鶴沙先生文集卷四

二十三

恕之也。

答羅槐山宅于以俊

書辱感慰。既望夜。與任卿坐鶴沙頭玩月。談間。任卿舉

其壬戌七月既望詩。要和。僕和之。任卿又和之。愛其清絕。

并拙句錄呈。幸辱和否。大槩翟公之言。為千載憤世者口

實。獨蘇東坡以薄少待客病之。真確論也。然翟公固嘗見

用於世。雖暫被譴。必將復用。而人情翻覆如此。公之罪客

也。亦宜如僕初無見用。後又無復用之日。而客亦初無往

者。又安有不往者乎。拙詩云云。况言仙凡不同而已。第翟

公未嘗有置酒仙境邀客之事。客亦無有約食言之失。以

此言之。諸契之與翟客。豈無優劣。高下於其間。然公以清

羸神觀。為狂毫所敦迫。而動者多矣。詩意專指君海耳。

鶴沙先生文集卷四

二十四

答柳仁卿別紙

伏見別紙所錄。考據精博。自顧憎陋。何敢容喙於其間。第

以警見言之。大祥明日行耐祭。虛位用紙榜。裕祭前日告

遷。此三款。已有先儒定論。清陰抄記。則必大祥後即行遷

遷。故其勢不得不告遷於耐祭前日也。今哀家。大祥之後。

新主姑畱几筵。直俟其明日耐祭後。合安於先春府神主

權安之室。似與朱夫子說暗合。而別設一位。似當然矣。然



卷之四 / 書

답신태인문약 재 答申泰仁文若 在

14世 재(在) 父 : 달도(達道) 祖父 : 흘(佺) 음파(邑派) 만오공파(晩悟公派)

日夕企待。忽承情問。仍審秋涼靜味起居清勝。爲賀爲賀。弟臂患久而一樣。奈何命耶。頃撤義山舊堂。新建十間。中六間爲堂。曰集義堂。東夾室二間。曰由義齋。西夾室二間。曰精義齋。又建別堂三間于堂之東南。曰主敬齋。近又建<sup>P</sup>廚舍八間于其南。皆覆以瓦。儼然成一學宮矣。歲前。弟邀不飲酒若干人。作不飲酒會于義山。留三日而罷。厥後。弟作絕句以識之。山齋作會欠壘樽。始信人間此味眞。三日座中無醉語。衆醒猶勝獨醒人。諸益多和之。羅都事以俊詩。誰識一場山院會。喚醒多少醉生人之句。最爲精緻。兄須和寄。以當面晤。如何。作義山志。入錄諸詩。以爲古跡。後之覽者。必有感於此耳。且近日鑿池槐亭下。廣可數三間。長可六七間。清瑩可愛。斲其北山麓。爲臺以臨池。兼曠如奧如。趣勝復增十分。池曰光影。臺曰遠觀。蓋用天光雲影遠觀褻玩等語也。欲與遠近士友。作一會以賞之。兄須或<sup>P</sup>記或詩。因便寄送如何。鑿池之日。弟自監董其役。有拙句云。造物勞搏攫。藏修待我曹。更穿方沼瑩。仍築小臺高。增翠螺鬢色。添清玉澗濤。超然玩心地。非爲辦遊遨。非但拙甚。韻強恐妨僉和。欲請各用別韻。兄亦以韻強爲病。則用別韻如何。

鶴沙先生文集卷四  
二十八

學精深願一言示破老而病且死此世盡替知不可得臨  
書悽黯萬不一宣

嘗考寒岡旅軒二先生問答傍題施於所尊故以姪而  
奉叔父之祀以外孫而奉外家之祀者皆許傍題何獨  
疑於祧主邪

答申泰仁文若在

日夕企待。忽承情問。仍審秋涼靜味起居清勝。爲賀爲賀。弟臂患久而一樣。奈何命耶。頃撤義山舊堂。新建十間。中六間爲堂。曰集義堂。東夾室二間。曰由義齋。西夾室二間。曰精義齋。又建別堂三間于堂之東南。曰主敬齋。近又建<sup>P</sup>廚舍八間于其南。皆覆以瓦。儼然成一學宮矣。歲前。弟邀不飲酒若干人。作不飲酒會于義山。留三日而罷。厥後。弟作絕句以識之。山齋作會欠壘樽。始信人間此味眞。三日座中無醉語。衆醒猶勝獨醒人。諸益多和之。羅都事以俊詩。誰識一場山院會。喚醒多少醉生人之句。最爲精緻。兄須和寄。以當面晤。如何。作義山志。入錄諸詩。以爲古跡。後之覽者。必有感於此耳。且近日鑿池槐亭下。廣可數三間。長可六七間。清瑩可愛。斲其北山麓。爲臺以臨池。兼曠如奧如。趣勝復增十分。池曰光影。臺曰遠觀。蓋用天光雲影遠觀褻玩等語也。欲與遠近士友。作一會以賞之。兄須或<sup>P</sup>記或詩。因便寄送如何。鑿池之日。弟自監董其役。有拙句云。造物勞搏攫。藏修待我曹。更穿方沼瑩。仍築小臺高。增翠螺鬢色。添清玉澗濤。超然玩心地。非爲辦遊遨。非但拙甚。韻強恐妨僉和。欲請各用別韻。兄亦以韻強爲病。則用別韻如何。

## 학서선생문집(鶴棲先生文集)

### 형태서지

권수제	학서선생문집(鶴棲先生文集)
판심제	학서선생문집(鶴棲先生文集)
간종	목판본(木版本)
간행년	1902년경 간행
권책	20권 10책
행자	10행 21자
규격	19.9×15.2(cm)
어미	上下二葉花紋魚尾
소장처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도서번호	D1-A2301
총간집수	한국문집총간 속 107

### 저자

성명	유태좌(柳台佐)
생년	1763년(영조 39)
몰년	1837년(헌종 3)
자	사현(士鉉)
호	학서(鶴棲), 능아(聾啞)
본관	풍산(豊山)
초명	태조(台祚)
특기사항	강필효(姜必孝), 이희발(李羲發), 유심춘(柳尋春) 등과 교류

행력

왕력		서기	간지	연호		연령	기사
영조	39	1763	계미	乾隆	28	1	12월 4일, 서울 羅洞의 외가에서 태어나다.
영조	45	1769	기축	乾隆	34	7	伯父 畏齋 柳宗春에게 수학하다.
~	-	~	~	~	-	~	蔡濟恭에게 文才를 인정받다.
정조	16	1792	임자	乾隆	52	30	봄, 임오의리를 천명하는 영남만인소에 참여하다. 이를 계기로 「闡揮錄」을 짓다. ○ 三從祖 臨汝齋 柳 <sup>達</sup> 에게 「心經」, 「近思錄」, 朱子書を 배우다.
정조	17	1793	계축	乾隆	58	31	11월, 부인 眞城李氏의 상을 당하다.
정조	18	1794	갑인	乾隆	54	32	봄, 庭試에 丙科로 합격하다. ○ 事變假注書가 되다. 抄啓文臣에 선발되다. ○ 12월, 呈告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 정조로부터 「朱書百選」을 하사받다.
정조	20	1796	병진	嘉慶	1	34	大學問對를 짓다.
정조	21	1797	정사	嘉慶	2	35	假注書가 되다. ○ 中庸講義條對를 짓다.
정조	22	1798	무오	嘉慶	3	36	7월, 注書가 되다. ○ 10월, 掌隸院의 酗酒 사건 때문에 通津에 유배되었다가 19일 만에 還職되다.
정조	23	1799	기미	嘉慶	4	37	10월, 正言이 되다. ○ 大學故寔, 朱子大全故寔, 國朝故寔을 짓다.
정조	24	1800	경신	嘉慶	5	38	2월, 지평이 되다. ○ 3월, 扶餘 縣監이 되다. ○ 정조가 승하하자 동료 초계문신들과 哭班에 나아가다. 이후 1년간 素食하다. ○ 「百世隕結錄」을 엮다.
순조	2	1802	임술	嘉慶	7	40	1월, 수찬이 되다. ○ 11월, 부수찬이 되다. ○ 12월, 부교리가 되었으나 親病을 이유로 나아가지 않다.
순조	3	1803	계해	嘉慶	8	41	3월, 仲弟 柳奭佐를 곡하다. ○ 4월, 헌납이 되다. ○ 5월, 부교리가 되다. ○ 6월, 北評事가 되다. ○ 9월, 부임하는 길에 금강산을 유람하고 「金剛錄」을 짓다.
순조	4	1804	갑자	嘉慶	9	42	7월, 장령이 되다. ○ 8월, 부교리가 되다. ○ 9월, 司成이 되다. ○ 10월, 수찬, 지평이 되다. ○ 11월, 큰아들 柳希睦을 곡하다.
순조	5	1805	을축	嘉慶	10	43	3월, 장령, 집의가 되다.
순조	6	1806	병인	嘉慶	11	44	1월, 사간이 되다.
순조	7	1807	정묘	嘉慶	12	45	2월, 사성이 되다. ○ 3월, 집의가 되다. ○ 6월, 安邊 府使가 되다. 화재로 소실된 고을의 무기고와 병기를 民力을 동원하지 않고 복구하여 좌의정 李時秀로부터 칭송을 받다. ○ 가을, 모친을 모시고 상경하여 외가의



학서선생문집(鶴棲先生文集) 유태좌(柳台佐)

							祠宇를 참배하다.
순조	9	1809	기사	嘉慶	14	47	5 월, 헌납이 되다. ○ 9 월, 사간이 되다. ○ 11 월, 부교리가 되다.
순조	10	1810	경오	嘉慶	15	48	7 월, 교리가 되다. ○ 11 월, 부교리가 되다.
순조	11	1811	신미	嘉慶	16	49	3 월, 軍資監 正이 되었으나 친병을 이유로 나아가지 않다. ○ 11 월, 수찬이 되다.
순조	12	1812	임신	嘉慶	17	50	4 월, 수찬이 되다. ○ 5 월, 교리가 되다.
순조	13	1813	계유	嘉慶	18	51	11 월, 부교리가 되어 경연에서 「小學」, 「聖學輯要」 등을 강의하다.
순조	14	1814	갑술	嘉慶	19	52	1 월, 乞養을 청하여 玄風 縣監이 되다. ○ 3 월, 부친상을 당하다.
순조	15	1815	을해	嘉慶	20	53	4 월, 모친상을 당하다.
순조	17	1817	정축	嘉慶	22	55	11 월, 교리가 되다.
순조	18	1818	무인	嘉慶	23	56	6 월, 집의가 되다. ○ 8 월, 교리, 사간이 되다.
순조	19	1819	기묘	嘉慶	24	57	3 월, 수찬이 되어 경연에 참여하다. ○ 6 월, 교리가 되다. ○ 8 월, 사성이 되다. ○ 10 월, 통정대부에 오르다.
순조	20	1820	경진	嘉慶	25	58	2 월, 金海 府使가 되다.
순조	22	1822	임오	道光	2	60	6 월, 동부승지가 되다. ○ 12 월, 侍講院 輔德이 되다. ○ 堂兄 柳相祚와 상의하여 義莊을 설치하다.
순조	23	1823	계미	道光	3	61	6 월, 보덕이 되다. ○ 9 월, 김해 부사 시절 漕船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혐의로 하옥되었다가, 지병으로 곧 保放되다.
순조	24	1824	갑신	道光	4	62	채제공의 「樊巖集」을 간행하다.
순조	25	1825	을유	道光	5	63	8 월, 보덕이 되다. ○ 9 월, 동부승지, 우부승지가 되다.
순조	26	1826	병술	道光	6	64	5 월, 대사간이 되다. ○ 12 월, 보덕이 되다.
순조	28	1828	무자	道光	8	66	12 월, 보덕이 되다.
순조	29	1829	기축	道光	9	67	1 월, 가선대부에 오르다. ○ 11 월, 漢城府 右尹이 되다.
순조	30	1830	경인	道光	10	68	2 월, 우승지가 되다. ○ 6 월, 예조 참판이 되다. ○ 11 월, 호조 참판으로 옮기다.
순조	31	1831	신묘	道光	11	69	同經筵, 同敦寧, 同義禁이 되다. ○ 거울, 愚伏 鄭經世의 年譜에서 잘못된 곳을 고쳐 다시 간행하다. ○ 거쳐 하던 廳事를 수리하고 ‘和敬’이라 이름 짓다.
헌종	1	1835	을미	道光	15	73	부총관이 되다. ○ 「記誦錄」, 「恭敬編」을 엮다.
헌종	3	1837	정유	道光	17	75	가을, 도산서원에서 이황의 문집을 重刊할 때 洞主에 추대되다. 누락된 유문을 수집하여 함께 간행하려고

							하였으나 이루지 못하다. ○ 11 월 26 일, 和敬堂에서 졸하다.
헌종	4	1838	무술	道光	18	—	2 월, 醴泉 九月峯 아래에 장사 지내다.
고종	39	1902	임인	光武	6	—	이즈음 손자 柳道性이 목판으로 문집을 간행하다.

### 편찬및간행

저자의 저술로는 詩文 약간 권과 1792년 영남만인소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지은 「闡揮錄」, 정조가 승하한 후 초계문신 때 講製한 글과 恩諭를 모아 엮은 「百世隕結錄」, 만년에 평소 誦讀하던 朱子의 글을 모아 정리한 「記誦錄」, 漢宋 이래 先儒들의 격언과 東國 先正들의 유명한 奏章을 모아 편찬한 「恭敬編」 등이 있다. 현재 이 중 상당 부분이 안동의 한국국학진흥원에 草稿의 형태로 전존하고 있으며, 「천취록」의 경우 1933년 일부 내용이 개정 증보되어 신연활자로 간행되기도 하였다.

저자의 행적과 유문의 정리는 長子 柳希睦이 일찍 사망한 관계로 다른 두 아들과 손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次子 柳祈睦(1802~1861)은 저자 사후 家狀을 짓고 柳相祚에게 묘지명을 받았으며, 三子인 柳教睦(1810~1874)이 이를 아들 柳道昌을 통해 遺事와 함께 李彙載에게 보내어 1869년경 행장을 받았다. 또 유기목의 아들로서 伯父 유희목에게 입양된 柳道性(1823~1906)이 李鍾祥에게 묘갈명을 받았다. 유문의 경우는 유도성이 西溪 金在燦(1811~1888)에게 교감을 부탁하며 보낸 편지에서 “王考 遺文 承先人遺託 謀所以繡梓者 于今數十年 ..... 最是刪定極不容易 初校於普門 再校於東郭 三校於金谷 傳寫至第四本而有未盡處 ..... 前校三老難慎於存拔 卷至十冊 .....”이라고 한 것으로 그 대강을 알 수 있다. 또한 유도성의 「石湖集」에 수록된 다른 편지를 보았을 때 山泉 朴周鍾(1803~1877)과 閩山 柳道洙(1820~1889)가 유고의 교정에 참여한 것으로 생각된다. 문집의 판각은 유도성이 숙부 유교목이 즐하고 29년 후에 지은 改葬 祭文에 “祖考遺集 竭盡心力 仰副當日畀付之意 雖得繡梓 物力不敷 未克印布 且梳洗之盡善 未可知 .....”라는 기록이 보이는데, 유교목의 몰년과 같은 글에서 유도성이 자신의 나이를 “八十”으로 언급한 것을 고려하면 1902년경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초간본》이 본은 현재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D1-A2301), 국립중앙도서관(한 46-가 596), 장서각(D3B-1875), 규장각(奎 12269) 등에 소장되어 있다.

이후 6대손 柳永夏와 柳澤夏 등이 초간본의 인출 부수가 적어 널리 배포되지 못하였고, 또 시대의 변화로 한문이 쇠퇴하는 것을 감안하여, 주요한 글들을 발췌 번역하고 초간본을 별책으로 영인하여 2000년 대구의 大譜社에서 「國譯鶴棲先生文集」 2冊을 간행하였다. 번역은 柳龍佑가 담당하였으며, 권수에는 李載浩의 해제와 世系圖를 수록하였다. 번역된 부분은 詩(15題), 疏(2), 序(1), 記(1), 雜著(1), 傳(1), 箋(1), 敎書(1), 上樑文(1)과 中庸講義問答, 大學問對, 大學故寔, 朱子大全故寔, 國朝故寔 그리고 부록 중에서 사제문, 행장, 묘갈명이다.

본서의 저본은 저자의 손자 유도성이 1902년경 목판으로 간행한 초간본으로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장본이다.

家狀(柳祈睦 撰), 與西溪金丈·答朴山泉聞遠·答閩山·祭季父縣監府君文(柳道性, 石湖集), 國譯鶴棲先生文集 등에 의함

## 구성과내용

본집은 20 권 10 책으로 되어 있다. 2 권 단위로 結冊되어 있으며 각 책의 앞부분에 目錄이 있다.

권 1~2 는 詩(167 題)이다. 대체로 중앙과 지방에서 관직 생활을 하며 지은 것, 다른 이의 작품에 차운한 것, 계절의 변화, 기후, 인물, 산천에 대해 읊은 것 등이 수록되어 있다. 권 1 에는 抄啓文臣으로 있으면서 正祖와 수창한 것 8 題, 親試에서 應製한 것 15 題가 실려 있다. <示鶴城諸生>은 安邊 府使 시절 學人들에게 「近思錄」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읊은 것이고, <敬次先祖拙齋先生九首詩韻>은 6 대 조 柳元之가 遺訓으로 남긴 시를 차운한 것으로 그 편목에 따라 敦睦, 自守, 涉世, 山居, 自責, 勸學, 讀書, 自省 등에 권면할 것을 노래하고 있다. 그 외에 정조, 孝明世子와 純祖의 輓詩도 실려 있다. 권 2 에는 다양한 인물들의 만시가 수록되어 있는데, 李龜雲, 李頤淳, 鄭光漢, 李根一, 金宗文, 鄭必奎, 高彥弼, 姜長欽 등 35 명에 대한 것이다. <朴上舍穉承赤城山館十六詠>은 朴箕寧이 적성산에서 우거하며 지은 시에 화답한 것으로 만년의 遊賞하고자 하는 뜻을 노래하고 있다.

권 3 은 疏(11)이다. <辭同經筵兼請立齋鄭先生贈爵疏>는 1831 년 同經筵의 직책을 사임하면서 鄭宗魯에게 贈爵해 줄 것을 청하는 글이다. <安邊府應旨陳民隱疏>는 안변 부사로 있을 때 안변을 비롯한 함경도 지방의 민정에 대해서 보고한 것이다. <屏山書院請額疏>는 안동의 사림을 대표하여 8 대조인 柳成龍을 모신 병산서원의 賜額을 청하는 상소문이다.

권 4 는 書(54)이다. 대체로 평범한 일상사에 관한 내용으로 韓致應, 蔡弘遠, 尹魯東, 鄭象晉, 金宗奎, 金重佑 등 지인에게 보낸 것에서부터 從兄 柳相祚, 從叔 江臯 柳尋春 등 친족에게 보낸 것이 있다. 그중 성리학과 시문에 능했던 종숙 유심춘에게 보낸 편지가 1795 년부터 1833 년까지 14 편이 있다.

권 5~7 은 中庸講義條對이다. 1797 년 초계문신으로 응제한 것인데, 정조의 條問을 먼저 제시하고 자신의 견해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권 5 는 서문에서 제 1 장까지이고, 권 6 은 제 2 장에서 제 13 장까지이며, 권 7 은 제 19 장부터 제 33 장까지이다.

권 8 은 大學問對, 大學故寔, 朱子大全故寔, 國朝故寔으로, 역시 초계문신으로 있을 때 응제한 것이다. 대학문대는 1796 년 「대학」의 '明德'에 대한 정조의 물음에 대해 답한 것이다. 대학교식은 1799 년 「대학」의 序, 經 1 章, 傳 2 章의 구절에 대해 설명한 것이고, 주자대전고식은 1799 년 주자의 글 11 조목에 대해 논의한 것이며, 국조고식은 1799 년 우리나라의 故事 6 조에 대해 강론한 것으로, 각 조목마다 말미에 정조의 批答이 첨부되어 있다.

권 9 는 序(17)이다. <方潭集序>는 權杠의 문집의 간행에 대해 기록한 것이고, <畊山集序>는 金鸞祥의 문집에 쓴 것이며, <永陽四難倡義錄序>는 임진왜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戊申亂 때 永陽(지금의 지금의 경상북도 永川)에서 활약한 의병들의 공적을 기록한 것에 붙인 글이다. <義莊節目序>는 형편이 어려운 종족을 돕기 위해 문중의 뜻을 모아 義莊을 설치하고 그 경위를 서술한 것이다. <安邊鶴浦社養士契節目序>는 안변 부사로 있을 때 그곳 鶴浦社의 유생들이 학업을 위하여 設契한 것에 대하여 격려하기 위해 지은 글이다. <生六臣集序>는 당형 유상조를 대신해서 지은 것으로 생육신의 문집을 간행한 경위를 밝히고 있다. 이 외에도 平山尹氏와 密陽朴氏의 族譜에 대한 것, 燕岐 邑誌에 대한 것 등이 있다.

권 10 은 記(6), 跋(15), 雜著(3), 傳(1)이다. 기 중 <晦山書堂記>는 朴孫慶 사후 '敬義'라는 東齋, '明誠'이라는 西齋, 晚霽樓를 합쳐 晦山書堂이라 명명한 것에 대해 기술한 것이다. <金海養士齋移建記>는 1820 년 김해 부사로 있을 때 燕子樓 곁에서 무너져 가던 養士齋를 남쪽으로 옮긴 것에 대한 내용이다. <潁陽精舍講堂記>는 조상의 祠宇가 있던 곳에 精舍를 세운 것에 대한 기록이고, <和敬堂記>는 부친이 세운 萬



壽堂을重修하고 和敬堂으로 이름을 바꾸게 된 이유에 대해 서술한 것이다. 발의 <芝峯實記跋>은 文宗朝의 大臣 皇甫仁에 관한 기록의 발문이고, <書三塘集戊午疏啓後>는 金瑛의 문집에 수록된 戊午士禍 때의 상소문에 대한 것이다. <敬題毅宗烈皇帝御筆寶帖後>는 '思無邪'라고 쓰인 명나라 毅宗의 御筆을 金重佑의 집에서 보고 거기에 붙인 것이다. <海東寶帖後識>는 仲弟 柳爽佐를 위해 구입했던 書帖을 동생의 사후에 상자에서 다시 발견하고 지은 글이다. 젊은 시절 과거를 보기 위해 석좌와 서울에 갔을 때 어떤 사람이 해진 書帖을 팔고자 하여 보니 楊士彦, 宋寅, 李山海, 韓濩, 李瑀 등 명필의 글씨와 이우가 金守愚를 위해 지은 後識가 붙은 것이므로 이것을 구하여 동생에게 주었는데, 평소 서예에 취미가 있던 유석좌가 매우 좋아하며 손에서 잠시도 놓지 않았던 일을 회상하는 내용이다. <金海備樂說>은 김해 부사로 있을 때 왜구를 막는 방법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설파한 것이고, <寓軒先生別廟立議>는 산촌에 치우쳐 있던 從先祖 柳世鳴의 사당을 강가로 옮기는 것에 대한 내용이다. <李大田先生傳>은 조선 전기의 문신 李甫欽에 대한 전기이다. 이보흠은 成三問, 朴彭年, 河緯地, 柳誠源, 李埜 등과 함께 集賢殿의 學士로서 「歷代通鑑」 등을 修撰하였으며, 徐居正, 康孝文 등도 학문이 뛰어나다고 평가했는데 세조가 단종의 왕위를 빼앗자 永川郡 半月峰 아래 은거하였고, 후에 順興府使 재임 시 錦城大君과 함께 단종 복위를 도모하다 실패하여 博川에 유배된 후 처형된 것을 기록하고 있다.

권 11은 敎書(6), 箋(2), 上樛文(5)이다. 교서는 함경도 관찰사 金履永, 황해도 관찰사 李相瓚 등에게 내린 것이다. 상량문은 北評事 시절 지은 文會堂의 改建 상량문과 高麗 때 인물인 成思齊의 神道碑閣, 東江書院과 洛淵里社의 講堂 등에 관한 것이다.

권 12는 奉安文(12), 常享祝文(8), 告辭(9), 祭文(37), 哀辭(4), 銘(2)이다. 봉안문은 鄭經世를 愚山書院에, 金宇顛을 晴川書院에 봉안하며 지은 것 등이다. 상향축문은 정경세, 김영, 金係錦 등에 관한 것이다. 고사는 부인 진성이씨 등에 대한 것이다. 제문은 채제공, 李鎭東, 李憲儒, 李元祥, 李寅標, 李汝翰, 李光一, 姜文欽, 三從叔 柳行春, 再從叔 柳國春 등 35 명에 대한 것이다. 애사는 崔世鳳, 權珮, 柳燁春, 鄭渤에 대한 것이다. <觚銘>은 초계문신 때 응제한 것으로 觚로 마음을 잡고 행동을 조절하겠다는 것이고, <手線紅帶銘>은 비단으로 紅帶를 만들어 준 모친의 은혜에 대한 것이다.

권 13은 碑銘(3), 墓碣銘(5)이다. 비명은 沈喜壽, 金太虛에 대한 것과 崔認, 崔誠, 崔東輔가 임진왜란 때 행한 충의를 기리기 위해 세운 三忠祠에 세운 碑에 새긴 것이다. 묘갈명은 李庭柏, 朴晉慶, 柳世哲 등 5 명에 대한 것이다.

권 14~15는 묘갈명(18)이다. 권 14는 柳世鳴, 李楨國, 許景胤, 李奎鎭, 李昌葉, 李瀟, 權希仁에 대한 것이고, 권 15는 李樹仁, 安德麟, 朴仁基, 張仲陽, 孫登 등 11 명에 대한 것이다.

권 16은 묘갈명(11), 墓誌銘(5)이다. 묘갈명은 柳世長, 崔彥璈, 孫儒杰, 柳熙之, 趙是光 등 11 명에 대한 것이다. 묘지명은 金宗壽, 李忠祿, 모친 연안이씨, 아우 유석좌와 유석좌의 처 鵝洲申氏에 대한 것이다.

권 17~18은 行狀(17)이다. 권 17은 權春蘭, 李珙, 金義貞, 朴慶傳, 朴慶胤, 李道孜, 權徵, 李熙一, 柳<sup>達</sup>에 대한 것이고, 권 18은 崔南復, 金瑞雲, 金弼衡, 李命培, 全希哲, 盧舜元, 周允昌, 張憲에 대한 것이다.

권 19는 家狀(3)으로 伯父 柳宗春, 부친 柳師春, 외조부 李之億에 대한 것이다.

권 20은 附錄이다. 李彙載가 지은 행장, 둘째 아들 柳祈睦이 지은 家狀, 당형 유상조가 지은 묘지명, 李鍾祥이 지은 묘갈명, 1839년에 조정에서 내린 賜祭文, 金英洛, 金甲淳, 金星魯, 朴周鷹, 金魯欽 등이 쓴 제문 21 편, 李羲發, 朴光錫, 崔昇羽, 李東迪, 李程淳, 李彙圭, 朴箕寧, 金重夏 등이 쓴 輓詞 22 수가 수록되어 있다.

## 유태좌(柳台佐)

### 정의

조선후기 『학서문집』을 저술한 학자.

### 개설

본관은 풍산(豊山). 자는 사현(士鉉), 호는 학서(鶴棲). 서울 출생. 아버지는 첨지중추부사 유사춘(柳師春)이며, 어머니는 연안이씨(延安李氏)로 예조판서 이억지(李億之)의 딸이다.

### 생애 및 활동사항

1794년(정조 18)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 승정원가주서가 되고 주자서(朱子書) 3책을 하사받았다.

1796년 경연에서 주자서와 『국조보감(國朝寶鑑)』을 진강하였고, 1800년에 사간원정언이 되었다가 곧 부여현령으로 나가 선정을 베풀었다.

홍문관부교리를 거쳐 북평사가 되어서는 학교를 세워 교육에 힘썼다. 이듬 해에 성균관사성을 지내고, 1807년(순조 7)에 안변부사가 되었을 때 화재로 소실한 무기고와 병기를 복구하였다. 1810년 군자감정과 홍문관교리를 지내고, 1820년 예조참의, 1822년 동부승지, 1829년 부총관·우승지·호조참판 등을 역임하였다.

그 뒤 향리에 돌아가 후진을 가르치면서 많은 저서를 남겼다. 성리학에 있어서는 이황(李滉)의 이기이원론(理氣二元論)의 견해를 따랐으며, 많은 학자를 배출하였다. 저서로 『학서문집(鶴棲文集)』 20권 10책이 있다.

### 卷之一 / 詩

대만신장 昌教 代輓申丈 昌教

19世 昌교(昌教) 父 : 성(暲) 祖父 : 중모 (重模) 읍파(邑派) 만오공파(晩悟公派)

南郭愴然晝掩扉。羲皇窻下客來稀。愛人藹若嬰兒善。寡欲全消點雪微。渭樹春雲犀共照。遼城斜日鶴先歸。二咸啓道賢孤子。無怙諸孫又失依。

代輓申文昌教  
 南郭儻然書掩扉。羲皇慮下客來稀。愛人藹若嬰兒善。  
 寡欲全消點雪微。渭樹春雲犀共照。道城斜日鶴先歸。  
 二咸啓道賢孤子。無怙諸孫又失依。  
 輓李剛齋承延  
 延陵恢拓舊垣墉。江右儒林一代宗。枳棘叢中人覩鳳。  
 蓬蒿門下士登龍。文違繡黻天心齋。壽嚮犀犀寧 聖世  
 逢仙鶴居然華表返。青山祖道慟墳曾。  
 哭族兄昌祚  
 花樹三年會。豐山百代親。士研斟醴酒。齊糝敵仙珍。  
 別山中客。忽驚泉下人。慕河堂構責。煥嗣典刑新。  
 輓李憲庵宗儒  
 公溥明通學聖功。斯言佩服見斯翁。窮經政自三餘得。  
 推孝能令一室融。杏樹陰邊蘭吐綠。蓮花社裏棗聯紅。  
 如今遽失高山仰。警誨從容尚在中。  
 輓權濯之進漢四首  
 種種貽謨草澗翁。肖孫同鼎尚餘風。白蒼最著詞壇譽。  
 滄海明珠寶采龍。  
 賓樓湖閣少年匆。洛社香檣遠客燈。文酒逢場皆勝友。  
 居然衰髮白鬢鬢。

鶴樓集 卷一

卷之十六 / 墓誌銘

의인아주신씨묘지 宜人鵝洲申氏墓誌

19世 창교(昌教) 父 : 성(暉) 祖父 : 중모 (重模) 음파(邑派) 만오공파(晚悟公派)

宜人鵝洲申氏。考諱昌教。祖諱暉。曾祖生員諱重模。修撰號晚悟諱達道之后。外祖李宜夏本永川。英廟乙酉生。正廟壬寅歸于我仲弟生員爽佐。孝友慈順。爲宗黨所稱。當宁乙酉十一月十二日歿。丙戌四月十日。改亡弟墓丑坐爲壬向。同日附壙左。實義城縣東冰山面中里後麓也。一男一女。男進明。女適眞城李彙老早歿。有二男皆幼。



成龍之八代孫也。曾祖諱聖和。縣監。贈參判豐陽君。祖諱湮。豐昌君。父通德。郎師春。母恭人延安李氏。判書之億之女。君以英廟戊子九月二十三日生。幼有美質。及長。器局峻整。才德兼備。孝友之行。高潔之操。為士友所推重。與季弟詰。祚聯中。正廟乙卯。增廣生員。今上三年癸亥三月初四日。歿于義城縣校村僑居。是年五月初八日。葬于縣南冰山中里丑坐之原。配鵝洲申氏。士人昌教女。有二男一女。男長進明。餘幼。有詩文若干卷。藏于家。

空人鵝洲申氏墓誌

鶴棲先生文集卷十六 二十六

空人鵝洲申氏。考諱昌教。祖諱焜。曾祖生員諱重模。修撰號晚悟。諱達道之后。外祖李空。夏本永川。英廟乙酉生。正廟壬寅歸于我。仲弟生員爽佐。孝友慈順。為宗黨所稱。當寧乙酉十一月十二日歿。丙戌四月十日。改公弟墓丑坐。為壬向。同日附殯左。實義城縣東冰山。面中里後麓也。一男一女。男進明。女適真城李彙。老早歿。有二男皆幼。

鶴棲先生文集卷之十六

四三一

卷之二十 / 附錄

제문[외제신면주] 祭文[外弟申冕周]

20世 면주(冕周) 父 : 흥교(弘教) 祖父 : 황 (煌) 읍파(邑派) 만오공파(晚悟公派)

嗚呼哀哉。惟公生有異質。克紹家學。本之以平實而加之以勤勵。持之以莊敬而濟之以溫雅。立志之確也。賁育不能奪。處事之周也。盛水而不漏。不以夷險而異心。不以貧富而易介。蓋自唯諾。已有此坏樸。而其淵源所漸。焉可誣也。及夫策名清朝也。蜚英騰茂。聖渥日隆。處堂后起居之班。則簪筆登墀。應對如流。任經幄論事之責。則因文衍義。啓沃弘多。貯承明著作之列。則登金門鳴玉佩。有賁飾皇猷之盛。膺民社分憂之寄。則恤民隱振士風。有

學道愛人之效。戀君憂國之誠。終始如一。而宦情如寄。進難退易。曾不能數月淹。亦可見剛毅果斷無一毫顧戀之私矣。平居日晨興盥櫛。展謁家廟。取洛建諸君子之書。手抄而口誦之。無一息之或間。無一念之或忽。以是而壯。以是而老。以是而布素。以是而金緋。八十年如一日。若公者豈非篤志力學清修之君子者哉。嗚呼。余兄弟與公及諸從兄弟。年紀不甚懸絕。志氣相與脗合。幼而同業。壯而同進。次第中聖朝甲乙之科。自以爲人間至樂。不幸十數年來。次第凋落。仲君蘭萎。舍伯云亡。余又晚出世路。迷不知方。公隨事規警。隨處提攜。我入玉署而公直喉院。公在摠府而我鎖春坊。拈韻賦詩。不覺更漏之已下。呼樽對酌。頓忘旅榻之酸苦。約以交修。歲寒爲期。公之於我。可謂愛而不知其惡矣。余獲罪神明。慘遭酷禍。俯仰天地。誰與爲命。尚幸公餘眷不衰。頻貽札翰。勉以無死。且有淵亭會勘之約而病未克踐。曾未幾何。公已寢疾矣。尚冀神理不僭。勿藥有喜。豈料數朔沈綿。竟至於斯耶。公歿未一年。尚書公繼捐館舍。後生初學。於何考德。而一脈世教。其將孰主而孰張之也。顧余頑縷。積瘁成疾。淹淹若泉下人。特一息未絕耳。非不知不悲者無窮極。而猶不能不悲。余一不知其何心也。於乎哀哉。



洛水重清。我公乃生。淵亭風月。書燈明滅。芳譽藹蔚。攝提王京。翰圈題名。喬木重榮。奎閣幾年。袞袞自天。并武羣賢。輝如瀛仙。晉接經筵。啓沃寔全。銅佩南北。操潔冰蘗。政由悃愾。擢春曹伯。寵以金玉。黃耆于國。慕先刊書。衛道封疏。儒林氣舒。并卷筆握。銘墓文刻。徵在金石。蓋公天賦。曰篤孝友。孺染已久。睦族之誠。信友之情。咸式典刑。踴琴續絃。庭玉塞蓮。錢界復圓。粵自結親。通犀交神。殆二十春。三枉弊廬。一造仙居。往來禮虛。秦鬼路塞。江舟音隔。徒切慕臆。壽期海屋。疾易華鬢。遠邇雷哭。青烏協吉。延劔同穴。宿願斯畢。阿女涕洟。獅孫承衰。我曷不悲。難強衰殼。替奠窀穸。靈庶降格。

鶴棲先生文集卷三

四十五

又

外弟申冕周

嗚呼哀哉。惟公生有異質。克紹家學。本之以平實。而加之以勤勵。持之以莊敬。而濟之以溫雅。立志之確也。資育不能奪。處事之周也。盛水而不漏。不以夷險而異心。不以貧富而易介。蓋自唯諾。已有此坏。僕而其淵源所漸。焉可誣也。及夫策名清朝也。斐英騰茂。聖渥日隆。處堂后起。居之班。則簪筆登輝。應對如流。任經幄論事之責。則因文衍義。啓沃弘多。貯

鶴棲集 卷二十

承明著作之列。則登金門。鳴玉佩。有貴飾皇猷之威。膺民社分憂之寄。則恤民隱。振士風。有學道愛人之效。戀君憂國之誠。終始如一。而宦情如寄。進退易。曾不能數月淹。亦可見剛毅果斷。無一毫顧戀之私矣。平居日晨興。盥櫛展謁家廟。取洛建諸君子之書。手抄而口誦之。無一息之或間。無一念之或忽。以是而壯。以是而老。以是而布素。以是而金緋。八十年如一日。若公者。豈非篤志力學。清修之君子者哉。嗚呼。余兄弟與公及諸從兄弟。年紀不甚懸絕。志氣相與。膾合幼而同業。壯而同進。次第中。聖朝甲乙之

鶴棲先生文集卷三

四十六

科。自以為人間至樂。不幸十數年來。次第凋落。仲君蘭萎。舍伯云亡。余又晚出世路。迷不知方。公隨事規警。隨處提攜。我入玉署。而公直喉院。公在摠府。而我鎖春坊。拈韻賦詩。不覺夏漏之已下。呼樽對酌。頓忘旅榻之酸苦。約以交修。歲寒為期。公之於我。可謂愛而不知其惡矣。余獲罪神明。慘遭酷禍。俯仰天地。誰與為命。尚幸公餘眷不衰。頻貽札翰。勉以無死。且有淵亭會勘之約。而病未克踐。曾未幾何。公已寢疾矣。尚冀神理不僭。勿藥有喜。豈料數朔沈綿。竟至於斯耶。公歿未一年。尚書公繼捐館舍。後生初學。於何考

五〇七



德而一脈世教其將孰主而孰張之也。顧余頑縷積  
瘁成疾。淹淹若泉下人。特一息未絕耳。非不知不悲  
者無窮極。而猶不能不悲。余一不知其何心也。於乎  
哀哉。

又

李同淳

河嶽鍾靈。奎璧應精。匡翁為祖。詩禮典型。正考臨  
宇。遭遇文明。盛時人物。孰與公并。清標直氣。自少超  
常。肥于家政。孝友慈詳。薄遊藝苑。陣馬風檣。拾紫如  
芥。穩步康莊。三朝歷敷。一心忠悃。儒臣雅望。聖  
主隆眷。玉署銀臺。次第翱翔。四典州縣。祿養高堂。晚

鶴棲先生文集卷十

四七

躋卿月。位高愈下。肆哉堂伯。并峙八座。重我南方。伊  
誰之功。懸車賦歸。閒臥滄江。山明水麗。艇月沙鷗。平  
地癯仙。晚界菟裘。左圖右書。後圃前畦。澆花蒔藥。杖  
屨盤礴。發為文章。于金于石。滿架黃卷。閉戶玄言。勸  
進後學。於佩彬彬。佳孫克世。兩郎聯席。優遊卒歲。八  
十寧康。儼扶斯文。三達靈光。天胡不憇。催馭岱宗。鄉  
邦珍瘁。士林咸恫。小子鹵莽。夙荷提撕。叨承宿跡。躡  
後攀躋。冥行適地。恃公牖迷。瞬矇濼撤。山斗安仰。并  
州故鄉。增我惻愴。佳城載卜。密邇泉隧。泉臺德鄰。天  
意豈偶。屬此遷爻。敬辨心香。公靈不昧。庶賜歆嘗。

## 학송집(鶴松集)

### 형태서지

권수제	문집(文集)
판심제	학송집(鶴松集)
간종	목판본(木版本)
간행년	1713년 간행
권책	불분권(不分卷) 1책
행자	10행 18자
규격	23.0×18.6(cm)
어미	上下二葉花紋魚尾
소장처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소장도서번호	D3B-2973
총간집수	한국문집총간 속 14

### 저자

성명	전유형(全有亨)
생년	1566년(명종 21)
몰년	1624년(인조 2)
자	숙가(叔嘉)
호	학송(鶴松), 학봉(鶴峯)
본관	평강(平康)
시호	의민(義敏)
특기사항	정구(鄭述)의 문인

행력

왕력		서기	간지	연호		연령	기사
명종	21	1566	병인	嘉靖	45	1	3 월 4 일, 태어나다.
선조	23	1590	경인	萬曆	18	25	6 월, 장남 全翎가 태어나다.
선조	25	1592	임진	萬曆	20	27	趙憲과 함께 의병을 모으다.
선조	26	1593	계사	萬曆	21	28	1 월, 형의 상을 당하다. ○ 2 월, 부친상을 당하다. ○ 7 월, 軍國, 禦倭에 대하여 10 여 조항의 方略을 상소하다. ○ 起復하여 적을 치라는 명이 내리자 상을 마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소하다. ○ 10 월, 군사감 참봉에 제수되다. ○ 윤 11 월, 민심을 얻을 것과 用人의 중요성에 대해 상소하다.
선조	27	1594	갑오	萬曆	22	29	1 월, 훈련도감 낭청, 淸安縣監 兼 助防將이 되다. ○ 6 월, 모친상을 당하다. ○ 충청 감사 尹承勳이 치계하여 기복시켜 유임시킬 것을 청하다.
선조	31	1598	무술	萬曆	26	33	차남 全綱이 태어나다.
선조	35	1602	임인	萬曆	30	37	7 월, 삼남 全鏞이 태어나다.
선조	36	1603	계묘	萬曆	31	38	1 월, 時務疏를 올린다.
선조	38	1605	을사	萬曆	33	40	6 월, 庭試에 장원하다. ○ 7 월, 사복시 주부가 되다. 사헌부 감찰에 낙점을 받았으나 간원이 喪禮를 제대로 행하지 못했다고 파직을 청하여 仕版에서 削去되다.
선조	41	1608	무신	萬曆	36	43	7 월, 武學 教授가 되다.
광해 군	1	1609	기유	萬曆	37	44	8 월, 黃州 判官이 되다.
광해 군	2	1610	경술	萬曆	38	45	8 월, 咸興 判官이 되다. ○ 10 월, 延曙 察訪이 되다. ○ 時弊에 대한 상소를 올린다.
광해 군	3	1611	신해	萬曆	39	46	1 월, 樂安 郡守, 예조 정랑이 되다. ○ 4 월, 安城 郡守가 되다.
광해 군	5	1613	계축	萬曆	41	48	3 월, 병조 정랑, 大同 察訪이 되다. ○ 4 월, 甕津 縣令이 되다.
광해 군	7	1615	을묘	萬曆	43	50	4 월, 長淵 縣監이 되다.
광해 군	8	1616	병진	萬曆	44	51	11 월, 부호군이 되다.
광해 군	9	1617	정사	萬曆	45	52	1 월, 승지가 되다. ○ 10 월, 蔚山 府使, 慶州 鎭管 兵馬僉節制使가 되다.



광해 군	10	1618	무오	萬曆	46	53	5 월, 병조 참의가 되다. 仁慶宮 공사를 중단할 것, 방비책에 뜻을 둘 것을 상소하다. ○ 8 월, 江華, 南漢山 등지에 城池를 수축하여 후일에 대비할 것을 상소하다. ○ 9 월, 廣州 牧使가 되다.
광해 군	13	1621	신유	天啓	1	56	사위 申之益의 이름으로 李爾瞻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리자 이이첨이 兩司를 사주하여 反逆으로 지목하여 拿鞫定罪를 청해서 삭탈관작되다.
인조	1	1623	계해	天啓	3	58	3 월, 직첩을 환수받고 부호군, 오위도총부 부총관이 되다. ○ 5 월, 동지중추부사가 되다. ○ 6 월, 형조참판 겸 비변사유사당상, 경연특진관이 되다. ○ 7 월, 椴島問安使가 되어, 임진왜란 후 진흙해 준 山東의 곡식 10 만석을 배상하라는 毛文龍에게 간청하여 탕감받다. ○ 巡檢使가 되어 兩西의 城池를 살펴보고 외침대비책을 진술하다.
인조	2	1624	갑자	天啓	4	59	李适의 난이 일어나자 난군과 대응했다는 李佑 등의 무고를 받아 1 월 24 일, 처형되다. ○ 槐山 牛巖에 장사 지내다.
숙종	39	1713	계사	康熙	52	—	증손 全爾樟 등이 목판으로 문집을 간행하다.
영조	18	1742	임술	乾隆	7	—	槐山の 花巖書院에 배향되다.

## 편찬및간행

저자의 저술은 미리 江都에 보관하였다가 병자호란 때 대부분 산일되었다고 한다. 손자 全起淵이 저자의 日記와 槐山 舊家에서 찾은 시문을 수습하여 약간 권으로 裒錄하고 말미에 毛文龍의 答書를 첨부하여 1 책으로 만들어 家藏하였다.

그 후 증손 全爾樟이 居昌 縣監으로 재임 중 兄 全爾根 등의 협조를 받아 1713 년에 불분권 1 책의 문집을 목판으로 간행하였다.《초간본》 이 본은 성균관대학교 존경각(D3B-2973),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D1-A2876),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본서의 저본은 1713 년 목판으로 간행한 초간본으로 성균관대학교 존경각장본이다.

識(全爾根 撰) 등에 의함

## 구성과내용

본집은 불분권 1책으로 鶴松日記와 文集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송일기는 1592년 4월 13일 왜적이 침입한 기사부터 1623년 12월 동지중추부사가 된 일까지 기록한 것이다. 1592년 4월 기사에는 왜적에 의해 부산이 함락되자 東萊 府使 宋象賢이 순절한 기사, 宣祖가 義州로 幸行한 일, 저자가 격문을 지은 일이 기록되어 있다. 5월에는 6일에 趙憲이 槐山으로 와서 義兵에

관한 일을 상의한 것 등이 실려 있다. 7월과 12월에는 天兵이 遼河를 건넜다는 기사가 실려 있다. 1593년 1월에는 형이 병으로 졸한 일, 2월에 부친상을 당한 일, 8월에 起復시켜 수용하라고 충청 감사 許瑣에게 전교한 일, 9월에 힘을 다해 적을 물리치는 것이 효도이니 장례를 마치는 대로 올라오라고 전교한 일, 10월에 장례를 마치고 군자감 참봉에 제수된 일 등이 실려 있다. 1594년 1월에 훈련도감 낭청에 제수된 일, 민심을 안정시키는 방법과 요해처에 城池를 구축할 것 등 時事에 대해 宣祖와 주고받은 말, 淸安 縣監에 제수되어 貢賦를 감면 받은 일, 청안으로 내려가는 여정, 6월에 모친상을 당하고 장례 치른 일, 왜적의 번고가 긴급하다는 말을 듣고 상례가 끝나기 전에 기복한 일을 기록하였다. 1603년 봄에 만언소를 올린 일, 1605년 6월에 庭試에 합격한 일, 1609년에 黃州 判官, 1610년에 咸興 判官, 1613년에 甕津 縣令, 1618년에 廣州 牧使 등 관직에 제수된 일 등을 기록하였다. 1623년에 椴島에 주둔한 毛文龍이 軍資가 부족하니 임진왜란 후에 진흙해 준 10만석을 배상하라고 하자 椴島問安使로 특차되어 모문룡에게 호소해서 탕감받은 일 등을 기록하였다.

문집은 詔 1편, 論 1편, 疏 4편, 辨 2편, 說 4편, 碑銘 1편, 기타 3편, 詩 4題, 呈文 4편이다. <擬唐太宗立 仆碑詔>는 庭試 때의 應製로, 唐太宗이 魏徵을 회고하며 碑를 다시 세워 九泉에 있는 영혼을 위로하는 내용으로 擬作한 것이다. <欲哭不可論>은 初試 때의 글로 箕子가 周에 조회하러 가면서 殷墟를 지나며 곡하지 않은 것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지 마음속으로 깊이 곡을 한 것이요, <麥秀歌>를 지어 속마음을 드러내서 천하 만세인들을 곡하게 한 것이니 어진 이의 행적이라고 논한 것이다. <禮辨>은 양자가 된 이는 생부를 위해 斬衰服을 입거나 삼년상을 행하면 안 된다는 등의 喪禮에 대해 논한 것이다. <蜃樓記>는 바다에서 아침해가 떠오를 때 본 신기루가 阿房宮과 같이 수천칸의 누각의 모습을 갖추었다며 자세히 묘사한 것이다. <四勿說>은 여러 제자 중에 顔子만이 禮의 全體大用을 깨닫고 하나의 勿字를 들었는데도 視聽言動을 살피 능히 私欲을 제거했다며 성현의 가르침에 대해 논한 것이다.

詩 가운데 <丁酉在新塘有感>은 가을 저녁 귀뚜라미 울음소리를 듣고 나라가 언제나 편해지려나 걱정하는 것이다. <開城府懷古>는 개성에 대해 읊는 이들이 고려 왕조의 흥망의 운수에 대해서만 말하고 鄭夢周나 徐敬德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두 선생의 道德을 회상하며 지은 것이다. 呈文은 모두 문안사로서 모문룡에게 올린 글이며, 끝 부분에 都督 모문룡의 답서가 실려 있다.

권말에 증손 全爾根이 1713년에 지은 識가 실려 있다.

## 전유형(全有亨)

### 형태서지

조선시대 청안현감, 광주목사, 형조참판 등을 역임한 문신.

### 개설

본관은 평강(平康). 자는 숙가(叔嘉), 호는 학송(鶴松). 아버지는 전인(全愔)이다.

## 생애 및 활동사항

괴산의 유생으로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조헌(趙憲)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다.

이듬해 왜군을 방어하기 위한 책략 10 여조를 올려 선조의 칭찬을 받았으며, 재주를 인정받아 군사감참봉에 임명되었으나 아버지의 상을 당해 사임하였다. 이 때 다시 민심수습방안 등을 상소해 유성룡(柳成龍)으로부터도 주목받아 1594년(선조 27) 특별히 청안현감에 임명되었으며 충청도조방장을 겸해 왜적의 격퇴에 노력하였다.

1603년에는 봉당타파·세자보호 등을 포함한 시사(時事)에 관한 15 조목의 소를 올려 조정에 파문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1605년 40세의 나이로 정시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해 감찰로 발탁되었으나 전란 중에 부모의 상을 의례에 맞게 치르지 못했다는 사간원의 탄핵으로 파직되었다.

광해군이 즉위하면서 다시 서용되어 함흥판관 등의 외직을 거쳐 분병조참의·광주목사(廣州牧使)·형조참판 등을 지냈으며, 이이첨(李爾瞻)과 세력을 다투던 임취정(任就正)과 결탁해 이이첨을 탄핵하는 소를 올리기도 하였다.

의술에도 조예가 깊어 광해군과 왕비의 병을 고치는 데 참여했으며 「오장도(五臟圖)」도 그렸다. 인조반정이 일어난 뒤에도 재능을 인정받아 문안사로 발탁되어 모문룡(毛文龍)에게 가서 군량을 계속 대기 어려운 연유를 설명하고 이를 주선했으며, 평안도를 내왕할 때 창성·의주 등 성의 방비상태를 아울러 살피고 돌아왔다.

1623년(인조 1) 동지중추부사 때 이유림옥사(李有林獄事)가 일어나자, 그를 석방해 벼슬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당류를 고변하게 하자고 청했다가 조정을 멸시했다는 사헌부의 탄핵을 받아 파직되었다. 이듬해 이괄(李适)의 난이 일어나자 난군과 대응했다는 무고를 받아 정상적인 절차도 없이 성철(成哲) 등 37인과 함께 참형을 당하였다.

그 뒤 [신원\(伸冤\)](#)<sup>주 01)</sup>되어 이조판서에 추증되고, 1742년(영조 18) 괴산의 화암서원(花巖書院)에 배향되었다. 저서로는 『학송집』 1권이 전한다. 시호는 의민(義敏)이다.



文集 丙子亂中蕩失。僅得若干書之。

신유윤이월팔일。대제。서유학신지익소。辛酉閏二月八日。代製。婿幼學申之益疏

14世 지익(之益) 父 : 로(櫓)      祖父 : 천령(千齡)      귀파(龜派)      직장공파(直長公派)

伏以臣謹按坤之初六曰履霜堅冰至。先儒程頤從而釋之曰陰之始凝而爲霜。馴致其道。至堅冰也。人主待小人之道。亦猶是也。若不制之於其始。而馴致其道。至於權勢已盛。則雖欲制之。不能也。昔唐文宗謂周墀曰朕何如周赧漢獻。墀對曰彼皆亡國之主。豈可比聖德。文宗曰赧獻受制於強諸侯。今朕受制於家奴。殆不如也。泣下沾襟。夫文宗唐家之明主也。宦寺宮中之一奴僕也。以明主御奴僕。進之退之。在於號蹴之間。而馴致其道。及其權勢已盛。則制之極難。至於泣下而不能却之。非其明不足以察其奸。智不足以退其邪也。權移於臣而威奪於下也。彼宦寺之志。不越乎貪權固寵。而制之極難如此。况如趙高王莽之類。不能制之於始。而乃欲治之於終。不亦難乎。臣伏見李爾瞻非向來宦寺之類也。其賢愚邪正。固非山野孤蹤所能預知。然國人皆曰兇狡奸慝。前古無比。則亦可以知其爲人矣。以其見出於政事間者而言之。締結羣邪。作爲腹心。臺諫侍從。皆出其門下。或有言其罪者。則輒招兩司。羣起而攻之。曾經臺侍者。猶被遠竄。階列正卿者。未免下獄。至於儒生及宗室之陳疏者。皆下於禁府。按之以重律。或死於杖下。或投諸荒裔。此則趙高王莽之所未聞也。且禁府王獄也。非有關係宗社國家之罪。則不得囚於王獄。臣不敢知言爾瞻之罪者。有何關係宗社國家之罪。而乃敢治之以王獄乎。臣之惑至此而滋甚矣。然及是時而抑之。則禍猶未也。惟其不能抑而制之。故勢日熾而惡日長矣。臣竊聞爾瞻於頃歲。敢爲詐筭。請殿下勿與虜酋和。吁殿下何嘗有一毫講和之意哉。渠敢倡爲此說。以沽其直。非欲納殿下於無過之地也。有心於彰殿下之惡名而傳播於中國也。渠之意恐或見洩。無所逃罪於聖明之下。則先自大鳴。欲爲贖人免罪之計。豈不兇且慘哉。其傳播於中國。而刊行與否。則臣不敢知也。而虛實之間。既已出於人口。傳於人耳。如鄭之良等疏所云。則人臣而負此名者。何面目立於天地間乎。大槩爾瞻之縱恣無忌憚。其所由來者漸矣。申景禧爾瞻之家臣也。及其兇謀現發。被捉於爾瞻之家。而人皆畏之。莫敢以一言聞之于殿下。許筠之卵育於爾瞻。無異父子。逆狀既著。經先殺之。以滅其口。而人皆畏之。莫敢以一言聞之于殿下。黃廷弼之奴事爾瞻。國人所共知。嚴鞠廷弼。則直招必矣。爾瞻慮有此患。夜使人潛殺之。結案捧招之時。死已久矣。不得受其著名。乃摸手寸。有若不識一字者之所爲。吁廷弼累度上章者也。一息尚存。則不能著名乎。觀於柳希發啓辭則可知矣。殿下試出其結案而考之。著名乎着手寸乎。著名則未死之前也。着手寸則已死之後也。此則一國之人。有耳者皆得聞之。有口者皆得言之。昭昭乎不啻如十目之難掩。而爾瞻乃敢上筭。欺罔聖明日廷弼臨刑時。大呼其妻。欲掩經斃之跡。是可忍也。孰不可忍也。臣而欺君。在法當誅。而人皆畏之。莫敢以一言聞之于殿下。嗚呼。爾瞻行兇之狀。一國之人。耳能聞而目不忍見之。目能見而口不敢言之。是緘一國之口而結一國之舌也。一國之舌皆結而不敢言。則不測之禍。朝暮且急。而殿下無得以知之矣。夫如是然後爾瞻始能唾手自詔曰。莫我毒也。其所以爲兇者。將何所不至

。然渠之所大畏者。殿下聖聰過於堯舜。度其終不能欺蔽日月。故敢爲趙高指鹿之計。盡招兩司於渠家。而論黃吉男之罪。諫院先之。憲府未及繼之。而幸賴聖明先燭奸狀。遂下嚴批。故止之耳。嗚呼。彼鹿與馬皆獸也。帝王養在九重之內。庸或有不<sup>P</sup>能辨之理乎。至於李偉卿之奴婢。摔出土大夫之妻。赤脫其裙襪。古今所未有之變也。我國之所以維持者。以其貴賤名分。截然不相犯也。微末儒生之有罪當執者。亦使巫女探其家內。不許雜人闖入。所以重士族之妻也。不有偉卿則吉男之疏。何自而至乎。吉男之疏。出於訴冤。偉卿之疏。出於誦非。以三代立肺石達下情之法準之。則罪在於偉卿。而不在於吉男。欲止其鬪。當治偉卿。是非之所在。雖三尺童子。皆能知之。爾瞻敢爲變亂黑白之論以試之。要作壅蔽聰<sup>P</sup>明之赤幟。此則趙高之所不敢爲者也。夫趙高之欲杜天下之口者。豈下於爾瞻哉。然而不敢肆然加罪於人。而只能陰中諸言鹿者。是猶有所畏忌也。爾瞻則自謂權勢已重。何事於陰中乎。遂肆然指揮三司。無異自己使喚之奴輩。生人殺人。惟意所欲。是趙高而甚者也。不亦可畏乎。至於妖賊之出入宮禁。敢爲咀呪之變。係是宗社之大逆也。不有引者。渠何能入乎。爾瞻身爲禁府長官之日。使此逆魁。處於凍地。有似乎欲其經斃而滅口者然也。雖或爲獄卒之所爲。<sup>P</sup>而爲長官者。安敢辭其責乎。況本府郎廳盡是爾瞻門生者乎。自十餘年來。非出於爾瞻之門下。則不得爲禁府都事。此亦爾瞻之心。路人之所共知者如是也。及其適此職也。敢上詐筭。一以爲沽直販君之資。一以爲欺人自免之地。其心所在。明若觀火。渠雖至巧。安能逃於天地之量日月之明乎。聖批一下。渠無辭矣。然臺諫之默無一言者。皆是卵育於爾瞻之門下者也。知有爾瞻。不知有殿下。爾瞻之權。不亦重於殿下乎。伏願殿下及是時而制之。俾無其<sup>P</sup>後也悔焉。若過乎此。則臣恐非復爲殿下所制之物也。安保其必無昔日唐文宗之泣乎。伏願殿下爲宗社深思焉。嗚呼。王守澄非無翊戴功於唐文。而權勢已重。則終使文宗下泣。韓侂胄非無定策功於宋寧。而權勢已重。則欲受寧宗九錫。李爾瞻非無保護功於殿下。而權勢已重。則縱恣無忌憚。至於如此。自古及今。小人之情狀。如出一轍。豈不爲聖明之龜鑑乎。朱雲之借劔於漢庭者。卽今日其會也。嗚呼。好生惡死。人之至情也。生固可好。而生有所不苟<sup>P</sup>焉。死固可惡。而死有所不避焉。十餘年來。言爾瞻之罪而被重罪者。前後相望。臣雖至愚。亦曰人也。言之則死。不言則生。固已知矣。猶且言之而不之避者。所重在於宗社。而一身之死生。有不足慮也。伏願殿下哀其志而察其忠。則宗社之福也。臣無任披肝瀝血隕越屏營之至。謹昧死以聞。

### 兩司合啓論治事

答曰原疏未下。兩司之啓。何爲徑發乎。況未知疏中有何辭說。則尤不可若是其鶻突也。李爾<sup>P</sup>瞻既已受命下去。寧有以一儒之疏。不得察任之理乎。請治言者。殊非美意。更勿瀆擾於靜攝之中。



休屠戮相尋。生民之命。寄諸刀鉅鋒刃之下。殆無一日寧息。必至相殺且盡。無一人而浚已也。於此知忠臣孝子之志。非直為一時慷慨赴節而已也。實為天下後世百萬億蒼生計也。吾見亂臣賊子。雖得陸梁跋扈於一時。而未過數十年。無不身首橫分。子孫誅夷。而忠臣義士守死善道。捐軀報國。雖為一時所悲歎。而其遺風餘訓。足以使其子孫善者守之。惡者戒之。傳之千萬年。而無芟夷誅戮之禍者。十常八九。忠臣之所以受報於天者。吁亦遠矣。嗚呼。世之人見死於忠者。皆以為賦命奇薄。不知所以為受福也。愚敢著之為說。使亂臣賊子知所懼。而忠臣孝子知所勉也。

辛酉閏二月八日。代製。婚幻學申之盜疏。伏以臣謹按坤之初六曰履霜。堅冰至。先儒程頤從而釋之曰。陰之始凝。而為霜。馴致其道。至堅水也。人主待小人之道。亦猶是也。若不制之於其始。而馴致其道。至於權勢已盛。則雖欲制之。不能也。昔唐文宗謂周墀曰。朕何如。周赧漢獻。墀對曰。彼皆亡國之主。豈可比聖德。文宗曰。

鶴松集

赧獻受制於強諸侯。今朕受制於家奴。殆不如也。泣下沾襟。夫文宗唐家之明主也。宦寺宮中之一奴僕也。以明主御奴僕。進之退之。在於號號之間。而馴致其道。及其權勢已盛。則制之極難。至於泣下而不能却之。非其明不足以察其奸。智不足以退其邪也。權移於臣而威奪於下也。彼宦寺之志。不越乎貪權固寵。而制之極難如此。况如趙高王莽之類。不能制之於始。而乃欲治之於終。不亦難乎。臣伏見李爾瞻非向來宦寺之類也。其賢愚邪正。固非山野孤蹤所能預知。然國人皆曰。兇狡奸惡。前古無比。則亦可以知其為人矣。以其見出於政事間者而言之。締結羣邪。作為腹心。臺諫侍從。皆出其門下。或有言其罪者。則輒招兩司。羣起而攻之。曾經臺侍者。猶被遠竄。階列正卿者。未免下獄。至於儒生及宗室之陳疏者。皆下於禁府。按之以重律。或死於杖下。或投諸荒裔。此則趙高王莽之所未聞也。且禁府王獄也。非有關係宗社國家之罪。則不得囚於王獄。臣不敢知言爾瞻之罪者。有何關係宗社國家之罪。而乃敢治之以王獄。

四九一



乎。臣之惑至此而滋甚矣。然及是時而抑之。則禍猶未也。惟其不能抑而制之。故勢日熾而惡日長矣。臣竊聞爾瞻於頃歲。敢為詐劄請。殿下勿與虜酋和。呼。殿下何嘗有一毫講和之意哉。渠敢倡為此說。以沽其直。非欲納殿下於無過之地也。有心於彰。殿下之惡名而傳播於中國也。渠之意恐或見洩。無所避罪於聖明之下。則先自大鳴。欲為資人免罪之計。豈不兇且慘哉。其傳播於中國。而刊行黃香。則臣不敢知也。而虛實之間。既已出於人口。傳於人

鶴松集

五

五

耳。如鄭之良等。疏所云。則人臣而負此名者。何面目立於天地間乎。大槩爾瞻之縱恣無忌。憚其所由來者漸矣。中景禧爾瞻之家也。及其兇謀現發。被授於爾瞻之家。人皆畏之。莫敢以一言聞之于殿下。許筠之亦有於爾瞻。無異父子。遂伏既著。經先殺之。以滅其口。而人皆畏之。莫敢以一言聞之于殿下。黃廷弼之奴事爾瞻。國人所共知。嚴鞠廷弼。則直招必矣。爾瞻慮有此患。夜使人潛殺之。結案捧招之時。死已久矣。不得受其著名。乃摸手寸。有若不識一

字者之所為。呼廷弼累度上章者也。一息尚存。則不能著名乎。觀於柳希發啓辭。則可知矣。殿下試出其結案而考之。著名乎。着手寸乎。著名則未死之前也。着手寸則已死之後也。此則一國之人。有耳者皆得聞之。有口者皆得言之。昭昭乎不啻如十日之難掩。而爾瞻乃敢上劄欺罔。聖明曰。廷弼臨刑時。大呼其妻。欲掩經斃之跡。是可忍也。孰不可忍也。臣而欺君。在法當誅。而人皆畏之。莫敢以一言聞之于殿下。嗚呼。爾瞻行兇之狀。一國之人。耳能聞而目不

鶴松集

五

五

忍見之。目能見而口不敢言之。是緘一國之口。而結一國之舌也。一國之舌皆結而不敢言。則不測之禍。朝暮且急。而殿下無得。以知之矣。夫如是。然後爾瞻始能唾手自詭曰。莫我毒也。其所以為兇者。將何所不至。然渠之所大畏者。殿下聖聰過於堯舜。度其終不能欺蔽日月。故敢為趙高指鹿之計。盡招兩司於渠家。而論黃吉男之罪。諫院先之。憲府未及。繼之。而章額。聖明先燭奸狀。遂下嚴批。故止之耳。嗚呼。彼鹿與馬皆斂也。帝王養在九重之內。庸或有不



能辨之理乎。至於李偉卿之奴婢。捧出士大夫之妻。赤脫其裙襪。古今所未有之變也。我國之所以維持者。以其貴賤名分。截然不相犯也。微末儒生之有罪當執者。亦使巫女探其家內。不許雜人闖入。所以重士族之妻也。不有偉卿則吉男之疏。何自而至乎。吉男之疏。出於詆寬。偉卿之疏。出於飾非。以三代立肺石。達下情之法。準之則罪在於偉卿。而不在于吉男。欲止其鬪。當治偉卿。是非之所在。雖三尺童子。皆能知之。爾瞻敢為變亂黑白之論。以試之。要作齷齪聰

鶴松集

五十三

明之赤幟。此則趙高之所不敢為者也。夫趙高之欲杜天下之口者。豈下於爾瞻哉。然而不敢肆然加罪於人。而只能陰中諸言鹿者。是猶有所畏忌也。爾瞻則自謂權勢已重。何事於陰中乎。遂肆然指揮三司。無異自已使唆之。如童生人殺人。惟意所欲。是趙高而甚者也。不亦可畏乎。至於妖賊之出入宮禁。敢為咀咒之變。係是宗社之大逆也。不有引者。渠何能入乎。爾瞻身為禁府長官之日。使此逆魁。處於凍地。有似乎欲其經斃而滅口者然也。雖或為擢率之所為。

鶴松集

而為長官者。安敢辭其責乎。况本府即廳。盡是爾瞻門生者乎。自十餘年來。非出於爾瞻之門下。則不得為禁府都事。此亦爾瞻之心。路人之所共知者如是也。及其達此職也。敢上詐劄。一以為沽直販君之資。一以為欺人自免之地。其心所在。明若觀火。渠雖至巧。安能逃於天地之量。日月之明乎。聖批一下。渠無辭矣。然臺諫之默無一言者。皆是卵育於爾瞻之門下者也。知有爾瞻。不知有 殿下。爾瞻之權。不亦重於殿下乎。伏願 殿下及是時而制之。俾無其

鶴松集

五十四

後也。悔焉。若過乎此。則臣恐非復為 殿下所制之物也。安保其必無昔日唐文宗之泣乎。伏願 殿下為宗社深思焉。嗚呼。王守澄非無翊戴功於唐文。而權勢已重。則終使文宗下泣。韓侂胄非無定策功於宋寧。而權勢已重。則欲受寧宗九錫。李爾瞻非無保護功於 殿下。而權勢已重。則縱恣無忌。憚至於如此。自古及今。小人之情狀。如出一轍。豈不為 聖明之龜鑑乎。朱雲之借劔於漢庭者。即今日其會也。嗚呼。好生惡死。人之至情也。生固可好。而生有所不為。

四九三

鶴松集

馬死固可惡而死有所不避焉。十餘年來言爾  
瞻之罪而被重罪者前後相望。臣雖至愚亦曰  
人也言之則死不言則生固已知矣。猶且言之  
而不之避者。所重在於宗社而一身之死生有  
不足慮也。伏願 殿下哀其志而察其忠。則宗  
社之福也。臣無任披肝瀝血頂越屏營之至。謹  
昧死以聞。

兩司合啓論治事

啓曰原疏未下。兩司之啓何為徑叢乎。况未知  
疏中有何辭說。則尤不可若是其鶻突也。李爾

鶴松集

五五

瞻既已受命下去。寧有以一儒之疏。不得察任  
之理乎。請治言者。殊非美意。更勿瀆擾於靜攝  
之中。

再疏 辛酉二月十日 代製

臣伏見兩司合啓之辭。驚懼戰慄。五情飛越。兩  
司皆是爾瞻之門生也。論啓之必叢。固已知之  
矣。至於合啓則不亦甚乎。爾瞻權勢之盛如此  
之極。臣亦未曾料也。臣之血疏。豈徒然哉。爾瞻  
曾以渠劄潛逸于 中朝。要賣 殿下。此言誠  
是也。則賓接之際。安知其必無販君賣國之變



## 후계집(後溪集)

## 형태서지

권수제	후계집(後溪集)
판심제	후계집(後溪集)
간종	목판본(木版本)
간행년	1860년대 후반
권책	10권 6책
행자	10행 18자
규격	21.8×17.4(cm)
어미	上下二葉花紋魚尾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도서번호	古 3428-805
총간집수	한국문집총간 269

## 저자

명	이이순(李頤淳)
생년	1754년(영조 30)
몰년	1832년(순조 32)
자	치양(桴養)
호	후계(後溪), 만와(晩窩), 금재(兢齋), 육우당(六友堂), 육우헌(六友軒), 기은(杞隱)
본관	진보(眞寶)
초명	성갑(聖甲)
초자	비언(斐彦)

행력

왕력		서기	간지	연호		연령	기사
영조	30	1754	갑술	乾隆	19	1	12월 3일, 溪上에서 태어나다.
영조	37	1761	신사	乾隆	26	8	三從大父 李世胤에게 「小學」을 배우다.
영조	47	1771	신묘	乾隆	36	18	禮安李氏 李漢佑의 딸과 혼인하다.
영조	50	1774	갑오	乾隆	39	21	8월, 稱慶 庭試를 보기 위해 형 李鍾淳, 權浩 등 7인과 竹嶺을 넘어 安盤川에 이르러 배를 사서 타고 가며 神勒寺, 豆毛浦, 讀書堂을 거쳐 도성으로 들어간다. 驪江을 유람하던 중에 시를 짓다.
정조	3	1779	기해	乾隆	44	26	生員試에 합격하다.
정조	4	1780	경자	乾隆	45	27	성균관에 들어가다.
정조	10	1786	병오	乾隆	51	33	晚村으로 이사하여 집을 晚窩라 하다.
정조	14	1790	경술	乾隆	55	37	2월, 모친상을 당하다.
정조	23	1799	기미	嘉慶	4	46	봄, 〈國朝史詩〉를 짓다. ○ 겨울, 孝陵 參奉이 되다.
정조	24	1800	경신	嘉慶	5	47	부인상을 당하다.
순조	2	1802	임술	嘉慶	7	49	6월, 繕工監 奉事가 되어 大造殿을 수리하다. 일이 끝난 뒤에 軍자감 직장이 되다.
순조	3	1803	계해	嘉慶	8	50	6월, 靖陵 直長이 되다. ○ 7월, 松江을 유람하다. ○ 8월, 軍자감 직장이 되다. ○ 9월,  의금부 도사가 되다.
순조	4	1804	갑자	嘉慶	9	51	6월, 靖陵 直長이 되다.
순조	5	1805	을축	嘉慶	10	52	윤 6월, 軍자감 주부가 되다.
순조	6	1806	병인	嘉慶	11	53	3월, 恩津 縣監이 되다. 軍역을 기피하려는 竹林書院 유생들과의 충돌로 9개월 만에 물러나다.
순조	7	1807	정묘	嘉慶	12	54	10월, 부친상을 당하다.
순조	11	1811	신미	嘉慶	16	58	가을, 後溪書堂을 짓고 그 室을 兢齋, 軒을 六友라고 하다.
순조	17	1817	정축	嘉慶	22	64	봄, 「退溪集」을 改刊하다.
순조	22	1822	임오	道光	2	69	1월, 형 李鍾淳의 상을 당하다.
순조	31	1831	신묘	道光	11	78	隴雲精舍의 예대로 精舍를 짓고 당을 五山, 헌을 雲樓라고 하다.
순조	32	1832	임진	道光	12	79	12월 28일, 졸하다.
순조	33	1833	계사	道光	13	一	3월, 奉化縣 炭堂村에 장사 지내다.

## 편찬및간행

저자는 退溪 李滉의 9세손으로 벼슬길에 잠깐 나아가기도 했으나, 주로 독서와 후진 교육에 힘쓴 조선 말기의 학자이다.

저자의 시문은 생전에 저자가 스스로 교감을 보고서 보관해 두었는데, 저자가 졸한 뒤에 아들 李彙炳과 宗姪 李彙寧 등이 家藏草稿를 바탕으로 遺文을 蒐集·編次하고 부록 문자를 첨부하여 金養休 등의 교정을 거쳐 1861년경 6권 3책의 활자로 印行하였다.《초간본》이 본은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D1-A961),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그 후 저자의 아들 이휘병이 초간본을 바탕으로 하고, 從孫 李晚淑이 지은 遺事를 비롯한 부록 문자와 초간본에서 빠진 내용을 增補하고 編次도 재편하여 10권 6책의 목판으로 문집을 간행하였다.《중간본》이 본은 규장각(古3428-805)에 소장되어 있다.

중간본을 초간본과 비교해 보면 권1~2의 詩가 105題에서 279題로 증보되었고, 산문은 초간본에 없던 疏, 上樑文, 通文, 傳, 哀辭, 誄辭 등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초간본의 墓碣銘과 遺事는 이휘병이 직접 지은 것인데, 중간본에서는 묘갈명의 내용에 변화가 있고, 유사한 제목이 〈先考大夫府君言行序次草略〉으로 바뀌어 수록되었으며, 따로 종손 李晚淑의 遺事が 수록되어 있다.

본서의 저본은 저자의 아들 이휘병, 종질 이휘녕 등이 가장초고를 바탕으로 수집 편차하여 1861년경 활자로 초간한 후 이를 증보·재편하여 1860년대 후반 목판으로 간행한 중간본으로 규장각장본이다.

遺事(李晚淑 撰), 異本 등에 의함

## 구성과내용

본집은 10권 6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와 발은 없다.

권1~2는 詩(279題)이다. 권1은 1774년부터 1805년까지 지은 시이다. 〈廣巖瀑布〉는 宣城(禮安)의 북쪽 槐川의 동구에 있는 폭포를 보고 만년에 정자를 지어 살 장소로 생각하며 읊은 시이다. 〈覽征蠻錄有感〉은 聞韶(義城)의 縣吏였던 李擢英이 임진왜란 때 巡相의 막하에 있으면서 일심으로 노모를 생각하며 기록한 征蠻錄을 읽고 느낌이 있어 지은 시이다. 〈園中雜詠〉은 牡丹은 花王으로, 芍藥은 花相으로, 梅花는 處士로, 菊花는 隱逸로 비유하며 지은 4수이다. 〈國朝史詩〉는 檀君 이래로 高麗까지의 역사를 간략하게 읊고, 조선에 대해서는 건국 내용, 태조의 조상, 夢金尺說話, 왕자의 난, 임진왜란, 당쟁 등 역사적인 사실을 시대를 내려가며 하나하나 자세하게 언급한 280韻의 시이다. 권2는 1807년부터 1823년까지 지은 시이다. 〈黃池歌〉는 洛東江의 發源인 太白山 黃池에서 지은 것이며, 〈六友軒〉의 六友는 梅, 菊, 松, 竹, 蓮과 저



자 자신으로 유유자적한 삶을 읊은 것이다. 이 밖에 李鼎揆, 金宗儒, 鄭宗魯 등을 애도하는 挽詩가 있다.

권3은 疏(3), 書(30)이다. 소는 1803년 12월에 仁政殿에 화재가 발생하자 求言의 교지를 내린 것에 응해 지었으나 올리지 않은 應旨疏, 族人을 대신해 지은 사직소, 金富弼에게 내린 시호가 李滉과 같은 文純이므로 시호를 바꾸어 달라고 청한 소이다. 서는 족대부 李級, 臥隱 金翰東, 金是瓚, 족제 李野淳 등과의 편지이다. 안부 편지, 서원교육을 걱정하는 편지, 문집 간행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편지 등이 주 내용이다. <與金巡相>은 金魯敬에게 보낸 편지로 1817년 봄에 「退溪集」을 개간할 때 많은 도움을 준 것에 감사하는 내용이며, <與柳士鉉>은 1823년 柳台佐에게 보낸 편지로 「樊巖集」의 간행에 대해 말하고 있다.

권4는 書(42)이다. 족질 李君宅, 申冕周, 내제 金在鉉, 사위 李在亨, 백형 李鍾淳, 弟 李承淳, 아들, 조카 등 주로 집안 간에 준 편지가 많은데, 집안일이나 안부를 묻은 편지가 대부분이다.

권5는 雜著(11)이다. 1802년 선공감 봉사로 大造殿을 수리할 때의 일을 일기형식으로 적은 <大造殿修理時記事>, 臨河縣 川前리에 있는 瓢隱 金是楹이 은거했다는 陶淵을 유람하고 지은 <遊陶淵錄>, 三政의 폐해 중 가장 심한 糶糶의 폐해에 대해 논한 <論糶糶>, 治棺, 擇地占穴, 改葬, 誌石 등에 대해 설명한 <喪葬儀節> 등이다.

권6은 序(4), 記(2), 通文(5), 傳(1)이다. 서는 李君宅, 金一老와 聯篇을 지어 엮은 「蓮花唱酬集」의 서, 陶山記 한 본을 河西 金麟厚의 후예인 金植休에게 주며 지은 贈序, 洛川의 남쪽에 있는 風月潭에서 既望 때 25인과 노닌 것을 적은 續遊錄에 대한 서, 李滉 이후 250여 년을 내려온 종가택에 대한 기록인 溪上宗門錄에 대한 서이다. <南山記>는 宣城縣에 있는 輿誌에 築廩山이라 기록되어 있고 村人들이 南山이라 부르는 산에 대한 기이다. 통문은 道儒를 대신해 지은 太學에 돌린 斥邪說에 대한 것, 巡相에게 올린 鄉儒를 대신해 糶糶의 폐해에 대해 말한 것 등이다. 전은 姚黃에 대한 이야기인 <花王傳>이다.

권7은 識跋(22), 箴銘(5), 上樑文(1), 哀辭(1), 誄辭(1), 祝文(20)이다. 識跋은 海東名勝錄, 「漢上夜會帖」, 「同聲社譜」 등의 題後, 「金吾禊帖」, 「家禮輯解」의 後敘, <梅花三疊曲>, 「溪山世稿」의 跋, 李安道の 「蒙齋稿」, 李守淵의 「靑壁稿」, 李世靖의 「晚湖稿」에 대한 後識이다. 잠명은 「近思錄」을 읽고 道體, 爲學, 致知, 存養, 克致 다섯 조항으로 자신을 경계하는 명을 삼은 <讀近思錄撮大綱五條爲銘以自警>, 先集에서 좋은 말과 교훈되는 말을 취해 스스로 경계를 삼은 <泮舍座隅銘>, 선조 李滉이 남긴 三圖屏에 대한 명, 禮樂射御書數 6자가 새겨져 있는 六藝杯에 대한 명, 聖學十圖에 대한 贊이다. 상량문은 孤山亭을 중수할 때의 것이다. 애사는 三弟 李明淳의 것이며, 뇌사는 柳璧祚의 것이다. 축문은 恩津 縣監 때 지은 사직단 기우제문, 淸涼精舍 터를 닦을 때의 地神祭文, 易東書院 廟宇를 수개한 후 還安할 때의 告文 등이다.

권8은 祭文(32)이다. 外舅 李漢佑, 蔡濟恭, 內舅 金熙成, 金宗發, 琴宗潤, 李世胤, 甥姪 鄭裕魯, 백형 李鍾淳, 三弟 李明淳, 四弟 李師淳, 부인 宣城李氏 등의 것이다.

권9는 墓誌銘(5), 遺事(7)이다. 묘지명은 朴基寅, 6대조 李嶷, 5대조 李命哲, 조부 李世憲, 부친 李龜蒙의 것이다. 金景漢과 李世靖의 유사, 고조 李晄와 형 李鍾淳의 紀事, 증조 李守謙과 조모 完山柳氏와 동생 李師淳의 行略이다.

권10은 부록으로 姜必孝가 1840년에 지은 墓誌銘, 李彙載가 1861년에 지은 墓碣銘, 琴書述이 지은 行述補略, 李彙寧이 지은 後溪書堂重建上樑文, 李彙炳이 지은 言行序次草略, 事行記聞續錄, 李晚淑이 지은 遺事이다.

## 이이순(李頤淳)

### 정의

조선후기 의금부도사, 군자감주부, 은진현감 등을 역임한 문신.

### 개설

본관은 진보(眞寶). 자는 치양(禔養), 초자는 비언(斐彦), 호는 후계(後溪)·만와(晩窩)·금재(兢齋)·육우당(六友堂)·육우헌(六友軒)·기은(杞隱). 경상북도 봉화 출신. 이황(李滉)의 9세손으로, 이구몽(李龜蒙)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김택동(金宅東)의 딸이다. 6남 2녀 가운데 차남으로 6형제 중 유일하게 현감벼슬을 했으며, 형제 중 문장이 가장 뛰어났다.

### 형태서지

8 세 때 팔촌 형 이세윤(李世胤)으로부터 『소학』을 배웠고, 18 세에 이한우(李漢佑)의 딸과 혼인하였다. 1779 년(정조 3) 생원시에 합격했고, 이듬해 태학에 들어갔다. 1786 년 만촌(晩村)으로 이사해 그 집을 만와(晩窩)라 하고 제자들을 가르쳤다. 1790 년에 어머니의 상을 당해 옛집으로 돌아와 후학들을 가르치다가 1799 년 효릉재관(참봉)에 제수되었고, 1802 년(순조 2)에는 선공감봉사(繕工監奉事)에 올라 대조전을 수리하였다. 일이 끝나자 군자감직장(軍資監直長)이 되고 그 해 가을에는 의금부도사가 되었다.

1805 년 군자감주부(軍資監主簿)가 되어 재정을 윤택하게 관리했고, 이듬해인 1806 년에는 은진현감이 되어 단옥(斷獄)을 공평히 하고 상벌을 엄격히 하였다. 그러나 죽림서원(竹林書院)의 유생 가운데 군역을 기피하던 많은 양민 장정을 정리하려다가 감영의 힘을 빌어 이를 저지하던 유생들과 충돌을 빚고 이 일로 감영의 뜻을 거슬렀기 때문에 그 해 겨울 부임 9 개월 만에 물러났다.

그 뒤 1811 년 가을, 후계서당(後溪書堂)을 짓고 독서와 예서에 잠심(潛心)하였다. 음양서와 농공 기술에 두루 통달했으며 절약하는 생활을 하였다. 가문의 대소사를 주장하고 후세손에게 규범으로 하고자 「무첨가(無胤歌)」를 지었다. 이황의 문집을 교검(校檢), 개간(改刊)하고 몽재(蒙齋)·청벽(淸壁)·만호(晩湖) 등의 유문을 수습해 『계산세고(溪山世稿)』 3 책을 만들었다. 문집으로 『후계집(後溪集)』이 현전하며, 작품으로는 「화왕전(花王傳)」과 「일락정기(一樂亭記)」가 있다.

卷之二 / 詩

만신상사이주 면조 挽申上舍而周 冕朝

20世 면조(冕朝) 父 : 흥교(弘教) 祖父 : 황 (煌) 음파(邑派) 만오공파(晩悟公派)

堂構家傳孝。學遷世教儒。名聲輝壁沼。襟韻澈冰壺。華萼方聯慶。斑衣不盡愉。南州高士遠。誰復置生芻。

<p>黃緣在。本是同門二老家。<small>以梅軒孫。取日休堂孫。</small></p>	<p>樹綠花紅景物新。滿堂樽酒一門春。可憐白髮江雲約。終是吾鄉眷戀身。<small>善吾。曾自吾鄉寓鳳城。今欲還故。有長伴湖雲老。此身之句。故有云。</small></p>	<p>絕句</p>	<p>木葉圈爲瓢。酌來石澗水。注茲青硯池。寫出南華子。</p>	<p>挽金炳如虎燦</p>	<p>鰲山鬱鬱洛泱泱。多士今稱一善鄉。梓竹家庭追趾美。桂臺師友接隣芳。九皋好聞鳴禽響。東井翻沉德宿光。多感璠函在塵篋。謾收鶴淚寫哀章。<small>頃年君貽長牘。問吾兄弟。未幾。四弟云。亡。修復之際。不忍於健一之情。遷就多年。遂成一恨。</small></p>	<p>後溪集卷之五</p>	<p>三</p>	<p>挽申上舍而周 冕朝</p>	<p>堂構家傳孝。學遷世教儒。名聲輝壁沼。襟韻澈冰壺。華萼方聯慶。斑衣不盡愉。南州高士遠。誰復置生芻。</p>	<p>過觀聽洞。見瀑布。謹次先詩三絕中二</p>
-----------------------------------------------	----------------------------------------------------------------------------------------	-----------	---------------------------------	---------------	------------------------------------------------------------------------------------------------------------------------------------	---------------	----------	------------------	---------------------------------------------------------	--------------------------



## 卷之四 / 書

여신문시 면주○계유 與申文始 冕周○癸酉

20世 면조(冕朝) 父 : 흥교(弘教) 祖父 : 황 (煌) 읍파(邑派) 만오공파(晩悟公派)

秦晉之會。間以湖嶺。委佯致候。力有不逮。每因伯氏座下往復。探承候信。迺蒙先施惠問。開緘感倒。若復對晤。信后已多日月。旱熱轉甚。謹候政履起居。節宣若何。所慎宿候。自值暑節以來。想有收復之效。區區並切慰溯。本第安問。謹承一樣。又爲之奉賀萬萬。頤淳哭弟練期。已遣時月。忽忽心緒。益難自聊。而兼衰憊筋力。不能堪疾病之侵凌。種種憐悶。豈容言喻。女阿見禮。已承伯氏擇示期日。謹以爲依行之地。但初秋餘<sup>P</sup>熱。似猶未已。是爲關慮耳。胤君凡百。頗有步趣。而不無離違嚴側之害。此亦弟所嘗折臂之憂。焉有其家不能而可以及人者乎。開發之責。恐不能堪。况其無源源相接之道耶。

頃於兒行。獲承惠書。未幾而復奉咸兄於江亭祥會中。謹詳爾來侍餘棣履一向珍毖。眷節亦得安吉。仰慰區區。頤淳間添泄症。一倍漸損。餘憊尙猶未已。而寒節且迫。心緒益覺攪惱。不自堪忍。奈何。歲事大同之中。尤值偏甚溝壑之憂<sup>P</sup>迫近朝夕。而本來拙謀。無容措手。使其一身康濟。不得如是。而可謂得聞君子大經綸之道耶。只自笑呵。示喻清涼之遊。豈不啻好事。而俗有金剛山亦食後景之語。竊恐山下拾橡之氓。當爲御者之魔也。然爲一番穩敘之便。另圖是望耳。不備。

忽拜專价垂問。謹審旱風萱闡。體力一向康謐。侍餘服履有相。區區欣慰。旱氣如此。來事已判。不知天意將如何。貴縣則得此賢侯。其平生蘊<sup>P</sup>抱。必使一境有所受賜。歲荒恐不當憂矣。胤君當此長夏。有甚課業。每知其日用之間。不免有漫浪之患。故答渠書中。有所規勉。蓋出於無面目長久人情之意也。渠肯諒之否。女阿爲歲所坐。尙未率來。姑待麥秋。而麥亦有椀不大之慮。奈何。

愚山龜湖一時喪逝。嶺運之不幸極矣。自此道內之屬望。惟在貴邑地主。相對時。爲道知舊奉勉之意如何。

<sup>P</sup> 自承執御歸田。一倍懂懂。卽拜手翰。謹審靜養神相。起居超謐。區區仰慰。不比常例。至於一番進退。雖似無端。超然高出俗套之外。依舊作城南一布衣者。尤令人傾聳萬萬。

日音信漠然相阻。未知旅中起居何如。各道  
赦典。今始舉行。昨日。啓下判付中。東西兩謫  
俱入。特放。感喜曷可勝言。四載風霜。始得脫  
然歸路。當繞城外相對之日。當作何如。懷耶。方  
計日以企耳。族從客苦如昨。而庭信久曠。悶煎  
無可言。此奇不可不即通洋主。自此雇人走去  
新川。則因海底去。便已通之耳。萬萬只所利還  
姑不備。  
今番放釋。知舊皆見還。而穩城亦參其中。尤可  
幸也。

後溪集卷之四  
與申文始 見周○癸酉

秦晉之會。間以湖嶺。委任致候。力有不逮。每因  
伯氏座下往復。揆承候信。迺蒙先施惠問。開緘  
感倒。若復對晤。信后已多日月。早熱轉甚。謹候  
政僉起居。節宣若何。所慎宿候。自值暑節以來。  
想有收復之效。區區並切慰溯。本第安問。謹承  
一樣。又為之奉賀。萬萬。頤淳哭弟練期已遣時  
月。忽忽心緒。益難自聊。而兼衰憊。筋力不能堪  
疾病之侵凌。種種憐悶。豈容言喻。女阿見禮。已  
承伯氏擇示期日。謹以為依行之地。但初秋餘

一六一

熱似猶未已。是為關慮耳。胤君凡百。頗有步趣  
而不無離違嚴側之害。此亦弟所嘗折臂之憂  
焉。有其家不能而可以及人者乎。開發之責。恐  
不能堪。况其無源源相接之道耶。

答申文始

頃於兒行。獲承惠書。未幾而復奉咸兄於江亭  
祥會中。謹詳爾來侍餘。棣履一向珍毖。眷節亦  
得安吉。仰慰區區。頤淳間添泄症。一倍漸損。餘  
德尚猶未已。而寒節且迫。心緒益覺攪惱。不自  
堪忍。奈何。歲事大同之中。尤值偏甚溝壑之憂  
迫近朝夕。而本來拙謀。無容措手。使其一身康  
濟。不得如是。而可謂得聞君子大經綸之道耶。  
只自笑呵。示喻清涼之遊。豈不啻好事。而俗有  
金剛山亦食後景之語。竊恐山下拾椽之氓。當  
為御者之魔也。然為一番穩敘之便。另圖是望  
耳。不備。

答申文始 乙亥

忽拜專价垂問。謹審早風。萱闈體力一向康謐。  
侍餘服履有相。區區欣慰。早氣如此。來事已判  
不知天意將如何。貴縣則得此賢侯。其平生蘊



抱。必使一境有所受賜。歲荒恐不當憂矣。亂君當此長夏。有甚課業。每知其日用之間。不免有漫浪之患。故答渠書中。有所規勉。蓋出於無面目。長久人情之意也。渠肯諒之否。女阿為歲所坐。尚未率來。姑待麥秋。而麥亦有椀不大之慮。奈何。

愚山龜湖一時喪逝。嶺運之不幸極矣。自此道內之屬望。惟在貴邑地主相對時。為道知舊奉勉之意如何。

答申文始 癸未

後溪集卷之四

八

自承執御歸田。一倍憧憧。即拜手翰。謹審靜養。神相起居超謐。區區仰慰。不比常例。至於一番進退。雖似無端。超然高出俗套之外。依舊作城南一布衣者。尤令人傾贊萬萬。

與崔慶州

木崑山一昔周旋。已是十年間事。而及承尹茲東土聲光。又三百里相望矣。一味瞻仰。憧憧不已。即候涼秋。政中動止。節宜增備。儉歲芻牧。得不貽撓於清心省事之政耶。區區馳溯。尤不任也。頤淳衰弊之中。荐罹喪慘。悲悴情況。無足可



## 후산선생문집(后山先生文集)

### 형태서지

권수제	후산선생문집(后山先生文集)
판심제	후산선생문집(后山先生文集)
간종	목판본(木版本)
간행년	1823년 간행
권책	18권 9책
행자	10행 18자
규격	21.0×17.8(cm)
어미	上下二葉花紋魚尾
소장처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소장도서번호	811.98/이종수
총간집수	한국문집총간 속 85

### 저자

성명	이종수(李宗洙)
생년	1722년(경종 2)
몰년	1797년(정조 21)
자	학보(學甫)
호	후산(后山)
본관	진보(眞寶)
특기사항	이상정(李象靖)의 문인. 권병(權炳), 김종덕(金宗德), 유장원(柳長源), 이완(李完) 등과 교류

행력

왕력		서기	간지	연호		연령	기사
경종	2	1722	임인	康熙	61	1	11 월 4 일, 安東 一直縣에서 태어나다.
영조	12	1736	병진	乾隆	1	15	詩書와 古文章家의 글을 탐독하다. ○ 柳氏 집안의 墳庵에서 독서하다.
영조	14	1738	무오	乾隆	3	17	小山 李光靖의 충고로 經學에 전심하다.
영조	16	1740	경신	乾隆	5	19	大山 李象靖의 문하에 들어가다. ○ 〈自警說〉을 짓다.
영조	17	1741	신유	乾隆	6	20	〈自省錄〉, 〈山居果法〉을 짓다.
영조	18	1742	임술	乾隆	7	21	2 월, 義城金氏 金命鐸의 딸과 혼인하다. ○ 九思堂 金樂行을 배알하고 〈農工說〉을 받다. ○ 屏谷 權槩를 배알하고 가르침을 청하다. ○ 겨울, 역병을 피해 九老洞에서 「근사록」을 읽다.
영조	19	1743	계해	乾隆	8	22	봄, 이상정과 龜潭을 유람하며 시를 수창하다. ○ 여름, 白雲亭을 유람하다.
영조	20	1744	갑자	乾隆	9	23	여름, 이상정에게 편지를 보내 ‘一性’과 ‘四德’의 의미에 대하여 질문하다. ○ 김낙행에게 편지를 보내 ‘理氣俱無限’에 대하여 논하다.
영조	21	1745	을축	乾隆	10	24	6 월, 아들 李宇綱이 태어나다. ○ 이상정과 龜潭에서 「朱書」를 강론하고 「朱書講錄刊補」를 교정하다. ○ 이상정에게 편지를 보내 「敬齋箴集說」에 대하여 질문하다.
영조	23	1747	정묘	乾隆	12	26	1 월, 陀陽書堂에서 講會를 열어 「論語」를 강론하다. ○ 주자의 〈齋居感興詩〉를 읽고 그 註解를 校訂하다. ○ 6 월, 이상정에게 편지를 보내 ‘灑掃應對 精義入神’과 ‘下學上達’의 차이점에 대해 질문하다. ○ 12 월, 권구를 찾아가 「중용」을 수학하다.
영조	24	1748	무진	乾隆	13	27	淸臺 權相一을 배알하다. ○ 12 월, 通軒 權德秀를 배알하다. 鶴駕山 廣興寺에서 독서하다.
영조	25	1749	기사	乾隆	14	28	1 월, 권구를 곡하다. ○ 權炳과 이상정을 찾아가 「心經」을講하다.
영조	26	1750	경오	乾隆	15	29	이상정에게 편지를 보내 「주자대전」 중 ‘中和書’의 순서에 대하여 질문하다.
영조	27	1751	신미	乾隆	16	30	2 월, 생부상을 당하다.
영조	28	1752	임신	乾隆	17	31	增修洞 선영 아래에 집을 짓고 그곳으로 거처를 옮기다.
영조	29	1753	계유	乾隆	18	32	가을, 권덕수를 찾아가 「논어」와 「주역」 繫辭傳을 수

							학하다.
영조	30	1754	갑술	乾隆	19	33	3 월, 모친 柳氏의 상을 당하다. ○ 7 월, 아들 李義綱이 태어나다.
영조	32	1756	병자	乾隆	21	35	2 월, 부친상을 당하다.
영조	34	1758	무인	乾隆	23	37	이상정에게 편지를 보내 吉祭의 儀節에 대하여 질문하다.
영조	35	1759	기묘	乾隆	24	38	4 월, 증수동에서 縣里의 舊廬로 돌아오다. ○ 권덕수를 곡하다. ○ 겨울, 이상정과 孤雲寺를 유람하다. ○ 권병에게 편지를 보내 ‘率性之謂道’의 의미에 대하여 논하다.
영조	37	1761	신사	乾隆	26	40	여름, 김낙행에게 편지를 보내 ‘灑掃應對 精義入神’과 ‘精義’와 ‘下學上達’의 뜻에 대하여 논하다. ○ 11 월, 이상정과 고운사에서 「中庸或問」을 講하다. ○ 12 월, 湖上으로 가 大山書堂의 공사 진행을 살피다.
영조	38	1762	임오	乾隆	27	41	5 월, 「家禮輯遺」를 교정하다.
영조	39	1763	계미	乾隆	28	42	2 월, 아들 李道綱이 태어나다. ○ 7 월, 생모 金氏의 상을 당하다. ○ 생부의 行錄을 짓다.
영조	41	1765	을유	乾隆	30	44	「洙泗傳習錄」을 짓다. ○ 가을, 김낙행이 방문하다.
영조	42	1766	병술	乾隆	31	45	이상정과 金玘의 「栢巖集」을 校正하다. ○ 권병과 東海를 유람하다. ○ 김낙행을 곡하다.
영조	47	1771	신묘	乾隆	36	50	7 월, 魯林書院에서 李寅炯, 李象辰 등 70 여인과 <太極圖說>을 강론하다.
영조	48	1772	임진	乾隆	37	51	겨울, 이상정과 「溫溪集」을 교정하다.
영조	50	1774	갑오	乾隆	39	53	1 월, 부인상을 당하다. ○ 가을, 이상정에게 편지를 보내 「朱書講錄刊補」의 의문점에 대하여 질문하다.
정조	1	1777	정유	乾隆	42	56	4 월, 金龍普에게 편지를 보내 「賁趾集」의 刊改에 대하여 논의하다. ○ 이상정으로부터 손수 필사한 「屏銘發揮」를 받다.
정조	2	1778	무술	乾隆	43	57	2 월, 「朱書講錄刊補」의 刊役을 논의하기 위해 淸城院에 가다. ○ 「주서강록간보」의 일로 魯院의 회의에 참석하다. ○ 李堧에게 편지를 보내 程子が 說한 ‘公而以人體之’의 의미 및 ‘率性’에 대하여 논하다.
정조	3	1779	기해	乾隆	44	58	1 월, 족조 近仁堂 李宜泰를 곡하다. ○ 2 월, 金江漢을 곡하다. ○ 부친의 遺事를 짓다. ○ <退溪先生遺事>를 짓고 金宗덕에게 보내 교정을 청하다. ○ 「退溪先生文集攷證」을 짓다.
정조	4	1780	경자	乾隆	45	59	2 월, 이상정으로부터 증신토록 엄수할 ‘整齊嚴肅’의 가르침을 전수받다. ○ 3 월, 거처하던 後山 아래에 ‘山



후산선생문집(后山先生文集) 이종수(李宗洙)

							泉齋'를 세우다. ○ 鶴山精舍가 완성되어 이상정에게 齋號를 청하다.
정조	5	1781	신축	乾隆	46	60	4 월, 金龍普에게 편지를 보내 「비지집」의 교감에 대하여 논의하다. ○ 11 월, 金溪로 가서 「鶴峯續集」을 교정하다. ○ 12 월, 이상정을 곡하다.
정조	6	1782	임인	乾隆	47	61	1 월, <大山先生敍述>을 짓다. ○ 6 월, 湖上으로 가 「大山集」의 修寫를 살피다. ○ 11 월, 「가례집유」를 再校하다.
정조	7	1783	계묘	乾隆	48	62	2 월, <大山先生年譜>를 짓다. ○ 小山 李光靖을 배알하고 「주서강록간보」의 교정에 대하여 논하다. ○ 7 월, 「대산집」을 再校하다. ○ 12 월, 大山書堂에서 이상정의 祥事를 행하고 동문들과 「대산집」을 교정하다.
정조	8	1784	갑진	乾隆	49	63	1 월, 고운사에서 동문들과 「대산집」을 교정하다. ○ 4 월, 崇德祠를 참배하고 河回書堂에 머물며 柳元之의 「拙齋集」을 교정하다. ○ 觀物堂의 權範祖를 방문하여 「永嘉志」의 校整에 대하여 논의하다.
정조	9	1785	을사	乾隆	50	64	8 월, 虎溪書院에서 「주서강록간보」의 刊役을 살펴보다. ○ 11 월, 孫洪亮을 위하여 祠堂을 세우는 것에 대하여 논의하다.
정조	10	1786	병오	乾隆	51	65	7 월, 申體仁에게 편지를 보내 「太極問辨」의 改刊에 대하여 논의하다.
정조	11	1787	정미	乾隆	52	66	「心經講錄刊補」를 교정하다.
정조	12	1788	무신	乾隆	53	67	이광정에게 편지를 보내 「가례집유」에 대하여 품의하다.
정조	13	1789	기유	乾隆	54	68	「近思錄朱語類輯」을 편찬하다. ○ 6 월, 이광정을 곡하다. ○ 7 월, 이완을 곡하다.
정조	14	1790	경술	乾隆	55	69	鶴山에서 宗人들과 족보의 간행에 대하여 논의하다.
정조	15	1791	신해	乾隆	56	70	3 월, 河上의 遠志精舍에서 「즐재집」을 교정하다.
정조	17	1793	계축	乾隆	58	72	아들 李宇綱에게 '整齊嚴肅'의 四字符를 써 주다.
정조	19	1795	을묘	乾隆	60	74	11 월, 김중덕과 「심경강록간보」와 「대산집」을 교정하다.
정조	20	1796	병진	嘉慶	1	75	봄, 「屏谷集」을 교정하다.
정조	21	1797	정사	嘉慶	2	76	8 월, 김중덕을 곡하다. ○ 「가례집유」를 整寫하다. ○ 10 월, 「九經蠹酌」을 완성하다. ○ 11 월 14 일, 山泉齋에서 즐하다.
정조	22	1798	무오	嘉慶	3	—	1 월, 增修洞 선영에 장사 지내다.
순조	23	1823	계미	道光	3	—	문집이 목판으로 간행되다.

## 편찬및간행

저자는 젊은 시절부터 大山 李象靖 문하에서 수학하며 학문에 정진하여 川沙 金宗德, 東巖 柳長源과 함께 '湖門三老'로 일컬어졌다. 또한 南致利의 「賁趾集」, 金功의 「栢巖集」, 柳元之의 「拙齋集」, 「鶴峯續集」 등 선대 문헌의 정리에 노력하였다. 만년에는 후학의 양성에 힘쓰며 「大山集」의 편집과 교정에 참여하고 「朱書講錄刊補」의 간행을 주도하기도 하였다. 저술로는 「近思錄朱語類輯」, 「朱子感興詩諸家註解」, 「退溪先生詩集筭疑」, 「洛閣學習」, 「洙泗傳習錄」, 「九經蠹酌」, 「退溪先生書節要筭疑」 등 10 여 종이 있다.

저자 사후 아들 李宇綱(1745~1800)이 1799 년경 遺事를 짓고 소산 이광정의 아들 倂庵 李堉에게 행장을 받아 遺蹟을 정리하였으나 유문의 경우 어떤 상태였는지 불분명하다. 다만 金堉의 「遜溪集」에 栗園 李秉遠, 所菴 金養休, 李周胤, 金弼華 등과 龜潭에서 「후산집」을 교정하고 지은 시가 있는 점으로 보아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동문과 후손들에 의해 정리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저자의 문집으로는 18 권 9 책의 목판본 「后山先生文集」이 전하고 있다. 서발문이나 刊記 등의 관련 기록이 없어 편찬 간행의 명확한 경위를 알 수 없는데, 필사본으로 전하는 「年譜」의 말미에 “二十三年 癸未 四月 文集登梓 十八卷”이라는 기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1823 년 무렵 목판으로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초간본》이 본은 현재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811.98/이종수), 국립중앙도서관(古 3648-文 62-502), 성균관대학교 존경각(D3B-2611),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고 811.081 이종수 ㅎ) 등에 소장되어 있다.

초간본과 별도로 목판본인 「后山先生附錄」이 전북대학교 도서관(811.081 이종수 후)과 안동대학교 도서관(810.819-허 67 ㅎ)에 소장되어 있다. 《부록》 전체 3 卷 중에서 권 2~3 의 1 冊만 남아있는 缺本으로, 권 2 에는 申體仁, 李堉, 李鎮東, 金道行, 金光濟, 金宗發, 權訪, 金堉, 문인 李秉運과 李家淳 등이 지은 제문 84 首가 수록되어 있고, 권 3 에는 이우가 지은 행장, 權璉夏(1813~1896)가 玄孫의 부탁으로 지은 묘갈명, 嗣孫 李基洛 등의 부탁으로 金道和(1825~1912)가 지은 묘갈명이 수록되어 있다. 일실된 권 1 은 挽詞로 추정된다. 간행시기는 수록 내용 중 가장 후대에 지어진 김도화 묘갈명의 말미에 김도화의 관직이 “通仕 郎行義禁府都事”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893 년 이후로 보인다.

문집 이외의 저술로는 「朱子感興詩諸家註解」와 「退溪先生書節要筭疑」가 전하고 있다. 「주자감흥시제가주해」는 저자가 주자의 〈齋居感興詩〉에 대한 역대의 주석과 해설들을 수집하고 자신의 의견을 덧붙인 것이다. 不分卷 1 冊으로 권수에는 凡例가 있고 말미에는 이병원의 跋과 김도화의 識가 있다. 저자 사후 김양휴가 草稿를 淨寫하여 篇章을 나누고 다시 이병원과 柳致明이 여러 차례 교정한 후 改寫하여 간행을 시도하였으나 이루지 못하였다가, 구한말에 저자의 후손 이기락이 지역 士人들의 도움을 받아 목판으로 간행한 것으로 생각된다. 《주자감흥시제가주해》이 본은 국립중앙도서관(한 17-191),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D3-A27),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고 812.1 주자감) 등에 소장되어 있다.

「퇴계선생서절요차의」는 이상정이 편찬한 「退溪先生書節要」에 대한 주석이다. 저자는 생전에 이상정 문하에서 들은 가르침을 바탕으로 「퇴계선생서절요」에 나오는 故事의 援引과 名物의 出處에 대하여 筭錄해두었는데, 저자 사후 오랜 기간 동안 亂稿 속에 방치되어 있었다. 이후 김도화가 벗들과 龍巖에 모여 그 手錄을 抄出하고 簡編을 纂次한 뒤 수차례의 교정을 통해 정리하였는데, 저자의 후손 이기락과 李羲洛 등이 「퇴계선생서절요」의 간행을 계기로 1899 년 김도화에게 발문을 받아 목판으로 간행하였다. 《퇴계선생서절요차의》이 본은 국립중앙도서관(古 367-273),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811.97/이황/서-차) 등에 소장되어 있다.

그 밖에 1988 년 후손 李桂煥이 초간본과 「부록」, 「年譜」, 「주자감흥시제가집해」, 「禮疑筭錄抄集」, 「屏銘發揮」 및 挽詞의 原本을 함께 영인하여 眞城李氏 일파의 세고인 「西澗世稿」 第 2 輯으로 간행하였다.

본서의 저본은 1823년 목판으로 간행된 초간본으로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장본이다. 본 영인저본 중 권 2의 제 32~33 판은 板次가 '三十一'·'三十二'로 誤記되어 있고, 권 6의 제 43 판과 권 7의 제 19~20 판은 寫本이므로 同一本인 국립중앙도서관장본으로 대체하였으며, 상태가 불량한 다수의 판도 위의 동일본으로 대체 보충하였다.

年譜, 李以誠李文述李愼可 ..... (金壇 撰, 遯溪集 卷 1), 朱子感興詩諸家註解跋·退溪先生書節要節疑跋(金道和 撰), 西澗世稿 등에 의함

## 구성과내용

본집은 18권 9책이다. 권수에는 目錄이 있다. 권 2~11의 書는 문집 전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저자의 사승, 교유 관계와 학문적 활동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다.

권 1은 詩(41)이다. 1743년부터 1797년까지 지은 시들이 詩體와 상관없이 연도순으로 편차되어 있다. 스승 李象靖이나 權炳, 李憲愚, 金宗德, 金宗敬, 鄭樞, 洪天休, 鄭宗魯 등의 벗들과 교유하는 과정에서 수창한 것들과 高山精舍의 건립, 「朱書講錄刊補」의 간행, 「大山集」의 교정 등에 참여하며 지은 시들이 수록되어 있다. 만시로는 金正漢, 金陞, 黃啓熙, 金龍普, 金埜, 李世述, 柳道源, 權範祖, 김중덕에 대한 것이 있다.

권 2는 書(30)이다. 전체가 스승 이상정에게 보낸 편지로 1742~1781년 사이에 지은 것들이다. 주로 스승에게 자신의 근황 및 독서와 학문의 진척 상황에 대해 고하는 내용으로, '一性'과 '四德', '理氣俱無限'의 의미, '灑掃應對'와 '精義入神'의 관계, 程門의 教法, '尊德性 道問學'과 敬工夫, '明德'의 의미, 朱書와 「大學」·「中庸」·「周易」을 읽으며 생긴 의문, 「朱書講錄刊補」의 교정에 대한 문의를 포함하고 있다.

권 3은 書(15)이다. 權相一, 金樂行과 李光靖에게 보낸 것이다. 김낙행에게 보낸 편지는 〈農工說〉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논한 것과 '理氣俱無限', 喪中에 拜賓하는 법, 灑掃應對 精義入神과 下學上達 등에 대하여 답한 내용이다. 이광정에게 보낸 편지에는 朱書의 의문점이나 疑禮 등 학술적 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묻거나 자신의 생각을 개진한 別紙가 첨부된 것이 많다.

권 4는 書(9)이다. 이광정, 李守貞, 李顯靖, 李師靖, 金虎鍊, 柳宗春, 李弘天에게 보낸 것이다. 1788년에 지은 〈與小山〉은 교정 중인 金泰濂의 「家禮輯遺」의 내용에 대해 논한 장문의 별지가 포함되어 있다. 1791년에 유종춘에게 보낸 편지는 柳元之의 「拙齋集」의 교정과 수록할 상소문의 編次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권 5는 書(37)이다. 權焞, 권병 형제와 유도원, 柳長源 형제에게 보낸 것이다. 권병에게 보내는 편지는 天人性命說, 明德章의 의미 구조, 「論語」와 「주역」의 문구 등에 대하여 논하고, 또 권병이 착실하고 평이한 공부보다 이론적 분석에 치중하는 것에 대하여 학문적 충고를 아끼지 않고 있다. 1761년에 유장원에게 보낸 〈與柳叔遠〉에는 「주자대전」과 「주자어류」가 자료에 문제가 있으나 잘 살핀다면 集註나 章句와 표리가 되어 서로 보완이 된다고 주장하고, 文義와 事證에만 신경을 쓸 뿐 實理와 本領에서 이해를 추구하지 않아 受用의 실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학인들의 폐단을 언급하였다.

권 6~7은 書(28)이다. 대부분 김중덕에게 보낸 편지이며 金宗發과 金宗燮에게 공동으로 보낸 것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1785~1797년 사이에 지은 것들이다. 1787년에 김중덕에게 보낸 〈答金道彦〉은 이상정의 아들 李埏 등 벗들과 여러 해에 걸쳐 토론하던 「중용」 首章 "率性"의 의미에 대해 '道の用'이라는 측면에서 자신의 해석을 상세히 개진하고 검토를 부탁하는 편지이다. 그 외에도 「대학」 明德章·誠意章·如



保赤子章과 주자 〈仁說〉에 대한 논란, 「家禮輯遺」의 釐正 중에 생긴 의문점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권 8 은 書(38)이다. 申體仁, 柳<sup>洙</sup>奎, 김용보, 金道行, 김종경, 柳一春, 金得行, 內弟 金柱衡, 金光濟, 崔周鎮, 權思浩, 李述靖, 李堦, 金垞, 鄭澗, 徐明胤에게 보낸 것이다. 1786 년에 신체인에게 보낸 〈與申子長〉에는 당시 분란이 되던 「太極問辨」의 改刊 문제에 대하여 본문을 일부 수정하고 張顯光의 발문을 收刻하여 논란의 여지를 없애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1777 년에 김용보에게 보낸 편지는 「賁趾集」의 勘校와 改刊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권 9 는 書(15)이다. 이완, 김종섭에게 보낸 것이다. 이완에게 보낸 일련의 편지들에서는 性情을 기르는 요점, 「近思錄」에 있는 程子の '公而以人體之' 및 「중용」 '率性'의 의미에 대하여 상세히 논변하고 있다. 김종섭에게 보낸 편지에는 「맹자」 '求放心'의 해석, 朱子の 〈與湖南諸公中和書〉 등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다.

권 10 은 書(29)이다. 權訪, 李有白, 金墩, 鄭在淵, 鄭逸濟, 李宇級, 琴養蒙, 李寅斗, 李寅建, 權達忠, 李若昊, 金樂進, 金始陽, 郭柱南, 李宗錫, 權時鵬에게 보낸 것이다. 1792 년에 이우급에게 보낸 〈答李季昇〉은 讀書에만 급급하고 思索에는 소홀한 이우급에게 공부의 門路를 알려 주고 학문의 실효를 위해서는 爲己之學에 대한 立心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권 11 은 書(35)이다. 李野淳, 陶山の 士林, 虎溪書院의 會中, 鶴巖의 사림, 竹林의 權氏門中, 周村의 宗中, 洪得全, 李周胤, 金弘矩, 金世瑜, 金弼冕, 金弼華, 金弼乘, 朴春泉, 죽조 近仁堂 李宜泰, 죽숙 李春溥와 李春彬, 동생 李宗學, 족제 李宗栻과 李宗運, 아들 李宇綱과 조카 李敬綱에게 보낸 것이다. 〈答陶山士林〉은 「주서강록간보」의 판각 중에 도산서원 측에서 어려움을 표명하자 저자가 퇴계로부터 유래되어 온 「講錄」의 성립 과정과 그 중요성을 설명하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면 刊役의 지체도 감수할 용의가 있음을 알리는 편지이다. 〈與竹林權氏門中〉은 권씨 문중에 소장된 權文海의 「大東韻府群玉」에 수록된 叔祖 松齋 李堦와 관련된 기사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陰崖日錄」과 퇴계의 礪識를 근거로 중증반정 당시 이우의 처신에 대한 후대의 비난에 대하여 변론한 것이다.

권 12~15 는 雜著(17)이다. 권 12 와 권 13 전반부의 〈記聞〉은 저자가 이상정 문하에 있으며 들은 가르침과 사제 간의 토론을 연도별로 정리한 것이다. 권 12 에는 문하에 처음 입문한 1740 년부터 1777 년경까지, 권 13 은 1779 년부터 이상정이 사망하는 1781 년까지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그중 1744 년의 기록에는 '無極而太極'의 해석에 대한 논의가 諺解의 형식을 차용하여 기술되어 있다. 그 밖에 〈筭記〉는 저자가 20 세 이후 독서와 강학 등의 학문 과정에서 얻은 다양한 경험과 생각들을 자유롭게 기록한 것이고, 〈自省錄〉은 1741 년 자신을 경책하기 위하여 지은 18 條로 이루어진 짧은 글이다. 권 14 의 〈讀書筭錄〉은 「대학」, 「논어」, 「중용」에서 논란이 되는 구절들에 대하여 師友들의 의견과 자신의 생각을 조목별로 정리한 것으로 일부 내용은 〈기문〉과 중복되어 있다. 〈魯院講義〉는 1771 년 이광정의 건의로 동문들과 魯林書院에 모여 〈太極圖說〉을 강론한 내용을 정리한 글이다. 이 외에 〈太極圖說考證〉과 〈西銘筭疑〉가 수록되어 있다. 권 15 에는 「근사록」과 「春秋胡氏傳」에 대한 筭疑, 禮書와 일상의 의례에서 의문이 나는 부분을 정리한 〈禮疑筭錄〉, 曹好益의 「家禮考證」에서 深衣의 '續衽鉤邊'을 풀이한 것을 반박한 〈讀曹芝山考證〉 및 「대학」 誠意章의 圖說, 「중용」 首章의 '率性之謂道'에 대한 해설이 있다. 또한 〈自警說〉과 〈山居果法〉은 저자가 젊은 시절 자신을 경계하고 독서에 전심하기 위하여 지은 것이며, 〈書與宇兒四字符〉는 스승이 전수한 '整齊嚴肅'의 가르침을 아들 이우강에게 써주며 지은 글이다.

권 16 은 序(3), 跋(7), 銘(1), 上樑文(2), 祝文(8), 祭文(17)이다. 서는 잡저에 실린 〈산거과법〉의 後序와 龍巖 權紀의 문집 서문, 노림서원에서 열린 講會의 참석자들 이름을 기록한 題名錄에 대한 후서이다. 발은 김낙행이 저자를 위해 지은 〈農工說〉의 書後, 열녀 鵝洲申氏의 事蹟과 퇴계의 문인 錦春堂 姜翰의 遺事

에 부친 것, 저자가 주자, 퇴계 등 선유들의 글에서 爲學의 大概를 모아 「學習」 3篇을 엮고 그 감회를 밝힌 것, 이상정이 만년에 書堂의 學徒를 위하여 지은 <齋居學令>과 문중의 家塾인 '瞻學'의 規約에 부친 것, 14세의 손자 李駘에게 주자의 <齋居感興詩>, 「논어」, 「예기」 중에서 進學의 바탕이 될 만한 要語를 뽑아 적어 주며 학문에 정진할 것을 당부한 것이 수록되어 있다. 명은 족조 이의태로부터 받은 '羅道杖'이라는 지팡이에 대한 것으로, 지팡이를 선물 받게 된 경위와 '羅道'의 의미를 설명하는 장문의 序가 포함되어 있다. 상량문은 鵲山精舍를 위한 것과 先廬를 移建할 때 지은 것이다. 축문은 龍溪社에 潭菴 金用石을 추향할 때와 鶴巖社에 梅牕 鄭士信을 추향할 때 지은 것, 竹阜社에 竹湖 尹涉을 봉안할 때와 龜巖精舍에 五友堂 金近을 봉안할 때, 尼谷別廟에 金仁贊과 金以鏗을 봉안할 때 지은 것이다. 그리고 茅山の 丘隴神에게 올리는 告文, 고려말의 무신 孫洪亮의 遺墟碑閣과 이상정의 高山講堂의 開基 고문이다. 제문은 霽山 金聖鐸, 屏谷 權槩, 김낙행, 金江漢, 권병, 金宗九, 이상정, 이광정, 김중경, 百弗菴 崔興遠, 이인두, 이완, 仲舅 金斗濂, 유장원, 김중덕에 대한 것이다. 이 중 이상정에 대한 것은 小祥과 大祥 때 지은 것을 포함하여 3편이 수록되어 있다.

권 17은 哀辭(4), 行狀(3)이다. 애사는 권병, 崔尙鎭, 이완, 족숙 李春敏을 위해 지은 것이고 행장은 이상정에 대한 敘述, 이광정에 대한 行略과 華巖處士 李師靖에 대한 것이다.

권 18은 行狀(9)이다. 6대조 李敬遵, 5대조 李爾樟, 고조부 李巨, 증조부 李台徵, 조부 李廷英에 대한 家傳 5편과 양부 李起三의 行錄, 생부 李德三의 行記 그리고 숙조 이의태, 족숙 이춘부에 대한 것이다. 말미에는 아들 이우강이 1799년에 지은 遺事가 첨부되어 있다.

卷之八 / 書

답신자장 체인○을사 答申子長 體仁○乙巳

20世 체인(體仁) 父 : 도만(道萬) 祖父 : 분구 (貢龜)

귀파(龜派) 오봉공파(梧峰公派)

七月顧枉。得一夕嘉客。而說猶有未盡。耿耿久而未解。意外伏承耑教。謹審冬寒。侍餘體履燕超。彊勉之工。循省之意。溢於言外。正使頹廢有心開目明之感。何慰如之。宗洙。年來杜門。計活甚適。旋以刊補刻役。數月濡滯虎院。糜敝精神。拋費光陰。甚足悼歎。惟是周旋幾箇好朋友。飽飫無限好景物。洗滌滿肚鄙吝。此差自慰耳。誨諭珍復。有以見此來反省之密而有進進日新者。矯揉之功。操持之方。明者料已審辨。能持此而勿輟焉。則何憂不到齊美哉。蓋嘗謂立作之人能不爲流徇。不流徇則或過而至於滯礙。以明快白直爲說。則易於發露少涵蓄。皆非所以養成中正和樂之義。今承爲是之慮而加之意焉。何善如之。淺陋本少自立。又見得此邊意。所以見於應接處。率多流徇。又瞿然思有以藥之而未能焉。承諭之及。不覺爽惘耳。示諭健順之義。致道兄所論。恐失性命本然之體。非但涉於破碎而已。一向未與從容爛漫討論爲恨。率性之義。不敢膠膠。累月尋繹。終未回悟。只如看得前人文字。每見此邊義理說多了。證據愈明了。似未有會通之期。且望幾日一番對榻。更聞精到之論也。年來此道厄運。後生無適從。重以得失壞了才志。幾無開眼處。念吾契獨立耿介。一味內求。所以思懷期望。與日俱深。迺篤志勉力。殆過於新學壯年之爲。歲寒之慰。當復如何哉。願益努力竿頭。日求未至。時惠金玉。俾懦夫者與蒙刮磨。實下交區區之懷也。

여신자장 병오 與申子長 丙午

溽暑正苦。伏惟靜養學履對時岌重。宗洙。病隨年長。衰頓轉甚。入夏以來。又困伏暑。尋數零碎。斷續無常。兒子意外參名。雖則慰懷。而添一撓端。恐遂因循。遂成廢墮。日夕瞿瞿耳。早知此事。專藉師友講明資益。而却慮己功未深。易流口耳。未能汲汲於問難。自失依歸。不決之疑種種。而有年衰病纏。又未暇往從同志大家剖破。恐遂爲千古之恨。未知閒中玩養。日有新益。亦有可以遠惠。警此頹墮否。歲晏之期。於是爲甚焉耳。致曲一段義。昨年對討後。重思量來。更覺未盡。蓋當先說各因所發之偏而悉推致其極。朱子曰。因惻隱而充擴其仁。因羞惡而充擴其義。是正義類推而各致其極。亦爲一義。若專以類推之義言。則恐非本文立言之義。且幸加商思如何。師門文字。一番繕寫已畢。而汨於病冗。且緣體大。尙未試讎校。前月別檢兄齋往川沙。圖一次勘過而擺脫不得。又未往聽一二。殊爲恨慊耳。玉山舉措。世道之憂。正自不淺。改刊之事。非但事理有不容已。想事勢亦不得緩。似此節拍。恐無定貼之期。正吾黨深思遠慮處也。竊以爲與人辨是非。惟是平心循理。著不得一毫爭氣然後在我無過中之悔。在彼有斡轉之機。今茲之舉。固出於不得已。而亦一起鬧之階。惟



當正誤刊衍。如圖說下小識。曹忘機書空書題目之類。收刻跋文。使本書粹然無復可議而已。不識當事諸丈其念及於此耶。前承左右一嘗駕枉。與同勘校。想必隨處參詳。務歸正當。所恃而不憂者也。抑相從之久。得覩從者立志孤苦。制心堅懇。尋常傾慕。不敢自外。惟是困於所便。欠 P 了稽衆舍己。臨事而懼之意。議論應酬。類有直截獨往之味。以此持己。安保其無悔吝哉。亦願有以反省而思揉之也。吐心之間。有懷不敢隱。蔓延及此。惟盛度諒察焉。

### 답신자장 정미 答申子長 丁未

拜辱且數月矣。疹憂頽洞。扶療不暇。兼書中義旨精微。不可以率爾酬復。惟怠慢是懼耳。卽日春事向闌。伏惟靜養對時茂福。一倍瞻詠耳。宗洙。冬裏連患舊嗽。方春愈甚。氣血虛損。日覺昏耄。時時佔畢。有如漏器之水。正非研索精進時 P 節。且從事於所謂根本之功而未之能也。先師先生蓋嘗提耳而懇戒之。已晚矣。未知來日能不負否耳。示諭貞訓之義爲解。終是有不能襯貼之嫌。得繫辭貞勝註。似頗明白。故特爲改之。然隱之於心。猶以註說太簡。不及終物始物之義。而未敢指摘也。來諭疑之。誠不爲過。但所謂正而常者。非終始之外。別有所謂貞也。只此正而常者。能終物始物耳。恐於理無相悖耳。蓋曰心之貞。而以正與常言之。則敬之無間於動靜語默。而爲心之主宰者然也。曰性之貞而以正 P 與常言之。則靜之本然眞靜。而爲性之本面者然也。既曰心之主宰。則終始動靜之義。亦未嘗不該括也。既曰性之本面。則一動一靜之義。何嘗外於正而常之義哉。且上文答南軒書。既有心之道一句。而繼以敬者心之貞。則此貞字對上道字而言。乃是實字。正指四德終始之貞而言之。然四德之貞。何可不以正而常而言之耶。至於答林擇之書。上文既有未有不復其常之語。則性之貞者。訓正與常。尤爲襯貼。來諭以性之貞訓常爲近者。亦是此意。但謂心之貞不可 P 以訓常。性之貞不可以訓正。則鄙亦不能無疑不必他求。請就盛辨而反復之。來諭謂動而靜。則是爲元之貞也。靜而涵動之所本。則是爲貞之爲元之所始也。循環動靜。貫徹始終則敬之所以爲心之貞者然也。妄謂貞之義。雖以終物始物取義。然其體段意思。實以收斂歸藏而言。則心之收斂處。是正而常者也。卽貞之謂也。何害於謂之常也。乃以動而靜。靜而涵動之理者。解敬之循環動靜。貫徹始終之意。則亦不可謂脗合無間矣。動而靜。靜而涵動之理。是心循環 P 動靜。貫徹始終是敬。來諭又謂一性澹然。未嘗不靜。而感於物則動。感既息則未嘗不復於常。止性發爲情。無不中節而不失其本然之正者。是謂不失其爲貞。妄謂性本靜矣而因感而動。動極而靜。復其本然。則是所謂性之貞者。而只指其本體之未動而言爾。則是亦正而已矣。又何害於言常又言正也。來諭又謂動常止者。是爲動中之靜。卽所謂貞之著乎動者。而性發爲情。無不中節而不失其本然之靜者。是爲不失其爲貞。則此靜之所以爲性之貞者然也。則似 P 反以性之流行於感物處。而喚作貞之義也。恐不免攙入外來義理之弊矣。蓋議論元本主於成終成始爲貞之義。故有此枝蔓差互之患焉。須知只此正而常者。能始物終物。常

者其所能。終始之者其能也。何可謂正與常者。不可以訓二貞之義哉。幸更隨文善觀。以求會通如何。所引定性書。朱子之意。蓋以性定而天下之動一者爲貞。取義又別。乃以證心之貞之義。則心貞之一句。固亦該體用。而只就本原而言。似不指仁立義行而言也。此毫釐間。便有分別。幸更加 P 研究。却以見教如何。二箴之說。其於終始之義。儘分明。但二書貞字之義。非謂無此理也。但專以此義訓解。則非所以訓心性二貞字之義也。至於貞勝之云。以其引正與常訓解所出處。故賺連貞勝字。而初不以勝字釋貞義。來諭上下再提之。恐或未及照勘。未知然否。

### 답신자장 병진 答申子長 丙辰

承喻。向來敬則心之貞之義。真的明白。盡洗濯得從前惹絆之意。非虛心遜志。益求其所未至。何以及此。以此知年來進學之功益勤不懈也。 P 每念吾契志氣堅固。工夫刻苦。不藉師資。獨力精詣。所以辦得家計。追踵絕軌。而惟其得之之艱。故或不免戀著先入。不容他人之議論。譬如服田之人。作勞有秋。粒粒辛苦。一粟之微。不忍輕費。是亦吝而已矣。須是積而能散。安安而能遷。方是應用不窮也。且如語類。先生嘗論明道伊川論心處。有體用未備之語。賤陋偶爲舉起。求其體用未備之所以然者。高明卽抵拒分體用之太支離。更不理會。若講論之際。每用此例。更無開口理會處矣。子思子曰。致廣大而盡精 P 微。溫故而知新。致廣大矣。又要盡精微。溫故矣。更要知新。若徒見義理之廣大。而不復求其精微處。徒貴溫燴故底而不求新知。則有妨上達之功。是古人之所憂也。來諭滿紙開釋。備見邇來矯揉日新之意。而問寡之誠。一格之長。隱然自見於遣辭之間。甚盛甚盛。第所謂深恚而不欲強辨云者。下得一恚字。便和自家這裏做病了。講學。凡欲心平氣和。究極理義之中正焉爾。苟以義之未契。遽懷恚愠之意。則是所謂講論者。適足以長不平不和之習而已。豈不謬乎。妄 P 竊以爲義理精微。例具四面。聖人當初不是有意說許多頭項。只因事而言。都相貫通。知其所以不同。方知其所謂同。讀者只當審其指言之意。會通而融貫之。見其渾然圓滿。泯無間隔。所謂義理極處。庶幾到盡。更無一辭一義相齟齬處矣。今以貞之字言。則本以貞固之義而得名。而有以始終之義言者。利貞之貞是也。有以正常之義言者。貞勝之貞是也。心貞之貞。於始終之義未切實。而最近正常之義。故指以爲訓。非始終之貞之外別有正常之貞也。以類而推。他 P 可會得只是一理而已矣。未知果然乎否也。元來義理無窮。人之知思有限。推得一重。更有一重。如無諂無驕。子貢自以爲至。而及聞樂與好禮之教。則遂有如磋如磨之對。所以卒聞性與天道。而不止於可與言詩而休也。抑念昔小山丈席寢疾之日。得陪侍從容。淺陋有言云。學問之事。固非一端。而講論一事。尤爲緊切。邇來此一端事。幾於廢墜。道學所以不振。恐或以此。公蹶然曰。誠是如此。講學最急。義理須待講論而明。講論則思過半矣。先輩所以眷眷者。果如是 P 焉。又嘗觀語類。朱先生論孟子四端說云。此一章。其初只是匹自閒容易說出來。連那本末內外。體用精粗。都包在裏面。無些欠闕處。如



孔子許多門弟子。都不曾恁地說得分曉。想是曾子子思後來。講來講去講得精。所以孟子說得來恁地。若子思。亦只說得箇大體分曉而已。古人之重講論也如是。今日吾輩。各自杜門。各自努力。鮮有以一辭一義刮磨於同志之間者。欲望知見之一同。造詣之相脗。恐亦難矣。今人所以不及古人。安知其不由於是耶。惟願益勉涵養。愈懋展拓。使蒙愚淺劣。亦得與於刮磨之益。則幾何異於同席而居哉。

東巖云亡。吾黨益凋落。傷痛久未瘳。適問題詩。重令戚戚也。

后山先生文集卷之八

書  
答申子長體仁〇乙巳

七月顧枉。得一夕嘉客。而說猶有未盡。耿耿久而未解。意外伏承。尚敦謹。審冬寒。侍餘體履。燕超彊勉之工。循省之意。溢於言外。正使頹廢有心。開目明之感。何慰如之。宗洙年來杜門。計活甚適。旋以刊補刻役。數月濡滯虎院。糜敝精神。拋費光陰。甚足悼歎。惟是周旋幾箇好朋友。飽飲無限好景物。洗滌滿肚鄙吝。此差自慰耳。誨

論珍復有以見此來反省之密而有進進日新者。矯揉之功。操持之方。明者料已審辨。能持此而勿輟焉。則何憂不到齊美哉。蓋嘗謂立作之人。能不為流徇。不流徇則或過而至於滯礙。以

明快白直為說。則易於發露。少涵蓄。皆非所以養成中正和樂之義。今承為是之慮。而加之意焉。何善如之。淺陋本少自立。又見得此邊意。所以見於應接處。率多流徇。又瞿然思。有以樂之而未能焉。承諭之及。不覺爽惘耳。示諭健順之義。致道兄所論。恐失性命本然之體。非但涉於

后山集 卷八

破碎而已。一向未與從容爛漫討論為恨。率性之義。不敢膠膠。累月尋繹。終未回悟。只如看得前人文字。每見此邊義理說多了。證據愈明了。似未有會通之期。且望幾日一番對榻。更聞精到之論也。年來此道厄運。後生無適從。重以得失壞了才志。幾無開眼處。念吾契獨立耿介。一味內求。所以思懷期望。與日俱深。迺篤志勉力。殆過於新學壯年之為。歲寒之慰。當復如何哉。願益努力。竿頭日求未至。時惠金玉。俾懦夫者與蒙刮磨。實下交區區之懷也。

與申子長丙午

溽暑正苦。伏惟靜養。學廢對時必重。宗洙病隨年長。衰頓轉甚。八夏以來。又困伏暑。尋數零碎。斷續無常。兒子意外參名。雖則慰懷。而添一撓端。恐遂因循。遂成廢墮。日夕瞿瞿耳。早知此事。專藉師友。講明資益。而却慮已功未深。易流口耳。未能汲汲於問難。自失依歸。不決之疑種種。而有年衰病纏。又未暇往從同志。大家剖破。恐遂為千古之恨。未知閒中玩養。日有新益。亦有可以遠惠。警此頹墮否。歲晏之期。於是為甚焉。

三〇一



耳致曲一段義。昨年對討後。重思量來。更覺未盡。蓋當先說各因所發之偏。而悉推致其極。朱子曰。因惻隱而充擴其仁。因羞惡而充擴其義。

是正義。類推而各致其極。亦為一義。若專以類推之義言。則恐非本文立言之義。且幸加商思如何。師門文字。一番繕寫已畢。而汨於病冗。且緣體大。尚未試讎校。前月別檢兄齋往川沙。圖一次勘過。而擺脫不得。又未往聽一二。殊為恨慊耳。玉山舉措。世道之憂。正自不淺。改刊之事。非但事理有不容已。想事勢亦不得緩。似此節

后山先生文集卷之八

三

拍恐無定貼之期。正吾黨深思遠慮處也。竊以為與人辨是非。惟是平心循理。著不得一毫爭氣。然後在我無過中之悔。在彼有幹轉之機。今茲之舉。固出於不得已。而亦一起鬧之階。惟當正誤刊衍。如圖說下小識。曹忘機書空書題目之類。收刻跋文。使本書粹然無復可議而已。不識當事諸丈。其念及於此耶。前承左右一嘗駕枉。與同勘校。想必隨處參詳。務歸正當。所恃而不憂者也。抑相從之久。得覲從者立志孤苦。制心堅懇。尋常傾慕。不敢自外。惟是困於所便。欠

了稽衆舍已臨事而懼之意。議論應酬。類有直截獨往之味。以此持己。安保其無悔吝哉。亦願有以反省而思操之也。吐心之間。有懷不敢隱。蔓延及此。惟感度諒察焉。

答申子長丁未

拜辱且數月矣。疹憂湏洞。扶療不暇。兼書中義旨精微。不可以率爾酬復。惟怠慢是懼耳。即日春事向闌。伏惟靜養對時。茂福一備。瞻謀耳。宗洙。冬裏連患舊嗽。方春愈甚。氣血虛損。日覺昏耄。時時佔畢。有如漏器之水。正非研索精進時節。且從事於所謂根本之功。而未之能也。先師先生蓋嘗提耳而懇戒之。已晚矣。未知來日能不負否耳。示諭貞訓之義。為解。終是有不能襯貼之嫌。得繫辭貞勝註。似頗明白。故特為改之。然隱之於心。猶以註說太簡。不及終物始物之義。而未敢指摘也。來諭疑之。誠不為過。但所謂正而常者。非終始之外。別有所謂貞也。只此正而常者。能終物始物耳。恐於理無相悖耳。蓋曰心之貞。而以正與常言之。則敬之無間於動靜。語默而為心之主宰。齊然也。曰性之貞。而以正

后山先生文集卷之八

四

語默而為心之主宰。齊然也。曰性之貞。而以正



與常言之。則靜之本然貞靜而為性之本面者。然也。既曰心之主宰。則終始動靜之義。亦未嘗不該括也。既曰性之本面。則一動一靜之義。何嘗外於正而常之義哉。且上文答南軒書。既有心之道一句。而繼以敬者。心之貞。則此貞字對上道字而言。乃是實字。正指四德終始之貞而言之。然四德之貞。何可不以正而常而言之耶。至於答林擇之書。上文既有未有不復其常之語。則性之貞者。訓正與常。尤為襯貼。來諭以性之貞。訓常為近者。亦是此意。但謂心之貞。不可以訓常。性之貞。不可以訓正。則鄙亦不能無疑。不必他求。請就感辨而反復之。來諭謂動而靜。則是為元之貞也。靜而涵動之所本。則是為貞之為元之所始也。循環動靜。貫徹始終。則敬之所以為心之貞者。然也。妄謂貞之義。雖以終物始物取義。然其體段意思。實以收斂歸藏而言。則心之收斂處。是正而常者也。即貞之謂也。何害於謂之常也。乃以動而靜。靜而涵動之理者。解敬之循環動靜。貫徹始終之意。則亦不可謂昭合無間矣。動而靜。靜而涵動之理。是心循環

后山先生文集卷之八

五

后山集 卷八

動靜。貫徹始終。是敬。來諭又謂一性澹然。未嘗不靜。而感於物。則動。感既息。則未嘗不復於常。止性發為情。無不中節。而不失其本然之正者。是謂不失其為貞。妄謂性本靜矣。而因感而動。動極而靜。復其本然。則是所謂性之貞者。而只指其本體之未動而言爾。則是亦正而已矣。又何害於言常又言正也。來諭又謂動常止者。是為動中之靜。即所謂貞之著乎動者。而性發為情。無不中節。而不失其本然之靜者。是為不失其為貞。則此靜之所以為性之貞者。然也。則似反以性之流行於感物處。而喚作貞之義也。恐不免攙入外來義理之弊矣。蓋議論元本。主於成終成始。為貞之義。故有此枝蔓。差互之患焉。須知只此正而常者。能始物終物。常者其所能終始之者。其能也。何可謂正與常者。不可以訓二貞之義哉。幸夏隨文善觀。以求會通如何。所引定性書。朱子之意。蓋以性定而天下之動一者為貞。取義又別。乃以證心之貞之義。則心貞之一句。固亦該體用。而只就本原而言。似不指仁之義行而言也。此毫釐間。便有分別。幸夏加

后山先生文集卷之八

六

三〇三



研究却以見教如何。二箴之說。其於終始之義。儘分明。但二書貞字之義。非謂無此理也。但專以此義訓解。則非所以訓心性二貞字之義也。至於貞勝之云。以其引正與常訓解所出處。故賺連貞勝字。而初不以勝字釋貞義。來諭上下再提之。恐或未及照勘。未知然否。

答申子長丙辰

承喻。向來敬則心之貞之義。真的明白。盡洗濯得從前惹絆之意。非虛心遜志。益求其所未至。何以及此。以此知年來進學之功。益勤不懈也。

后山先生文集卷之八

七

每念吾契志氣堅固。工夫刻苦。不藉師資獨力精詣。所以辦得家計。追踵絕軌。而惟其得之之艱。故或不免戀著先入。不容他人之議論。譬如服田之人。作勞有秋。粒粒辛苦。一粟之微。不忍輕費。是亦吝而已矣。須是積而能散。安安而能遷。方是應用不窮也。且如語類。先生嘗論明道伊川論心處。有體用未備之語。賤陋偶為舉起。求其體用未備之所以然者。高明即抵拒分體用之太支離。夏不理會。若講論之際。每用此例。夏無開口理會處矣。子思子曰。致廣大而盡精

微。溫故而知新。致廣大矣。又要盡精微。溫故矣。夏要知新。若徒見義理之廣大。而不復求其精微處。徒貴溫燖。故底而不求新知。則有妨上達之功。是古人之所憂也。來諭滿紙開釋。備見邇來矯揉自新之意。而問寡之誠。一格之長。隱然自見於遣辭之間。甚感甚感。第所謂淺惠而不欲強辨云者。下得一惠字。復和自家這裏做病了。講學。凡欲心平氣和。究極理義之中正焉。爾苟以義之未契。遽懷惠溫之意。則是所謂講論者。適足以長不平不和之習而已。豈不謬乎。妄

后山先生文集卷之八

八

竊以為義理精微。例具四面。聖人當初不是有意說許多頭項。只因事而言。都相貫通。知其所以不同。方知其所謂同。讀者只當審其指言之意。會通而融貫之。見其渾然圓滿。泯無間隔。所謂義理極處。庶幾到盡。夏無一辭一義相齟齬處矣。今以貞之字言。則本以貞固之義而得名。而有以始終之義言者。利貞之貞是也。有以正當之義言者。貞勝之貞是也。心貞之貞。於始終之義未切實。而最近正常之義。故指以為訓。非始終之貞之外。別有正常之貞也。以類而推。他



可會得只是一理而已矣。未知果然乎否也。元來義理無窮。人之知思有限。推得一重。更有一重。如無諂無驕。子貢自以為至。而及聞樂與好禮之教。則途有如磋如磨之對。所以卒聞性與天道。而不止於可與言詩而休也。抑念昔小山丈席寢疾之日。得陪侍從容。淺陋有言云。學問之事。固非一端而講論一事。尤為緊切。邇來此一端事。幾於廢墜。道學所以不振。恐或以此。公蹶然曰。誠是如此。講學最急。義理須待講論而明。講論則思過半矣。先輩所以眷眷者。果如是焉。又嘗觀語類。朱先生論孟子四端說云。此一章。其初只是匹自間容易說出來。連那本末內外。體用精粗。都包在裏面。無些欠闕處。如孔子許多門弟子。都不曾恁地說得分曉。想是曾子子思後來講來。講去。講得精。所以孟子說得來恁地。若子思亦只說得箇大體分曉而已。古人之重講論也如是。今日吾輩。各自杜門。各自努力。鮮有以一辭一義。刮磨於同志之間者。欲望知見之一同。造詣之相照。恐亦難矣。今人所以不及古人。安知其不由於是耶。惟願益勉。涵養

后山先生文集卷之八 九

后山集 卷八

愈懋展拓。使蒙愚淺。亦得與於刮磨之益。則幾何異於同席而居哉。  
東巖云。亡吾黨益凋落。傷痛久未瘳。適間題詩。重令感戚也。  
答柳秀夫。溘○辛亥  
有便。有書。每出先施。感荷之餘。旋濺不敏之愧耳。就審清和。靜養體履。萬重何等慰仰。皋唳聞天。聖恩出常。親知慰悅。有在言語之外。蓋非敢以顯揚為尊。兄榮而以遠學之見。知為喜也。宗洙歸來。滾滾重以頽憊。惟與枕席為伍。追思嚮時。書香追從之樂。官然如隔世光景。不知何時。復續前緣。周旋於玉淵謙巖之間。以了未盡之賞也。文集想次第謄寫。尚坐卒卒。猶有未究竟處。私自耿耿。數段稟疑。略布於令宗氏丈書中。不敢再煩耳。所患疑目。曾前未能推究。日間尋繹。條緒隱奧。極難理會。或有粗通處。而不能必其是。計作一箇目。就質而遽不能及。須待後耳。每竊觀老兄樂易。耿介之意。有餘而於威重上。不甚致察。古人以為氣質之小疵。然一出世路。自別於窮閭之中。不可以不密加矯揉之功。

后山先生文集卷之八 十

三〇五



也。相愛之間。無以為贈。聊誦所聞。千萬慎重。以慰區區之望。

與金德仲龍普○丁酉

賁趾先生遺集刊而未印。為院中欠典。尊家先輩。蓋嘗是正。寫成新帙。宜以時登於梓。而顧其間。猶有未盡。刷剔者。兼新本亦或有可詳處。且圖從近期會於蘇湖。一番勘校。作為定本。此亦尊家事也。諒不可以推讓。幸勿復辭。遞越暑前。定期示來如何。

答金中立道行○辛亥

后山先生文集卷之八

十一

數載離違。總怒日深。令姪君來。伏承手辱。謹審冬寒。靜養體履。對時密衛。區區慰諭。前此見高懷簡淡。悅於自修。而不樂提誘後輩。古人規模。固彊於自治。而又教人之為急。蓋曰。知道者多。則道明。善人多。則風俗厚。此內外之道。未嘗倚著。而體用所以全備也。恐不可以及人者。為在外。而不之加意也。未知高明以為如何。吾黨不幸。南澗翁遽為古人。忠厚信順。生平所佩服。傷慟之懷。不止分情而已。書來悼怛。尤令人起懷也。

卷之十六 / 跋

서열부아주신씨사적후 書烈婦鵝洲申氏事蹟後

20世 체인(體仁) 父 : 도만(道萬) 祖父 : 분구 (貢龜)

귀파(龜派) 오봉공파(梧峰公派)

古之人有言曰。慷慨殺身易。從容就義難。夫惟死難事會之至。感觸激烈。決性命於危迫之際者。是固難而亦易耳。若夫見義當然。知生之可舍。從容乎其就而不避者。是又難而尤難者也。然此以烈丈夫言耳。夫以婦人體質柔弱。又未嘗讀書稽古。講求生與義之輕重也。一朝卒然遭非常之變。損軀以從死者。固無愧於丈夫。而至於知義之當死而視死如歸。從容以就之。則尤烈丈夫之所尤難也。若申氏夫人者。真所謂從容就義者歟。夫人。南重吉內子也。歸于南氏。才踰年耳。重吉資粹而讀勤。人謂之兩美。癸卯春。赴龍宮之解。殞于入圍之際。遂以喪歸。嗚呼慘矣。初終之後。夫人即嘗潛自引決。為家人覺而止之。舅姑慰解萬方。夫人即處之如常例。飲食執事。惟舅姑之命。一日請于舅姑。往女兄之居。一婢從之。至雲山堤畔而自沈焉。蓋親身之衣。盡具襲斂之服矣。嗚呼。夫何其從容也。自古婦人之殉身於所天者。代有其人。而其處置微密。行止詳緩。初不違舅姑之顏色。而卒從吾所好。求之簡策。殆鮮儔匹。從婢之隨死。蓋亦義烈之感也。多士齊籲。繡衣上啓。棹楔之命。樹風聲於百代。有其實則必有其名者。固如是乎。雖然。夫人之行。豈無所本而然歟。夫人遠祖按廉公。以孝旌於閭。近祖悔堂公。克紹前武。夫人在家。循婉婉之教。及其歸而以和順稱。不幸遭變。惟義之殉。蓋移孝之道而盡於事夫者也。夫豈偶然一時勉強之為哉。嗚呼偉



哉。重吉之嚴君。過時而哀。命其次孫續重吉後。且編前後呈司文字。傳旨及朋友哀悼之詞。銘文之屬。哀爲一通事蹟。遺之子孫。夫人其可以不朽矣。嗚呼悲夫。

古之人有言曰。慷慨殺身易。從容就義難。夫惟死難事會之至。感觸激烈。決性命於危迫之際者。是固難而亦易耳。若夫見義當然。知生之可舍。從容乎其就而不避者。是又難而尤難者也。然此以烈丈夫言耳。夫以婦人體質柔弱。又未嘗讀書稽古。講求生與義之輕重也。一朝卒然遭非常之變。捐軀以從死者。固無愧於丈夫。而至於知義之當死而視死如歸。從容以就之。則尤烈丈夫之所尤難也。若申氏夫人者。眞所謂從容就義者歟。夫人。南重吉內子也。歸于南氏才諭年耳。重吉資粹而讀勤。人謂之兩美。癸卯春。赴龍宮之解。殞于八圍之際。遂以喪歸。嗚呼慘矣。初終之後。夫人卽嘗潛自引決。爲家人覺而止之。舅姑慰解萬方。夫人卽處之如常例。飲食執事。惟舅姑之命。一日請于舅姑。往女兄之居。婢從之。至雲山堤畔。而自沈焉。蓋親身之衣。蓋具襲斂之服矣。嗚呼。夫何其從容也。自古婦人之殉身於所天者。代有其人。而其處置微密。行止詳緩。初不違舅姑之顏色。而卒從吾所好。求之簡策。殆鮮儔匹。從婢之隨死。蓋亦義烈

后山集 卷十六

之感也。多士齋額繡衣上。啓棹楔之命。樹風聲於百代。有其實則必有其名者。固如是乎。雖然。夫人之行。豈無所本而然歟。夫人遠祖按廉公。以孝旌於閭。近祖梅堂公。克紹前武。夫人在家。循婉婉之教。及其歸。而以和順稱。不幸遭變。惟義之殉。蓋移孝之道。而盡於事夫者也。夫豈偶然一時勉強之爲哉。嗚呼。偉哉。重吉之嚴君。過時而哀。命其次孫續重吉後。且編前後呈司文字。傳旨及朋友哀悼之詞。銘文之屬。哀爲一通事蹟。遺之子孫。夫人其可以不朽矣。嗚呼悲夫。

書錦春堂姜訓導遺事後

論語之書。記聖門傳習之蹟。三千之徒。見於記載。則皆有以施於後世。而不至湮滅焉。且如封人之抱關擊柝。接輿之趨向不同。而尚賴一二序列之文。至于今。照人耳目。知惟獲露教誨。心服而親炙焉者。又豈待後人之闡揚而後足哉。余讀退陶先生書。有鳴玉臺詩并序。是晚年辭爵時。行到少日讀書之處。追懷舊遊。發於詠歎。悼九原之難作。悲水石之依舊。撫念陳迹。愈久

四七九



## 운곡선생문집(雲谷先生文集)

## 형태서지

권수제	운곡선생문집(雲谷先生文集)
판심제	운곡선생문집(雲谷先生文集)
간종	활자본(木活字)
간행년	1899년 간행
권책	20권 11책
행자	10행 20자
규격	22.0×17.5(cm)
어미	上下二葉花紋魚尾
소장처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도서번호	D1-A240
총간집수	한국문집총간 속 111

## 저자

성명	이희발(李羲發)
생년	1768년(영조 44)
몰년	1850년(철종 1)
자	우문(又文)
호	운곡(雲谷)
본관	영천(永川)
초명	영발(英發)
시호	희정(禧靖)
특기사항	정동필(鄭東弼)의 문인. 유태좌(柳台佐), 정홍경(鄭鴻慶) 등과 교유

행력

왕력		서기	간지	연호		연령	기사
영조	44	1768	무자	乾隆	33	1	1월 16일, 鶴城 華山에 있는 외가에서 태어나다.
정조	3	1779	기해	乾隆	44	12	霞谷의 南窩 鄭東弼 문하에 들어가 배우다.
정조	8	1784	갑진	乾隆	49	17	眞城李氏 李龜洛의 딸과 혼인하다.
정조	9	1785	을사	乾隆	50	18	가을, 達城試에 나아가다.
정조	13	1789	기유	乾隆	54	22	겨울, 泮試에 나아가다.
정조	14	1790	경술	乾隆	55	23	겨울, 通讀試에 합격하다. ○ 蔡濟恭을 배알하다.
정조	15	1791	신해	乾隆	56	24	1월, 부친상을 당하다.
정조	19	1795	을묘	乾隆	60	28	3월, 式年試 丙科에 합격하다. ○ 4월, 抄啓文臣이 되다.
정조	21	1797	정사	嘉慶	2	30	왕명으로 故寔을 지어 올리다. ○ 明陵 別檢이 되다.
정조	22	1798	무오	嘉慶	3	31	孝陵 別檢이 되다. ○ 「中庸」에 관한 御製條問에 應對하다.
정조	23	1799	기미	嘉慶	4	32	12월, 親試에서 연이어 3차례 장원을 하여, 特命으로 陞六되고 전적, 감찰이 되다.
정조	24	1800	경신	嘉慶	5	33	봄, 휴가를 얻어 낙향하다. ○ 6월, 정조가 승하하자 哭班에 나아가다.
순조	5	1805	을축	嘉慶	10	38	7월, 예조 좌랑이 되다.
순조	6	1806	병인	嘉慶	11	39	3월, 병조 정랑이 되다. ○ 9월, 정언이 되다. ○ 11월, 지평이 되다. ○ 12월, 정언이 되다. 상소를 올려 先朝의 義理를 천명할 것을 청하다.
순조	7	1807	정묘	嘉慶	12	40	11월, 지평이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순조	8	1808	무진	嘉慶	13	41	8월, 지평이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 〈偶感自序〉를 짓다.
순조	9	1809	기사	嘉慶	14	42	1월, 장령이 되다. ○ 2월, 부인상을 당하다. ○ 5월, 高山道 察訪이 되었으나 부모의 연로함을 이유로 나아가지 않다.
순조	10	1810	경오	嘉慶	15	43	5월, 정언이 되다.
순조	11	1811	신미	嘉慶	16	44	윤 3월, 장령이 되다. 求言에 응하여 時務疏를 올리다. ○ 7월, 헌납이 되다.
순조	12	1812	임신	嘉慶	17	45	세자의 이름을 避諱하여 ‘羲發’로 改名하다. ○ 4월, 헌납이 되다. ○ 10월, 다시 헌납이 되다.
순조	13	1813	계유	嘉慶	18	46	9월, 지평이 되다. ○ 12월, 헌납이 되다.
순조	14	1814	갑술	嘉慶	19	47	2월, 지평이 되다. ○ 7월, 헌납이 되다.

운곡선생문집(雲谷先生文集) 이희발(李羲發)

순조	15	1815	을해	嘉慶	20	48	7 월, 사간이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순조	16	1816	병자	嘉慶	21	49	7 월, 군자감 정이 되다. ○ 10 월, 寧海 府使가 되고, 通政大夫에 오르다.
순조	17	1817	정축	嘉慶	22	50	李家淳이 방문하여 함께 竹島를 舟遊하다.
순조	18	1818	무인	嘉慶	23	51	관찰사 金魯敬에게 서신을 보내 고을의 폐단을 개혁할 방법을 논하다. ○ 뛰어난 治績을 보이다.
순조	19	1819	기묘	嘉慶	24	52	6 월, 사간이 되다. ○ 11 월, 집의가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순조	20	1820	경진	嘉慶	25	53	4 월, 사간이 되다. ○ 12 월, 집의가 되다.
순조	21	1821	신사	道光	1	54	6 월, 정언이 되다. 상소를 올려 災異의 대책에 관해 진언하다. ○ 9 월, 집의가 되다. ○ 12 월, 정언이 되다.
순조	22	1822	임오	道光	2	55	3 월, 孝懿王后의 곡반에 나아가다. 사간이 되었으나 사직소를 올리고 낙향하다. ○ 윤 3 월, 侍講院 弼善이 되어 書筵에서 강의하다.
순조	23	1823	계미	道光	3	56	1 월, 사간이 되다. ○ 2 월, 모친상을 당하다.
순조	24	1824	갑신	道光	4	57	鶴棲 柳台佐가 방문하다. ○ 鳳亭에 서신을 보내 채제공의 「樊巖集」 營刊에 대해 修問하다.
순조	25	1825	을유	道光	5	58	4 월, 집의가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 6 월, 사간이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 7 월, 동부승지에 特除되었으나 신병으로 사직소를 올리고 나아가지 않다. ○ 9 월, 돈녕부 도정이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순조	26	1826	병술	道光	6	59	1 월, 寧越 府使가 되다. ○ 관찰사 鄭元容에게 서신을 보내 고을의 폐단을 논하다.
순조	28	1828	무자	道光	8	61	겨울, 受由를 얻어 낙향하였다가 관직에서 물러나다. ○ 거처를 ‘定齋’라 扁額하다. ○ 상소를 올려 荒政의 조치를 청하다.
순조	29	1829	기축	道光	9	62	조부의 행장을 짓다. ○ 金城에 별장을 마련하고 書室을 짓다.
순조	30	1830	경인	道光	10	63	윤 4 월, 동부승지가 되다. ○ 6 월, 孝明世子가 승하하자 輓詞 6首를 지어 올리다.
순조	33	1833	계사	道光	13	66	4 월, 셋째 아들 李魯翼을 곡하다. ○ 5 월, 대사간이 되다.
순조	34	1834	갑오	道光	14	67	4 월, 다시 대사간이 되었으나 상소를 올려 사직하다.
헌종	1	1835	을미	道光	15	68	3 월, 순조의 哭班에 나아가 만사 8수를 지어 올리다. ○ 7 월, 둘째 아들 李魯璧을 곡하다.
헌종	2	1836	병신	道光	16	69	순조의 大祥 곡반에 나아가다. ○ 12 월, 동부승지가



							되었으나 상소를 올리고 낙향하다.
헌종	4	1838	무술	道光	18	71	부친의 행장과 모친의 遺事를 짓다.
헌종	5	1839	기해	道光	19	72	柳 <sup>洙</sup> 主의 「臨汝齋集」을 교정하다.
헌종	7	1841	신축	道光	21	74	玉淵亭을 유람하다. 다시 「임여재집」을 교정하고, 서문을 짓다.
헌종	9	1843	계묘	道光	23	76	3 월, 嘉善大夫에 오르다. ○ 삼대가 추증되다.
헌종	10	1844	갑진	道光	24	77	4 월, 한성부 좌윤, 우윤이 되었으나 사직소를 올리고 나아가지 않다. ○ 7 월, 큰아들 李魯奎를 곡하다.
헌종	11	1845	을사	道光	25	78	4 월, 오위도총부 부총관이 되다. ○ 陽坪에 書堂을 짓고 만년의 거처로 삼다.
헌종	13	1847	정미	道光	27	80	1 월, 嘉義大夫에 오르다. ○ 6 월, 병조 참판이 되고, 正卿에 발탁되다. ○ 耆老社에 들어가다.
헌종	15	1849	기유	道光	29	82	1 월, 형조 판서가 되었으나 老病을 이유로 사직하다.
철종	1	1850	경술	道光	30	83	1 월 16 일, 졸하다. ○ 8 월, 金鶴山 露積峯에 장사 지내다.
철종	14	1863	계해	同治	2	—	‘僖靖’으로 시호를 받다.
고종	36	1899	기해	光武	3	—	목활자로 문집을 인쇄하다.

## 편찬및간행

저자의 유적에 대한 정리는 사후에 곧바로 손자 李維在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이유재가 1851년에 유사를 짓고 이를 바탕으로 1852년 柳致明에게는 행장을, 1853년 李明迪과 洪祐順에게는 묘지명과 신도비명을 부탁하여 받았다. 저자의 저술로는 詩文과 疏劄 약간 권이 가장되어 있었는데 이 가운데 규장각 초계문신으로서 응대한 내용을 기록한 中庸講義, 朱書故寔의 분량이 7~8 권에 달하였다. 그러나 이후의 문집 편찬과 관련한 기록이 없어 자세한 경위를 알 수 없다.

현재 저자의 문집으로 목활자본 「雲谷先生文集」이 전하고 있는데, 서문과 발문이 없어 명확한 편찬 내력은 알 수 없다. 다만 권수에 수록된 年譜의 말미에 보이는 “三十六年己亥 文集印出”이라는 기사를 고려하면 1899년에 목활자로 인쇄된 것으로 생각된다. 《초간본》이 본은 현재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D1-A240), 국립중앙도서관(한 46-가 223), 성균관대학교 존경각(D3B-795) 등에 소장되어 있다.

본서의 저본은 1899년에 목활자로 인쇄된 초간본으로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장본이다. 본 영인저본 중 卷次 ‘十九’는 漏落되어 있고, 年譜의 제 3 판, 권 2의 제 5 판, 권 17의 제 6 판, 권 21의 제 32 판은 板次가, 권 5의 제 12 판, 권 8의 제 13 판, 권 17의 제 6 판은 권차가 누락되어 있으며, 권 9의 제 21 · 22 · 43 판은 판차가 각각 ‘十一’, ‘二十三’, ‘四十一’로, 권 10의 제 45 판은 판차가 ‘四十’으로, 권 11의 제 3 판, 권 14의 제 7 · 10 · 13 · 16 · 19 판, 권 16의 제 14 · 17 · 20 · 23 판은 권차가 ‘十’으로, 권 12의 제 30 · 33 · 36 판은 판차가 각각 ‘二十三’, ‘二十三’, ‘二十六’으로, 권 13의 제 40 판은 판차가 ‘三十九’로, 권 14의 제 15 판은 판차가 ‘十’으로, 권 15의 제 33 · 34 · 40 판은 판차가 각각 ‘二十三’, ‘十四’, ‘三十八’

로, 권 16의 제 23 판은 판차가 '二十'으로, 권 17의 제 4 판은 판차가 '七'로, 제 38 판은 판차가 '三十'으로, 권 20의 제 60 판은 판차가 '五十六'으로, 권 21의 제 23 판은 판차가 '二十一'로, 제 31 판은 판차가 '二十'으로 誤記되어 있다.

年譜, 遺事(李維在 撰), 行狀(柳致明 撰) 등에 의함

## 구성과내용

본집은 20 권 11 책으로 되어 있다. 권수에 年譜와 권 1~18의 目錄이 있다.

권 1~2는 詩(190題)이다. 내용은 「心經」을 읽고 느낌을 노래한 <讀心經有感>에서부터 특정 장소를 가 보고 느낀 것, 應製한 것, 차운한 것, 지인의 죽음을 슬퍼한 것 등 다양한 것이 있다. 권 1에는 1796년에 지어 올린 <大殿春帖>을 비롯하여 초계문신으로 있을 때에 왕명을 받들어 응제한 시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권 2는 각 구절마다 小註를 부기하여 당시 상황을 엿볼 수 있게 하는 등 조정에 있을 때의 생활을 회상하면서 지은 <憶舊遊三十韻>을 비롯하여 孝明世子, 柳相祚, 李仁行, 金熙周, 柳台佐, 趙承洙, 朴時源, 李家淳, 李秉遠 등 51명에 대한 輓詩가 수록되어 있다.

권 3은 疏(15)로 대부분 사직하면서 올린 것이다. 그중 <請申明先朝義理兼辭正言疏>는 1806년 정언에 임명되자 사양하면서 올린 것이다. 이 상소에서 장헌세자의 伸冤 문제를 제기한 영남만인소를 옹호하고, 노론 벽파의 입장에서 임오화변을 정당화한 金達淳의 처벌을 주장하였다. <應旨陳時務十條仍辭掌令歸養疏>는 1811년 장령을 사직하면서 時務를 明聖學, 辨賢邪, 開言路, 簡守牧, 厚民生, 崇儉德 등 10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의견을 개진한 상소로, 당시 京華巨族 중심의 인재등용을 비판하고, 換父易祖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하였으며, 또한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聖學에 힘쓸 것을 주장한 것이다. 그리고 <請措置荒政疏>는 1828년 흉년에 대하여 황정을 펼칠 것을 주장한 것으로, 기호 지방의 흉년이 심하니 賈遷策을 써서 조금 풍족한 영남 연해 30여 읍의 곡물을 사들여 실어 오고, 공명첩을 발급하자는 내용이다.

권 4는 소(8), 議(3), 啓辭(1)이다. 소 중 1847년에 지은 <伸求臺臣李承憲兼請擇人任官疏>는 상소를 올리다 처벌받은 이승헌은 그 아뢴 것이 나라의 人心에 옳다고 여기는 바이니 용서해 줄 것, 후궁을 들어 왕실을 번창하게 할 것, 책임자를 택하여 벼슬을 주되 간사한 자는 가까이하지 말라는 내용이다. <論科弊兼請慎擇守令疏>는 문벌에 따라 선발하는 과거의 폐단에 대하여 언급하고, 과거의 법칙을 엄격히 하여 인재를 선발하고 治化에 보탬이 되는 수령을 신중히 선발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의는 모두 왕명을 받들어 지어 올린 것으로, 그중 <均役十目議>는 均役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均역청의 관원을 久任하도록 할 것, 결미는 常稅 외의 것이니 줄일 것, 鹽稅는 均역법 시행 이후 나온 것으로 민폐가 되니 元稅 이외의 것은 모두 없앨 것 등을 제시한 것이다. 계사는 1810년에 지은 것으로 災異가 일어나면 수양에 힘쓸 것을 주장한 <庚午筮啓>이다.

권 5~6은 書(73)이다. 鄭宗魯, 鄭東弼, 柳相祚, 柳台佐, 金魯敬, 申冕周, 洪敬謨, 鄭元容, 李勉昇, 李家淳, 鄭鴻慶, 洪祐順, 金英淳, 崔孝述, 柳致明, 金鎮華, 張錫愚, 柳鶴祚, 權大肯, 趙萬元, 李在稼, 洪鍾浩, 元錫周, 金清進 등 지인에게 보낸 것과 從叔父 李宜輔, 內弟 尹宗範, 아들 李魯奎, 李魯璧, 李魯翼 등 가족과 친인척에게 보낸 편지가 수록되어 있다. 그중 <與鄭東伯>은 1826년 영월 부사로 있으면서 강원도 관찰사 정원용에게 올린 글로, 그 別紙에서 영월의 민폐를 상세히 거론하고 있다.

권 7은 序(10), 記(5), 跋(9)이다. 서 중 <大學衍義補序>는 「대학연의보」를 간행하면서 그 가치를 의학서인 孫思邈의 「千金方」에 비길 정도로 「대학」을 공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책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1808년 살아온 날을 회고하면서 지은 <偶感自序>는 40~50세 때까지 명성이 나지 않으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한 孔子의 말을 언급하면서, 41세가 되어도 이루어 놓은 것 없는 삶을 자책하면서 앞으로 노

력해야 명성이 있을 수 있다고 自警한 것이다. 기 중에 <鄉飲酒記>는 鄉黨과 州里는 조정의 근본이고 鄉飲酒는 옛날 성왕이 예로 천하를 다스림에 있어서 시초가 되는 것으로 예의 시작은 음식과 술로 행하였다는 내용이다. 그 외에 자신이 지은 정자의 기문인 <定齋記>를 비롯하여 李益修의 처 烈婦 鵝洲申氏의 旌閭에 대해 쓴 것이 있다. 발은 1799년 정조가 杜甫와 陸游의 시를 抄選하고 엮은 「杜陸千選」을 비롯해서, 都愼修의 「止巖集」, 鄭蘊의 문인으로 병자호란 때 金化의 柏田에서 전사한 李承昌에 관한 기록인 「護軍李公柏田殉節錄」에 대한 것 등이 있다.

권 8은 傳(1), 說(3), 贊(1), 銘(5), 箋(5), 教(2), 律賦(2), 賦(2), 策(2)이다. <萬德傳>은 정조의 명으로 지은 것으로, 제주도 기생인 萬德이 義를 좋아하고 베푸는 것을 좋아하였는데 제주도에 대홍년이 들자 저축한 600斛을 내어 기민을 구휼한 내용과 그 일로 인해 임금이 상을 내리고자 하니 사양하는 대신에 상경하여 서울과 육지의 명승을 구경하고자 한다고 청한 내용이다. 설은 모두 왕명으로 지은 것으로, 그중 <誠幾神說>은 一理가 渾然하여 가득참도 없이 眞實无妄한 것이 誠이요, 음양이 나뉘고 動靜이 정립하여 찾을 수 있는 단서가 있고 볼 수 있는 조리가 있는 것이 幾요, 仁에서 비롯하여 의를 행하고 힘을 베풀지 않아도 존재하고, 생각을 기다리지 않아도 터득할 수 있는 것이 神인데, 이 3가지는 삼층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一理로 꿰뚫는 것이라는 誠, 幾, 神의 의미와 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生之謂性說>은 하늘이 만물에 부여한 것이 命이요, 사람이 하늘로부터 품부한 것이 性이니 자사가 말한 天命之性이나 맹자가 말한 性善之說은 모두 같은 것이라는 내용이다. <小往大來贊>은 천지음양의 순환에 대하여 논한 것이다. 명은 中和尺, 南薰琴, 李晚秀의 나막신, 20여 년 동안 사용한 벼루 및 먹에 대한 것이다.

권 9는 行狀(10)이다. 스승 정동필, 孫處訥, 朴重慶, 외조부 尹德殷, 內舅 尹倪, 孫鍾應, 柳暹, 趙承洙, 琴暹의 처 永川李氏, 趙相迪에 대한 것이다.

권 10은 家狀(3), 遺事(4), 墓碣銘(7), 墓誌銘(1), 墓誌(1), 擴記(1)이다. 가장은 증조부 李秀春, 조부 李德祜, 부친 李宜明에 관한 것이다. 유사는 모친 坡平尹氏, 아내 眞城李氏, 큰아들 이노규 등에 대한 것이다. 묘갈명은 尹弘鳴, 정동필, 朴漢遇, 李碩文, 金致寬, 吳國華, 徐活의 처 영천이씨에 대한 것이다. 묘지명은 從姪女인 李宗休의 처에 대한 것이고, 묘지는 부친 이의명에 대한 것이다. 광기는 천연두로 사망한 둘째 아들 이노벽에 관한 것이다.

권 11은 上樑文(11), 祝文(10)이다. 상량문은 왕명으로 지은 악기와 음악에 관한 글, 蕩平의 의미를 논한 글과 금성대군 옥사 당시 죽은 大田 李甫欽의 遺墟碑閣에 관한 글 등이 수록되어 있다. 축문은 社稷壇, 魚臺, 竹島 등에서 祈雨祭를 올릴 때 지은 것들이다.

권 12는 祭文(38), 誄文(1), 哀辭(1)이다. 제문은 정동필, 三從大父 李命天, 장인 李龜洛, 유상조, 김희주, 유태좌, 洪命周, 鄭忠弼, 李泰淳, 신면주, 이병운, 柳爽祚, 李東迪, 李宜輔, 李宜白, 李宜謙, 金是瓘, 李崇延 등에 대한 것이다. 뇌문은 名家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뜻이 독실했던 친구 申冕鑣에 대한 것이며, 애사는 성품이 독실하고 절도가 있었던 벗 朴祥德에 대한 것이다.

권 13~16의 앞부분은 中庸講義條對이다. 正祖의 御製條問을 먼저 제시하고 그에 대한 저자의 답변을 수록하였다. 권 13은 「중용」 序文에서 제 2장까지, 권 14는 제 3장부터 제 13장까지이며, 권 15는 제 14장부터 제 20장까지, 권 16은 제 21장부터 제 33장까지의 내용이다.

권 16의 뒷부분은 大學講義條對이다. '不言正心之工', '絜矩', '言心言用', '專言好惡' 4개의 주제로 되어 있으며, 條對의 본문은 빠져 있고 정조의 批를 수록하였다.

권 17~18은 故寔(4)이다. 奎章閣故寔節目은 1799년에 내각에서 왕명을 받들어 반포한 것이다. 朱子大全 故寔은 <己酉封事>, <延和奏劄>, <與延平李先生書> 등 주자의 글에 대하여 논한 것이고, 國朝故寔은 우리나라의 故事를 논한 것으로, 각 편의 말미에 정조의 비답이 첨부되어 있다.



권 19~20 은 附錄이다. 권 20 에는 손자 李維在가 지은 遺事, 柳致明이 지은 行狀, 洪祐順이 지은 新도비명, 李明迪이 지은 묘지명, 權大肯이 지은 諡狀, 李彙載가 지은 延諡告由文이 수록되어 있다. 권 21 에는 1847 년 저자가 耆老社에 들어가는 것을 축하하며 정홍경, 韓益相, 姜時永, 徐俊輔 등 13 명이 지은 시를 모은 耆社帖, 유치명, 정홍경, 홍우순, 李秀應, 李亨秀 등 20 명이 지은 輓辭, 1852 년 조정에서 내린 賜祭文, 吳載光, 金養教, 南德煥, 金驥雲, 李謙在 등이 지은 제문 23 편이 수록되어 있다.

## 이희발(李羲發)

### 정의

조선후기 병조참판, 지중추부사, 형조판서 등을 역임한 문신.

### 개설

본관은 영천(永川). 초명은 영발(英發). 자는 우문(又文), 호는 운곡(雲谷). 의성 출신. 이수춘(李秀春)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이덕방(李德枋)이고, 아버지는 이의명(李宜明)이며, 어머니는 윤덕은(尹德殷)의 딸이다. 정동필(鄭東弼)로부터 학문을 배웠다.

### 생애 및 활동사항

1795 년(정조 19)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뒤 규장각의 초계문신(抄啓文臣)으로 발탁되었으며, 그 뒤 승진하여 순조 때 대사간을 지내고 헌종 초기에는 승지가 되었다.

특히, 1847 년(헌종 13)에는 병조참판으로 있으면서 국방태세를 확립하여 외침에 대비하였고, 언로를 개방하여 하의가 상달되도록 주선하는 것과 아울러 근검절약하기를 힘쓰도록 주장하였다.

그 뒤 잇달아 승진하여 지중추부사를 거쳐 기로소에 들어갔다가, 1849 년에는 형조판서가 되었으나 곧 병으로 그만두었다. 시호는 희정(僖靖)이다.

卷之一 / 詩

만금연신장 체인 輓錦淵申丈 體仁

20世 체인(體仁) 父 : 도만(道萬) 祖父 : 분구 (貢龜)

귀파(龜派) 오봉공파(梧峰公派)

錦淵秋水挹水壺。管榻龐床仰德隅。學力可從窮處驗。清修端合後生模。金丹歲暮其如命。疏水分甘只任吾。鄉黨卽今先輩盡。百年斯道付長吁。

道存茶飯說。工密戰兢持。篤孝桐淮慕。眞詮洛建師。  
 力行敦古義。窮討析微辭。蘭刮開湖學。棲遲樂衛詩。  
 澗花明獨樹。丹鼎待良醫。茅棟經綸付。蕉窓歲月移。  
 朱書味蜀黍。素業日勤攷。一部彙分意。殘年燭秉時。  
 溪功驗積久。來學足師資。千載儒林傳。一天星斗垂。  
 髻齡陪丈席。至誨仰鑪錘。雪立尊師道。認明設講帷。  
 躬行皆教化。天分奈頑癡。至意終難割。餘生恨莫追。  
 天寒餘水月。歲暮感靈芝。最是關時運。奚徒哭我私。  
 震門今日痛。惟有涕文頤。

輓錦淵申丈 體仁

雲谷先生文集卷之一 三十四

錦淵秋水挹水壺。管榻龐床仰德隅。學力可從窮處  
 驗。清修端合後生模。金丹歲暮其如命。疏水分甘只  
 任吾。鄉黨卽今先輩盡。百年斯道付長吁。

輓李持暉 奎 二首

璧沼青襟際盛時。天恩早荷姓名知。才高彩筆懷  
 中得。臚唱祥雲日下垂。士望謾拋經國手。民謠空待  
 借年期。清銜相府家聲繼。餘慶留看寶樹枝。

機雲佳譽玉温如。泮水東頭識面初。廿載交情蘭室  
 近。百篇詞賦楚聲餘。逢場不盡蒼梧感。舊藎尚留紫  
 海書。絃斷裁洋難再和。菊酒寒雨涕沾裾。

卷之二 / 詩

회신승지시남성지 면주 급계령족로우런계당야화. 념운득년자. 會申承旨市南成之 冕周及季靈族老于蓮桂堂夜話. 拈韻得年字

20世 면주(冕周) 父 : 흥교(弘教) 祖父 : 황 (煌) 음파(邑派) 만오공파(晩悟公派)

郭外時將暮。燈前夜抵年。韶光分柳絮。詩思裊茶烟。乘興南樓月。瞻恩北斗天。高吟仍大酌。微雨過初筵。

[주-D001] 市南 : 저본의 원목차에 근거하여 '市南'을 보충하였다.

雲谷集 卷二

又次養眞庵韻

存天理是養吾眞。渣滓融時志氣神。二字扁櫓當日意。盤銘蕭葉與俱新。

又次前韻。呈李草庵來卿 秦導。二首。

堂構重成枕石頭。昔賢遺趾擅溪幽。竒峯繡錯無邊野。懸澗鏘鳴不舍流。聖世恩榮知自足。吾家活計豈他求。新詩寫出閑居趣。春晚折壇笑不休。

相承門路紫陽眞。堪笑莊生養谷神。當日的詮常在目。新亭舊甍煥然新。

又以前韻贈庵中年弟李 晚慈。二首。

雲谷先生文集卷之二 十三

新亭數架在東頭。地帶遺芬境轉幽。松桂干雲根柢遠。源泉放海晝夜流。明從竹牖門初入。塞去茅蹊路易來。太極在吾方寸裏。眞工慥慥敢言休。

益聞人生二五眞。由吾識力可通神。羹倫日用無非學。主宰存時始自新。

會申承旨成之 冕周 及季靈族老于蓮桂堂夜話。拈韻得年字。

郭外時將暮。燈前夜抵年。韶光分柳絮。詩思裊茶烟。乘興南樓月。瞻恩北斗天。高吟仍大酌。微雨過初筵。



卷之二 / 詩

만신시남성지 면주○이수 輓申市南成之 冕周○二首

20世 면주(冕周) 父 : 흥교(弘教) 祖父 : 황 (煌) 음파(邑派) 만오공파(晩悟公派)

兩戌居然八十翁。心期只在不言中。傳家至行烏投藥。瑞世香名鳳下桐。三達身兼榮已足。數年天假孝將終。小春碩果含生意。餘慶床前五尺童。

行人指點九成東。學士幽居傍學宮。經幄晝長三接日。丹爐歲晏九煎功。涓塵謾負平生志。傳與難全造化工。千古牙絃從此絕。暝雲何處起新封。

慶邦知今日淚題詩。

輓柳高城重吉

韻所

難爲伯仲李方質。忠孝堂高捷壽聯。題鴈香名科甲乙。副鷄優政尉神仙。文情匪稟璫絃絕。餘陰庭前寶樹圓。泉下重逢知不遠。謾將衰淚灑寒阡。

輓申市南成之

冕周二首

兩戌居然八十翁。心期只在不言中。傳家至行烏投藥。瑞世香名鳳下桐。三達身兼榮已足。數年天假孝將終。小春碩果含生意。餘慶床前五尺童。

行人指點九成東。學士幽居傍學宮。經幄晝長三接日。丹爐歲晏九煎功。涓塵謾負平生志。傳與難全造化工。千古牙絃從此絕。暝雲何處起新封。

雲谷先生文集卷之二 二十三

輓朴左尹仲益 光錫

水壺徹底玉溫然。報國心丹八十年。忠孝相承門戶大。立場咸稱父兄賢。四朝恩重涓塵效。三達尊兼位望全。慈塔聯名今幾在。謾將衰淚灑寒天。

輓柳大埜子剛 能休

幽蘭賸馥玉含輝。名利闕頭早決幾。直接湖巖門路正。講明濂洛緒言微。襟紳北海宵懸帳。桂樹南山夕掩扉。二野同歸時運否。空教後死涕霑衣。

雲谷集 卷二

卷之二 / 詩

만신정서 면헌○이수 輓申庭瑞 冕憲○二首

20世 면헌(冕憲) 父 : 창교(昌教) 祖父 : 성(煜) 읍파(邑派) 만오공파(晩悟公派)

鳳社孤桐自中琴。雲和一曲少知音。詩書謹守青穉業。孝敬常全赤子心。士望相推兼齒德。城塵不到卽山林。同志人間餘白首。追酬薤露淚沾襟。

○吾鄉三戊子居中。戚契朋遊臭味同。六世家傳珠惠在。百年心許點犀通。山陰夜雪誰相訪。康樂春園宴已終。昨送松翁歸厚壤。晨星搖落暮途窮。

雲谷先生文集卷之二 二十九

重逢之日矣。而君今不我待矣。蘭報既後。幽荷已閉。曾謂平生故人之誼。獨不如巨卿乎。只付數句。追展靈座。以寓山陽暮笛之悲云。

明時生並又同心。青歲相逢白首今。士望清朝餘諫草。治聲下邑按梅琴。榮親世艷。恩難降。錫類庭多寶樹陰。廿載參商吾輩恨。短詞追和淚盈襟。

輓申庭瑞 冕憲 二首

鳳社孤桐自中琴。雲和一曲少知音。詩書謹守青穉業。孝敬常全赤子心。士望相推兼齒德。城塵不到卽山林。同志人間餘白首。追酬薤露淚沾襟。

吾鄉三戊子居中。戚契朋遊臭味同。六世家傳珠惠在。百年心許點犀通。山陰夜雪誰相訪。康樂春園宴已終。昨送松翁歸厚壤。晨星搖落暮途窮。

輓朴上舍九叙 履坦 二首

五賢遺札一家傳。譽望兩州早竟然。學富蚕絲研義理。才高著策闡方圓。蜚英璧水青襟映。聯武騷壇赤幟先。盛代遺珠餘恨在。精光夜夜斗牛懸。

脫略時粧獨任真。休休氣味見伊人。居家孝友斯爲政。下筆詞華若有神。康樂園中羣李秀。徐卿身後兩兒珍。如今倍切吾私慟。烏是西河舊日恩。



卷之二 / 詩

만신(萬新) 면우(冕禹) 輓申(輓申) 冕禹

20世 면우(冕禹) 父 : 낙교(樂教) 祖父 : 광범(光範)

읍파(邑派) 난재공파(亂齋公派)

P 二祖家聲緒業綿。藹然天賦若人賢。董生慈孝空餘恨。賈傅才猷尚少年。誰識明時麟鳳瑞。長留寶氣斗牛躔。西山積雪催殘臘。却憶書燈永夜懸。

雲谷集 卷二

輓宋 昌殷

眞心瘦面好人姿。末路如君更有誰。大阮詩聲中道恨。雙清世德後生知。門多瓢鉢看高義。野有耕樵托晚期。人世更無終鮮慟。滿庭琪樹又孫枝。

輓朴而說 顯鳳 二首

淨華刊落葆天真。君子當時見若人。有客南來誰不涕。麥舟高義飽鄉鄰。

堂闈日永棣華聯。孝友家中一樂全。福善由來天有定。終看缺界更成圓。

輓申 冕禹

雲谷先生文集卷之二 三十三

二祖家聲緒業綿。藹然天賦若人賢。董生慈孝空餘恨。賈傅才猷尚少年。誰識明時麟鳳瑞。長留寶氣斗牛躔。西山積雪催殘臘。却憶書燈永夜懸。

輓孫 甲東

宣城遺蹟士林傳。尚憶陶山立院年。名祖家聲文彩富。南樓風物主人賢。明客過推高義。靈璧詩成托晚緣。荆棣堂前人去盡。古階殘菊更堪憐。

輓邊持憲日進 始暹

驥服豈車鶴在林。從來難測化翁心。癯姿老惜眉眉尉。高價時違買骨金。過劫西河看學力。旅遊東甌許



卷之五 / 書

여신승지성지 경자 與申承旨成之 庚子

20世 면주(冕周) 父 : 흥교(弘教) 祖父 : 황 (煌) 음파(邑派) 만오공파(晩悟公派)

向於先齋有事之日。得令兄爲重。以爲一門之光。且做數夕之穩。儘是衰境盛事。欣荷曷已。第於旋旆之際。風霾竟日。奉爲瑕慮。謹問日間令候調衛。果不以勞動有損。仰慰且溯。羲發。經宿還巢。頽然作尸居人。乃知令兄稟得之厚。非吾輩所及。令人艷歎。第緣當日應接多撓。未得相對爛商。而奉別之後。僉議以爲令公旣在異鄉。兩有司未及薦出。則新荆之所未免空虛。其於事體。似欠周徧。故不得已因道會中僉議。薦出兩邑本孫中兩人。以爲數年拮据成樣之地。而社長一位則付之本鄉。想令兄之意。亦無異同矣。伏惟照察。

雲谷先生文集卷之 十二

而今壽傳之役。又在吾嶺。私心感喜。尤有別焉。而顧此衰麻憂鬱之中。無由與見。是可恨也。察令聞已來會。而昨年 恩旨之後。迄未得一書攢祝。實有辜負之歎耳。家兒名忝直日。其行當及於始事之前。而適有家裏劇憂。致此晚後。良庸歎歎。

與申承旨成之 庚子

向於先齋有事之日。得令兄爲重。以爲一門之光。且做數夕之穩。儘是衰境盛事。欣荷曷已。第於旋旆之際。風霾竟日。奉爲瑕慮。謹問日間令候調衛。果不以勞動有損。仰慰且溯。羲發。經宿還巢。頽然作尸居人。乃知令兄稟得之厚。非吾輩所及。令人艷歎。第緣當日應接多撓。未得相對爛商。而奉別之後。僉議以爲令公旣在異鄉。兩有司未及薦出。則新荆之所未免空虛。其於事體。似欠周徧。故不得已因道會中僉議。薦出兩邑本孫中兩人。以爲數年拮据成樣之地。而社長一位則付之本鄉。想令兄之意。亦無異同矣。伏惟照察。

與洪東伯 敬謹 丙戌在軍題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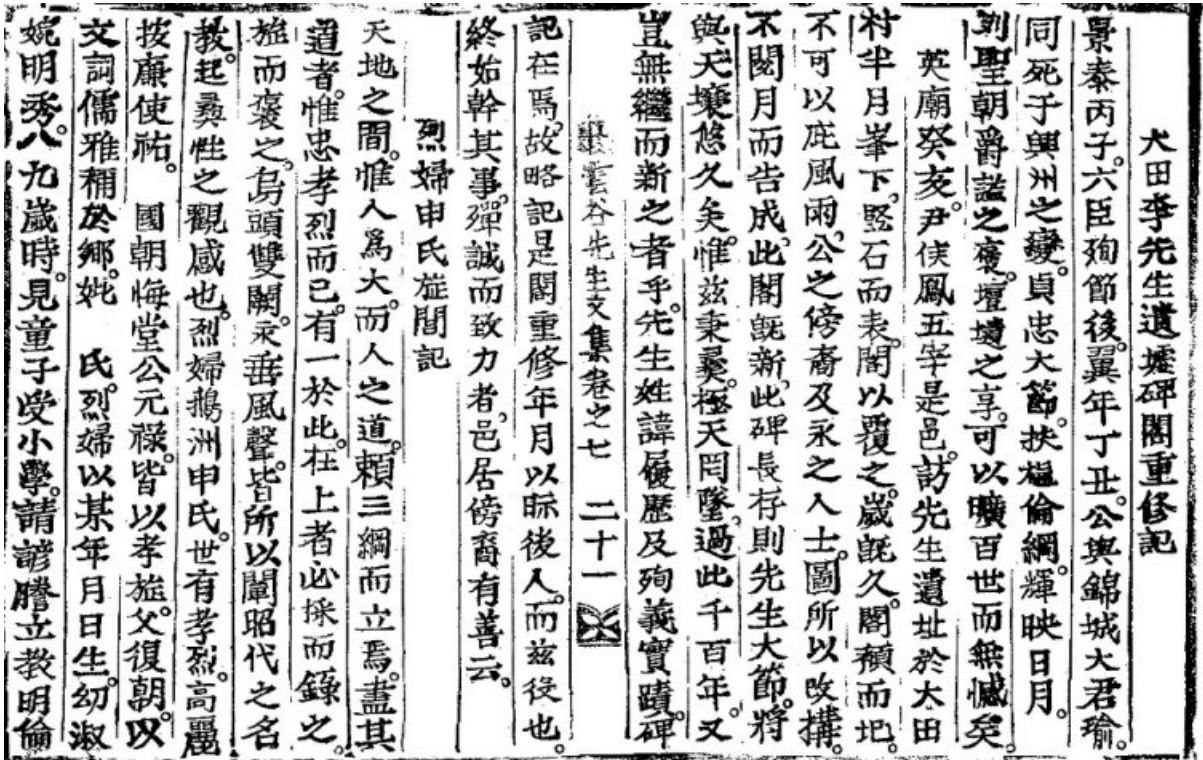
一見金剛。天下同願。而閣下乃以採訪風謠之餘。逶迤旌節於萬二千峰之間。辦得了昇平壯遊之盛事。

卷之七 / 記

열부신씨정려기 烈婦申氏旌閭記 이익수(李益修)

21世 이익수(李益修) 父 : 복조(復朝) 祖父 : 종혁 (宗赫) 읍파(邑派) 화곡공파(華谷公派)

天地之間。惟人爲大。而人之道。賴三綱而立焉。盡其道者。惟忠孝烈而已。有一於此。在上者必採而錄之。旌而褒之。烏頭雙闕。永垂風聲。皆所以闡昭代之名教。起彝性之觀感也。烈婦鵝洲申氏。世有孝烈。高麗按廉使祐。國朝悔堂公元祿。皆以孝旌。父復朝。以文詞儒雅稱於鄉。妣<sup>㉠</sup>氏。烈婦以某年月日生。幼淑婉明秀。八九歲時。見童子受小學。請諺謄立教明倫<sup>㉡</sup>二篇於長者。晨夕誦之。必欲循蹈。及笄歸于士人李益修。入門而婦道甚修。事舅姑孝。承君子以眉睫。相敬如賓。夫亦端士也。自弱冠能劬經飭行。有遠大期。己卯春。自省試歸。嬰奇疾數歲沉痾。烈婦殫竭誠力。凡藥物調護。靡不用極。夜必沐浴禱天。願以身代。如是者累月。而竟不救。舅姑絕粒號慟。舉室遑遑。時尊姑淑人在世。烈婦執粥飲。向舅姑涕泣言。脩短命也。若以是貽憂於八耄重堂。於亡人反重不孝之罪。願且寬抑。必先嘗勸進以慰解之。初終衣衾。手自裁縫。必誠信無憾。及就木。哀號幾絕。而在舅姑傍。動止如<sup>㉢</sup>平日。家人不以爲慮。防守稍懈。是夜入寢房自縊。渾室驚救。而已莫之及矣。懷裏有二封書。一上父母。自責以不孝。一上舅姑。有望於繼後。餘外無一言。嗚乎。烈婦當遭變之日。已以一死自決。而不露辭氣。處變如是之雍容。其裁擇義理之精。成就節烈之卓。雖古之載錄於三綱五倫之編者。何以加焉。道臣啓聞請褒。上特允之。其旌閭之命。適降於烈婦下從之日。亦異矣。豈非一團節烈之氣。有足以徹九閭而動神明也耶。噫。臣而忠。子而孝。婦而烈。人道無二致也。聖朝褒美之典如此。豈宜爲烈婦一時之光。<sup>㉣</sup>其扶植彝倫之功。亦可以勸忠孝於百世矣。過是閭者。其亦有以識此也夫。





二篇在長者。晨夕誦之。必欲循蹈。及笄歸于士人李  
 益修。入門而婦道甚修。事舅姑孝。承君子以眉睫。相  
 敬如賓。夫亦端士也。自弱冠能劬經。飭行。有遠大期。  
 已卯春。自省試歸。嬰奇疾。數歲沉痾。烈婦殫竭誠力。  
 凡藥物調護。靡不用極。夜必沐浴禱天。願以身代。如  
 是者累月。而竟不救。舅姑絕粒號慟。舉室遲遲。時尊  
 姑淑人在世。烈婦執粥飲。向舅姑涕泣言。脩短命也。  
 若以是貽憂於八耄重堂。於亡人反重不孝之罪。願  
 且寬抑。必先嘗勸進以慰解之。初終夜衾。手自裁縫。  
 必誠信無憾。及就木。哀號幾絕。而在舅姑傍。動止如  
 平日。家人不以為慮。防守稍懈。是夜八寢房自縊。渾  
 室驚救而已莫之及矣。懷裏有二封書。一上父母。自  
 責以不孝。一上舅姑。有望於繼後。餘外無一言。嗚乎。  
 烈婦當遭變之日。已以一死自決。而不露辭氣。處變  
 如是之雍容。其裁擇義理之精。成就節烈之卓。雖古  
 之載錄於三綱五倫之編者。何以加焉。道臣 啓聞  
 請褒。上特允之。其旌閭之 命。適降於烈婦下從  
 之日。亦異矣。豈非一團節烈之氣。有足以徹 九閭  
 而動神明也耶。噫。臣而忠。子而孝。婦而烈。人道無二  
 致也。 聖朝褒美之典如此。豈宜為烈婦一時之光

雲谷先生文集卷之七 二十二

其扶植彝倫之功。亦可以勸忠孝於百世矣。過是閭  
 者。其亦有以識此也夫。

越州養士齋記

天之降才。無古今山野之殊。夫以越之山水明秀。風  
 氣淳古。節義忠孝之士。自昔有聞。而獨於文學。不及  
 他邑者。豈其才之罪哉。誠以作興之無其方。而教養  
 之無其具故也。如湖嶺間諸郡邑。往往有曠學之田。  
 養士之資。時以設講試藝。使為士者游息於斯。而種  
 文績學之徒。知所以勸。此其所以有彬蔚之可觀。而  
 本府處在窮峽。其於養士之具。獨有所未遑焉者。今

雲谷先生文集卷之七 二十三

幾百年矣。竊嘗有慨於是。出俸餘若干緡。以為之倡。  
 而議及于邑之一二文士。則闔境興起。各自湊合。總  
 之為百有餘數。付之一鄉。自今年為始。取其贏以為  
 冬夏勸課之資。此本邑養士齋之所以設也。以本府  
 之士。齊財置。雖公物之重。常慮於民力之不給。而今  
 此鄉論之。從其所願。不欲者不強。而旬月而事集。  
 夫豈偶然耶。夫士之所貴乎文學者。非徒為其掇拾  
 見聞。締繪章句。以之競葩藻。占科第而已。曾子曰。君  
 子以文會友。以友輔仁。使今日之興於斯者。讀聖賢  
 之書。究義理之實。校院而息紛爭。鄉黨而興禮讓。儒



卷之十一 / 祝文

여부아주신씨정려고유문 대본손작 烈婦鵝洲申氏旋閨告由文 代本孫作

21世 이익수(李益修) 父 : 복조(復朝) 祖父 : 종혁(宗赫) 읍파(邑派) 화곡공파(華谷公派)

恭惟夫人。天資貞淑。生長閨房。動由矩矱。及有所歸。禮敬相勸。歲在單閼。天降禍酷。三從義重。一死志決。懷有二書。瀉盡腔血。措處從容。義理精熟。萬古倫綱。節烈之卓。衿紳聯籲。營府轉達。恩命到家。下從之日。地主給材。鄰氓助役。巋然一閨。烏頭雙闕。士林將事。諫議記實。山川改觀。草樹生色。遺老興嗟。行人必式。哀榮兩至。風教永賴。祇承寵典。采增愴慕。吉日洵酌。敢伸虔告。

雲谷先生文集卷之十一 三

霜巖日烈。時宰有書。舌銛筆鉞。文誅學士。詩題古曆。卓哉桐翁。元氣蒼得。睽彼某里。同我遐濁。遂與世違。晦而南谷。頑廉懦立。炳琅昭代。遺風寢遠。志士增慨。舊甲重面。宸衷曠感。東銓華秩。神人無憾。馳及同瑩。并隆封黜。藪余孱孫。抱茲 恩誥。玉川之陽。有屹封隧。徹泉殊渥。東海無垠。敬錄 麻誥。有薰蕭烟。哀榮並至。愴慕何堪。精虔敢告。庶賜鑑臨。

烈婦鵝洲申氏旋閨告由文 代本孫作

恭惟夫人。天資貞淑。生長閨房。動由矩矱。及有所歸。禮敬相勸。歲在單閼。天降禍酷。三從義重。一死志決。懷有二書。瀉盡腔血。措處從容。義理精熟。萬古倫綱。節烈之卓。衿紳聯籲。營府轉達。恩命到家。下從之日。地主給材。鄰氓助役。巋然一閨。烏頭雙闕。士林將事。諫議記實。山川改觀。草樹生色。遺老興嗟。行人必式。哀榮兩至。風教永賴。祇承 寵典。采增愴慕。吉日洵酌。敢伸虔告。

雲谷書堂開基告由文

金城特立。鎮我韶邑。一麓南走。氣鍾靈淑。龍盤鷄抱。向陽開局。慳秘百禩。有待今日。茲營小築。以付餘年。拋却俗冗。奴捨殘編。鷓棲之拙。鹿門之安。維神垂臨。

卷之十二 / 祭文

여부아주신씨정려고유문 代本孫作 烈婦鵝洲申氏旋閩告由文 代本孫作

20世 면주(冕周) 父 : 흥교(弘教) 祖父 : 황(煌) 음파(邑派) 만오공파(晩悟公派)

於休我公。吾黨之望。悔隱家範。孝友敦尚。城南舊宅。棣萼聯芳。有斐才行。令聞圭璋。開口詠鳳。吐氣爲虹。奚施不可。清澗芙蓉。蜚英妙歲。有漸儀鴻。心上經綸。筆下詞章。平步雲衢。金馬玉堂。採珠塞垣。士服公明。含香建禮。寵眷輝燐。薄退仙閣。菊畦觀生。鬢玉俱白。家計愈清。東岡界閒。西掖夢輕。塵刹報佛。吾輩同盟。烏頭一方。屹彼漁亭。延吳過劫。理固難詳。余亦傷虎。言不敢長。望八乘化。君子之終。獨立人世。哀此衰癯。生同一世。居又一鄉。南北之蘭。共臭齊香。爭爲大戊。善謔逢場。峩洋迭奏。鉅蛩相將。及此同病。各守深局。二豎爲伴。一札紆情。晨星落落。雲樹蒼蒼。尚冀此生。有時聯翔。雪鬢垂白。霧眼拭青。造物揶揄。遂隔冥冥。斤存質亡。萬事吞聲。螟誨繼體。鳳毛留庭。病與情違。力難自強。沒未助含。葬違臨壙。平生交誼。多愧巨卿。緘辭替哭。有淚如傾。惟靈不昧。歆此一觥。

祭申承旨成之文

於休我公。吾黨之望。悔隱家範。孝友敦尚。城南舊宅。棣萼聯芳。有斐才行。令聞圭璋。開口詠鳳。吐氣爲虹。奚施不可。清澗芙蓉。蜚英妙歲。有漸儀鴻。心上經綸。筆下詞章。平步雲衢。金馬玉堂。採珠塞垣。士服公明。含香建禮。寵眷輝燐。薄退仙閣。菊畦觀生。鬢玉俱白。家計愈清。東岡界閒。西掖夢輕。塵刹報佛。吾輩同盟。烏頭一方。屹彼漁亭。延吳過劫。理固難詳。余亦傷虎。言不敢長。望八乘化。君子之終。獨立人世。哀此衰癯。生同一世。居又一鄉。南北之蘭。共臭齊香。爭爲大戊。善謔逢場。峩洋迭奏。鉅蛩相將。及此同病。各守深局。二豎爲伴。一札紆情。晨星落落。雲樹蒼蒼。尚冀此生。有時聯翔。雪鬢垂白。霧眼拭青。造物揶揄。遂隔冥冥。斤存質亡。萬事吞聲。螟誨繼體。鳳毛留庭。病與情違。力難自強。沒未助含。葬違臨壙。平生交誼。多愧巨卿。緘辭替哭。有淚如傾。惟靈不昧。歆此一觥。

祭李俊齋際可文

嗚呼。公以天賦粹美之資。承家學淵源之正。在世七十有六年之間。八以有墳床道義之樂。出而爲儒林山斗之望。聲聞重於鄉邦。惠化留於郡邑。則亦庶乎

雲谷集 卷十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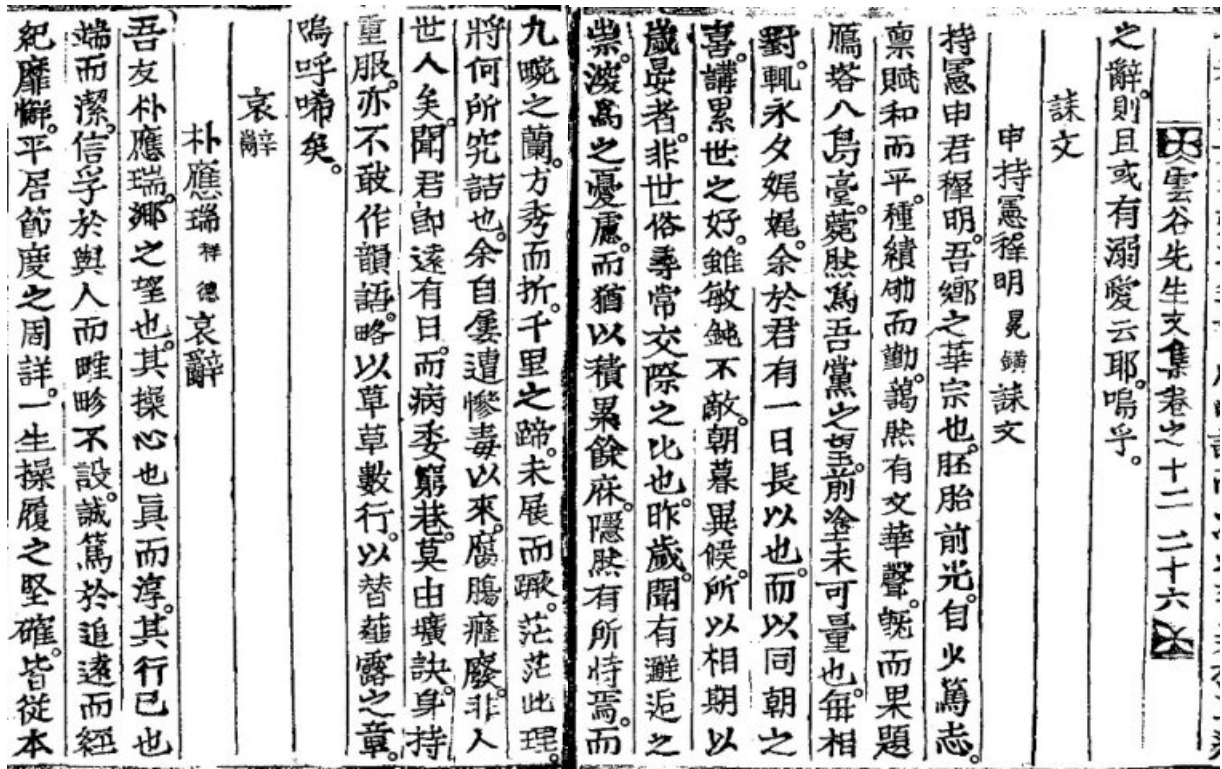
卷之十二 / 誄文

신지헌(申持憲) 釋明 冕 鎭 誄文

20世 冕鎭(冕鎭) 父 : 필교(必教) 祖父 : 광헌(光憲)

읍파(邑派) 난재공파(亂齋公派)

持憲申君釋明。吾鄉之華宗也。胚胎前光。自少篤志。稟賦和而平。種績劬而勤。藹然有文華聲。既而果題鴈塔入烏臺。菀然爲吾黨之望。前途未可量也。每相對。輒永夕娓娓。余於君有一日長以也。而以同朝之喜。講累世之好。雖敏鈍不敵。朝暮異候。所以相期以歲晏者。非世俗尋常交際之比也。昨歲。聞有邂逅之崇。深爲之憂慮。而猶以積累餘麻。隱然有所恃焉。而九畹之蘭。方秀而折。千里之蹄。未展而蹶。茫茫此理。將何所究詰也。余自屢遭慘毒以來。腐腸癰廢。非人世人矣。聞君卽遠有日。而病委窮巷。莫由壙訣。身持重服。亦不敢作韻語。略以草草數行。以替薤露之章。嗚呼唏矣。



雲谷先生文集卷之十二二十六  
之辭。則且或有溺愛云耶。嗚乎。

誄文

申持憲釋明 冕鎭 誄文

持憲申君釋明。吾鄉之華宗也。胚胎前光。自少篤志。稟賦和而平。種績劬而勤。藹然有文華聲。既而果題鴈塔入烏臺。菀然爲吾黨之望。前途未可量也。每相對。輒永夕娓娓。余於君有一日長以也。而以同朝之喜。講累世之好。雖敏鈍不敵。朝暮異候。所以相期以歲晏者。非世俗尋常交際之比也。昨歲。聞有邂逅之崇。深爲之憂慮。而猶以積累餘麻。隱然有所恃焉。而九畹之蘭。方秀而折。千里之蹄。未展而蹶。茫茫此理。將何所究詰也。余自屢遭慘毒以來。腐腸癰廢。非人世人矣。聞君卽遠有日。而病委窮巷。莫由壙訣。身持重服。亦不敢作韻語。略以草草數行。以替薤露之章。嗚呼唏矣。

哀辭

朴應瑞 德哀辭

吾友朴應瑞。鄉之望也。其操心也具而淳。其行已也端而潔。信孚於與人而畦畛不設。誠篤於追遠而經紀靡懈。平居節度之周詳。一生操履之堅確。皆從本